

그윽하게 이르나니 아버지가 가신 뒤에 감히 아버지의 글을 읽지 못한다는 것은 수택(手澤)<sup>1)</sup>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글도 오히려 감히 읽을 수 없거늘 하물며 수묵(手墨)<sup>2)</sup>에 있어 서라. 어느 날 진대(塵岱)<sup>3)</sup>속에 고지(故紙)<sup>4)</sup>를 살펴보다가 선세(先世)의 유묵(遺墨)<sup>5)</sup> 약간의 첩(帖)을 발견하였다.

이에 갱장(羹牆)<sup>6)</sup>의 생각과 상재(桑梓)<sup>7)</sup>의 공경함이 진실로 마지않았다. 따라서 한권의 책자를 꾸며서 수전(壽傳)<sup>8)</sup>의 계획을 삼으니 무려 오세(五世)이다. 5세조고(五世祖考)의 정공(議政公)의 목적(墨蹟)으로 제1첩(第一帖)을 만들고, 고조고(考祖考) 교리공(校理公)과 증조고(曾祖考) 의정공(議政公)의 목적으로 제2첩과 제3첩을 만들었다.

그리고 문충공(文忠公)·직장공(直長公) 두 왕고(王考)<sup>9)</sup>의 목적(墨蹟)으로 제4첩과 제5첩을 만들었다. 또 숙조(叔祖)<sup>10)</sup>·계조(季祖)<sup>11)</sup>와 그 차거(次居)<sup>12)</sup>의 세대(世代)도 각각 1첩씩 만들었다. 그러나 끝에 붙인 것은 곧 선고(先考)<sup>13)</sup> 교관공(教官公)의 목적으로 모두 11첩이 되지만 감히 풍일(豐昵)<sup>14)</sup>의 뜻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다만 세월(歲月)에 원근(遠近)의 다름이 있고 남겨둔 것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아~! 이 첩(帖)을 상고하니 애연(優然)<sup>15)</sup>히 경애(警效)<sup>16)</sup>의 친승(親承)<sup>17)</sup>이 있는 듯 하다. 따라서 무릇 우리들의 뒤에 운잉(雲仍)<sup>18)</sup>이 님가 감히 공경히 지키고 보배로 여기어 궁지를 갖지 않겠는가.

숭정기원후(崇禎紀元後) 사을축(四乙丑, 1865) 중춘(仲春) 하완(下浣)<sup>19)</sup>에 불초후손(不肖後孫) 의요(宜堯)는 삼가 씁니다.

竊謂父沒而不敢讀父之書者 手澤存焉故也 書猶不敢讀 況於乎墨乎 日偶閱塵岱中故紙 得先世遺墨若干帖 羹牆之慕 桑梓之敬 固有不容己者 遂粧點一冊 以爲壽傳之計 凡五世也 五世祖考議政公 爲第一帖 高祖考校理公 曾祖考議政公 爲第二第三帖 文忠公直長公 兩王考 第四第五帖 叔祖季祖 又以其次居之世 各一帖而殿于末者 卽先考教官公也 其帖凡爲十一 非敢有豐昵之意而然也 歲月有遠近之殊 而所傳者 亦不無多寡之差耳 嗚呼 按此帖而優然 若警效之親承 則凡我在後雲仍 誰敢不敬守而寶莊焉歲 崇禎紀元後四乙丑仲春下浣 不肖後孫宜堯 謹書

1) 책·그릇 따위에 자주 손을 댄으로 생기는 손때. 물건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손때. 솜씨.

2) 손수 쓴 글씨.

3) 때가 긴 가방. 4) 오래된 종이. 5) 죽은 뒤에 남겨진 글씨나 그림.

6) 국과 담장의 의미로 경모(敬慕)하고 추념(追念)함을 이르는 말. 『후한서(後漢書)』 「이고전(李固傳)」에 요(堯) 임금이 죽은 뒤에 순(舜) 임금이 시묘하여 앉았을 적에는 요 임금이 담장에서 보이고 밥 먹을 적에는 국에서 보였다고 하였음.

7) 뽕나무와 가래나무. 옛날에는 집 주위에 뽕나무와 가래나무를 심어 두어서 후세의 자손들에게 조상을 생각하게 했다고 함.

8) 오래도록 전(傳)함. 또는 그러한 일. 9) 죽은 할아버지. 10) 할아버지의 동생. 11) 할아버지의 막내 아우. 12) 그 차례의 위치.

13) 돌아가신 아버지. 14) 자기의 선고(先考)에게 후(厚)하게 대접함. 15) 어렴풋이 모이는 모양.

16) 기침 소리. 인기척 내는 헛기침. 이야기 하면서 웃는 것. 17) 명령을 친히 받음. 18) 운손(雲孫)과 잉손(仍孫). 원손(遠孫)을 일컫음.

19) 하순(下旬). 그 달의 21일부터 그믐날까지의 동안.

얼마 전에 해후(邂逅)하여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고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물건 데 반패(返旆)<sup>20</sup>한 뒤에 형(兄)의 정리(靜履)<sup>21</sup>가 충적(冲適)<sup>22</sup>하든지 우러러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이 아우는 겨우 고객(顧客)<sup>23</sup>으로 보존할 뿐이니 나머지는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백전의(白前議) 송석곡(宋石谷) 사우(祠宇)<sup>24</sup>에 관한 부조(扶助)의 일은 다시 제우(儕友)<sup>25</sup>들에게 서로 확인하여 문자(文字)를 발송하였습니다.

경중(京中)에 이찰방(李察訪)의 서신을 보니 문자를 발송하면 욕을 취할까 봐 염려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인읍(隣邑)에 동지(同志)들과 함께 출력(出力)<sup>26</sup>하여 도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이 뜻을 생각하면 또한 깊은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의논한 발문(發文)에 관한 일은 이 자신의 뜻이 미치지 못한 듯 합니다. 도(道)에 전할 문자(文字)는 우선 발송할 초안을 내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판단하라는 글을 아뢰다면 경제(京儕)<sup>27</sup>의 뜻과 합치되니 또한 매우 좋다고 합니다. 바라건데 이것을 믿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을 오로지하여 남을 시킨다면 욕을 얻어먹는 역사(役事)일 뿐입니다. 이곳 이웃 고을 동래(東萊)·양산(梁山)·김해(金海) 세 곳은 반드시 도움을 보내고자 합니다. 여기에 빠진 일곱 고을은 통고(通告)를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아우는 마땅히 그 사시에서 주선하여 그들의 뜻을 살피겠습니다. 우선 다 아뢰지 못하고 부복(俯伏)<sup>28</sup>하여 하조(下照)<sup>29</sup>를 바랍니다.

신유(辛酉, 1681)년 11월 7일 소제(小弟) 숙(涑)은 올립니다.

頃者邂逅 一慰一悚 卽問返旆 後

兄靜履冲適 邈仰不涉 弟董保 雇客 餘何可言 仍白前議 宋 石谷祠宇扶助事 更爲相確於 儕友 而已發文字耶 卽見京中 李察訪書 則以發文取辱爲慮 而約與隣邑同志 共出力以助 爲宜云 此意可想 而亦可謂深 思也 曾議發文事 逮此身意 如未及矣 道傳文字 姑勿發送 抄出 可使之處判爲文告 則合 於京儕之意 而且甚便好 幸 諒此以爲如何 爲此專伴 凡得 辱之役耳 鄙居隣邑 則東萊梁 山金海三處 必欲送助 有遺七 邑 鄙府不爲通告如何 弟當周 旋於其間 以觀厥輩之意 既姑 不宣 伏惟不照

辛酉庚子冬七日 小弟 涑頓

20) 기치(旗幟)를 돌리다는 뜻으로 출정한 군대나 여행하는 사람들이 돌아가거나 돌아옴을 이르는 말.

21) 일을 조용하게 이행함을 뜻함.

22) 차분하고 적실함.

23) 품팔이하는 나그네. 여기에서는 보잘것없는 관직을 비유함.

24) 따로 세운 사당집. 선현(先賢)과 열사(烈士)를 향사(享祀)하는 재소(齋所).

25) 동료(同儕). 여러 벗.

26) 돈을 내어 사업을 도움.

27) 서울에 살고 있는 벗.

28) 고개를 숙이고 엎드림.

29)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정을 비추어 헤아림. 주로 편지에 사용함.

일간(日間)에 안부(安否)의 서신(書信)을 패중(旆中)<sup>30</sup>에 부쳤으니 감조(鑿照)<sup>31</sup>를 바랍니다. 이어서 안부를 드리지 못하고 이제야 서신을 전합니다. 행이(行李)<sup>32</sup>의 모든 일과 일신(一身)이 편안하오며 바야흐로 지금엔 어느 곳에 이르렀습니까. 이 뒤 어느 날에 용만(龍灣)<sup>33</sup>에 도착 할 것입니까. 행진(行塵)<sup>34</sup>이 늦어질듯 함을 날로 깨닫고 다만 서쪽으로 바라보면서 슬프게 합니다.

또한 관내(關內)에 구환(口患)이 비록 대단하지는 않지만 근심스러운 증후(証候)로써 계속 고통이 생길 것이니 봉려(奉慮)<sup>35</sup>가 많습니다. 생각하건데 길을 가는 사람이 자상하고 조심할 뿐입니다. 이 아우는 시봉(侍奉)<sup>36</sup>이 전일(前日)과 같이 황급하고 다만 사중(舍仲)<sup>37</sup>은 적취(積瘁)<sup>38</sup>한 나머지 거듭 한열(寒熱)이 오른 지가 지금 9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미(一味)<sup>39</sup>가 더욱더 위독하고 증후(證候)가 범상치 않습니다. 또한 의원(醫員)이 매우 걱정하고 탈급(奪急)의 형상이 있으니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교정(李交楨)이 바야흐로 만운(灣尹)<sup>40</sup>의 막하(幕下)에 있으니 하여금 들은 바는 행가(行駕)<sup>41</sup>가 용만(龍灣)에 이르는 날에 모름지기 맞이하여 모신다고 합니다. 하수(河水)의 광색(光色)은 어떻습니까. 서로가 이별할 때에는 심란하여 부탁하지 못하다가 지금에 모두 부탁할 뿐입니다. 그러나 다소(多少) 심란하여 자상하게 드리지 못하고 부복(俯伏)하여 영조(令照)<sup>42</sup>를 바랍니다. 안부를 묻고자 글을 올립니다.

경술년(庚戌年, 1730) 9월 10일  
복제(服弟)<sup>43</sup> 태현(泰賢) 돈배(頓拜)<sup>44</sup>.

日間候書 付入旆中 其乞  
鑿照 未仍侯而今  
行李凡百 一萬安善 而方抵何地  
此後幾日 當到龍灣耶 日覺行塵似遠  
只令人西望 溱悵關內口患 雖非大段 可憂之証  
彌彌作苦 奉慮萬萬 想行者仔欲尤備耳  
弟侍奉急遑 一如前日 且舍仲積瘁之餘  
重上寒熱 今至九日 一味彌篤 証候非常  
醫人頗有深憂 亦返奪急之狀 何可言之  
李交楨 方在灣尹幕下 令所聞之者  
行駕到灣之日 卽須延見賴侍 河生光色如何  
相別時色 撓未能相托 今相盡囑耳  
多少心撓 不能細及 伏惟令照 拜侯狀上

庚戌九月十日 服弟 泰賢 頓

30) 깃치를 들고 열을 지어 행차는 그 속.  
31) 주로 편지에 사용하는 문자(文字)로써 그 내용을 살펴봄을 뜻함.  
32) 어떠한 구실을 띠고 길을 떠나가는 사람. 또는 그러한 일.  
33) 땅 이름. 평안북도 의주(義州)에 있던 중국 사신을 접대하던 곳.  
34) 도로위의 먼지. 또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감을 비유함.  
35) 주로 편지에 사용하는 문자로 윗 사람을 염려함을 뜻함.  
36) 부모를 모시어 받들음.  
37) 자기 집안의 중형(仲兄).  
38) 병들고 피곤함이 쌓임.  
39) 음식에 별다른 맛을 느끼지못함.  
40) 만(灣)의 우두머리. 여기에서는 용만(龍灣)의 우두머리.  
41) 행차하는 명에.  
42) 주로 편지에 쓰는 문자(文字)로써 상대방을 높혀 살펴달라는 뜻임.  
43) 상중(喪中)에 있는 자신을 일컬음.  
44) 주로 편지에 사용하는 문자로써 머리를 조아리고 절함.

영협(嶺峽)으로 떨어져 가면서 생각이 끊임없었습니다.  
 혜찰(惠札)<sup>45)</sup>의 정중함을 받았습니다.  
 이 무더위에 정리(政履)<sup>46)</sup>가 휴상(休相)<sup>47)</sup>하신지 구구(區區)<sup>48)</sup>한 위로의 생각을 꼬집어 아뢰기 어렵습니다. 지난 봄부터 양근(楊根)<sup>49)</sup>땅에 우거(寓居)하면서 새롭게 모든 일을 접하여 모양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 가운데에 거듭 지친상(至親喪)의 소식을 접하여 슬픔으로 날을 보내니 더욱 기쁜 실마리가 없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혜롭게 보내주신 절삼(節筵)은 의례히 받으니 다행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곱게 꾸민 모양은 너무 아름답지만 전죽(箭竹)이 지나치게 부드러워 바람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좌우(左右)의 간국(幹局)<sup>50)</sup>이 오히려 주편(周遍)을 다하지 못하여 그런바가 있지 않은가 우습습니다. 남은 여러 사연은 우선 다 하지 못하고 부복하여 승조(崇照)<sup>51)</sup>를 바라면서 삼가 답을 올립니다.

落去嶺峽 因想政勤 獲拜  
 惠札 就重伊時溥暑  
 政履休相 區區慰浣 難以名喻  
 從去春來 寓于楊根地 新對凡  
 百 無以成樣之中 荐承至親喪  
 報 悲悼度日 益無說緒奈何  
 惠來節筵 依領感幸 芳製樣太  
 妙 箭竹過柔 有欠風生 此由  
 於左右之幹局 猶有所未盡周  
 遍而然耶 可呵 餘萬姑不宣  
 伏惟  
 崇照 謹謝狀

壬申七月二十日 族從 鎮頓

임신년(壬申年,1752) 7월 20일  
 족종(族從) 진(鎭) 돈배(頓拜)<sup>52)</sup>.

45) 남이 보내어온 편지를 높이어 이르는 말.

46) 서간문에서 평교 사이에 지방 수령의 안부를 말할 때 쓰는 말.

47) 좋은 바탕. 훌륭한 형태.

48) 조그마한 모양. 변변하지 못함.

49) 군(郡) 이름. 지금의 경기도 양평군(楊平郡) 양평읍 양근리 지역에 있었다. 본래 고구려의 양근군(楊根郡)이었는데 신라 경덕왕(景德王)때 빈양현(濱陽縣)으로 개칭하였다가 고려초에 다시 양근으로 고쳐 광주(廣州)에 예속시켰고 고종(高宗)때에 영화(永化)로 고쳤으며 원종(元宗) 10년(1269)에 익화(益和)로 고쳤고 공민왕(恭愍王) 5년(1356)에 양근군으로 환원하였다. 용희(隆熙) 2년(1908)에 지평현(砥平縣)과 합하여 양평군이 되었다.

50) 일을 잘 처리해 나가는 재간(才幹). 여기에서는 줄기와 판을 뜻함.

51) 주로 서간문에 사용하는 문자로써 상대방의 살피움을 높혀 일컬음.

52) 고개 숙여 절함. 서간문의 말리어 사용하여 자기의 공경함을 뜻함.

부복(俯伏)하고 생각하니 무더위에 태감(台監)께서는 열흘 남짓한 사이에 체리(體履)<sup>53</sup>가 청중(淸重)<sup>54</sup>하십니까? 그리고 하거(下車)<sup>55</sup>할 즈음에 큰 비가 쏟아졌나니 추성(秋成)<sup>56</sup>에 그나마 희망이 있습니까. 저는 쇠질(衰疾)<sup>57</sup>이 더하고 중임(重任)이 신상(身上)에 있으니 근심스럽고 부끄러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의 병으로 인하여 의원(醫員)을 회덕지방(懷德地方)에서 맞이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판관(判官)에게 서신(書信)으로 부탁하노니 혹 관련되는 영문(營門)에 있다면 모름지기 시술(施術)할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겨우 대겁(大劫)<sup>58</sup> 진탕(震盪)<sup>59</sup>의 근심은 지났지만 남아있는 계심(悸心)<sup>60</sup>은 오히려 가시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조정(朝廷)의 우충(尤忠)<sup>61</sup>으로 인하여 할 말이 없으니 감히 천청(天聽)<sup>62</sup>의 격식이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까. 이것을 이른 바 죽음만 같이 못하다는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남은 말은 다 하지 못하고 글을 올립니다.

을묘(乙卯, 1795)년 계하(季夏)<sup>63</sup> 염사(念四)<sup>64</sup>  
아우 환지(煥之) 배상(拜上).

伏惟溽暑  
台旬餘 體履淸重 下車之際  
大兩沛然 秋成庶有望耶 弟衰  
疾添頓 重任猶在 身上 憂愧奈  
何 因兒病 欲邀醫於懷德地方  
書託於判官 或有所關營門者  
幸須另念施之焉 纔過大劫震  
盪之憂 而餘悸尙未已 誠因在  
廷之尤忠 無狀 敢望天聽之格  
回耶 是所謂不如死之久矣 餘  
不宣拜狀上

乙卯 季夏之念四 弟煥之 拜

53) 몸의 건강 상태.  
54) 청고(淸高)하고 온중(穩重)함.  
55)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감. 또는 지방관의 부임을 지칭하기도 함.  
56) 추수(秋收).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걷어 들이는 일. 가을걷이.  
57) 노쇠(老衰)하여 오는 증세.  
58) 크게 겁박함.  
59) 몹시 울려서 흔들림.  
60) 가슴이 두근거리는 심정.  
61) 그릇된 충성. 빛나간 충성.  
62) 하늘의 들음. 천자(天子)의 들음.  
63) 음력 6월.  
64) 음력으로 매월 24일.

부복(俯伏)하고 지난 5일에 보내오신 서신을 이어받았습니다. 살펴보건 데 가을이 점점 쌀쌀한데 여관(旅館)에 오락(搖落)<sup>65</sup>하여 체도(體度)<sup>66</sup>가 심히 손상됨이 없는지 위로하고 받들어 구구(區區)함을 감당치 못합니다. 해도(海島)에 상청(霜淸)<sup>67</sup>·수락(水落)<sup>68</sup>할 때에 귤유(橘柚)·백류(栢榴)의 등속을 바로 완상(玩賞)<sup>69</sup>하기에 좋습니다. 혹도 장구(杖屨)<sup>70</sup>로 등림(登臨)하여 천객(遷客)<sup>71</sup> 유우(幽憂)<sup>72</sup>을 보낼 길이 있습니까. 체후(體候)는 요사이 안녕하고 수주(嫂主)의 병환은 짐짓 절기(切忌)의 근심이 없고 아이들도 아무런 일 없다고 하니 다행하여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계군(季君)의 아이가 환설(患泄)<sup>73</sup>이 오래되어 진퇴(進退)가 평상시와 다르니 이것이 염려가 됩니다. 이 아우가 곁에서 대기하여 어저께에 아이의 병이 그의 평상시와 같이 회복되어 기쁨이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科場)<sup>74</sup>에는 한 차례의 요양(撓攘)<sup>75</sup>을 면치 못하여 방(榜)<sup>76</sup>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덕조(德操)는 또 아들을 낳으니 기쁘고 삼형(三兄)은 그믐전에 작행(作行)<sup>77</sup>하니 창망(悵惘)<sup>78</sup>함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우(李友) 사신(士慎)은 슬권(率眷)<sup>79</sup>하여 그들의 선산(先山)아래로 내려가니 앞으로 영원한 뜻이 있는 듯 합니다. 이것은 그 분의 용감한 결정도 진실한 뜻이 이른 것입니다. 조만간 북쪽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땅히 지나보기가 편리하니 그의 거주(居住)는 대로(大路)와의 거리가 5리쯤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짐짓 갖추지 않고 글을 올리니 하찰(下察)<sup>80</sup>를 바랍니다.

계사(癸巳, 1773)년 8월 25일

아우 찬지(燦之) 올림.

伏承初五

下書 就審秋意漸涼

旅館搖落 體度無甚損節 伏慰  
且奉 不任區區 海島霜淸水落  
時 橘柚栢榴之屬 正好賞玩  
或有杖屨登臨 消遣遷客幽憂  
之道否

體候近年安寧 嫂主所患 姑無  
切忌之憂 兒少亦皆無事 伏幸  
何言 唯是季君之兒 患泄日久  
進退無常 此爲之念也 弟待側  
依昨 兒病卽幾如常 喜莫如矣  
科場不免撓攘一番 而榜姑未  
出耳 德操又得男可喜 三兄當  
於晦前作行 悵惘有不可言 李  
友士慎 率眷下往於公州之其  
墓下 將有水久之意 此君之能  
必勇決 誠亦有意到也 早晚此  
還之路 當有歷見之便 其居距  
大路 不過爲五里許云耳 姑不  
備伏惟下察

癸巳 八月 廿五 弟燦之 上書

65) 흔들려 떨어짐. 흩어져 가버림.

66) 체후(體候). 남에게 안부를 묻는 경우 그의 기거(起居)를 높이어 일컬음.

67) 서리가 맑고 깨끗함. 곧 가을이 질어 감을 뜻함.

68) 하천(河川)에 물이 감소됨. 가을이 되어 강우량(降雨量)이 줄어들음.

69) 즐겨 구경함. 70) 지팡이와 짚신. 71) 귀양살이 하는 사람.

72) 속이 답답함. 73) 설사병을 앓음. 74) 과거 시험장.

75) 교란하고 요란스러움. 76) 여러 사람에게 보여 알리기 위하여 써 붙이는 글.

77) 길을 떠나감. 78) 슬프고 경황이 없음.

79) 집안에 거느리고 있는 식구를 데려 감. 80) 내려 살펴줌.

일전(日前)에 인편(人便)<sup>81</sup>이 있을듯하여 편지를 써놓고 아직 발송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곧 부복(俯伏)하여 내려준 서신(書信)을 받았습니다. 삼가 살피고 마음이 치닫는 나머지 체후(體候)<sup>82</sup>의 동지(動止)<sup>83</sup>가 복을 더하여 만안(萬安)함을 알았습니다. 부복(俯伏)하여 위로하는 구구(區區)<sup>84</sup>한 마음으로 먼 밖의 회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아우는 굵어 생각하노니 이상서(李尙書)가 끊어진 변방(邊方)에서 서로 위로하다가 갑자기 먼저 돌아왔으니 어찌 창연(愴然)<sup>85</sup>한 심정이 없겠습니까. 막내 아우는 짐짓 예부터 웅졸하건만 자당(慈堂)<sup>86</sup>의 건강이 요사이 자못 편안하니 사사롭게는 이보다 다 행함은 없습니다. 보제(補劑)<sup>87</sup>는 아직 지어 바치지 못했거니와 김군(金君)의 말에 귀비탕(歸脾湯) 10여 첩(帖)이 아니면 진실로 효험을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

이번에 얻은 약재(藥材)는 다시 의논할 것이 없으니 기운을 도우는 보제(補劑) 가운데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얻은 태화환(太和丸)<sup>88</sup>의 등속을 지어 바치어 만전(萬全)의 길을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황구환(黃狗丸)을 지어 바치니 효험은 있고 해로움은 없는 듯 합니다. 하주(何朱)의 아이들도 근간(近間)에 잘 있으니 우환(憂患)이 가십니다.

막내 아우는 14일에 추행(楸行)을 시작으로 평아(平衙)로 향하여 아직 돌아오지 못하였건만 낙하(洛下)의 소식은 마땅히 귀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번거로운 말 필요 없이 얼마진 소결(疏決)<sup>89</sup>에서 날로 성은(聖恩)<sup>90</sup>의 사환(賜環)<sup>91</sup>을 바랍니다. 내려 주신 3수(三首)의 시(詩)를 우리러 받고 두 번 세 번 봉독(奉讀)하면서 생각이 그 사이에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아우도 일찍이 지은 시(詩)가 있으므로 이에 서신으로 보내 드려 절새(絕塞)<sup>92</sup>에 한바탕 웃음거리가 되려고 할 뿐입니다. 남은 여러 가지 말은 다 갖추지 못하고 부복하여 하감(下鑿)<sup>93</sup>을 바랍니다. 삼가 재배(再拜)하고 평서(平書)<sup>94</sup>를 올립니다.

신묘(辛卯,1783)년 8월 18일  
사제(舍弟)<sup>95</sup> 위지(煒之) 배수(拜手)<sup>96</sup>.

日前似有便 裁書未發 卽伏承  
下書 謹審驅馳餘 到識體候動  
止 增祉萬安 伏慰區區無任遠  
外之懷 弟伏想李尙書絕塞相  
慰之餘 遽已先歸 安能無悵然  
之情也 季弟姑遣宿拙 而  
慈堂氣候 近頗安寧 私幸莫大  
補劑姑未進用 而金君之言內  
歸脾湯 若非十餘帖 則誠難見  
效云 所得藥料 此則殆不足更  
與相議 則益氣補中之劑 似爲  
勝 故太和丸之屬 欲爲製進  
而善

爲繼用萬全之道也 黃狗丸 卽  
爲製進 而似有效而無害 何朱  
之兒輩 近亦好在 而憂患可霽  
矣 季弟十四日作楸行 抵向平  
衙 姑未還而洛下消息 當自有  
入耳者矣 不必煩說 向來疎次  
日望聖恩之賜環 而仰承  
下示三詩 奉讀再三 不覺神馳  
其間也 弟亦曾有所構 茲以書  
呈 以爲絕塞一笑之資耳 餘萬  
不備 伏惟 下鑿 謹再拜上平  
書

辛卯 八月 十八日 舍弟 煒之  
拜手

81) 오가는 사람의 편. 82) 남에게 안부를 묻는데 쓰는 말.  
83) 움직이는 일과 멈추는 일. 84) 변변하지 못하다. 사소하다. 의 뜻.  
85) 서운하고 섭섭한 모양. 86) 남의 어머니의 높임말.  
87) 몸을 보하는 약. 88)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환약(丸藥).  
89) 감옥에 오래 갇혀 있는 미결수들을 임시로 판결함. 90) 임금의 베푸는 은혜.  
91) 내치어 쫓아낸 신하를 용서하여 다시 부름. 92) 멀리 떨어진 국경의 목책(木柵).  
93) 서간문에 주로 사용하는 어휘로써 아래로 살펴줌을 뜻함. 94) 안부를 묻는 편지.  
95) 자기 아우의 낮춤말. 형에게 대하여 아우가 자기를 일컫는 말.  
96) 손을 들어 읊하고 절함. 편지를 써서 남에게 보낼 때 그 편지를 상위에 얹어놓고 절을 한 뒤에 보내는 것을 말함.

극심한 더위가 찌는 듯한 이때에 기체(氣體)<sup>97</sup>가 어떠하십니까. 얼마 전 갑자기 체기(滯氣)<sup>98</sup>로 여러 차례 다속(茶屬)을 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소합원(蘇合元)을 시험하니 가볍지 않게 긴요함을 미루어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지경을 지나면서 오히려 우려(憂慮)가 많다고 하겠으나 그간에 침식(寢食)의 모든 것이 손상됨이 없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서찰(書札)을 굵어 살필 때에는 생각하건데 어자(御者)<sup>99</sup>의 등정(登程)길이 여러 날 지날 것입니다.

부복(俯伏)하고 바라건 데 곳에 따라 때에 따라 더욱더 조양(調養)<sup>100</sup>에 힘을 쓰십시오. 이곳은 형수씨(兄嫂氏)가 체식(滯食) 및 서증(暑證)<sup>101</sup>을 앓았으나 지금은 차차 나아져 다행한 일이니 염려를 마십시오. 모두 갖추지 않고 송달합니다.

갑인(甲寅, 1794)년 6월 25일  
사제(舍弟) 형지(炯之) 올림.

劇炎蒸矣此時  
氣體若何 似伏聞於曩者 忽以滯氣 屢進茶屬 至試蘇合元 則其不輕而緊 可推知矣 雖曰過境 猶多憂慮 伏未知伊間寢食諸節 其無所損者否 比此書下察之時 伏想御者 登程多日矣 唯伏望隨處隨時 益加調養之也 此地則嫂氏所患滯食 及暑證 今又差減 可幸其無慮矣 不備達

甲寅 六月 廿五日 舍弟炯之上書

97) 기체후(氣體候)의 준말. 웃어른께 문안할 때에 쓰는 존대말.

98) 체증의 기미.

99) 임금의 명을 받은 사람.

100) 조리(調理). 음식·거처·동작을 적당하게 하여 쇠약해진 몸을 회복되게 함.

101) 더위의 증세.



머리를 조아리고 아뢰나니 부복(俯伏)하고 살피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신년(新年)에 균체후(勻體候)<sup>102)</sup> 만안(萬安)하신지 구구한 애소(哀澌)<sup>103)</sup>가 하침(下沈)<sup>104)</sup>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고애자(孤哀子)<sup>105)</sup>는 모진 목숨을 구차하게 이어가면서 해가 문득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선친(先親)의 오랜 자취가 날로 멀어지니 하늘과 땅을 부양(頹仰)<sup>106)</sup>하여 울부짖고 사모하여도 미치지 못합니다.

작년 가을에 승정원에서 내려준 선조(先祖)때의 공사(公事) 및 책자를 사적으로 받았습니다. 일찍이 일을 기록하여 전하는 바를 받아서 그냥 유치(留置)하면서 등연(登筵)<sup>107)</sup>할 때에 제주(提奏)<sup>108)</sup>의 교시(教示)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빠르게 흘러 양례(襄禮)<sup>109)</sup>가 문득 지나가고 갑자기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너무 오래 지연하니 진실로 아주 민망할 뿐입니다. 다만 그것을 생각하면 그 때에 하교(下教)가 대신(大臣)들에게 전해졌다는 말이 있거니와 일찍이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석(首席)이 당연히 관리들과 상의할 일인 듯 합니다. 또한 옛날에 이미 한차례 열람한 뒤에 합하(閣下)<sup>110)</sup>에게 도로 올려서 처분의 가르침을 삼으려고 합니다.

허다한 공사(公事)에 하루를 허서(虛徐)<sup>111)</sup>하는 것은 실지로 송구하나 또한 중간에 서실(闕失)<sup>112)</sup>할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원수(原數) 및 승선(承宣)<sup>113)</sup>에서 받든 전교(傳教)를 아울러 싸서 드리오니 합하(閣下)께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슬픔으로 목이 메어 말을 조리 있게 못하니 더욱더 두렵고 혼미함을 더합니다. 남은 말은 차례대로 못하고 합하께서 굽어 살피주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재배(再拜)하고 안후(安候)의 소(疏)를 올립니다.

계해(癸亥, 1803)년 정월(正月) 5일  
고애자(孤哀子) 심능종(沈能種) 소상(疏上)<sup>114)</sup>.

稽顙白 伏未審新元  
勻體候萬安 區區哀澌 不任下  
忱 孤哀子 頑喘苟延 歲色奄  
改 先親陳跡 日以遠矣 頹仰  
穹壤 號慕靡逮 竊稟昨秋 自  
政院所下

先朝時 公事及冊子 曾因錄事  
所傳 伏承姑爲留置 以待登  
筵時 提奏之 教 而日月遄駛  
襄禮奄過 倏已歲新矣 此事之  
許久遲延 誠甚可悶 第又思之  
伊時

下教有傳于大臣之語 而初未  
嘗指的 首席則似當僚閣相議  
之事 且於昔日既承一覽後 轉  
上閣下 以爲量處之教 姑許多  
公事之一日虛徐 實爲悚悶 亦  
不無中間闕失之慮 茲以原數  
及承宣所奉

傳教 并此裏袱仰呈 惟俟  
閣下之善處焉 悲咽之極 言不  
知裁 尤增兢惕荒迷 餘不次伏  
惟

勻下鑑 謹再拜上候疏

癸亥 正月 初五日 孤哀子 沈  
能種 疏上

102) 편지로 정승(政丞)에게 문안할 때에 그의 안후(安候)을 이르는 말. 그 정승의 안후.

103) 슬픈 마음이 옛날로 되돌아감. 104) 자기의 정성을 낮추어 일컬음.

105) 부모를 다 여의고 상제된 사람의 자칭(自稱).

106) 아래로 내려다봄과 위로 쳐다 봄.

107) 조강(朝講) 및 경연(經筵)에 참석함. 승정원(承政院) 등에 있는 승지(承旨) 및 관원(官員)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입시하여 임금에게 나아가 면대하는 것.

108) 임금에게 드러내어 아뢰. 109) 장례(葬禮). 장사지내는 예절.

110) 정일품(正一品)의 관직에 있는 사람의 높임말.

111) 모양·태도가 침착하고 품위가 있는 모양. 느린 모양. 여기에서는 하던 일을 뒤로 미룸을 뜻함.

112) 물건을 흐지부지 잃어버림.

113) 승정원의 승지를 말함. 왕명의 출납·기주(記注)·기사(記事)·상서(尙書)·품질(品秩)·검사(檢査) 등의 임무를 맡았음.

114) 글발을 올린다는 뜻으로 상제가 편지 사연을 다 쓴 뒤에 자기 이름 아래에 쓰는 말.

백씨(伯氏)의 부임(赴任)에 봉송(奉送)합니다.

영남(嶺南)에는 본시 시례(詩禮)의 고장이라고 일컬어 유현(儒賢)이 배출되어 유풍(遺風)의 여운(餘韻)이 오히려 물거품이 되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아마도 그 산천이 수려(秀麗)하고 민속(民俗)이 순고(淳古)하여 그 땅과 그 사람이 만나서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불녕(不佞)<sup>115</sup>은 일찍이 그곳을 한번 유람하려는 뜻이 있었으나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 백씨(伯氏)가 구산(龜山)에 현감(縣監)으로 나가건만 나는 우복(憂服)<sup>116</sup>의 몸으로 능히 뒤따르지 못하고 남쪽으로 바라보면서 창암(悵黯)<sup>117</sup>하여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무릇 패부(佩符)<sup>118</sup>의 원님에게 전사(田社)<sup>119</sup>의 책임이 있으니 적게 말하면 일부(一府)의 흥체(興替)<sup>120</sup>가 매여 있고 크게 말하면 수천의 생령(生靈)<sup>121</sup>이 있으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치를 하는 도(道)에 두 가지가 있으니 절용(節用)과 애민(愛民)입니다. 이에 절용은 스스로 풍족하게 하는 것이며 애민은 구치(求治)<sup>122</sup>하는 것입니다. 위엄으로 아래 사람에게 임하고 청렴함으로 자신을 규제하면 이것이 반(半)을 지난 것입니다.

우리 집안은 한문(寒門)<sup>123</sup>에서 성장하여 세대(世代)로 청소(淸素)함을 숭상하니 청렴함은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포의(布衣)로 관리(官吏)가 되어서 무략(武略)<sup>124</sup>이 무엇인가를 모르지만 위엄은 안토(安土)<sup>125</sup>입니다.

고인(古人)이 말하기를 위엄은 청렴한데에서 나온다고 하니 우리 형은 그것을 힘쓸 것입니다. 돌아보면 나는 재앙이 몸에 쌓인 수년 이래에 거둑 거창(巨創)<sup>126</sup>을 당하여 정신의 상쾌함을 가시고 형각(形骸)<sup>127</sup>만 한갓 남아있어서 서로가 의지하여 목숨이 되는 것입니다.

奉送伯氏之任

嶺以南 素稱詩禮之鄉 儒賢輩出 遺風餘韻 尚有不沫者存 蓋其山川秀麗 民俗淳古 地與人遇 自有不期然而然者 不佞夙有一遊之意 而未之遂矣 今也 伯氏出宰于龜山 而余以憂服在身 不得隨後 南望悵黯 何以爲懷 凡佩符之倅 有田社之責 而小而言之 一府興替係焉 大而言之 數千生靈在焉 可不慎哉 爲政之道 有二曰節用而愛民 節用所以自足也 愛民所以求治也 威以臨下 廉以律已 則斯過半矣 吾家生長寒門 世尚淸素 廉在其中 而布衣作吏 不知武略之爲何事 則威將安土 古人有言 曰威生於廉 吾兄勉之哉 顧余罪殃積躬 數年之來 洵罹巨創 神精遁爽 形骸徒存 相依爲命

115) 재주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자기를 겸손히 일컫는 말.

116) 상복(喪服). 상제로 있는 동안 입는 예복.

117) 슬프고 암담함.

118) 병부(兵符)를 찬다는 뜻으로 지방 수령의 지위에 있음을 이르는 말.

119) 전지(田地)의 신(神)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 전지는 한 고을의 색생활의 터전 이므로 이 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풍년이 들것을 기원함.

120) 흥함과 쇠퇴함.

121) 생명(生命). 백성. 생민(生民).

122) 잘 다스려지는 방도를 구함.

123) 가난하고 문벌 없는 집안.

124) 군사를 부리는 피.

125) 그 땅에 편히 삶.

126) 마음이 몹시 아프다는 뜻으로 부모의 상(喪)을 당한 슬픔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127) 겉으로 드러난 모양과 그 형체.

다만 형제가 같은 마을에 살면서 아침저녁 사이에 한번 가고 한번 오면서 하루에 다시 보지 않으면 오히려 섭섭하게 여겼습니다. 하물며 남쪽에서 지휘하는 그곳과의 거리가 오백여리가 됩니다. 따라서 척서(尺書)<sup>128</sup>의 부탁도 한 달에 한차례일 것입니다. 고개밖에 얼음과 눈으로 길마다 어렵고 막히어 산천(山川)만이 간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림자는 외기러기를 짝하고 형편은 외로운 배와 같으니 높은 하늘 넓은 바다에 멈추어 설 곳이 없다면 이 슬프고 서운함이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오마(五馬)<sup>129</sup>가 떠날 무렵에 바쁘게 몇 줄의 글을 지어서 이별의 인사를 대신하고 조금이라도 답답한 생각을 떨 뿐입니다.

계해(癸亥, 1803) 원월(元月) 소회(小晦)<sup>130</sup>  
가제(家弟) 능종(能種) 올림.

只有兄弟 同閨而居 朝夕之間  
一往而一來 一日不再見 尙以  
爲悵 況今南麾之相距 五百有  
餘里 而尺書之憑 又將以月計  
則嶺外冰雪 途道艱關 又非但  
山川之間之也 影伴隻鴈 形如  
孤舟 長天濶海 無所止泊 則  
此心悲缺 當復如何 五馬臨  
發 忙搆數行 庸替別語 略紓  
鬱陶之思云爾

癸亥 元月 小晦 家弟 能種

128) 편지.

129) 다섯 마리의 말. 전하여 태수(太守)를 달리 이르는 말. 원래 태수의 수레는 네 마리 말이 끄는 수레였는데 이외에 한 마리의 말을 결말로 따라다니게 한데서 이와같이 부르게 되었음.

130) 그림의 하루 전날.

머리를 조아리고 아뢰나니 안후(安候)가 막혀 멀어진 지가 자못 오래되었습니다. 부복(俯伏)하여 살피드리지 못한 장마더위에 정무(政務)에 남은 체후(體候)와 신호(神護)<sup>131)</sup>가 만안(萬安)하십니까.

슬픔이 거슬러 구구합니다. 죄종질(罪從姪)<sup>132)</sup>은 모진 목숨 구차히 이어가면서 부앙(俯仰)하여 호운(號隕)<sup>133)</sup>이 미치지 못합니다. 남아(南衙)에 소식은 간간히 막히게 됨이 많으니 우몽(憂蒙)하여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도정(都政)<sup>134)</sup>에 삼읍(三邑)<sup>135)</sup>이 모두 이천(移遷)의 망단(望單)<sup>136)</sup>이 있어서 끝내 돌아오니 호탄(浩歎)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타 경모(京耗)<sup>137)</sup>는 주서(注書) 형이 생각하여 아뢰는 바가 있어서 짐짓 첩상(疊床)<sup>138)</sup>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드리는 소지(小紙)<sup>139)</sup>는 친절하게 간청하는 바이니 옛 정자(亭子)를 수즙(修葺)<sup>140)</sup>하는 물침(勿侵)<sup>141)</sup>의 청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가(公家)에 있어서 권장하는 도(道)로써 활협(闊狹)이 없을 수 없으니 모름지기 헤아려 시행하십시오. 황미(荒迷)한 나머지 예를 갖추지 못하고 후서(候書)를 올립니다.

갑자(甲子, 1804)년 7월 13일  
죄종질(罪從姪) 능종(能種) 올림.

(추신) : 「수호전(水滸傳)」은 그 사이에 충분히 보았을 것이니 아주 긴요한 사유가 없으면 인편(人便)에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稽顙白 阻候頗久 伏未審潦熱  
政餘體候 神護萬安 哀遡區區  
罪從姪 頑喘苟延 秋序奄屆  
俯仰穹壤 號隕靡逮 南衙音信  
間多阻濶 憂蒙難狀 今番都政  
三邑 俱有移遷之望 而竟歸  
烏有浩歎奈何 其他京耗 注書  
兄想有所報 姑不疊床矣 此呈  
小紙 卽親切之所懇 爲其修葺  
舊亭 有此勿侵之請 在  
公家勸獎之道 不可無闊狹 伏  
須

商量下施之焉 荒迷餘不備上  
候書

甲子 七月 十三日 罪從姪能  
種上書

水滸傳 間已 優覽 無甚緊關  
則從便還投 伏望伏望

131) 신(神)이 도와주고 보호해줌을 말함.  
132) 상중(喪中)에 있는 상제가 종숙(從叔)에게 자신을 일컬음.  
133) 울부짖어 땅에 쓰러짐.  
134) 도목정사(都目政事). 고려·조선시대 해마다 음력6월과 12월에 이조와 병조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리의 치적을 종합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영전·좌천 또는 파면을 시키던 일.  
135) 특정한 지역에 있는 세 곳의 도회지(都會地)라는 뜻으로 쓰임. 특히 조선 시대에는 전라도(全羅道)에 소속되어 있었던 제주도(濟州道)의 제주목(濟州牧)·대정현(大靜縣)·정의현(旌義縣)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았음.  
136) 후보자를 기록한 단자.  
137) 경신(京信). 서울 소식.  
138) 첩상지론(疊床之論). 상 위에 상을 포개어 놓은것과 같은 의논이라는 뜻으로 부질없이 거듭하는 의논을 이르는 말.  
139) 작은 종이. 간단하게 쓴 편지를 뜻함.  
140) 집을 손질하고 지붕을 새로 있는 일.  
141) 간섭하지 아니함. 또는 건드리거나 개개지 못하게 함. 雜役과 軍役 등 諸役을 면제하는 문서.

밤에 건침(健寢)을 배알(拜謁)하고 그 아침에 은명(恩命)<sup>142</sup>에 숙배(肅拜)하였다. 그리고 능소(陵所)에 나아가서 망일(望日)<sup>143</sup> 분향(焚香)의 예식(禮式)에 다다르니 그때가 오경(五更)인데 달이 낮처럼 밝았다. 을축년(乙丑年, 1805) 봄.

은명(恩命)에 배알(拜謁)하고 따라가니 오천(五天)<sup>144</sup>이 가까운데,

밤은 깊고 돌이여 한릉(漢陵)앞에 이르렀네.

작은 정성 갑절이나 유궁(遺弓)<sup>145</sup>에 간절하여 마음 아프고, 홍은(洪恩)<sup>146</sup>을 말 하고자 하는데 눈물이 샘물처럼 흘러 내리네.

선신(先臣)을 만날 즈음에 신린(臣隣)<sup>147</sup>을 움직이고, 때로는 은혜로운 말이 이 몸에 미치네.

풍수(風樹)<sup>148</sup>의 남은 삶은 이악(異渥)<sup>149</sup>을 모시고, 상설(象設)<sup>150</sup>을 주선(周旋)하여 신인(神人)을 느끼네.

夜拜

健寢卽朝 肅 恩命 仍詣 陵所  
爲趁望日焚香之禮 時已五更  
月明如晝 乙丑春

拜命新從尺五天  
夜深還到漢陵前  
微忱倍切遺弓慟  
欲說洪恩涕似泉  
先臣際遇動臣隣  
時有恩言及此身  
風樹餘生叨異渥  
周旋象設感神人

142) 임금이 내리는 명령. 주로 관직 임용이나 죄를 사한다는 명령을 칭할 때 사용됨.

143) 망(望)이 되는 날. 보름날.

144) 동·서·남·북 및 중앙의 하늘. 여기에서는 오경(五更)을 뜻함.

145) 황제(黃帝)가 활을 남겨놓고 하늘로 올라갔음을 말하는 것으로 임금의 죽음을 말함.

146) 큰 은혜. 임금의 은혜.

147) 임금 측근의 신하.

148)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려 할 때에는 이미 부모가 돌아가시고 말았음을 슬퍼한 시구. 즉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 주지 않는다. 「樹欲靜而風不止子欲養而親不待」라는 구절의 압축어임. 전하여 풍수는 부모가 돌아가셔서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함을 슬퍼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음.

149) 은혜가 남다르게 두터움. 또는 그러한 은혜.

150) 무덤 앞에 사람이나 짐승의 형상을 본떠 만든 석물(石物).

덕인(德人)은 편(便)에 붙힌 서신(書信)은 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장마 비가 지나가고 거연(居然)<sup>151</sup>히 삼경(三庚)<sup>152</sup>이 이미 지났거니와 수일간의 더위가 한창 더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살피 드리지 못했거니와 체내(體內)의 조후(調候)가 평상시와 같으며 합중(閣中)<sup>153</sup>이 두루 편안하시고 아이들도 우환(憂患)이 없습니까. 사무치는 생각이 동동(憧憧)<sup>154</sup>하여 어느 때에 잠시나마 풀리겠습니까. 사제(舍弟)는 근간(近間)에 서습(暑濕)<sup>155</sup>으로 늘 활편(活便)<sup>156</sup>을 찾은 지가 지금에 5~6일이 되었건만 괴로움은 썩 가지지 않고 자주 이어집니다. 내간(內間)<sup>157</sup>에 아이들은 짐짓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유온(乳媪)<sup>158</sup>이 학질(瘡疾)이 심하게 걸리어 가운데 아이가 젖을 충분히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역병(疫病)을 앓은 나머지 실지로 감당하지 못하니 민망함을 어떡하겠습니까. 윤형렬(尹亨烈)은 소장(疏狀)을 올린 뒤에 찬축(竄逐)<sup>159</sup>하라는 어명(御命)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는 어떠한 박격(拍擊)<sup>160</sup>할 풍문이 없습니다. 한합(韓閣)은 크게 불안한 단서가 없습니까. 그 사이에 지나온 날이 오래되어 서로가 두서(頭緒)의 논 할만 한 것이 있으나 막막하여 다 알리지 못하니 우완(憂莞)<sup>161</sup>하여 글로써 쓰기 어렵습니다. 이웃에 살고 있는 박서방(朴書房)은 어제 문밖에 나갔다가 편안하다는 소식을 알았건만 혁제(赫蹄)<sup>162</sup>로 상통(相通)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따라서 이 아우가 먼저 알지 못하였으니 어떡하겠습니까. 도형(度兄)은 저 사이에 상면(相面)하였는데 이 아우의 추이사(推移事)<sup>163</sup>를 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근방에는 사고 싶은 집이 없어서 두 채의 집을 꾸미고 아들이 비속(婢屬)을 들였습니다. 향중(鄉中)은 서울과 달라서 한 채의 가옥에 3 간(間)을 들리어 만들고 울타리로 분리하여 차지한다고 합니다. 바야흐로 이 유기(維紀)<sup>164</sup>는 수심과 어지러움이 많을 뿐이며 달리 갖추지 못하고 아쉽니다. 사성(士成)은 예와 같이 편안하게 부모를 모시고 있으며 듣자하니 근간에 내려온다고 하는데 진실로 계획대로 할 수 있습니다.

병인년(丙寅年) 7월 8일 아우 올림.

德仁便所付書 想卽

下覽也 間經霖雨 居然三庚已過 而數日之熱 無異盛暑 伏不審體內調候 已復常度 閣中均寧 兒小無憂耶 慕慮憧憧 何時暫弛 舍第近以暑濕 平尋活便 于今五六日 而若未快祛 頻數 則未也 內間兒少 姑不病作 而因乳媪之邁瘡頗繁 仲兒失哺 乃母之兼役病餘 實所不堪 悶然奈何 尹亨烈疏後 聞有竄逐之教云 此後更無此等拍擊之風 而韓閣得無大不安之端耶 其間爲日已久 相有頭緒之可論 而漠未聞之 憂菀難狀 隣居朴書房 昨有門外之行 逢魚仁僊 得知平安報 而恨未能赫蹄相通也 弟所未及 先知奈何 度兄伊間相面 而以弟不爲推移事 謂如何耶 傍無願買之家 不可不搆得兩箇屋子 偶入婢屬 而鄉中有異於京一介所入 自致三間 籬以分占云 方此維紀 而事多愁亂耳 他姑不備白 士成侍狀依安 而聞欲從近下來 果能如計云耶

丙寅 七月 初八日 弟上書

151) 그 모양 그대로 일에 움직이지 않은 모양.

152) 삼복(三伏). 하지(夏至) 뒤의 초복(初伏)·중복(中伏)·말복(末伏)의 여름 혹서(酷暑)의 기간.

153) 남의 집안 식구의 존칭(尊稱). 154) 뜻이 바로 잡히지 않는 모양.

155) 서습지기(暑濕之氣의 약어(略語). 더운 기운과 축축한 기운.

156) 삶의 편리. 157) 아낙이 거처하는 곳. 158) 어린애를 낳은 어머니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 기르는 할멈.

159) 죄인을 먼 곳으로 귀양 보내 쫓음. 160) 칠 만한 거리. 감. 재료. 161) 근심스럽고 답답함. 162) 글을 적은 작은 쪽지.

163) 벼슬의 임기가 찬 사람이 그 후임 자리에 적당한 사람을 추천하고 옮겨 가는 일. 164) 행실이 되는 법규.

이번에 가서 비록 5일 만에 돌아왔다고 하지만 밤 새워 가르침을 받은 것은 겨우 하루 밤 낮으로 하루가 온전하지 않았습니니다. 이에 돌아오니 창암(悵黯)<sup>165</sup>하여 마치 무엇을 잃은 듯 합니다. 살피 드리지 못한 몇 일만에 체후(體候)가 만강(萬康)하시고 합중(閣中)이 모두 편안하신지 우려 사모함이 절실합니다. 사제(舍弟)<sup>166</sup>는 사흘 밤잠을 설친 나머지 끝내 길 위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틀 밤 편안하게 잠을 잤으나 오히려 잠의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은 짐짓 병이 없으니 다행한 일이며, 어제에는 날씨가 춥지 않으니 하루 이틀 더 머물면서 조회(阻懷)를 펴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미촌(尾村)에 두창(痘瘡)<sup>167</sup>의 우환은 점점 소행하여 완쾌되고 당상(堂上)의 기도(氣度)도 손상됨이 없는지 염려가 절실합니다. 탁자(橐子)는 그대로 간곳이 없는지 다만 이것은 그 씨앗이 매우 긴요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몰래 훔치는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소장(簫牆)<sup>168</sup>의 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 습관은 가히 키울 수가 없으니 다시 신칙(申飭)을 더하여 되돌려놓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세색(歲色)<sup>169</sup>은 간간(看看)이 다 하는데 두 곳에서 바라보면서 읊건만 수절(愁絕)<sup>170</sup>의 회포를 위로하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화중(和仲)이 그곳에서 목다가 떠나와서 이곳에 잠깐 들린 것이 유일한 소식입니다.

인손(仁孫)이 지금에 올라갔다고 하니 수서(修書)<sup>171</sup>하여 기다리며 가노(家奴)들도 차례대로 내려온 것을 짐짓 예를 갖추지 않고 아웁니다. 세밑에는 인편(人便)이 있을 것을 짐짓 기필하지 못하고 부복(俯伏)하여 전아(錢迓)<sup>172</sup>의 만지(萬祉)를 바랍니다.

정묘년(丁卯年) 납월(臘月)<sup>173</sup> 23일  
사제(舍弟) 올림.

今番之行 雖云五日而返 通宵拜誨 僅一夜晝 未嘗全一日矣 歸來悵黯 如有所失 不審數日 體候萬康 閣中均寧耶 仰慕旋切 舍弟三夜失睡之餘 竟自路上昏倒 而兩宵穩寢 猶有餘睡 若哉 兒少姑幸無恙 而昨天日氣不寒 恨不留一兩日 穩叙阻懷也 尾村痘憂 漸至蘇完 而堂上氣度 亦無損節云耶 慮念殊切 橐子仍無去處耶 非但舒子繁甚 除非僮輩鼠竊 必是肅墻之事 此習不可長矣 更加申飭 期於還推如何 歲色看看盡矣 兩地瞻詠 難慰愁絕之懷耳 和仲歷宿而去 果能暫入 則可揔此中信息也 仁孫今纔上去云 修書以待 家奴亦當次第下來耳 姑不備白 歲下有便 姑未可必 伏冀錢迓萬祉

丁卯 臘月 廿三日 舍弟 上書

165) 섭섭하고 아득함.

166) 형에게 대하여 아우가 자기를 일컫는 말.

167) 마마. 천연두(天然痘).

168) 임금과 신하가 조회하는 곳에 세우는 병풍. 계손(季孫)의 근심거리는 소장(蕭牆)안에 있다. 라는 공자의 말에서 유래하여 내부의 변란을 말하기도 함.

169) 한해의 빛.

170) 근심함. 절(絶)은 조사(助辭)임.

171) 편지를 씌.

172) 보내고 맞이함. 여기에서는 목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함.

173) 음력 12월.

한 열흘 동안의 계획으로 어제에 비로소 안후(安候)를 드렸는데 오늘에 또한 인동(仁童)의 편(便)이 있었습니다. 부복(俯伏)하여 생각하건데 설한(雪寒)에 체후(體候)가 만안(萬安)하시고 합중(閣中)이 두루 편안하십니까. 이 아우는 짐짓 어제처럼 지내오거니와 일기(日氣)가 이와 같으니 삼택(三宅)의 사사(祀事)<sup>174</sup>가 매우 두렵습니다.

아우에게 혹시나 산고(産故)<sup>175</sup>가 있으면 누가 대신 가겠습니까. 앞 편지에서 이미 모두 아뢰나니 상세하게 복교(覆敎)<sup>176</sup>를 내려주시되 끝에 우현(又賢)의 답서(答書)를 써서 보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짐짓 예(禮)를 갖추지 않고 올립니다.

사제(舍弟) 올림.

一旬經營 昨始上候 今又有仁童之便矣 伏惟雪寒 體候萬安 閣中均寧耶 弟姑遣昨狀 而日氣如此 三宅祀事 甚畏恐 弟或有産故 則誰可代往耶 前書已悉 詳賜覆敎伏望 尾書又賢答以投如何 姑不備

舍弟 上書

---

174) 제사를 모시는 일.

175) 아이를 낳는 일.

176) 회답으로 내려주는 가르침.



생식(省式)<sup>177</sup>합니다. 얼마 전에 찾아 뵈었으나 마침 두우(痘憂)<sup>178</sup>의 고통이 심각하여 재차 봉의(奉儀)키로 조용하게 정의를 펴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슬픔이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계속하여 간절합니다. 이와 같이 한 달이 지났건만 다시 소식을 접하지 못하니 우란(紆亂)을 견디지 못합니다.

살피드리지 못한 장마 더위에 시전(侍奠)<sup>179</sup> 기력(氣力)이 중후(重厚)하시고 아이들의 근심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차례대로 과장(科場)에 나가서 능히 부조(父祖)로 하여금 수심의 눈썹을 펴고 웃는 얼굴을 열어 드리지 않으시렵니까. 합내(閣內)의 근심은 노쇠(勞悴)하고 우홀(憂恤)한 나머지 대단하게 손상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차도가 있어서 평소와 같이 회복되었습니까. 아울러 옛날에 비할 수 없는 무고(無故)한 때를 거슬러 바랍니다.

저는 일미(一味)가 어리석고 용렬하여 여름을 당하여 열뇌(熱惱)<sup>180</sup>의 일이 그 단서가 한결같이 없다고 실지로 사람들이 재촉하여 아뢰니 어떡하겠으며 어떡하겠습니까. 지난 20일 이후에 윤우(胤友)의 예방(禮訪)을 애타게 바랐건만 바로 소식이 없으니 혹 다른 사고로 인하여 그런 것입니까.

자부(子婦)는 이로 인하여 노심(勞心)하고 숙식(宿食)이 불안하여 곱절이나 조란(慄亂)을 느낍니다. 행여나 이치에 거슬리고 몇몇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마땅히 순리로 받아들여 보낼 것이며 상훼(傷毀)<sup>181</sup>를 지나치게 더하여 고인(古人) 상효(傷孝)<sup>182</sup>의 경계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건대 이 말을 기다리지 않고도 잠자코 믿는바가 있으리라 여깁니다.

근간(近間)에 삶을 간추려서 인편에 간략하게 안후(安候)를 묻고 예를 갖추지 않고 소신(疏神)<sup>183</sup>합니다. 저의 집안사람들은 짐짓 병이 없으나 자부(子婦)가 간간히 인후증(咽喉症)으로 수일 동안 고통스러워 하다가 요사이 완쾌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형우(荊憂)<sup>184</sup>가 없지 않아서 단연코 쾌제(夫除)<sup>185</sup>할 수가 없어 그에게 말길 뿐 이었습니다.

신사(辛巳, 1821)년 유월(流月)<sup>186</sup> 7일  
사제(查弟)<sup>187</sup> 능종(能種) 배(拜).

省式向來委進 適值痘憂之苦  
劇 再次奉儀 未得從容穩叙歸  
來 餘悵在心 憂慮繼切 而殆  
過一朔 更未承信 紆亂不可堪  
不審潦炎

侍奠氣力 支重兒憂 次第出場  
能使乃父乃祖 展其愁眉 開其  
笑顏否 閣患勞悴憂恤之餘 不  
至大段添損 旋即差復常度耶  
並切溱仰 不比平昔無故之時  
耳 弟一味憤劣 當憂熱惱之事  
不一其端 實有人催白 奈何奈  
何 去念以後 深企胤友之委訪  
而仍無消息 或因他事故而然  
耶 子婦爲此勞心 宿食不安  
倍覺燥亂 縱或有逆理反常之  
事 但當順受理遣 不當過加傷  
毀 以犯古人傷孝之戒 想不待  
此言 而有所默諒也

爲探近節 轉便略候 不備疏神  
弟家眷 姑無疾恙 子婦間以咽  
喉症 數日作若 近得差完 前  
年不可無荊憂 則斷無夫除之  
日 任之而已耳

辛巳 流月 初七日 查弟 能種  
拜

177) 생례(省禮). 상중(喪中)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의 첫머리에 쓰는 말.

178) 역질로 인한 근심. 179) 제사를 모시어 드림.

180) 찌는 듯한 더위로 고뇌(苦惱)함.

181) 부모가 죽음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슬퍼하여 몸이 상하여 훼손됨.

182) 상효지계(傷孝之戒). 부모의 초상에 너무 슬퍼하여 몸을 해치는 것은 돌이켜 효도에 역행이 되므로 지나치게 슬퍼만 하지 말고 몸을 생각하라 경계.

183)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일시적으로 생각을 전함.

184) 자기 아내의 병환을 낫추어 일컫는 말.

185) 시원하게 제거함. 186) 음력 7월의 별칭. 187) 친사돈끼리 자기를 일컫는 말.

생각하노니 우리 외고(外姑)<sup>188</sup> 숙인(淑人)<sup>189</sup> 양주조씨(楊洲趙氏)는 향년(享年) 72세로 계미(癸未, 1823)년 10월 2일에 용안현(龍安縣) 양이중(量移中)에서 세상을 버렸다. 아마도 이것은 그의 부군(夫君) 교리(校理) 이공(李公)의 적소(謫所)<sup>190</sup>를 따른 것이다. 중여서(仲女壻) 유병주(兪秉柱)가 서울에서 주선하여 이 달 그믐에 계인(啓靚)기로 하였다.

11월 을축삭(乙丑朔) 초 4일 무진(戊辰)에 고산(故山)에 돌아와서 곧바로 권조(權厝)<sup>191</sup>하고 명춘(明春)을 기다려 완장(完葬)하고자 하였다. 이에 장녀서(長女壻) 청송(靑松) 심능종(沈能種)은 삼가 단출한 제수(祭需)를 영구(靈柩)앞에 재배(再拜)하고 글로써 슬픔을 아웁니다.

아~! 옛 현철(賢哲)한 부인을 상고(詳考)하건데 오직 효도하고 오직 열절(烈節)함 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버린다면 이름과 실상(實狀)이 있으나 옛 첩지(牒紙)<sup>192</sup>에 드문 것이며 지금에 짝하기 어렵습니다. 면례(緬禮)<sup>193</sup>한 저 부인은 양주(楊州)의 명문 집안 출신으로 규방(閨房)을 벗어나지 않았건만 성예(聲譽)가 전파되어 무성합니다. 이씨(李氏)에게 시집오니 족당(族黨)이 떠들썩하게 빛이 났건만 깊은 물에 임하듯 얇은 얼음을 밟아가듯 하고 나무위에 모이듯 조심하였습니다. 감지(甘旨)<sup>194</sup>의 제공과 헌상(軒裳)<sup>195</sup>의 꾸밈을 일념으로 조조(槌槌)<sup>196</sup>하여 오직 잘못할까봐 두려워하였습니다.

일찍이 아들 하나를 낳으니 지기(志氣)가 영발(英發)하여 약관(弱冠)에 성취하였으나 단표(簞瓢)<sup>197</sup>로 즐거움을 삼았습니다. 세 찬 바람이 풀이 쓰러지고 천리(天理)를 헤아릴 수 없거니 가곡(歌哭)<sup>198</sup>이 서로 섞이고 환소(權笑)가 영원히 막혔습니다. 홍안(紅顏)이 이미 늙고 창발(蒼髮)<sup>199</sup>이 또한 희고 남은 인생이 세상에 남아서 현달(顯達)엔 뜻이 없었습니다. 만년(晩年)에 과명(科名)<sup>200</sup>으로 한갓 구달(疚怛)<sup>201</sup>을 더했나니 겨우 영관(瀛館)<sup>202</sup>에 올랐으나 갑자기 횡역(橫逆)<sup>203</sup>에 걸리어 천리 밖 바다섬에서 홀로 스스로 음복(吟鵬)<sup>204</sup>합니다.

惟我  
外姑淑人 楊州趙氏 享年七十二 以癸未十月初二日 棄世於龍安縣量移中 從其夫校理李公謫所也 仲女壻兪秉柱 自京周旋 以本月晦日啓靚 十一月乙丑朔初四日戊辰 反于故山 仍爲權厝 以待明春 將欲完葬焉 長女壻靑松沈能種 謹以菲薄之奠 再拜柩前 文以告哀 曰 嗚呼 稽古哲婦 惟孝惟烈 捨此二者 有名有實 往牒所罕 於今難匹 緬惟夫人 維楊名閥 不出閨房 聲譽播蔚 及歸李氏 族黨喧赫 臨深履薄 如集于木 甘旨之供 軒裳之飾 一念慥慥 惟恐或失 早舉一男 志氣英發 弱冠成就 簞瓢爲樂 疾風草偃 天理莫測 歌哭相雜 權笑永隔 紅顏既老 蒼髮亦白 餘生在世 無意顯達 晩年科名 徒增疚怛 纔登瀛館 遽罹橫逆 千里海島 獨自吟鵬

188) 장모.

189) 이조(李朝)때 정삼품(正三品)의 당하관(堂下官) 및 종삼품(從三品)의 종친(宗親)·문무관(文武官)의 아내의 품계(品階).

190) 죄로 말미암아 유배(流配)되어 있는 곳.

191) 정식으로 산소자리를 쓸 때까지 임시로 시체를 매장해 두는 것. 사람이 전쟁이나 위급한 상황에서 죽거나 혹은 좋은 산소자리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을 임시로 가매장하는 것이 권조(權厝)인데 매장을 중시하는 유교적 장례 풍습에서 연유하였음.

192) 공문(公文)이나 공문에 사용된 종이. 193) 무덤을 옮기어 장사를 지냄. 194) 맛있는 음식.

195) 수레 난간과 의상(衣裳). 196) 진실되고 돈독한 언행으로 서로 응함. 197) 단식표음(簞食瓢飲)의 약칭(略稱). 도시락에 담은 밥과 표주박에 뜬 국물. 구차하고 가난한 중에도 마음의 안정을 얻음. 198) 노래소리와 울음소리. 곧 희비(喜悲)의 엇갈림. 199) 희색의 두발(頭髮). 곧 젊은 나이를 뜻함. 200) 과거에 급제하는 영예. 201) 마음에 병을 얻음. 202) 홍문관(弘文館)의 별칭(別稱). 203) 횡포(橫暴)하여 상리(常理)에 어그러짐. 204) 상서롭지 못한 조짐.

지난 계유년에 금슬(琴瑟)<sup>205</sup>이 합하여 임계(壬癸) 양년(兩年)에 내외가 화갑(花甲)을 지냈습니다. 낮마다 밤마다 한숨쉬며 탄식하기를 20년을 지냈나니 후골(朽骨)<sup>206</sup>에 생육(生肉)<sup>207</sup>하여 성은(聖恩)이 망극하였습니다. 가던 도중에 중지하여 객지(客地)에 서설(棲屑)<sup>208</sup>할 때 바다와 물에서 몸소 자리를 뜨지 않고 지성으로 보호하여 그의 의혹이 없었습니다.

명춘(明春)을 기약하여 병거(并車)<sup>209</sup>로 환락(還洛)<sup>210</sup>커니와 어찌 한 몸에 질병으로 갑작스럽게도 고복(臯復)<sup>211</sup>하였습니까. 유배지 숙소에서 부친(扶櫬)<sup>212</sup>하니 의리가 다시 반합(牌合)<sup>213</sup>하고 눈물은 천 줄이나 흘러내리고 단현(斷絃)<sup>214</sup>이 삼척(三尺)이었습니다. 이때에 광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억색(抑塞)<sup>215</sup>하게 하였건만 오히려 저 부인은 구사(九死)를 아끼지 않았으니 명분과 실상에 사책(史冊)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두 딸의 사위를 맞이하여 통원(痛冤)의 기운이 맺혔나니 각각 두 아들을 두어 외손(外孫)이 열을 지었습니다. 두 사위 참담(慘憺)하여 삼키고 말 없었건만 때맞춰 반장(返葬)<sup>216</sup>하니 아~! 누구의 힘이런가. 요사(料事)<sup>217</sup>에 훌륭하고 간국(幹局)<sup>218</sup>에 넉넉하였건만 당신의 덕(德)을 위함이 아니요 느낌은 충곡(衷曲)<sup>219</sup>에 있었습니다.

자신(資身)<sup>220</sup>으로 돕지 않고 순의(鶉衣)<sup>221</sup> 초식(草食)으로 근심과 두려움은 눈썹에 모이고 슬픔과 울분은 가슴에 맺혔건만 마음에 쌓인 회포 백에 하나도 펴지 못했습니다. 이에 말기(末技) 문자(文字)로 애오라지 정성을 표하니 영(靈)께서는 불매(不昧)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나마 나의 잔에 술을 흠향(歆饗)<sup>222</sup>하소서. 아~! 슬픔니다. 드옵소서.

往在癸酉 琴瑟復合 壬癸兩年  
內外花甲 晝晝夜夜 歔歔嘆息  
閱歲二十 量移平陸 朽骨生肉  
聖恩罔極 半途中止 客地棲屑  
于海于陸 身不離席 至誠輔護  
庶幾無惑 期以明春 并車還洛  
夫何一疾 奄然臯復 逆旅扶櫬  
義重牌合 揮淚千行 斷絃三尺  
此時光景 令人抑塞 然猶夫人  
九死不惜 有名有實 牙愧史冊  
二女相迎 通冤結轆 各有二子  
外孫成列 兩婿慘憺 吞口不說  
及時返葬 繫誰之力 長於料事  
優於幹局 非爾爲德 感在衷曲  
弼不資身 鶉衣草食 憂畏集眉  
悲憤填臆 中心有懷 百不展一  
文字末技 聊表誠懇 靈如不昧  
庶歆我酌 嗚呼哀哉 尙饗

205) 거문고와 비파. 부부사이의 화락한 즐거움.

206) 죽은 사람의 뼈.

207) 생사육골(生死肉骨)의 준말. 죽은 사람을 다시 살게 하여 바른 뼈에 다시 살이 살아나게 함. 은혜의 베풀어줌이 깊고 절실함을 비유함.

208)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 다님.

209) 수레를 나란히 탑. 210) 도성(都城)으로 돌아옴.

211) 상(喪)을 당하였을 때 죽은 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초혼(招魂)하는 것.

212) 죽은 사람의 관(棺)을 호송(護送)함.

213) 반(牌)은 반(半)으로 그 반(半)과 합하여 부부(夫婦)가 됨을 뜻함.

214) 남편이 아내를 잃는 것을 말함. 곧 금슬(琴瑟)이 그 줄이 끊어짐을 비유함.

215) 억눌려 마음이 우울한 것.

216) 객지에서 죽은 사람을 제곡으로 옮겨다가 장사지냄.

217) 사물의 실정을 헤아림. 218) 일을 잘 처리해 나가는 국량(局量).

219) 심곡(心曲). 간절하고 애뜻한 마음.

220) 자신지책(資身之策). 제 한 몸의 생활을 도모해 나갈 계획.

221) 헤어진 옷. 222) 신명(神明)이 제물을 받음.

<용안(龍安) 복사(鵬舍)<sup>223</sup>에 입납(入納)함. 연재(蓮齋)에서 후서(候書)<sup>224</sup>를 올림.>

생례(省禮)<sup>225</sup>하옵고. 얼마 전에 월과정(月波亭)위에서 지나가는 인편(人便)을 만나서 바쁘게 수후(修候)<sup>226</sup>하였는데 진실로 관청(關聽)<sup>227</sup>하였습니까. 화사(花事)<sup>228</sup>는 시작하건만 바람 기운이 아름답지 못하고 초길(初吉)<sup>229</sup>에는 아침이 다 하도록 비가 내렸으나 한 보지락이 차지 않는데 그 쪽은 어떠합니까. 체내(體內)의 조절(調節)이 한결같이 강호(康護)하시고 침담(寢啖)<sup>230</sup>에 손상이 없으신지 멀리 밖에서 우러러 생각하는 사사로움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외생(外甥)<sup>231</sup>은 짐짓 옛 모양 그대로 보내거니와 온 집안이 감수(感嗽)<sup>232</sup>에 걸리어 비록 더 상하지는 않지만 또한 현저하게 낡지 않으니 이것이 민망하고 민망합니다. 그리고 저의 줄시(拙詩)<sup>233</sup> 및 신장(驢章)<sup>234</sup>을 덕애(德哀)에게 보내어 보였는데 그들이 풍영(諷詠)<sup>235</sup>하기를 필력(筆力)의 호건(豪健)함을 우러러 보고 비통한 뜻이 조금도 없다고 하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공경케 한다고 말 하였을 뿐입니다. 도성(都城)의 기별은 들은 것이 없거니와 제술(製述)<sup>236</sup>이 방외(方外)에 통하여 낙방(落榜)하고 아직 내려가지 못한 시골 유생(儒生)들을 위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림(親臨)<sup>237</sup>의 여부는 아직 적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덕여(德汝)는 새로 조사하였고, 이우(李友) 헌백(憲百)은 부망(副望)<sup>238</sup>으로 감역(監役)에 제수(除授)되니 이 또한 기이한 일입니다. 여량(汝良)은 신년(新年)에 아직 봉착(逢着)하지 못하고 영함(令咸) 및 여량(汝良)의 조카는 일전(日前)에 와서 보았을 뿐입니다. 험노(驗奴)의 병은 침을 맞은 뒤에 말 할만 한 동정(動靜)이 있습니까. 사운(四韻)<sup>239</sup>은 우선 접어두고 다시 주서(朱書) 및 작자(作者)의 글에 가일층 유의하여 노년에 힘을 얻는 처지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풍월(風月)을 읊는 것은 한 때의 소견법(消遣法)에 불과하거늘 어찌 반드시 많은 것을 탐하고 이득에 힘쓰겠습니까. 저의 견해는 이와 같이 단단(斷斷)<sup>240</sup>할 뿐입니다. 남은 것은 예의를 갖추지 않고 하찰(下察)을 굽어 바라면서 삼가 절하고 후서(候書)를 올립니다.

을유(乙酉, 1825)년 3월 4일.

외생(外甥) 심능종(沈能種) 재배(再拜).

龍安 鵬舍 入納

蓮齋 上候書

省禮向來 月波亭上 遇過去便  
忿忿修候 果卽關聽否 花事伊  
始 風氣不佳 初吉終朝之兩  
未滿一犁 那邊如何 而  
體內調節 一向康護 寢啖無損  
耶 遠外不任仰慕之私 外甥  
姑遣前狀 室中感嗽 雖免添傷  
亦未顯減 是悶是悶 拙詩及驢  
章 送示德哀 相對諷詠 深仰  
筆力之豪健 少無悽楚之意 令  
人可敬云耳 洛奇別無可聞 今  
日三日 製通方外 以慰落榜鄉  
儒之未及下去者 而  
親臨與否 姑未的知矣 德汝新  
查 李友憲百 以副望除監役  
是亦奇事耶  
汝良 則新年尙未逢着 令咸及  
汝良之姪 日前來見耳 驗奴之  
病 受鍼後 或有動靜之可言耶  
四韻姑置之 更加留意於朱書  
及作者文 以爲暮境得力之地  
如何如何 吟風詠月 不過一時  
消遣法 固何必耽多務得耶 愚  
見斷斷如此耳 餘不備伏惟  
下察 謹拜上候書

乙酉 三月 初四日 外甥 沈能  
種 再拜

223) 귀양살이하는 집. 224) 안부 편지. 225) 상중(喪中)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의 첫머리에 쓰는 말.

226) 편지를 보내어 안부를 물음. 227) 귀로 들음. 228) 봄철에 꽃이 피는 일. 229) 음력 매월 초하루. 230) 잠자리와 음식.

231) 사위가 장인에게 대한 자칭(自稱). 232) 기침 감기에 걸림. 233) 자기의 시문(詩文)을 낮추어 일컬음.

234) 먼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글을 지어주면서 송별함. 235) 시가(詩歌) 등을 풍자(諷刺)하여 읊조림.

236) 시나 글을 지음. 237) 임금이 친히 그 곳에 임(臨)함.

238) 관리를 임용하는 데 있어서 한 벼슬자리에 후보자 세 사람을 추천할 때에 둘째로 추천되는 것. 또는 그 사람.

239) 4개의 운자(韻字)로 이루어진 시(詩). 곧 지금의 오언(五言)·칠언(七言)의 율시(律詩).

240) 마음에 정한 것을 고치지 않음.

어제의 평온함이 계절에 미치어 안후(安候)가 만중(萬重)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신랑(新郎)은 아름다운 신랑이라고 할 수 있거니와 견식(見識)에 어둡다는 말이 문필(文筆)에 있었습니다. 그 문필에 물정(物情)에는 능통하지 못하지만 날로 쓰는 일은 추호처럼 세밀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록 세속(世俗)이 내려 끝이 난 까닭이라고 하지만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또한 염병(染病)<sup>241</sup>으로 쇠잔하여 성장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저의 딸도 어리고 미련하여 어머니의 품을 떠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혼례(婚禮)의 거행은 실지로 양가(兩家)의 다행으로 저에 있어서는 필혼(畢婚)<sup>242</sup>으로 한가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만 부모를 위하는 공열(供悅)<sup>243</sup>은 다시 진일보 할 것이거니와 강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혈기(血氣)가 아직 정(定)하지 못한 사람으로 본증세 이외에 더하는 것이 없다면 이것이 어찌 문제가 되겠습니까. 노형(老兄)께서는 이 아이로 하여금 학업(學業)에 힘쓰지 않고 오로지 스스로 봉양함을 위주 하는 것은 제가 잠이 오지 않은 바입니다.

지금의 길은 온갖 일을 제쳐놓고 교양(教養)의 성취를 제일의 뜻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행사에 임박하여 어리석음을 드리고 말을 직절(直截)<sup>244</sup>로 건네니 도리어 천만번 부끄럽고 황송함을 깨닫나니 나무라지 마십시오. 망요(忙撓)<sup>245</sup>하여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사제(查弟) 배(拜).

昨穩迨節 想  
候萬重 允郎可謂佳郎 而昧於  
見識 語到文筆 皆曰不能通於  
物情 日用事爲 細入秋毫 此  
雖世降俗末之故 決非好消息  
且染病屢未成長 鄙女亦冲駭  
不離母懷 婚禮之行 實是兩家  
之幸 在弟爲畢婚 自此可作閑  
民矣 只爲父母之供悅 更進一  
步於勢 所難強之中 而倘使血  
氣未定之人 有所添損於本症  
之外 則此豈成說乎 老兄之使  
此兒 不務學業 專以自奉爲主  
者 吾所未睡也 爲今之道 除  
却百事 惟以教養成就 爲第一  
義 如何如何 臨行貢愚 言涉  
直截 還覺愧悚千萬 休罪 忙  
撓不備

查弟 拜

241) 장질부사. 전염병.

242) 아들 딸 간에 맨 끝으로 치르는 혼인.

243) 부모에 대한 음식 봉양과 마음을 기쁘게 해드림.

244) 직각적(直覺的)으로 분별하여 알음.

245) 바쁘고 요란스러움.

<외구(外舅)께 올리는 편지>

外舅主前 上書

예(禮)를 생략하고 아뢰나니 두 차례나 인편(人便)이 왔으나 내려주시는 글을 받지 못하니 우러러 슬픔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느덧 한 해가 바뀌어 부복(俯伏)하고 생각하니 이 새해에 체내(體內) 조절하고 신로(神勞)<sup>246</sup> 만강(萬康)하신지 사모하는 생각의 구구함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省禮白 再度便來 未承  
下狀 不勝瞻悵狀 居然歲翻  
伏惟新元

이 외생(外甥)은 다만 옛 그대로 옹졸하오며 이 때에 속마음은 굴러 더욱더 억제하지 못하니 어찌하겠습니까. 일전(日前)에 도정(都政)<sup>247</sup>에서 여량(汝良)에게 돈참(敦參)<sup>248</sup>으로 임명하니 매우 기이하고 다행합니다.

體內調節 神勞萬康 伏庸慕慮  
不任區區 外甥只依宿拙 而此  
時懷思 轉益難抑 奈何 日前  
都政汝良 得除敦參 已極奇幸  
德汝又以副擬 甄復爲廣興守  
亦覺生新耳 聞有歸便 暫此修  
候 姑不備伏惟

그리고 덕여(德汝)도 부의(副擬)<sup>249</sup>로써 광흥(廣興) 수령(守令)으로 건복(甄復)<sup>250</sup>이니 또한 새로움을 깨닫습니다. 들리는 말에 돌아오는 인편(人便)이 있다고 하여 잠시 수후(修候)하되 예(禮)를 갖추지 않습니다. 머리 숙여 하찰(下察)을 바라면서 삼가 절하고 후서(候書)를 올립니다.

下察 謹拜上候書

丁亥 正月 初二日 外甥 沈能  
種 再拜

정해(丁亥, 1827)년 정월(正月) 2일  
외생(外甥) 심능종(沈能種) 재배(再拜).

246) 정신적인 수고로움.

247) 도목정사(都目政事). 고려·조선시대 해마다 음력6월과 12월에 이조와 병조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리의 치적을 종합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영전·좌천 또는 파면을 시키던 일.

248) 돈녕참봉(敦寧參奉)의 약칭(略稱).

249) 부망(副望). 관리를 임용하는 데 있어서 한 벼슬자리에 후보자 세 사람을 추천할 때에 둘째로 추천되는 것. 또는 그 사람.

250) 벼슬을 그만둔 사람을 심사하여 다시 벼슬을 시킴.

예(禮)를 생략하옵고 날마다 옹축(顛祝)한 끝에 여량(汝良)이 아뢰 언서(諺書)를 보았습니다. 천사(天赦)<sup>251</sup>가 이미 내려지고 조정(朝廷)으로 돌아와서 가까이 있으니 부복(俯伏)하고 생각하건데 성은(聖恩)에 감음(感泣)하여 더욱 더 망극합니다. 문적(文跡)<sup>252</sup>은 비록 보지 못했으나 마른 나무에 꽃이 피고 썩은 뼈에 살이 돌아나니 그 만분의일(萬分之一)로 비유하지 못합니다.

살아서 요순(堯舜)의 시대를 만나니 은산(恩山)·덕해(德海)<sup>253</sup>를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경사(慶事)로움을 만나고 옛일을 느끼니 더욱더 회포를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문건데 이때에 체내(體內)의 제절(諸節)이 연이어 만강(萬康)하십니까. 부복(俯伏)하여 사모하는 생각으로 동동(憧憧)<sup>254</sup>함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외생(外甥) 옛날 그대로 지내오면서 사소한 근심거리 는 있으나 모름지기 말을 들어내지 않을 뿐입니다. 이에 월파(月波)의 노복(奴僕) 편으로 간략하게 축하의 말을 붙입니다. 관문(關文)<sup>255</sup>이 이르는 날에 곧바로 계가(啓駕)<sup>256</sup>하여 환패(還旆)<sup>257</sup>할 것이니 열흘이 되지 않아 봉배(奉拜)할 것을 생각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남은 여러 가지 말은 다 갖추지 못하고 글을 올립니다.

정해년(丁亥年) 4월 5일 외생(外甥) 재배(再拜).  
심능종(沈能種)

省禮 日日顛祝之餘 卽見汝良  
所報諺書 天赦已下 還朝在邇  
伏想感泣

聖恩 益復罔極 文跡雖未得見  
枯木生花 朽骨復肉 未足以喻  
其萬一 生逢堯舜 恩山德海  
何以報答耶 遇慶感古 益難爲  
懷 伏問此時

體內諸節 連享萬康 伏用慕慮  
不任憧憧 外甥伏遣前狀 而些  
少憂冗 不順提說耳 茲因月波  
奴便 略付賀語 關文到日 卽  
爲啓駕還旆 則未一旬 可以奉  
拜 豈勝欣喜 萬萬姑不備書禮

丁亥 四月初五朝 外甥 再拜  
沈能種

251) 임금의 사면(赦免). 나라에서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죄수들을 석방하거나 감형하는 은전(恩典)을 베푸는 것.

252) 문부(文簿). 뒷날에 상고할 글발과 장부. 글의 흔적.

253) 덕택(德澤) 바다처럼 넓음.

254) 뜻이 바로 잡히지 않는 모양.

255) 상관(上官)이 하관(下官)에게 보내는 공문.

256) 길을 나섬.

257) 왕의 부름을 받고 조정으로 돌아옴.

## 금오계첩(金吾契帖)

## 金吾契帖

무자(戊子, 1768)년 국추(菊秋)<sup>1)</sup>에 동료들과 천우각(泉雨閣)에 모여 술잔을 주고 받고 시(詩)를 지으면서 하루가 다하여 파하니 매우 즐거운 일이었다. 세 동료의 계첩(契帖)은 이때를 당하여 드디어 모여서 완성하였다. 이어 치행(稚行)에게 옥탁하여 시봉(詩朋)<sup>2)</sup>의 제명(題名)<sup>3)</sup>을 쓰고 진재(眞宰)에게 청하여 책머리에 그림을 그렸다. 황사관(黃士寬)·김평중(金平仲)은 유직(留直)<sup>4)</sup>으로 참여하지 못했지만 첩은 함께 나누어 가졌다.

戊子菊秋 會同僚于泉雨閣 飛觴賦詩 竟日而罷 甚樂事也 三僚契帖 適當此時 遂會而成之 屬稚行 書詩朋之題名 請眞宰畫弁之 黃士寬 金平仲 以留直不得與 而帖則同分云

채색(彩色) 헌함(軒檻)<sup>5)</sup>에 높게 기대니 백가지 생각이 너그럽고,

彩檻凭高百慮寬  
暮秋泉壑足清歡  
菊花露濕仍和酒  
蓬鬢風吹不墮冠  
谷應蕭聲紅樹迥  
座懸詩令碧山寒  
世人解訪丫溪勝  
誰向尤翁筆跡看

저문 가을 천학(泉壑)<sup>6)</sup>에는 맑은 기쁨 풍족하네.  
국화(菊花)가 이슬에 젖으니 곧 따서 술에 타고,  
봉빈(蓬鬢)에 바람이 불건만 갓은 떨어지지 않네.  
골짜기는 통소 소리에 응답하고 붉은 나무 멀리보이고,  
좌석(座席)은 시령(詩令)<sup>7)</sup>에 달렸건만 푸른 산 차갑네.  
세상 사람들은 두 가닥 시내의 좋은 곳 찾을 줄 알건만,  
늬가 우옹(尤翁)의 필적(筆蹟)을 향해 보시고.

輝遠

<휘원(輝遠)>

가을 회포(懷抱) 넉넉하여 누각(樓閣)에 올라서 너그러운데.  
서리 내린 경치는 드리워서 나그네 기쁨을 바치네.  
자각봉(紫閣峯)이 나지막하니 구름은 자리에 가득하고,  
아계동(丫溪洞)이 잠겨있으니 비가 갓을 침범하네.  
풍연(風烟)<sup>8)</sup>은 중양절(重陽節)<sup>9)</sup> 좋은 데에 지지 않고,  
한 잔의 술은 서로가 두 귀밑 쓸쓸함을 잊게 하네.  
긴 피리 한 곡조 소리는 사람을 일으키고자하니,  
일천 집에 저문 빛은 술 넘어 바라보네.

秋懷贏得上樓寬  
霜景垂垂供客歡  
紫閣峯低雲滿席  
丫溪洞鎖雨侵冠  
風烟不負重陽好  
杯酒相忘兩鬢寒  
長笛一聲人欲起  
千家暮色隔林看

<서중(舒仲)>

舒仲

1) 음력 구월의 별칭. 2) 서로 함께 시(詩)를 짓는 벗.

3) 한문체의 하나. 명승·고적을 유람한 날짜와 함께 여행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

4) 머물러 있으면서 지킴. 또는 그러하는 사람. 5) 건너방·누각 들에 대청기둥 밖으로 돌아가며 놓은 좋은 마루.

6) 덥수룩하게 엉클어진 귀밑 털. 7) 시(詩)를 짓자는 약속.

8) 멀리서 보이는 공중에 서린 흐릿한 기운. 9) 옛 명절의 하나. 음력 9월 9일.



하늘은 맑고 나뭇잎 떨어지니 소루(小樓)가 넓고,  
 한가한 날 올라가니 썩 기쁨을 변별(辨別)하네.  
 붉은 잎은 얼굴에 비치어 자주 현함(軒檻)에 의지하고,  
 누른 꽃을 머리카락에 꽂으니 짐짓 관(冠)에 비끼네.  
 바람 앞에 울리는 나팔은 산 빛이 늦어지고,  
 빗속에 나르는 샘물은 술기운이 서늘하네.  
 성대(聖代)에 이러한 놀이는 참으로 즐거운 일이런만,  
 머물러 한 폭의 그림을 얻어 본다.

天清木落小樓寬  
 暇日登行辨勝歡  
 丹葉照顏頻倚檻  
 黃花插髮故欹冠  
 風前鳴角山光晚  
 雨裏飛泉酒氣寒  
 聖代茲遊眞樂事  
 留得一幅畫圖看

<성양(聖讓)>

聖讓

성대(聖代)에 승평(昇平)하여 송옥(訟獄)이 너그러워,  
 임교(任敎)<sup>10</sup>하는 우리들은 맑은 기쁨 짓네.  
 흐르는 물소리 가운데에 층집을 가면서 찾고,  
 누른 꽃 자리위 갓(冠)에 취해 떨어지네.  
 금석(錦石)에 지팡이를 옮겨가니 산중에 날은 저물고,  
 원문(轅門)<sup>11</sup>에 부는 나팔은 하늘에 통철(洞徹)<sup>12</sup>하여 쓸  
 쓸하네.  
 기이한 이 놀이는 난정계(蘭亭契)<sup>13</sup>를 망불(髣髴)<sup>14</sup>하니  
 견디어 금오(金吾)<sup>15</sup>의 성대한 일은 그려본다.

聖代昇平訟獄寬  
 任敎吾輩作清歡  
 行尋流水聲中閣  
 醉隋黃花席上冠  
 錦石移筇山日晚  
 轅門吹角洞天寒  
 奇遊髣髴蘭亭契  
 堪畫金吾盛事看

<성퇴(聖賚)>

聖賚

채색무늬 층집에 걸터앉아 임(臨)하니 온 골짜기 넉넉하고,  
 우연히 요채(僚案)<sup>16</sup>을 따라 이 함께 즐겨하네.  
 가을 빛 눈에 차서 이석(移席)으로 향해가고,  
 시(詩)의 뜻은 눈썹에 생겨나서 드러난 관(冠)에 취하네.  
 베개 아래에 나르는 샘물은 새로운 비(雨)가 쏟아지고,  
 숲 사이에 맑은 피리소리는 저문 구름이 차갑네.  
 아계(苒溪)의 승적(勝跡)<sup>17</sup>은 누가 능히 그려낼까.  
 머물러 금오계첩(金吾契帖)<sup>18</sup>을 얻어 보리라.

彩閣跨臨一壑寬  
 偶從僚案此同歡  
 秋光滿眼行移席  
 詩意生眉醉岸冠  
 枕下飛泉新雨寫  
 林間清笛暮雲寒  
 苒溪勝跡誰能畫  
 留得金吾契帖看

<명지(明之)>

明之

10) 가르치고 배우는 직무를 맡음. 11) 군문(軍門). 진영(陣營)의 문(門). 관청의 외문(外門).  
 12) 뚫어 통(通)함. 환히 통함. 13) 중국 진(晉)나라 왕희지(王羲之)·손탁(孫綽)·사안(謝安) 등 41명이 난정에 모여서 곡수(曲水)에 잔을 띄워 계연(禊宴)을 베풀며 시를 지어 읊은 모임. 14) 그럴 듯하게 비슷함. 15) 의금부(義禁府)의 별칭.  
 16) 동료(同僚). 관리(官吏). 17) 유명한 고적(古跡). 뛰어난 사적(事蹟).  
 18) 의금부 관리(官吏)들이 서로가 친목을 도모하고 시주(詩酒)를 즐기는 계첩(契帖).

요물(寥慄)<sup>19</sup>한 가을 회포가 스스로 너그럽지 못하여  
 황급하게 여가를 내어 구태여 기쁨을 이루었네.  
 황화(黃花)<sup>20</sup>를 함께 꺾어서 계변(溪邊)에서 잔질하고,  
 백발이 서로 사귀니 기둥 아래에 관대(冠帶)<sup>21</sup>로세.  
 천우(泉雨)는 소삼(蕭森)<sup>22</sup>한데 홍엽(紅葉)은 늦어가고,  
 소가(簫歌)는 청절(淸切)<sup>23</sup>하고 석양(夕陽)이 쓸쓸하네.  
 나르는 꽃 아름다운 돌 알아 나무랄 데 없나니.  
 머물러 타년(他年)에 취한 뒤에 보려고 하네.

寥慄秋懷不自寬  
 忪携暇日強成歡  
 黃花共引溪邊酌  
 白髮應羞柱下冠  
 泉雨蕭森紅葉晚  
 簫歌淸切夕陽寒  
 飛花歛石知無恙  
 留願他年醉後看

<유인(孺仁)>

孺仁

팔선(八仙)의 노래는 적준(滴樽)<sup>24</sup>에 투합(投合)하여 너그러운데,  
 질탕(跌宕)<sup>25</sup>한 석원(石園)에서 날이 다 하도록 즐겨하네.  
 함께 기유(奇遊)를 즐겨하니 꽃은 탄자(彈子)<sup>26</sup>를 짓고,  
 혼연(渾然)히 중환(從宦)<sup>27</sup>을 기리니 새가 관대(冠帶)을 상(傷)하네.  
 용산(龍山)에는 중양(重陽)<sup>28</sup>의 흥취를 다하지 않건만,  
 적벽(赤壁)<sup>29</sup>은 어찌 모름지기 시월(十月)이 차가운가.  
 힘입어 청련(靑蓮)<sup>30</sup>이 승사(勝事)를 전해준다면,  
 화렴(華簾)<sup>31</sup>에 머물러 후인(後人)과 더불어 보리라.

八仙歌投滴尊寬  
 跌宕石園鎮日歡  
 共說奇遊花作彈  
 渾譽從官鳥傷冠  
 龍山不盡重陽興  
 赤壁何須十月寒  
 賴有靑蓮傳勝事  
 華簾留與後人看

<예행(穢行)>

穢行

자각봉(紫閣峯)앞에 그림 같은 샘물이 너그러운데,  
 붕료(朋僚)는 자리를 옮기어 단란한 기쁨을 지었네.  
 진금(塵襟)<sup>32</sup>은 빗물에 씻기고 소나무 사이에는 피리소리 들이  
 는데,  
 시률(詩律)은 가을이 깊고 국화꽃 아래에는 관대(冠帶)가 노니네.  
 한가로운 날에 잔(盞)에 술을 모름지기 흠뻑 취할지어다.  
 노년(老年)에 잠발(簪髮)<sup>33</sup>은 쓸쓸함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계(丫溪)의 한 용(龍)은 초생달 같이 굽은데,  
 아름다운 모임은 머물러 영세(永世)토록 보리라.

紫閣峯前畫泉寬  
 朋僚移席作團歡  
 塵襟雨散松間笛  
 詩律秋深菊下冠  
 暇日盃尊須盡醉  
 暮年簪髮不勝寒  
 丫溪一龍曲肱倩  
 佳會留將永世看

<사빈(士賓)>

士賓

19) 쓸쓸하고 두려운 모양. 20) 국화(菊花)의 별명(別名).  
 21) 관면(冠冕)을 쓰고 신대(紳帶)를 두르는 신분(身分). 즉 관리(官吏).  
 22) 조용하고 쓸쓸함. 23) 심히 마음이 아픔. 24) 아주 맛있는 물은 담은 술두루미. 또는 그 술.  
 25) 방자한 모양. 방탕한 모양. 26) 분위기를 매체를 뜻함.  
 27) 벼슬살이를 함. 벼슬길에 나아감. 또는 그러한 사람. 28) 음력 9월 9일.  
 29) 호북성(湖北省) 황강현(黃岡縣) 성(城)밖의 명승지. 북송(北宋)의 시인(詩人) 소식(蘇軾)이 적벽부(赤壁賦)를 읊은 곳.  
 30) 중국(中國) 당(唐)나라 이백(李白)의 호(號). 31) 화려하게 꾸민 발(簾).  
 32) 더러운 잡념(雜念). 33) 비녀와 머리털. 곧 이와 같이 두발을 장식한 사람.

금오계(金吾契)의 계원

金吾□□

윤 애 (尹 咏). 자(字)는 서중(舒仲), 을사생(乙巳生), 파평인(坡平人)이다.

尹 咏 舒仲  
乙巳 坡平人

심환지(沈煥之). 자(字)는 휘원(輝遠), 경술생(庚戌生), 청송인(靑松人)이다.

沈煥之 輝遠  
庚戌 靑松人

정□□(鄭□□). 자(字)는 성양(聖讓), □□, 동래인(東萊人)이다.

鄭□□ 聖讓  
□□ 東萊人

이상몽(李商夢). 자(字)는 성퇴(聖賚), □□, 완산인(完山人)이다.

李商夢 聖賚  
□□ 完山人

□□□(□□□). 자(字)는 명지(明之), □□, □□인(□□人)이다.

□□□ 明之  
□□人

- 후부결락(後部缺落) -

## 만포춘수양선조목적(晩圃春睡兩先祖墨蹟)

## 晩圃春睡兩先祖墨蹟

불초(不肖)가 묘년(妙年)<sup>1)</sup>에 간고(幹蠱)<sup>2)</sup>의 업(業)을 문호(門戶)가 영체(零替)<sup>3)</sup>한 뒤에 이어 받았다. 이 무렵에는 문헌(文獻)이 흩어지고 없어져 징빙(徵憑)할 수 없었다. 따라서 세월이 침원(寢遠)<sup>4)</sup>하여 집에 전하는 보장(寶粧)이 없을까 봐 두려워하였다.

이에 옛 상자를 찾아서 만포(晩圃)·춘수(春睡) 두 조고(祖考)의 빛나는 척독(尺牘) 약간의 첩(帖)을 얻었다. 그리고 한편의 책을 만드니 수택(手澤)<sup>5)</sup>이 오히려 새로워 마치 경해(馨欸)<sup>6)</sup>를 승접(承接)한 듯 하였다.

아~! 애석하다. 불초(不肖)는 두 조고(祖考)가 세상에 계시던 날 보다 뒤에 출생하여 자손의 거둠을 본받지 못했다. 또한 유묵(遺墨)이 민몰(泯沒)되어 전하지 않으면 선대(先代)의 아름다움을 천양(闡揚)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다만 이 첩으로 세세토록 준수하는 보장(寶粧)으로 하니 무릇 나의 후손들은 나의 변첩(弁帖)<sup>7)</sup>을 보라.

숭정(崇禎) 기원후(紀元後) 사신묘(四辛卯, 1831) 계춘(季春) 상완(上浣)에 불초손(不肖孫) 의요(宜堯)는 삼가 쓰다.

不肖妙年 承幹蠱之業於門戶  
零替之餘 文獻散落無徵 竊恐  
歲月寢遠 無以爲傳家之寶莊  
搜索舊篋 得晩圃春睡兩祖考  
赫蹄尺牘 總若干帖 粧爲一冊  
手澤尙新 如承馨欸 嗚呼惜哉  
不肖生 既晩於兩祖考在世之  
日 未能效子孫之戢 而又使遺  
墨 泯沒不傳 則其於闡揚先美  
之道 爲如何哉 第以此帖 爲  
世世遵守之莊 凡我後孫 視我  
弁帖 歲

崇禎紀元後四辛卯季春上浣  
不肖孫宜堯 謹書

1) 20세 전후의 나이.

2) 한 가업(家業)을 이어 받아서 주관하는 일.

3) 일이 시들고 말라서 떨어짐. 세력이나 살림이 아주 보잘 것 없이 됨.

4) 하는 일 없이 그냥 떨어짐.

5) 책·그릇 따위에 자주 손을 대므로 생기는 윤택.

6) 기침 소리. 인기척 내는 헛기침.

7) 책의 첫머리. 머리말.

얼마 전에 도성(都城)에 있다가 공좌(公座)<sup>8)</sup>로부터 돌아와서 태위(台委)<sup>9)</sup>의 편지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장을 드리지 못한 것만 곧바로 창황(蒼黃)<sup>10)</sup>하게 적소(謫所)로 떠나갔습니다. 이어서 혜서(惠書)<sup>11)</sup>를 전해 받아 초여름에 태체(台體)<sup>12)</sup>의 조후(調候)<sup>13)</sup>가 증중(增重)<sup>14)</sup>함을 살피니 위로의 기쁨을 어찌 헤아릴 수 있습니까. 다시 해도(海島)를 쫓아 귀양을 갔으나 엄견(嚴謹)<sup>15)</sup>이 겨우 수순(數旬)을 지나고 되돌아 은유(恩宥)<sup>16)</sup>입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하게 장려(瘴癘)의 떠돌이 영혼을 면하였습시다. 돌아와서 강 위에 한가로운 갈매기를 대하여 높고 깊은 것을 우러러보고 큰 조화가 끝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딸의 병환으로 인하여 고민스러워서 길게 말을 못하고 입성(入城)할 기약이 없으니 무엇으로 받들어 펴겠습니까. 다소 막힌 회포가 쌓이고 쌓였으며 행하(廊下)<sup>17)</sup>도 깨끗하지 못하니 그 깨끗함을 기다려 마땅히 통후(通侯)<sup>18)</sup>하겠습니다. 남은 말은 다 쓰지 못하고 편지를 드립니다.

임자(壬子, 1792)년 윤사월(閏四月) 5일  
재종(再從) 환지(煥之).

向者在洛 自公座還 得接  
台委翰 而未及奉謝 仍作蒼黃  
赴謫之行矣 卽承  
惠書 以諦初炎  
台體調候增重 慰喜何量 再從  
海島  
嚴謹纔過數旬 族蒙  
恩宥 幸免爲瘴癘之羈魂 歸對  
江上閒鷗 俯仰高深 益覺  
洪造之無垠耳 弟以女病方惱  
而不得長語 入城無期 何以奉  
叙 多少阻懷 殊菀殊菀 廊下  
亦不淨 待其乾淨 當通候耳  
餘不宣書札

壬子閏四初五日 再從 煥之

8) 공무를 집행하는 자리.

9) 상관(上官)의 명령. 또는 그 사람. 재상의 책임에 있는 사람.

10) 어찌할 바를 모를 만큼 매우 급함.

11) 남이 보내온 편지를 높이어 이르는 말.

12) 서간문에서 정승(政丞)의 안부를 물을 때 이르던 말.

13) 안후의 조절.

14) 더욱더 편안 함.

15) 임금의 엄한 꾸지람.

16) 애지중지 사랑하거나 불쌍히 여겨 너그러운 은혜를 베푸는 것. 주로 죄지은 이를 벌함에 있어 형량(刑量)보다 적게 벌하거나 사면(赦免)하는 것을 지칭함.

17) 행랑채에 거주하는 하인(下人)을 말함.

18) 안후를 서로 통함.

<추서(楸墅) 체사(棣史)<sup>19)</sup> 앞, 만부(灣府)에서 평서(平書)<sup>20)</sup>함.>

한해가 얼마 남지 않으니 그리워 지나가는 회포를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물건 데 잔호(殘互)<sup>21)</sup>가 추위를 짓나니 양가(兩家)에 권솔(眷率)들은 어떠한가. 16일 저녁에 중계(仲季)의 편지가 아울러 위로가 되었다. 다만 내행(內行)으로 입성(入城)한다니 근심스럽다.

종아(種兒)는 읍사(邑舍)에 잘 있는가? 소학(小學)을 일찍 읽은 것은 진실로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문리(文理)가 통하지 않으면 비록 가르치더라도 이익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말로써 들려주는 것만 같이 못하니 우선 그 구두(句讀)<sup>22)</sup>를 조금 알기를 기다리는 것이 옳겠다. 다만 『항우기(項羽紀)』 수백 번을 읽게 하거나 혹은 『범수전(范睢傳)』을 가지고 문학(問學)하게 한다면 스스로 2~3개월에 마칠 것이다.

이곳은 그냥 그대로 지내거니와 어젯밤에 저 나라에 통관(通官)<sup>23)</sup>이 표인(漂人)<sup>24)</sup>을 거느리고 와서 요란스럽고 번거롭다. 파발(擺撥)이 있어서 잠깐 사수단자(祀需單子)<sup>25)</sup>를 기록하여 먼저 전물(錢物)을 보낸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종이는 파발 편에 부치는 것이 어렵지 않거니와 촉상(燭床)은 그믐과 초순사이의 파발 편에 마땅히 부칠 것이다.

정미년(丁未年, 1787) 25일  
가형(家兄).

楸墅 棣史 灣府平書

歲無多日 何堪戀往之懷 卽問  
殘互之作寒  
兩家眷況如何 十六夕 仲季書  
并承慰 弟以內行之入城 爲憂  
念也 種兒方在邑舍 好居否  
小學早讀 固宜而文理不透 則  
雖教之無益 不如以言語聞之  
姑待其稍解句讀可也 只使讀  
項羽紀數百遍 或范睢傳 以問  
之 則自當了兩三月耳 此中依  
遣 昨夜彼國通官 率漂人來  
亦擾惱耳 有撥暫草祀需單子  
先送錢物 則已在邦處矣紙 未  
付撥爲難 燭床晦初之撥 當送  
耳

丁未 臘月 念五日家兄

19) 형제에게 모시고 있는 사람이 받아서 전하여 달라는 뜻으로 형제에게 함께 보내는 편지의 걸봉에 쓰는 말.

20) 평신(平信), 평상시의 소식. 무사하다는 편지.

21) 아직 남아있는 추위.

22) 구두법(句讀法). 글을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하여 단어 구절을 점·부호 등으로 나타내는 법.

23) 통역(通譯)하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아치.

24) 풍랑에 휩쓸려 표류된 사람.

25) 제사에 쓰이는 여러 가지 물건이나 음식의 명단을 적은 단자(單子).

<추서(楸墅) 체사(棣史) 앞, 만부(灣府)에서 평서(平書)함.>

楸墅 棣史 灣府平書

지난번 파발(擺撥)에게 전한 편지는 계속 받아보았느냐. 눈(雪)이 남아있는 따뜻한 겨울에 온 집안의 근황이 어떠한지 만드는 생각이 절실하다. 이곳은 어제와 같이 지내고 있으며 겨우 100여 금의 재물로써 표인(漂人)을 보냈다.

前撥所帶書 相續入覽否 雪餘燠陰

諸家眷況如何 奉念殊切 此中依遣昨狀 纔以百餘金資 送漂人矣 又有道內所泊 而厥數倍之 當自本府接送使行 不日到府 擾惱不須言支舊之毀 亦難稱意耳 唐材肉桂 無種久矣 官桂苗破 以所用兩數不及也 附子并當覓送耳 盖有柵市新出云耳 洪友所求二種 亦覓置而撥便行書封外 皆難付耳 念六夜 書臨撥未及慎日而付送耳 正言書擾不能謝 姑遲日耳 暫草

또 도내(道內)에 정박하고 있는 그 수가 곱절이나 되는데 마땅히 본부(本府) 접송사(接送使)로부터 하루가 못되어 본부에 이른다. 따라서 요란스럽고 번거로움으로 지구(支舊)<sup>26)</sup>한 훼손을 말 하지 않거니와 또한 그 뜻을 일컫기 어렵다.

丁未 至月 初吉 輝遠

중국 약재(藥材)인 관계(官桂)와 회향(茴香)은 사용하는 수량에 미치지 못하므로 부자(附子)를 아울러 찾아서 보낸다. 그리고 책시(柵市)<sup>27)</sup>에 새로 나왔다고 말 하거니와 홍우(洪友)가 구하는 두 종류도 찾아두었다.

그러나 파발(擺撥)이 가는 편에 서봉(書封)이외에는 모두 부치기 어렵다. 26일 밤에 파발이 떠날 무렵 편지를 써서 신일(愼日)<sup>28)</sup>이 되기 전에 부쳐 보낸다. 그리고 정언(正言)의 편지는 요란스러워서 답장을 드리지 못하고 짐짓 날짜만 늦어질 뿐이다. 잠시 초(草)한다.

정미년(丁未年, 1787) 지월(至月) 초길(初吉)

휘원(輝遠)

26) 지루하게 오래됨.

27) 책문후시(柵門後市)의 약칭.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 사신(使臣)들이 청(淸)나라에 내왕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만주(滿洲)의 구련성(九連城)과 봉황성(鳳凰城) 사이에 위치한 책문(柵門)에서 요동(遼東)의 차호(車戶)와 의주(義州)·개성(開城)의 상인들 사이에 행하여졌던 밀무역.

28) 민속에서 꺼리어 조심하는 날. 대개 음력 정월의 첫째 자일(子日)과 오일(午日). 그리고 2월 초하룻날 등을 신일로 삼는다.

가까운 날 평한(平寒)<sup>29</sup>에 권황(眷況)이 어떠한가. 경성(京城)과 시골에 있는 두 벗의 편지를 모두 받아보니 다만 막힌 생각이 뚫린 듯하다. 이곳에 모든 일은 어제처럼 지내거니와 역절행(曆節行)<sup>30</sup>이 겨우 연경(燕京) 난거(攔車)<sup>31</sup>에서 돌아왔다.

그래서 아직 모두 수검(搜檢)<sup>32</sup>하지 못하고 모두 모이기를 기다려 하려고하니 번거롭고 요란스러움을 알 수 있다. 세후(歲後)에 와서 보면 그 변관(邊館)<sup>33</sup>에서 이어지는 회포가 위로되려만 마땅히 어떻게 할 것인가.

끝내 맞이하려고 하지만 오로지 그대도 쇠병(衰病)하여 관하(關河) 천리 밖에서 다만 작행(作行)<sup>34</sup>할 수 없는 것을 응당 헤아려 짐작하겠다. 성극(聖克) 및 효석(孝錫)이 아울러 오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지 않았으며 장(章)이도 머물고 있다. 끝 집 대소(大小)는 모두 탈이 없는가. 두 곳 아이의 신(鞋)를 마련하여 운노(雲奴) 편에 부치고 짐짓 초(草)한다.

정납(丁臘) 12일

가형(家兄).

近日平寒

諸家春況如何

朋仲在洛在鄉兩書 皆承見 殊破阻思耳 此中凡百依昨 曆行纔回 燕攔車 卜姑未盡出搜檢 待其畢集爲之 惱擾可知耳 歲後來見 其慰邊館維索之懷 當如何 竟欲邀之 專以君亦衰病 關河千里之外 殊非作行之時 應須量而爲之也 聖克及孝錫 并帶來 人皆不歸 章也亦姑留耳 季家大小 一皆無恙耶 兩處兒鞋 造置雲奴便 當付耳 姑草

丁臘之十二 家兄

29) 평년(平年)의 추위.

30) 역서를 청구하고 절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보내는 사신의 행차.

31) 중국 산서성(山西省) 진성현(晉城縣) 남쪽에 있는 상업기지(商業基地).

32) 금제품의 있고 없음을 검사함.

33) 변방(邊方)의 관소(館所).

34) 일어나서 출행함.



<추서(楸墅) 체사(棣史) 앞, 만부(灣府)에서 평서(平書)함.>  
-무원(戊元) 17일 신수사(贐需使)<sup>35</sup>-

楸墅 棣史  
灣平書  
戊元十七 贐需使

그저께 보낸 편지가 아마도 도착하였으리라 생각한다. 아직 묻지 못한 일간(日間)에 모든 집의 권황(眷況)이 어떠한가. 맴도는 생각 끝에 평신(平信)<sup>36</sup>을 얻지 못하니 얽히어 답답하다. 이곳의 형편은 그냥 그대로 보내거니와 남루(南樓)에서 달을 바라보니 더더욱 고향산의 생각을 헤아리기 어려울 뿐이다.

再昨書 想或傳到也 未卽問日間

諸家眷況如何 輪感之餘 不得平信 紆菀紆菀 此中凡樣依遣南樓望月 益難裁鄉山之思耳 前後所送藥材 眼鏡等種 皆無漏否 正言家付去者 亦有落於書中 而只在件記耳 家內數紙作字 猶艱放值 則不暇爲耳 黑三升依不貿送 而若於別品 則價高且不出云耳 曆門帽子品甚劣 而以三十送去別用 然此等處 何不爲一切之法耶 姑草

전후(前後)에 보낸 약재와 안경 등은 모두 빠짐이 없는가. 정언(正言)의 집에 부쳐간 것도 편지 속에 누락되어 다만 건기(件記)<sup>37</sup>만 있을 뿐이다. 집안에 몇 장의 종이에 쓴 글자는 오히려 버려두기 어렵거니와 간수할 겨를이 없을 뿐이다. 검은 것 3되는 사서 보내지 못했거니와 별품(別品)은 값이 비싸고 또한 나오지 않다고 한다.

戊元 十七日 家兄

역문(歷問)<sup>38</sup>에 모자는 품격이 아주 졸렬하지만 30개를 보내니 따로 사용하거라. 그러나 이것은 일체(一切)의 법(法)이 아니겠는가. 짐짓 초(草)한다.

무원(戊元) 17일  
가형(家兄).

35) 먼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물품을 전하는 사신.  
36) 평상시의 소식. 무사하다는 편지.  
37) 사람이나 물건 이름을 죽 적은 글발.  
38) 중국 연경(燕京)에 있는 지명.

길을 가면서 보낸 두 편지를 차례대로 받아 보았느냐. 다시 묻건 데 일간(日間)에 모든 집의 권황(眷況)한지 창념(悵念)이 더욱더 절실하다. 이번에 출행(出行)은 어제 오후에 섬안에 도착하여 바닷가 작은집을 얻어서 울타리를 치고 문을 달아서 거쳐하고 있다. 이에 풍호(風湖)가 호묘(浩渺)하여 경락(京洛)을 회상하니 참으로 세상이 막힌 듯하다.

路中二書 次第入  
覽否 更問日間  
諸家眷況如何 悵念尤切 此行  
昨日午後 抵島內得一傍海小屋  
設籬封戶 而處之 風湖浩渺  
回想京洛 眞似隔世 弟身上  
姑無所傷到底 罔非  
思渥攸暨耳 人馬給貫 推移於  
兩郡 結錢而本郡二十兩 四月  
當納云 故以待該吏上洛 推移  
償還之意 及於李君 而恐有力  
未贍之歎 奈何 自餘任分 不  
須憂耳 奴與隸皆上程 暫草不  
宣書例

그러나 나의 신상에는 짐짓 상할 바가 없으니 은약(恩渥)<sup>40)</sup>이 미친 것이다. 인마(人馬)의 급세(給貫)는 양군(兩郡)에 추이(推移)하여 결전(結錢)<sup>41)</sup>하는데 본군(本郡)에 24냥은 4월에 마땅히 납부하겠다고 한다.

壬子 三月 念五日 輝遠

이 때문에 해당하는 관리가 도성(都城)에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상환(償還)하라는 뜻을 추이할 것이다. 이군(李君)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힘이 부족할 느낌이 있으나 어떻게 하겠느냐. 스스로 여유 있게 책임을 감당하리라 여겨 모름지기 근심하지 않는다. 노예(奴隸)들이 모두 길을 떠나가므로 잠깐 초안하여 다 펴지 못하고 쓴다.

임자년(壬子年, 1792) 3월 25일  
휘원(輝遠).

39) 동봉(同封). 같이 넣어 봉함.

40) 은혜가 깊음. 임금의 은혜.

41) 조선 후기 전결(田結)에 대한 부가세.

<삼청동(三清洞) 본집에 전납(傳納), 도중(島中)에서 평서(平書)함.>

三清洞 本宅 傳納  
島中 平書

중씨(仲氏)에게 안부 전한다. 바다로 들어간 뒤에 경궐(京闕)을 돌아보니 저 하늘위에 있고, 음신(音信)<sup>42</sup>이 묘연(渺然)하여 그리워하고 답답함을 어찌 견디겠는가. 이에 다른 집 편에 수자(手滋)<sup>43</sup>를 받고서 저번 때 모든 곳이 평안하다는 소식을 알았다. 한 달이 이미 지나가고 다시 묻건 데 각가(各家)에 권황(眷況)이 어떠한지 치달는 생각이 그치지 않는다.

仲氏奉問  
入海之後 回望京闕 儘在天上  
音信渺然 何堪戀菀 他家傳便  
得承乎滋 仍諦伊時 諸處平安  
之狀 而月已改矣 更問

이곳은 짐짓 그대로 지내고 있으며 올 때에 풍토(風土)가 29년 전과 비교하여 다를 것이 없을 듯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 섬은 본군(本郡)과 비교하여 황락(荒落)하니 빈박(貧薄)하기가 매우 심하여 백물(百物)의 날로 쓰이는 것을 본군(本郡)의 시장(市場)에 우러러 의존한다. 조석(潮汐)<sup>44</sup>이 울타리 밑에까지 들어와서 매일같이 회리바람을 짓지 않으면 장려(瘡癩)<sup>45</sup>를 일으킨다.

各家眷況如何 馳念無已 此中  
姑依 來時風土 較前二十年  
似無同異之可言 弟是島比本  
郡 荒落 貧薄倍甚 而百物日  
用 皆仰於郡市矣 潮汐入籬根  
每日作颶 不然則瘡 恐此衰骸  
病餘 抵敵不過耳 然死生禍福  
孰非命耶 順受而歸 爲不忝所  
生 不負

아마도 이 쇠약한 뼈골이 병든 나머지 적과 대치하는 것 뿐이다. 그러나 사생화복(死生禍福)은 누가 운명이 아니라 고 하겠는가. 순조롭게 받아들여 돌아가서 삶에 욕되지 않게 하면서 국은(國恩)<sup>46</sup>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이 하나의 의리(義理)일 뿐이다. 그러나 지난번 형아(衡雅)의 죽음을 참작하여 빗대어보면 또한 놀라움이 없겠는가. 심태(深台)는 성품이 나약하고 또한 병이 들어 일을 자제(子弟)들에게 맡겼건만 어찌 그들이 자립(自立)하기를 바라겠는가.

國恩 此一箇義耳 然參倚前衡  
雅 卽死也 亦可無怛耶 深台  
性懦弱 今又病矣 事又聽於子  
弟 何可望其自立也 吾則得生  
還 相對一笑而已 其書卽抵我  
而有所送 又不欲還送耳 但兒  
輩他日處義 似有商量 俗習至  
此殊可傷

내가 살아 돌아가서 상대하여 한차례 웃을 뿐이다. 그 편지는 곧 나에게 보낸 것이 있지만 또한 되돌려 보내지 않고자 할 뿐이다. 다만 아이들은 다른 날에 의리에 대처하여 상량(商量)할 듯하니 속습(俗習)이 이에 이르러 마음이 아프다.

42) 소식. 편지.  
43) 수고(手告). 윗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의 끝에 쓰는 말.  
44) 조수(潮水)와 석수(汐水).  
45) 산이나 습지 또는 불결한곳에서 발생하는 나쁜 게스로 인하여 생기는 열병(熱病)이나 피부병.  
46) 나라의 은혜. 임금의 은혜.

그리고 종질녀(從姪女)는 그 아이들이 제외될 뿐이다. 환전사(換錢事)는 힘을 헤아려서 하는 것이 옳겠다. 본 원님은 혐의스러움이 있으므로 의리(義理)로 보아서 공(公)과 사(私)를 아울러 시행하고자 할 뿐이라고 하였다. 도성의 소식은 김태가(金台家)도 온전히 기록하여 보내지 못한다고 말하니 어떻게 하겠는가. 은유(恩宥)<sup>47)</sup>는 짐짓 시월(時月)로 바라볼 수 없으니 나의 나이는 이미 늙었다.

멀리 생각하니 가히 이점을 위하여 내간(內間)<sup>48)</sup>에 말할 것이 있으니 다만 심의(深衣)<sup>49)</sup>와 복건(幅巾)<sup>50)</sup>은 좋거니와 나머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고인(古人)의 마혁과시(馬革裹屍)<sup>51)</sup>의 뜻은 장하고 옳거니와 일찍이 신던 발막신을 어떤 편에 부쳐 보내니 변변찮구나. 짐짓 초(草)한다.

임자년(壬子年) 4월 12일  
휘원(輝遠).

而從姪女 則兒輩襄當絕耳  
換錢事 量力爲之可矣 本倅雅  
有嫌其處 義則欲公私并行云  
耳 洛中音耗 金台家亦全不記  
送云 奈何  
恩宥 姑未可以時月望之 則吾  
年已老矣 遠慮不可不爲之 有  
所報於內間 只一深衣幅巾好  
矣 餘未須在念 古人馬革裹屍  
之意 壯且是矣 曾所着發莫  
或便中付送爲訶 姑草

壬子 四月 十二日 輝遠

47) 은혜를 베풀어 용서함.

48) 아낙.

49) 높은 선비의 옷옷. 흰 베로 만든 소매를 넓게 하고 검은 비단으로 가를 두른 것.

50) 두건(頭巾)의 하나 은사(隱士)가 씀.

51) 말가죽으로 송장을 씌. 전하여 싸움터에서 적을 치다가 죽은 것.

<삼청동(三清洞) 심참판(沈參判) 본택(本宅)에 전납(傳納), 영암(靈巖) 행중(行中)에서 평서(平書)함.>

三清洞 沈參判本宅 傳納  
靈巖行中書

두어 일전에 김판서(金判書) 가노(家奴)편에 부쳐온 두 편지와 오늘 종예(宗隸)에게 부쳐온 중·계씨(仲季氏)의 편지를 아울러 받고 막힌 생각이 위로되었다. 또한 모든 집의 권황(眷況)이 안승(安勝)함을 알았나니 기쁘고 기쁘다.

數昨金判書 家奴便二書 及今日宗隸來  
仲季諸書 并承慰阻思 且知諸家眷況安勝 可喜可喜 此中廿三朝 伏承

이곳은 23일 아침에 유지(宥旨)<sup>52</sup>를 부복하여 받고서 곧바로 출발하여 바야흐로 영암군(靈巖郡)에 이르렀다. 이에 진름(震慄)<sup>53</sup>한 회포를 아직 정하지 못한 채 홍악(洪渥)<sup>54</sup>이 또한 이에 이르러 북쪽으로 운천(雲天)<sup>55</sup>을 바라보니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듯 할 뿐이다.

宥旨 仍卽發行 方到靈巖郡矣 震慄之懷 未定而 洪渥又至此 北望雲天 感涕如瀉而已 身內姑無大損 程限則計以閏月初四抵家 然路中兩暘穴 故亦不可料耳 仲氏眩積作若 不勝憂念 果爲調治之道否 兒輩兄弟 及李君書 亦皆見之耳 姑草

이 몸은 짐짓 큰 손상(損傷)이 없거니와 거리를 계산하니 윤달(閏月) 4일에 집에 도착할듯하다. 그러나 길을 가는 가운데에 우양(雨暘)이 번잡하기 때문에 또한 짐작할 수 없을 뿐이다. 중씨(仲氏)는 어지럼병이 쌓이어 고통스럽다고 하니 근심하는 생각을 이기지 못하겠다. 과연 조리하여 치료할 길이 없는가. 아이들 형제 및 이군(李君)의 편지도 모두 보았다. 짐짓 초(草)한다.

壬子 四月 廿五日  
輝遠

임자년(壬子年) 4월 25일  
휘원(輝遠)

52) 임금이 죄인을 용서한다는 명령.

53) 놀라고 두려워 함.

54) 크고 두터운 은혜.

55) 천자가 거처하는 곳. 임금이 거처하는 곳.

<용만부아(龍灣府衙)에 입납(入納), 추우(楸寓)에서 사제(舍弟)가 상서(上書)함.>

龍灣府衙 入納  
楸寓舍弟 上書

형님 전(前)에 올립니다.

兄主前 上書

20일 이후에 성(城)안에서 찾아오고 16일 배편(陪便)<sup>56)</sup>에 편지를 받으니 위로됨이 활연(豁然)합니다. 쌀쌀한 바람이 불고 차가운 장마가 오래되어 변방에는 가을이 일찍 돌아왔건만 남쪽에는 아직 미치지 않았습니다. 살피드리지 못했나니 체도(體度)가 만위(萬衛)<sup>57)</sup>하셨습니다.

念後自城裏訪來 十六出陪便  
下書 伏用慰豁以來 淒風冷霖  
又多日 塞土秋早 不并以南  
不審

저는 끊어진 지역의 외로운 관사(館舍)에서 점점 가을 하늘이 날로 높아짐을 당하여 북쪽으로 바라보는 그리움이 맺혔습니다. 다만 집과 고향의 생각이 이때에 더욱 더 절실할 뿐입니다. 부서(簿書)의 수고로움은 매우 번잡하지는 않겠지만 관액(關陔)<sup>58)</sup>의 땅에 사체(事體)가 중대하니 혹시나 생경(生梗)<sup>59)</sup>의 폐단이 생기지 않습니다.

體度萬衛 弟絕域孤館 漸當秋  
天日高

저는 한차례 고질병이 생겨서 도규(刀圭)<sup>60)</sup>를 시험코자 하지만 의원이 그 방술(方術)을 말하지 않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내의 병은 근간에 조금 편하니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

北望戀結 不獨家鄉之思 此時  
尤切也 簿書之勞 雖不至甚繁  
關陔之地 事體重大 無或有生  
梗之端否耶 弟一度仍成痼症  
方欲試刀圭 而醫不曰其方奈  
何 季病近得少安 甚幸 種兒  
方率來弟處 課讀前書 而熟處  
口大滑 不能耐若知味 方換新  
面書 而如諸大篇文 亦有支離  
之憂 何以則爲可耶 此便是皇  
曆之行 自齊門委來奐益 故略  
上數語 餘俟後日陪便 姑不備

그리고 종아(種兒)는 바야흐로 이곳에 와서 지난번의 책을 과제로 읽거니와 익숙한 곳은 큰 소리로 줄줄 읽되 고통을 참고 맛을 들이지 못합니다.

丁未 七月晦 舍弟 燦之 上書

따라서 새로운 책을 바꾸어 읽어도 긴 편(篇)의 글에 있어서도 또한 지리(支離)한 생각을 가지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번에 황력(皇曆)<sup>61)</sup>의 행렬이 제문(齊門)에서 책임을 띠고 돌아와서 번잡함이 더하는 까닭으로 간략하게 몇 마리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남은 말은 후일의 배편(陪便)을 기다리면서 짐짓 예를 갖추지 않고 글을 올립니다.

정미년(丁未年, 1787) 7월 그믐  
사제(舍弟) 찬지(燦之) 올림.

56) 왕명을 받들어 왕래하는 그 편.  
57) 여러 가지로 호위되어 편안함.  
58) 관문의 좁은 곳.  
59) 양자간에 생기는 불화.  
60) 의술(醫術).  
61) 고대 중국의 책력(冊曆).

<용만대아(龍灣大衙)에 입납(入納), 추우(楸寓)에서 가제(家弟)가 상서(上書)함.>

龍灣大衙 入納  
楸墅家弟 上書

지난 16일 및 20일 배편(陪便)에서 편지를 내려주시어 계속 받았습니다. 다만 문경(問經)<sup>62</sup>에 체한 증후(症候)가 비록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이 증세에 빌미가 붙어있어서 쉽사리 계속할 근심이 있습니다. 살펴드리지 못했거니와 점점 쌀쌀한 날씨에 체도(體度)가 어떠하신지 부복하여 향하는 생각이 절실합니다.

去十六及廿日 陪便  
下書 鱗次承拜 第以問經滯食  
之候 雖已向安 此症有祟 易  
致繼作之憂 不審漸涼  
體度更若何 伏切倭念之至 開  
市似是邊務之大者 然無他 生  
梗可憂否 金裨尙兄 似於晦前  
入達 而十九 則書送京爲付  
望後陪便 果卽傳上耶 兩書俱  
有所達 或慮其未及期 而亦有  
浮沈矣 裨窠之滿十 不獨爲廩  
布之難繼 似不能無紛拏之弊  
而舉將失望 此誠可憂也  
弟病雖不能顯減 跳動悶急之  
不作 亦已十餘日矣 稍待望念  
之間 欲試刀圭 而唐茸及此得  
來 則似好 稼圃姑無事  
祠宇還安於舊處 金妻近又氣  
上至 面紅頭疑 似未必爲虛症  
狀

개시(開市)<sup>63</sup>는 변방(邊方)에서 힘쓰는 것이 큰 듯하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생경(生梗)의 근심은 없습니다. 김비상(金裨尙) 형이 그믐 안에 들이 닥칠듯하여 19일에 곧 편지를 써서 서울에 부쳐 보냈습니다. 보름 뒤 배편(陪便)에 과연 곧바로 전하여 올리겠습니까?

두 편지가 모두 도달하였는지 혹시나 기일에 미치지 못하여 부침(浮沈)<sup>64</sup>되었는지 염려가 됩니다. 비장(裨將)의 자리는 십분 채웠건만 능포(廩布)<sup>65</sup>를 계속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분나(紛拏)<sup>66</sup>의 폐단이 없지 않으므로 모든 장수들이 실망하니 이것이 진실로 근심스럽습니다.

저의 병이 비록 나타나게 차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숫구치고 조금한 증상이 가신지가 10일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망념(望念)<sup>67</sup>의 사이를 기다렸다가 도규(刀圭)를 시험코자 하는데 이에 당용(唐茸)을 얻어오니 좋은 듯 합니다. 가포(稼圃)는 짐짓 별다른 일이 없고 사우(祠宇)는 옛 자리에 도로 안치(安置)하였습니다. 김씨 아내는 근간에 기(氣)가 위로 올라가서 얼굴이 붉고 머리가 어지러우니 필연코 허증(虛症)이 아닌 듯 합니다.

62) 경서(經書)에 대한 공부.

63) 업(業)을 시작함. 여기에는 중국과의 교역을 뜻함.

64) 물위에 떠오름과 물 속에 잠김. 곧 없어짐을 비유함. 여기서는 편지가 받을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고 도중에 없어짐.

65) 관아의 아전이나 관노비에게 매달 지급하는 급료.

66) 뒤엎혀 서로 침.

67) 음력 15일과 20일.

그러나 양육환(羊肉丸)이 과연 좋은 것인지 그것을 시험해보고 기(氣)가 더 올라가면 정지하고자 합니다. 종아(種兒)가 와서 머문 지가 수십 일이 되었는데 간간히 왕래하고 그냥 놀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점을 근심하여 수일 전에 가포(稼圃)에게 옮겨두니 이 병이 조금 나았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돌아다니는 증세이므로 효증(孝曾)이가 이 병을 가장 많이 앓더니 울음을 참지 못하고 열기(熱氣)가 생겼습니다. 수아(秀兒)는 반상(泮庠)<sup>68</sup>에 들어가기 위하여 도성(都城)으로 들어가서 연일 분주하니 아마도 병이 생길까봐 염려됩니다. 노아(駟兒)는 갑자기 서울에서 병이 나서 죽으니 참담한 슬픔이 심합니다.

정미년(丁未年, 1787) 9월 3일  
사제(舍弟) 올림.

然羊肉丸 果可爲當耶 試之而氣上有加 則欲令停止矣 種兒來留數十日 而間作往來游泛時多 方患阿堵 數日前 率置稼圃 疾亦向已 蓋是輪行之症 故孝曾者 最多日患此疾 時亦啼哭不耐 熱氣頗成矣 季兒爲泮庠入城 連日奔走 恐有生病之慮 駟兒忽地 患發於京中 而致斃慘惻甚矣……

丁未九月初三日 舍弟上書

---

68) 반궁(泮宮). 제후의 나라에 있는 국학 기관을 지칭하는바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선 시대의 성균관과 문묘를 의미함.



<용만대아(龍灣大衙)에 입납(入納), 추우(楸寓)에서 사제(舍弟)가 상서(上書)함.>

龍灣大衙 入納  
楸舍 舍弟 上書

형님 전(前)에 올립니다.

兄主前上書

운노(雲奴) 편에 부친 편지와 별록(別錄)은 어느 날에 도착하였는지 알지 못하지만, 경장(景章)의 요서(要書)도 올려 보냈습니다. 지난 26일에 내려주신 편지와 초길(初吉)에 내려주신 편지는 모두 받아보았습니다. 이 사신(使臣)이 갈 때에 그 편에 계속 가향(家鄉)의 소식을 보낼 듯 하건만 언제나 때가 맞지 않으니 생각의 연울(戀菀)<sup>69)</sup>이 옛날보다 곱절이나 됩니다.

雲奴便所付上書 兼有別錄 未知何日入達 而景章要書 亦有所上矣 去廿六下書 暨初吉下書 并此拜領 而值此使行之時 陪便 似相續而家鄉送信 每不能以時 則伏想戀菀 有倍於前時也 日候之凍煖不適

일기의 동난(凍煖)이 고르지 못하니 체후(體候)의 범절(凡節)이 어떠하며 협체(挾滯)<sup>70)</sup>의 증상이 자주 일어난다고 하니 아직 평상시와 같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구구한 생각이 어느 때에 가시겠습니까. 여가가 없더니 마침 변군(邊君)이 서울에 들어가는 편에 편지를 써서 그곳에 부쳤는데 그 내용에 산소(山所)의 역사(役事)를 아뢰었습니다.

體候凡節 若何而挾滯之愆度 頻作尙未之復常否 區區伏僣 何時可弛 無餘日 適因邊君入京之行 作書安付於邸處書中 報以山役事矣

이와 같이 내려주신 편지가 연이어 왔지만 내려 살펴주시는 가르침을 이어받지 못하니 부침(浮沈)에 이르러 그런 듯하니 어찌 탄식하겠습니까. 저는 옛날 그대로 지내거니와 겨우 상(喪)을 지난 나머지 운모(隕慕)<sup>71)</sup>의 회포를 더욱더 말할 수 없습니다. 수주(嫂主)의 기후는 별다른 증세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녀(金女)와 종아(種兒)는 모두 편안하니 모름지기 먼 밖의 근심을 끼치지 않을 뿐입니다.

連此下書之來 未承下賢之教 似致浮沈而然矣 何歎必之 弟姑依前狀 才過喪餘 隕慕之懷 益無可言 嫂主氣候 別無他症 可執言者 金女與種兒 俱安 不須爲

저의 약(藥) 재료는 지금에 방법이 나와서 당재(唐材)<sup>72)</sup>를 넣고 별도로 기록하여 올려 보냈습니다. 바라건 데 이 달 안에 찾아와서 약제(藥劑)를 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한(一漢)이 여태껏 이곳에 머물고 있으니 어찌 부칠만한 물건이 없겠습니까. 아이들의 당혜(唐鞋)·목필(木疋)·모자(帽子)등의 물건이 얼마이기로 노새의 등에 싣습니까.

遠外之貽憂耳 弟藥料 今始出方 以所入唐材別錄送上 望於今月之內 覓來爲作劑之地 如何 一漢尙此淹留 豈以無可付之物耶 兒輩唐鞋木疋帽子等物 幾何爲騾背所負耶

69) 그리워하는 생각이 쌓임.

70) 체증(滯症) 아울러 병이 생김.

71) 마음이 무너지도록 사모함.

72) 중국에서 나거나 또는 수입한 약재(藥材).

후대(厚大)한 행차를 바라거니와 저는 돈을 올려 보내지 못합니다. 어찌된 연유로 반드시 가야만 하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경장(景章)이 기록할 자료를 얻으려는 뜻이 있거니와 저는 찾아 줄 길이 없습니다.

그 행로를 살펴 보건데 아마도 천리 길을 도보(徒步)로 가야하니 민망한 생각이 듭니다. 듣건 데 성(城)안에서 금명간(今明間)에 발행한다고 하니 비록 저의 공칙(矜飭)<sup>73)</sup>이 있으나 문사(門史)<sup>74)</sup>가 올라올 때에 맞이하는 것이 어땠겠습니까. 마침 가포(稼圃)가 와서 서울에 가는 인편(人便)을 듣고 이에 편지를 올립니다. 예를 모두 갖추지 못합니다.

정미년(丁未年, 1787) 복월(腹月)<sup>75)</sup> 7일  
사제(舍弟) 올림.

厚大之行所望 不可以弟之挽  
上圓也 不知何故 必去也 景  
章有願得錄資之意 弟無覓給  
之道 觀其行 恐千里徒步 令  
人悶念 聞自城裏 令明發行云  
雖有弟之矜飭 門史登時 邀入  
如何 適來稼圃 聞有京便 茲  
付上書 不備

丁未 復月 七日 舍弟 上書

---

73) 조심스럽게 정돈함.

74) 마을 문을 감시하는 사람.

75) 음력 11월의 별칭.

<용만대아(龍灣大衙)에 입납(入納), 용인(龍仁) 본가(本家)에서 상서(上書)함.>

龍灣大衙 入納  
龍仁本家 上書

형님 전(前)에 올립니다.

兄主前 上書

운노(雲奴)가 길을 가게 되어 한 장의 편지를 써 올렸습니다. 그리고 원노(原奴)가 동행하여 오늘 아침에 출발할 무렵에 지난 22일에 내려주신 편지를 받고 위로가 많습니다. 요즘 날씨가 따듯한데 체도(體度)가 연이어 건강하신지 사모하는 생각이 또한 간절합니다.

爲雲奴之去 治上一書 而因原奴之同行 今朝始發 際此承拜去廿二

사행(使行)이 점차로 국경에 들어와서 수접(酬接)<sup>76</sup>이 번거로워 지오(支吾)<sup>77</sup>할 듯 하건만 유별나게 신경 쓸 것은 없습니까. 정촌(亭村)에 면례(緬禮)<sup>78</sup>는 어제 이미 지났으나 참모(慘慕)가 새로웠습니다. 관(棺)을 열고 살펴보니 수재(水災)와 충환(蟲患)이 관 밖보다 더 심하여 실지로 천례(遷禮)<sup>79</sup>가 때 맞춰 이루어진 것이 다행합니다.

下書 伏慰萬萬 間者日候 過於溫解

경장(景章)이 그 곳을 향하여 천리 길을 걸어가는데 다만 어린 종 한사람만이 따라가니 그 행색이 보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또한 행자(行資)<sup>80</sup>도 갖추지 않고 한푼의 돈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 더욱 허전하고 탄식스럽습니다.

體度連得萬衙否 慕慮又切 使行漸入境 酬接之繁 似難支吾 別無他可惱耶 亭村緬禮 已過於昨日 慘慕如新 而啓棺審視 水災蟲患 大有甚於棺外之時 實幸遷禮之及今時也 景章 方轉向其處 而千餘里徒步 只隨身一僮而已 行色足令人傷念 且行資不備 而見無一銅之相助 尤可歎歎

어제 저인(邸人)<sup>81</sup>이 아뢰기를 식료(朔料)<sup>82</sup>도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니 모든 집의 급한 상황을 알만하고 이 또한 응접할 겨를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내간(內間)의 노비 공지(貢至)를 저리(邸吏)가 구금하여 가두어 두었다고 말합니다.

昨見邸人所報 朔料亦不下來 諸家之急狀 可知 此亦應接之不暇及耶 內間之奴婢貢至 有邸吏拘囚云 雖未必因此生事 下吏舉行 未免稽忽之歎矣 奈何景章 似無阻閼之慮 然於其門 略此不備盡禮

비록 이것으로 인하여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하리(下吏)들의 거행이 계홀(稽忽)<sup>83</sup>의 탄식을 면치 못하니 어떻게 하겠는가. 경장(景章)은 조흔(阻閼)<sup>84</sup>의 염려는 없겠지만 그 문에서 예(禮)를 다 갖추지 않고 간략하게 올립니다.

丁未至月二日夜 舍弟 燦之上書  
祭需錢 到來耳

정미년(丁未年) 지월(至月) 2일 밤  
사제(舍弟) 찬지(燦之) 올림.

(추신) : 제수(祭需) 돈은 도래(到來)하였습니다.

76) 서로가 상대하여 접함.

77) 서로 어긋남. 겨우 버티어 감.

78) 산소를 옮겨서 장사를 다시 지냄.

79) 산소를 옮길 때에 행하는 예(禮).

80) 여행하는 데 소용되는 돈.

81) 경저리(京邸吏)와 영저리(營邸吏)를 두루 이르는 말.

82) 잡직이나 각 군문·아문의 장교. 원역들과 그 밖의 구실아치들에게 다달이 주는 급료.

83) 익살부리면서 경솔함.

84) 문지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음.

<용만부아(龍灣府衙)에 입납(入納), 추서(楸墅)에서 상서(上書)함.>

龍灣付衙 入納  
楸墅 上書

12일에 드리는 편지를 저리(邸吏)에게 보냈는데 파발이 이미 들어왔습니까? 들녘에는 가을 기운이 움직여 아침저녁으로 서늘합니다. 아마도 변방에는 절후(節侯)가 이르리라 생각합니다. 체내(體內)가 청위(淸衛)하신지. 이때에 우러러 구구한 마음이 더욱더 간절합니다. 변방의 정사(政事)에 특별히 경계할만한 근심이 없습니까.

十二上書付邸吏 未和已入撥  
否也 郊原秋意欲動 朝暮乍涼  
窃想塞土節早

그리고 문부(文簿)를 정돈하는 실마리에 그나마 포부(逋負)<sup>85)</sup>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이 아우의 병은 무리하게 일어날 때가 있으나 끝내 이것은 근원적인 병으로 고통은 어쩔수 없습니다. 막내의 병은 근간에도 그대로이며 음식의 조절이 걱정이 됩니다. 종아(種兒)는 저가 있는 곳에 자주 오고 이질(痢疾)이 그만하여 면식(眠食)이 평상시와 같으니 과서(課書)를 읽습니다.

體內淸衛 此時瞻儻益切 區區  
之忱 邊政別無可警之憂 文簿  
整就頭緒 不至幾多逋負否 弟  
病間雖有強起之時 終是源委  
之病 若不如何 季病近亦一樣  
而調食爲憂 種兒數數來置弟  
處 痢病能安眠食如常 方謀課  
書矣 向以原債之七十欲者 推  
移於邸人 而渠甚費辭難之 且  
聞渠所責應 非有換來 則無他  
可爲之力云

얼마 전에 원채(原債)의 나이가 70세로써 기로(耆老)<sup>86)</sup>의 대접을 받고자 하여 저리(邸吏)에게 추이(推移)하였으나 그들은 경비가 많이 들어서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듣건데 그들의 책응(責應)<sup>87)</sup>이 바뀌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힘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형세가 그럴듯하니 지금에 다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其勢似然 今後更不當先徵於  
渠 而卽今所需用於秋衣者 皆  
出於內間朔例 故艱窘特甚 且  
來頭冬衣之備 不可不矜者留  
意 嫂氏作帖 爲取用於邸 而  
見敗矣

그리고 지금에 수용(需用)되는 추의(秋衣)는 모두 내간(內間)의 삭례(朔例)<sup>88)</sup>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렵고 근색함이 매우 심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동의(冬衣)를 대비하여 기로(耆老)의 공지에 유의합니다. 수씨(嫂氏)의 작첩(作帖)<sup>89)</sup>은 저리(邸吏)에게 취용(取用)하려고 하였지만 실패를 당했습니다.

85) 세부(稅賦)가 부족하거나 잘못됨.

86) 나이가 많고 덕이 높은 사람.

87) 수요에 따라서 책임을 지고 물건을 대어 줌. 또는 그러한 사람.

88) 다달이 정해 놓고 하는 의례적인 행사.

89) 첩(帖)을 만들어 발급함.

다음 달 삭례(朔例)와 추석(秋夕) 제수(祭需)에 드는 비용이 매우 많은 듯 합니다. 그러나 또한 300~400가지의 조목을 바꾸어 붙이고 이 아우가 추동(秋冬)에 구분하여 사용하면서 판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광산(光山)에 이노위(李老委)가 와서 구청(求請)의 글을 지었습니다.

이에 내일 아침에 찾아서 분석하고 마땅히 사용할 것이나 그 의망(意望)은 십 수가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인편(人便)이 임박하여 무척이나 바쁘기로 이같이 예(禮)를 갖추지 않습니다.

7월 20일

사제(舍弟) 올림.

이곳에는 듣자하니 큰 풍년이 들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서락(西洛)<sup>90)</sup>에도 이와 같은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來朔之朔例 與秋夕祭需所入  
雖則夥然 又不可不以三四百  
某條 換付以爲弟區用於秋冬  
應辦之地 如何如何 光山李老  
委來 作此求請之書 茲及於來  
朝覓副 則可當及用 而其意望  
不過十數云矣 臨便輒忙甚 如  
此不備禮

七月廿日 舍弟 上書

此處 聞甚有大熟之望云 未知  
西洛 亦如此不也

---

90) 평양을 뜻함.

## 만포선조동심제공묵적(晩圃先祖同心諸公墨蹟)

## 晩圃先祖同心諸公墨蹟

<추서(楸墅) 체사(棣史)<sup>1)</sup>앞, 만부(灣府)에서 평서(平書)함.>

楸墅 棣史  
灣府 平書

어제 아침에 파발이 돌아와서 16일에 보낸 편지를 받고 세후(歲後)가 매우 추움에 모든 집안의 권황(眷況)이 안길(安吉)함을 살피니 위로가 된다. 다만 편지를 쓰지 못한 그 중간에 두 편지와 만수(灣需)의 편지가 차례대로 이르렀다. 15일 이후의 범절(凡節)도 평범하게 지내는지 아울러 믿어 절실하다.

昨朝撥還 得承十六  
書 仍審歲後峭寒  
諸家眷況 安吉慰豁 殊不可狀  
中間兩書 乃灣需便書 亦應次第至也 望以後凡節 亦平濛否 并倥旋切 此中依遣前樣耳 幼肅藥餌 已和丸 而鹿茸果貿用耶 價比於唐茸之自此貿送 則誠廉矣 然安知其堪用也 吾家之貧 無庇身之數間 卓錫之一畝 奚但通世所知也 惟

이곳은 옛 모양 그대로 지내고 있을 뿐이다. 유숙(幼肅)의 약이(藥餌)<sup>2)</sup>는 이미 환(丸)을 지었으며 녹용(鹿茸)을 과연 사서 쓰는가. 그 값은 당용(唐茸)에 비교하여 이것을 사서 보낸다면 진실로 저렴할 것이나 어찌 감히 그것을 쓸 수 있겠는가.

聖上熏燭之 君言誠然 尤可適爲腴府 輒先作一家 免饑寒之計 則其仰負

우리 집의 가난은 몸을 비호(庇護)할 두어 칸의 집과 송곳을 세울만한 한 이랑의 땅도 없다. 이것은 세상이 알 뿐만 아니라 성상(聖上)께서도 비추어 보시고 그대의 말이 진실로 그렇다고 하였다. 더구나 관부(官府)를 풍성하게 할지언정 먼저 일가(一家)가 기한(饑寒)을 면할 계책을 세운다면 성념(聖念)을 저버리고 남의 충고를 내치는 것이니 어떻게 하겠는가.

聖念 傍拓人譏 當何如 君何不思於此 而切三寸生活之間耶 况吾輩素寒者 得有千金 又有災鬼又隨之 更須念之也 依前爲活計 只謀二三草閣 稍殊民居 爲好耳 姑草

그대는 어찌하여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삼촌(三寸)이 생활하는 사이를 끊으려고 하는가. 하물며 우리들은 본래 가난하거늘 천금(千金)을 얻으면 또한 재귀(災鬼)가 따를 것을 모름지기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전(前)과 같이 생활하면서 2~3칸의 초가집을 마련하여 백성들의 삶과 조금 다르다면 좋을 뿐이다. 우선 초(草)한다.

戊申 元月 念四日  
家兄 輝遠

무신년(戊申年, 1788년) 원월(元月) 24일.

가형(家兄) 휘원(輝遠).

1) 형제에게 모시고 있는 사람이 받아서 전하여 달라는 뜻으로 형제에게 함께 보내는 편지의 곁봉에 쓰는 말.

2) 약이 되는 음식. 약과 음식.

수일간(數日間) 홍로(洪爐)<sup>3)</sup>경계 가운데에서 조바심으로 죽고자 하였으나 이때에 존체(尊體)<sup>4)</sup>의 좋은 은지를 받으니 위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2수(首)의 시(詩)는 모두 훌륭하니 사람으로 하여금 상쾌한 기운을 얻게 합니다. 듣건 데 이태후(李台候)<sup>5)</sup> 낙서(洛瑞)의 한 소장(疏章)은 그의 리가 삼엄(森嚴)하여 세상을 경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준아(駿兒)의 모자(母子)는 더위에 곤욕스러워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짐짓 예(禮)를 갖추지 않고 우러러 . . . 를 바랍니다.

대상(大喪)<sup>6)</sup> 성복(成服)<sup>7)</sup>하는 날에 원상(院相)<sup>8)</sup>은 물러나서 돌아오는 것은 이것이 옛 전례이기 때문에 잠깐 들어가서 사임(辭任)을 아뢰었으나,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하므로 출거(出去)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남아있는 인삼(人蔘)은 환약(丸藥)에 쓰려고 하거늘 어찌 음료(飲料)로 만들어서 낭비하려고 합니까. 외간(外間)<sup>9)</sup>이 기회를 맞춰 투저(投抵)<sup>10)</sup>하는 사람이 어찌 그 극치를 다 하겠습니까.

하물며 이 중임(重任)을 맡고 예부터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진실로 안건(案件)을 구상한다면 사임(辭任)할 수 없는 것을 근심하겠습니까. 한번 죽음으로써 우리의 종사(宗社)를 부호(扶護)하고 지금의 임금을 도울 따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 우리 대행조(大行朝)<sup>11)</sup>에 세상에 없는 은혜를 갚겠습니까. 내가 죽은 뒤에 여아(汝雅)가 이어서 능히 나라의 은혜를 다 갚지 못할까 봐 두려울 뿐입니다.

선궤(扇櫃)속에 한 개의 흰 부채가 남아 있을 듯하니 모름지기 기름을 잘 입혀서 햇볕에 말리는 것이 옳습니다. 두 장의 종이에 제시한 뜻은 모두 알았습니다. 대신(大臣)이 나라에 대한 체면의 의리는 안위(安危)가 생사(生死)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의 크고 작은 것 없이 모두 저울질하여 털끝만큼도 감히 사람을 위하여 가볍게 하거나 무겁게 할 수 없습니다.

數日洪爐界中 喘喘欲死 卽承此時

尊體清臙 慰荷慰荷 二詩皆好 足令人得爽氣也 聞李台洛瑞一疏 義理森嚴 可以警世耳 駿兒母子 但有因暑之憂矣 姑不備伏惟

大喪成服之日 院相退歸 自是古例 故纔入遠辭矣 教以仍留不得出去矣 家蔘所餘 欲用於丸藥 何爲作飲浪費耶 外間之乘機投抵者 寧有其極耶 況此重任 從古死者居多 苟爲構案 則何患無辭任 以一死扶我

宗社 翊我今主而已 不然則何以報我

大行朝 不世之恩耶 吾死之後 汝雅繼之 恐不能盡酬國恩耳 扇櫃中一素箒 似有餘者 須次着油曬陽 爲可耳 兩紙所示并悉 大臣體國之義 安危所在 死生 以之事無巨細 皆有秤錘 毫釐不敢爲人輕重

3) 현(縣) 이름. 제주도 정의(旌義)의 치소 서쪽 61리에 있었다. 지금의 서귀포시 동홍동과 서홍동지역에 해당한다.

4) 상대자의 몸의 존칭(尊稱).

5) 조선시대 공문서나 간찰 따위에 2품 이상의 벼슬아치에게 쓰던 존칭.

6) 임금의 상사(喪事).

7) 초상이 났을 때 상복을 처음 입는 일.

8) 임금이 죽은 뒤 스무엿새 동안 대소 정무를 행하던 승정원(承政院)의 임시 벼슬.

9) 친척이 아닌 남들. 아무관계 없는 세상 사람들 사이.

10) 투입하여 부딪침.

11) 대행은 임금이나 왕비가 죽은뒤 아직 시호를 올리기 전의 칭호였으니 대행조는 선왕의 조정을 의미함.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 천명(天命)에 맡길 뿐이거늘 어찌 사사로운 뜻을 가지고 그 사이에 끼어들겠습니까. 안 밖이 다르게 보고 고금(古今)의 만남이 다를 뿐이건만 가리어 꺼리고 꺼리어 보호한다고 말하니 매우 위태롭고 두려워하는 것이 참으로 한바탕 웃음거리입니다.

공복인(功服人)<sup>12)</sup> 환지(煥之).

선릉(先陵)에 고(告)한다는 것은 능에 고하는 기록에 따라 예서(例書)를 갖추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듯 하다. 그곳에 고유(告由)한다면 마땅히 현릉원(顯隆園)이라고 칭해야 하니 이것은 까다롭게 논하지 않을 뿐이다. 모름지기 교문(教文) 중에 능히 성렬(聖烈)을 천량(闡揚)하지 못하였다고 대소(臺疏)에 있었습니다. 이 때에 마음대로 움직여 때를 타고 공격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매우 아름답지 못한 일이니 대소(臺疏)에도 멈추라고 말 하였을 뿐입니다.

而幸與不幸 付諸天命而已 豈以私意 參其間耶 內外異觀 古今殊遭耳 掩諱忌護云 雅甚危怖 眞堪一笑也

功服人 煥之

告先陵云者 因告陵謄錄 而備例書入 故似然若云 告由於其所 則當稱顯隆園 此則不又苛論耳 須教文中 全不能闡揚聖烈 已有臺疏 而此時徑動有若乘時功擊 然甚非美事 臺疏亦停云耳

---

12) 상복(喪服)의 굵은 베로 지은 대공(大功)과 가는 베로 지은 소공(小功)의 총칭.



어제에 은혜롭게 보내주신 편지가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부복(俯伏)하여 생각하노니 신숙(信宿)<sup>13</sup>사이에 태후(台候)<sup>14</sup>가 증위(增衛)<sup>15</sup>하셨습니까. 저는 풍증(風證)과 벽증(癖證)이 오래되고 여기에 감기와 참복(慘服)<sup>16</sup>을 한 두 차례 겪으면서 오히려 위돈(委頓)<sup>17</sup>하고 혈떡거리는 모양이 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땅 위에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회태(晦台)의 묘문(墓文)에 일일이 그러하거나 오직 “이로(已老)”란 두 글자는 “역이로(亦已老)”란 세 글자로 대신하는 것이 어떤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얼마 전 연교(筵敎)에서 분명하지 못한 것을 인지하거니와 저의 견해도 그러합니다. 정영사(鄭令事)의 가르침도 모두 저의 견해와 같으면서 조금 다르니 어찌 까다롭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더욱 더 징험할 수 있거니와 그 벽루(僻陋)<sup>18</sup>들의 방조(傍助)가 없겠습니까. 그것을 지적하여 의심한다고 하니 참으로 호소(好笑)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말대로 되지 않을까 두려우니 그 말이 이로 인하여 여론(輿論)되어 태후(台候)가 저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이 일을 기다리지 않고 경계를 더하여야 할 까닭입니다. 나누어짐이 심하여 벼슬을 버린다면 심력(心力)을 그릇 허비하는 것이 가석(可惜)합니다.

줄고(拙藁)는 그나마 이윤(李胤)이 꾸밀 수 있고, 아전의 재주가 남보다 낫거니와 다가오는 날에 한차례 지휘하면 아마도 혐의를 피하지 못할 것이니 어떻게 하겠습니다. 조광서(趙光瑞)의 두 표문(表文)을 몰래 초(草)하여 보내니 바로 일일이 승삭(繩削)<sup>19</sup>하여 돌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서낙보(徐樂甫)·김치오(金稚五)의 두 표문은 아직 탈고(脫藁)하지 못했으니 마땅히 받들어 바를 것이며 늦은 새벽에 짐짓 식(式)을 갖추지 못하고 드립니다.

4월 18일

척종(戚從) 기복인(碁服人) 중수(鍾秀) 돈배(頓拜).

日昨

惠書尙慰 伏惟信宿

台候增衛 賤疾風證癖證 有挾  
感越慘服 差過一兩 而尙委頓  
喘喘如是 而可謂生在地上耶  
晦台墓文

來敎 一一誠然 唯已老二字  
擬以亦老矣三字 代之 不知果  
如何也 向來

筵敎之 無以分明 仰認賤見  
亦然矣 鄭令事來敎 儘如賤見  
小失 何必苛措耶 然卽此尤可  
驗 其僻陋無傍助耶 持疑之云  
眞堪好笑 然恐不必因辭 盖其  
言因是輿論 而

台之見忤於彼 似不待此事 而  
有加誠故也 分且甚益之棄官  
可惜枉費心力也

拙藁 僅以李胤之可矜 而吏才  
又過人 來頭一麾 恐不必避嫌  
也 如何如何 趙光瑞兩表 暗  
草送 正一一繩削 以還之如何  
徐樂甫金稚五兩表 則姑未脫  
藁 從當奉正也 殘早姑不備式

四月十八日 戚從碁服人 鍾秀  
頓

13) 이틀 동안 묵음.

14) 조선 시대 공문서나 간찰 따위에 2품 이상의 벼슬아치에게 쓰던 존칭.

15) 더욱더 위생에 힘씀.

16) 젊어서 죽은 사람을 위하여 입는 상복(喪服).

17) 곤욕스럽고 피곤함.

18) 사람의 성질이 괴벽하고 까다로움.

19) 먹줄로 바르게 선을 긋듯 잘못된 글을 바르게 고침.

곧 서울의 행렬을 따르다가 영(令)께서 지난달 25일에 내려주신 편지를 받고 애타게 침상(瞻想)<sup>20</sup>하는 즈음에 위로됨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또한 모춘(暮春)에 정후(政候)가 만상(萬相)<sup>21</sup>함을 살펴보니 마음이 깨끗하게 풀리거늘 무엇을 말 하겠습니까. 저는 큰 참혹(慳酷)함을 만났으나 은혜의 조화가 망극하여 근간(近間)에 처지가 편안하니 형벌이 아닌 영화를 누립니다.

따라서 황군(惶窘)<sup>22</sup>함을 느끼어 보답에 응하려고 하지만 처지가 없습니다. 저는 늙은 사람으로 더욱더 위철(危臈)<sup>23</sup>하여 근심과 두려움이 많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에 하문(下問)을 받고 두 종류의 강당(薑糖)과 약이(藥餌)를 구하여 드리오니 교감(交感)이 천만분 지극하건만 멀리서 어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짐짓 예를 갖추지 못하나니 내려 믿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배사(拜謝)하고 글을 올립니다.

3월 11일

아우 복인(服人) 시동(蓍東) 배(拜).

即從京旆 忽拜前月念五 出  
令下札 懸懸瞻想之際 慰倒已  
不可量 且審暮春者  
令政候萬相 止心折釋 又何盡  
狀 弟遭罹孔慳 而  
恩造罔極 近地便養 匪罰伊榮  
感戴惶窘 應報無地 弟以老人  
近益危臈 多憂懼 奈何 荷此  
垂問 副以兩種薑糖 可需樂餌  
謝上 交極千萬 遠而易既 姑  
不備 伏惟  
令下亮 拜謝狀上

三月十一日 弟服人 蓍東拜

20) 멀리서 우러러 보며 생각함.

21) 아주 편안함. 윗사람의 안부를 묻거나 전할 때에 쓰는 말.

22) 황공하고 군박(窘迫)함.

23) 위독한 병세가 지속됨.

회녕(會寧) 고개에 도착하니 부사(府使)가 화한(華翰)<sup>24</sup>을 주어 비로소 한세(漢世)의 소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미 춘음(春陰)<sup>25</sup>은 다 지나가는데 영후(令候)가 편안하십니까. 또한 가국(家國)이 두루 편안함을 들었건만 이것이 하등(何等)의 흔할(欣豁)<sup>26</sup>함이 되겠습니까.

여러 편지에서 보이는 바는 또한 대개는 알았습니다. 오직 연상(蓮相)의 초상(初喪)은 세역(世逆)에 관계가 있으니 실성(失聲)하고 경도(驚悼)합니다. 나와 의 교의(交誼)<sup>27</sup>가 깊고 지극할 뿐만 아니라 부개(副价)<sup>28</sup>의 정경이 더욱더 참연(慘然)합니다.

저는 어제 연산관(連山關)에서 자고 또 전진하여 재명일(再明日)에 마땅히 책문(柵門)<sup>29</sup>에 닿을 것입니다. 몇 일간 머물는지 모르기는 하지만 성광(聲光)<sup>30</sup>이 점점 가까워지니 사람으로 하여금 위로케 합니다. 목마를 생각이 들 즈음에 찬물(饌物)이 이르고 한 병의 술맛이 좋으니 곧바로 흠뻑 취하여 정념(情念)에 크게 사례합니다.

다만 목마른 사람이 마시기 쉽거늘 어찌 술잔을 다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우습고 또 우습습니다. 집 편지는 다행하게 파발의 행렬에 들어갔으니 모두 오래되지 않고 대할 것입니다. 짐짓 다 베풀지 않고 내려 비쳐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1일

아우 언호(彦鎬) 배(拜).

行到會寧 嶺府使賚致  
華翰 始得漢世消息 已罄春陰  
令候增重 且聞家  
國均安 是爲何等欣豁耶 諸紙  
所示 亦已領得大槩 惟蓮相之  
喪 有關世逆 失聲驚悼 奚直  
爲交誼之深摯 副价情景 尤可  
慘然 弟昨宿連山關 又方前進  
再明當抵柵門 不知留得幾日  
而聲光漸邇 令人慰意 饌物及  
於渴念之際 壺醪味好 到即引  
滿所醉 多謝  
情念 而但渴者易飲 或何不頃  
盡耶 笑笑 家書幸入撥旆也  
都留非久 對叙 姑不宣統希下  
照

三月一日 弟 彦鎬 拜

24) 남의 서한(書翰)을 높이어서 일컫는 말.

25) 봄날에 꽃나무의 숲.

26) 마음이 시원하게 확 뚫임.

27) 서로 사귀는 정의.

28) 부사(副使)의 별칭.

29)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 사신(使臣)들이 청(淸)나라에 내왕하던 곳.

30) 명성의 광영.

명악(溟嶽)<sup>31</sup>에 장리(杖履)<sup>32</sup>가 영광스럽게 매복(枚卜)<sup>33</sup>을 받으니 이것은 천고(千古)에 성대한 일입니다. 따라서 청한(淸漢)<sup>34</sup>이 지척(咫尺)에 있고 궤석(几鳥)<sup>35</sup>을 또한 회복하여 지중(持重)하니 가액(加額)<sup>36</sup>의 도림을 견디지 못합니다. 항해(沆漚)<sup>37</sup>를 찬흡(餐吸)하여 균체(勻體)<sup>38</sup>가 신비롭게 보호되기를 우러러 바랍니다.

합하(閣下)는 사림(士林)의 관면(冠冕)<sup>39</sup>이 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러러 보기를 이와 같이 가리키고 돌아보면서 국세(國勢)를 반태(盤泰)<sup>40</sup>에 조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에는 진실로 선후(先後)가 있으니 그 요점은 마음을 세우는 데에 있습니다. 합하(閣下)의 위대한 도량과 조식(早識)<sup>41</sup>으로 의례히 정주(定籌)<sup>42</sup>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인(小人)이 감히 물을 수 없으려면 나름대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윤문익(尹文翼)이 정승을 제수 받지 못할 적에 합하(閣下)와 더불어 대궐에 회합(會合)하였습니다. 그 때에 윤공(尹公)은 태원(太圓)<sup>43</sup>의 장려는 구(樞)에 있고, 합하(閣下)는 태방(太方)<sup>44</sup>의 장려는 규(規)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에 생각하면 윤공(尹公)의 계획은 진실로 설득력이 있거니와 합하(閣下)의 계획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원(圓)은 건도(乾道)이며 방(方)은 곤도(坤道)입니다. 건(乾)은 변화를 주관하니 성인(聖人)이 아니면 쉽게 배우지 못하며 곤(坤)은 곧고 방대하니 오히려 그 도량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상공(相公)의 기상(氣像)을 살펴보니 벽(壁)이 서 있는 듯 모가 나고 견고한 듯 합니다. 아마도 세상이 말 하는 것은 대신(大臣)의 도(道)가 서관(庶官)에 다르니 능각(稜角)<sup>45</sup>을 요구하지 않고 미륵(彌綸)<sup>46</sup>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溟嶽杖履 光膺  
枚卜 此千古之盛事 而淸漢咫尺 几鳥又復持重 不任加額之遲遲也 伏惟餐吸沆漚 勻體神護  
閣下 爲士林冠冕久矣 自受是命也 人之仰之 若將指顧轉眄 而措國勢於盤泰 然而事固有先後 而其要在乎立心 以閣下之偉度早識 固有定籌 小人非敢問也 竊有獻焉  
頃年 尹文翼之未拜相也 與閣下會於關中 則以爲尹公 太圓所勉在矩 閣下 太方所勉在規 以今思之 爲尹公計誠得矣 爲閣下計 未之得也 圓乾道也 方坤道也 乾主變化 非聖人未易學也 坤直方大 猶可以謹守其度 竊覩  
相公氣像如壁立 方固裕如也 恐世之談者 以爲大臣之道 異於庶官 不要稜角 而貴彌綸

31) 산간벽지의 지역을 뜻함.

32) 서간문(書簡文)에 사용하는 말로써 나이가 많은 노인에게 씀. 도는 그러한 노인.

33) 정승 또는 정승의 지위. 매복이란 원래 점을 쳐서 그 가운데서 가장 길한 것을 선택한다는 뜻으로 정승(政丞)의 자리는 국가의 중임(重任)이므로 옛날에는 길흉을 점쳐서 뽑았던 데서 유래함.

34) 천하(天河). 임금이 사는 궁궐을 뜻함. 35) 화려한 지위를 뜻함.

36) 이마에 손을 얹는 뜻으로 올 사람을 기다림.

37) 한밤중에 내리는 북방의 이슬. 또는 공기(空氣).

38) 대감(大監)의 기체(氣體)라는 뜻으로써 조선 시대에 편지의 앞머리에서 정승의 안부를 묻는데 사용하던 투식어.

39) 관(冠)은 관의 총칭. 면(冕)은 대부(大夫) 이상의 예관(禮冠). 전하여 제일 혹은 수위(首位).

40) 반석과 같이 크고 단단함. 41) 어려서부터 식견이 출중함.

42) 결정한 계획. 43) 태소(太霄). 하늘의 만 이름.

44) 땅의 별칭.

45) 행실이 단정하고 뜻이 견고함.

46) 포괄적으로 널리 감쌌.

이것은 우리 합하(閣下)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합하께서는 더욱 더 단단하고 소박하게 지켜서 흔들리지 말고 변하지 마소서. 진퇴(進退)를 한결같이 이 일을 따르면 곤신(坤臣)<sup>47</sup>의 상징이 이에 있으니 모르기는 하지만 합하(閣下)께서는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직분의 일이 몸에 있으니 □□ 글을 올립니다.

9월 24일.

소인(小人) 진관(鎭寬) 재배(再拜).

此非所望於吾閣下 惟望閣下  
益緊素守 勿撓勿變 進退一以  
是從事 則坤臣之象 亶在於是  
未知閣下以爲如何 職事在身  
不□□上書

九月 二十四日 小人 鎭寬 再  
拜

---

47) 신하를 일컬음.

떨어지는 해는 합하기 어려워 다시 서쪽 변방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러러 슬퍼하는 이때에 조용한 생활이 한결같이 가승(佳勝)<sup>48</sup>하신지 애달픈 생각이 지극합니다. 저는 6년이나 병을 앓으면서 형각(形骸)<sup>49</sup>을 보존하니 또한 다행한 일로써 다르게 무엇을 비유하겠습니까. 작년에 증왕고(曾王考)가 시호(諡號)를 맞이할 때에 왕께서 특별히 명하여 제문(祭文)을 하사(下賜)하였습니다. 또한 왕께서 몸소 글을 지어서 내리고 모든 포장(鋪張)<sup>50</sup>을 갖추었으니 은혜의 광영이 지극합니다.

따라서 지금에 한 첩(帖)의 책자를 꾸며 만들어서 집에 전하는 소장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마침 7언 율시(律詩) 한수가 있으니 이로 인하여 가까운 분들에게 가까운 분들에게 화답(和答)을 구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하방(下方)<sup>51</sup>에 부탁하여 한권의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형님은 그 때에 먼 곳에 있으므로 미처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형이 돌아간 뒤에는 제가 이른 봄부터 선영(先塋)의 천례(遷禮)를 경영하여 다른 겨를이 없이 한 여름에 겨우 면례(緬禮)<sup>52</sup>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셋째 아우가 또한 지중(持重)<sup>53</sup>할 때에 기(氣)가 출몰(出沒)하여 몇 번이나 죽을 뻔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5개월이 지났건만 오히려 기동(起動)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 중간의 우황(憂惶)<sup>54</sup>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난 그믐부터 이 달 초순까지 일념으로 일을 시작하여 그 사이에 일을 다 하였습니다. 이에 시운(詩韻)으로 받들고자 하였으나 또한 인편(人便)이 없어서 고심하니 지금에 탄돌(歎咄)<sup>55</sup>합니다. 이제야 삼종형(三從兄)이 서쪽으로 들어가는 편에 부칩니다. 늦었다고 핑계되거나 늦어진다고 하지 말고 모름지기 빨리 읊어서 보내주시면 천만 다행으로 여기겠습니다.

落日難合 無復異西塞時 但有  
瞻悵此時  
靜履起居 一以向佳勝否 懸溯  
之至 弟一病六年 能存形骸  
亦已幸矣 他又何喻 昨年曾王  
考延諡時  
特命賜祭文 又是自  
上親製啓下 而備悉鋪張 思榮  
極矣 方欲裝成一帖 以爲家傳  
之藏矣 度上適有成得一七律  
者 意欲因此 求和於略爾 吾  
儕人付諸下方 成一冊子 而兄  
時在遠 未及相報 及兄歸之後  
則弟又自春初 經營先塋遷禮  
不暇及他 中夏纔經緬事 而三  
弟又持重得時 氣出沒 死生不  
知其幾番 迄今五朔 尙不能起  
動 中間憂惶 不欲可想  
自去晦今初 一念方能創事 爲  
間事極 欲以詩韻奉托 而又若  
無便 方此歎咄 今因三從兄  
西入便付呈 勿以晚托 而又復  
晚成 必須從速吟示 千萬千萬

48) 아무런 탈 없이 잘 지냄을 뜻함.

49) 겉으로 드러난 모양과 그 형체.

50) 베풀어 놓음.

51) 세상사이, 세간(世間).

52) 무덤을 읊기어 장사를 다시 지냄.

53) 몸가짐을 신중하게 함. 종묘(宗廟) 제사의 중임에 당함.

54) 근심으로 인하여 허둥지둥함.

55) 탄식하면서 혀를 참.

어제(御製)는 아마도 보지 못했으리라 여기어 베껴서 드리고 그 사이에 화답(和答)한 시문(詩文) 약간을 아울러 부쳐 보냅니다. 이것은 형님이 재상(宰相)의 자리에 오르고 백년간 증왕고(曾王考)를 모셔온 일가(一家)와 이웃 마을이 모두 기뻐하고 다행으로 여깁니다. 따라서 지금의 세상에 공도(公道)가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듣건 데 형님께서 여러 친지들에게 안경(眼鏡)을 나눠준다고 하거늘 어찌하여 저에게는 주지 않습니까. 남은 것이 없다고 하지마시고 반드시 좋은 것 하나를 빨리 보내주시어 오랜 감노(憾怒)<sup>56</sup>가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눈이 침침하여 예를 갖추지 못하고 겨울 글을 올리나니 내려 비쳐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9일

아우 이환(履煥)이 삼가 안후(安候)의 글을 올립니다.

御製 恐或未及得見 故謄呈而  
其間 若干和成詩章 并爲付送  
耳 此兄得宰 百歲侍下 一家  
隣里 皆爲欣幸 今世亦 可謂  
能有公道也 聞兄眼鏡 遍散於  
諸親知 而何獨不及於弟 莫曰  
無餘儲 必以好品一箇 從速送  
來 無使久憾怒 如何 方又眩  
作 僅此不備 伏惟  
照下

八月九日

弟 履煥 謹候狀上

---

56) 원망하고 성냄.

지난번 편지 속에 민변가(閔弁家)의 편에 안부가 있었거니와 한번도 직접 편지를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다시 나라일에 바빠서 그렇다고 여기지만 창울(悵鬱)함이 깊을 뿐입니다. 매서운 한과에 살피드리지 못했나니 태후(台候)의 기거(起居)가 신의 가호로 더욱더 좋으신지 우려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편지에 간(諫)하였거니와 태후의 뜻은 어떠하신지 또한 이럴 수가 있는가하는 꾸지람을 생각합니다.

대개 임금과 신하의 사이는 안정(顏情)<sup>57</sup>이 익숙하면 차마 하지 못하는 어긋남이 있나니 이것은 구구한 인(仁)으로 도(道)있는 군자(君子)의 일이 아닙니다. 태후(台候)께서는 왕문정(王文正)으로 경계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태후께서는 강과(剛果)<sup>58</sup>함을 스스로 가지시고 은남(恩男)<sup>59</sup>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성은(聖恩)에 보답하고 미충(微忠)<sup>60</sup>을 본받는 길입니다. 바라건 데 모름지기 한결같은 처음의 정치로 간절하게 정성을 바쳐 임금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짐짓 지난날에 드린 편지 내용과 같이 지냅니다. 남은 말은 소지(小紙)<sup>61</sup>에 있으니 따져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 갖추지 못하고 편지를 올리나니 태후께서 굽어 살피주시기를 바라면서 안부의 글을 올립니다.

윤월(閏月) 8일

아우 일환(日煥) 돈수(頓首).

前有書問 因閔弁家便有候 而一未承惠 復想仍王務鞅掌而然 悵鬱則殊深 峭寒 不審 台候起居 神護增休否 溯仰無已 向書所諫 台意果以爲何如耶 想又有有是哉之誚 盖君臣之間 顏情既熟 則又有不忍違拂 固是區區之仁 非有道君子之事 台須以王文正爲戒 又剛果自持 勿以恩男 爲念如何是乃所以報聖恩 郊微忠之道 幸須仍此一初之政 懇懇獻誠以格上心 如何如何 弟姑如前書時樣餘在小紙 採覽如何 不備伏惟

台下照 拜候上

閏月八日 弟日煥頓首

57) 여러 차례의 안면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정.

58) 마음이 강하여 결단력이 있음.

59) 사랑하여 기른 아들.

60) 심중(心中)에만 깊이 있고 겉으로는 변변치 못하게 나타나는 충성심.

61) 편지 속에 별도로 써 넣은 작은 부지(副紙).



골짜기 속에서 세상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날이 오래되어 비로소 듣고 놀라고 두려워 할 따름이니 무엇을 말 하겠습니까. 무더위 속에 병든 몸으로 사경(死境)을 헤매면서 어떻게 그곳에 이르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몸의 기운은 손상됨이 없는지 남쪽으로 아득한 길을 바라보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거처(居處)의 모든 것은 진실로 어떠하며 누가 형(兄)으로 하여금 굶주리지 않게 하며 굶주림은 또한 어떻게 대비하십니까. 다만 가의(加意)<sup>62</sup>하여 스스로 체도(體度)를 보호하시고 아침저녁의 생각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상황은 별도로 말할 것이 없으니 천만 다행입니다. 모름지기 길게 쓰지 않고 다만 이것으로 줄이고 형께서 내려 살피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26일

아우 상묵(尙默).

峽裡 安知世事 日久始聞 驚恐而已 尙何言哉 衝炎疾軀 又一死境 未知何以侍抵 體氣無損耶 南望黯路 不能成眼 居處凡百 果如何 誰又使兄不饑耶 饑亦何備也 第望加意 自護體度 悉日夕之念 弟狀無可言 千萬 不須作長 只此不宣 伏惟 兄下照

五月念六 弟尙默

---

62) 특별히 마음에 둔. 특별히 주의하는 일.

지난 그믐 객랍(客臘)<sup>63</sup>에 손수 쓴 편지를 받고 기쁨의 위로를 생각합니다. 그 이틀 뒤 헌발(獻發)<sup>64</sup>에 살피드리지 못했나니 정리(靜履)<sup>65</sup>가 어떠하오며 옮겨 살면서 도리어 군색(窘塞)함이 없습니까. 아울러 염려됨이 어느 때에 풀릴 수 있겠습니까.

이 못난 아우는 간간히 안병(眼病)이 심하더니 요즘에 와서 조금 편안하거니와 오른손 무명지(無名指)가 불인(不仁)<sup>66</sup>합니다. 의서(醫書)에 이르기를 3년 안에 반드시 풍질(風疾)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차분하게 천명(天命)을 기다리니 또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음식은 자못 거르지 않으니 은악(恩渥)<sup>67</sup>이 더하는 것으로 어느 곳에 무슨 일인지 신(臣)으로 하여금 감읍(感泣)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노사(魯史) 6편을 요득(了得)하여 공부를 하였거니와 책을 덮으면 문득 잊어버리니 다만 소일거리만 될 뿐입니다. 가을밤에 잠 못 이루고 나의 허물을 점검해보니 진실로 잘못되었습니다.

생각하면 모든 객기(客氣)가 정녕코 진정(眞正)하지 못했습니다. 탕병(宕病)을 통감하고 경계하여 새로운 공부를 하려고 하지만 포류(蒲柳)<sup>68</sup>가 쇠잔함을 날로 깨달음이 자심(滋甚)합니다. 양(羊) 잃고 우리를 고친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하고 나름대로 슬플 뿐입니다.

뒤에 온 방백(方伯)이 다시 그 뜻을 물으니 진실로 천만(千萬)번 느낍니다. 눈을 부리고 간초(艱楚)<sup>69</sup>하여 능히 더 버티지 못하고 다만 장례(狀例)을 갖추지 않습니다.

2월 2일

누제(累弟) 규직(奎職) 돈수(頓首).

去晦 承拜客臘  
專手字 欣慰可想 信后倏已獻發 不審  
靜履 復如何 移居能不轉窘否 并念何時可弛 累弟間患眼病 甚重 日來少平 右手無名指 忽不仁 此醫書所云 三年內 必有風疾者 而恭俟天命 亦復奈何 飲啄姑不闕炊 此果 恩渥所益 何處何事 不使臣感泣也 來此了得魯史六遍 課而 掩卷輒忘 只是爲消日之資而已 秋霄無寐 占檢愆尤 吾道 誠非矣 諒皆客氣 定非眞正 痛戒宕病 要就新工 但蒲柳之 衰 日覺滋甚 亡羊補牢 何益 之有 竊自悼耳  
來後方伯 有再問其意 良感千 萬 措眼艱楚 不能支吾 只此 不備狀例

二月初二日 累弟奎職頓首

63) 지난해의 설날.

64) 새해에 들어서 봄이 되었음을 이르는 말.

65) 고요한 일상생활.

66) 몸에 마비가 생겨 거부함.

67) 두터운 은혜. 임금의 은혜

68) 땅버들.

69) 견디기 어려운 정도로 고초가 심함. 또는 그러한 고초.

우연히 돋는 해를 보고 읊은 것이 있어서 써서 보내나니  
보시고 사람을 나무라지 마소서.

偶見出日 有吟書去 覽勿煩人  
耳

부상(扶桑)<sup>70</sup>에 서채(瑞彩)가 오르나니  
만상(萬象)은 모두 머리를 동쪽으로 향하네.  
효자(孝子)은 깊은 사랑을 간직하고  
충신(忠臣)은 국궁(鞠躬)을 본받네.  
길이 육(陸)의 봉수(捧手)<sup>71</sup>를 응할 진저  
감히 예(羿)의 관궁(關弓)<sup>72</sup>을 감히 하겠는가.  
천지(天地)는 서로가 마침과 시작이거늘  
지극한 논리는 소옹(邵翁)<sup>73</sup>에게 듣는다.

扶桑騰瑞彩 萬象首皆東  
孝子存深愛 忠臣效鞠躬  
長應陸捧手 那敢羿關弓  
天地相終始 至論聞邵翁

---

70) 옛날 중국에서 해가 뜨는 동쪽 바다 속에 있다고 한 상상의 신선한 나무. 또는 그곳.

71) 손을 마주 모두어 잡고 인사함. 또는 그러한 예(禮).

72) 활을 설치하여 발사에 대비함.

73) 소옹(邵雍). 천문과 철학을 정통한 학자.

가을과 겨울에 몇 번이나 왕복하였는지 끊인 듯 막힌 듯 답답하게 우러러 보니 세모(歲暮)에 더욱더 비참합니다. 은혜롭게 내려주신 편지를 받고 추운 겨울에 정후(政候)<sup>74</sup>가 더욱 만승(萬勝)하다고 하지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는 오래된 질병이 자못 차도가 있는 듯 하더니 요즘에 한감(寒感)<sup>75</sup>의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잠과 음식이 모두 감(減)하여 쇠잔한 기력이 점점 더하는 데에 이루기 쉽습니다.

이에 맡은 자리를 떠나서 방경(邦慶)<sup>76</sup>의 자리에서 지체되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기꺼이 축하한 나머지 조울(慄鬱)<sup>77</sup>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조정승(趙政丞)이 문득 고인(故人)이 되니 또한 시운(時運)에 관한 것이거니와 옛 정분(情分)을 생각하니 스스로 눈물이 흐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근일(近日)에 효상(爻象)<sup>78</sup>을 생각하니 휘원(輝原)이 나온 것으로 인하여 그 조짐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옥(刑獄)의 위험한 함정에 장차 세가(稅駕)<sup>79</sup>의 장소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믿는 것은 오직 성명(聖明)이 위에 있을 뿐입니다. 이 때에 어떤 태후(台候)와 우연히 정온(鼎穩)<sup>80</sup>의 혼인으로 인척이 되었습니다.

납월(臘月)<sup>81</sup> 9일

아우 재경(載經) 올림.

秋冬幾往復 截然阻澗 懸仰歲暮 益留慘悲 獲承  
 令惠札 憑審窮涸  
 政候增衛萬勝 何等慰豁 弟宿  
 症頗有減意 近添寒感 率賴若  
 刻 寢啖俱減 衰氣易致漸鑠  
 方此委席脫之 而以  
 邦慶之庭筵 尙滯未還 欣祝之  
 餘 不堪懔鬱也 趙相 奄作故  
 人 亦時運所關 而念昔情分  
 自不覺涕澗也 近日爻象 想因  
 輝原所出 可以察其影子 而祓  
 機危穽 將不知稅駕之所矣 所  
 恃者 惟  
 聖明在上耳 時與某台 偶戚鼎  
 穩之婚 . . . . .

臘月 九日 弟載經 頓

74) 서간문에서 지방 수령(守令)을 공경하여 그의 안부를 말할 때 쓰는 말.

75) 추위를 겪어서 든 감기.

76) 나라의 경사.

77) 근심스럽고 답답함.

78) 좋지 못한 상태. 역괘(易卦)에 있어서의 길흉(吉凶)의 상(象).

79) 나그네가 쉬는 곳.

80) 성대하고 평온함.

81) 설날.

부복(俯伏)하고 생각하노니 밤이 다가오는데 균체(勻體)가 만안(萬安)하신 지 사모하여 구구한 지정(至情)을 견디지 못합니다. 소인(小人)은 지금에 바야흐로 양지(陽智)에 도착하니 경궐(京闕)이 점점 멀어지고 마음이 회포를 억제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주간(主幹)하는바가 매우 중하여 잘못될까 봐 두려워 다만 송민(悚悶)할 뿐입니다. 다른 일은 말할 것이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망간 사람을 잡는 것이 아마도 쉽지 않으니 이것이 근심스럽습니다. 형편으로는 모든 도(道)에 행관(行關)<sup>82</sup>하여 각별히 기찰하여 고발하려고 한 것이 또한 오래되었습니다. 서북(西北)도 모두 문이(文移)<sup>83</sup>하였거니와 이른 바 영장(營將)<sup>84</sup>의 기포(譏捕)<sup>85</sup>를 엄격하게 비밀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큰 지방은 산을 헤치고 숲을 뚫으면서 요행하게 잡힐 것을 기약하였으나 끝내는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급하게 다루면 요란스럽게 되거니와 본도(本道)에 있어서는 안행(按覈)<sup>86</sup>이 지금에 바야흐로 내려갔습니다. 어떤 고을에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변(變)을 짓고 어떠한 일을 지었는지 귀가 있는 사람은 모두 들었습니다. 따라서 탄로 난 일은 숨기려고 하지만 숨겨지지 않습니다.

또한 한 지방을 안무(安撫)<sup>87</sup>하니 바로 요긴한 일은 어떤 고을에 어떠한 놈이 변(變)을 일으켜 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놈은 고가(故家)<sup>88</sup>의 후예(後裔)로써 흉악하고 추악하니 더욱더 통탄한 일입니다. 고개 밖 사부(士夫)의 시골에 반드시 함께하려는 마음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시골 마을이나 사찰(寺刹)에 자취를 숨기면 곧바로 잡아 드리고 만약에 숨겨주면 같은 죄목을 면치 못한다는 뜻으로 모든 고을에 행관(行關)하였습니다. 그리고 용과(容庖)<sup>89</sup>를 상세하게 기록하여 촌리(村里)에 게시하였습니다.

伏惟夜來  
 勻體候萬安 伏慕不任區區之  
 至 小人 今方行到陽智 而  
 京闕漸遙 心懷難抑 且以所幹  
 甚重 債誤爲懼 只自悚悶而已  
 他事無論 最是在逃者之捉得  
 恐未易未易 此爲可憂 勢將行  
 關諸道 各別譏訶 且今爲日已  
 久 西北亦常一體文移 而第所  
 謂營將譏捕 雖以嚴秘 若大地  
 方 披山剔藪 以期其僥倖見捉  
 終歸於有名無實 急之則又致  
 騷擾 至於本道 按覈之行 今  
 方下去 某邑某人之作某變做  
 某事 有耳者必皆得聞 綻露之  
 事 欲秘而不秘  
 且安撫一方 正之要務 直以某  
 邑某漢 作變在逃 故家遺裔  
 出此凶醜 尤爲可痛 嶺外土未  
 之鄉 必切同仇之心 村閭寺刹  
 如或投跡 卽地捉納 萬一隱匿  
 難免同罪之意 行關列邑 詳記  
 容庖 揭示村里

82) 상급 관아에서 동등(同等) 또는 하급 관하로 보내던 공문인 관문(關文)을 보내는 일.  
 83) 관아(官衙)와 관아 사이에 공사와 관계되는 일을 조회하기 위하여 공문을 보냄. 또는 그 문건(文件).  
 84) 조선 시대에 오군영(五軍營)과 지방의 각 진영(鎭營)에 둔 최고 관직.  
 85) 기포물색(譏捕物色). 강도범이나 절도범을 탐색(探索)하고 체포하기 위하여 경계를 펴서 찾는 일.  
 86) 자세하게 사실을 조사하여 살핌. 또는 그러한 사람.  
 87) 조선시대 지방에 변란이나 재난이 있을 때 민심을 수습하는 일.  
 88) 여러 대(代)를 두고 지체 높이가 잘 살아 온 집안.  
 89) 사람의 얼굴과 신체상의 특징.

그 하나의 이유는 진실로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뜻을 보이고, 또 하나는 용납하여 숨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한 도(道)에 감찰의 득실(得失)으로써 말하자면 주민들이 사찰(伺察)하면 이목(耳目)이 저절로 넓게 됩니다. 따라서 약간의 교졸(校卒)<sup>90</sup>이 바람 잡고 그림자 쫓은 것보다 낱을듯하니 모르긴 하지만 어떻겠습니까. 타도(他道)는 그대로 비밀로 하지만 본도(本道)는 이같이 하는 것이 방해됨이 없을 듯 합니다.

바라건 데 이 편지를 의정부(議政府)에 왕복하였거나 우합(右閣)<sup>91</sup>께서 별도로 결정하고 서둘러서 곧바로 회교(回教)<sup>92</sup>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바랍니다. 품달(稟達)<sup>93</sup>하는 일은 한 관례(官隸)<sup>94</sup>를 빌려서 오로지 아웁니다. 남은 예(禮)는 갖추지 않고 드리나니 내려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2일

사시(巳時)에 소인(小人) 서구(書九) 올림.

一以示誠信不疑之意 一以爲容隱無所之地 恐或一道 且以譏訶之得失言之 人人伺察 則耳目自廣 似勝於如干校卒之捕風捉影 未知如何如何 他道則依例秘移 本道則如是爲之似爲無妨 幸以此紙往復干履閣 右閣別定急走 卽賜回教 伏望伏望 爲稟此事 備一官隸 專俾仰告耳 餘不備伏惟下鑒

九月 初二日 巳時 小人 書九 上書

90) 조선 시대 군교(軍校)와 나졸(羅卒)을 합쳐서 부르는 말.

91) 조선 시대 의정부(議政府)의 우의정(右議政)을 달리 부르는 말.

92) 회답한 교서(敎書).

93) 임금이나 상관에게 여쭙어 아웁.

94) 관가에서 부리는 하인들.

내가 왕고(王考)<sup>95</sup>께서 남긴 편지를 공경히 열람하니 뚜렷하게 나라를 근심하는 정성이 보통 집안의 글 보다 넘쳐 흘렀다. 그 당시에 모든 분들이 뜻을 같이하고 의리가 부합되어 간절하게 사귀면서 애쓴 뜻을 왕복한 편지에서 얻어 볼 수 있었다. 아~! 가정에서 들었던 것이 완연하게 떠오릅니다. 이에 중요한 자료를 간추려서 일첩(一帖)을 엮어서 감모(感慕)<sup>96</sup>에 붙입니다.

의요(宜堯)는 삼가 기록함.

余敬閱 王考遺牘 炳然憂 國之誠 輒溢於尋常家書 而當時諸公 志同義契 懇懇交勉之旨 又觀於往復乎札 而得之 噫家庭舊聞 宛若隔晨 摩挲圭翫 聯爲一帖 用寓感慕焉

宜堯 謹識

---

95) 돌아가신 할아버지.

96) 마음에 느끼어 사모함.

## 가장유적(家藏遺蹟)

## 家藏遺蹟

<석종(碩種)에게 답하는 편지>

答碩種書

오늘에 너의 편지를 보고 종당(從當) 답한다.

今日 見汝書 從當爲答耳

김소년(金少年)의 편지에도 그 사이에 시황(侍況)<sup>1)</sup>이 편 안하다고 하니 위로가 된다. 제시한 일도 창동(蒼洞)의 편지로 인하여 그때의 실상을 상세하게 말하여 알았을 뿐이다. 비객(裨客)<sup>2)</sup>이 모두 산성(山城)에 따라갔다면 애초에 낙후(落後)된 사람이 없다는 그 말이 괴이하니 다만 조사하여 처리했을 뿐이다.

金少年書 亦承慰 伊間侍況之安 所示事 亦因蒼洞書 詳知之爲言伊時實狀耳 裨客皆隨往山城 則初無落後者 其言可恠 但當查處耳 自平壤發行之際 接見汝書 仍知間者溽暑侍奉凡況 安吉爲喜 且汝能作書 問父安否 兼傳家內安否 汝年稚足爲此 吾猶以幼兒視之 而今則亦可爲子道耶 但讀書無廢 日課無病 不貽遠憂 則是孝耳 吾行備經雨水險阻 今到灣上界交邱 明日當入府中耳 姑草

나는 평양(平壤)에서 길을 떠날 즈음에 너의 편지를 받아 보고 요즈음 무더운 날씨에 시봉(侍奉)의 모든 정황(情況)이 안길(安吉)하다고 하니 기쁘구나. 또한 네가 편지를 써서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겸하여 가내(家內)의 안부를 전했다. 너의 나이가 어려서도 이와 같이 할 수 있으니 내가 오히려 어린 아이로 보았거니와 지금에 아들의 도리를 하는가.

다만 글 읽기를 폐하지 않고 일과(日課)에 허물이 없다면 근심을 끼치지 않으니 이것이 효도일 뿐이다. 내가 가는 길은 빗물의 험조(險阻)함을 두루 지내면서 오늘에 만상(灣上)의 경계가 교차되는 언덕에 이르렀으며 내일에는 마땅히 부중(府中)에 들어갈 것이다. 짐짓 초(草)한다.

丁未 六月 念五日 父

정미(丁未,1787)년 6월 25일

아버지가

1) 윗 어른을 모시고 있는 상황.

2) 남의 일을 돕는 나그네.



<종아(種兒)에게 답한다.>

지난번 네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원려(遠慮)<sup>3)</sup>가  
가이 없었다. 그런데 잠깐만에 또 어머니를 모시고 시골에  
돌아와서 산다고 하니 기희(奇喜)<sup>4)</sup>하구나 어찌된 셈인가.  
가을이 깊어지는데 아버이를 모시고 글을 읽는 모든 정황  
(情況)의 안부가 늘 걱정이 된다.

이곳은 그대로 지내거니와 다만 너희들을 멀리두고 있으  
니 근심을 견디지 못할 뿐이다. 네가 서울에 있을 때의 편  
지는 모두 보았다. 오직 네가 독서(讀書)에 여념이 없기를  
바라면서 짐짓 초(草)한다.

정미(丁未,1787)년 7월 15일  
아버지

10통의 편지도 부쳤으며 당포도당(唐葡萄酒)을 묶어 몇 근  
을 만들어 보내니 모든 아이들이 맛을 보는 것이 좋겠다.

答種兒

曾聞汝有病 遠慮無涯 旋又聞  
汝能陪母氏還鄉居 奇喜何狀  
秋氣方深 侍親讀書 諸況安否  
懸念懸念 此中依遣 但遠置汝  
輩兒小 不堪憂念耳 汝在京時  
書 皆見之 惟企汝讀書無病耳  
姑草

丁未 七月 十五日 父

十簡亦付耳 唐葡萄酒 束之爲  
幾斤送去  
諸兒 各知味可也

3) 앞으로 올 일을 헤아리는 깊은 생각.  
4) 기이하여 기쁘게 여김.

<종아(種兒)에게 답한다.>

너의 형 편지는 아직 답장을 쓰지 않았다. 인편(人便)에 너의 편지를 연이어 받고 네가 어머니를 모시고 시골에 돌아간 것을 알았도다. 이질(痢疾)<sup>5)</sup>도 조금 차도가 있어서 근간에 편안하다고 하니 어떻게 위로됨이 이와 같은가.

나의 모든 정황(情況)은 그대로 보내거니와 오직 너희들이 멀리 있는 것이 염려가 될 뿐이다. 너는 편지를 쓸 적에 정갈하게 쓰지 않고 흘려 쓰려고 하는가. 다음에는 이같이 쓰지 말라. 짐짓 초(草)한다.

7월 26일

아버지가

<종아(種兒)는 보아라. - 정미년(丁未年) 국월(菊月) 8일>

근간(近間)에 서리가 차가운데 생각하노니 너의 시황(侍況)이 편안한가. 읽는 책은 공과(工課)<sup>6)</sup>를 멈추지 않고 어느 편을 읽는지 궁금하고 궁금하다. 이곳은 그대로 보내고 있거니와 그곳에 분매(盆梅)는 모두 꽃술을 맺었는가. 그리고 두 그루 복숭아 분재(盆栽)도 마르지 않았으며 석류(石榴)는 몇덩이 얻었는가. 붓 열 자루를 부쳐 보내면서 짐짓 초(草)한다.

정미(丁未, 1787)년 국월(菊月)<sup>7)</sup> 8일

아버지가

答種兒

汝兄之書 姑未作答耳  
便中連得汝書 知汝之陪侍汝  
母親還鄉 痢症亦即差減 近又  
安善 何慰如之 吾凡况依遣  
惟以汝輩遠居 爲念耳 汝作書  
何不精寫 便欲爲草書耶 勿復  
如是也 姑草

七月念六日 父

種兒見之

丁菊之初八日

近日霜寒 念汝侍况安否 所讀  
能不停課 而方留何處也 懸情  
懸情 此中依遣 盆梅皆結蕊  
而二桃盆亦不枯 石榴得幾顆  
耶 筆十枚付送耳 姑草

丁未 菊月 八日 父

5) 똥에 곱이 섞이어 나오면서 뒤가 짚고 당기는 병.

6) 공부의 과정.

7) 음력 9월의 별칭.

<종아(種兒)에게 회답한다.>

글씨를 읽히고자하면 운봉(雲峰)의 장지(壯紙)<sup>8)</sup>가 있는듯 하니 모름지기 그것을 사용하여 책자를 베껴 완료하는 것이 좋을듯하다. 지난날 두통의 편지를 모두 보았거니와 요즘 추위에 시황(侍況)이 안길(安吉)하며 『항우전(項羽傳)』은 몇 줄을 읽었는가. 그리고 환제(丸劑)<sup>9)</sup>는 다 복용하였으며 어느 곳에 머물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

나의 모든 생활은 그대로 지내고 있으며 청묵(靑墨)은 이곳 시장에 없으니 짐짓 연묵(燕墨)이 올 것을 기다렸다가 사서 보내겠다. 이에 천서(川西)가 보낸 민간(閩干) 1근(斤) 사탕(砂糖) 2원(圓)과 그리고 귤병(橘餅) 10과(顆)를 부쳐 보내면서 우선 초(草)한다.

정미(丁未,1787)년 양월(陽月)<sup>10)</sup> 25일밤.  
아버지가

答種兒

欲習字 則雲峰壯紙 似有之  
須得用而所贍冊子 續贍了 亦  
好耳

前日二書 皆見之矣 邇來陰沍  
侍況安吉 讀項羽傳幾行 丸劑  
已服了耶 方留何所 懸念懸念  
吾凡況依遣耳 靑墨府市無之  
姑待燕墨之來 可以質送耳 川  
西所送閩干一斤 砂糖二圓 橘  
餅十顆 付去姑草

丁未 陽月 念二夜 父

8) 한자(韓紙)의 한 가지. 두껍고 질기며 질이 썩 좋음.  
9) 환약(丸藥). 둥근 모양으로 만든 약.  
10) 음력 10월의 별칭.

연이어 너의 편지를 보고 위로가 많이 되었건만 내가 답장을 하지 못한 것은 응당 풀어져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해가 이미 다하니 그리운 생각이 더욱더 절실하구나. 찬 기운이 조금 풀리는데 시황(侍況)이 편안하며 『항우기(項羽紀)』는 몇 편이나 읽어 내려갔는가. 너의 누이도 성(城)안으로 들어가고 너의 어머니는 병들어 있는데 떠나는 생각이 어떻겠는가. 네가 그 곁에 있으면서 아들의 도리를 하는가.

너의 어머니 병환이 실지로 큰 걱정이 될 뿐이다. 나의 모든 생활은 그대로 보내고 있거니와 항상 너희들이 염려가 될 뿐이다. 너의 누이가 보낸 언문(諺文) 편지를 보고 너의 문리(文理)가 조금 낡아진 것을 알았다. 네가 직접 쓴 편지인가 매우 기쁘고 기쁘도다. 이에 당화(唐畫) 및 필묵(筆墨) 등의 물건을 종당(從當) 찾아서 부치면서 짐짓 초(草)한다.

정미(丁未,1787)년 납월(臘月) 망일(望日)<sup>11)</sup>

아버지가

連見汝書多慰 我思久未作答  
應以爲解然也 歲律已窮 憐念  
尤切 寒意稍舒 侍況佳安 項  
羽紀讀下幾遍耶 汝妹亦入城  
中 汝母親病裏 離思如何 汝  
能在側 爲子道否 汝母病患  
實是深憂耳 吾凡況依遣 而常  
以汝輩爲念耳 見汝抵妹諺書  
可知汝文理之稍長 汝自爲其  
書耶 殊喜殊喜 唐畫及筆墨等  
物 從當覓付矣 姑草

丁未 臘月 望日 父

---

11) 음력 보름날.

<종아(種兒)에게 회답한다.>

세후(歲後)<sup>12)</sup>에 연이어 너의 편지를 보고 봄추위에 잘 있다는 정황을 기쁠 뿐이다. 근래에 너의 자당(慈堂)<sup>13)</sup>은 서울에 들어가고 너는 가촌(稼村)에 머문다고 들었다. 따라서 다만 너의 면식(眠食)이 어떠한지 염려가 된다.

그 사이 읍촌(邑村)에 옮겨 살며 글공부를 폐하지나 않았는가. 듣건 데 네가 글읽기를 좋아하지 않고 항상 놀기를 탐한다고 하니 무슨 일인가. 나이는 점점 자라거니와 사람의 하는 일이 성장하지 않으니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 부지런히 글을 읽고 글씨를 익히면서 그냥 놀지 말아라. 이에 글씨를 익히는 붓 한자루를 부쳐 보낸다.

나는 변방(邊方)에서 그대로 지내고 있거니와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다. 그 간 글을 잘 읽고 탈 없이 있으면서 멀리서 생각하는 나의 마음을 위로할지어다. 짐짓 초(草)한다.

무신(戊申,1788)년 2월 7일  
아버지가

答種兒

歲後連見汝書 知春寒好在之狀 爲喜耳 近聞汝慈堂入洛 汝留稼村云 殊念汝眠食之如何 伊間移住邑村否 書課能不廢耶 聞汝不好讀 常耽遊嬉 此何事也 年漸長人事不長 可以爲人耶 自今又須勤讀 且習字 勿作浪遊也 以習字筆一枚 付去耳 吾姑遣邊況 而歸日亦以不遠矣 善讀書無病 以慰遠思也 故草

戊申 二月 七日 父

12) 설을 친 뒤.  
13) 남의 어머니의 높임말.

<종아(種兒)에게 부침>

이어서 듣건 데 네가 지금에 읍서(邑墅)에 있다고 하니 너의 형과 더불어 서로 의지하고 『항우본기(項羽本記)』 백편(百遍)을 더 읽기를 기다린다. 얼마 전의 편지는 모두 보았거니와 지금에는 어느 곳에 있으며 모든 정황(情況)이 편안한가. 멀리 떠난 부모는 그리워하는 생각으로 태연할 수 없다.

그리워하는 마음이 가촌(稼村)에 있으니 또한 부모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부질없이 문을 나가지 말고 글을 잘 읽고 잘 지내면서 근심을 끼치지 말지어다. 나는 짐짓 편안하며 돌아갈 기약이 멀지 않을 뿐이다. 짐짓 초(草)한다.

寄種兒

追聞汝方在邑墅云 與汝兄相依 讀項羽本記 加百餘遍爲俟 頃日書皆見之矣 今則在何處 凡況安否 遠離父母 若無依憐念 憐念在稼村 則亦有父母 須勿退出門 善讀書好居 勿憂思也 吾姑安 歸期亦不遠耳 姑草

戊申 三月 初吉 父

무신(戊申,1788)년 3월 초길(初吉)<sup>14)</sup>

아버지가

---

14) 음력 매달 초하룻날의 일컬음.

<종아(種兒)에게 답(答)한다.>

25일에 과발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네가 18일에 쓴 편지를 보았다. 그래서 그 때에 잘 있다는 정황을 알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러나 너의 자친(慈親)<sup>15)</sup>의 병환이 심각하다고 하니 놀라고 두렵구나. 곱향(藿香) 및 민간(閩干)·곶병(橘餅)을 보내니 곧바로 지저서 사용하기를 바란다.

다만 네가 책을 싫어하여 읽지 않고 나이가 더욱더 들어가니 이것이 무슨 일인가.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글을 배우지 않으면 금수(禽獸)와 더불어 무엇이 다르겠는가. 네가 늙은 부모를 생각하지 않으니 다만 너에게 사람을 위하는 뜻을 바란다. 부질없이 놀면서 책을 버리면 장차 무식하고 어질지 못한 사람이 될 것이다. 다만 이것은 너의 어머니 병(病)이 이로 인하여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나도 집에 돌아갈 기꺼운 뜻이 없어진다. 너는 모름지기 이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회답하는 편지에 너의 뜻을 말하면서 짐짓 초(草)한다.

무신(戊申,1788)년 4월 1일  
아버지가

곶(橘)과 건포도(乾葡萄) 각 1근(斤)을 보낸다.

答種兒

念五日 撥從洛下回 得見汝十八所作之書 知其時好在之狀 甚喜 然汝慈親病症添劇 驚恐 驚恐 藿香及閩干橘餅 送去 卽煎用爲瘼 但聞汝厭書不讀 年長益甚 此何事也 爲人子而不學書 與禽獸奚異哉 汝不念老父母 兄是望汝爲人之意 浪遊棄書 將作無識不賢之人 豈但汝母之病 由此益深 吾亦無還家之好意也 汝須知之 仍答此書 說汝之意焉 姑草

戊申 四月 初吉 父

橘及乾葡萄 各一斤

15) 자기 어머니의 높임말.

곽향(藿香)·포도(葡萄)는 지금에 벌써 전달되었는가.  
집안의 소식이 오래도록 묘연하여 답답하게 생각하던 즈음  
에 너의 편지를 받아보니 너의 얼굴을 보는 듯 하다. 인하여  
요즈음 집안이 조금 편안하고 너의 모친의 병환도 더하  
지 않으니 기쁘고 다행한 일이다.

네가 글을 읽고 행동을 고치니 늙은 부모의 소망을 위로  
함이다. 진실로 편지에 말한 것과 같다면 더욱더 기쁠 뿐  
이다. 언제나 조바심을 잊지 말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나  
는 어제와 같이 지내고 있거니와 길 떠날 근심을 견디지  
못할 뿐이다. 두 자루의 황필(黃筆)<sup>16)</sup>을 보내니 큰 글씨를  
익히는 데에 사용하라. 짐짓 초(草)한다.

무신(戊申,1788)년 5월 1일  
아버지가

藿香葡萄 今已傳至耶  
家信久濶 菀念之際 得見汝書  
如見汝面 仍知邇間 家中稍安  
汝母親 所患無添喜幸 汝之讀  
書改行 能慰老父母所望 果似  
書中語 則尤可喜耳 每日勿忘  
於恐 而進之也 吾依遣昨况  
第不堪離孛之愁耳 二黃筆送  
去 用於習大字也 姑草

戊申 五月 初吉 父

---

16) 족제비 털로 만든 붓.



<종아(種兒)에게 회답한다.>

언제나 너의 편지는 보았지만 너의 얼굴은 보지 못하니  
답답한 생각이 어떻게 풀리겠는가.

그러나 문필(文筆)이 조금 는 것이 기쁘구나. 요즈음 날  
씨가 싸늘한데 시황(侍況)의 안부(安否)와 장편(長篇)을 읽  
어서 그 뜻을 알 수 있으며 고풍(古風)<sup>17)</sup>은 몇 수나 그대  
로 지었는가.

그리고 너의 자친(慈親)의 병환이 크게 더하지 않으니 다  
행할 뿐이다. 나는 모든 생활이 어제와 같이 지내거니와  
돌아갈 기약을 정하지 못하니 병사(病思)<sup>18)</sup>를 견디기 어렵  
구나. 청삽(靑箒)<sup>19)</sup>을 얻은 것이 있으므로 부쳐 보낸다. 듣  
건 데 너의 인사(人事)<sup>20)</sup>가 조금 낱아져서 아버이를 사랑  
하는 정성이 있으니 기쁘고 기쁘다. 짐짓 초(草)한다.

무신(戊申,1788) 8월 16일  
아버지가

答種兒

雅見汝書 未見汝面 鬱念何已  
猶喜文筆之稍長 近日生涼 侍  
況安否 長篇讀之能解意 古風  
作幾箇 亦能依樣否 汝慈親所  
患 姑無大添 爲幸耳 吾凡百  
如昨 但歸期未定 病思難堪  
靑箒又有所得 故送之矣 聞汝  
人事稍長 有愛親之誠 爲喜爲  
喜 姑草

戊申 八月 十六日 父

17) 한시의 한체.

18) 병중(病中)에서 멩든 생각.

19) 부채의 한 종류.

20)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예의.

<아이들에게 부친다.>

산 위 분기점(分岐點)에서 고개를 돌리고 슬프게 생각하였도다. 반우(反虞)<sup>21)</sup>한 뒤에 모든 상황이 그대로 버티고 있는가. 졸곡(卒哭)<sup>22)</sup>을 지난지가 이미 오래되었건만 슬프고 허전하여 부르는 심정의 형상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이곳은 어제에 관사(官舍)에 도착하고 짐짓 아픈 곳은 없건만 경락(京洛)이 묘연(渺然)하니 고민스럽고 답답함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어서 편지를 쓸 것이나 혼란스러워 낱낱이 쓰지 못한다.

갑인(甲寅, 1794)년 3월 21일  
아버지가

奇兒輩

山上分岐 回頭悲念 反虞後諸  
況 支持否 卒哭之過 亦久矣  
哀廓呼情之狀 何可忘也 此中  
昨日到官 姑無病損而京洛渺  
然 愁菀奈何 續當有書 撓草  
不一一

甲寅 三月 念一日 父

---

21) 시체를 매장하고 나서 제작한 우주(虞主)를 되가지고 오는 의식.

22) 삼우제(三虞祭)를 지낸 뒤에 지내는 제사.

<아이에게 부치는 편지>

봄의 절서(節序)는 이미 다 지났는데 시황(侍況)은 그대로 잘 지내고 있는가. 청동(淸洞)에 우졸(虞卒)<sup>23)</sup>을 모두 마쳤 거니와 애모(哀慕)<sup>24)</sup>의 허전한 분위기가 안중(眼中)에 있는듯하니 어찌 잠시라도 잊을 수 있겠는가. 가사(家舍)를 이주(移住)하여 아직 생계(生計)를 정하지 못했건만 이 몸이 남천(南天)에 있으므로 다만 너의 어머니가 있는 곳에 맡겼다.

그러나 오래된 너의 어머니 병환이 때때로 재발하지 않는지 매우 걱정이 된다. 너도 또한 뜻을 정하여 슬픔을 머금고 차분하게 앉아서 글을 읽어 이부(二父)<sup>25)</sup>가 평일에 걱정하는 뜻을 위로하겠는가. 이곳은 20일 낮 임지(任地)에 온 뒤에 짐짓 요란스러움이 없을 뿐이다. 너의 형(兄)의 편지도 이에 동봉(同封)하여 짐짓 초(草)한다.

갑인(甲寅,1794)년 3월 24일  
아버지가.

매화(梅花)·홍도(紅桃)의 분재(盆栽)는 말라서 죽은 탄식이 없는가.

寄兒書

春序已窮 侍況支遣否 淸洞虞卒 皆畢矣 哀慕隕廓之狀 如在眼中 何可暫忘也 家舍移住未定生許 身在南天 只任汝慈堂之所處矣 然又能無宿病 乘機而作耶 深爲慮也 汝亦定志 銜哀 堅坐讀書 以慰二父平日憂念之意耶 此中廿午赴任後 姑無擾耳 汝兄亦同此書 可也 姑草

甲寅 三月 念四 父

梅紅諸盆 無枯死之歎耶

23) 우제(虞祭)와 졸곡제(卒哭祭).  
24) 죽은 사람을 슬퍼하고 사모함.  
25) 아버지와 숙부(叔父).

지난번에 보낸 편지는 모두 보았으리라고 생각한다. 근일(近日)에 더위가 시작하는데 시연(侍筵)<sup>26)</sup>의 모든 정황이 어떠한지 걱정이 된다. 이곳은 그대로 지내고 있으며 관아(官衙)의 모양은 비록 쇠잔하지만 부첩(簿牒)은 번거롭지 않으며 그리고 가려운 병도 견딜 수 있다. 너는 글을 얼마만큼 읽었으나?

시내가 위 여소(廬所)<sup>27)</sup>에 계속 머무니 능히 슬픔의 번뇌가 독서(讀書)에 방해되지는 않는다. 김소년(金少年)은 이곳에 온지 며칠 만에 읽을만한 책을 구하여 부지런히 공부하니 기쁠 뿐이다. 서울을 떠난 뒤에 한 장이 소식편지도 보지 못하니 세상과 막연히 끊어져서 기쁨과 근심이 될 한마디 말도 귓가에 들리지 않는다. 따라서 도리어 편할 뿐이며 각자에게 편지를 초(草)<sup>28)</sup>하지 못한다.

갑인(甲寅, 1794)년 4월 9일  
아버지가.

前書想皆見之矣 近日向炎 侍筵諸況如何 憂念憂念 此中依違 官樣雖殘 簿牒則不煩 猶堪癢痲耳 汝讀書幾何 而連住溪上廬所 能無哀擾之妨讀耶 金少年 來此數日 方得可讀之冊 而頗勤課爲喜耳 離京以後 不見一紙爛報 與世漠然相絕 無喜憂間一言之到耳邊 還可爲安耳 未能各草

甲寅 四月 初九日 父

26) 어른을 모시는 자리.

27) 상중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편지에서 상주가 거쳐하는 집을 이르는 말.

28) 글이나 편지를 초인하여 씌.

<종아(種兒)에게 부친다.>

어제에 관례(官隸)<sup>29</sup>가 돌아오므로 너의 편지를 받아보니 초이튿날에 출발한 것이었다. 요즈음 더위의 절서(節序)가 점점 깊어지는데 시황(侍況)의 모든 것이 연이어 지탱하여 보내는지 근심되는 생각을 형상하지 못하겠다.

이곳은 옛날 그 모양대로 보내고 있을 뿐이다. 집안의 일은 그 사이에 어떻게 계획을 정하였는가. 너의 어머니는 쇠병(衰病)한 나머지 삶이 건디기 어려울 것이니 원려(遠慮)가 더욱더 절실하다. 너는 계상(溪上)에 있으면서 과목의 공부를 잘 하는가. 마침 인편(人便)이 있어서 짐짓 초(草)한다.

갑인(甲寅,1794) 4월 10일  
아버지가.

寄種兒

昨於官隸之回 得見汝書 初二  
出者矣 日來炎序稍深 侍況諸  
般 連爲支遣否 憂念不可狀  
此中依送舊樣耳 家舍事其間  
何以定計 汝之慈堂 衰病之餘  
棲寓殊非可堪 遠慮尤切 汝則  
尙留溪上 能課讀耶 適有便姑  
草

甲寅 四月 旬日 父

---

29) 관청에서 부리던 하인.

예겸(隸僉)<sup>30</sup> 바야흐로 도착하여 너의 편지를 두 차례나 보았다. 인하여 근간(近間)에 거우범절(居憂凡節)이 그대로 보낸다고 하니 위안이 된다. 그러나 오로지 책을 읽지 않는 것이 염려가 될 뿐이다. 이곳에 모든 상황은 그대로 보내고 있거니와 여기(癘氣)<sup>31</sup>로 인하여 혹 고을 밑에서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치성(熾盛)하지는 않다고 한다.

김소년(金少年)은 공부를 부지런히 하니 기쁘거니와 너의 어머니의 심한 병은 우근(憂勤)<sup>32</sup>으로 인하여 자주 발병(發病)하는 듯하니 다만 염려가 된다. 가사(家舍)는 짐짓 세입(貰入)<sup>33</sup>할 길이 없다면 강사(江榭)에 돌아오는 것이 더부살이의 어려움보다 낫겠는가. 김군(金君)은 편지를 잘 하는데 편지가 오지 않으니 괴이할 뿐이다.

전주(全州)로부터 200동(銅)을 이득연(李得淵)집에서 바꾸어 보냈다고 말한다. 100동(銅)은 너의 일로써 우선 접어두어라. 그리고 세전(歲前)에 말한 약값은 10쾌미를 보낸 것인데 지금에 대가(帶價)라고 말 하는가. 이것은 종당(從當)에 편지를 써서 약값으로 갚았다고 할 뿐이다. 짐짓 초(草)한다.

갑인(甲寅, 1794)년 4월 15일  
아버지가.

형(兄)이 정(定) 조카에게 편지를 해서 이곳에서 보낸 구재가(樞材價)를 전인(塵人)<sup>34</sup>에게 전해주어라. 그리고 100동(銅)은 너의 어머니에게 드려서 집을 얻거나 혹은 빚을 갚고 양식을 살찌어다.

隸僉方到 承見汝書二度 仍悉  
近間 居憂凡節支遣 慰豁慰豁  
第所讀未專爲念耳 此中諸况  
依遣 癘氣邑底 或有之至於死  
亡 而姑不熾云矣 金少年 勤  
課可喜 汝之慈堂甚病 似因憂  
勤 而頻發 殊慮殊慮 家舍姑  
無貰入之道 捲還江榭 亦勝於  
棲寓之艱耶 金君用善書 不來  
可恠耳 自全州 換送二百銅於  
李得淵家云 百數則汝事姑置  
之也 歲前所稱藥價 以十緡送  
之者 今則謂之帶價耶 此則從  
當作書 亦以藥價 還報耳 姑  
草

甲寅 四月 望日 父

兄爲書於定姪 以此中所送樞  
材價 傳給塵人 而百數則推納  
於汝之慈堂 以爲貰屋 或償債  
貿糧之地耳

30) 관아에 딸린 하인.

31) 돌림병을 일으키는 나쁜 기운.

32) 근심이 계속됨.

33) 세(貰)들어 감.

34)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

<종아(種兒)에게 답한다.>

어제에 두장의 편지를 받아보고 겸하여 별지(別紙)<sup>35</sup>에 제시(提示)한 것을 모두 알았다. 근간(近間)에 너의 외가(外家)에 이주(移住)하여 노친(老親)을 모시고 지내면서 독서(讀書)에 전념하는 듯하니 기쁘구나.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요즈음 시황(侍況)을 잘 보내고 있는지 달이 여러 번 바뀌니 애운(哀隕)의 형상을 차마 생각하지 못할 뿐이다. 조정(朝廷)에 진탕(震蕩)<sup>36</sup>의 일이 일어나서 매우 놀라고 두려워함을 들었다. 지금은 조용한듯 하건만 구구한 우려가 어찌 그치겠는가. 나는 짐짓 어제 처럼 지내고 있을 뿐이다. 마침 인편(人便)이 있어서 잠깐 간찰(簡札) 2축(軸)을 초(草)하여 보낸다.

갑인(甲寅,1794)년 4월 21일  
아버지가.

너의 편지 속에 녹시(錄示)한 문적(文蹟)의 적자(蹟字)는 적자(績字)로 감율(勘律)의 감자(勘字)는 짐자(斟字)로 썼구나. 그리고 강극성(姜克成)의 3자(字)에 성자(成字)가 빠졌을 뿐이다.

答種兒

昨日承見二書 兼悉別紙所示  
耳 近已移住汝之外家 侍過老  
親 而所讀亦似專一爲喜 日漸  
向炎伊間 侍況支遣否 月朔屢  
改 哀隕之狀 不忍想耳  
朝著震蕩之舉 聞甚驚懍 今則  
似已帖定 區區憂慮之忱 何能  
已耶 吾姑依昨況耳 適有便  
暫草小簡二軸 送去耳

甲寅 四月 念一日 父

汝書中所錄示 文蹟之蹟字 書  
以績 勘律之勘字 書以斟 又  
於姜克成三字 落成字耳

35) 서류나 편지 따위에서 따로 적어 덧붙이는 종이 쪽.  
36) 놀라고 두려움. 몹시 울려서 흔들림.

<종아(種兒)에게 답한다.>

뜻밖에 서울에서 인편(人便)이 와서 집안의 편지를 전하여 근간(近間)의 모든 상황을 잘 유지한다고 하니 위로가 된다. 그러나 너의 어머니 병환이 상손(傷損)됨을 우려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은 부자(附子)가 해로운 듯 하다.

지금에 비록 약을 중지하여 조금 차도가 있지만 다시 발병할 지를 알 수 없으니 근심스럽고 답답하다. 나는 늘 그대로 지내고 있거니와 화순편(和順便)에 편지를 부쳤다고 하는데 아직 기득(記得)하지 못하니 혹 오지 않았는가.

조정(朝廷)에 진름(震懼)<sup>37)</sup>의 사정은 조금 안정된 듯 하거니와 이곳에 이주혁(李周赫)의 병곤(兵鬪)<sup>38)</sup> 및 서로 관련된 문첩(文牒)등의 일은 모두 전례(前例)에 의하여 왕복하고 싶지 않다. 도백(道伯)도 그렇게 여기니 끝내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를 뿐이다. 짐짓 초(草)한다.

갑인(甲寅,1794)년 4월 24일  
아버지가.

答種兒

意外洛便來 傳家中書 承悉近  
間諸況 支持爲慰 汝慈堂所患  
非但憂慮之傷損 似又是附子  
之作害 今雖停藥少減 安知不  
復發耶 愁菀愁菀 吾依遣凡節  
耳 和順便附書云 未能記得  
或姑不來耶

朝著震懼之情 似已稍定 而此  
中 方以李周赫之爲兵鬪 若相  
關文牒等事 皆不欲依例往復  
道伯亦然 未知何以究意耳 姑  
草

甲寅 四月 念四日 父

37) 놀라고 두려움.

38)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조선시대 각도의 병마를 통솔 지휘하던 종 2품의 서반직(西班職).



<종아(種兒)에게 부친다.>

다행하게 용서를 받고 옛 반렬(班列)에 돌아왔으나 또한 낭패가 많구나. 재동(齋洞)에서 그저께 편지를 부쳐왔으며 또한 영저(營邸)<sup>39)</sup>에서 19일에 나온 수자(手字)<sup>40)</sup>를 보고 일간(日間)의 애황(哀況)을 잘 버티는 것을 알았나니 썩 위로가 된다.

다만 너의 어머니 병환이 걱정이 되니 지난번에 복용(服用)한 약(藥) 처방에서 부자(附子)를 빼면 어찌 해로움이 있겠는가. 내가 비록 이 약재(藥劑)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복용(服用)하여도 의심이 없는 이치이다. 겨우 10여첩의 중탕(中湯)을 복용하였는데 노비(路憊)<sup>41)</sup>에 효험이 있는 듯 하다.

이득연(李得淵)이 약속과 같이 환송하면 구재(柩材) 값 100냥을 지난번 편지에 아뢰는 것과 같이 갚는 것이 옳다. 장족(章族)의 세마(貰馬)는 너무 멀리 와서 헤아릴 수 없거니와 갔다가 돌아오는 마세(馬貰)가 40여냥 이라면 추봉(秋捧)<sup>42)</sup>전에는 계산하여 처리할 수 가없다.

지금 우사(寓舍)의 벽상(壁上)에 걸어둔 겸옹(謙翁) 풍악(楓岳)의 장자(障子)<sup>43)</sup>를 권귀(捲歸)<sup>44)</sup>하는 가운데에 거두어 들일 수 있는지 모름지기 찾아야 할 것이다. 잠깐 초(草)한다.

갑인(甲寅,1794)년 4월 29일 저녁  
아버지가.

寄種兒

幸蒙有還舊班 則亦多狼狽耳  
齋洞再昨寄書矣 又因營邸 得見十九所出手字 更知日間哀況支持 慰甚慰甚 第汝慈堂病候 殊爲憂念 前用藥方 去附子 豈有害也 吾雖不臨此劑 則服之無疑之理 中湯纔服十餘貼 似有效於路憊之餘耳 李得淵所換送 能如期 則柩材價百兩 依前書所報 還償可也 章族之貰馬 遠來甚無箇量耳 往還馬貰 爲四十餘兩 則秋捧前 無計可辦 今或寓舍壁上 所掛謙翁楓岳之障子 收入於捲歸中耶 須索之也 暫草

甲寅 四月 念九夕 父

39) 조선 시대 각 도의 감영(監營)·병영(兵營)·수영(水營). 또는 그에 딸린 아전(衙前).

40) 옷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의 끝에 쓰는 말.

41) 먼 길을 오가면서 심신의 피곤함.

42) 가을에 조세(稅稅)를 받아들이는 것.

43) 천에 글씨나 그림을 그려서 족자(簇子) 같이 만든 물건.

44) 거두어 가지고 돌아감.

<아이에게 답하는 편지>

연이어 4통의 편지를 받고 그 사이에 시황(侍況)이 그대로 보내고 있는 것을 다 알았다. 이 달도 중순(中旬)이 되니 슬프게 느껴지는 생각이 구회(疚懷)<sup>45)</sup>하구나. 너의 어머니는 오랜 병으로 노려(勞慮)하여 또 음식의 조절을 잃고 다시 발병하니 비록 조금의 차도가 있지만 어찌 그대로 편안하겠는가.

이중탕(理中湯) 처방전 및 가삼(家蔘) 1냥과 호삼(胡蔘) 1냥을 보내니 첩(貼)마다 두 종류의 삼(蔘)을 각각 1전(錢)씩 넣어서 10첩을 복용할지어다. 중간에 만약 해로움이 있으면 짐짓 복용을 멈추고 동정을 살펴보라.

나의 범절(凡節)은 짐짓 그대로이며 이주혁(李周赫)은 이미 곤영(閫營)<sup>46)</sup>에 이르렀지만 열읍(列邑)이 모두 문첩(文牒)으로 상관(相關)하지 않고 도내(道內)에서 의리를 가지고 일을 할 뿐이다. 기록하여 보낸 모든 조항(條項) 및 서사(書辭)는 지난번에 비하여 문리(文理)가 자못 늘었으니 기쁠 뿐이다. 김소년(金少年)이 『맹자(孟子)』 「이루편(離婁篇)」을 읽으면서 일과(日課)에 근면하니 너도 이것을 생각하여 게을리 하지 말지어다. 짐짓 초(草)한다.

갑인(甲寅,1794)년 5월 9일  
아버지가.

숙지황(熟地黃)이 진실로 남은 것이 있는 데, 김랑(金郎)이 약(藥)으로 쓰겠다면 보낼 것이다.

答兒書

連日得見四書 仍悉伊間 侍況 支遣 此月又半矣 哀感之狀 念之疚懷 汝之慈堂 宿症似因 勞慮 且失調食之道 而復發矣 雖幸小差 何盡其仍安也 理中 湯方文 及家蔘一兩 胡蔘一兩 送去 每貼入兩蔘各一錢 用了 十貼 而中間若有害 則姑停以 觀動靜也 吾凡節姑依 李周赫 已到閫 而列邑 皆不以文牒相 關 渠又處義生事於道內耳 所 錄送諸條 及書辭 比前文理 頗長爲喜耳 金少年 方讀孟子 離婁之篇 勤爲日課 汝亦念此 勿懈也 姑草

甲寅 五月初九日 父

熟地黄 苟有餘者 金郎若欲爲 藥 則送給也

45) 친척의 죽음을 슬퍼함.

46) 병영(兵營)이나 수영(水營)을 달리 이르는 말.

<아이와 조카들에게 부친다.>

어제의 편지는 인편(人便)이 출발하지 않았다고 한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시전(侍奠)의 모든 상황을 그대로 보내고 있는지 다시 묻는다. 이달의 기제사(忌祭祀)가 문득 지나가고 너희들의 슬픔을 생각하니 이 또한 슬프고 아픔을 견디지 못할 뿐이다. 제수(祭需)는 어떻게 의식을 갖추었는지 비록 관봉(官俸)<sup>47)</sup>이 있으나 돕지 못하니 정리(情理)가 창결(悵缺)<sup>48)</sup>하구나.

그리고 구재(柩材)의 값은 그 사이에 보냈는지 알 수 없구나. 재동(齋洞)에 문객(門客) 김씨(金氏)는 일찍이 청성위(靑城尉)의 집이 가독하게 되고 또 많은 식솔(食率)이 위이(逶迤)<sup>49)</sup>한 행보가 되었다. 가을을 기다려 마땅히 휴가를 내어 갔다가 돌아오기로 하고 짐짓 초(草)한다.

판재(板材)의 가격은 120냥인데 흠이 생겨 이 판자를 대용한다면 마땅히 저 값으로 이곳에 이급(移給)<sup>50)</sup>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리(事理)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답하지 않고 보냈다. 그리고 지금에 그 말이 이치에 맞던 맞지 않던 논할 것없이 나로써 100냥을 송급(送給)한다. 그 나머지는 내가 서울에 돌아온 뒤에 지급하던지 않던 간에 마땅히 결단할 것이다. 완전한 물건으로 기롱지거리를 하지 않는다면 우선 논할 수 없는가. 잠깐 추가(追加)로 초(草)한다.

갑인(甲寅,1794)년 5월 10일  
아버지가.

寄兒姪昆季

昨書人便 未發云矣 日氣漸熱 更問侍奠諸況 支遣否 今月忌祀 奄又過矣 想汝輩哀廓之思 此亦愴傷無堪耳 祀需何以成儀 雖有官俸 未能送助 情理悵缺 柩材價 不知伊間 已推送也否 齋洞門客金姓者 曾以爲靑城尉家酷 且以許多所率 難爲逶迤之行 侍秋當從暇往還耳 姑草 板材價百二十 有疵之 代以此板用之 則當以彼價 移給於此云 而事理不然 姑吾不答以送矣 今則無論其說之當理與否 以吾言送給百兩 其餘數 待吾還京之後 或給或不給間 當決退耳 全物若不諧 則姑無可論耶 暫此追草

甲寅 午月 十日 父

47) 국가에서 관리에게 주던 보수.  
48) 몹시 서운하거나 섭섭함.  
49) 비틀거리며 가는 모양.  
50) 돈이나 물건 따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줌.

그믐과 초순(初旬) 이래(以來)로 모든 편지를 다 보았다. 21일에 쓴 편지가 조석(朝夕)으로 발송한 것이 차례대로 도착하여 근간(近間) 무더위에 모든 상황이 잘 보호된다고 하니 위로가 되는구나. 다만 너의 어머니 병환이 어떠하며 그 사이에 동정(動靜)은 어떠한지 걱정이 된다.

나는 서울의 소식을 기다려서 돌아갈 계획이다. 성은(聖恩)이 진실로 이에 미치니 황감(惶感)하여 무어라고 말할 수 없구나. 내일 길을 떠나려고 하지만 마세(馬賁)잡기가 느릴 듯 하다.

誨初以來 諸書皆見之矣 念一書 朝夕發者 先後到 仍知間者極暑 凡況支保慰甚 第汝慈患 又如何 伊間動靜如何 憂念憂念 吾方待京信 以爲歸計 聖恩果及此矣 惶感不知所喻 明日欲登程 未馬賁把 似致遲淹耳

甲寅 六月 念七日 父

갑인(甲寅,1794)년 6월 27일  
아버지가.

<삼청(三清) 본가(本家)에 즉전(卽傳), 춘천(春川) 행중(行中)에서 평서(平書)함.>

三清本家卽傳  
春川行中 平書

어제에 탈 없이 집으로 돌아갔으며 집안에 모든 상황이 안승(安勝)한가. 나는 굴운촌(屈雲村)에 도착하였으며明日(明日)에 춘천(春川)에 닿아서 증리(甌里)를 찾을 것이다. 17일에 다시 출발하여 19일에 입성(入城)할 계획이다. 노상(路上)에서 잠깐 초(草)한다.

昨日 無撓還家 家內諸況 安勝否 吾行到窟雲村 明日當抵春川 因尋甌里 十七日還發 十九日入城爲計矣 路上暫草

丁巳 菊月 十四日 父

정사(丁巳,1797)년 9월 14일  
아버지가.

<가아(家兒)에게 부친다.>

寄家兒

일간(日間)에 시황(侍況)이 어떠하며 너의 형 집에 작금(昨今)이 혼사(婚事)는 날씨가 좋고 예식(禮式)이 조화로웠는가. 준아(駿兒)들은 잘 있고 다른 걱정이 없는지 염려가 될 뿐이다.

日間侍況如何 汝兄家昨今婚事 辰吉禮和耶 駿兒輩好在 亦無他憂耶 但用懸念耳 吾今夕抵宿金化縣 二十二朝 當入楓岳初寺耳 計遊覽之日 九月旬前後耳 觀海上諸處 從江陵復路 而江陵之前 當在襄陽高城之間矣 燈下姑草

나는 오늘 저녁에 금화현(金化縣)에서 자고 22일 아침에 풍악(楓岳) 초사(初寺)에 들어갈 것이다. 유람할 날짜를 계산하니 9월 10일 전후일 것이다. 해상(海上)의 모든 곳을 관람하고 강릉(江陵)으로 향하여 강릉에 가기 전에는 당연히 양양(襄陽)과 고성(高城)의 사이에 있을 것이다. 등불 아래에서 짐짓 초(草)한다.

戊午 八月 十九日夜 父

무오(戊午,1798)년 8월 19일 밤  
아버지가.

<삼청동(三清洞) 풍악(楓岳) 행중(行中)에서 써서 심판서  
택에 전납(傳納)함.>

三清洞楓岳行中書  
沈判書宅傳納

길을 떠난 지 이미 열흘이 지나니 집안이 궁금하구나.  
가을 기운이 점점 사늘한데 시황(侍況) 안길(安吉)한가. 너  
의 형(兄) 여식(女息)이 혼인(婚姻)은 잘 치렀으며 모든 일  
이 번거로움이 없다고 하는가.

作行已滿旬 懸念家內 秋氣漸  
涼 侍況安吉否 汝兄之女婚穩  
成 凡事亦無餘惱云耶 吾念二  
朝入山 一行無撓 歷觀山中數  
三處 再明欲向楡岾 仍出海上  
諸郡來 旬前可及襄陽 旬二三  
則當從江陵復路耳 爲傳信付  
書於淮陽撥便 未知何日 抵京  
也 姑草

나는 22일 아침에 일행(一行)이 탈 없이 산속 두어곳을  
차례대로 구경하였다. 그리고 모래에 유점(楡岾)을 향하여  
해상(海上)의 모든 곳을 쫓아와서 10일전에 양양(襄陽)에  
달라 12~13일에는 강릉(江陵)을 쫓아 길을 되돌릴 것이  
다. 서신(書信)을 회양(淮陽) 파발(擺撥)편에 부쳤거니와  
언제에 서울에 도착할는지 모르겠다. 짐짓 초(草)한다.

戊午 八月 念五日 父

무오(戊午,1798)년 8월 25일.

아버지가.

朝著 無他事云耶

조저(朝著)<sup>51)</sup>에는 다른 일이 없는가.

---

51) 조정(朝廷). 조정에 상정(常定)된 열위(列位).

<가아(家兒)에게 답한다.>

겨우 만폭동(萬瀑洞) 꼭대기에 이르러 수자(手滋)를 받아 보고 기뻐다. 그 사이 며칠 밤에 시황(侍況)이 안길(安吉)하고 여러 곳도 아무런 일이 없는가. 나는 지금에 마사암(摩詞庵)에서 자고 명일(明日)에는 마땅히 유점(楡岾)에 있을 것이다.

어소년(魚少年)의 편지를 보았는데 그 아버지의 병(病)이 점점 고치기 어려움에 이른다고 하니 근심스럽고 탄식스러움을 이루 표현하지 못한다. 어제에 한통의 편지를 회양(淮陽) 과발(擺撥)에 부쳤는데 이미 전해갔는가. 오직 너희들이 잘 있기를 바라고 준아(駿兒)는 나를 부르고 찾지 않는가. 짐짓 초(草)한다.

무오(戊午,1798)년 8월 26일  
아버지가.

어소년(魚少年)의 집에 서신(書信)을 전하여 자주 평문(倂問)<sup>52)</sup>하는 것이 옳겠다.

答家兒

纔到萬瀑之頭 得接手滋 仍喜  
伊間數宿 侍況安吉 諸處亦無  
事耶 吾今宿摩詞庵 明當在楡  
岾矣 魚少年書見之 知其親病  
漸到難醫 憂歎不可狀 昨以一  
書 付淮陽撥 已傳去否 惟汝  
輩好在爲望 駿兒不呼索我我  
耶 姑草

戊午 八月 念六日 父

魚少年家 傳書數爲倂問 可也

52) 사람을 보내어 안부를 물음.

<가아(家兒)에게 답한다.>

근간(近間)에 두통의 편지가 모두 전하여 왔는가. 지금 불정대(佛頂臺) 아래에 이르러 24일에 보낸 편지를 보고 시황(侍況)이 편안하게 보냈을 알았나니 아주 위로가 된다. 풍악산 동쪽에는 서리의 소식이 늦어져서 올 때와 비교하여 많이 깊어지지 않으니 일행(一行)이 탈이 없다. 내산(內山)에 머물다가 5일에 신계사(神溪寺)에 도착하고 그 다음날 구룡폭포(九龍瀑布)를 구경하고 돌아와서 이 절(寺)에서 잘 것이다.

그리고 곧바로 통천(通川)으로 향하여 총석(叢石)을 보고 고성(高城)으로 돌아오면 또한 3일이 소요되고 양양(襄陽)으로 전입(轉入)하면 6일이 될듯하다. 골짜기의 길이 기구(崎嶇)<sup>53</sup>하여 일정(日程)의 계산이 많이 어긋날 뿐이다. 짐짓 초(草)한다.

무오(戊午, 1798)년 8월 그믐밤.  
아버지가.

答家兒

間者二書 皆傳去否 今到佛頂  
臺下 得念四日書 以知侍況安  
遣 慰甚慰甚 楓岳以東 霜信  
尙緩 較來時不甚深 一行無撓  
內山留連 五日方抵神溪寺 明  
日當觀九龍瀑 還宿於此寺 仍  
向通川 尋叢石歸到高城 亦費  
三日 轉入襄陽 似在初六 而  
峽路崎嶇 多違計日之程耳 姑  
草

戊午 八月晦夜 父

---

53) 산길이 험악한 모양.



<삼청동(三清洞) 이제학(二提學) 댁에 즉전(卽傳)<sup>54</sup>, 횡성(橫城) 귀로(歸路)에서 평서(平書)함.>

三清洞 二提學宅 卽傳  
橫城 歸路 平書

초팔일(初八日)의 편지는 어제에 이미 보았거니와 일간(日間)에 시황(侍況)은 어떠한가. 나는 지금에 횡성(橫城)에 이르렀는데 15일에 평구(平丘)에서 자고 곧바로 배를 타고 내려가서 노호(鰲湖) 문 앞에 정박할 계획이니 이때가 16일 일 것이다. 유숙(幼肅)의 편지는 각각 답장하지 못했나니 모름지기 이 편지를 보내어 보일지어다. 짐짓 초(草)한다.

初八書 昨已見之矣 日間侍況如何 吾行方及橫城地 十五日宿平丘 仍乘舟下 泊於鰲湖扉前爲計 此在十六日也 幼肅書未能各答 須卽以此書 送示之也 姑草

무오(戊午,1798)년 국월(菊月) 12일  
아버지가.

戊午 菊月 十二夜 父

---

54) 즉전(卽見). 즉시 받아 보라는 뜻으로 손아래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받을 사람의 이름 아래에 쓰는 말.

<심수사(沈秀士) 행중(行中)으로 본가(本家)에서 평서(平書)함.>

출발한 뒤에 일기(日氣)가 연이어 청화(淸和)하구나. 지금은 어느 곳에 이르렀으며 일행의 면식(眠食)이 안온(安穩)한지 염려가 된다. 이곳에 모든 상황은 그대로 보내고 있을 뿐이다. 먼 길 유람(遊覽)에 하루 70~80리를 가고 하니 인마(人馬)로 하여금 피곤하지 않고 멀리 이르렀구나. 짐짓 초(草)한다.

기미(己未, 1799)년 8월 소회(小晦).  
아버지가.

숙부가 물러가기 전에 각각 편지를 보내지 못했거니와 도백(道伯)<sup>55</sup>의 순로(巡路)<sup>56</sup>는 지금 어느 군(郡)에 이르렀다고 하는가?

沈秀士 行中 本家 平書

發行之後 日氣連得淸和 今到何處 一行眠食安穩否 懸念懸念 此中凡百依遣耳 長程遊覽 日行七八十里 無使人馬疲頓 方可致遠矣 姑草

己未 八月 小晦 父

叔退前未能各書 道伯巡路 方抵何郡云耶

---

55) 관찰사(觀察使).

56) 감사(監司)가 도내(道內) 각 고을을 순회하는 일.

<풍악(楓岳)의 심수사(沈秀士) 행중(行中)앞, 삼청(三清)에서 평서(平書)함.>

楓岳 沈秀士 行中  
三清 平書

원주(原州)에서 온 편지를 열흘이나 되어서 받아보았다. 가을 날씨가 맑고 따듯하여 행리(行李)<sup>57</sup>에 안온(安穩)<sup>58</sup>한 듯 하구나. 곧 어느 곳에 이르렀으며 내산(內山)에는 어느 날에 들어갈 것인가. 면식(眠食)은 언제나 탈이 없는지 염려가 되고 또 된다. 이곳에 모든 상황은 그대로 보내고 있거니와 너의 어머니는 오래된 병으로 수일간 앓더니 지금에 조금 낫았을 뿐이다.

自原州來書 近旬方得見之矣  
秋氣一向清暄 行李似安穩 卽  
到何處 而內山何日當入 眠食  
連爲無擾耶 懸念懸念 此中諸  
況依遣 汝之慈堂 又以本證  
數日作惱 今則小愈耳 今日設  
菊製通方外

오늘에 국화(菊花)를 설치하고 방외(方外)에 시문(詩文)을 지으라고 통고하였다. 그리고 임금께서 춘대(春臺)<sup>59</sup>에 몸소 납시어 표·부(表·賦)로써 재목을 나누어 시사(試士)하되 마땅히 사제(賜第)<sup>60</sup>할 것을 교시하였다. 짐짓 초(草)한다.

親臨春臺 以表賦分題試士 當  
賜第爲教耳 姑草

己未 菊月 九日 父  
今日命官 右相爲之矣

기미(己未, 1799)년 국월(菊月) 9일  
아버지가.

오늘의 명관(命官)<sup>61</sup>은 우상(右相)이 하였다.

57) 여행자가 휴대(攜帶)하는 행장(行裝).

58) 조용하고 평온함.

59) 춘당대(春塘臺). 창경궁(昌慶宮) 안에 있는 대(臺). 또는 춘당대시(春塘臺試)를 줄여서 부르는 말.

60) 임금의 특명으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과 같은 자격을 주는 일.

61) 왕명을 받아 임금을 대신하여 일을 주재하는 관원. 특히 과거를 보는 경우 문과초시(文科初試)때 시험관의 하나.

<종아(種兒)는 보아라.>

강두(江頭)에서 작별하고 하룻밤을 지냈으나 의의(依依)<sup>62</sup>하구나. 집으로 돌아간 모든 상황의 안부가 염려되고 염려가 된다. 나는 오늘 아침에 과천(果川)에서 길을 떠나간다. 너는 어제에 경계를 준 말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가다듬고 공부하여 나로 하여금 근심을 잊게한다면 이것이 효도가 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기대는 대체로 너를 사랑하는 지극한 정(情)에서 나온 것을 알 수 있느냐. 매분(梅盆)은 정원에 있는 매화가 필 때를 기다렸다가 정원에 내어놓아 말라죽지 않게 하라. 그리고 국분(菊盆)은 싹을 점검하고 종자(種字)를 구분하기가 어려울듯하니 그대로 놓아두면 어찌 상하겠는가. 짐짓 초(草)한다.

16일

아버지가.

種兒見

江頭作別 經夜依依 還家凡況  
安否 懸念懸念 吾今朝 自果  
川發程耳 汝能思昨日留戒之  
言 則宜收心課學 使吾忘憂  
從此可以爲孝耳 吾所期望於  
汝者 盖出於愛汝之至情 能知  
之耶 梅盆 待到庭梅開時 出  
置庭中 毋使枯死焉 菊盆 似  
難檢芽分種 任其荒蕪 何傷也  
姑草

十六日 父

---

62) 헤어지기 섭섭한 모양.

푸른 바위 한 오솔길 열렸는데  
 백세(百歲)토록 몇 번이나 올랐던가.  
 초목(草木)은 가을소리 어울리고  
 찬란한 노을은 옛 기운 영키었네.  
 쓸쓸하게 한묵(翰墨)은 남았건만  
 영락(零落)되어 옛 벗 생각하네.  
 술잔 잡고 서일(西日)<sup>63</sup>에 임하니  
 붉은 언덕에 다시 층(層)이 있네.

구학(丘壑)에 남을 생(生)을 정하니  
 현상(軒裳)<sup>64</sup>의 옛 피가 그릇되었구나.  
 국화(菊花)는 찬 날씨에 피고  
 기러기는 멀리서 돌아오네.  
 백발(白髮)은 성상(星霜)처럼 모이고  
 푸른 오동은 꿈속에 시드네.  
 쓸쓸한 날 머무는 나그네가 마시니  
 오히려 술이 옷을 적시네

사직(社稷)이 억만년(億萬年)의 터란 것은 충분하게 서술  
 하였습니다. 불녕(不佞)<sup>65</sup>이 어릴 적에 공(公)의 이름을 많  
 이 듣고 그 현철(賢哲)함을 사모한지가 수 십년이 되었습  
 니다. 선조(先朝) 계사(癸巳)년에 섬으로 귀양 갔다가 돌아  
 왔는데 그때에 공(公)을 사천(沙川)의 집에서 보았습니다.

그 뒤에 공(公)이 강상(江上)이란 곳에 살면서 순문(舜  
 文)<sup>66</sup>의 공(功)을 동경하고 우탕(禹湯)<sup>67</sup>의 도(道)를 헤아  
 렸다. 전체(全體)에 있어서는 광대(廣大)함에 이르고 지극  
 히 고명(高明)하셨습니다. 예(禮)를 크게 이용하여 정미(精  
 微)함을 다하고 중용(中庸)을 실천하여 이의(理義)의 큰 근  
 본을 포괄하셨습니다.

蒼巖開一徑 百歲幾回登  
 草木秋聲廓 煌霞古氣凝  
 蕭條餘翰墨 零落憶親朋  
 把酒臨西日 丹崖更有層

丘壑餘生定 軒裳宿計非  
 菊花寒始發 鴻鴈遠能歸  
 白髮星霜集 蒼梧夢寐微  
 蕭辰留客飲 猶遣酒霑衣

社億萬年之基者 有足述矣 夫  
 不佞 在童年 盛聞公名 慕其  
 賢者 殆數十年 先朝癸巳  
 以海謫有還也 歷謁公於沙川  
 之廬 其後公寓處于江上 夙舜  
 文功 擬禹湯道 有全體 則致  
 廣大而極高明 禮爲大用 則盡  
 精微而道中庸 而包乎理義大  
 本

63) 지려고하는 저녁 해.

64) 대부(大夫)의 복장. 곧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비유함.

65) 자기를 겸칭(謙稱)하는 말.

66) 순(舜) 임금과 문왕(文王).

67) 우(禹) 임금과 탕왕(湯王).

## 노호첩(鷺湖帖)

## 鷺湖帖

<가촌(稼村) 우사(寓史)<sup>1)</sup>앞, 만부(灣府)에서 평서(平書)함.>

稼村 寓史

灣府 平書

연이어 파발(擺撥)편에 편지를 보내어 모든 집의 권황(眷況)을 물었건만 삼회(三回)가 되도록 일자(一字)의 서신(書信)도 얻지 못하니 더욱더 향산(鄉山)이 멀어짐을 깨닫는다. 비일(比日)에 서리가 추위를 재촉하는데 다시 물어보니 조황(調況)<sup>2)</sup>이 어떠하며 아희들도 모두 탈이 없느냐. 광삼(光三)이의 언문(諺文) 편지에 말한 것이 우원(迂遠)<sup>3)</sup>하여 아주 쓰기 어렵거니와 내도(來到)하니 더욱더 긴요하지 않다.

連撥有書 兼問諸家眷況 而三回不得一字書 尤覺鄉山之遠 比日霜欲催寒 更問調況如何 兒小亦皆無恙否 光三以諺書有所言 迂甚難施 若來到則尤不繁矣 金爾喆 亦有書以妹昏爲說 而公私一錢之用 皆增債簿 歲下方可勘耳 況渠先得百數 姑未力及耳 姑草

김이철(金爾喆)의 편지에도 누이동생이 혼인을 한다고 하니 공사간(公私間)에 일전(一錢)의 쓰임도 모두 채부(債簿)<sup>4)</sup>를 더한다. 세하(歲下)에는 그래도 견딜 만 하지만 저들이 어떻게 많은 액수의 돈을 구할는지. 힘이 미치지 못할 뿐이다. 짐짓 초(草)한다.

丁未 菊月 十六日 輝遠

정미(丁未, 1787)년 9월 16일

휘원(輝遠).

衣資紬一疋錢五兩 生日盤具錢三兩 送去耳

명주옷감 일필(一疋) 값 5냥과 생일상 값 3냥을 보낸다.

1) 우좌(寓座). 서간문에서 우거하는 자리라는 뜻으로 객지에 있는 사람의 안부를 말할 때 쓰는 말.

2) 조섭(調攝)의 상황.

3) 세정(世情)에 어둡고 먼 것.

4) 채무(債務)의 장부(帳簿).

<유숙(幼肅)은 봉장(奉狀)<sup>5)</sup>하라.>

지난번 과발에 몇 통의 편지를 모두 전하여 보았는가. 물건 데 선달 추위에 한우(閒寓)<sup>6)</sup>의 모든 상황이 어떠한지 염려됨이 절실하다. 이곳은 그대로 보내고 있거니와 역문(歷門)<sup>7)</sup>이 돌아오지 못하여 자못 뒤숭숭하다.

김중성(金重誠)은 오늘 아침에 돌아갔는데 척종(戚從) 이매(李妹)가 인마(人馬)를 보낸 것은 바로 중성(重誠)이 탄 것이다. 짐짓 방경(邦慶)이 반포되기를 기다려 체직(遞職)을 도모코자 하였으나 낙의(洛議)는 그렇지 않구나. 다만 이 변방(邊方)에 오래도록 머물 것은 끝내 생각하지 못했 을 뿐이다. 잠깐 초(草)한다.

정미(丁未, 1787)년 12월 초길(初吉)<sup>8)</sup>.

휘원(輝遠)

양(羊)고기 포(脯)와 호두연피(虎頭連皮)가 몇 뭉치 있었 으나 부칠 편이 없어서 그대로 두었다가 근간(近間)에 부 쳐 보낸다. 양고기는 진실로 장부(丈夫)의 병에 합용(合用) 하지 않는가. 한약재를 역문(歷門)에게 사서 보낼 뿐이다.

幼肅奉狀

前撥數書 皆已傳視否 卽問臘寒

閒寓諸況如何 奉念殊切 此中依遣 曆門未回 擾端頗多耳 金重誠今朝歸去 而戚從李妹 所送人馬云者 乃重誠之所騎耳 姑俟

邦慶頒至 欲爲圖遞之地 而洛議則不以爲然

弟此久住塞上 終不可意耳 暫草

丁未 臘月 初吉 輝遠

羊肉作脯 虎頭連皮 有數顆圓 便付日爲難 姑置之 從近付送 而羊肉 果合用於丈夫病否耶 唐材 亦於曆門買送耳

5) 편지를 받들.  
6) 한가롭게 우거(寓居)함.  
7) 역관(歷官)을 뜻함.  
8) 음력 매달 초하룻날의 일컬음.

<유숙(幼肅)은 봉장(奉狀)하라.>

세후(歲後)에 2통의 편지가 막힌 생각을 위로한 나머지 봄추위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 물건 데 한가한 가운데에 권황(眷況)이 안길(安吉)하고 아이들도 잘 있는가. 그리고 종(種)이는 하는 공부를 그만 두지 않는가.

이곳은 옛날 그대로 지내고 있거니와 병환(病患)이 염려가 될 뿐이다. 체직(遞職)하여 돌아가는 일은 서울에서 3~4월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말하니 그믐과 초순(初旬)사이에 투정(投呈)<sup>9)</sup>할 것이다. 병의 상태가 조화롭다고 하니 기쁘고 전후 별지(別紙)에 제시한 것은 건수에 따라서 회답하여 보낸다.

호천(呼倩)<sup>10)</sup>할 즈음에 어구(語句)가 온당치 않은 곳을 다시 산정(刪定)하지 않았으니 모름지기 볼 지어다. 녹용(鹿茸)·부자(附子)·사탕(砂糖)은 과발 편에 부쳐 보내니 이 먼저 도착할 것이다. 짐짓 초(草)한다.

무신(戊申,1788)년 2월 1일  
가형(家兄)

과발(擺撥)편이 보름 전에는 없기 때문에 약 재료를 이에 부칠 뿐이다.

幼肅奉狀

歲後二書 俱慰阻想之餘 春寒 閱月未解 卽問聞中眷況 安吉 否 兒輩亦皆好在 而種則所課 能不廢耶 此中一依前狀 病則 不須爲慮耳 遞歸事洛議 以三 四之交爲言 欲於晦初間投呈 病狀仍得諧 則善矣 前後別紙 所示 逐件答送 而呼倩之際 語句欠穩處 不復刪定須看也 茸附砂 當於撥便付去 先此可 到耳 姑草

戊申 二月 初吉 家兄

撥便 望前未必有 故藥料 付 入於此耳

9) 편지나 물건 따위를 들여 보내 바침.  
10) 호소하여 청구함.



<가촌(稼村) 우사(寓史)앞, 만부(灣府)에서 평서(平書)함.>

稼村寓史  
灣上平書

지난번 편지는 모두 보았는가. 부쳐온 편지가 위로가 될 뿐이다. 봄기운은 아직 화창하지 않건만 물건 데 우중(寓中)의 권황(眷況)<sup>11)</sup>은 어떠한가. 우리 가중(家仲)<sup>12)</sup>이 멀리 유람하면서 변방 수황(愁荒)<sup>13)</sup>한 곳에서 서로 만나니 기쁨이 정분(情分)에 곱절이 되지 않겠는가.

前書皆覽之否 來翰亦承慰耳  
春氣尙未暢 卽問  
寓中眷況如何 家仲能作遠遊  
相見於塞上愁荒之地 豈不倍  
喜于情 弟以長程鞍馬 或有損  
於衰病之軀 爲慮耳 此中依遣  
昨狀 方值道巡燕回 擾惱多端  
過是後 卽呈遞爲計矣 種兒方  
留那邊 使與松兒 常在書硯之  
間 勿浪出爲妙 姑草

다만 먼 길에 안마(鞍馬)가 쇠병(衰病)한 몸에 상할까 봐 염려될 뿐이다. 이곳은 어제와 같이 보내고 있으며 도순(道巡)<sup>14)</sup>이 연회(燕回)<sup>15)</sup>하여 요란스럽고 번거로움이 많다. 이 때를 지난 뒤에 곧바로 정체(呈遞)<sup>16)</sup>될 계획이다. 종아(種兒)는 지금에 어느 곳에 있는지. 송아(松兒)와 함께 언제나 서연(書硯)<sup>17)</sup>의 사이에 있으면서 부질없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묘(妙)할 것이다. 짐짓 초(草)한다.

戊申 三月 初一日 家兄

무신(戊申,1788) 3월 1일  
가형(家兄)

11) 집안 식구들의 생활 상황.

12) 자기 집안의 중형(仲兄).

13) 쓸쓸하고 황폐함.

14) 도내(道內)를 순찰함. 또는 그러한 사람.

15) 미리 알리지 않고 몰래 순행함.

16) 관리를 의망(擬望)할 때 부임하는 곳에 친족이 벼슬을 하고 있을 경우의 사퇴(辭避) 혹은 인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정체(情勢) 상 부득이한 경우 신병(身病)이 있을 경우 부모의 상이나 봉양할 때 등의 일로 다른 사람으로 갈아 임명하기를 청하는 것.

17) 책과 벼루. 곧 공부하는 분위기.

<만상(灣上)에서 가촌(稼村) 우사(寓史)앞으로 보내는 편지>

稼村寓史  
灣上平書

지난번 파발 편에 서신을 받고 막힌 생각이 위로가 되는구나. 근간(近間)에는 자못 맑고 화창한데 권내(眷內)<sup>18)</sup>의 모든 상황이 어떠한가. 그리고 약이(藥餌)<sup>19)</sup>의 제용(製用)은 효험이 있는가. 이곳은 그대로 지내고 있으며 중형(仲兄)이 20일 사이에 돌아간다고 하니 창별(悵別)<sup>20)</sup>의 회포가 먼저 일어나는구나.

前撥回待  
書 殊慰阻思 近頗清和  
眷內 諸況如何 藥餌製用 有效否 此中依遣 仲行念間當歸  
悵別之懷 先作耳 辭狀尙未題  
還 悵苑悵苑 李義生金貞錫  
纔告歸 他客亦次第事耳 沈香  
肉荳蔻 及砂糖附送 而紫草茸  
灣人初不識其名 若用之 則貿  
於京局而已 指南石 非市肆之  
所常有耳 姑草

사장(辭狀)<sup>21)</sup>을 아직 제환(題還)<sup>22)</sup>하지 못하니 근심스럽고 답답하구나. 이의생(李義生)·김정석(金貞錫)은 이제야 돌아간다고 말하고 다른 손님들도 차례대로 인사를 하였다. 심향(沈香)·육두구(肉荳蔻) 및 사탕(砂糖)은 부쳐 보냈거니와 자초용(紫草茸)은 만인(灣人)들이 그 이름을 모르니 만약에 그것을 쓰려면 경국(京局)<sup>23)</sup>에서 살 뿐이다.指南石(指南石)은 시사(市肆)<sup>24)</sup>에 항상 없도다. 짐짓 초(草)한다.

戊申 四月 十七日 家兄

무신(戊申,1788)년 4월 17일.  
가형(家兄)

脯一貼 附送耳

포(脯) 1첩을 부쳐 보낸다.

18) 식솔(食率)들이 모여 사는 집안.  
19) 약과 자양분이 있는 음식.  
20) 섭섭한 이별.  
21) 사직서(辭職書).  
22) 지어서 돌려 줌.  
23) 서울에 있는 약국을 뜻함.  
24) 수도 및 도시의 상설적인 장거리의 가게.

<만부(灣府)에서 가촌(稼村) 우사(寓史)앞으로 보내는 편지>

稼村寓史  
灣府書

두어 작일(昨日) 과발 편에 부친 편지를 받아보았는가. 근간(近間)에 오는 편지가 없으니 물건 데 일간(日間)에 조여(調餘)<sup>25)</sup> 권황(眷況)이 어떠한지 답답한 생각을 표현할 수 없구나. 이곳은 그대로 지내고 있으며 명중(明仲)이 절역(絶域)에서 서로가 지키면서 회포를 삼았더니 지금에 발행(發行)하니 다시 슬픔이 맺히는구나. 영상(領相)이 이 일을 보고 사장(辭狀)을 체직(遞職)으로 되돌릴 것을 기다릴 뿐이다. 문주(紋紬)<sup>26)</sup>의 범금자(犯禁者)를 조사하여 장계(狀啓)를 올리는 과발이 있으므로 잠깐 초(草)한다.

數昨書入撥者 已傳至否 近無來信 卽問日間 調餘眷況 復如何 菀念不可狀 此中依遣明仲絶域 相守爲懷矣 今當發行 更覺悵結耳 領相若視事 則辭狀得遞而回耶 方待之耳 因紋紬犯禁者 查啓有撥 故暫草

무신(戊申,1788) 4월 22일  
가형(家兄)

戊申 四月 念二日 家兄

---

25) 조후(調候)한 끝.  
26) 무늬 놓은 명주.

<만상(灣上)에서 가촌(稼村) 우사(寓史)에 보내는 편지>

稼村寓史

灣上書

근간(近間)에 두어 통의 편지를 모두 받아보았는가. 오래도록 고향소식이 없으니 근심스럽고 답답하여 견디지 못할 뿐이다. 물건 데 가까운 요즈음 조여(調餘)의 권황(眷況)이 어떠한지 아울러 간절하구나. 이곳은 옛날 그대로 보내고 있거니와 명중(明仲)이 22일 늦게 길을 떠나가니 변방(邊方)에서 가고 머무는 심정이 곱절이나 창암(悵黯)할 뿐이다.

間者數書 皆傳至否 久無鄉信  
憂菀正不堪耳 卽問比日  
調餘眷況如何 并徃殊功 此中  
依遣前樣 明仲發程于念二之  
晚 塞門去留之情 倍爲悵黯耳  
領相似已視事 辭狀之許題 方  
理裝待之矣 家居甚不便 須及  
今移聚於一處 何可得愜意之  
所也 君須待仲行之歸 仍卽圖  
之爲妙 姑此擾草

영상(領相)이 자기의 일처럼 여겨서 사장(辭狀) 허제(許題)<sup>27)</sup>를 다루어줄 것을 기다린다. 집이 살기가 불편하여 지금에 한곳에 옮겨 모아도 마음에 흡족할 곳을 얻을 수 있겠는가. 자네는 모름지기 중행(仲行)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즉시 그 일을 도모하는 것이 묘(妙)할지어다. 짐짓 이 어수선하게 초(草)한다.

戊申 四月 念五日 家兄

무신(戊申,1788)년 4월 25일

가형(家兄)

---

27) 조선 시대 해당 관청에서 백성들이 제출한 청원서 진정서 따위의 민원 서류 여백에다가 그 처리와 관련된 지령(指令)을 써서 내려 주는 것을 말함.

<가촌(稼村) 우계(寓几)<sup>28)</sup> 앞으로 만부(灣府)에서 보내는 편지>

稼村 寓几  
灣府 書

그저께 파발이 돌아와서 사념(四念)의 편지를 받아보고, 비록 막힌 생각이 위로(慰勞)되지만 오히려 엄체(淹滯)한 서신(書信)이구나. 근간(近間)에 연이어 비가 내리고 흐린 날씨에 조여(調餘)의 권황(眷況)을 다시 묻건 데 어떻게 병증(病症)이 약이(藥餌)로 인하여 나은 듯하니 매우 기쁘구나. 백두구(白荳蔻)는 몇 냥을 쓰려고 하는가?

再昨撥回 得四念之書 雖慰阻思 猶是淹滯之信也 間者連兩作陰 調餘眷況 更問何似病症之因藥餌 有廖甚可喜 白荳蔻欲用幾兩耶 家仲行中 亦貿歸須走推移 以副之無時耳 正言家 痘憂 已順經 而家內兒 亦如何 慮念不可狀 此中諸况 依遣 而仲行既發之情思 一倍愁菀耳 辭狀題回 則連呈以至得遞而已 債簿未勘 何須計 金張二事 豈不商量 而遞歸之前 未暇及耳 姑草

가중(家仲)이 가는 도중에 사서 돌아갈 것이다. 모름지기 추이(推移)<sup>29)</sup>하여 무시(無時)로 살피서 모실지어다. 정언(正言)의 집에 두우(痘憂)는 이미 순조롭게 지나고 집안 아이도 또한 어떠한지 염려됨을 가이 말할 수 없구나. 이곳은 모든 상황은 그대로 지내고 있거니와 중씨(仲氏)가 이미 떠나가니 그 정사(情思)가 곱절이나 수심스럽고 답답할 뿐이다.

戊申 午月 初吉 家兄

사장(辭狀)이 제회(題回)<sup>30)</sup>하면 연이어 글을 올려서 체직(遞職)할 따름이다. 채부(債簿)를 감당하지 못하니 어떻게 셈할 것인가. 김씨와 장씨의 두 일은商量(商量)하지 않을 수 없거니와 취귀(遞歸)하기 전에는 겨를이 나지 않을 뿐이다. 짐짓 초(草)한다.

무신(戊申,1788)년 5월 1일  
가형(家兄)

28) 거주하는 곳에 놓인 책상.  
29) 일이나 형편이 변하여 옮김.  
30) 제급(題給)하여 회부함.

<노호(鰲湖) 우사(寓史)앞으로 기성(騎省)<sup>31</sup>에서 보내는 편지>

어제 편지를 받고 막힌 생각이 위로되었다. 밤에는 매우 추운데 권내(眷內)의 모든 상황이 어떠한가. 그리고 백아(栢兒)의 두증(痘症)이 한결같이 순조로운지 염려가 깊구나. 제사(祭事)의 행부(行否)를 정부사(定夫士) 심(深)에게 의논하니 모두 행하지 못한다고 한다. 우옹(尤翁)의 논리를 대강 들으니 산부(産婦) 및 두창(痘瘡)을 앓는 사람은 마땅히 내치고 제사(祭祀)를 행한다고 한다.

이것은 경론(經論)<sup>32</sup>으로 그들을 내치지 못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세(近世)에 권자의(權咨議)는 제사를 행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곧 세속(世俗)이 꺼릴 뿐만 아니라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태여 제사를 행하면 끝내 마음에 편하지 않을 것이며 제사를 거르면 마음이 내려앉아 텅 빌 것이나 나는 여러 사람의 의논을 따르고자 한다. 사는 곳이 한 집이라면 다른 방이라고 해서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내일 아침에 당직을 마치고 나갈 것이다. 그러나 1년에 한번 비모(悲慕)의 회포를 펴는 것도 여러 차례 하지 못하니 어떻게 하겠는가. 강군(姜君)이 비록 두창(痘瘡)을 고치지 못했거니와 맞이하여 보는 것이 좋을듯하다. 근일(近日)에 두창(痘瘡)을 고치는 사람을 맞이하여 보냈는가? 짐짓 초(草)한다.

11일  
가형(家兄)

鰲湖寓史  
騎省書

昨書承慰阻思 夜回劇寒 眷內  
諸況如何 栢兒痘症 一意向順  
慮念則深  
祭事行否 議於定夫士深 皆以  
爲不可行 蓋聞尤翁之論 產及  
痘者 當出之而行祀云 此則經  
論而出之 有不得者 故近世權  
咨議 以爲祀不可行云 則不但  
俗忌 以其不淨故耳 強以行祀  
終有未安於心 闕祀雖益崩廓  
吾則欲從諸議矣 所處同是一  
室 不可異房 有差殊耳 明朝  
脫直 當出往而一年 一伸悲慕  
之懷 亦將屢度 不得爲之奈何  
姜君雖非痘醫 邀見之似好 而  
近日痘醫行者 亦或邀送耶 姑  
草

十一日 家兄

31) 기조(騎曹). 병조(兵曹)를 달리 이르는 말.  
32) 경서(經書)의 이론(理論).

<삼청동(三清洞) 심참판택(沈參判宅)에 전납(傳納), 전주점(全州店)에서 서신(書信)함.>

三清洞 沈參判宅 傳納  
全州店中 書信

이별의 회포(懷抱)가 다만 의의(依依)<sup>33</sup>할 뿐입니다. 요즘 모든 집의 권황(眷況)이 어떠한지 북쪽으로 바라보니 묘연(渺然)하여 아울러 답답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번 길은 저녁에 겨우 전주(全州)에 이르러 말(馬)을 먹이고 전진(前進)하려고 하였으나 노자(路資)<sup>34</sup>가 너무 적어서 활달하게 보낼 수 없으므로 말고삐를 돌릴 뿐입니다. 신상(身上)은 짐짓 편안하니 큰 조화가 미친 것으로 여깁니다. 매우 바빠서 긴 말을 하지 못하니 다만 이 편지를 노호(鷺湖)집에 보내어 보이는 것이 묘(妙)할 것입니다. 짐짓 초(草)합니다.

別懷殊用依依 日來 諸家眷況  
如何 北望渺然 不堪并苑 此  
行今夕 纔到全州秣馬 方圖前  
進 而路資太些 無以活送回鬣  
耳 身上姑寧 罔非洪造攸及矣  
忙甚不能長語 只以此書 送示  
鷺湖家中 爲妙 姑草

壬子 三月 十九日 輝遠

임자(壬子,1792)년 3월 19일  
휘원(輝遠)

33) 헤어지기 섭섭한 모양.

34) 여행하는 데 소용되는 돈.

<삼청동(三清洞) 심참판(沈參判) 댁에 전납(傳納), 영암점(靈巖店)에서 평서(平書)함.>

지난번 편지를 일간(日間)에 헤아려보니 전하여 도달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봄기운이 점점 짙어가고 남쪽에 복숭아 살구꽃이 아울러 피기 때문에 언덕에 올라보니 생각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물건 데 모든 집안의 권황(眷況)이 균안(均安)한가.

이번 길은 오늘 오후에 영암군(靈巖郡)에 이르니 아래로 해구(海口)에 가기까지는 100여리가 된다. 모래에는 마땅히 도리(鳥籬)<sup>35</sup>가운데에 들어가서 처할 것이다. 일행이 짐짓 손상됨이 없으니 어찌 은악(恩渥)이 미친 것이 아니겠는가. 자질구레하게 마음을 번거롭게 하는 일들은 논하지 않으니 이 편지를 가지고 돌려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등불 아래에서 잠깐 초(草)한다.

임자(壬子, 1792)년 3월 22일 밤.

휘원(輝遠)

영산(映山) 홍분(紅盆)은 처마안에 두고 언제나 물을 주는 것이 묘(妙)할지어다.

三清洞 沈參判宅 傳納  
靈巖店 平書

前書 計於日間傳到矣 春氣漸  
闌 南中桃杏并開 故陌登眺之  
想 殊難自禁也 卽問  
諸家 眷況均安否 此行今午後  
到靈巖郡 下距海口百餘里 再  
明則當入處鳥籬之中矣 一行  
姑無所損 豈非  
恩渥之餘暨耶 自餘瑣微惱心  
等事 不須論 只以此書 輪視  
之如何 燈下覓 草

壬子 三月 念二夜 輝遠

映山紅盆 置之簷內 每每給水  
爲妙

35) 섬속의 위리(圍籬). 곧 귀양지를 뜻함.



<삼청동(三清洞)과 노호(鰲湖)가 겹하여 봉장(奉狀)함.>

三清鰲湖 兼奉狀

예배(隸輩)들이 돌아갈 때에 보낸 편지는 받아보았으리라 생각한다. 여름의 계절이 바야흐로 이르는데 모든 집안의 권황(眷況)이 안길(安吉)한지 침상(瞻想)<sup>36)</sup>이 경경(耿耿)<sup>37)</sup>하구나.

隸輩歸時有書 計已  
領覽矣 憂序方屆  
諸家眷況 未知安吉耶 瞻想耿  
耿 此中身無所患 飯睡依分  
而環籬封扉之內 終不似從前  
居謫之隨意 筇屐於巔涯之間  
消遣楚騷之愁耳 得僉者 忽告  
歸可怪 自初從來之意 何爲也  
不慧而少信 何責渠 任他而已  
從茲或有欲來者 切勿許送也  
種兒方在何處 不廢課業耶暫  
草

이곳은 신환(身患)이 없이 먹고 자는 것은 분수대로 한다. 둘러친 울타리 닫아놓은 사립문 안에서 종전(從前)에 귀양살이 하면서 뜻에 따라 전애(巔涯)<sup>38)</sup>의 사이를 다니지 못하고 초소(楚騷)<sup>39)</sup>의 수심을 보낼 뿐이다.

壬子 三月 念九日  
家兄

득겸(得僉)이가 갑자기 돌아가겠다고 하니 괴이한 일이며 처음에 따라온 뜻은 어떤 것인가. 지혜롭지 못하고 믿음이 적으니 어찌 그를 꾸짖겠는가. 다른 사람에게 맡길 뿐이다. 이로부터 오고자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절대로 허락하지 마라. 종아(種兒)는 지금에 어느 곳에 있으며 과업(課業)<sup>40)</sup>은 폐하지는 않았는가. 잠깐 초(草)한다.

임자(壬子, 1792) 3월 29일  
가형(家兄)

36) 바라보면서 생각함.

37) 마음에 근심이 있는 모양.

38) 산꼭대기와 물가.

39) 초(楚)나라 굴원(屈原)이가 지은 이소(離騷). 초나라 궁정(宮庭)에서 쫓긴 굴월이 간신(奸臣)의 참언(讒言)으로 왕에게 신임을 받지 못함을 실망하여 서술한 글.

40) 학과(學科).

얼마 전에 한통의 편지가 바다를 건너와서 필적(筆跡)을 펼쳐보니 미우(眉宇)<sup>41)</sup>를 대하는 듯 하구나. 하물며 접때에 권내(眷內)의 모든 상황이 안길(安吉)한지 달이 또한 바뀌었다. 북쪽으로 가향(家鄉)을 바라보니 멀리 천상(天上)에 있는 듯 하구나. 근자(近者)에 가내(家內)의 범절이 한결같이 편안하게 보내는지 생각이 치달아 마지않는다.

向者一書 過海而來 披見筆跡  
如對眉宇 況審伊時  
眷內諸況安吉 月又改矣 北望  
家鄉 遠在天上 近者  
家內凡節 一向穩送否 馳念何  
已 此中姑無見疾 亦有難支之  
慮奈何 洛下事 茫然不入耳  
猶以爲安李士 深衰且病矣 何  
須深責也 聲罪者雖滿庭  
聖上 自有一定之權度 何增何  
損 惟

이곳은 짐짓 병들지는 않았건만 지탱하기가 어려움 생각이 드니 어떻게 하겠는가. 낙하(洛下)<sup>42)</sup>의 일은 망년(茫然)하여 귀에 들어오지 않는구나. 오히려 안씨(安氏)와 이씨(李氏)의 두 선비는 몸이 매우 쇠약하고 병들었으니 어찌 심하게 꾸짖겠는가.

日月之俯照 微忱復何云云 種  
兒浮夸 未入穀率 甚可憂矣  
不知近日 一向如是否耳 紙縮  
語止 所抵仲氏書 參互覽過爲  
妙 姑草

성죄(聲罪)<sup>43)</sup>하는 사람들이 비록 조정(朝廷)에 가득하여도 성상(聖上)께서 일정한 권도(權度)<sup>44)</sup>가 있으니 어찌 더하고 뺄 수 있겠는가. 일월(日月)이 굽어 비치니 작은 정성을 다시 운운(云云)하겠는가.

壬子 四月 十二日 輝遠

종아(種兒)는 부과(浮夸)<sup>45)</sup>하여 구율(穀率)<sup>46)</sup>에 들지 못하니 매우 걱정스럽구나. 모르긴 하지만 근일(近日)에는 그대로 이와 같지 않는가. 종이가 줄어들어 말을 멈춰야하니 도착한 중씨(仲氏)의 편지를 서로 보고 지내는 것이 취미가 되었다. 짐짓 초(草)한다.

임자(壬子,1792)년 4월 12일  
휘원(輝遠)

41) 이마의 눈썹 언저리. 전(轉)하여 얼굴 모양.  
42) 낙중(洛中)과 같음. 낙양(洛陽)의 안이라는 뜻으로 서울 안을 이르는 말.  
43) 죄(罪)를 성토(聲討)함.  
44) 규칙. 균형.  
45) 종잡을 수 없으리만큼 허풍을 떨어 말함.  
46) 활시위를 당기는 정도. 표준.

순후(旬後)에 보낸 편지가 요릿에 들어 이미 보고 지냈으리라 생각한다. 본군(本郡)의 관리(官吏)가 회신(回信)을 전하여 위로가 되는구나. 근간(近間)에 모든 상황이 편안하며 종아(種兒)도 마음을 정하여 공부를 열심히 하는가. 이곳은 분수에 맞춰 잘 지내고 있으며 비록 구간(苟簡)48) 하여도 너무 궁색하지는 않다.

旬後有書入褱 想已覽過矣 本郡吏 回傳書承慰 近間 眷內 諸況之安 種兒 能定心課學否 此中依分送日調度 雖苟簡亦不至甚窘 而瘴氣漸起 村中或有癘云 萬事只聽天奈何 南少年向國之忱 可尚矣 江上閭里 頗不淨云 極用憂念 似聞欲治送姜君 此非客易可辦 況姑無繁 而渠亦衰老之年 何可作此行也 須勿以爲意也 姑草

장기(瘴氣)49)가 점점 일어나서 마을에 여병(癘病)50)이 있다고 말하여 만사(萬事)를 천명(天命)에 맡겨야하니 어떻게 하겠는가. 남소년(南少年)이 나라를 향하는 정성은 가상(可尙)한 일이다. 강변의 마을이 자못 정결하지 않다고 하니 지극히 근심스럽고 걱정이 된다. 듣건 데 강군(姜君)을 치송(治送)51)한다고 하니 이것은 쉽게 판단할 것이 아니다. 하물며 긴밀할 수 없거니와 그도 노쇠(老衰)한 나이로 어찌 이 길을 떠날 수가 있겠는가. 모름지기 생각하지 말지어다. 짐짓 초(草)한다.

壬子 四月 輝遠

임자(壬子,1792)년 4월  
휘원(輝遠)

47) 답장을 받음.  
48) 구차하고 간략함.  
49) 열대 지방의 개펄에서 일어나는 독 있는 기운.  
50) 전염성 열병의 총칭.  
51) 짐을 차리어 길을 떠나보냄.

<노호(驚湖) 정쾌(靜几)에 즉납(卽納)함.>

驚湖靜几 卽納

산상(山上)에서 작별(作別)하니 다만 암련(黯然)<sup>52</sup>할 뿐이다. 요즈음 들어서 가내(家內)의 모든 상황은 어떠하며 아희들은 반우(返虞)<sup>53</sup>한 뒤에 잘 지보(支保)하는가. 그리고 졸곡(卒哭)<sup>54</sup>은 오늘 새벽에 지냈는지 슬픈 생각뿐이다.

山上作別 殊覺黯然日來  
家內諸況如何 兒輩返虞後 能  
得支保 而卒哭過行於今曉否  
悲念而已 此中午前 抵全州城  
方又發程 綾衙距茲 尙有二百  
七十里云耳

이곳은 오전에 전주성(全州城)에 도착하여 지금에 또 길을 떠나가니 능아(綾衙)는 이곳과의 거리가 270리라고 말한다. 산역(山役)을 마쳤거니와 이지러진 곳이 없는가. 고사(告辭)<sup>55</sup>하고 올 때에는 그 일을 잊고 행하지 못했도다. 포과(脯果)의 전의(奠儀)를 갖추어 간 사람이 있다고 하니 그를 알아서 천용(薦用)하였는가. 그때의 일이 황급하게 지나가니 탄식스럽구나. 짐짓 초(草)한다.

山役了 當無缺處耶 告辭來時  
却忘之 未能爲矣 有脯果奠儀  
備去者 或知之而薦用否 伊時  
事忿卒可歎 姑草

甲寅 三月 十七日 家兄

갑인(甲寅,1792)년 3월 17일  
가형(家兄)

52) 이별을 애석케 여겨 슬퍼하는 모양.

53) 장사 지낸 뒤에 신주(神主)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옴.

54) 삼우제(三虞祭)를 지낸 뒤에 지내는 제사. 사람이 죽은 지 석 달 되는 초정일(初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지내는 제사.

55) 관찰사(觀察使)나 절제사(節制使) 수령(守令) 찰방(察訪)등 외방의 관직으로 나가는 신하가 부임하기 전에 임금에게 나아가 하직 인사를 올리는 일.

<능아(綾衙)에서 노호(鰲湖) 한사(閒史)앞으로 보내는 편지>

鰲湖 閒史  
綾衙 平書

전주(全州)에서 부친 편지를 이미 보았으리라고 생각한다. 일간(日間)에 날씨가 점점 따듯한데 모든 상황이 어떠한지 슬픈 생각이 깊구나. 이곳은 20일 낮에 관아(官衙)에 도착하니 일행이 모두 아무런 일이 없다. 김소년(金少年)은 낙후(落後)에 짐짓 이르지 않는다. 산역(山役)은 어떻게 마쳤으며 청동(淸洞) 우졸(虞卒)<sup>56</sup>을 차례대로 지낸 뒤에 아희들도 잘 지내고 있는가.

全州所付書 計已入  
見矣 日間漸暖  
諸況如何 悵念殊深 此中廿午  
到衙 一行皆無事 而金少年落  
後 姑未至矣 山役何以告訖  
淸洞虞卒 排次過行之餘 兒輩  
亦得支遣耶 來坐極南之峽 回  
望家國 渺然如隔一世也 官況  
難了 新到之夫馬債 云謫官固  
應爾耳 性得者告歸 姑草

극남(極南)<sup>57</sup>의 골짜기에 와 앉아서 가국(家國)을 회망(回望)하니 아득하게 한 세대가 막힌 듯 하구나. 관직(官職)의 상황은 마치기가 어려우니 새로 도착한 부마책(夫馬責)이 귀양 갔던 벼슬아치가 부임하였다고 하였다. 성득(性得)이란 사람은 돌아가겠다고 아뢰었다. 짐짓 초(草)한다.

甲寅 三月 念四日 輝遠

갑인(甲寅,1794)년 3월 24일  
휘원(輝遠)

56) 우제(虞祭)와 졸곡제(卒哭祭).  
57) 남쪽 끝. 곧 능주(綾州)를 뜻함.

<능아(綾衙)에서 노호(鵞湖) 한기(閒厓)앞으로 보내는 편지>

鵞湖 閒厓  
綾衙 平書

금일(今日)에 관례(官隸)가 돌아와서 수서(手書)<sup>58</sup>를 주므로 간자(間者)에 모든 집의 권황(眷況)이 편안하다고 하니 위로가 되는구나. 더위가 점점 깊어 가는데 기거(起居)하는 범절(凡節)이 어떠한가. 이곳은 그대로 보내고 있으며 산벽(疝癖)의 기운이 움직이나 다행하게 더하지는 않는다. 부서(簿書)<sup>59</sup>를 정리하고 난 여기에 몇 줄의 글을 읽지만 쇠권(衰倦)하여 공부가 되지 않는다.

今日官隸 歸呈  
手書 承慰間者 諸家眷況之安矣 炎序稍深  
起居凡節 更如何 此中依遣疝癖動氣 幸無所添 而簿書之暇 尙堪讀數十行文 然衰倦不能爲課耳 藥料纔煎十餘貼服之 近處家蓼 雖有之 品劣而一錢價 爲三兩銅云耳 家舍之捲還江上 則自無他事 而弟以種兒之往返喪側 爲一憂端奈何 在此州故未料久近 而喪債及來時浮費 亦難耳 當亦可愁耳 餘不具例

약료(藥料)를 10여첩 다려 복용하였으며 이 근처에 가삼(家蓼)이 있으나 품질이 좋지 않고 1전(錢)의 값이 3냥동(兩銅)이 된다고 한다. 가사(家舍)를 강상(江上)에 옮겨가서 다른 일이 없거니와 다만 종아(種兒)가 초상집에 갔다가 돌아와서 우환을 얻게 되니 어떻게 하겠는가. 이 고을에 오래도록 있지는 않을 것이다. 상채(喪債)<sup>60</sup> 및 올 때에 쓴 경비가 또한 어려우니 마땅히 수심이 된다. 남은 말은 예(例)를 갖추지 않는다.

갑인(甲寅,1794)년 4월 10일  
백형(伯兄)

甲寅 四月 旬日 伯兄

58) 손아랫 사람의 편지를 일컬음.

59) 전곡(錢穀)을 출납하는 장부.

60) 초상을 치른 빚.

<노호(鰲湖) 정기(靜厓)에 회납(回納), 능아(綾衙)에서 씬.>

鰲湖 靜厓 回納  
綾衙 書

겸인(僉人)<sup>61</sup>이 와서 수서(手書)를 받고 근일(近日)에 점점 더워지는데 권중(眷中)의 모든 상황이 안승(安勝)함을 살피니 위로가 되어서 기쁘다. 청계(淸溪)의 오랜 자취를 생각하니 비구(悲疚)<sup>62</sup>를 어떡하겠는가. 이곳 범절(凡節)은 그대로 지내고 있거니와 약이(藥餌)의 수요(需要)도 감히 지나치게 쓰지 못한다.

兼人之來 得承  
手書 仍審近日向炎  
眷中諸况 安勝慰喜 淸溪陳跡  
想之 悲疚奈何 此中凡節依遣  
藥餌之需 亦不敢濫計 來時刷  
騎之大同會滅 及修理衙舍之  
捧於民間者 姑皆不欲犯用 則  
目今邦處 及他所負之債 以每  
朔所餘十數包米價 不滿三緡  
者 其可以抵償耶 若於此中  
計出諸家料米價 則亦將無  
十包之餘矣 姑皆置之耳 君之  
所示則迺矣 長耳苟可牽來 則  
到此之後 餵以菘豆 或似勝耶  
不能來 則出置之草場可耳 續  
當有書 姑草

올 때에 쇄기(刷騎)<sup>63</sup>의 대동(大同) 회감(會減)<sup>64</sup> 및 아사(衙舍)를 수리한 비용을 민간에게 받는 것은 짐짓 범하여 쓰지 않고자 한다. 나라의 처지와 다른 곳 부채(負債)을 보니 달마다 남은 십 수포의 쌀값이 3궤미 차지 않으니 그것을 갚을 수 있겠는가. 만약에 이 속에서 모든 집의 요미(料米)와 반찬값을 빼 낸다면 또한 10포(包)의 남음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짐짓 모두 접어 둘 뿐이다.

자네가 제시한 것은 우원(迂遠)<sup>65</sup>하니 장이(長耳)를 끌어올 수 있다면 이곳에 도착한 뒤에 녹두(菘豆)를 먹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능히 올 수 없다면 초장(草場)<sup>66</sup>에 내치어 두는 것이 옳을 뿐이다. 계속 편지가 있을지어다. 짐짓 초(草)한다.

甲寅 四月 望日 伯兄

갑인(甲寅,1794) 4월 15일

백형(伯兄)

61) 시종(侍從)하는 사람.

62) 슬픔이 쌓여 병이 됨.

63) 샅을 주고 말을 빌려 탐.

64) 받을 것과 줄 것을 마주 셈하여 많은 수효에서 적은 수효를 상쇄(相殺)하여 회계처리하는 것.

65) 세정(世情)에 어둡고 먼 것.

66) 풀밭. 풀·갈풀 따위를 가꾸는 말밭.

<노호(鰲湖) 한기(閒厓) 앞, 능아(綾衙)에서 평서(平書)함.>

鰲湖 閒厓

綾衙 平書

수일전에 편지를 받고 막힌 생각이 위로가 되었다. 일간(日間)에 권중(眷中)의 모든 상황이 어떠한지 살피지 못했다. 가내(家內)의 우환을 물을만한 의원이 없고 또한 부자(附子)를 그대로 쓰지 못하니 이 약재를 빼면 해로움은 없을 것이다. 나는 옛 그대로 지내고 있으며 환약(丸藥)을 지어서 복용하지만 약채(藥債)<sup>67)</sup>가 점점 많아져서 이른 바 산(山)과 같으니 어떡하겠는가.

數昨承

書 殊慰阻思 不審日間

眷中諸況如何 家內病憂 無醫可問 亦不可仍用附子 除此一材 則似未至作害耳 吾依遣前樣 丸藥雖製出 藥債漸多 所謂如山奈何 李周爍之爲道闕 不欲以文簿往來 諸邑皆然 當有一番

이주혁(李周爍)이 도곤(道闕)<sup>68)</sup>이 되어서 문부(文簿)로써 왕래하지 않으려하고 모든 고을이 다 그렇게 하니 마땅히 한 차례의 감죄(勘罪)<sup>69)</sup>를 차분하게 기다릴 뿐이다. 저리(邸吏)가 아뢰기를 또한 30폐미를 송납(送納)하였다고 하는데 그러한가. 이 채무(債務)도 당장 환급(還給)할 길이 없으니 민망할 뿐이다. 짐짓 초(草)한다.

勘罪 方慕俟耳 邸吏之報 又有卅緡送納然否 此債 亦無目下還給之路 爲悶耳 姑草

갑인(甲寅,1794) 4월 29일

甲寅 四月 念九日 家兄

가형(家兄)

淸二升 竹瀝膏三升 味食三升

청(淸)<sup>70)</sup> 2되. 죽력고(竹瀝膏) 3되. 미식(味食) 3되.

67) 빗 진 약값.

68) 각도(各道)의 병사(兵使) 및 수사(水使).

69) 죄인을 신문하여 처벌함.

70) 꿀.



<능아(綾衙)에서 노호(鷺湖) 한기(閒厓)앞으로 평서(平書)함.>

鷺湖 閒厓  
綾衙平書

중월(仲月)<sup>71</sup>에 두통의 편지를 연이어 받고 지난번 더위에 정황(靜況)이 청승(淸勝)하니 위로가 되는구나. 이곳도 어제와 같이 지내건만 남쪽 더위에 장마가 오니 이미 쇠약한 몸으로 그들과 대응하기가 어려우니 어떻게 하겠는가. 병곤(兵闕)<sup>72</sup>이 문첩(文牒)으로 통하지 않으니 끝내는 한차례 민애(閔隘)<sup>73</sup>할 경우가 있을듯하여 속장(束裝)<sup>74</sup>하고 처분을 기다린다.

仲月兩書連承 向熱靜況淸勝  
何慰如之 此中亦依昨 南暑當  
霖 以既衰之骸 恐難抵敵奈何  
兵闕文牒之不通 終似有一番  
閔隘之境 方束裝 以俟  
處分 而所欠官債 無計可勘  
亦奈何 聞嫂氏所患 近甚彌若  
問於姜君 方欲製送黃狗丸 而  
材料似不出建理之間耳 墻役  
不能如法築之堅固 則徒費人  
力 且況此舍 終當有柳台還主  
之 舉何可相爭也 姑草

빌려 쓴 관채(官債)는 건더 낼 계책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는가. 들건 데 수씨(嫂氏)의 병환이 근래에 와서 더욱더 고통스럽다고 하여 강군(姜君)에게 물어서 황구환(黃狗丸)을 지어 보내려고 하는데 재료(材料)가 건리탕(健理湯)의 사이에 벗어나지 않은 듯 하다. 장역(墻役)은 원칙에 따라서 견고하게 쌓지 않으면 인력만 낭비할 뿐이다. 하물며 이 집은 끝내 유태(柳台)<sup>75</sup>가 돌아와서 주관할 것이니 어찌 서로가 다투겠는가. 짐짓 초(草)한다.

甲寅 六月 初吉 家兄

갑인(甲寅,1794)년 6월 1일.

가형(家兄)

71) 중삭(仲朔). 음력 2일·5월·8월·11월 따위의 일컬음.

72)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를 달리 이르는 말.

73) 민망하고 부딪치는 일.

74) 행장(行裝)을 거두어 차림.

75) 유씨(柳氏) 성(姓)의 대감(大監).

<유숙(幼肅) 봉장(奉狀)>

그믐과 초순(初旬) 사이에 모든 편지를 아울러 받아보았다. 저편(邸便)<sup>76</sup> 및 운노(雲奴)가 선후(先後)로 도착하여 또 2통의 편지를 받고 기뻐하였다. 너무나 더운 날씨에 권중(眷中)의 모든 상황이 청길(淸吉)한가.

이곳은 보름 뒤부터 장부(帳簿)를 정리하면서 은지(恩旨)<sup>77</sup>가 내려오기를 기다렸는데 지금에 특제(特除)<sup>78</sup>를 받으니 황감하여 무어라고 말할 바를 모르겠구나. 나에게는 장염(瘴炎)<sup>79</sup>의 침습(侵襲)이 있으나 들어난 병이 있다고 말할 것은 없다. 저채(邸債)는 모두 300여 냥이 되고 이곳에서 쓴 것도 수 백냥이 되지만 겨우 감당할 뿐이다. 실병(室病)<sup>80</sup>은 저 사이에 가감(加減)이 어떠한지 걱정이 깊구나. 인마(人馬)의 세(貰)는 잡기가 매우 어려우니 내일 출발하려고 하지만 일찍 나서지는 못할듯하다. 나머지는 예(例)를 다하지 못한다.

갑인(甲寅, 1794)년 6월 27일  
가형(家兄)

황구환(黃狗丸)은 지어두었다고 말한다.

幼肅奉狀

晦初間 諸書并承見矣 邸便及  
雲奴 先後到來 又承  
二書 審喜極暑  
眷中諸況淸吉 此中自望後治  
簿 待  
恩旨之降矣 今奉  
特除 惶感不知所喻 身上雖有  
瘴炎之侵襲 無顯病可言耳 邸  
債通爲三百餘兩 此處所用 亦  
爲數百 而僅可當耳 室病伊  
間 加減如何 憂惱殊深 人馬  
貰把艱甚 明欲發行 似不能早  
耳 餘不究例

甲寅 六月 念七日 家兄

黃狗丸 製置云

76) 관저(官邸)이 인편(人便).

77) 임금이 너그러이 은혜·은택을 베푸는 깊은 뜻.

78) 임금이 특별히 제수(除授)함.

79) 열대지방에서 일어나는 무더위.

80) 아내의 병.

<노호(鷺湖) 본택(本宅)에 즉납(卽納), 전주(全州) 행중(行中)에서 평서(平書)함>

鷺湖本宅 卽納  
全州行中 平書

영편(營便)에 편지를 받았다. 간자(間者)에 무척이나 더운 날씨에 권내(眷內)에 모든 상황이 안승(安勝)하니 위로가 되는구나. 나는 어제에 전주에 도착하여 연일 화산(火傘)<sup>81</sup>가운데에서 갈 길을 배정하지 못하고 지금에 머물면서 인마(人馬)를 쉬게 하고 있다.

營便有  
書 卽承 間者極暑  
眷內諸況 安勝爲慰 吾行昨暮  
抵全州 連日火傘之中 不能排  
程 今方留住 以休人馬 明當  
發行 宿恩津爲計 若排日 則  
初六七間 可以及家中耳 去念  
八啓程 一行姑皆無事矣 暫草  
入房子便耳 兒書亦見之 與秀  
及松 皆闕答 以此意市及爲妙

내일 길을 떠나서 은진(恩津)에서 투숙(投宿)할 계획이니 이와 같이 그 날짜를 배정하면 6~7일 사이에 집에 도착할 수 있다. 지난 28일에 길을 떠나서 일행(一行)이 모두 무사(無事)하다. 잠깐 편지를 초(草)하여 방자편(房子便)<sup>82</sup>에 주었도다. 아희들의 편지도 보았거니와 수(秀)와 송(松)에게 보낼 답장은 모두 빠졌으니 이 뜻을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甲寅七月初吉 家兄

갑인(甲寅,1794)년 7월 1일  
가형(家兄)

81) 불벌처럼 내리 쪼이는 햇볕을 가리기 위하여 쓰는 우산처럼 만든 물건.  
82) 조선 시대 지방의 관청에서 심부름하던 사내종.

<노호(驚湖) 정기(靜厓)에 회납(回納), 낙산사(洛山寺)에서 돌아가는 길에 평서(平書)함.>

驚湖靜厓 回納  
洛山寺歸路 平書

해산(海山) 높은 절 가운데에서 수서(手書)가 멀리서 도착하여 펼쳐보았다. 서리가 차가운데 정리(靜履)<sup>83</sup>가 휴승(休勝)<sup>84</sup>하고 권내(眷內)가 혼안(渾安)<sup>85</sup>하니 위로가 되고 기쁘구나. 이번에 총석(叢石)으로부터 돌아오는 길에 제서(除書)<sup>86</sup>를 받드니 은유(恩諭)<sup>87</sup>가 순순(諄諄)하여 진름(震懼)<sup>88</sup>이 이어서 황감(惶感)하구나.

海山高寺之中  
乎書遠到 披審霜冷  
靜履休勝 眷內渾安 慰喜慰喜  
此行自叢石歸路 伏奉  
除書 恩諭諄諄 震懼繼以惶感  
顧茲何以致此 不知所以仰酬  
如何耳 當從鏡浦 作路而還  
似以六七日 抵城外耳 書啓路  
中 草草構成 附回史官之行矣  
姑不宣書式

돌아보면 이 어떻게 이에 이르렀으며 보답을 어떻게 해야 할는지 모르겠구나. 경포(鏡浦)를 쫓아 길을 열어서 돌아가면 6~7일 즈음에 성(城)밖에 이를 듯 하다. 도중에 바쁘게 편지를 써서 돌아가는 사관(史官)에게 부치고 짐짓 서식(書式)을 갖추지 않는다.

戊午菊月初七日 輝遠

무오(戊午,1798)년 9월 7일  
휘원(輝遠)

83) 조용하게 지낸다는 뜻으로 서간문(書簡文)에서 상대방을 일컬음.

84) 좋은 상대로 건승(健勝)함.

85) 두루 두루 편안함.

86) 벼슬을 제수(除授)할 때에 전조(銓曹)에서 임명된 관리의 명단을 적은 문안(文案)이나 사령장(辭令狀).

87) 은혜를 베풀어 타일러 가르침.

88) 떨며 두려워 함.

<의주부(義州府)에 입납(入納), 사제(舍弟)가 상서(上書)함.>

義州府 入納

백형주전(伯兄主前) 상서(上書)

舍弟 上書

20일전에 이미 편지를 올리고 또 20일 뒤 어제 저녁까지 3차례나 내려주신 편지를 받았습니다. 겨울 날씨가 자못 따듯한데 살피드리지 못했나니 이 때에 기체(氣體)가 어떠하십니까. 정평(亭坪)에 면례(緬禮)<sup>89</sup>가 격일(隔日)로 다가오니 창모(愴慕)를 이기지 못합니다. 생각하건 데 먼 밖에서든 응당 같은 심정이라고 여깁니다. 마침 바쁘고 어두움이 임박하여 예를 갖추지 않고 아뢰입니다.

伯兄主前 上書  
廿前 已有上書矣 又自廿後至昨日夕 伏奉  
下書來墜者 又三度矣 冬日頗暖 伏未審此時 氣體若何 亭坪緬禮隔日 不勝愴慕 伏想遠外 應有一般情矣 適忙迫昏 不備達

정미(丁未,1787)년 양월(陽月)<sup>90</sup> 29일.

丁未陽月二十九日

사제(舍弟) 형지(炯之) 상서(上書).

舍弟炯之 上書

89) 무덤을 옮기어 장사를 다시 지냄.

90) 음력 10월 별칭.

<의주부(義州府)에 입납(入納), 사제(舍弟)가 상서(上書)함.>

義州府 入納

백형주전(伯兄主前) 상서(上書).

舍弟上書

양월(陽月)<sup>91)</sup> 26일에 내려주신 편지를 이달 3일에 받고 또 5일에 이 달 1일에 내려주신 편지를 받으니 그 위로됨이 진실로 만만(萬萬)합니다. 다만 답답한 증세는 자주 일어나서 멀리 밝을 우러러 생각하는 절실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눈이 온 뒤에 춥지 않으니 생각하건데 곧 기체(氣體)가 더욱더 신(神)의 도움을 받고 부귀(賦歸)<sup>92)</sup> 하려는 계획이 합당하건만 그 일이 쉽게 마음을 따르지 않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伯兄主前 上書  
陽月廿六下書 拜領於今月三日 而又於五日 伏奉今月一日 下書 其爲仰慰 誠萬萬矣 但滯菀之證 其何以頻發 不勝遠外仰慮之切也 雪後不作寒 伏惟卽日 氣體益膺神佑 賦歸之計 非不合宜 而其如未易於事 不從心而何也 包外加入云者 弟則不聞其已成謬套 而只見向者別錄 認作 兄主 創開於罷後市之後也 卽曰襲謬 則雖有浮說 亦可任之矣 不備達

포외(包外)<sup>93)</sup>에 더 넣는다고 말한 것은 이 아우는 그 잘 못된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얼마 전에 별록(別錄)에 인작(認作)<sup>94)</sup>을 보니 형(兄)께서 파한 뒤 저자의 뒤에서 창개(創開)<sup>95)</sup>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습류(襲謬)<sup>96)</sup>하고 하였다면 비록 뜬 말이라도 그것을 따질 수 있습니다. 갖추지 않고 아웁니다.

정미(丁未, 1787)년 복월(復月)<sup>97)</sup> 9일.

사제(舍弟) 상서(上書).

丁未復月九日 舍弟上書

당필(唐筆)은 안사일(安思一)이 옛적에 3자루를 보내왔는데, 그 가운데에 값이 싼 것이 있는 듯 하므로 지난번에 아뢰었을 뿐입니다.

唐筆 安思一 昔有三枝之送 其中似有價少者 故頃有仰告耳

91) 음력 10월의 별칭.

9) 돌아갈 것을 청하여 아웁.

93)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법으로 한정된 수량 외.

94) 인정하여 줌.

95) 전에 없던 일을 새로이 만들.

96) 그릇된 것을 그대로 이어 받음.

97) 음력 11월의 별칭.

<심참판(沈參判) 행차소(行次所)에 입납(入納), 노강(露江) 본가(本家)에서 상서(上書)함.>

沈參判 行次所 入納  
露江 本家 上書

백형주전(伯兄主前) 상서(上書).

伯兄主前 上書

일월(日月)<sup>98</sup>이 모습을 고치면 백성들이 모두 우러러본다는 옛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의리가 성인(聖人)의 세상에서 얻어 보니 기쁘고 다행스러움이 사사로운 정에 있을 뿐만 아닙니다. 이 때에 기체(氣體)가 어떠하신지 장무(瘴霧)<sup>99</sup>를 촉범(觸犯)한지가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범절(凡節)에 허물과 해로움이 없으며 생각건 데 따라간 노복(奴僕)은 곧바로 돌아오리라고 여겨집니다. 체기(體氣)가 때때로保重(保重)하시길 바라면서 예를 갖추지 않고 아웁니다.

日月之更也 民皆仰之者 古訓也 而此箇義理 得見於聖人之世 其所喜幸 非徒在於私情而已矣 此時氣體若何 觸犯瘴霧 亦已周月矣 凡節下瑕有害 伏計之 此隸之入去行駕 卽向回路矣 唯望體氣隨時保重 不備達

임자(壬子,1792)년 4월 17일

사제(舍弟) 형지(炯之) 상서(上書).

壬子四月十七日  
舍弟炯之 上書

98) 임금을 비유함.

99) 독기(毒氣) 품은 안개.

## 가장(家狀)

## 家狀

조고(祖考) 문충공(文忠公) 만포헌(晩圃軒) 부군(府君)<sup>1)</sup> 가장(家狀). 부군(府君)의 휘(諱)<sup>2)</sup>는 환지(煥之)이고 자(字)<sup>3)</sup>는 휘원(輝遠)이다. 우리 심씨(沈氏)의 혈통은 청송(靑松)에서 나왔으니 그 시조(始祖)의 휘(諱) 홍부(洪孚)는 고려(高麗) 위위시승(衛尉寺丞)이었다. 2세를 지나서 휘 덕부(德符)는 문하좌시중(門下左侍中) 및 청성백(靑城伯)을 지냈다.

이분이 휘 온(溫)<sup>4)</sup>을 낳으니 조선조(朝鮮朝)에 영의정(領議政)으로 세종(世宗)의 국구(國舅)<sup>5)</sup>이며 청천부원군(靑川府院君)이니 시호(諡號)<sup>6)</sup>는 안효(安孝)이다. 안효(安孝)가 휘 회(澮)를 낳으니 영의정을 지냈으며 익대좌리훈(翊戴佐理勳)에 기록되어 청송부원군(靑松府院君)에 봉해지고 시호는 공숙(恭肅)이다. 이 3세의 훈업(勳業)이 모두 국승(國乘)<sup>7)</sup>에 기록되어 이로부터 구조(圭組)<sup>8)</sup>를 이어 동방의 성족(盛族)이 되었다.

또 3전(傳)하여 휘(諱) 연원(連源)<sup>9)</sup>은 영의정을 지냈으며 시호는 충혜(忠惠)이니 명묘(明廟)<sup>10)</sup>에 배향(配享)<sup>11)</sup>되었다. 이분이 휘(諱) 강(綱)<sup>12)</sup>을 낳으니 영돈녕(領敦寧)을 지냈으며 명종(明宗)의 국구(國舅)인 청릉부원군(靑陵府院君)으로 시호는 익효(翼孝)이다.

이분이 휘(諱) 인겸(仁謙)을 낳으니 군수(郡守)를 지냈으며 좌승지(左承旨)에 증직(贈職)되었다. 그리고 중씨(仲氏)인 청양군(靑陽君) 휘(諱) 의겸(義謙)의 둘째 아들 휘(諱) 엄(淹)을 후사(後嗣)로 삼으니 현감(縣監)을 지냈으며 영의정에 증직되었다.

祖考 文忠公 晩圃軒 府君  
家狀  
府君 諱煥之字輝遠 我沈氏系  
出靑松 始祖諱洪孚 高麗衛尉  
寺丞 歷二世有諱德符 門下左  
侍中 靑城伯 生諱溫本 朝領  
議政 世宗國舅 靑川府院君  
諡安孝 生諱澮領議政 策翊戴  
佐理勳 封靑松府院君 諡恭肅  
三世勳業 具載國乘 自是代襲  
圭組 爲東方盛族.  
又三傳而有諱連源 領議政 諡  
忠惠 配享 明廟 生諱綱 領敦  
寧 明宗國舅 靑陵府院君 諡  
翼孝 生諱仁謙 郡守 贈左承  
旨 以仲氏靑陽君諱義謙 第二  
子諱淹爲后 縣監 贈領議政

1) 망부(亡夫)나 바깥 조상에 대한 존칭. 2) 돌이간 조상이나 높은 어른의 이름. 3) 사람의 본이름 외에 부르는 이름. 흔히 장가든 뒤에 성인(成人)으로서 본이름 대신으로 부름. 4) ?~1418(?~태종 18) 조선 초기 문신. 자는 중옥(仲玉). 본관은 청송(靑松). 세종의 장인이다. 고려 말 11세에 진사가 되고 문과에 급제하였다. 1392년 조선개국 후 병조·공조의 의랑(議郎)을 거쳐 정종 때 대호군(大護軍), 1404년(태종 4) 상호군 겸 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 1407년 좌부대인(左副代言)·좌군동지총제(左軍同知總制), 1414년 형조·호조판서, 판한성부윤(判漢城府尹)·좌군도총제(左軍都總制)·이조판서 등을 지냈다. 1418년 세종이 즉위하자 영의정이 되었다. 시호는 안효(安孝). 5) 국왕의 장인. 왕후(王后)의 아버지. 6) 벼슬한 사람이나 관직에 있던 선비들이 죽은 뒤에 그 행적에 따라 임금으로부터 받은 이름. 7) 국사(國史). 8) 벼슬자리에 있는 것. 9) 1491~1558(성종 22~명종 13) 조선 중기 문신. 자는 맹용(孟容), 호는 보암(保庵). 본관은 청송(靑松). 1522년(중종 17)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 승문원권지정자(承文院權知正字)를 거쳐 김열·대교·봉교 등을 지냈다. 1531년에는 검상·사복시부정(司僕寺副正)을 거쳐 1537년 동부승지가 되고, 2년 뒤 예조참판으로서 진향사(進香使)가 되어 명(明)나라에 다녀와 병조참의·대사간을 지냈다. 1541년 대사성, 이듬해 특진관·형조참판, 1545년(명종 즉위년) 호조판서로 지경연사(知經筵事)를 겸임하였다. 같은 해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로 《인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고, 1551년 영의정이 되었다. 시호는 충혜(忠惠). 10) 명종(明宗)의 사당(祠堂). 11) 종묘에 공신(功臣)을 부제(附祭)함. 12) 1514~1567(중종 9~명종 22) 조선 중기 문신. 자는 백유(伯柔). 본관은 청송(靑松). 독서를 즐겨 20세도 못되어 경서(經書)를 모두 외웠다. 명종이 대군으로 있을 때 왕이 그의 큰딸을 대군의 배필로 삼아 혼례를 치렀는데, 명종이 즉위하자 영돈녕부사에 임명되고 왕의 장인으로서 청릉부원군(靑陵府院君)에 봉해졌다. 앞서 1543년(중종 38) 진사에 합격하였고 1548년(명종 3) 오위도총관(五衛都總管), 1558년 영돈녕부사 겸 도총관을 지냈다. 1563년에 신진 사류(士類)인 박순(朴淳) 등이 화를 당하려던 것을 구하고, 권신 이양(李樛)을 제거하여 청송을 받았다. 시호는 익효(翼孝).



이분이 휘(諱) 광세(光世)를 낳으니 의정부 사인(舍人)을 지냈으며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증직되었으나 혼탁한 조정(朝廷)을 만나서 사화(士禍)에 걸렸다. 이분이 휘(諱) 은(穩)을 낳으니 진사(進士)로써 이조참판(吏曹參判)을 증직 받았다. 참판(參判)이 휘(諱) 약명(若溟)을 낳으니 감찰(監察)을 지냈으며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증직 받았으니 이분이 부군(府君)의 고조(高祖)이다.

증조(曾祖)의 휘(諱)는 속(涑)이니 영의정(領議政)을 증직 받고, 조(祖)의 휘(諱)는 태현(泰賢)이니 홍문관(弘文館) 교리(校理)를 지내고 좌찬성(左贊成)에 증직되었다. 고(考)의 휘(諱)는 진(鎭)이니 영의정(領議政)에 증직 받았으며 문풍(文風)이 우아하고 박식(博識)하여 사류(士流)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비(妣)는 거창신씨(居昌愼氏)로써 정경부인(貞敬夫人)을 증직 받으니 사간원(司諫院) 휘(諱) 무일(無逸)의 여식(女息)이다. 이에 부군(府君)은 그의 장자(長子)이다.

영종(英宗) 경술(庚戌, 1730) 9월 29일에 저동(苧洞) 외씨(外氏)<sup>13)</sup>의 집에서 출생하였다. 부군(府君)은 초흔(髻鬣)<sup>14)</sup> 때부터 용모가 준역(儻嶷)하고 간중(簡重)하여 말수와 웃음이 적었다. 이에 모부인(母夫人)이 항상 말하기를 「언젠가 심씨(沈氏)의 가문(家門)을 크게 이룰 사람은 반드시 이 아이라」고 하였다. 조금 자랐을 적엔 학문에 뜻을 두어 장옥(場屋)에 나가서는 그 성명(聲名)을 크게 떨치었다.

임오(壬午, 1762)년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곧바로 의금부(義禁府) 도사(都事)에 임명되고, 계미(癸未, 1763)년에 제용감(濟用監) 봉사(奉事)로 옮겼다. 갑신(甲申, 1764)년에 사옹원(司饔院) 직장(直長)에 승차(陞差)<sup>15)</sup>하였다가 병으로 체귀(遞歸)하였다.

정해(丁亥, 1767)년에 다시 의금부(義禁府) 도사(都事)에 재차로 서복(敍復)<sup>16)</sup>되었다가 기축(己丑, 1769)년에 북부(北部)<sup>17)</sup> 봉사(奉事)로 옮겼으나 미세한 일로 상관(上官)을 거슬리어 곧바로 벼슬을 버리고 떠났었다.

生諱光世 議政府舍人 贈吏  
朝參判 值昏朝罹士禍 生諱穩  
進士 贈吏曹參判 生諱若溟  
監察 贈吏曹判書 寔府君高祖  
也

曾祖諱涑 贈領議政 祖諱泰  
賢 弘文館副校理 贈左贊成  
考諱鎭 贈領議政 文雅博識  
見重士流 妣居昌愼氏 贈貞  
敬夫人 大司諫諱無逸之女 府  
君 其長子也

以 英宗庚戌 九月二十九日  
生于苧洞外氏第 自在髻鬣 客  
貌儻嶷簡重 寡言笑 母夫人  
常曰他日 大沈氏門者 必此兒  
也 稍長刻意爲學 出游場屋  
聲名大振 壬午中司馬 卽拜義  
禁付都事 癸未換濟用監奉事  
甲申陞司饔院直長 尋病遞 丁  
亥再敍義禁府都事 己丑移北  
部奉事 以微事忤上官 卽棄官  
去

13) 어머니의 친정.

14) 다박머리에 이를 갈 시기의 어린아이 7~8세 정도의 어린애.

15) 벼슬을 높이어 임명하는 것.

16) 사직(辭職) 또는 죄를 지어 면관(免官)·파직(罷職)되었던 사람을 사용하여 복직시킴.

17) 서울의 행정 구역인 오부(五部)의 하나.

신묘(辛卯, 1771)년 봄에 익위사부(翊衛司副)의 자격으로 정시문과(庭試文科)에 뽑혔다. 처음 벼슬에 나아가서 10년이 되도록 6품직에 오르지 못하여 대신(大臣)들이 연달(筵達)<sup>18</sup>하여 특별히 예조좌랑(禮曹佐郎)을 제수하고 가을에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을 임명받았다.

영상(領相) 김치인(金致仁)<sup>19</sup>이 척신(戚臣)<sup>20</sup>을 논척(論斥)하니 대신이 반청(反請)하여 치인(致仁)을 극률(極律)<sup>21</sup>로 다스리는데 부군(府君)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갑산(甲山)<sup>22</sup>에 50여 일간 귀양살이를 하다가 풀려났다.

임진(壬辰, 1772)년 봄에 은산현감(殷山縣監)으로 나갔다가 겨울에 도당(都堂)에 뽑혀 들어와서 홍문관(弘文館) 수찬(修撰)이 되었다. 계사(癸巳, 1773)년 봄에 부교리(副校理)를 임명받고, 여름에 부수찬(副修撰)에 복직될 때에 이광좌(李光佐)<sup>23</sup>등 세 흥관(兪官)의 복직도 명하였다.

이에 간신(諫臣)이 항소(抗疏)하여 명을 받들지 않다가 극변(極邊)<sup>24</sup>에 귀양을 가게 되었다. 삼사(三司)<sup>25</sup>는 상지(上旨)<sup>26</sup>를 바라고 무리로 일어나서 평격(抨擊)<sup>27</sup>하여 가율(加律)<sup>28</sup>의 장계(狀啓)를 올리려고 하였다. 이에 부군(府君)은 다시 왕의 부름을 어기고 입이(立異)<sup>29</sup>의 뜻을 보였다. 그 때문에 왕께서 진노하여 진도군(珍島郡)에 충군(充軍)으로 명하고 그로 하여금 당심(黨心)을 씻게 하더니 이해에 유환(有還)<sup>30</sup>하였다.

辛卯春 以翊衛司副 率擢庭試文科 蓋自始任 至是十年 而不得調六品職 大臣筵達 特授禮曹佐郎 秋拜司諫院正言 領相金致仁 論斥戚臣 臺臣反請 施致仁極律 府君不與焉 以是謫甲山五十餘日而有 壬辰春 出爲殷山縣監 冬選入都堂 錄爲弘文館修撰 癸巳春 拜副校理 夏復副修撰時 命復光佐等三兪官 諫臣抗疏 不奉命竄極邊 三司希 上旨 仍群起抨擊 將爲加律之啓 府君再違 召 以示立異 上怒命充軍珍島郡 使洗滌黨心 是年有還

18) 신하가 연석에서 임금에게 여쭙어 아뢰.

19) 1716~1790(숙종 42~정조 14) 조선 후기 문신. 자는 공서(公恕), 호는 고정(古亭), 시호는 헌숙(憲肅). 본관은 청풍(淸風). 1748년(영조 24)에 춘당대문과(春塘臺文科)에 장원하여 좌승지(左承旨)·부제학(副提學), 이조·병조의 요직을 거쳐, 1765년(영조 41) 우의정, 이듬해 좌의정에 올랐다. 1766년부터 수차 영의정을 지냈으나 당파를 조성한 죄로, 1772년(영조 48) 직산현(稷山縣)으로 유배되었다가 반년 만에 풀려나왔다. 1776년 정조가 즉위하자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기용되고, 고부겸청승습주청사(告訃兼請承襲奏請使)로서 청(淸)나라에 다녀왔다. 그 뒤 봉조하(奉朝賀)가 되어 《명의록(明義錄)》 편찬을 주관하고, 1785년(정조 9) 《대전통편(大典通編)》 편찬을 총괄하였다. 이듬해 다시 영의정으로 기용되고 정조의 명으로 당쟁(黨爭) 조정에 힘썼으며,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를 역임하였다.

20) 임금과 인척관계에 있는 신하. 21) 정해진 형률(刑律)에서 가장 무겁게 내리는 형벌.

22) 함경남도 갑산군(甲山郡)의 군청 소재지. 개마고원(蓋馬高原)의 중심부로 교통이 불편하며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지방 특유의 풍토병(風土病)이 있음.

23) 1674~1740(현종 15~영조 16) 조선 후기 문신. 자는 상보(尙輔), 호는 운곡(雲谷). 본관은 경주(慶州). 1694년(숙종 20)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 1697년 부수찬이 되었다. 그 뒤 사헌부헌납·전라도관찰사 등을 거쳐 이조참의·함경도관찰사 등을 지냈다. 1715년 동지사로 청(淸)나라에 다녀왔고, 이듬해 숙종이 소론을 배척하여 윤선거(尹宣擧)의 문집을 훼손(毀板)하자 이를 반대하다가 파직되었다. 1721년(경종 1) 사직(司直)에 있으면서 연잉군(뒤의 영조)의 대리청정을 반대, 경종으로 하여금 이를 취소하게 하였다. 1721~1722년에 걸쳐 일어난 신임사화로 노론이 실각하고 소론이 집권하자 예조판서를 거쳐 평안도관찰사가 되었다. 1725년(영조 1) 영의정이 되었으나 노론의 등장으로 파직되었다가 1727년(영조 3) 정미환국으로 다시 영의정에 올랐고, 실록청총재관이 되어 《숙종실록》·《경종실록》 보유편의 편찬을 담당하였다. 1730년 영조에게 탕평책을 건의하였고, 왕의 부탁으로 노론 민진원(閔鎭遠)과 제휴하고 노·소론 연립정권을 수립하였다. 1740년 영의정에 있을 때 박동준(朴東俊) 등의 탄핵이 있자 울분 끝에 단식하다가 죽었다. 1755년 나주괘서사건(羅州卦書事件)으로 관직이 추삭(追削)되었다.

24) 국경 부근의 변방. 25) 조선 시대에는 사헌부(고려의 어사대 계승), 사간원(고려의 낭사를 독립시켜 만든 기관), 홍문관을 합쳐 3사(三司)라 하여, 이들 기관에 언관(言官)의 기능을 부여하였다.

26) 임금이 특정 사안에 대하여 내린 지시 또는 명령. 27) 탄핵(彈劾)함.

28) 형벌(刑罰)의 등급을 형률에서 정한 것보다 더 올려서 내리는 판결.

29) 타인(他人)에 대하여 다른 태도를 보임. 30) 유형(流刑)에 처하여 유배(流配) 간 죄인이 용서를 받고 돌아오는 것.

갑오(甲午,1774)년에 모부인(母夫人)<sup>31)</sup>의 상(喪)을 당하여 병신(丙申,1776)에 3년 상복을 마쳤다. 이어서 부수찬(副修撰)을 제수(除授)받으니 곧 정조의 초복(初服)<sup>32)</sup>이 되는 해였다.

정유(丁酉,1777)년에 평안남도(平安南道) 경시관(京試官)이 되어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그 해 여름에 임피현령(臨陂縣令)을 임명받았다. 무술(戊戌,1778)년에 부수찬(副修撰)으로 되돌아왔다.

기해(己亥,1779)년에 실록편수관(實錄編修官)·동학교수(東學教授)를 겸직하고, 다시 관서경시관(關西京試官)이 되었으나 병으로 체천(遞遷)<sup>33)</sup>하여 곧바로 부교리(副校理)로 복직되었다.

그때에 적신(賊臣) 홍국영(洪國榮)<sup>34)</sup>이 종실(宗室)에 상계군(常溪君) 담(湛)을 끼고 완풍군(完豐君)이라 일컫고 남몰래 국본(國本)을 바꾸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 무렵에 부군(府君)과 더불어 강연(講筵)<sup>35)</sup>에 함께 올라갔는데 홍국영이 송나라 고종(高宗)이 자선당(資善堂)을 미리 세운 일을 극찬하면서 예부터 우리 제왕(帝王)의 처소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에 부군(府君)이 아뢰기를 「송나라 고종은 아버이를 잊고 원수를 섬기어 윤강(倫綱)에 죄를 얻었으니 비록 다른 착함이 있더라도 족히 도리(道理)라고 일컬을 수 없다」고 하였다. 홍국영이 기꺼워하지 않아서 강연(講筵)이 파하고 그 뒤에 홍국영은 제거되었다.

왕께서 언제나 이 일을 거론하면서 칭찬을 그치지 않았다. 이에 부군(府君)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저 때에 강설(講說)이 다만 우연하게도 왕에게 알려진 것이다. 실지로는 이에 연유한 일생의 만남은 진실로 헤아리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31) 대부인(大夫人). 남의 어머니의 경칭(敬稱). 32) 임금이 처음으로 정치를 잡고 교화(教化)를 베풀. 33) 벼슬자리를 바꾸어 옮김.

34) 1748~1781(영조 24~정조 5) 조선 후기 문신. 자는 덕로(德老). 본관은 풍산(豊山). 1771년(영조 48)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부정자(承文院副正字)·설서(說書)를 지냈다. 영조 말년 벽파(僻派)의 횡포에 세손(世孫; 정조)을 보호한 공로로 영조와 세손의 신임을 얻었다. 1776년 홍인한(洪麟漢)·홍상간(洪相簡) 등이 세손을 모해하려는 사건을 적발, 이들을 사형시켰다. 그해 정조가 즉위하자 동부승지가 되고, 숙위소(宿衛所)를 창설하여 숙위대장을 겸직하며 도승지에 올라 국왕의 신변보호를 전담하였다. 그 뒤 1780년(정조 4) 관직에서 쫓겨날 때까지 도승지 겸 이조참의·대제학·이조참판·대사헌 등을 지냈다. 정조의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이른바 <세도정치>를 낳게 하였으며, 1778년 누이동생을 정조의 후궁으로 들여 원빈(元嬪)으로 삼았으나, 후사 없이 죽자 정조의 동생 은언군(恩彦君) 인의 아들 담(湛)을 원빈의 양자로 들여 왕실의 후계자로 삼으려 하다가 실패하였다. 1780년 순정왕후(純貞王后)가 원빈을 독살하였다고 여겨 왕비의 음식에 독약을 넣다가 발각, 집권 4년 만에 가산을 몰수당하고 고향으로 쫓겨나 이듬해 병으로 죽었다.

35) 임금이나 왕세자 등이 경학(經學)에 밝은 신하들과 함께 경전(經典)을 읽고 토론하여 수학(修學)하는 것. 혹은 그러한 자리를 말함.

동래(東萊) 접위관(接慰官)<sup>36</sup>으로 차출(差出)되었다가 돌아와서 전부사(前府使) 이성모(李聖模)가 아사(阿私)<sup>37</sup>함을 논죄하여 내쳤다. 그리고 유읍(腴邑)<sup>38</sup>의 전관(銓官)<sup>39</sup>을 추천하였는데 대부분이 서명응(徐命膺)을 지명하였다.

명응(命膺)의 아우 명선(命善)은 을미(乙未, 1775)년 대리(代理)할 때<sup>40</sup>에 적신(賊臣) 홍인한(洪麟漢)의 죄를 먼저 고발하여 왕의 보살핌을 입고 발탁되어 상직(相職)<sup>41</sup>에 있었다. 왕께서는 부군(府君)이 그의 집에 핍찰(逼拶)<sup>42</sup>한다는 이유로 체직(遞職)을 명한지 3개월이 지나서 또 엄교(嚴敎)<sup>43</sup>로 삭직(削職)을 특명(特命)하였다.

부군(府君)은 이로부터 문을 닫고 병을 요양하면서 세상 일에 간여하지 않더니 그 이듬해에 집을 거두어 용인(龍仁) 정자평(亭子坪)에 귀착하였다. 집이 본래 가난하여 거처하는 곳은 겨우 비바람을 가리고 추려(麤糲)<sup>44</sup>마저 항상 잊지 못하여도 느긋하게 개의치 않았다.

꽃나물을 심고 채과(菜瓜)를 과종하면서 그 헌함(軒檻)<sup>45</sup>에 만포(晩圃)라는 편액(扁額)을 걸고 술을 잔질하면서 시(詩)를 읊었다. 이와 같이 늙어가건만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정성은 진퇴(進退)에 차이가 없었다.

갑진(甲辰, 1784)년 가을에 이르러 문효세자(文孝世子) 정위(定位)시에 동궁(東宮)<sup>46</sup>이 먼저 절을 하였다. 이에 시강원겸문학(侍講院兼文學)이 상소(上疏)하여 말하기를,

신(臣)이 진실로 노둔한 성품으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스스로 지킨 것은 반드시 의리를 밝혀 우리 군왕을 섬겼으며, 또한 충성스러움과 간사함을 분간하여 우리 군왕을 섬겼습니다. 가장 미워하는 것은 이록(利祿)에 유혹되어 국가를 저버리거나 위세(威勢)에 출척(怵惕)<sup>47</sup>되어서 국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差東萊接慰官還 論前府使李聖模罪 仍斥阿私聖模 擬除腴邑之銓官 蓋指徐命膺也 命膺弟命善 以乙未 代理時 首發賊臣洪麟漢罪 蒙 上眷 擢在相職 上以府君逼拶其家 命遞職越三月 又嚴敎特命削職 府君自是杜門養疴 不與世事 翌年撤家 歸龍仁亭子坪 家素貧 所居厓筵風雨 麤糲常不繼 夷然不以爲意 蒔花木種菜瓜 扁其軒曰晩圃 酌酒賦詩 若將終老 而愛君憂國之誠 不以進退有間也

至甲辰秋 文孝世子定位 東宮首拜 侍講院兼文學 上疏曰 臣 固篤姿不學 然其平居 自守者 必以明義理 而事吾君也 必以辨忠邪 而事吾君也 所深惡者 爲利祿所誘 而負國家也 爲威勢所怵 而負國家也

36) 일본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조선에서 파견한 관원.

37)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호의를 보이는 일.

38) 부유한 고을. 곧 요직의 관아를 뜻함.

39) 조선시대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의 관원을 이르던 말. 문관과 무관의 인사행정을 맡아보던 이조·병조를 전랑(銓郎)라 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특히 이조의 정랑(正郎: 정5품)·좌랑(佐郎: 정6품)은 전랑(銓郎)이라 하여 내외 관원을 천거·전형(銓衡)하였다. 장관인 판서도 관여하지 못하는 특유의 권한이 부여된 관직으로, 재상으로 이르는 관로(官路)였다.

40) 대리청정(代理聽政)의 준말. 여기서는 정조가 왕세손일 때 영조의 대리로 정사를 맡은 사실을 말한다.

41) 군주를 보좌하여 정치를 운영하는 최고 관료인 삼상(三相)을 일컫는 말.

42) 바짝 가까이 다가붙음. 43) 임금을 엄격한 교지.

44) 하얗게 썬지 않은 쌀. 애벌 찼은 거친 쌀. 45) 누각에 대청 기둥 밖으로 돌아가며 놓은 좁은 마루.

46) 왕세자(王世子) 또는 황태자(皇太子)가 기거하는 건물로 전하여 왕세자나 황태자를 가리키는 말로 쓰임.

47)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모양.

간자(間者)<sup>48)</sup>는 한 소장(疏狀)으로 덕(德)을 세우고 원수를 갚고자 하여 계획을 세우지만 이것은 천하(殿下)의 천지대인(天地大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근본을 어찌 밝게 알아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의 구분을 엄격하게 보이겠습니까.

이 먼저 척신(戚臣) 홍봉한(洪鳳漢)<sup>49)</sup>은 영종(英宗) 중년(中年)으로부터 용사(用事)<sup>50)</sup>를 전천(顯擅)<sup>51)</sup>하여 못 사람의 마음에 거부하고 싫어함이 쌓여갔다. 장헌세자(莊獻世子)는 그의 사람됨을 매우 미워하여 일찍이 마음속의 사색(辭色)<sup>52)</sup>을 속이지 못하였다. 이에 봉한(鳳漢)이 속으로 의구심을 품고 언제나 편안하지 않았다.

급기야 임오(壬午, 1762)년 5월에 (사도세자 사건을) 당하여 여는 조금도 애통해하는 뜻도 없이 앞장서 나서 담당하여 즐거운 곳을 달리는 듯 하였다. 이로 인하여 기세가 더욱더 펼쳐지고 작위작복(作威作福)<sup>53)</sup>은 오직 그가 하고자하는 것이었다.

또한 현사(賢士)·대부(大夫)들이 그 훗날을 의논할 것을 두려워하여 오직 유약하여 쉽게 제압할 수 있는 무리들을 취택하여 스스로 감쌌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기절(氣節)의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른 모두 물리쳐서 한마디의 기개(氣概)도 이때에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따라서 나라의 형세가 고약(孤弱)하여 위태롭다고 말할 수 있었다. 급급(岌岌)<sup>54)</sup>하다. 일종의 청론(淸論)이 돌로 죽순(竹筍)이 돌아나는 것을 누르듯 해주기를 어찌 바라지 않겠는가. 이에 박치룡(朴致隆)이 대신(臺臣) 자격으로 그 죄를 선두에서 공박(攻駁)하였으나 온 세상이 놀라고 서로 돌아보면서 감히 그를 잇는 사람이 없었다.

間者以一疏 欲試爲建德報仇之計 而非 殿下天地之大仁 則寧復洞知其根本 嚴示好惡之辨乎

先是 戚臣洪鳳漢 自 英宗中年 顯擅用事 積不厭衆心 莊獻世子 深惡其爲人 未嘗以肺腑假辭色 鳳漢 內懷疑懼 恒不自安 及當壬午五月 少無哀痛惻怛之意 而挺身擔當 如驚樂地 因而氣勢益張 作威作福 惟其所欲 又恐賢士大夫之議其後也 惟取軟熟易制之徒 以自羽翼 若有稍以氣節自負者 則輒皆斥而遠之 使不得出一口氣于斯時也

國勢之孤弱 可謂殆哉 岌岌乎何幸一種淸論 如石壓筍出 朴公致隆 以臺臣 首攻其罪 舉世錯愕相顧 莫敢有繼之者

48) 적중에 잠입하여 적의 내정(內情)과 상태를 탐지(探知)하는 사람.

49) 1713~1778(숙종 39~정조 2) 조선 후기 문신. 자는 익여(翼汝), 호는 익익재(翼翼齋). 본관은 풍산(豊山).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장이다. 1735년(영조 11) 생원시에 급제하고, 음보(陰補)로 참봉을 지냈다. 1743년 세자의 장인이 된 뒤 문과에 급제, 사관(史官)이 되었다. 다시 광주부윤·어영대장·예조참판·평안도관찰사 등을 지낸 뒤 1761년 우의정·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올랐다. 세자 문제로 파직되었다가 1768년 다시 영의정이 되었다. 왕실의 외척으로, 당시 영조 계비 정순왕후(貞純王后) 집안의 김귀주(金龜柱)와 세력다툼을 벌이며 대립하였다. 1762년 세자가 폐서인(廢庶人)이 되고 죽음을 당할 때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영조가 세자에게 사도라는 시호를 내리자 태도를 바꾸어, 그 사건을 초래한 김귀주 일당을 탄핵하여 정권을 장악하고,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기록한 《수의편(垂義篇)》을 지어 반대파에 대한 탄압에 이용하였다. 한편 영조를 도와 당쟁의 폐단 시정과 인재 발탁 등을 위한 시무6조(時務六條)를 건의하였으며 군포·환곡 등의 작폐를 금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저서에는 《정사회감(正史彙鑑)》·《익익재만록(翼翼齋漫錄)》 등이 있다. 시호는 익정(翼靖).

50) 용권(用權). 권세를 씀. 51) 전권을 가지고 결정함. 52) 언사(言辭)와 안색(顔色).

53) 벌주고 상주는 것을 오로지 전담하여 권세를 남을 업신여김을 뜻함.

54) 위험한 모양. 안정되지 않는 모양.

그러나 윤급(尹汲)과 남유용(南有容)이 한 때의 명사(名士)인 이득배(李得培)·조돈(趙墩)·송재경(宋載經)·심이지(沈履之)·김상묵(金尙默)·윤시동(尹蓍東)·유언호(俞彦鎬)·김익(金煜)·김광묵(金光默)·민종현(閔鍾顯)과 더불어 이유수(李惟秀)의 원정(園亭)에서 회음(會飲)하였다. 이에 주연(酒宴)이 한창 벌어질 무렵 일을 의논하고 강개(慷慨)하여 한숨짓되 오직 흥봉한을 공박(攻駁)키로 제일의 의체(義諦)<sup>55)</sup>로 삼았다.

이 무렵 부군(府君)은 음산(蔭散)<sup>56)</sup>으로 있는 공보(公輔)<sup>57)</sup>로서 스스로 기약하여 종묘와 국가를 위하는 일념으로 충현(忠賢)을 진출시키고 영사(佞邪)<sup>58)</sup>를 퇴출시키는 것으로 급선무로 삼았다. 이 때문에 사우(士友)들은 은밀하게 부군을 높이 받들었으나 시류배들은 호시탐탐 노려보았다.

이에 흥봉한은 사론(士論)이 용납되지 않을 것을 스스로 알고 무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임오(壬午, 1762)년의 일<sup>59)</sup>을 가지고 나를 공박(攻駁)하니 이것은 대조(大朝)<sup>60)</sup>를 촉범(觸犯)하는 것이다. 또한 나는 우리 동궁(東宮)<sup>61)</sup>의 외가(外家)이니 외가가 불안하면 동궁이 불안한 것이다. 이것으로 한 세대(世代)의 자질을 검제(箝制)<sup>62)</sup>한다.

다행하게 우리 정종(正宗)은 하늘이 낳은 예철(睿哲)로서의(義)를 다스리고 간사함을 흰히 알아내어 아주 미묘한 것도 통찰하였다. 따라서 봉한(鳳漢)이 품은 속내를 함부로 펴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봉한은 사적으로 임금을 뵈릴 때에 다른 날에 추송(追崇)<sup>63)</sup>의 말을 하였으나 먹혀들어가지 않았다. 따라서 경계함을 의심하고 꺾박함을 시기하기가 날로 심해갔다.

尹公汲 南公有客 與一時名士  
李公得培 趙公墩 宋公載經  
沈公履之 金公尙默 金公鍾秀  
尹公蓍東 俞公彦鎬 金公煜  
金公光默 閔公鍾顯 會飲于李  
公惟秀園亭 酒酣論事 慷慨歔  
歔 惟以攻洪 爲第一義諦 府  
君自在蔭散公輔 自期爲宗國  
一念 每以進忠賢退佞邪 爲急  
先務 以是士友 隱然推重 而  
時輩 已耿耿側目矣  
鳳漢 自知爲士論 所不客 倡  
言於衆 曰以壬午事攻我 是觸  
犯 夫朝也 且我 東宮外家也  
外家不安 東宮不安 以是箝制  
一世之資 幸賴我 正宗 天縱  
睿哲 剖義燭奸 洞徹深微 使  
不得肆其胸臆 於是鳳乘私覲  
時 發他日追崇之說 而又不得  
售 則疑阻猜偏 日以益甚

55) 사물의 근본 의의(意義) 또는 이유.

56) 벼슬을 그만두고 자유롭게 산책함. 또는 그러한 사람.

57) 임금을 보좌하는 신하인 삼공(三公)과 사보(四輔).

58) 간사하고 마음이 바르지 못함.

59) 1762년(임오년)에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사건을 말함.

60) 왕세자가 섭정하고 있을 때의 임금을 이르는 말. 여기서는 영조를 지칭함.

61) 왕세자(王世子) 또는 황태자(皇太子)가 기거하는 건물로 전하여 왕세자나 황태자를 가리키는 말로 쓰임. 여기서는 정조를 지칭함.

62) 세력을 가지고 꺾박하여 남을 제압시킴.

63) 임금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죽은 이에게 칭호를 올리던 일.

그의 아우 홍인한(洪麟漢)에 있어서도 대청(代聽)<sup>64</sup>을 방해하고 우롱한 전후 사정이 날날이 탄로 났다. 여기에 정이환(鄭履煥)이 노장(露章)<sup>65</sup>하여 칠 것을 청하였으나 왕께서는 그 처지를 분별하여 차마 법으로 단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권력을 흠치어 반석처럼 다진 것이 매우 견고하였지만 하루아침에 세력을 잃었다. 이에 봉한은 원한이 골수에 사무쳐 밤낮으로 궁리하기를 착한 무리를 해치고 대안(大案)을 뒤집기를 도모하여 은연(猥然)<sup>66</sup>히 마지않았다.

김귀주(金龜柱)<sup>67</sup>는 정순왕후(貞純王后)의 오빠이다. 스스로 가세(家世)가 한소(寒素)<sup>68</sup>하기 때문에 척완(戚畹)<sup>69</sup>으로서 부끄럽게 여기고 명색이 현사(賢士)·대부(大夫)를 따라서 놀기를 좋아하였다. 또한 그가 과거에 홍봉한이 사적으로 임금을 부추긴 사실을 들추어내어 상소했던 일 때문에 사류(士類)들은 그의 훌륭한 점을 가상하게 여겼지만 형적(形跡)으로 구애받지 않았다.

이에 조정(朝廷) 선비들은 청탁사정(淸濁邪正)으로 각각 그 세력에 따랐지만 형연(迥然)<sup>70</sup>히 어울리지 않은 자가 있었으니 이른바 심낙수(沈樂洙)<sup>71</sup>였다. 그는 약간의 문명(文名)이 있어 과거(科擧)에 올라 제공(諸公)들과 어울렸는데 자못 언의(言議)로써 일처리를 하고 부군(府君)에게 스스로 자랑하면서 매우 친하게 다가왔다.

이에 부군(府君)은 그 동종(同宗)·동지(同志)들에게 이르기, 「그는 홍국영(洪國榮)을 꺼꾸러뜨릴 불씨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심낙수는 부려(附麗)<sup>72</sup>가 월등하고 행하고 그침의 태도가 지난날과 완전히 달랐다. 부군(府君)은 크게 개의치 않았는데 그의 행동이 큰 탈은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견제하면서도 관계를 끊지는 않았다.

至於其弟麟漢 又沮戲 代聽 前後情迹 節次綻露矣 鄭公履煥 露章請討 上以其地處自別 不忍斷之以法 然其屢年竊柄 盤結甚牢 一朝失勢 怒毒次骨 日夜綢繆 圖所以戕善類而翻大案者 猥然未已也 金公龜柱 貞純王后兄也 自以家世寒素 耻以戚畹 名喜從賢士大夫遊 又嘗上疏 發鳳漢私覲說話 士類嘉其向善 不以形跡爲拘 於是朝士中 淸濁邪正 各以類從其勢 有迥然不相入者 所謂次樂洙者 少有文名 始登科游諸公間 頗以言議操執 自詡於府君 亦甚親就 府君謂其同宗同志 爲之傾倒國榮之方熾也 樂洙附麗超躡 行止意態 頓異前日 府君心甚不概 而以其無大故 猶羈縻不絕也

64) 대리청정(代理聽政)의 준말. 여기서는 왕세손 정조가 영조의 집무를 대리청정한 일을 말함. 65) 사실을 들추어내어 탄핵함. 66) 개가 짚는 모양. 67) 1740~1786(영조 16~정조 10) 조선 후기 문신. 본관은 경주(慶州). 여동생이 영조의 계비(繼妃)가 된 것을 계기로 벼슬에 올랐다. 1763년 증광문과에 급제, 홍문관부교리가 된 뒤 여러 청환직을 거쳐 1767년 강원도관찰사·좌승지 등을 지냈다. 1762년(영조 38) 당시 왕세자였던 사도세자를 탄핵하여 죽게 하였는데 이를 둘러싸고 사도세자를 동정하던 시파(時派)와 사도세자를 공격하고 영조를 두둔하던 벽파(僻派)가 생기게 되었다. 벽파는 주로 노론 계통으로서 김귀주를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했다. 1772년 공조참판으로 있을 때, 청명류(淸名流)라는 정치적 결사가 발각되었는데, 이 일을 시파의 영수격인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의 탓으로 돌려 그를 관직에서 물러나게 했다. 그러나 1776년 정조가 즉위하면서 역적으로 지목, 흑산도에 유배되었다. 68) 가난하고 쓸쓸함. 69) 척리(戚里). 장안(長安)에 있던 동네 이름. 한대(漢代)에 임금의 내척(內戚)과 외척(外戚)이 살고 있던 곳. 전하여 외척을 뜻함. 70) 자질구레한 곳에 얽매이지 않고 포부가 원대함. 71) 1739~1799(영조 15~정조 23) 조선 후기 문신. 자는 경문(景文), 호는 일환재(一丸齋)·은파(恩坡). 본관은 청송(靑松). 1775년(영조 51) 문과신구제추진시(文科新舊製追駁試)에서 장원급제하여 성균관전적을 지냈다. 1779년(정조 3) 홍문관(弘文館)에 등용되고 이듬해 안핵어사가 되었으며, 정언(正言)을 거쳐 교리(校理)로 재직중 홍국영(洪國榮) 등을 김귀주(金龜柱)의 당여(黨與)로 공격하여 삭직되었다. 1781년(정조 5) 부수찬(副修撰)·고부재자관(告訃齋咨官)을 지내고 1787년 수찬으로 있을 때 김귀주를 탄핵하다가 홍양현(興陽縣)에 유배되었다. 1795년 이후 관직에서 물러나 심환지(沈煥之)·김종수(金鍾秀) 등을 공격하다가 신유사옥 때 관직이 추탈되었고, 6년 뒤 신원되었다. 지은책으로 《은파산고(恩坡散稿)》가 있다. 72) 당을 지어 다가붙음.

심낙수가 밤을 이용하여 삼청우사(三清寓舍)에 부군(府君)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봉조하(奉朝賀)는 장차 크게 건립(建立)하는 참 충신(忠臣)입니다。」고 하였다. 이에 부군(府君)이 깜짝 놀라면서 말하기를 「무슨 일입니까?」라고 하였다.

심낙수가 말하기를, 「나라에 저부(儲副)<sup>73</sup>가 없으니 종사(宗社)<sup>74</sup>가 외롭고 위태롭습니다。」라고 하더니 곧 완풍군(完豐君)<sup>75</sup> 의의사(擬議事)를 언급하였다. 부군(府君)이 정색(正色)하고 말하기를, 「그대는 이윤(伊尹)의 뜻<sup>76</sup>이 있다면 옳거니와 이윤의 뜻이 없으면 옳지 않다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까? 그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난역(亂逆)이거늘 무슨 충성이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심낙수는 안색이 질리어 떠나 간지 얼마 되지 않아 역적 홍국영이 패하였다. 인하여 낙수는 부군(府君)이 그 말을 누설 할 까 두려워하여 스스로 의기심(疑忌心)을 품고 드디어 소격(疎隔)<sup>77</sup>을 이루어 홍씨(洪氏)의 여당(餘黨)과 몰래 결탁하여 착한 무리들을 제함(擠陷)<sup>78</sup>키로 도모하였다.

마침 김귀주(金龜柱)가 득죄(得罪)하므로 이 기회를 탈 수 있다고 하였다. 신축(辛丑 1781)년 가을에 심낙수가 수찬(修撰)자격으로 올리는 소언(疏言)에 아뢰기를,

세도(世道)가 와렬(瓦裂)<sup>79</sup>한 것은 김귀주가 사류(士流)들을 꺾어 자기사람으로 만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리(義理)를 거짓으로 꾸미고 언의(言議)를 부회(傳會)<sup>80</sup>하여 결코 한 세대를 기울여 한 판을 뒤엎고자하는 것은 길가는 사람도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가 유지하는 것과 조정(朝廷)이 공식(矜式)하는 것은 오직 사류(士流)에 힘입는 것입니다.

樂洙 嘗乘夜 訪府君于三清寓舍 曰奉朝賀 將有大建立眞忠臣也 府君 愕曰何事 樂洙言 國無儲副 宗社孤危 仍及完豐擬議事 府君正色 曰君不聞有伊尹之志則可 無伊尹之志則不可乎 爲此說者 亂逆也 何忠之有 樂洙色沮而去 未幾榮賊敗 樂洙恐府君 洩其語 自生疑忌 遂成踈隔 而陰結洪氏餘黨 謀所以擠陷善類 曾金公龜柱得罪 謂此機可乘 辛丑秋 樂洙以修撰疏言

世道瓦裂 自龜柱之招誘士流始也 假飾義理 傳會言議 必欲傾一世 而輸一局者 路人可知其心 國家所以維持 朝廷所以矜式者 惟賴士流

73) 왕세자(王世子)를 일컬음. 여기서는 정조의 뒤를 이을 왕세자가 없음을 말함.

74) 종묘(宗廟)와 사직(社稷). 곧 국가.

75) 조선 정조 때의 왕족. 이름 담(湛), 철종의 조부인 은언군(恩彦君) 아들이다. 1778년(정조 2) 당시의 세도가 홍국영(洪國榮)은 정조에게 세자가 없음을 기회로 자기의 누이동생을 원빈(元嬪)으로 하여 정조를 모시게 했으나 원빈은 소생이 없이 이듬해 병사하였다. 그러나 담은 홍국영에 의하여 원빈의 양자가 되어 완풍군(完豐君)에 책봉되고 다시 상계군으로 개봉(改封)되어 명목상 왕위 계승자가 되었다. 그러나 상계군은 홍국영과 마음이 맞지 않았으며, 홍국영의 조작에 의해 모반죄로 몰리자 자살하였다.

76) 탕왕께서는 현상(賢相) 이윤(伊尹) 등의 도움을 받아 곧 걸왕을 명조(鳴條)에서 격파하여 패사시켰다. 그리고 박(亳)에 도읍하여 국호를 상(商)이라 정하여, 제도와 전례를 정비하고 13년간 재위하였다. 그가 걸왕을 멸한 행위는 유교에서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은나라 주왕(紂王)을 토벌한 일과 함께, 올바른 '혁명'의 군사행동이라 불리고 있다. 따라서 '이윤의 뜻'이란 올바른 혁명을 의미한다.

77) 소원(疎遠)하고 격조(隔阻)함. 78) 악의(惡意)를 가지고 남을 궁지에 빠지게 함.

79) 기와장이 땅에 떨어져서 부서지듯 흩어짐을 말함. 80) 억지로 갖다 붙임.



그러나 이른 바 사류(士流)가 종시(終始) 흉적(凶賊)의 자부(資斧)<sup>81)</sup>가 되고 마니 아마도 이것은 홍당(洪黨)<sup>82)</sup>이 사류(士流)를 원수처럼 본 것이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수와 도덕을 헤아리는데 어쩔 수 없다면 열모(噎媚)<sup>83)</sup>하고 감히 발현(發見)하지 않아야 합니다.

김공(金公)은 척리(戚里)로서 그 의론(議論)에 참여한 죄로써 패망하였습니다. 이윽고 한 부대의 사류(士流)가 거동하여 김공(金公)의 세력권에 돌아갔습니다.

처음에 척리(戚里)가 남을 모함하여 뒤엎키게 하고 명예를 손상하며 그 비방한 것을 분간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난적(亂賊)의 근와(根窩)<sup>84)</sup>를 단속하고 달구어서 그 독(毒)을 풀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련만인(株連蔓引)<sup>85)</sup>으로 역적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불길을 누를 수 있습니다.

한 세대의 사람으로 하여금 감히 또 다시 공홍(攻洪)이란 두 글자를 필설(筆舌)에 나오지 못하게 한다면 도천(滔天)<sup>86)</sup>의 악(惡)을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월(日月)의 밝음과 부월(鈇鉞)의 엄중함도 장차 옹폐(壅蔽)하고 요란하게 끌어서 능히 시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마음에 자리 잡고 생각을 쌓은 것이 일조일석(一朝一夕)이 아니며 심낙수가 부름에 응하여 수극(修隙)<sup>87)</sup>함이 기꺼이 사사(死士)<sup>88)</sup>가 되겠다면 정신은 부군(府君)을 위한 것이다. 왕께서 그 소장(疏章)을 보고 엄비(嚴批)<sup>89)</sup>로 현척(顯斥)<sup>90)</sup>하고 이어서 전교(傳教)를 내려 말하였다.

而所謂士流 終始爲凶賊之資斧而止 蓋洪黨之仇視士流久矣 而揣分度德 無可如何 則噎媚而不敢發見 金公以戚里參其論 而又以罪敗 則遂舉一隊士流 歸之金公圈套 始以戚里傾軋 漫漶汚巖 分其謗 終以亂賊根窩 鉗束鍛鍊 逞其毒俾得以株連蔓引 盡除異己者以至勢燄所壓 使一世之人不敢復以攻洪二字 發諸筆舌 則滔天之惡 可以覆蓋 而雖日月之明 鈇鉞之嚴 亦將有所壅蔽撓掣 而不能施也 其處心積慮 非一朝一夕 而樂誅之應募修隙 甘爲死士 則精神所住 又在於府君也 上覽其疏 嚴批顯斥 繼而下傳教

81) 예리한 도끼. 곧 앞잡이가 되어서 나섬.

82) 홍국영(洪國榮)의 무리를 뜻함.

83) 시기하고 질투하는 뜻을 마음에 삭힘.

84) 근거지로 삼는 소굴.

85)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관련되는 것.

86) 큰물이 하늘까지 뒤덮음.

87) 없는 허물을 꾸며 만들어 불화가 생김.

88) 감히 죽기를 각오한 선비.

89) 상주(上奏)한 내용에 대하여 임금이 내리는 준엄한 비답(批答).

90) 남의 잘못이나 허물을 드러내어 배척함.

조금 전에 소본(疏本)을 보니 전체 글에 나타난 뜻은 먼저 사류(士流)가 흉역(凶逆)의 자부(資斧)에 돌아가고 끝으로는 사류(士流)를 비부(鄙夫)의 윤옹(吮癰)<sup>91</sup>이라고 말하였다. 아! 세도(世道)가 어지럽고 인심(人心)이 무너진 지 그 오래되었다.

지금의 시대를 살펴 보건데 심낙수가 말한 사류(士流)의 남은 자들이 그 조짐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내가 듣건 뒤 나라에 사류(士流)가 있는 것은 사람이 혈맥(血脈)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이것이 없으면 죽게 되고 나라에 이것이 없으면 망할 뿐이다.

아마도 명실(名實)이 서로가 꼭 들어맞는 것은 고사(姑舍)하고 이 사류(士流)란 두 글자가 한 세대에 표방(標榜)되어 속류(俗流)로 본다면 어찌 서로가 반목할 뿐이겠는가. 지금에 사류(士流)들을 일컬어 미워하고 가혹한 형벌로 죽여 멸하기를 도모하니 저 동경(東京) 백마(白馬)<sup>92</sup>의 재앙을 비추어 거울삼지 않겠는가.

가령 참으로 심낙수가 운운한 것과 같이 사류(士流)가 모두 김귀주의 초유(招誘)하는 바가 되어 거짓 꾸며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김귀주의 죄악이 아직 나타나기 전에는 비록 옛 사류(士流)가 그에 머물러 남는다 하더라도 그 선(善)을 향한 마음을 가상하게 여기어 반드시 그를 용납하여 대접할 것이다.

또한 김귀주로 하여금 벽사(辟邪)에 빠지지 않고 능히 초복(初服)<sup>93</sup>을 다하게 한다면 청양(靑陽)·여양(驪陽)을 여유롭게 위할 수 있을 것이다.

曰向見疏本 全篇命意 始以士流 歸之凶逆之資斧 末以士流 謂之鄙夫之吮癰 噫世道之淆悖 人心之滔溺 厥惟久矣 觀於今之時 樂洙所謂士流餘者 不知其幾 然予則聞之 國之有士流 猶人之有血脉 人而無是 則斃 國而無是則亾耳 盖名與實之相符姑舍 是以士流二字 被一世標榜 視俗流 奚啻相反 今夫惡士流之稱 而謀所以剷殄滅之 彼東京白馬之禍 豈非燭照而龜鑑也哉

藉令眞如樂洙所云云 士流皆爲龜柱之所招誘 而假飾者 予則以爲不然 在龜柱罪惡 末著之前 雖使古士流處之 嘉其向善之心 必富客而接之 且使龜柱 不陷于辟 能遂其初服 則綽可爲靑陽驪陽

91) 등창을 빨다는 뜻으로 전하여 윗사람에게 몹시 아첨함.

92) 조(趙)나라 공손룡(公孫龍)이 '백마(百馬)는 말이 아니다'고 한 괴변에서 나온 말로써 터무니없이 꾸며대는 말을 뜻함.

93) 임금이 처음으로 정치를 잡고 교화를 베풀.

어찌 이것을 가지고 올라미를 썩워 죽일 것을 억지로 단안(斷案)하겠는가. 아~! 자기를 용서하는 데에는 혼미하고 남을 꾸짖기를 밝게 하는 사람은 바로 심낙수이다.

심낙수가 이른 바 세상의 변화가 천기만괴(千奇萬怪)하여 참아 바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스스로 말 하였다. 오직 나는 밤낮으로 한결같은 생각이 오로지 “보세신정조상(保世臣靖朝象 ; 세신(世臣)을 보호하고, 조정의 모양을 편안케 한다.)” 이란 여섯 글자를 가지고 나의 부계(符契)<sup>94</sup>를 지어 정모(政謀)<sup>95</sup>를 베푸는 데에 있다.

만약에 오늘에 심낙수의 날뛰는 행태를 일미(一味)로 용인하여 그 하는 대로 맡겨둔다면 나는 진실로 그가 말하는 인(仁)으로써 인(仁)을 상하게 하는 꾸지람을 면하기 어렵다고 여긴다. 따라서 호악(好惡)을 명시하여 규모(規模)를 바로하고 곧바로 사판(仕版)<sup>96</sup>에서 삭거(削去)할 것을 명해야 한다.

라고 전교하시었다.

부군(府君)의 소말(疏末)에 진술(陳述)한 덕(德)을 세우고 원수를 갚는다는 것이 곧 이 일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왕께서 온비(溫批)<sup>97</sup>를 내려 주심에 감격하여 출사(出謝)<sup>98</sup>하고 종부시정(宗簿寺正) 서명선(徐命善)을 옮길 때에 제조(提調)가 의리에 끌려 직분에 이바지 하지 않으므로 체포하여 심문하고 파직하기를 명하였다.

이어서 겸필선(兼弼善) 직책을 임명받을 때에 김종수(金鍾秀)와 송재경(宋載經)이 연이어 죄를 얻어서 떠나갔다.

이에 부군(府君)이 세도(世道)에 뜻이 없어서 체직(遞職)하고 시골집에 돌아왔다.

豈可以此 勒成箝殺之斷案乎  
噫恕己則昏 責人則明者 樂洙之謂也

樂洙 所謂世變之千奇萬怪 不忍正視者 正是自道 惟予宵旰一念 亶在保世臣靖朝象六字 作我符契 施及政謨 若於今日 樂洙之跳踉 一味容忍 任其所爲 則予果難乎免於樂洙 所謂以仁傷仁之譏矣 不可不明示好惡 以正規模 仍命削去仕版 府君疏末所陳 爲建德報仇者 即指此事也 上下溫批 遂感激出謝 移宗簿寺正徐命善時 爲提調復引義不供職 命拿問罷職

尋叙拜兼弼善時 金公鍾秀 宋公載經 相繼得罪去 府君益無意於世道 遞職還鄉廬

94) 나무조각이나 두꺼운 종이조각에 글자를 새기거나 쓰고 증인(證印)을 찍은 뒤에 두 조각으로 쪼개어 한 조각은 상대에게 주고 다른 조각은 자기가 보관하여 서로 맞추어 증거를 삼는 물건.

95) 국가의 정사에 관한 계획.

96) 관리의 명부(名簿).

97) 임금의 내린 온화한 비답(批答).

98) ①대간(臺諫)에서 새로 임명된 관원의 고신(告身)을 서경(署經)하여 내주던 일.

②은전(恩典)을 입은 벼슬아치가 대궐에 나아가 임금을 뵈고 사은숙배(謝恩肅拜)하는 일.

병오(丙午,1786)년 문효세자(文孝世子)<sup>99</sup>가 죽으므로 궐외(闕外)에 입림(入臨)<sup>100</sup>하였다. 정미(丁未,1787)년 봄에 다시 부교리(副校理)가 되었다. 문효세자가 죽음으로부터 나라에 말들이 들끓어 모두가 말하기를 의관(醫官)들이 현륙(顯戮)<sup>101</sup>을 당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직 상소에는 화변(禍變)의 본말을 낱낱이 진술하는 말이 누천(累千)마디였다. 그러나 왕께서는 충분히 비답(批答)을 내려 윤택하지 않았다.

이어서 부군(府君)이 호서(湖西) 안렴사(按廉使)로 나갔다가 돌아와서는 응교(應敎)로 제수(除授)받았다. 그때에 문효세자의 소상(小祥)을 만나서 모든 관료들과 더불어 복수(復讐)의 의(義)를 연진(聯陣)<sup>102</sup>하였다.

5월에 묘당(廟堂)<sup>103</sup>의 추천으로 의주부윤(義州府尹)에 승배(陞拜)<sup>104</sup>되어 그곳에 이르러 이로움과 병폐, 금집(禁戢)<sup>105</sup>을 물어서 따지었다. 인하여 역서(譯胥)<sup>106</sup>가 자물쇠로 관방(關防)<sup>107</sup>을 닫으므로 장엄하고도 견고하였다.

무신(戊申,1788)년 가을에 대궐에 들어와서 승정원(承政院)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었다가 겨울에 병조참지(兵曹參知)를 제수(除授)받았다.

경술(庚戌,1790) 5월에 대사간(大司諫)에 복직되었을 때에 채제공(蔡濟恭)<sup>108</sup>이 흥당(兗黨)으로써 상직(相職)<sup>109</sup>에 있었다. 그의 하는바가 어긋남이 많아서 공론(公論)에 말이 있으므로 왕께서 당론(黨論)으로 그를 내쳤다. 이에 부군(府君)이 소장(疏章)을 올려 말하기를,

丙午夏 文孝世子薨 入臨 闕外 丁未春 復爲副校理 自文孝之薨 國言沸騰 皆謂醫官當蒙顯戮 因辭疏 歷陳禍變源委累千言 上優批不許 尋承命按廉湖西 歸拜應敎時 值文禧小祥 與諸僚 聯陣復讐之義 五月以廟堂薦 陞拜義州府尹 到灣詢究利病禁戢 譯胥鍵閉關防 賴而壯固 戊申秋 入爲承政院同副承旨 冬拜兵曹參知

庚戌五月 復大同諫時 蔡濟恭以兗黨居相職 所爲多拂戾公議有言者 上輒斥以黨論 府君上疏 曰夫黨論者 自賢邪是非之分而生 人主誠能進其賢而黜其邪 立其是而斥其非 朝廷之上 無一小人 參於百執事之間

99) (1782~1789)는 정조의 장남으로 의빈 성씨에게서 태어났다. 1784년世子로 책봉되었으나 5세의 나이로 요절하였다. 1786년 7월에 高陽에 장사하였고 諡號를 文孝, 廟號를 文禧, 墓號를 孝昌이라 하였다.

100) 사람의 초상(初喪)에 들어가서 임(臨)함.

101) 죄인을 죽여서 그 시체를 여러 사람에게 보임.

102) 두 사람 이상이 연명하여 왕에게 상소(上疏)를 올려 진술함.

103) 의정부(議政府)의 별칭.

104) 관직을 높이어 임명함.

105) 금하여 거둠.

106) 역관(譯官)과 서리(胥吏).

107) 관문. 또는 국경 요새지(要塞地).

108) 1720~1799 (숙종 46~정조 23) 조선 후기 문신. 자는 백규(伯規), 호는 번암(樊巖). 본관은 평강(平康). 1743년(영조 19) 정시문과(庭試文科)에 급제하였고, 1753년 충청도암행어사로서 균역법의 실시과정에서 나타나는 폐단과 변방대비 문제를 진언하였다. 1758년 도승지로 임명된 뒤 사도세자 폐위의 비망기가 내려지자 죽음을 무릅쓰고 이를 철회시켰다. 1770년부터 병조·예조·호조 관서를 역임하였고, 1777년(정조 1) 벽파(僻派)의 정조시해음모를 사전 적발하였으며 1789년 좌의정에 이르렀다. 1790년 가톨릭 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신서파(信西派)의 영수로서 자신의 봉당 납인을 보호하기 위해 온건책을 유지, 10년간 박해가 확대되지 않게 하였다. 《경종내수실록》·《영조실록》·《국조보감(國朝寶鑑)》 편찬작업에 참여하였다. 저서로는 《번암집(59권)》 등이 있다. 시호는 문숙(文肅).

109) 군주를 보좌하여 정치를 운영하는 최고의 관료인 삼상(三相)을 일컫는 말.

대저 당론(黨論)이란 것은 현사(賢邪)를 시비(是非)함으로 부터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인주(人主)가 진실로 능히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특한 사람을 내치며 옳은 사람을 세우고 그른 사람을 내쳐야 합니다. 조정(朝廷)에 한 사람의 소인(小人)이 모든 집사(執事)<sup>110</sup>의 사이에 참여함이 없으면 이른바 당론(黨論)은 잠식됨을 기약하지 않아도 스스로 잠식될 것입니다.

비록 현사(賢邪)의 시비가 존재한 이래 여태껏 사특한 사람이 항상 이기고 어진 사람이 항상 패하였으며 옳은 사람이 항상 굽히고 그른 사람이 항상 폄했습니다. 따라서 멀고 먼 천고(千古)에 원왕(冤枉)<sup>111</sup>의 송사가 언제나 군자(君子)의 무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하(殿下)는 또한 이것을 살리지 않겠습니까?

또 묘당(廟堂)의 신하에게 죄가 있으면 대각(臺閣)의 관리가 척론(斥論)하니 이것은 맑은 조정의 아름다운 일입니다. 진실로 대신(大臣)으로 하여금 종자무기(縱恣無忌)<sup>112</sup> 하되 대신(臺臣)이 숙시함구(熟視緘口)<sup>113</sup>하면 세도(世道)가 어떻게 되며 조정의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릇 대신(臺臣)의 언사소(言事疏)가 스스로 올라오면 다만 말하는 바의 옳고 그름을 볼 뿐 마땅히 그 마음의 공사(公私)를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 부군(府君)의 소(疏)가 왕에게 들어가니 왕께서 특명으로 체제공을 삭직(削職)시켰다. 이어서 부군(府君)이 8월에 다시 대사성(大司成)이 되었다가 형조참의(刑曹參議)로 옮겼다.

신해(辛亥, 1791)년 봄에 예조참의(禮曹參議)를 제수 받고 8월 이조참의(吏曹參議)를 제수 받았으나 친혐(親嫌)<sup>114</sup>으로 체차(遞差)<sup>115</sup>되었다. 12월에 다시 이조참의(吏曹參議)로써 대정(大政)<sup>116</sup>에 참여하였다.

則所謂黨論 不期息而自息矣 雖然自有賢邪是非以來 邪者常勝 賢者常敗 是者常屈 非者常伸 而悠悠千古冤枉之訟 常起於君子之徒矣 殿下亦盍察乎是也

且夫廟堂之臣有罪 臺閣之官斥論 是清朝之美事也 苟使大臣 縱恣無忌 而臺臣熟視緘口 則世道何如也 朝象何如也 凡臺臣言事自上 只觀所言之是否 不當疑其心之公乎私乎也 疏入 特命削職 八月叙復爲大司成 尋移刑曹參議 辛亥春拜禮曹參議 八月拜吏曹參議 以親嫌遞 十二月復以吏曹參議 參大政

110) 지휘자나 주인의 지시를 받아 일을 맡아보는 사람.

111) 무고한 죄. 누명

112)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거리낌 없음

113) 눈여겨 자세히 보기만 하고 입을 봉하여 말하지 않음.

114) 친척으로 말미암은 혐의.

115) 관원의 임기가 차거나 또는 부적당한 때 다른 사람으로 갈아서 임명함.

116) 도목정사(都目政事)를 이르는 말. 도목정사는 매년6월과 12월 두차례 실시하는 인사 행정으로 12월의 것을 대정. 6월의 것을 소정이라 이른다.

임자(壬子, 1792)년 2월에 왕께서 김우진(金字鎭)을 가까운 곳에 슬그머니 옮겨놓고 금하여 소장(疏章)을 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부군(府君)이 광구소(匡救疏)<sup>117</sup>에 수천가지 말을 재빠르게 진술하여 대궐에 나아가서 직접 국왕께 올렸다. 왕의 비답(批答)<sup>118</sup>에 말하기를 「살피지 못했다.」 하시고 이어서 3월에 부군(府君)에게 예조참판(禮曹參判)으로 올려 임명하였다가 곧바로 형조참판(刑曹參判)을 제수(除授)하였다.

이승훈(李承薰)<sup>119</sup>은 곧 서양(西洋)을 배우는 자이니 일찍이 읍재(邑宰)<sup>120</sup>가 되어 공자(孔子)의 사당에 참배(參拜)하지 않은 것이 조정(朝廷)에 알려졌다. 태학(太學) 장의(掌議) 김중순(金重淳) 등이 봉장(封章)<sup>121</sup>을 가지고 칠것을 청하였으나 국왕께서는 그 일을 따지고 싶지 않아서 형조(刑曹)에 명하여 김중순 등의 죄를 의논케 하였다.

이에 부군(府君)이 모든 관료(官僚)들과 더불어 회계(回啓)<sup>122</sup>로 청하여 본관(本館)<sup>123</sup>으로 하여금 벌을 주게 하였다. 국왕께서 진노하시어 갑자기 친국(親鞫)<sup>124</sup>을 명하니 여러 당상관(堂上官)들이 이미 잡혀 이르렀다. 이어서 왕께서 명하여 그들을 모두 금갑도(金甲島)에 안치(安置)<sup>125</sup>하는데 그때에 하늘이 갑자기 진동(震動)하여 온 조정(朝廷)이 모두 두려워하였다.

이에 부군(府君)은 삼목(三木)<sup>126</sup>을 갖추고 궐(闕)밖에 앉아서 한수자약(鼾睡自若)<sup>127</sup>하더니 안치(安置)하라는 왕명이 내렸다. 곁에 있던 사람이 이 사실을 아뢰니 부군(府君)이 천천히 말하기를 「나는 오늘에 다시 벽파진을 건너 겠구나!」 라고 하였다.

壬子二月 上潛移金字鎭於近地而禁不納疏章 府君 亟陳匡救疏屢千言 詣闕親呈 批曰不省 三月陞拜禮曹參判 旋除刑曹參判 李承薰卽爲西洋學者也 嘗爲邑宰 以不拜孔子廟聞太學掌議金重淳等 將封章請討 上不欲究其事 命刑曹議重淳等罪 府君與諸僚回啓請 令本館付罰 上怒遽命親鞫諸堂上既拿到 命並安置金甲島時 天威猝震 舉朝皆惴懍 而府君具三木坐 闕下 鼾睡自若 及安置 命下 傍人以告 府君徐曰吾今日 再渡碧波津矣.

117) 잘못을 바로잡고 도와주는 상소.

118) 신하나 상소나 계주문(啓奏文)의 말미에 적은 임금의 대답.

119) 1756~1801(영조 32~순조 1) 한국 최초의 가톨릭 영세자, 한국 가톨릭교회 창설자 중의 한 사람. 자는 자술(子述), 호는 만천(蔓川). 세례명은 베드로. 본관은 평창(平昌). 서울 출신. 참판 동욱(東郁)의 아들이다. 1780년(정조 4)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벼슬을 단념, 학문에 전념하다가 서학을 접하게 되었고, 이벽(李檠)과 친교를 맺으면서 가톨릭을 알게 되었다. 1783년 동지사의 서장관인 아버지를 따라 베이징[北京(북경)]에 들어가 예수회 선교사에게 교리를 배운 뒤 L. 그라몽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가톨릭 서적·십자고상(十字苦像)·목주·상본(像本) 등을 가지고 돌아왔다. 1791년 진산사건(珍山事件)이 일어나자 이에 연루되어 관직을 삭탈당하고 투옥, 세번째 배교한 뒤 풀려났다. 1794년 주문모(周文謨) 신부가 밀입국하자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이듬해 성직자영입 운동에 관계한 혐의로 체포, 예산(禮山)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났다. 그러나 1801년(순조 1) 신유박해 때 이가환(李家煥)·정약중(丁若鍾) 등과 함께 대역죄로 사형에 처해졌고, 1856년(철종 7) 아들 신규(身逵)의 탄원으로 신원되었다. 저서로 《만천유고(蔓川遺稿)》가 있다.

120) 고을의 원님. 121) 임금에 밀봉(密封)하여 상주(上奏)하는 의견서.

122) 임금의 물음에 대하여 심의하여 상주(上奏)함. 123) 홍문관을 가리켜 이르는 말.

124) 중죄인을 임금이 직접 국문(鞫問)함.

125) 일정한 장소에 안정하게 놓음. 또는 한 곳에 두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함.

126) 죄인의 목·손·발에 채우던 세 가지 형구(刑具). 곧 칼·수갑·차꼬를 이룸.

127) 코를 골고 졸면서 아무렇지도 않음.

이미 적소(謫所)<sup>128</sup>에 이르렀는데 왕의 하교(下敎)에 말하기를 「저 날의 처분(處分)은 나 또한 지나침을 알았으니 마땅히 모두 방송(放送)할 것을 명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군(府君)에게 한성우윤(漢城右尹)을 제수(除授)하였으나 진정(陳情)하여 사사(辭謝)하였다.

가을에 동지부사(冬至府使)<sup>129</sup>에 차출(差出)하였으나 체직(遞職)을 상소한지 며칠이 지나서 막내아우가 교외(郊外)로부터 이르러왔다. 아우가 말하기를,

형님께서서는 일찍이 제양공(齊襄公)이 9세(世)의 수치(羞恥)를 갚으니 춘추(春秋)<sup>130</sup>가 그를 위대하게 여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효종(孝宗)때에 국난을 다스려 정의를 바로 세운 뜻과 우리 우옹(尤翁)<sup>131</sup>이 아픔을 참고 원통함을 머금은 뜻을 비록 백세(百世)를 지니더라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루 만에 이 뜻을 잊는다면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에 오랑캐의 조정(朝廷)에 피폐(皮幣)<sup>132</sup>의 역(役)을 지고 오랑캐가 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옛 선왕(先王)은 이적(夷狄)을 금수(禽獸)로 대접하였거늘 사람으로서 금수에게 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부군께서 웃으시며 「왕께서도 우리 뜻을 안다.」고 말씀하였다. 부군은 이미 체직을 상소하였으나 좌승지(左承旨) 겸지의금(兼知義禁)을 임명받았다가 또 도승지(都承旨)를 임명받았다. 겨울에 병조참판(兵曹參判) 사역제조(司譯提調) 이조참판(吏曹參判)을 임명받았다.

既到謫 上下教 曰伊日處分  
予亦知其過 當命並放送 除  
漢城右尹 陳情辭謝 秋差冬至  
副使 疏遞居數日 季弟處士公  
自郊外至曰 伯氏 嘗言齊襄公  
報九世之耻 春秋大之 惟我  
孝廟 撥亂反正之志 暨我尤翁  
忍痛合冤之意 雖百世 不可忘  
也 一日而忘此義 則是無人心  
者也 今虜廷皮幣之役 胡爲而  
至哉 又曰昔先王 待夷狄以禽  
獸 可以人而拜禽獸乎 府君  
笑曰 君知我矣 已上疏得遞矣  
拜左承旨兼知義禁 又拜都承  
旨 冬拜兵曹參判 司譯提調  
吏曹參判

128) 죄를 말미암아 유배(流配)되어 있는곳.

129) 해마다 동짓달에 중국에 보내던 부사(副使).

130) 공자(孔子)가 지었다고 하는 노(魯)나라의 역사책.

131) 우암(尤庵) 송시열을 말함.

132) 가죽과 비단. 중요한 예물의 하나로 국가간의 관계나 개인의 혼례 등에 많이 사용되었음.

계축(癸丑, 1793)년 정월(正月)에 정원(政院)<sup>133</sup> 대각(臺閣)이 소장(疏章)을 올려 윤영희(尹永僖) 무리를 익환(翼煥) 기현(驥顯)에게 내쳤다.

또한 이가환(李家煥)은 이잠(李潛)의 종손(從孫)으로 청반(淸班)<sup>134</sup> 선임되어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여 아울러 파삭(罷削)되었다.

이에 부군(府君)이 도승지(都承旨) 자격으로 상소(上疏)하여 억울함을 구하고자 하였으나 왕명(王命)이 내리지 않았다. 부군에게 이조참판(吏曹參判) 대사헌(大司憲) 겸지춘추(兼知春秋) 동성균(同成均)이 복직되었다.

8월에 대사성(大司成)이 되었는데 왕께서 태묘(太廟)에 행차하니 납심을 살피고 따라 들어가는 반차인(班次人)<sup>135</sup>으로 가상하게 여기어 포사(褒賜)하고 부군(府君)에게 특별히 사재감(司宰監) 빙고제조(氷庫提調)를 제수(除授)하였다.

12월에 문형(文衡)<sup>136</sup>의 회권(會圈)<sup>137</sup>을 명하는데 부군(府君)이 그 첫 번째가 되었다. 그 때에 김종수(金鍾秀)<sup>138</sup>가 부군을 문형(文衡)에 천거하였는데 홍양호(洪良浩)<sup>139</sup>가 대적하였다.

이에 왕께서는 「홍양호의 자질이 부군(府君)보다 높다」고 하여 홍양호에게 먼저 제수(除授)할 것을 명하였다. 그 때 김공(金公)이 상차(上筭)<sup>140</sup>하여 다투니 이달에 예문제학(藝文提學)을 임명하지 못하였다.

癸丑正月 政院臺閣 疏斥尹永僖黨於翼煥驥顯 又論李家煥潛之從孫 不宜選在淸班 並被罷削 府君以都承旨 上疏伸救命不叙 旋復吏曹參判大司憲兼知春秋同成均 八月大司成上幸太廟 以查出追入班次人褒嘉之 特除司宰監氷庫提調十二月 命會圈文衡 府君爲首時 金公鍾秀當薦文衡 以府君及洪良浩對 上以良浩資高於府君 命先授良浩 金公上筭爭之 不得是月 拜藝文提學

133) 조선시대의 승정원(承政院)을 줄여서 이르는 말.

134) 지위는 낮으나 훗날 높은 관직에 등용될 수 있는 관직으로 과거(科擧)출신자로서 임용되었음.

135) 국가 의식에 따라가는 문무 백관.

136) 대제학(大提學)을 달리 이르는 말.

137) 조선시대 대제학(大提學) 직각(直閣) 대교(待敎) 한림(翰林) 등의 벼슬아치를 뽑을 때에 전임자(前任者)등의 여러 벼슬아치가 모여 그 적임자(適任者)의 성명위에 권점(圈點)을 찍는 일.

138) 1728~1799(영조 4~정조 23) 조선 후기 문신. 자는 정부(定夫), 호는 몽오(夢梧)·진솔(眞率). 본관은 청풍(淸風). 1768년(영조 44)에 군수로서 문과에 급제하여 세자시강(世子侍講)을 지냈다. 1772년 당폐(黨弊)를 일으킨 죄로 유배되었다가, 1778년(정조 2) 이조판서에 등용, 우참찬(右參贊)·병조판서를 거쳐 좌의정에 이르렀다. 시세에 따라 처세가 능숙하였으며 심환지(沈煥之)와 더불어 홍씨(洪氏)일파에 대한 공격에 앞장섰다. 저서에 《몽오집(夢梧集)》이 있다. 시호는 문충(文忠).

139) 1724~1802(경종 2~순조 2) 조선 후기 문신·학자. 자는 한사(韓師), 호는 이계(耳溪). 본관은 풍산(豊山). 1747년(영조 23) 진사시에 급제, 1752년 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지평 등을 지냈다. 1781년(정조 5) 이후 한성부우윤·대사간을 지내고 1794년 동지 겸 사은사(冬至兼謝恩使)로 청(淸)나라에 다녀온 뒤 이조판서를 지냈고, 1799년 홍문관·예문관 양관(兩館)의 대제학을 겸임하는 최고 영예를 누렸다. 문장과 글씨에 뛰어났고, 사신으로 청나라에 갔을 때 중국 석학들과 교류하여 문명(文名)을 떨쳤으며, 고증학(考證學)을 수용 보급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영조실록》·《국조보감》·《갱장록(羹牆錄)》·《동문회고(同文彙考)》 등 각종 편찬 사업을 주관하였고, 지방관의 지침서 《목민대방(牧民大方)》을 저술하였다. 《이계집》 외에 많은 저술이 있다. 문장이 아순(雅馴)하고 전측(典則)이 있어서 따를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글씨는 진체(晉體)·당체(唐體)에 뛰어났다. 시호는 문헌(文獻).

140) 차자(筭子)를 올림.



갑인(甲寅,1794)년 정월(正月)에 홍낙임(洪樂任)<sup>141)</sup> 등에 게 벼슬을 제수하라는 명이 있었다. 이에 부군(府君)이 조참(朝參)<sup>142)</sup>으로 인하여 말하기를,

을미년(乙未年)의 역변(逆變)<sup>143)</sup>은 전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역모의 근원은 금액(禁掖)<sup>144)</sup> 척련(戚聯)<sup>145)</sup>의 땅에 숨어있고 종역(從逆)의 무리는 진신(摺紳)<sup>146)</sup> 명의(名義) 집에서 나옵니다. 때문에 「세상은 혹 그렇다」고 의심하는 사이에 잘못되고 선비들도 부토(扶討)의 즘음에 현혹됩니다.

근일(近日)에 2~3 대정(大政)의 소통(疏通)으로 명분하여 임금의 뜻과 통하고자 하는 것이 ‘승전(承傳)’이라고 이릅니다. 따라서 감히 국법(國法)의 흔들기 어려움을 어기지 못하는 것은 심지어 글자를 첨가하는데 구애됨이 없었습니다.

이를 연유하여 흥역(兇逆)의 자서(子壻)와 인족(姻族)들이 그 대소(大小) 경중(輕重)을 구분하지 않고 한결같이 깨끗이 씻고 털고 닦은 가운데에 뒤섞여 돌아왔습니다. 여기 홍낙임(洪樂任)의 무리를 이와 같거늘 그들에게 품계(品階)를 울리어 직책을 부여하였습니다.

아-! 『명의삼편(明義三編)』<sup>147)</sup>의 대의(大義)는 장차 어느 곳에서 강론(講論)할 것입니까. 하물며 홍낙임의 흥모(凶謀)와 역절(逆節)이 국안(鞫案)<sup>148)</sup>에 흰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 성상(聖上)의 출천(出天)한 대효(大孝)가 무릇 자궁(慈宮)<sup>149)</sup>을 위열(慰悅)하는 일이 지극합니다.

그러나 심지어는 의리(義理)를 흔들어 상하게 하고 규범을 범하여 깨뜨리니 어찌 세 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 천리(天理)를 밝히고 인륜의 기강을 바르게 하여 종묘(宗廟)를 받들고 사직(社稷)을 편안케 하여 억만년토록 이어지는 것이 제왕(帝王)의 지극한 효도입니다.

甲寅正月 有洪樂任等 除職之命 府君因朝參進 曰乙未逆變 振古所無 而蓋其作逆之本 隱於禁掖戚聯之地 從逆之黨 出於摺紳名義之家也 故世或誤於然疑之間 士亦眩於扶討之際 近日二三大政 以疏通爲名 而 聖意之所欲通者 謂之承傳 而不敢違國法之所難撓者 至於添書 而無所碍 由是而兇逆之子壻姻族 不復辨其大小輕重 一例混歸於蕩滌拂拭之中 而洪樂任輩 亦皆陞品付職矣

嗚呼 明義三編之大義 其將講於何地乎 況樂任之凶謀逆節 昭載鞫案 雖以我 聖上出天之 大孝 凡爲慰悅 慈宮之事 靡不用極 而至若撓傷義理 犯破關和 盍亦加以三思也 夫明天理正人紀 以奉宗廟 以安社稷 垂之億萬斯年 是爲帝王之達孝也

141) 1741(영조 17)~1801(순조 1). 조선 후기의 문신·천주교인.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숙도(叔道). 영조 때 영의정을 지낸 봉한(鳳漢)의 아들이다. 1769년(영조 45) 정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홍문관에 등용되었다. 그뒤 정언·문학·사서 등을 두루 거쳐 승지에 올랐다. 1801년에 신유박해 때 체포되어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그해 5월 사사(賜死)되었다.  
 142) 임금이 한 달에 네 번씩 정전(正殿)에 나올 때에 모든 벼슬아치들이 그 앞에 가서 인사하고 할 말을 아뢰는 일.  
 143) 정조가 왕세손(王世孫)으로 있을 때 홍인한(洪麟漢) 정후겸(鄭厚謙) 등이 정조의 대리청정(代理聽政)을 반대하고 은밀히 정조의 즉위를 방해한 사건. 144) 궁중(宮中)이나 궁궐(宮闕)을 말함. 145) 친척으로 이어지는 무리.  
 146) 홀(笏)을 큰 허리띠에 꿰는다는 뜻으로 정부 고위관료를 말함. 147) 책 이름. 3권 3책 조선 정조(正祖)의 명으로 김치인(金致仁) 등 엮음. 정조가 왕세손(王世孫)으로 있을 때 대리청정(代理聽政)을 반대한 홍인한(洪麟漢) 정후겸(鄭厚謙) 등을 역적으로 치죄(治罪)하여 사사(賜死)하고 정조를 옹위하여 즉위하게 한 홍국영(洪國榮) 정민시(鄭民始)등의 충절을 선양(宣揚)하기 위하여 그 전말을 기록한 책임.  
 148) 죄인을 국문한 사실을 기록한 문서. 149) 조선시대 임금의 후궁 또는 왕세자빈(王世子嬪)이 출생한 아들이 왕위에 오른 경우 그 임금의 생모를 임금이나 신료들이 지칭하는 용어.

신(臣)은 죽을죄로 자궁(慈宮)의 성덕(盛德)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사(宗社)를 중하게 여기고 사은(私恩)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바라옵건데 전하(殿下)께서는 흥낙임 등에게 제직(除職)하는 명을 거두어 주소서.

라고 하였다.

왕께서 말하기를 「아된 말이 의리(義理)에서 나왔거늘 어찌 잘못이라고 이를 수 있겠는가. 나 또 헤아려 그렇게 하였다.」고 하였다.

2월에 왕께서 현릉원(顯隆園)에 전배(展拜)<sup>150</sup>하니 그 이듬해 을묘(乙卯, 1795)년은 장헌세자(莊獻世子)<sup>151</sup>가 출생한 연도이다. 이에 왕께서는 추모함을 그치지 않고 또한 경모궁(景慕宮)에 친히 제사(祭祀)를 드리려고 하였다.

인하여 대신(大臣) 채제공(蔡濟恭)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혜경궁(惠慶宮)에서 정청(廷請)<sup>152</sup>하면서 말하였다.

일전(日前)에 원행(園行)<sup>153</sup>할 때에 옥체(玉體)를 그의 스스로 지탱하지 못하여 대신(大臣)이 몸소 업고 내시(內侍)가 인도하여 도달하였습니다. 인하여 왕께서 몸소 제(祭)를 드리는 명을 거두어 주소서.

이에 김종수(金鍾秀)는 소척(疏斥)하여 「대비(大妃)에게 여쭙지 않았으며 대신(大臣)에게 업혔다는 말도 사실과 어긋났습니다」고 하였다.

왕께서 대노(大怒)하여 거듭 엄교(嚴教)를 내렸으나 대론(臺論)이 번갈아 일어나니 끝내 그들을 남해(南海)에 귀양 보내니 그 재앙을 헤아릴 수 없었다.

則臣愚死罪 竊伏想 慈宮盛德 豈不以 宗社 爲重 私恩爲輕 伏望 殿下亟寢樂任等 除職之命 上曰所奏之言 出於義理 何可謂非也 予亦有斟酌而然矣

二月 上展拜于 顯隆園 明年 乙卯 莊獻世子生年也 上追慕不已 又將親祭于 景慕宮 大臣蔡濟恭 率百官 庭請於 惠慶宮言 日前 園行時 玉體幾不自支 至於大臣親負 宜自內導達 亟寢親祭之命 金公鍾秀 疏斥 不稟 大妃 而親負之言 亦歸失實 上大怒 荐下嚴教 臺論迭發 竟謫南海 禍且不測

150) 궁궐이나 종묘(宗廟) 능묘(陵墓) 문묘(文廟) 등에 나아가 절하고 뵈는 것.

151) 조선 21대 왕 영조의 둘째왕자. 자는 율관(允寬), 호는 의재(毅齋). 이름은 선(愼). 어머니는 영빈이씨(映嬪李氏)이며, 부인은 혜경궁 홍씨(惠慶宮洪氏)이다. 이복형 효장세자(孝章世子)가 요절하고 영조의 나이 40세가 넘었으므로 출생한 지 1년 만에 왕세자에 책봉되었다. 어릴 때부터 영특하였고 1749년(영조 25) 아버지를 대신하여 정사를 돌보게 되었는데 이때 그와 사이가 좋지 않은 계비 정순왕후(貞純王后), 숙의 문씨(淑儀文氏)를 비롯한 노론 등이 영조에게 그를 무고하였다. 영조가 크게 꾸짖게 되고 그는 격간도동(膈間挑動)이라는 정신질환에 걸렸다. 이후 학문을 게을리하고 궁녀를 죽이며 여승을 입궁시키는 등 난폭한 행동과 광기로 영조의 노여움을 샀다. 1761년 정순왕후의 아버지 김한구(金漢耆)와 그 일파인 홍계희(洪啓禧)·윤급(尹汲) 등의 사주를 받은 나경언(羅景彦)은 그의 비행 10조목을 상소하였다. 이어 영조는 그에게 자결명령을 내렸고 듣지 않자 뒤주 속에 가두어 죽게 하였다. 그 뒤 영조는 후회하고 사도(思悼)라는 시호를 내렸다. 그의 아들인 정조가 즉위하자 장헌(莊獻)으로 추존, 1899년(고종 36) 장조로 추존되었다. 능은 용릉(隆陵).

152) 국가에 중대사가 있을때 세자(世子) 또는 의정(議政)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궁정(宮庭)에 이르러 서계(啓)를 올리고 전교(傳敎)를 기다림.

153) 임금이 원(園)으로 행차(行次)함.

무릇 김공(金公)과 더불어 좋게 지내던 사람들이 모두 차례대로 죄(罪)를 얻게 되었다. 이 때에 그와 가까운 한 신하가 부군(府君)의 집에 찾아가서 무섭게 협박하고 다그쳤으나 부군(府君)은 머리를 숙이고 답하지 않았다.

그 사람이 갈 무렵에 다시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공(公)은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고 하였다. 이에 부군(府君)이 큰소리로 말하기를 「그대는 어찌하여 다시 말하는가. 나는 아홉 번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무렵에 마침 정시(庭試)<sup>154</sup> 방방(放榜)<sup>155</sup>에 이르러 왕께서 명하여 제학(提學)으로써 부군(府君)을 불렀다. 이에 부군은 패(牌)를 받들고 입장(立仗)<sup>156</sup>한 앞에서 끝내 왕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윽고 능주(綾州)에 외보(外補)<sup>157</sup>되었다. 그리고 6월에 체천(遞遷)되어 도승지(都承旨)에 복직되어 8월에 다시 예문제학(藝文提學)에 임명되었다.

이 해 여름에 김공(金公)이 남해(南海)로부터 유환(有還)<sup>158</sup>되니 교리(校理) 이석하(李錫夏)가 상소(上疏)를 올려 김공(金公)을 논박함이 지극히 참혹하였다. 인하여 부군(府君)에게까지 매우 흉패(凶悖)한 말이 미치니 부군이 현도(縣道)<sup>159</sup>를 쫓아 상소하기를,

우리 전하께서는 성조(聖祖)의 정일(精一)한 전통을 크게 받고 비기(丕基)<sup>160</sup>가 안위(安危)할 즈음에 목림(穆臨)<sup>161</sup>하였습니다. 먼저는 난적(亂賊)을 토벌하여 강상(綱常)을 심고 이어서 사륜(絲綸)<sup>162</sup>을 반포하여 의리를 크게 천명하였습니다. 이것은 미혹함을 깨우쳐 주고 완악함을 타파하여 사람의 도리를 열어 보인 것이 지극하였습니다.

凡與金公相善者 皆將次第獲罪時 有一近臣 造府君第 恐嚇萬端 府君俛首不答 其人臨去 復顧曰公勿悔焉 府君疾聲曰子何復言耶 吾九死不悔也 適值庭試放榜 命以提學召 府君奉牌立 仗前 終不膺 命遂外補綾州 六月遞復都承旨 八月復拜藝文提學 是夏金公 自南海有還 校理李錫夏 疏駁金公極僭 因及府君 語極凶悖 至是府君 從縣道 上疏 曰惟我殿下誕受 聖祖精一之傳 穆臨丕基安危之際 先討亂賊 以植綱常 乃頒絲綸 大闡義理 凡所以牖迷破頑 開示人道者 靡不用極

154) 조선시대 나라 안이나 중국에서 경사가 있을 때 실시한 특별 시험의 하나로 임금이 친림(親臨)한 가운데 행해졌음.

155) 고려와 조선시대 과거 합격자를 발표하는 절차.

156) 의장(儀仗)을 성대하게 베풀.

157) 외방에서 임금의 정치와 교화(教化)를 돕는 수령(守令)과 변장(邊將).

158) 유형(流刑)에 처하여 유배(流配) 간 죄인이 용서를 받고 돌아오는 것.

159) 시골에 있는 벼슬아치기 현(縣)과 도(道)를 거쳐서 상소(上疏)함을 뜻함.

160) 임금의 기업(基業) 홍업(鴻業) 제업(帝業) 왕업(王業).

161) 종묘(宗廟) 서렬에 따라서 임(臨)함.

162) 임금의 말씀.

저 『명의수편(明義首編)』이 발간됨으로부터 재작년에 이르기까지 내려진 연교(筵敎)<sup>163</sup> 윤음(綸音)<sup>164</sup>이 대강 수천의 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범위가 광대하고 그 분석이 정미(精微)하여 대의(大義)는 천지(天地)를 세울 수 있고 지정(至諄)은 금석(金石)을 뚫을 수 있었습니다.

신(臣)은 언제나 『명의편(明義編)』을 받들어 읽고 사적(私的)으로 울먹임을 감추었습니다. 이 전모(典謨)<sup>165</sup>에 가르치는 말은 춘추(春秋)에 필법(筆法)으로 천하(天下) 후세(後世)에 드리워 길이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혹도 두마음을 가지고 빗나간 의논을 하여 이에 거스르는 사람은 적으면 간사하고 치우친 자가 되고 크면 난적(亂賊)이 될 뿐입니다.

지금에 신(臣)은 늙은 나무가 온갖 풍상(風霜)을 지나면서 정기가 마르고 기운이 되돌아갔으나 유독 이 마음은 변함없이 오히려 성조(聖朝)를 위하여 의리(義理)를 부위(扶衛)하였습니다. 저들이 신(臣)에게 나쁜 것이 없거늘 혹은 교노(巧弩)<sup>166</sup>로 나를 몰래 쏘고 패봉(悖鋒)으로 돌기(突起)하여 번갈아 나와서 공박(攻駁)하는 것이 그 뜻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 달에 도승지(都承旨)로 임명한지 하루 만에 다시 강등(降等)되어 애초에 외직(外職)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얼마간 있다가 소패(召牌)<sup>167</sup>가 먼 외지에 뒤 쫓아 내리니 이것은 격식에 벗어난 것이다.

이에 부군(府君)이 어쩔 수 없이 대궐(大闕)에 나아가서 상참(常參)<sup>168</sup>으로 인하여 귀양간 모든 신하들의 석방을 청하여 윤허(允許)를 받았다. 12월에 규장각(奎章閣) 제학(提學)을 임명 받았으니 소장(疏章)을 올려서 사양하였다.

奧自明義首編 至于再昨年以後 筵教 綸音下者 盖爲幾百千言 而範圍廣大 剖析精微 其大義可以建天地 而至誠可以貫金石也

臣每一奉讀 私自掩泣 曰此典謨之訓辭 而春秋之筆法也 垂之天下後世 其不永有辭乎 厥或有貳心橫議 而背馳于是者 小則爲邪說 大則爲亂賊而已矣 今臣如老木之飽經風霜 精枯氣歸 獨有此心靡變 猶可以爲 聖朝扶衛義理矣 惟彼夫夫之無惡於臣者 或以暗射之巧弩 或以突起之悖鋒 迭出攻之者 其意有所在也 是月都承旨 除命一日再降 初以在外遞既而 召牌 追及於江外 是格外也

不獲已詣闕 因常參 請釋被謫 諸臣蒙允 十二月 拜 奎章閣 提學上疏辭

163) 임금이 연석(筵席)에서 내린 교지.

164) 국왕께서 국민에게 내리는 윤유(訓諭) 또는 그 문서.

165) 전모훈고(典謨訓誥). 서경(書經)에 있는 전(典)·모(謨)·훈(訓)·고(誥)의 네 문체(文體) 여기에다가 서(誓)·명(命)을 더 붙인 것을 서경의 육체(六體)라고 함.

166) 교활한 죄녀. 곧 교활한 간계(奸計)를 뜻함.

167) 조선 시대에 임금이 관리를 불러들일 때 사용하던 패. 또는 그 패를 보내어 신하를 부르던 일을 말함.

168) 약식(略式) 조회(朝會)로서 매일 의정대신(議政大臣) 중신(重臣) 중요 아문의 당상관(堂上官) 경연관(經筵官) 승지(承旨) 사관(史官) 등이 편전(便殿)에서 임금을 조알(朝謁)하던 정규행사.

을묘(乙卯,1795)년 정월(正月)에 또 이조참판(吏曹參判) 겸도승지(兼都承旨)를 임명받고 다시 금조(禁條)<sup>169)</sup>를 거 뒤들이는 청을 올렸으나 왕께서 마지못해 허락하시고 아직 비당(備堂)<sup>170)</sup>에 반포하여 하달하지 않았다.

이 무렵 정창순(鄭昌順)의 「승정원이 금조(禁條)를 빙자하여 침묵하고 관습에 매달린다.」는 비판이 연이어 이르렀다. 이것은 부군(府君)이 이미 아뢰어 윤허를 받은 사안인데 감히 차분하게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모든 관료들과 더불어 의리를 내세워 나온 것이다.

이 날 부군에게 형조판서(刑曹判書)에 발탁하여 제수(除授)하였으나 소장(疏章)을 올려 사양하였다. 그 비답(批答)에 말하기를 「전후(前後) 연석(筵席)<sup>171)</sup>에서 경(卿)은 능히 말을 다 하였다. 이 어찌 능언(能言)의 선비가 이 훌륭하고 아름다움에 미치는가. 사양하지 말라.」고 하시었다. 그 후 3일이 지나서 또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임명하므로 다시 소사(疏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2월에 겸동경연홍문제학(兼同經筵弘文提學)을 임명받고 또 상소(上疏)하여 사양하기를, 「언문(言文)의 책임을 겸하니 함부로 받을 수 없다.」고 하였으나 또한 윤허하지 않았다.

이 때에 왕께서 밀지(密旨)를 내려 정치달(鄭致達)의 아내를 성중(城中)에 귀양 보내니 삼사(三司)에서 풀어주기를 청하여 왕께서 그 청을 따랐으나 유사(有司)가 잡지 못하였다.

이에 부군(府君)이 소장(疏章)을 올려 간(諫)하니 왕께서 답하시기를, 「금일(今日)에 정씨의 아내를 처단한 것은 곧 효종조에 세룡(世龍)의 아내를 처단한 고사(故事)이다.」라고 하시었다.

乙卯正月 又拜吏曹參判 兼都承旨 復申禁條還收之請 上勉從未及頒下 備堂鄭昌順 以政院之憑藉禁條 嚙嘿因循 侵斥備至 府君雖已進 啓蒙允 而亦不敢晏然在直 與諸僚引義出 是日擢授刑曹判書 上疏辭批曰前後筵席 卿能言無不盡 是豈能言之士 所能及是庸嘉乃勿辭 過三日又授兵曹判書 再疏辭 並不許 二月兼同經筵弘文提學 又上疏辭 兼言文任不可冒膺 亦不許時 上以密旨徙鄭致達妻于城中 三司請還配 上從之而有司 不能捕 府君上疏諫 上答曰今日之處鄭妻者 卽 孝廟朝 處世龍妻故事也

169) 사정에 따라서 나라에서 금하던 조항.

170) 조선 시대 비변사의 당상관을 일컫는 말.

171) 임금이 신하들과 더불어 자문주답(諮問奏答)하면서 경전(經典)을 강론하거나 시사(時事)를 의론하는 자리를 말함.

수찬(修撰) 최헌중(崔獻重)이 소장(疏章)을 올려 논하기를 「사학(邪學)<sup>172</sup>이 함부로 행하여 오로지 허물을 왕에게 돌립니다. 따라서 몸소 내치지 않으면 그들이 나타나서 겉으로는 치고 속으로는 보호하려는 뜻을 가질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사헌(大司憲) 이의필(李義弼)<sup>173</sup>이 상소(上疏)하여 최헌중을 공박하니 왕께서 「이의필을 귀양 보내라」고 명하였다. 인하여 부군(府君)이 차자(筵子)<sup>174</sup>를 올려 말하기를,

아-! 저 사학(邪學)은 이적(夷狄)의 법(法)일 뿐입니다. 하늘에 거만하고 인륜을 버리어 인도(人道)에 가깝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 말을 들어보면 조잡하고 황당하여 족히 사람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저 짐승처럼 미련한 것이 스스로 그 글을 높이고 그 법을 행하니 어찌하여 막을 것입니까.

수 만여리 예의(禮義)의 고향에서 그 글을 중역(重譯)<sup>175</sup>하여 그 책을 멀리서 구입하고 그 법(法)을 숭신(崇信)하여 천하를 바꾸고자 생각하는 것이니 누가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까? 이른 바 그 교주(教主)<sup>176</sup>란 사람이 있고 학도(學徒)<sup>177</sup>가 있어서 그 무리를 불리어 애호(愛護)하고 두루 방비하여 그 술(術)을 넓히어 세상에 지목되는 것이 또한 응당 허언(虛言)이 아닙니다.

지금에 최헌중(崔獻重)이 능히 사학(邪學)을 공박하는 것으로써 상소(上疏)를 하였으니, 의당히 그 사술(邪術)을 숭배하고 백성의 뜻을 의혹시켜 세상의 도(道)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을 먼저 쳐야합니다. 그 다음으로 청하나니 유술(儒術)을 높이고 성도(聖道)를 밝혀서 세교(世教)를 백세(百世)뒤에 까지 부지(扶持)하는 것이 옳습니다.

修撰崔獻重 疏論邪學肆行 專歸咎 上 躬而不斥 其人顯有陽擠而陰護之意 大司憲李義弼 疏攻獻重 上命竄義弼 府君上筵 曰噫彼邪學 亦夷狄之一法耳 慢天棄倫 不近人道 況聞其說 粗淺謊誕 無足感人者 而彼如禽獸之蠢蠢 自尊其書 自行其法 何如乎隔 重譯數萬餘里禮義之鄉 而遠購其書 崇信其法 思欲以易天下者 夫孰主張是也 所謂教主有其人 所謂學徒寔繁其類 而愛護周防 以廣其術 爲世所指目者 亦應非虛言矣

今獻重 能以攻邪學爲疏 則義當先討其崇邪術惑民志 以亂世道者 而次請尊儒術明聖道 以扶世教於百世之下者 無所不可也

172) 요사스러운 학설이라는 뜻으로 천주교(天主教)를 배척하여 이르는 말.

173) 1738(영조 14)~1808(순조 8).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초명은 상악(商岳). 자는 교백(喬伯), 호는 창계(蒼溪). 세종의 아들인 광평대군 여(廣平大君興)의 후손으로, 대사간 존중(存中)의 아들이다. 성품이 강직하여 언행에 다소 과격한 면이 있었다. 1795년 대사헌으로 재임시 천주교인의 처벌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였으며, 대사간 최헌중(崔獻重)이 천주학을 배척하는 데 가탁(假托)하여 왕을 비방하고 있다며 처벌을 주장하였다가 도리어 편당(偏黨)으로 몰려 단천으로 귀양 갔다. 몇년 뒤 귀양에서 풀려나 호조참판·형조판서·함경도관찰사 등을 두루 역임하고 우참찬에 이르렀다. 정조조에 청백리(清白吏)에 들었다.

174) 관료가 국왕에게 올리는 간단한 서식의 상소문.

175) 한번 번역된 것을 다시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함.

176) 종교 단체의 우두머리. 여기에서는 천주교의 우두머리를 뜻함.

177) 학문을 닦는 사람. 여기에서 천주교리를 공부하는 무리를 뜻함.

다만 사학(邪學)을 논할 뿐 그 주창(主唱)하는 사람은 치지 않고 다만 사학(邪學)만 치면서 그 추종하는 사람을 논하지 않으면 정도(正道)를 호위하고 이단(異端)을 내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의필을 풀어줄 것을 청하니 왕께서 특명(特命)으로 추고(推考)<sup>178)</sup>토록 하였다.

9월에 대사헌(大司憲)에 임명하여 곧바로 병조판서(兵曹判書)를 겸임하고 또 특명으로 장용사(壯勇使)<sup>179)</sup>로 삼았다. 그 처음에 어영대장(御營大將) 이한풍(李漢豐)이 진술한 일이 있었는데 왕께서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그러나 금위겸대장(禁衛兼大將) 김지묵(金持默)은 회계(回啓)<sup>180)</sup>를 기다리지 않고 서로가 계속하여 상소를 던지기를 이와 같이 뚜렷한 사람이다. 이에 부군(府君)이 상소(上疏)하여 그 실책을 논박하니 왕께서 김지묵(金持默)의 장수의 직위에서 과하였다. 그리고 부군에게 겸찰(兼察)을 명하니 부군은 혜전탈우(蹊田奪牛)<sup>181)</sup>의 기찰(譏察)을 인용하여 상소(上疏)를 올려 곧이 사양하였다. 그러나 왕께서는 우비(優批)<sup>182)</sup>를 내려 윤택하지 않고 이어서 예조판서(禮曹判書)에 체천(遞遷)하였다.

10월에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임명받고 일곱 차례나 임금의 부름을 어기고 사임 상소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그 때에 왕께서 숙종조에 역신(逆臣) 허적(許積)<sup>183)</sup>의 관직을 회복시키고 김성탁(金聖鐸)<sup>184)</sup>의 죄안(罪案)<sup>185)</sup>을 씻을 것을 명하였다. 이에 부군(府君)이 차자(笱子)를 올려 말하기를,

只論邪學 而不攻其倡之者 只攻邪學 而不論其從之者 是可謂衛正道而闢異端之義也哉 因請釋義弼 上特命推考 九月大司憲 仍任兵曹判書 又特命爲壯勇使初 御營大將李漢豐 有所陳事 上令廟堂稟處 而禁衛兼大將金持默 不竣回啓 相繼投疏 有若迭出 較能者 然 府君上疏論其失 上罷金持默將任 仍 命府君兼察 引蹊田奪牛之譏上疏力辭 優批不許 尋遷禮曹判書 十月 拜吏曹判書 七違 召牌上疏辭 不許時 上命復 肅廟朝逆臣許積官 滌金聖鐸罪案 府君上笱

178) 소장(訴狀)의 내용을 따지고 살핌.

179) 조선 정조(正祖) 때 두었던 장용영(壯勇營)의 정 2품 주장(主將).

180) 임금의 물음에 대하여 심의하여 상주(上奏)함.

181) 소를 몰고 남의 밭을 지나가는데 밭주인이 그 소를 뺏았다면 소를 몰고 지나가는 사람도 죄가 있거니와 소를 뺏은 주인의 죄가 더 무겁다 는 고사(故事)에서 나온 말로써 월권한 관리로 죄가 있고 그 관직을 뺏은 국왕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을 비유함.

182) 설득력 있는 비답(批答).

183) 1610(광해군 2)~1680(숙종 6). 조선 후기의 문신. 남인으로 제1·2차 예송에서 서인과 대결했으며, 제2차 예송에서 승리하여 집권한 뒤 탁남(濁南)의 영수가 되었다.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여차(汝車), 호는 묵재(默齋)·휴옹(休翁). 1671년 영의정에 올랐으나 이듬해 송시열의 논척(論斥)을 받아 영중추부사로 전임되었다. 1680년 서인인 김석주(金錫胄)·김익훈(金益勳) 등이 그의 서자 견(堅)이 종실인 복창군(福昌君) 형제와 함께 역모한다고 무고함으로써 윤희 등과 함께 사사(賜死)되었으며, 남인은 큰 타격을 받고 실각했다(경신대출척). 1689년 숙종이 그의 애매한 죽음을 알게 되어 무고한 김익훈 등을 죽이고, 그의 관작을 추복했다.

184) 1684(숙종 10)~1747(영조 23).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진백(振伯), 호는 제산(霽山). 1735년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사헌부지평이 되었고, 이어서 사간원정언·홍문관수찬 등을 역임하였다. 1737년 이현일(李玄逸)의 신원소(伸冤疏)를 올렸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정의(旌義)에 유배되었다. 그 뒤 광양으로 이배되어 배소에서 죽었다. 문장가로 조정의 총애를 받았으며,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는데 이황(李滉)의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을 지지하였다. 저서로는 《제산문집》 16권이 있다.

신(臣)은 어린 나이로부터 지금에 늙어서 흰 머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허적(許積)이 국적(國賊)이라는 것만 들었을 뿐입니다. 비록 편당(偏黨)의 논리에 병든 사람이라고 하지만 일찍이 그렇다고 의심할 만한 말이 그 사이에 없으니 이것은 천하의 공안(公案)<sup>186</sup>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 ! 거년(去年)에 적신(賊臣) 김상철(金尙喆)<sup>187</sup>을 유면(宥免)하고 또 거년(去年)에 한 적신(賊臣) 오시수(吳始壽)를 유면하였으나 조정의 신하들이 다투지 못하니 국가가 다행하게 근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임금의 뜻의 향하는 바가 의난(疑難)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今年)에 적신(賊臣)을 유면(宥免)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심지어는 김성탁(金聖鐸)의 죄안(罪案)도 아울러 씻었습니다. 한 일을 겨우 결정하면 한 일이 도리어 생겨나서 맑은 조정(朝廷)에 항상 지각이 요동하는 근심이 생기어 사방(四方)이 태평한 교화(教化)를 입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일(今日)의 일도 가히 마지못할 것이 있습니다.

신(臣)은 일찍이 「역적이 그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에 잔치를 베풀어 그 무리를 모우고 불궤(不軌)<sup>188</sup>를 도모하였다.」고 들었습니다. 크게 백막(白幕)을 둘러친 것이 참람되게도 어악(御幄)<sup>189</sup>의 의식과 같으니 그 조짐이 매우 급하였습니다. 그 때의 성조(聖祖)께서 친히 후원(後苑)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형적(形跡)을 내려다보고 곧바로 제기(緹騎)<sup>190</sup>에게 명하여 발포(發捕)<sup>191</sup>케 하였습니다.

이 일이 오히려 고로(故老)들 사이에 전하니 「마음에 쌓인 것은 용서할 수 있거나 그 형적(形蹟)을 범하지 말라」는 교지(教旨)는 감히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근심을 숨기고 기리 탄식하는 것은 온전히 한 적신(賊臣)이 대안(大案)을 벗어날 수 있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닐 뿐입니다.

曰 臣自童年 今爲老白首 只聞積之爲國賊 而雖病於偏黨之論者 未嘗或置然疑之辭於其間也 則是所謂天下之公案也 嗚呼去年 有一賊臣金尙喆 又去年 有一賊臣吳始壽 而廷臣不能爭 國家幸無虞矣 聖去所向 遂無疑難 今年有一賊臣 而猶有不足 至於金聖鐸之并滌其案矣 一事甫定 一事旋生 而清朝常有震盪之憂 四方未蒙太平之化 今日之事 亦有不可已者乎 臣嘗聞逆豎 設宴于其父所處之堂 集其徒黨 方圖不軌 而大張白幕 僭如御幄之儀 其機甚急 伊時 聖祖親登後苑高處 俯瞰其形跡 而乃命緹騎發捕 此事尙傳於故老 問則積之心可恕 而迹不犯之教 臣不敢奉承矣 至若隱憂而永歎者 不全在於一賊臣之得脫大案而已也

185) 범죄 사건의 기록.

186) 공무에 관한 문서. 공론에 따라서 결정된 안(案).

187) 1712(숙종 38)~1791(정조 15).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강릉(江陵). 자는 사보(士保), 호는 화서(華西). 1757년 충청도관찰사에 이어 대사간·한성부판윤을 지냈고 이조·형조·병조의 관서를 역임하였다. 그 뒤 평안도관찰사를 거쳐 1766년 우의정에 이어 좌의정·영의정에 올랐다. 학덕이 뛰어나 영조의 신임을 받았다. 우의정 때 우리 나라의 문물·제도를 부문별로 망라한 문헌의 필요성을 느껴, 왕에게 건의하여 찬집청(纂集廳)을 두어 1770년 《동국문헌비고》를 편찬하게 하였다. 1786년 아들 우진(宇鎭)이 숙종이 소론 윤선기(尹宣擧) 문집을 훼손(毀板) : 책을 만들려고 글자를 새긴 나무판을 없앴)한 병신처분(丙申處分)의 잘못을 지적하고, 소론 조태구(趙泰耆)·유봉휘(柳鳳輝)를 옹호한 죄로 제주도에 유배될 때에, 그도 아들을 단속하지 못하였다는 죄목으로 삭탈관직되었다. 죽은 뒤 정조의 조처로 복관되었고, 충익(忠翼)의 시호를 받았다.

188) 법을 지키지 아니함. 모반을 꾀함.

189) 임금이 임시로 머무르는 곳에 치는 휘장.

190) 붉은 옷을 입는 궁성(宮城) 기병(騎兵) 주로 죄인을 잡음.

191) 포교(捕校)를 보내는 일.



지금 이후로 담력이 강하면서 진출(鑄黜)<sup>192</sup>된 남은 씨앗이 있다. 따라서 그들이 모두 바라서는 앓될 일을 넘보는 마음을 내어 소매를 떨치고 일어나고 발자취를 따라가서 우리의 국법(國法)을 업신여기어 희롱하고 율의 세교(世教)를 어지럽힐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종사(宗社)의 뒷 날은 장차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말하였다.

왕께서 다시 본조(本曹)<sup>193</sup>에 명하여 「허적(許積)의 관직을 회복하여 반포(頒布)하라」는 교지(教旨)를 내렸다. 이에 부군(府君)이 다시 차자(筓子)를 올려 간(諫)하였다. 병진(丙辰1796)년 2월에 부군(府君)이 차대(次對)<sup>194</sup>로 인하여 고(故) 장령(掌令) 이항(李恒)<sup>195</sup>이 학문(學問)한 조이(操履)<sup>196</sup>의 결실과 고(故) 병사(兵使) 오정방(吳定邦)<sup>197</sup>이 항언(抗言)한 혼조(昏朝)<sup>198</sup>의 절의(節義)를 다시 아뢰어 증직(贈職)을 청하였다.

그 때에 윤시동(尹蓍東)이 새로이 우상(右相)을 임명받고 연백(筓白)<sup>199</sup>에서 유생(儒生) 한유(韓鑰)가 죽음을 무릅쓰고 올린 한 장의 소장(疏章)으로 역신(逆臣)을 치는 근본이 되었으니 신원(伸冤)<sup>200</sup>하고 증직(贈職)해 줄 것을 청하였다. 이 한유(韓鑰)는 곧 영조 때 홍봉한(洪鳳漢)을 벨 것을 주청(奏請)한 사람이다.

自今以後 膽強鑄黜之若有餘孽者 皆敢生心覬覦投袂而起接踵而來 侮弄我國法 乖亂我世教 則其爲 宗社 日後之禍 將如何哉 上復命本曹 書頒積復官教旨 府君復上筓諫 丙辰二月 因次對 覆奏故掌令李恒學問操履之實 故兵使 吳定邦抗言昏朝之節 請贈職時尹公蓍東 新拜右相 筓白以儒生韓鑰 辦死一疏 爲討逆根本 請伸冤贈職 鑰卽 英廟朝 請斬洪鳳漢者也

192) 죄를 지은 사람의 벼슬을 떼고 내침.

193) 왕명(王命)을 받아서 전달하는 관청(官廳)을 뜻함.

194) 조선시대 정부당상(政府黨上) 대간(臺諫) 옥당(玉堂)들이 매월 여섯 차례 입시(入侍)하여 정무(政務)를 상주(上奏)하던 일.

195) 1499(연산군 5)~1576(선조 9).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성주(星州). 자는 항지(恒之), 호는 일재(一齋). 당시의 학자 백인결(白仁傑)은 이항의 학문이 조식(曹植)에게 비길만하다고 칭찬하였다. 당시의 대학자인 기대승(奇大升)·김인후(金麟厚)·노수신(盧守愼) 등과 교류하면서 학문의 질을 높였다. 성리학에도 조예가 깊어 이기(理氣)를 논함에 있어 이와 기, 태극과 음양을 일체라고 주장해 이항(李滉)의 비평을 받기도 하였다. 1566년(명종 21) 명경행수(明經行修)하는 선비를 뽑을 때 첫 번째로 추천되어 사축승전(司畜承傳)에 임명되었다. 왕에게 진학(進學)과 지지(致知)하는 방법을 진언하여 칭찬을 받았다. 선조 초년에 의빈경력을 지내고 선공감부정·사용원정을 역임하였다. 1574년(선조 7) 사헌부장령을 거쳐 장악원정을 지냈으나 병이 악화되어 사퇴하고 돌아왔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고, 태인의 남고서원(南臯書院)에 제향되었으며, 저서로는 《일재집》이 있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196) 몸가짐 품행. 평소의 행동거지를 말하니, 操(조)는 마음의 지키는 바이고, 履(이)는 몸의 행하는 바를 말한 것이다.

197) (1552~1625) 선생은 조선 선조, 인조의 때 무신으로 자는 영인, 호는 퇴정당, 본관은 해주로 수천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수역에게 입양됨. 부령부사, 정평부사, 지증추부사 겸 부총관, 포도대장, 군기시계조를 역임했다. 선조 37년(1604)에 전라도 병마절도사로, 이듬해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황해도 병마절도사 등을 역임했고 광해군때 폐모론이 일어나자 사직, 1623년 인조반정 후 포도대장 경상좌도 병마절도사를 지냈고, 이괄의 난 때는 인조를 공주에 호종했다. 병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정무이다. 비는 숙종 25년(1699년) 7월에 세워진 것으로 비문은 이경석이 글을 짓고 김수증이 글씨와 전을 맡았다.

198) 임금이 혼미(昏迷)하여 국가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조정.

199) 연석(筓席)에서 강론할 때 이와 관련된 사회 정치적인 문제를 주청(奏請)하는 일.

200)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 버림.

201) 조선 시대 승정원(承政院)을 달리 부르는 말.

이 무렵 신기(申耆)는 승지(承旨)로서 그 것을 숨기고 반포(頒布)하지 않았다. 이에 부군(府君)이 그 소식을 듣고 신기(申耆)를 은대(銀臺)<sup>201</sup>에서 빼어나서 신기(申耆)가 투소(投疏)한 것을 보니 자명(自明)하였다.

부군(府君)이 상소(上疏)하여 말하기를,

대저 은대(銀臺)란 것은 나라의 후설(喉舌)이니 출납(出納)이 오직 진실함이 바로 그 직분일 뿐입니다. 하물며 저 대신(大臣)이 진실한 한 조항(條項)은 실지로 명의(明義)의 큰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히 그 안에서 끊어내어 버려놓고 반포(頒布)하지 않으니 오직 진실해야 할 의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수십 년을 지나오면서 훈도(熏焔)<sup>202</sup>의 전염(傳染)이 이미 굳어지고 속폐(俗弊)의 교고(膠固)<sup>203</sup>를 고치기 어렵습니다. 바야흐로 성조(聖朝)를 맞이한 처음에는 청명(清明)한 모임으로 의리가 밝혀지고 오히려 관망하는 걱정으로 성토(聲討)<sup>204</sup>가 준엄하였습니다.

또한 용감하게 나가서 적개(敵愾)하는 형세가 없는 신(臣) 같이 어리석고 비천한 사람도 격양(激揚)하고 진퇴하는 책임으로 우리 성상(聖上)께서 위비(委畀)<sup>205</sup>한 은혜에 보답코자 하였습니다.

그 이와 같이 망연하여 한 작은 배가 큰 바다의 바람 물결에 부딪히어 넓고 나루가 없어서 노 저을 바를 모릅니다. 이처럼 망녕되게 구구한 전필(銓筆)<sup>206</sup>로써 조금이라도 여탈(與奪)의 의리를 본 받으니 매우 어리석고 고지식합니다.

라고 하였다.

申耆以承旨 匿不頒布 府君聞之 拔耆銀臺 望耆投疏自明 府君上疏 曰夫銀臺者 國之喉舌 出納惟允 乃其職耳 況夫大臣之所陳一條 實爲明義之大關鍵 而乃敢從中割斷 掩置不頒 惟允之義 果安在哉 歷數十年 熏焔之傳染已固 俗弊之膠固難醫 方值聖朝一初 清明之會 而義理非不闡明矣 猶有却立觀望之憂 聲討非不峻嚴矣 亦無勇往敵愾之勢 則如臣庸闇淺陋者 乃敢當激揚進退之任 欲有粗酬於我 聖上委畀之恩 則茫然若一葦之抗大海風濤 浩無其津 而維楫不知所施矣 妄以區區銓筆 稍自效與奪之義 甚愚且戇矣.

202) 구워 삶다. 즉 세뇌(洗腦)됨을 뜻함.

203) 아교를 붙인 것처럼 굳음.

204)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논의함.

205) 나라의 큰일을 신하에게 맡김.

206) 여러 가지 일을 뽑아내어 기록한 글.

정사(丁巳,1797)년 여름에 부군(府君)이 지돈녕(知敦寧)으로써 좌우참찬(左右參贊)을 임명받고 춘천(春川) 땅에 남시어 목욕할 것을 청하니 왕께서 시(詩)를 하사(下賜)하여 총애하였다.

10월에는 겸홍문제학(兼弘文提學)으로 다시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임명받았다.

무오(戊午,1798)년 정월(正月)에 사소(辭疏)를 올려 체직(遞職)되었다.

8월에 양양(襄陽)에 휴양하고 목욕할 것을 청하여 곧바로 동쪽으로 풍악(楓嶽)에 유람하였다. 그 떠날 무렵에 왕께서 또 시(詩)를 보내오고 간성(杆城)에 도착하여 복상(卜相)<sup>207)</sup>을 명하여 부군(府君)을 우의정(右議政)으로 삼았다. 이것은 옛 사람이 시중대(侍中臺)에 있었던 일을 인용하여 사관(史官)을 보내어 산중(山中)에서 선유(宣諭)<sup>208)</sup>하였다.

9월에 노호(鷺湖)에 돌아와서 다섯 차례 소장을 올려 사직하였으나 왕께서 돈면(敦勉)<sup>209)</sup>하고 윤택하지 않았다.

10월에 비로소 숙명(肅命)<sup>210)</sup> 비궁재전(闕宮齋殿)에 입시(入侍)하여 아뢰기를,

명덕(明義) 1부(部)의 글은 곧 지금 시대의 춘추(春秋)<sup>211)</sup>입니다. 따라서 서전(敍典) 질례(秩禮)가 여기 있고 명덕(命德)<sup>212)</sup> · 토죄(討罪)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의(義)가 큰 것은 해와 별이 높은 것과 같고, 그 뜻이 심오한 것은 사발(絲髮)의 가늘고 같으나 가르침은 일세(一世)에 들어 보이고 법은 천추(千秋)에 드리우는 것입니다.

丁巳夏 以知敦寧 拜左右參贊 請沐浴春川地 上賜詩寵之 十月兼弘文提學 復拜吏曹判書 戊午正月辭得遞 八月請休沐襄陽 仍東游楓嶽 其行也 上又以詩送之 行到杆城 命卜相爲右議政 用古 人侍中臺故事 遣史官 宜諭于山中 九月還鷺湖 五上疏辭 上敦勉不許 十月始肅 命入侍于闕宮齋殿 奏曰明義一部書 卽今代之春秋也 叙典秩禮之在是 命德討罪之在是 蓋其義之大者 炳如日星之高 其旨之奧者 婉如絲髮之微 所以揭訓一世 垂法千秋者也

207) 새로 정승이 될 사람을 추천하여 가려 뽑음.

208) 임금의 유지(諭旨)나 훈유(訓諭)를 백성에게 널리 알려 공포(公布)함.

209) 임금이 교지(教旨)를 내려 사람들을 타일러 위로하고 독려하는 일.

210) 임금의 은명(恩命)에 사례하여 숙배함.

211) 오경(五經) 가운데 하나이다. 경문(經文)이 1,800여 조(條), 1만 6500자(字)로 이루어진 최초의 편년체(編年體) 역사서로서, 춘추시대 노(魯)나라 은공(隱公)으로부터 애공(哀公)에 이르기까지 12공(公) 242 년간의 기록을 담고 있다. 본래는 단행본이었지만 지금은 주석서인 춘추삼전(春秋三傳 : 公羊傳·穀梁傳·左氏傳)의 부속 형태로 전하고 있다. '춘추'라는 말은 시간의 추이(推移)를 상징한 춘하추동(春夏秋冬)의 약어로서 '일 년간(一年間)'이라는 뜻인데, 본래는 주 왕조(周王朝) 치하 각 제후국의 독자적인 편년사를 가리키는 통칭이었으며, 《오월춘추 吳越春秋》·《여씨춘추 呂氏春秋》·《십육국춘추 十六國春秋》 등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12) 덕이 있는 사람을 벼슬에 임명함.

따라서 이 글을 읽지 않으면 무엇으로 임금을 섬기고 조정에 설수 있겠습니까. 또한 무엇으로 선비라고 명분(名分)하여 주려(州閩)<sup>213</sup>에서 행세할 수 있겠습니까. 햇수가 내려오면서 이 책이 속각(束閣)<sup>214</sup>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때문에 난적(亂賊)을 성토하지 못하고 명의(名義)가 나타나지 못하니 신(臣)은 마음에 사무쳐 치를 떠는 것입니다. 진실로 의리를 밝히고 사기(士氣)를 진작시키면서 마땅히 먼저 절의(節義)의 선비를 따라서 그들을 표장(褒獎)하고 무너진 풍속을 되살려서 풍성(風聲)<sup>215</sup>을 심어야 합니다.

고(故) 승지(承旨) 임위(任瑋)은 일찍이 장헌세자(莊獻世子)를 위하여 궁관(宮官) 및 세자(世子)가 죽었을 적에 호읍(湖邑)에 있으면서 그 소식을 듣고 통곡하면서 굶어 죽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 1품에 해당하는 관직(官職)을 증직(贈職)하여 절혜(節惠)<sup>216</sup>의 법을 펴야 합니다. 그리고 고(故) 유생(儒生) 한유(韓鑰)는 초야(草野)에 충의(忠義)이니 일찍이 상신(相臣)이 건백(建白)<sup>217</sup>한 바 또한 마땅히 그의 아들에게 증관(贈官)을 더해야 합니다.

고 청하니 왕께서 모두 그 말을 따랐다. 또 말하기를,

옛 적에 정부자(程夫子)는 송정전(崇政殿) 설서(設書)<sup>218</sup>로서 좌강(坐講)<sup>219</sup>의 법을 청하고, 주부자(朱夫子)는 남헌(南軒)을 권장하여 야대(夜對)<sup>220</sup>의 법을 청하였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상하(上下)가 서로 더불어 할 즈음에 의절(儀節)을 간략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화합이 집안의 부자(父子)와 같은 아름다움이 있다면 천지(天地)가 크게 통하고 사방(四方)이 융화하니 그러려고 안 해도 그런 것입니다.

不讀是書 則何以知事君 而立於朝廷也 又何可名以士 而行乎州閩也哉 年來此書之束閣久矣 由是而亂賊不討 名義不章 臣所以凜然而寒心者也 苟欲明義理 而作士氣宜先從節義之士 褒獎之以聳 頽俗以樹風聲矣 故承旨任瑋 常爲 莊獻世子 宮官及 世子薨 瑋在湖邑聞之 痛哭不食死 宜贈一品職 施以節惠之典 故儒生韓鑰 草野忠義 曾爲相臣所建白 亦宜加贈官其子 上皆從之 又曰昔程夫子 以崇政殿說書 請行坐講之規 朱夫子 勸張南軒 講以夜對之法 盖其上下相與之際 簡其儀節 融然有家人父子之美 則天地交泰 四方訢合 不期然而矣

213) 마을 향당(鄉黨) 향리(鄉里) 촌락(村落).

214) 묶어서 고각(高閣)위에 놓아둠.

215) 풍화(風化) 아래 사람이 위사람의 덕에 감화되어 선량하게 되는 것.

216) 절일(節壹).임금이 죽은 신하에게 시호를 주는 일.

217) 주창하는 사람을 진술하여 왕에게 아뢰.

218) 조선시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소속된 정8품의 관직. 세자에게 경사(經史)와 도의(道義)를 가리키는 직책이었음. 중국 송대(宋代)에 설치된 관직. 경서(經書)를 임금에게 강의하는 일을 담당하였음.

219) 모여 앉아서 강론(講論)함.

220) 임금이 밤중에 신하를 불러서 경연(經筵)을 베풀어 경사(經史)의 고금(古今)치란(治亂)에 대하여 강(講)하던 일.

지금에 법강(法講)을 오래도록 비운 것은 못 신하들이 성의(聖意)를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소대(召對)<sup>221)</sup> · 야대(夜對)하여 경적(經籍)을 토론하고 득실을 자문하는 것은 곧 태평한 세상의 아름다운 규범이요, 영주(令主)의 성절(盛節)입니다. 이와 같이 성학(聖學)에 도움이 있고 원자(元子)를 가르쳐 이끄는 한 도(道)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하(殿下)께서 왕위에 오르신 이래로 천리(天理)를 밝히고 인심(人心)을 바르게 하였으며 우리의 도(道)를 호위하고 이단(異端)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맑음과 간사함을 엄하게 하고 아름다움과 이로움을 구분하여 강목(綱目)을 크게 한 것이 뚜렷하게 춘추(春秋)의 수십 대의(大義)와 같았습니다.

따라서 햇수가 지내오면서 꺾이고 빠진 것을 깨끗이 치운 공(功)은 가히 사악하고 더러운 것을 털어내 청명(清明)함을 일깨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세(世)의 경사대부(卿士大夫)가 마땅히 순수하게 쇠락광명(灑落光明)<sup>222)</sup>한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조정의 상황이 날로 더욱 퇴락(頹落)하고 사습(士習)이 날로 더욱 더러워졌습니다. 추향(趨向)하는 도(道)는 혹 둘 셋으로 갈라지고 혹은 표방(標榜)을 지어내고 공공연하게 저배(觝排)<sup>223)</sup>를 자아내고 보루를 대치하듯 하였습니다. 얼마 전 비지(批旨)중에 「사람들이 각각 자기 마음을 위한다.」는 교지(教旨)는 굽어 살펴보니 남음이 없습니다.

法講之久曠 群下非不知 聖意 而如召對夜對之討論經籍 詢諮得失 卽昭代之懿範 令主之盛節 固將有裨於 聖學 而亦爲教迪 元子之一道矣

又曰 殿下臨御以來 明天理正人心 衛吾道闢異端 嚴淑慝辨美利 宏綱大目 炳乎如春秋之數十大義 而年來廓清摧陷之功 可以振盪邪穢 鼓發清明 一世之卿士大夫 宜其粹然 同歸於灑落光明之域 而奈之何 朝象日益頹 士習日益渝 所趨之道 或貳或參 而或做出標榜 公肆觝排 有若對壘者然 向來批旨中人 各爲心之教 俯燭無餘矣

221) 임금의 부름에 응함. 왕명으로 입대(入對)하여 정사(政事)에 관한 의견을 상주함.

222) 기분이 상쾌하여 시원하고 광명(光明)함.

223) 헤침. 물리침.

청컨대 성교(聖敎)의 한 두 단락에 나아가서 우러러 아뢰는 것이 옳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하수(河水)에서 물을 각각 그 양(量)을 채운다고 말 하지만 동일한 것은 하수(河水)를 마시는 것이며 다른 것은 그 양(量)의 대소(大小)입니다. 지금에 가령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즐겁게 쓰라고 한다면 같은 것은 명(命)을 쓰는 것이지만 다른 것은 용겁(勇愒)<sup>224</sup>의 장단(長短)일 뿐입니다.

만약에 무리들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한다면 경수(涇水)와 위수(渭水)를 구분하지 않고 오직 그 양(量)을 채우고자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마다의 용겁(勇愒) 장단(長短)이 각각 사사로움을 빙자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용명(用命)<sup>225</sup>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충족함과 그 양(量)이 어디에 있어서 즐겁게 쓰는 효과가 된다고 하겠습니까.

또 약(藥)을 효능에 따라 처방하고 난 뒤에 지화(芝禾)<sup>226</sup>를 아울러 쓸 수 있고 그릇을 만들어 완성한 뒤에 뚜껑과 밑받침을 서로 문합(脗合)<sup>227</sup>합니다. 따라서 추향(趨向)할 즈음에 그들을 인도하여 빠르게 하고 하나의 길에 나오게 한다면 이것이 명의(命意)이며 성제(成制)입니다. 신(臣)은 어리석고 고루하여 백에 하나도 아는 것이 없지만 이러한 의(義)를 군자(君子)에게 대충 들었습니다.

엿드려 원하옵건 데, 전하(殿下)께서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근심하지 말고 다만 그들을 하나로 하는 도(道)를 다하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소서. 또한 기꺼이 그들을 쓰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오직 천만인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을 준칙(準則)으로 하소서. 인하여 가지런하지 않은 풍속을 가지런하게 하고 조화롭지 못한 형상을 조화롭게 한다면 오염된 풍속을 씻으려고 기약하지 않아도 스스로 씻기고 기강(紀綱)을 세우려고 기약하지 않아도 스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請就 聖敎一二段 仰復可乎  
群飲于河 各充其量云者 所同者飲河 而所異者量之大小也  
今假使人人 樂爲之用 所同者用命 而所異者 勇愒長短爾  
如使群飲 而不分涇渭 惟其量之欲充 勇愒長短 各憑其私 而曰吾用命云乎 則烏在其充其量 樂爲用之效乎 且藥有命意而後 芝禾可以並用 器有成制而後 盖底可以相脗 趨向之際 導之使正 出於一塗者 命意也 成制也 臣之愚陋 百無一識 而粗聞斯義於君子矣  
伏願 殿下 勿患乎人各爲心 而但患所以一之之未盡其道 勿喜其樂爲之用 而惟以千萬人之同心爲準則 以齊不齊之俗 以靖不靖之象 則汚俗不期洗而自洗 紀綱不期立而自立矣

224) 용맹스러움과 겁이 많음을 뜻함.

225) 명령(命)에 따라 잘 받음.

226) 지초(芝草)와 가화(嘉禾). 송사(宋史) 의위지(儀衛志)에 대관3년(大觀三年, 1109) 서경(西京) 영양현(潁陽縣) 대경관(大慶觀) 성조전(聖祖殿) 동쪽에 가화(嘉禾)와 지초(芝草)가 나란히 자라났다. 그 가화(嘉禾)의 한 줄기에 4개의 이삭이 나오고, 지초(芝草) 잎이 둥글게 거둬 피어났다. 이에 왕께서 조서(詔書)를 내려 지화(芝禾)가 아울러 빼어남을 제술(製述)하라고 하였다. 곧 구분 할 수 있음을 뜻함.

227) 어떤 일이 꼭 맞음을 뜻함.

라고 말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인재(人才)를 기르려면 나라가 먼저 성주(成周)<sup>228</sup>때에 빈흥(賓興)<sup>229</sup>이 승상된 것을 힘써야 합니다. 현량(賢良)<sup>230</sup>과 효렴(孝廉)<sup>231</sup>의 선발을 하려면 근고(近古)에 두 인물이 걸출하게 서로 바라보니 주방(廚房)의 무리에게 이르기까지 그 유풍(遺風)이 남아있음을 가히 후세(後世)에도 상상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인재(人材)가 비록 묘연(眇然)하다고 하지만 우선 덕행(德行)·모유(謀猷)·문장(文章)·이술(吏術)<sup>232</sup> 등의 제목으로 문호(門戶)를 분작(分作)하면 성문(聖門)의 사과(四科)<sup>233</sup>와 같은 것입니다. 무릇 수요가 있어 그 과(科)를 따라서 사용하면 한 시대의 사람이 족히 한 시대의 일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저 평소에 양성함이 없어서 비축이 충분하지 못할까 근심합니다. 어떠한 일이 생겨서 뛰어난 재능을 구하면 묘당(廟堂)의 천섬(薦剡)<sup>234</sup>과 전조(銓曹)<sup>235</sup>의 주의(注擬)<sup>236</sup>로 급하게 되어서 추천한다면 안배하고 조치하기를 어찌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인재를 얻어서 서적(庶績)<sup>237</sup>이 빛나기를 바라겠습니까? 삼대(三代)때 학교의 정사(政事)는 급하게 논하기는 어렵지만 한(漢)나라 조정에 효렴(孝廉)과 송(宋)나라 조정에 보거(保舉)<sup>238</sup>의 법(法)을 모방하여 닦아 윤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에 못 의론(議論)을 채택하여 과조(科條)<sup>239</sup>를 설치하고 유학(幼學) 장행(壯行)의 선비로 하여금 기모(企慕)하고 흥기토록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해당하는 관리가 재능을 선택할 즈음에 고거(考據)하여 칭정(稱停)<sup>240</sup>할 수 있습니다.

又曰培養人才 有國先務成周賓興尙矣 賢良孝廉之選 猶爲近古而兩漢人物 傑然相望 降至廚及之流 其遺風餘韻 皆可像於後世耳

今之人才 雖曰眇然 若先以德行謀猷 文章吏術等題目 分作門戶 有如聖門之四科 凡有所需 隨其科而用之 則一代之人 自足以了一代事 特患夫養之無素 儲之不富 及乎有事而求倚辨 則廟堂之薦剡 銓曹之注擬 臨急推遷 按曆那顧 何望其得人才 而熙庶績乎 三代學校之政 雖難遽論 漢廷孝廉 宋朝保舉之法 尙可倣擬而修潤之 今若博采群議 略設科條 使幼學壯行之士 有企慕而興起 則當官擇材之際 有所考據 而稱停矣

228) 주공(周公)이 경영한 도읍지(都邑地).

229) 중국 주(周)나라 시대에 인재(人才)를 선발하여 천거하는 법(法)으로 시골에 있는 현능(賢能)한 사람을 추천하여 빈례(賓禮)로 국학(國學)에 올리는 제도.

230) 과거(科擧)의 시험 과목의 하나.

231) 한대(漢代)의 관리(官吏)의 특별임용의 한 가지.

232) 행정(行政)의 기술.

233) 공자(孔子) 문하의 네 가지 학과. 덕행(德行)·언어(言語)·정사(政事)·문학(文學)이 이에 해당함.

234) 인재(人材)를 천거하는 공적인 편지.

235) 조선 시대 문무관의 선발을 담당하는 이조(吏曹)와 병조(兵曹)를 일컫는 말.

236) 관원(官員)을 임명할 때에 먼저 문관(文官)은 이조(吏曹), 무관(武官)은 병조(兵曹)에서 임용예정자 수의 3배수(三望)를 정하여 임금에게 올리던 것.

237) 모든 공적(功績). 238) 관리를 임용할 때 재주가 있거나 공로가 많은 사람을 자기가 책임지고 임금에게 천거하던 일. 곧 거주(舉主)가 후보자를 보증·천거하던 일.

239) 조목별로 된 법률(法律)·명령(命令)·조례(條例)·규칙(規則). 240) 저울대가 평평하게 멈춘 상태. 매우 공평함을 뜻함.

또 아뢰기를,

이단(異端)을 내치고자 하면 마땅히 정학(正學)을 주창해야 합니다. 신(臣)은 언제나 성유(聖諭)<sup>241</sup>를 받들어 격앙된 음조(音調)로 장엄하게 외우면서 스스로 말하였습니다. 추성(鄒聖)<sup>242</sup>은 한사람의 선비로되 양묵(楊墨)<sup>243</sup>이 길을 막았건만 오히려 그들을 내쳐廓여(廓如)<sup>244</sup>한 듯 하였다.

우리 전하께서는 정일(精一)한 전통을 이어서 군사(君師)의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란하고 급격한 변화가 날로 사방에 들리고 음란하고 사악한 말이 매양 삼척(三尺)<sup>245</sup>에게까지 간여한다면 그 말을 구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얻지 못할 것입니다.

신(臣)이 듣기로 성왕(聖王)의 정치는 안으로는 닦고 밖으로는 내쳐야 합니다. 따라서 저 정학(正學)을 주창하는 것을 비유하면 안으로 닦는 것이며 이단(異端)을 내치는 것을 비유하면 밖으로 내치는 것입니다. 인하여 그 하나를 거론하고 그 하나를 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에 이른 바 양학(洋學)이 가까이는 여항(閭巷)에 들고 멀리서 향읍(鄕邑)에 있으면서 그 말을 의혹하여 그들의 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법이 날로 불어나고 달로 성하니 대비책을 급하게 도모하지 않는다면 저 화란(禍亂)의 조짐이 보고 들을 수 없는 곳과 생각이 미치지 못 하는 곳에 모르게 자라납니다. 따라서 하루아침에 준조지척(樽俎咫尺)<sup>246</sup>의 사이와 해산(海山) 수 천리의 밖에서 갑자기 일어나도 모두 알 수 없습니다.

옛 사람 추성(鄒聖)이 양묵(楊墨)을 물리치니 그 공(功)을 대우(大禹)<sup>247</sup>가 홍수(洪水)를 다스리는 것과 비기었습니다. 바야흐로 홍수가 범람할 때에 먼저 도끼와 낫을 가지고 용문(龍門)을 벽개(劈開)<sup>248</sup>하여 그 단수(湍水)를 다스리니 이것은 우왕(禹王)의 공(功)이 스스로 일어난 것입니다.

又曰欲闢異端 宜倡正學 臣每奉 聖諭 激越莊誦 而自語 曰鄒聖匹士也 楊墨塞路 猶闢之廓如也 我殿下 承精一之傳 臨君師之位 動盪鼓鑄之化 日聞四方 而詖淫邪遁之說 每干三尺 則可謂求其說 而不得也 臣伏聞聖王之爲政 內修而外攘 夫倡正學譬之 則內修也 闢異端譬之 則外攘也 其可舉其一 而廢其一乎 今所謂洋學 近入閭巷 遠在鄉邑 惑其說而傳其法者 日滋月盛 此而不急圖之 則噫彼禍亂之機 潛長於耳目之所不加 思慮之所不及 而一朝卒然發於樽俎咫尺之間 海山數千里之外 皆不可知也 昔人 以鄒聖之闢楊墨 擬其功於大禹之抑洪水 方洪水之汎濫也 先以斧斤 劈開龍門 以殺其湍 此禹之功所自起也

241) 임금의 칙유(勅諭).

242) 맹자(孟子)를 일컬음.

243) 중국 주말(周末)의 학자. 양주(楊朱)와 목적(墨翟). 양주(楊朱)는 이기설(利己說). 목적(墨翟)은 겸애설(兼愛說)을 주창(主唱)했는데 맹자(孟子)는 이를 사설(邪說)이라 하여 배척(排斥)했음.

244) 텅 빈 모양. 활짝 열려 큰 모양.

245) 3척(尺)의 키가 되는 6~7세의 아이.

246) 술그릇과 도마의 사이와 같이 가깝고 친밀하게 국교(國交)가 맺어짐을 뜻함.

247) 중국 고대(古代)의 우왕(禹王)을 높혀 일컬음.

248) 적당하게 쪼개어서 개척함.



지금에 양학(洋學)<sup>249</sup>을 다스린다면 또한 이법을 써야합니다. 이와 같이 정확(正學)이 한번 밝으면 이단(異端)은 내치지 않아도 스스로 멸식(滅熄)될 뿐입니다. 이것은 평성(坪城)을 포위한 가운데에서 간우(干羽)<sup>250</sup>의 춤을 펼치자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따라서 각별히 가져야 할 성념(聖念)인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1월에 부군(府君)이 상직(相職)을 해임하라는 대장(臺章)<sup>251</sup>을 세 차례 받았다. 이 먼저 성덕우(成德雨)가 삼전(三銓)으로 홍수영(洪守榮)등의 향관(享官)<sup>252</sup>을 의의(擬議)<sup>253</sup>하니 왕께서 국문(鞠問)하여 성덕우를 원도(遠道)에 귀양보냈었다. 부군(府君)이 그때에 전장(銓長)<sup>254</sup>으로 있었는데 이에 성덕우가 부군(府君)에게 정항(抵抗)하는 자명서(自明書)를 가지고 임금 앞에서 진폭(陳暴)<sup>255</sup>하여 임금이 성덕우를 석방하라고 명령하였다.

따라서 대신(臺臣)이 그에 대한 대비가 엄격하지 못한 허물을 부군(府君)에게 돌린 것이다. 이에 부군(府君)이 차자(劄子)를 올려 자인(自引)<sup>256</sup>하기를,

신(臣)이 부복(府伏)하고 생각하니 옛적 엄격한 그 자리에 의리(義理)의 미묘함을 들추어내서 충역(忠逆)의 구분을 밝혔습니다. 이로 하여금 한 세대의 경사대부(卿士大夫)가 뚜렷하게 추사(趨捨)<sup>257</sup>의 즘음에 미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반야(半夜)에 뇌성(雷聲)을 되돌리고 천문(千門)의 취몽(醉夢)을 일깨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큰 성인(聖人)의 역량은 천지(天地)와 같거늘 그 대신(大臣)이라도 어찌 감히 그 즘음을 엿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덕우는 한 미혹하고 어두운 사람일 뿐입니다.

則今之治洋學 亦須用此法 若曰正學一明 則異端不關 而自熄云爾 則是何異平城圍中 欲振干羽之舞者乎 是宜深軫 聖念也 十一月 被臺章三求解相職 先是成德雨 以三銓擬洪守榮等享官 上臨門鞫德雨 竄于遠道 府君卽其時銓長也 至是以德雨 抵府君自明書 陳暴于上前 上命釋德雨 臺臣以堤坊不嚴 咎府君 府君上劄自引 曰臣竊伏以爲昔者之 嚴處所以闢義理之微 明忠逆之辨 俾一世卿士大夫 曉然不迷於趨捨之際 是可謂回半夜之雷聲 喚千門之醉夢耳 猗歟 大聖人力量 與天地同其大臣何敢窺其際 而德雨 卽一迷闇者耳

249) 서양학(西洋學). 곧 예수의 학설을 뜻함.

250) 춤추는 사람이 손에 드는 무구(舞具). 간(干)은 방패로 무무(武舞)를 추는 사람이 들고 우(羽)는 새의 깃으로 문무(文舞)를 추는 사람이 드는 적(翟)을 가리킴. 또는 무무(武舞)와 문무(文舞)를 가리키기도 함.

251) 대간(臺諫)의 장소.. 252) 국가에서 집행(設行)하는 각 능전(陵殿) 등의 제사(祭祀)를 맡아 보는 제관(祭官).

253) 말하기 전에 의논하는 것을 의(擬)라 하고 실행하기 전에 의논하고 평가하는 것을 의(議)라 함으로 의의(擬議)는 어떤 일의 계획이나 실행에 앞서서 토의하는 일을 말함.

254) 조선 시대에 문·무관의 인사 행정을 담당했던 이조·병조의 판서(判書)를 이르던 말.

255) 진술하여 폭로함. 256) 자신의 죄과를 스스로 진술함.

257) 취하고 버리는 일.

그 일이 아직 발각되지 않을 때에 신(臣)에게 글을 주어서 본심(本心)이 그렇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그 무렵에 신(臣)은 그 무지망작(無知妄作)하다고 여기어 오히려 원서(原恕)<sup>258</sup>의 거론(學論)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심중(心中)에 물체가 부딪히어 있는 듯 지내왔습니다. 이에 성덕우가 숨김없는 의리로 거연(居然)<sup>259</sup>하게 성자(聖慈)<sup>260</sup>의 앞에서 우러러 진술한 사람입니다.

또한 나름대로 생각하니 금일(今日)의 사사(肆赦)<sup>261</sup>는 진실로 대의(大義)에 손상 없이 밝게 나타난 것입니다. 무능한 한 사람의 성덕우를 불쌍하게 여긴 것도 성조(聖朝)가 세신(世臣)을 감싸주는 충분한 단서가 될 뿐입니다. 이에 대계(臺啓)<sup>262</sup>가 신(臣)을 내치건만 비로소 두려워하여 땀이 등에 젖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따라서 어찌 감히 스스로 용서하여 모두 우러러보는 자리에 함부로 차지하고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였다.

왕께서 답하여 말하기를,

경(卿)의 연주(筵奏)로 이미 그 탕탕(蕩蕩)한 심중(心中)을 다하여 나온 것을 알았거늘 어찌 스스로 탓하기를 이와 같이 하는가.

라고 하셨다.

기미(己未, 1799)년 정월(正月)에 호위대장(扈衛大將) 겸내영도제조(兼內營都提調)를 제수(除授)받았다. 구례(舊例)에 훈척(勳戚)이 아니면 이 직임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감히 명에 응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양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2월에 특교(特敎)<sup>263</sup>를 내려서 부군(府君)을 경모궁사직(景慕宮社稷) 군자감도제조(軍資監都提調)로 삼았다.

258) 정상 참작. 정상을 동정하여 용서함.

259) 어떠한 일에 움직이지 않는 모양.

260) 임금이나 왕비를 높여 부르는 말로 주로 임금이나 왕비의 인자함을 강조할 때 사용함.

261) 죄를 용서하여 사면(赦免)함.

262) 조선 시대 대간이 논하여 아뢰는 일. 특히 관리의 잘못을 지적하여 유죄임을 밝히려고 임금에게 올리는 계사(啓辭).

263) 임금이 특별히 내리는 명령.

當其事未發之時 貽書於臣 明其本心之不然 臣或意其無知妄作 而猶不得爲原恕之論矣 只緣心中 如有物觸類而來 乃以無隱之義 居然仰陳於 聖慈之前者 又竊伏以爲今日之肆赦 固無損於大義 昭揭而矜不能 於一德兩者 亦足爲 聖朝庇世臣之一端故耳 及夫臺啓出臣 始瞿然不覺惶汗之浹背也 詎敢自恕 而冒居具瞻之地乎 答曰卿之筵奏 已量其無適莫空蕩蕩中出來 何必自咎乃爾 己未正月 除扈衛大將 兼內營都提調 舊例非勳戚 不得是任 不敢膺 命 巽辭不許 二月以 特敎 爲 景慕宮社稷軍資監都提調

3월에 왕께서 정치달(鄭致達)의 아내의 죄명(罪名)을 유석(宥釋)<sup>264</sup>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부군(府君)이 상소하여 그 일을 따지니 왕께서 과직(罷職)을 명하였다가 이윽고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서복(叙復)<sup>265</sup>하였다. 부군(府君)이 다시 상소하여 지난번의 청을 거듭 청하여 왕께서 윤음(綸音)<sup>266</sup>을 내려서 대신(大臣)들에게 통유(洞諭)<sup>267</sup>하였다.

부군(府君)이 비로소 왕명을 받들고 조정(朝廷)에 들어가서 윤음(綸音)가운데에 전유(全宥)·전석(全釋)이란 등의 교서(敎書)를 고치기를 청하니 왕께서 따랐다. 그리고 왕께서 부군에게 어영(御營) 장용영(壯勇營) 전의감약원(典醫監藥院) 도제조(都提調)를 제수하였다.

9월에 좌의정(左議政)을 임명받았으나 나이가 많고 정신이 희미하여 부첩(簿牒)을 다루지 못한다는 것으로 사양하였다.

왕께서 유시(諭示)하기를, 「사당(祀堂)에 대신 도울 사람을 힘써 찾아보라.」 하시고 「이미 고(故) 상신(相臣) 김치인(金致仁)의 전례(前例)가 있으니 편리에 따라 차대시(次對時)<sup>268</sup>를 이용하라.」 고 하셨다.

이에 부군(府君)이 아뢰기를, 「윤영희(尹永僖)가 비록 죄범(罪犯)이 있으나 일찍이 시종(侍從)<sup>269</sup>을 지냈습니다. 그의 아버지 나이가 노인직(老人職)을 당연히 가자하여야 하건만 오히려 비답(批答)을 내리지 않으니 다만 성조(聖朝)에 효리(孝理)의 정사(政事)가 아닙니다.」 고 청하니 왕께서 특별히 그를 윤휴하였다.

또 부군(府君)이 연주(筵奏)하기를,

원자(元子)에게 학문을 권장하는 것은 실지로 천하 만사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근일(近日)에 강관(講官)이 젊고 윤진(輪進)<sup>270</sup>을 자주 간략하니 그 훈도(熏陶)<sup>271</sup>절차(切磋)<sup>272</sup>의 방법에 간단할 때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264) 죄인을 용서하여 놓아줌.

265) 사직(辭職) 또는 죄를 지어 면관(免官)·과직(罷職) 되었던 사람을 서용(敍用)하여 복직시킴.

266) 국왕께서 국민에게 내리는 훈유(訓諭). 268) 온통 밝혀서 유시(諭示)함.

268) 조선시대 정부당상(政府堂上) 대간(臺諫) 옥당(玉堂)들이 매월 여섯 차례 입시(入侍)하여 중요한 정무(政務)를 상주(上奏)하던 일.

269) 시종관(侍從官). 임금을 수행하던 관리. 270) 경연(經筵)이나 서연(書筵)에 여러 벼슬아치들이 차례로 나아감.

271) 덕(德)으로써 사람을 감화(感化)시킴. 272) 부지런히 학문이나 도덕을 닦음.

273)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을 뜻함. 274) 임금이나 왕세자(王世子)의 학문에 대한 높임말.

三月上命有釋鄭妻罪名 府君上疏爭之 上命罷職 尋叙判中樞府事 復上疏申前請 上下綸音 洞諭諸大臣 府君始承命入朝 請改綸音中 全宥全釋等敎 上從之 除御營壯勇營典醫監藥院都提調 九月 拜左議政 以年老精銷 不嫻簿牒辭上諭以廟務替助 既有故相臣金致仁已例 命從便倣用次對時 奏曰尹永僖 雖有罪犯 曾徑侍從 而其父年過應資 尚不得下批 殊非 聖朝孝理之政 上特許之 又筵奏曰 元子勸學 實爲天下萬事之本 而近日講官員少 輪進數簡 其於熏陶切磋之方 或恐有間斷之時

모름지기 임야(林野)의 어진 사람을 돈독하게 부르고 단엄(端嚴)한 선비를 널리 선발하여 자주 강석(講席)<sup>273</sup>에 올라가야 합니다. 정이천(程伊川)이 말한 바 현사대부(賢士大夫)를 친할 때가 많으면 마땅히 예학(睿學)<sup>274</sup>에 도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강료(講僚)<sup>275</sup>가 다른 관직(官職)과 더불어 다른 의견이 있거나 다른 일로 인하여 과직을 당하게 되어도 그로 하여금 예(例)와 같이 배강(陪講)<sup>276</sup>케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돌아가는 차례를 생략하는 때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간하니 왕께서 기꺼이 받아들였다.

겨울에 성상(聖上)이 청백리(清白吏)를 초계(抄啓)<sup>277</sup>하라고 하였다. 이에 부군(府君)이 고(故) 상신(相臣) 서지수(徐志修)와 고(故) 판서(判書) 이병상(李秉常), 봉조하(奉朝賀) 김종수(金鍾秀)로써 응천(應薦)하였다.

경신(庚申, 1800)년 정월(正月)에 왕세자(王世子)를 책봉(冊封)하는데 부군(府君)이 겸세자부(兼世子傅)가 되었다. 이때에 조가(朝家)<sup>278</sup>의 의비(倚毗)<sup>279</sup>가 날로 더욱 중(重)하였다. 부군(府君)도 생사(生死)의 앞에서 이해 화복(利害禍福)으로 그 마음이 얽히지 않았다.

이 먼저 영조(英祖)가 종사(宗社)의 중요함을 위하여 성상(聖上)으로 효장세자(孝章世子)<sup>280</sup>의 후계로 삼았다. 그리고 전교하여 말하기를,

헤아리기 어려운 것은 세상일이다. 그 사설(邪說)을 잠식시키고 종통(宗統)을 바르게 하는 도(道)는 지금 하는 것만 같지 못하니 이것이 또한 만세에 영원토록 견고한 도(道)이다.

라고 하였다.

正須敦召林野之賢 博選端嚴之士 頻登講席 如伊川所謂親賢士大夫時多 則宜有裨於睿學 而且講僚與他官職有異 雖或因他事坐罷 亦使之如例陪講然後 可無輪次苟簡之時 上嘉納之 冬 上命抄啓清白吏 府君 以故相臣徐志修 故判書李秉常 故奉朝賀金鍾秀 應薦 庚申正月 冊 王世子以府君兼 世子傅 是時朝家之倚毗 日益重 府君亦生死向前 不以利害禍福 嬰其心 先是 英廟 爲念 宗社之重 仍以 上爲孝章世子後仍 教曰難測者世事 其在息邪說正宗統之道 不若今爲此 亦萬世永固之道也

275) 시장(侍講)을 맡은 관원(官員).

276) 임금이나 왕세자를 모시고 강(講)함.

277) 초록(抄錄)하여 상주(上奏)함. 곧 인재를 가려 뽑아서 아뢰는 것.

278) 조정(朝廷) 임금이 나라의 정치를 의논 또는 집행하는 곳. 또는 그에 따르는 기구.

279) 의지하고 신뢰함.

280) (1719~1728) 조선시대 추존왕(追尊王). 이름은 행, 자는 성경(聖敬). 영조의 맏아들로, 어머니는 정빈이씨(靖嬪李氏)이고, 사도세자(思悼世子)의 형이다. 1724년(영조 즉위년) 경의군(敬義君)에 봉하여지고 이듬해 왕세자에 책봉되었으나, 즉위하기 전 10세의 나이에 죽었다. 양자인 정조가 즉위하자 진종(眞宗)으로 추존되었다. 능은 영릉(永陵; 파주)이며 시호는 효장(孝章).

성상(聖上)이 춘저(春邸)<sup>281</sup>에 있을 때에 다시 글을 올려 이르기를,

만약에 부정(不逞)한 무리들이 추숭(追崇)의 논리를 늘어 놓기 시작 하였는데도 신(臣)이 종유(僇兇)<sup>282</sup> 망욕(妄欲) 하여 의리를 옮겨 바꾸었다면 실지로 전하(殿下)의 죄인이며, 종사(宗社)의 죄인이며 만고(萬古)의 죄인입니다. 이것은 성신(聖神)<sup>283</sup>이 주고 받는 즘음에 하나로 통합함을 중대하게 여기고 근본을 들로 하지 않는다는 의리입니다. 그 엄숙함은 부월(鈇鉞)과 같고 신실함은 금석(金石)과 같으니 백세를 기다려도 의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 ! 저 홍봉한(洪鳳漢)의 죄악이 지극하여 사군(嗣君)의 세대(世代)에 용납될 수 없음을 스스로 알았다. 따라서 추숭(追崇)<sup>284</sup>의 말을 주창하여 일분(一分) 스스로 속죄하는 처지가 되었다. 저 예감(睿鑑)<sup>285</sup>이 아주 밝아서 때를 잡고 감춰진 것을 살펴보셨다. 심지어는 상고하포(上告下布)<sup>286</sup>하고 사직(司直)<sup>287</sup>의 논리로 하여금 그들의 가까운 대열에 준엄하게 보내셨다. 그러나 홍봉한은 그 흉악한 계략을 거두지 않고 도당(徒黨)들을 불러 모아서 서로가 광혹(誑惑)하였다.

병신(丙申1776)년에 정조(正祖)께서 등극하니 덕사(德師)가 한결같이 배출되고 임금의 결단이 밝게 빛나니 그들이 혼란을 일으켜 왕위를 침탈하지 못하였다. 또한 사복(嗣服)<sup>288</sup>의 처음에는 감히 경솔하게 펼치지 못했다고 하지만 임금의 효성이 때로 옮겨가고 상황이 변한 뒤에 끝내 우리들이 뜻을 얻을 날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그들이 몰래 서로가 엮히고 섞여 꾀함이 더욱이 숨겨지고 홍봉한이 죽었으나 그 무리들이 오히려 소곤거리면서 서로가 모이였다.

上在春邸 又上章曰假使不逞之徒 肆發追崇之論 而臣乃爲其所僇兇 妄欲 移易義理 則實爲殿下之罪人 宗社之罪人 萬古之罪人 斯乃 聖神授受之際 大一統不貳本之義 嚴如鈇鉞 信如金石 有俟百世 而不惑者也 噫 彼洪鳳漢 自知其罪大惡極 無以自容於 嗣君之世 倡爲追崇之說 要以爲一分自贖之地 及夫睿鑑孔昭 炳幾察隱 至於上告下布 使司直之論 峻發於邇列 而鳳漢 不戢其兇圖 嘯聚徒黨 轉相誑惑 逮至丙申 登極 德師一和輩出 而 聖斷赫然 不可撓奪 則又敢謂 嗣服之初 雖不敢遽申 聖孝時移 事變之後 終必有吾輩得志之日 於是 潛相糾結 爲謀益秘 鳳漢死 其徒猶竊

281) 왕세자(王世子)가 기거하는 궁전. 혹은 왕세자를 달리 부르는 말.

282) 나서지 않고 분위기에 따라 가만히 있음.

283) 성자(聖子) 신손(神孫)을 말 함이니 곧 성군(聖君)의 자손을 가르치는 말.

284) 죽은 사람을 가리며 숭상(崇尚)함. 여기서는 뒤주에 갇혀 죽은 사도세자를 莊獻世子로 추숭하는 일을 말함.

285) 임금이 보는 것. 임금이 밝게 봄.

286) 나라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종묘(宗廟)에 아뢰고 국민에게 널리 공포하던 일.

287) 조선 시대의 5위(五衛)에 속하는 정5품의 무관직(武官職).

288) 왕위를 계승함.

한번 그 뜻을 풀고자 하고 또 추숭(追崇)을 미워하는 말이 그들에게서 나왔다.

홍봉한의 무리들은 채제공(蔡濟恭)을 편리하게 유인(誘引)하여 그로 하여금 앞장을 세우고 음(陰)으로 그를 위하여 주장 하였다. 채제공은 본시 그들의 첫 번째 사람으로 오직 이익만을 탐하였으나 곤궁하여 뜻을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화신(化身)<sup>289</sup>에 급하여 기꺼이 모의에 가담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무리 중 이우(李瑀) 등으로 하여금 상소(上疏)하여 「선세자(先世子)가 거짓말로 영조(英祖)를 압박(逼迫)하였다.」고 변론지어 상시(嘗試)<sup>290</sup>의 계획을 세우니 이른 바 임자만인소(壬子萬人疏)란 것이다. 이에 저 무리들이 때 지어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어울리니 그 재앙이 이른 바를 알 수 없었다.

이 무렵 몽오(夢梧) 김상국(金相國)이 연설(筵說)의 발어(跋語)<sup>291</sup>를 지어서 의리(義理)를 발휘하여 더 이상 사태가 확산되지 않았다. 따라서 임금은 버리가 되고 백성들은 떳떳한 도리를 행하여 힘입고 추락하지 않았다.

이듬해에 채제공이 영상(領相)이 되어서 스스로 한 소(疏)를 올렸다. 또 동호지필(董狐之筆)<sup>292</sup>이란 네 글자를 가지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자리에서 침범(侵逼)하였다. 이에 김공(金公)은 좌상(左相)으로 명을 받들지 않고 채제공의 소장(疏章)을 들었다.

곧바로 여질(昇疾)<sup>293</sup>로 나가서 토적(討賊)기로 채제공과 마주앉아 수백 마리의 말로 그 죄상을 열거하고 맹세코 함께 살고자 하지 않았다. 이에 왕께서 여러 번 화해하라고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따라서 왕께서 김공(金公)과 채제공(濟恭)을 파직하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모두 서용(叙用)하라고 명하였다.

竊然相聚 思欲一逞其志 又惡追崇之說 出於己也

以利誘蔡濟恭 使爲前驅 而陰爲之主 濟恭素以一番人 惟利是耽 而困不得意 急於化身甘心應募 乃使其徒李瑀等上疏 稱以辨 先世子誣語 逼英廟 以售嘗試之計 所謂壬子萬人疏是也 於是彼黨群起附和 其禍將不知所屆 夢梧金公作筵說跋語 發揮義理 靡有餘蘊 君綱民彝 賴以不墜 翌年濟恭 爲領相 自爲一疏 又以董狐之筆四字 侵逼於不敢言之地 金公以左相 未膺命聞其疏 乃昇疾討賊 前席屢百言臚列其罪狀 誓不欲共生 上屢加和解 而終不聽 則 命罷金公及濟恭職 未幾又 命皆叙用

289) 자신을 변화시킴. 출세하거나 영달함을 이르는 말.

290) 시험하여 봄. 시험 삼아 하는 계획·계략.

291) 책 끝에 본문(本文)의 내용의 대강이나 또는 그에 관계된 사항을 간략하게 기록한 말.

292)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써서 역사에 남김.

293) 증병에 걸려 가마 따위에 실리어 가는 일.

부군(府君)이 당시에 도승지(都承旨)로써 상소하여 말하기를,

아-! 우리 전하(殿下)께서는 대덕(大德)이 성품을 다하고, 지행(至行)이 인륜(人倫)을 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무왕(武王)의 뜻을 이어받아 일을 쫓은 것과 같고, 주공(周公)의 제례(制禮)·작악(作樂)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지극한 정성은 귀신도 움직이며 대의(大義)는 천지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난언(亂言)·횡의(橫議)를 우리 전하의 조정(朝廷)에서 하는 사람은 춘추(春秋)가 그를 도적으로 여기서 성토(聲討)할 것입니다.

아 - ! 채제공은 무엄하고 무군(無君)<sup>294</sup>하여 귀신같이 물여우 같은 천역의 그 죄는 신(臣)의 붓을 더럽히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난 달 한 소장(疏章)은 밖으로는 명의(明義)를 가장하고 안으로는 흉계(凶計)를 꾸며대는 말이 성공(聖躬)<sup>295</sup>에 마주치어 그 부도(不道)함을 다 하였습니다.

빈연(賓筵)<sup>296</sup>이 퇴출한 뒤에 무릇 전하에게 북면(北面)<sup>297</sup>하는 사람이 누군들 피 흘리도록 토벌하여 군신(君臣)의 윤리를 밝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금령(禁令)으로 엄사(嚴辭)를 절단하고 비상(非常)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한갓 목격하고 감히 말을 전하지 않거나 또한 이표(耳剽)<sup>298</sup>하고 못 들은 척합니다. 이와 같이 온 세상이 도도(滔滔)<sup>299</sup>하게 한결같이 함묵(含默)으로 위주하니 못 아래가 불충(不忠)하고 불성(不誠)한 죄입니다.

그런데 또한 어찌 일례(一例)로 수서(收叙)<sup>300</sup>의 명이 몽상(夢想) 밖에 갑자기 내려질 것을 생각하였겠습니까? 또한 일찍이 영춘헌(迎春軒)에 입시(入侍)하여 아되었습니다.

府君 時以都承旨 上疏曰嗚呼  
我 殿下 大德盡性 至行盡倫  
若武王之繼志述事 若周公之  
制禮作樂 至誠 可以動鬼神也  
大義 可以建天地也 一或有亂  
言橫議於我 殿下之朝廷者  
此春秋必討之賊也 噫嘻濟恭  
無嚴無君 如鬼如蜮之千億其  
罪 不可盡汙於臣筆 至若前月  
一疏 外假明義 內售凶計 語  
撻 聖躬極其不道 賓筵退出  
之後 凡爲北面於 殿下者 孰  
不欲沫血致討 以昭君君臣臣  
之倫 而特以禁令 截嚴辭教  
非常 非徒目擊而不敢傳說 抑  
亦耳剽而若罔聞知 舉世滔滔  
一以含默爲主 此莫非群下 不  
忠不誠之罪也 而又豈料一例  
收叙之 命 遽降於夢想之外哉  
又嘗入侍於迎春軒

294) 몹시 거만하여 마음속에 군왕(君王)이 없음을 뜻함.

295) 임금의 몸을 높혀 부르는 말.

296) 빈지초연(賓之初筵) 시경(詩經) 소아(小雅)에 수록된 시의 하나. 잔치 자리에서 술 마시고 추태부리는 행동을 경계한 시로 모두 5장(章)으로 이루어졌음. 주희(朱熹)는 위(衛)나라의 무공(武公)이 술을 마시고 추태를 부리다가 술이 깬 뒤 후회하고 이 시를 지어 반성하였다고 함.

297) 북쪽으로 향함. 곧 임금이 남면(南面)하여 앉으므로 신하의 예(禮)로써 임금을 섬기는 것을 뜻함.

298) 귀 동냥으로 얻은 학문(學問). 또는 얻어 들음.

399) 지나가는 모양.

300) 죄가 있어서 면관된 사람들을 거두어 모아서 다시 사용함.

전례(典禮)<sup>301</sup>의 말이 대외(對外)에 자자(藉藉)하니 만약에 전례로 하여금 법칙을 삼을 수 있다면 신들을 스스로 마땅히 봉행(奉行)하거늘 어찌 저들을 대접하겠습니까. 바라옵건데 성지(聖志)를 굳게 정하여 부언(浮言)의 요란스러움을 하지마소서.

라고 상소하였다.

이에 왕께서 옳다고 하고 연석(筵席)에서 물러나온 뒤에 왕께서 특별히 승지(承旨) 이해우(李海愚)로 하여금 부군(府君)에게 가서 서입(書入)<sup>302</sup>키로 그 당시에 수작(酬酌)하였다.

이 무렵 국가는 새삼 몽오(夢梧) 김상국(金相國)이 죽음으로 그를 잃게 되어 의리(義理)의 두뇌(頭腦)를 지킬 사람이 없었다. 이에 부군(府君)이 사설(邪說)이 갑자기 일어날 것을 크게 두려워하였다. 따라서 신찰(宸札)<sup>303</sup>이 왕복함으로 인하여 군신(君臣) 상하가 30년간 굳게 지킨 대의(大義)을 날같이 진술하였다.

이에 왕께서 수교(手教)로 대답하기를,

별폭(別幅)에 시유(示諭)한 것을 가히 경(卿)의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경의 말은 곧 경의 마음이니 경의 마음은 내가 진실로 알고 있다. 언제나 경(卿)에게 경군도름(傾困倒廩)<sup>304</sup>하고 경은 사실대로 말 하였거늘 내가 어찌 거짓말로 답하겠는가.

우리들의 시절이 자별(自別)하니 이른 바 사류(士流) 모모(某某)는 처음 공복에서 만날 때부터 각자가 속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일부(一副)<sup>305</sup> 군령장(軍令狀)<sup>306</sup>을 만들었다.

奏曰典禮之說 藉藉於外 若使典禮 而可爲則 臣等自當奉行 何待彼輩 伏望堅定 聖志 勿爲浮言所擾 上領可之 至筵退後 特令承旨李海愚 往府君所 書入當時 酬酌至是 國家新喪 夢梧金相國 義理頭腦 無人執守 府君大懼邪說之闖作 因宸札往復 歷陳君臣上下三十年固守之大義 上以手教答曰別幅示諭 可謂卿之言也 卿之言 卽卿之心 卿心吾固知之 每於卿 傾困倒廩 卿既以實言 吾何以假僞之說 答之耶 吾輩之際自別 所謂士流某某人之自初遇巷 各自以不欺 爲一副軍今狀

301) 전법예의(典法禮儀). 즉 본보기가 될 만한 예의 풍속.

302) 임금 앞으로 글발을 써 올림.

303) 임금의 친필(親筆)로 쓴 편지.

304) 마음 속에 품은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어 말함.

305) 모든 사물에 숫자를 완전하게 갖추는 뜻함.

306) 체결한 약속을 어기면 군령(軍令)에 의하여 처벌을 받겠다는 문건(文件).



나 또한 심복(心腹)을 보내어 그들을 30 여 년간 대접하니 나도 늙은 장수로 흰 수염에 동지들은 모두 저 세상 사람이 되었다.

오직 경(卿)은 가장 뒤에 안 사람으로 우뚝 노령광(魯靈光)과 같은 홀로 남았도다. 나는 언제나 전인(前人)을 대접하듯 경을 대접하였건만 경은 혹도 소원(疎遠)하고 친밀하지 않은 곳이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전인(前人)과 더불어 한 것은 한 두 번이며 그 밖에도 한번도 없이 밝은 뒤에 일어나는 티끌을 방불(彷彿)하듯 흐릿하다. 전수(前修)<sup>307</sup>의 사람을 추억하여 한 밤에 생각하여 왕왕 잠 못 이루었다.

라고 대답하셨다.

이때에 왕께서 사류(士流)를 진출시켜 한 세대를 도견(陶甄)<sup>308</sup>하고자 특별히 이만수(李晚秀)<sup>309</sup>를 이판(吏判)에 임명하니 아마도 깊은 뜻이 있었다.

5월에 수찬(修撰) 김이재(金履載)가 이만수의 상소 중의 말을 적용하여 그를 논박하니 왕께서 진노하여 김이재를 투비(投畀)<sup>310</sup>하였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을 인견(引見)하고 풍속을 바로 잡는다는 것으로써 유시(諭示)하였다. 김이재가 이미 귀양 가고 이만수가 공판(工判)으로 인견(引見)에 나오지 않으니 왕께서 또 명하여 그를 내쳐 통어사(統籙使)로 전보(轉補)하였다.

부군(府君)이 차자(笱子)를 올려 말하기를,

吾亦輸心腹 以待之三十餘年之間 吾則老將白鬚 而同志者皆作隔世人 惟卿最後知者 嶷然若魯靈光之獨存 吾則每以與於前人者 待卿 卿則雖或有疎不密處 猶可謂與前人一而二 其外無一箇 依稀彷彿於躡後塵 追前脩之人中夜以思 往往不能成眠 是時 上既進士流 欲陶甄一世 特拜李晚秀吏判 盖有深意也 五月修撰金履載 摘李晚秀疏中語 以駁之上 震怒命投畀履載 引見諸臣 諭以矯俗之道 履載既謫 晚秀以工判引不出 上又命黜補統籙使 府君進笱曰

307) 전세(前世)의 유덕(有德)한 현인(賢人).

308) 성인(聖人)이 천하(天下)를 다스리는 것이 마치 도공(陶工)이 질그릇을 만들 듯 함을 비유 함.

309) 1752~1820(영조 28~순조 20) 조선 후기 문신·학자. 자는 성중(成仲), 호는 극옹·극원. 본관은 연안(延安). 1783년(정조 7) 사마시에 합격하고 음보로 부사과를 지냈고 1789년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 1795년 대사성과 규장각제학을 겸직했다. 정리자(整理字) 만드는 일을 감독하고 1800년 예조판서에 승진하였으며, 이어 공조판서·수원유수·관의금부사·홍문관대제학·호조판서를 거쳐 평안도관찰사가 되었다. 1811년(순조11) 홍경래(洪景來)의 난이 일어나자 치안유지를 잘못했다는 죄로 파직되고 경주(慶州)에 유배되었다가 곧 사면되었으며, 1820년 수원유수로 나가 임지에서 죽었다. 문학에 뛰어났고 글씨에 능했다. 저서로 《극옹집》이 있고, 《양성기적비(兩聖紀蹟碑)》·《서명선사제비(徐命善賜祭碑)》 등의 글씨를 썼다. 시호는 문헌(文獻).

310) 왕명(王命)으로 죄인을 정배(定配)함.

저 이만수를 특별히 이판(吏判)에 임명한 것은 성의(聖意)가 풍속을 바로잡는 데에 있습니다. 이만수가 곧바로 응명(膺命)한 것은 예교(禮敎)에 따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사직 상소에 비록 한마디의 병폐(病弊)가 있더라도 넓게 보면 세상의 의리에 무관합니다.

하필이면 자구(字句)를 까다롭게 지적하여 장황(張皇)<sup>311</sup>하게 억양(抑揚)하기를 저와 같이 지나치게 합니까. 우리 전하께서 엄격하게 처리하여 투비(投畀)한 것은 성인(聖人)이 걱정하는 생각이 심원(深遠)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한 중신(重臣)의 사사로운 의리(義理)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신(重臣)이 말한 것으로 귀양을 가게 되어 진언(進言)이 어렵게 된 단서(端緒)는 청조(淸朝)<sup>312</sup>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에 모든 신하들이 연석(筵席)에 올라서 중하게 여기는 바가 있으니 장차 축강(祝岡)<sup>313</sup>의 정성을 펴려는 것입니다.

이미 전지(銓地)<sup>314</sup>에서 체량(體諒)<sup>315</sup>을 입고, 거듭 소비(疏批)<sup>316</sup>에서 통유(洞諭)<sup>317</sup>를 이어 받았건만 오히려 주저하면서 철한(鐵限)<sup>318</sup>이 있는 듯 한 것은 진실로 안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조(聖朝)의 정사(政事)가 때로 현위(弦韋)<sup>319</sup>가 있거니와 지금에 중신(重臣)의 처의(處義)가 너무 지나치어 갑작스레 척보(斥補)<sup>320</sup>의 전형(典刑)<sup>321</sup>을 더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호오(好惡)를 명시(明示)하는 데에 구애되어 도리어 망령된 태도를 엿보는 폐단을 열어 줄까 저어됩니다.

라고 하였다.

夫以晚秀 特拜吏判者 聖意在於矯俗也 晚秀之卽爲膺命者 出於率敎也 其辭疏雖有一語之病 若活看 則原無關於世道義理 何必苛摘字句 張皇抑揚 如彼其過耶 我 殿下所以嚴處以投畀者 是謂聖人憂深慮遠也 顧何與於一重臣之私義耶 雖然重臣之以言者 被竄爲難進之端者 淸朝之美事然 而今日諸臣之登筵 爲有所重將申祝岡之枕也 則旣蒙體諒於銓地 洵承洞諭於疏批 而猶爲逡巡 若有鐵限然者 固未安 雖然 聖朝之政敎 時有弦韋 今若以重臣之處義過當 遽加斥補之典 則恐有礙於明示好惡之義 而反啓窺覘妄度之弊矣

311) 왈자하게 벌려져서 확대함.

312) 당대(當代)의 왕조(王朝)의 미칭(美稱).

313) 장수(長壽)를 기원함. 강(岡)은 산의 높은 곳으로 수복(壽福)이 산과 같이 높고 크기를 축원한다는 말.

314) 조선 시대 인사 전형(銓衡)을 담당하던 이조(吏曹)와 병조(兵曹)를 지칭함.

315) 깊이 헤아림. 깊이 생각하여 줌.

316) 상소(上疏)나 차자(筵子)에 대한 임금의 비답(批答).

317) 밝게 유시(諭示)함.

318) 움직일 수 없는 굳은 작정.

319) 활사위와 다룬 가죽. 곧 완급(緩急)의 뜻을 비유함.

320) 내치어 다른 곳으로 전보(轉補) 발령함.

321) 예전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법전.

왕께서 명하여 이만수를 외직(外職)에서 조정(朝廷)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그리고 연교(筵敎)<sup>322</sup> 수천 마디를 내리어 청의(淸議)<sup>323</sup>가 충성이 되고 군자(君子)가 되며 유속(流俗)이 불충(不忠)이 되고 소인(小人)이 됨을 밝혔다. 다시 수찰(手札)을 내리어 부군(府君)을 근면함이 지극하였다. 또 칠언고시(七言古詩) 한 편을 내리고 특별히 명하여 갱진(賡進)<sup>324</sup>토록 하니 그 부군(府君)에게 부탁함이 이와 같이 중하였다.

6월에 정종대왕(正宗大王)이 승하(昇遐)하니 정순대비(貞純大妃)가 특별히 명하여 부군(府君)을 영의정(領議政)으로 원상(院相)<sup>325</sup>의 일을 행하게 하였다. 이튿날 부군(府君)이 대궐 안에 있으면서 호곡성(號哭聲)을 듣고 선인문(宣人門)으로부터 들어가서 혜경궁(惠慶宮) 안에 이르렀다. 이 무렵 홍낙임(洪樂任) 등을 액레(掖隸)<sup>326</sup>로 하여금 빨리 몰아내라고 하여 중외(中外)가 숙연(肅然)함을 알았다.

이 때에 주상(主上)께서 충년(沖年)<sup>327</sup>으로 사복(嗣服)하여 대비(大妃)가 수렴청정(垂簾聽政)<sup>328</sup>하는 일이 크고 작은 것 없이 모두 부군(府君)에게 위임하였다. 이에 비로소 공제(公除)<sup>329</sup>하고 상차(上筭)하여 계술(繼述)<sup>330</sup>의 의(義) 10조(條)를 진계(陳戒)하였다. 그 10조(條)는 「기거(起居)를 삼가고 강학(講學)을 부지런히 하며, 선왕(先王)의 유지(遺志)를 천명하고 헌법을 준수(遵守)하며, 올바른 선비를 친애(親愛)하고 행문(倖門)<sup>331</sup>을 막으며, 궁금(宮禁)을 엄격하고 조정의 기강을 정론하며, 세상의 물정(物情)을 공평히 하고 민사(民事)를 중(重)하게 여기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왕께서 우비(優批)<sup>332</sup>하고 기꺼이 받아 들이셨다.

上命還晚秀 因 下筵敎屢千言  
以明清議之爲忠爲君子 流俗  
之爲不忠爲小人 復 賜手札勉  
府君甚摯又 宣七言古詩一篇  
特命賡進 其付托於府君者 如  
此其重也 六月 正宗大王昇遐  
貞純大妃 特命 進府君領議政  
行院相事 翌日 府君在禁中  
聞有號哭聲 自宣仁門 入至  
惠慶宮內 問知爲洪樂任等 亟  
令掖隸驅出 中外肅然 時 主  
上以沖年嗣服 大妃垂簾聽政  
事無巨細 悉委於府君 甫公除  
上筭 以繼述之義 陳戒凡十條  
曰慎起居勤講學 闡先志遵成  
憲 親正士杜倖門 嚴宮禁整朝  
綱 平物情重民事 上優批嘉納

322) 임금의 연석(筵席)에서 내린 교지.

323) 깨끗하고 공정한 언론(言論).

324) 임금의 지은 글에 화답하여 글을 지어 바침.

325) 임금이 죽은 뒤 26일 동안 정무를 맡아 보는 승정원의 임시벼슬.

326) 궁중에서 부리는 하례.

327) 어린 나이.

328) 임금을 배행하여 발을 드리우고 정사를 들음. 곧 대비(大妃) 등과 같이 왕실의 여자 어른이 어린 임금을 대신하여 정사를 관장하는 정치형태를 말함.

329) 국상(國喪)을 당하여 조의(弔意)를 표하는 뜻으로 일정 기간 동안 공무(公務)를 보지 않고 기간이 지난 뒤에 제복(除服)하는 일.

330) 선왕(先王)이나 조상이 남긴 뜻과 사업을 잘 받들어 계승함.

331) 요행으로 벼슬에 오르는 것.

332) 충분한 설명으로 내린 비답(批答).

8월에 왕께서 내각(內閣)에 명하여 홍봉한(洪鳳漢)의 주고(奏藁)<sup>333</sup>를 인쇄하게 하였다. 이에 부군(府君)이 나아가서 말하기를 「이것은 의리(義理)의 명암의 관건(關鍵)이다. 우리 전하(殿下)가 아주 어린 나이로 혹 고사(故事)를 다 알지 못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왕께서 이미 내린 명령을 그냥 넘길까 봐 교지를 받들어 건릉(健陵)<sup>334</sup> 애책문(哀冊文)<sup>335</sup>을 지어 바쳤다. 찬성(贊成) 송환기(宋煥箕)가 정종묘(正宗廟)를 높이어 세실(世室)<sup>336</sup>을 받들 것을 청하였다. 이에 부군(府君)이 의론(議論)을 드려서 마땅히 그 청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12월에 동조(東朝)가 언교(諺教)<sup>337</sup>를 내려 난역(亂逆)의 시말을 차례로 진술하고 선대왕(先大王) 오회(五晦)<sup>338</sup> 말명(末命)<sup>339</sup>의 유의(遺意)를 천발(闡發)하였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서유린(徐有鄰) 등을 귀양 보낼 것을 명하였다. 이에 부군(府君)은 그들의 와굴(窩窟)을 격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인하여 상차(上筮)하여 말하기를,

지금에 교릉(喬陵)을 겨우 가리고 국세(國勢)가 외롭고 위태할 때에 흉도(凶徒)의 연수(淵藪)<sup>340</sup>가 되는 사람은 홍낙임(洪樂任)입니다. 아! 저 홍낙임의 죄악은 철안(鐵案)<sup>341</sup>을 관영(貫盈)<sup>342</sup>하여 지금까지 밝게 보이건만 뉘가 이를 용대(容貸)<sup>343</sup>하여 주었습니까. 우리 선대왕(先大王)의 엄정한 병집(秉執)<sup>344</sup>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대왕(先大王)의 측은한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례(典禮)를 터무니없이 속이는 말과 중외(中外)를 선동(煽動)하는 소문으로 참아 선왕(先王)의 뜻을 가리어 나타내지 않았으며 궤오(詿誤)<sup>345</sup>에 굴러 이르는 무리들이 이에 번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지로 선왕(先王)의 죄인이며 또한 우리 자궁(慈宮)<sup>346</sup>의 죄인입니다.

八月 上命內閣 印出洪鳳漢奏藁 府君進曰此義理明晦之關我 殿下沖齡 或恐於故事 有所未盡知而然也 上爲寢成命奉 教製進 健陵哀冊文 贊成宋煥箕 請尊 正宗廟 爲世室 府君獻議 以爲宜從其請 十二月 東朝下諺教 歷陳亂逆源委 闡發 先大王五晦末命之遺意 首 命竄徐有鄰等 府君以爲窩窟 不可不破 上筮曰 今喬陵才閉 國勢孤危之時 爲凶徒淵藪者 洪樂任也 噫彼樂任罪惡 貫盈鐵案 昭森至今 容貸是誰之賜 而不畏我 先大王 嚴正之秉執 罔念我 先大王 惻怛之恩意 壽張典禮之說 煽動中外之聽 忍使 先王之志 掩翳不章 轉致詿誤之類 寔繁其徒 此實 先王之罪人也 亦我 慈宮之罪人也

333) 왕에게 상주(上奏)한 초고(草稿).

334) 조선 정조(正祖)와 효의왕후(孝懿王后) 김씨의 능 이름.

335) 임금이나 왕비의 죽음을 애도하여 지어 올리는 글.

336) 종묘(宗廟)의 신실(神室). 오랜 세대를 두고 제향(祭享) 지내는 위패(位牌)를 모시는 곳.

337) 한글로 쓴 교지(教旨). 338) 다섯번째의 그림날. 339) 임종(臨終)할 때의 유언(遺言).

340) 못과 숲. 어수(魚獸)가 모여드는 곳. 전하여 사물이 모이는 곳. 341)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결정 혹은 바꾸지 못하는 안건. 342) 모두 참. 이르지 않는 곳이 없음. 343) 죄를 면하여 줌. 꾸짖지 아니함.

344) 떳떳한 도리. 345) 속여서 미혹(迷惑)시킴.

346) 조선시대 임금의 후궁. 또는 왕세자빈(王世子嬪)이 출생한 아들이 왕위에 오른 경우 그 임금의 생모를 임금이나 신료를 자칭하는 용어.

자궁(慈宮)은 예철(睿哲)한 덕(德)을 가지고 모년(某年)의 의리를 생각하고 선왕(先王)의 병집(秉執)을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사사로운 은혜를 할단(割斷)하여 공법(公法)을 여유롭게 하지 못한 것을 신(臣)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이에 왕께서 봉환(封還)<sup>347</sup>을 명하였다.

연주(筵奏)하여 아뢰나니,

고(故) 재신(宰臣) 김귀주(金龜柱)는 임진(壬辰, 1772)년 하나의 상소로 종사(宗社)<sup>348</sup>의 위태로움을 호위하여 윤강(倫綱)이 떨어질 무렵에 붙들었다. 따라서 그의 외로운 충성과 피흘리는 정성이 당세(當世)의 지사(志士)들을 울리고 청사(靑史)<sup>349</sup>에 드리워 전합니다. 신(臣)은 일찍이 선대왕(先大王)을 모실 적에 사적(私的)으로 성교(聖敎)를 들었습니다. 대체로 그 통찰(洞察)한 마음이 단단(斷斷)하게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번에 권간(權奸)이 일을 마음대로 하므로 그가 조정(朝廷)에 있는 것을 꺼려하여 끝내 남황(南荒)<sup>350</sup>에서 유사(瘵死)<sup>351</sup>하니 이것은 진실로 청의(淸議)가 함께 가련하게 여긴 것이었습니다. 이어 일월(日月)의 회촉(回燭)<sup>352</sup>을 입어 10년의 원한을 남김없이 설욕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에는 마땅히 의리(義理)를 천명할 즈음으로 실지로 치유(致侑)<sup>353</sup>하여 충성에 포상함이 합당합니다. 또 고(故) 지평(持平) 김정묵(金正默)은 경술(經術)과 의로운 행동은 사림(士林)들이 추후(推詡)<sup>354</sup>하건만 불행하게 흉역(兇逆)으로 그 가족까지 내치어 삭일(削逸)<sup>355</sup>에 이르렀습니다.

以 慈宮睿哲之德 念某年之義理想 先王之秉執 割斷私恩 不饒公法 臣等亦可以仰認矣 上命封還

筵奏 曰故宰臣金龜柱 壬辰一疏 衛 宗社之方危 扶倫綱將墜 其孤忠血誠 可以涕當世之志士 垂靑史而有辭矣 臣嘗侍先大王 燕閒仰聆 聖敎 盖已洞察 其心之斷斷爲國 而向值權奸用事 憚其在朝終至瘵死南荒 是固淸議之所共憐者 乃蒙日月之回燭 十載冤枉 伸雪無餘 今當闡明義理之際 實合致侑褒忠 又曰故持平金正默 經術行誼 爲士林所推詡 而不幸以兇逆 近出其族 至於削逸矣

347)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차자(劄子) 등을 봉환 채 그대로 되돌려 주는 것.

348) 종묘(宗廟)와 사직(社稷). 곧 국가.

349) 역사서적(歷史書籍). 옛날 종이 없었던 시대에 청피(靑皮)에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청사(靑史)라 함.

350) 남쪽 황폐한 곳.

351) 옥중(獄中)에서 병사(病死)함. 죄수(罪囚)가 고문(拷問) 기한(飢寒) 병사(病死) 등으로 사망(死亡)함.

352) 되돌려 다시 비추어 봄. 곧 지나간 사건을 다시 밝힘.

353) 원통하게 죽은 사람을 설욕시키어 제(祭)를 올림.

354) 추대하여 후(厚)하게 대접함.

355) 벼슬이 깎여 유일(遺逸)이 됨.

신(臣)은 매양 선조(先朝)의 연교(筵敎)에서 김정묵(金正默)<sup>356</sup>을 복일(復逸)<sup>357</sup>하라는 뜻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 친속(親屬)들은 이미 면좌(免坐)되었건만 죄 없이 벌 받는 것을 사림(士林)들이 지금까지 슬퍼합니다. 또한 경연관(經筵官) 송치규(宋稚圭)는 그들의 문(門)에 이르렀다고 하여 경연(經筵)에 나아가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넓게 순자(詢咨)<sup>358</sup>하여 제처(製處)<sup>359</sup>할 것을 청합니다.

라고 아뢰니 이에 상게서 곧바로 하유(下諭)<sup>360</sup>하여 그로 하여금 강석(講席)에 출입케 하였다. 이판(吏判) 윤행임(尹行恁)의 소주(所奏)로 인하여 명을 받고 복주(覆奏)하기를,

이택징(李澤徵)과 이유백(李有白)의 국안(鞫案)<sup>361</sup>은 당시에 공의(公議)가 그 원통함을 많다고 일컬었습니다. 또 중신(重臣)이 아된 바를 듣고 선조(先朝)로부터 그 날 후에 신설(伸雪)<sup>362</sup>의 가르침을 말하였습니다. 이에 성상(聖上)이 한 처음 청명한 모임에 유지(遺志)를 우러러 따르니 진실로 선대(先代)의 치술(治術)을 이어받은 성사(聖事)입니다.

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고(故) 판서(判書) 이최중(李最中)<sup>363</sup>은 귀양살이에서 죽은 뒤에 죄명은 이미 효주(爻周)<sup>364</sup>를 명받고 또 이름을 쓴 사판(祠板)<sup>365</sup>의 교지(敎旨)가 있었습니다. 지금에 양(兩) 대신(臺臣) 신설(伸雪)의 때를 당하여 조정의 은졸(隱卒)<sup>366</sup>의 전(典)을 했수가 오래되었다고 하여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臣 每承 先朝筵敎 以正默復逸 屢致意焉 計其親屬 既在免坐 而無罪被罰 士林至今悲之 且經筵官宋稚圭 以其及門之人 因此難進 請博詢裁處 仍卽 下諭 俾之出入講席 因吏判尹行恁所奏 承 命覆奏 曰李澤徵李有白鞫案 當時公議 多稱其冤 而又聞重臣所奏 自 先朝有日後 伸雪之敎云 今當 聖上一初清明之會 仰遵遺志 允爲繼述之盛事 又曰故判書李最中 被謫身故之後 罪名既 命爻周 又有題啣祠板之敎 今當兩臺臣 伸雪之時 朝家隱卒之典 不可以年久而勿論

356) 1739(영조 15)~1799(정조 23). 조선 중기의 학자. 본관은 광산. 초명은 두묵(斗默), 자는 이운(而運), 호는 과재(過齋). 김장생(金長生)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위재(偉材)이며, 어머니는 파평윤씨로 참봉 휴경(休耕)의 딸이다. 1780년(정조 4) 도천(道遷)으로 돈녕부참봉(敦寧府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았고, 다시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경연서연관(經筵書筵官) 등에 제수되었으나 그때 죽친인 김하재(金夏材)의 역변(逆變)이 있었으므로 끝내 사퇴하였다. 그는 성리학 예설(禮說)에 밝았으며, 《남당집 南塘集》중 심성(心性)·이기(理氣)·예설 등에 관한 한원진(韓元震)의 논술이 이이(李珣)·송시열(宋時烈)의 본뜻에 많이 위배됨을 지적, 고증을 들어 변증하는 <규도수록 圭刀隨錄>을 저술하였다. 저서로는 《과재유고》 11권 5책이 있다. 357) 관작(官爵)이 삭탈되어 유일(遺佚)이 된 사람을 복직(復職)시킴. 358) 옷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물어서 의논함. 359) 지어서 처리함. 360) 임금의 유지를 내리는 것. 또는 그 유지를 말함. 361) 임금의 명령을 받아 반란이나 강상(綱常) 등에 관련된 중죄인을 국문한 사실과 이로부터 얻어낸 자백 판결한 내용 등을 기록한 문서. 362) 신원설치(伸冤雪恥). 마음에 맺힌 원한을 풀고, 수치스러운 일을 씻어 버림. 363) 1715(숙종 41)~1784(정조 8).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인부(仁夫), 호는 위암(韋菴). 현감 현응(顯應)의 아들이다. 삼척부사 재임시 올린 <진삼척민폐소 陳三陟民弊疏>에서도, 과중한 세금에 시달리는 농민의 어려움이 절정에 달하여 유망민이 속출하고 있음을 지적, 공물(貢物)과 환곡(還穀)의 징수는 현지실정에 맞추어 재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등, 특히 농민생활의 안정에 관심이 깊었다. 이조판서에 올랐다가 노론으로 당쟁에 연루되어 함경도 갑산에 유배되었으나 곧 풀려나와, 함경도관찰사에 이어 우참찬을 끝으로 1773년 관직에서 물러나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1782년(정조 6) 이유백(李有白)의 대역부도죄 사건에 친척으로 연좌되어 영암 추자도에 귀양가 그곳에서 죽었다. 순조 때 신원되었으며, 저서에 《위암집》 6권 3책과 《환범옹만록 換凡翁漫錄》 10책이 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364) 장부 점검용 기호를 명사화한 것. 효(爻)는 효(爻)자 모양의 표를 그어 글자를 지워버려 사실을 말소시키는 것이며, 주(周)는 동그라미로 동의나 조사에서 이상이 없음을 뜻함. 365) 죽은 사람의 위패. 366) 임금이 죽은 신하에게 애도(哀悼)의 뜻을 표함. 증직(贈職)이나 시호(諡號)의 하사. 또는 조제(弔祭)·치부(致賻)를 내려 옛 신하를 추념(追念)함.

고(故) 정언(正言) 유성한(柳星漢)이 임자(壬子, 1792)년에 올린 한 소장(疏章)을 오직 우리 선대왕(先大王)께서 굽어 포용하셨건만 그 뒤에 사단(事端)이 조금씩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죄를 성토하는 사람들이 본정(本情)의 밖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그 자신들이 죽은 뒤에 대시(臺侍)<sup>367</sup>의 예부(例賻)<sup>368</sup>를 베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또한 연주(筵奏)에,

선정신(先正臣)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은 도덕(道德)과 공렬(功烈)이 백세의 유종(儒宗)이 됩니다. 따라서 영묘(英廟) 및 선조(先朝)가 모두 초원(初元)<sup>369</sup>에 사제(賜祭)하였으니 지금에 또한 마땅히 고사(故事)를 따라야 합니다.

라고 아뢰었다. 신유(辛酉, 1801)년 정월(正月) 차대(次對)<sup>370</sup>에,

지금 우리 성상(聖上)이 초원(初元) 신정(新正)을 당하여 신(臣)들이 우러러 바라는 것은 오직 성학(聖學)에 힘쓰는 하나의 일입니다. 이어서 책자를 강(講)하고 홍문관(弘文館)으로 하여금 풍정(稟定)<sup>371</sup>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재외(在外) 유신(儒臣) 및 경연관(經筵官)들이 정성으로 다가와서 전석(前席)에 출입하여 계옥(啓沃)<sup>372</sup>의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금에 유유(悠悠)한 만사(萬事)가 성학(聖學)을 보도(輔導)<sup>373</sup>하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없습니다.

故正言柳星漢 壬子一疏 惟我先大王 曲加包容 而伊後事端 層生 其所聲罪者 出於本情之外 今於身故之後 臺侍例賻 不可不施 又筵奏 曰先正臣文正公宋時烈 道德功烈 爲百世之儒宗 英廟暨 先朝 皆於初元賜祭 今亦宜仰述故事 辛酉正月 次對奏 曰今當我 聖上初元新正 臣等之所仰望 惟在於勉 聖學一事 繼講冊子 令弘文館趁卽稟定 在外儒臣 及經筵官諸人 積誠招徠 以爲出入前席 啓沃資益之地 又曰顧今悠悠萬事 莫先於輔導 聖學

367) 대간(臺諫)으로 시종(侍從)하는 일.

368) 의례적인 부의(賻儀).

369) 임금의 첫 등극(登極).

370) 조선 시대 정부당상(政府堂上)·대간(臺諫)·옥당(玉堂)들의 매월 여섯 차례 입시(入侍)하여 중요한 정무(政務)를 상주(上奏)하던 일.

371) 임금이나 윗사람에게 아뢰어서 의논하여 결정함.

372) 흥금을 털어 놓고 생각하는 바를 임금에게 말함.

373) 임금의 정치를 도와서 좋은 데로 인도함.

반드시 모름지기 간책(簡策)<sup>374</sup>을 친할 때가 많고 문서작성을 몸소 할 때가 적은 뒤에 바야흐로 집희(緝熙)<sup>375</sup>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중외(中外)<sup>376</sup>의 주독(奏牘)<sup>377</sup>·계첩(啓牒) 등의 문서가 호양(浩穰)<sup>378</sup>하게 쌓여 한가할 날이 없습니다. 바야흐로 마땅히 삼주(三晝)<sup>379</sup>하고 촌음(寸陰)의 진접(進接)을 아껴야 할 때에 생략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박장설(朴長高)은 그 첫째로 사학(邪學)을 공박하고 아경(亞卿)<sup>380</sup>에게 청하여 박치룡(朴致隆)을 승탁(陞擢)<sup>381</sup>하고 마땅히 증직(贈職)을 더하였습니다. 심의(沈儀)를 포증(褒贈)한 일은 신(臣)이 비록 친혐(親嫌)<sup>382</sup>으로 감히 의논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초야의 위포(韋布)<sup>383</sup>로서 항소(抗疏)·토적(討賊)하고 나라를 위하여 효사(效死)하니 한유(韓愈)와 더불어 수립함이 같습니다.

삼사(三司)가 채제공(蔡濟恭)의 죄를 계론(啓論)하였으나 양이 섭금(涉禁)<sup>384</sup>으로써 따르지 않았다. 부군(府君)이 아뢰어 말하기를,

저 삼사(三司)<sup>385</sup>가 채제공(蔡濟恭)이 죄가 있다고 논하였다면 그 죄를 논할 따름입니다. 만약에 금하는 조항이 있다고 하여 감히 그 죄를 논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신총(宸聰)<sup>386</sup>을 막고 공론(公論)을 폐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찌 저 삼사(三司)를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선대왕(先大王)께서는 만가지 이치의 근원을 통찰하고 만사(萬事)의 기미를 훤히 보았습니다. 인하여 옥형(玉衡)<sup>387</sup> 금추(金鍾)<sup>388</sup>의 사이에 경권(經權)<sup>389</sup> 착행(錯行)<sup>390</sup>하여 사건이 이르면 부득이 처리하였습니다.

必須親簡策之時多 躬簿書之時少然後 方可以專精於緝熙之工 而中外奏牘啓牒等文書浩穰堆積 日不暇給 方當三晝進接寸陰 是惜之時 不可無省約之方 又曰朴長高 首功邪學 請亞卿 陞擢朴致隆 當爲加贈 至若沈儀之褒贈事 臣雖以親嫌 不敢獻議 其以草野韋布 抗疏討賊 爲國效死 則與韓愈 同其樹立矣 三司啓論蔡濟恭罪 上以涉禁不從 府君 奏曰夫三司之論蔡濟恭者 有其罪 則論其罪而已 若因有禁條 而不敢論其罪 則是上壅 宸聰下廢公論也 將焉用彼三司哉 惟我 先大王 洞察萬理之原 灼見萬事之幾 經權錯行於玉衡金鍾之間 事到不得已處

374) 고대(古代) 종이(紙)가 없을 때에 대쪽을 연결하여 책을 만들어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간책(簡策)이라고 함.

375) 덕화(德化)의 빛이 빛남. 376) 조정(朝廷)과 민간(民間).

377) 주기(奏記)를 적어놓은 목간(木簡). 전(轉)하여 관청의 공문서를 두루 일컫게 되었음. 378) 다수(多數)의 뜻. 광대한 모양.

379) 임금이 신하에게 후한 예물을 내리고 낮 동안에 세 차례나 접견하여 친히 예우하는 일.

380) 조선 시대 정경(正卿)인 판서(判書)에 버금가는 벼슬이란 뜻으로 육조(六曹)의 참판(參判)과 한성부(漢城府)의 좌윤(左尹)·우윤(右尹) 등을 가리켜 이르는 말.

381) 인재를 뽑아 올려서 씬. 382) 친척으로 말미암은 혐의.

383) 누추한 사람. 즉 벼슬하지 않은 선비를 말함. 384) 금조(禁條)에 해당함.

385) 조선 시대 사헌부·사간원·홍문관을 합하여 부른 말. 386) 임금의 귀. 임금의 청취(聽取). 또는 성상(聖上).

387) 옥으로 꾸민 천문관측기(天文觀測器). 여기에서는 임금의 위상을 뜻함.

388) 금으로 장식한 저울. 곧 임금이 정치를 할 때에 저울질하듯 조화를 이루어냄을 뜻함.

389) 상경(常經)과 권도(權道). 곧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은 법도(法度)와 때에 따라 알맞게 처리하는 것.



비록 한때의 금령(禁令)이 있더라도 일찍이 선대왕께서 교서(敎書)를 내리어 말하기를, 「이것은 이연(貽燕)<sup>391</sup> 수유(垂裕)<sup>392</sup>의 큰 가르침과 계책이 아니다. 차츰 다스림의 규범이 이루어지고 세도(世道)가 정하여 장차 이 권의(權宜)<sup>393</sup>의 정사(政事)가 모두 없어질 것이니 경들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같은 옥음(玉音)<sup>394</sup>이 오히려 귀에 남아 있거늘 신(臣)이 어찌 감히 속이겠습니까. 지금에는 우리 전하가 등극한 처음 계술(繼述)하는 날에 금(禁)이란 한 글자를 가지고 언로(言路)<sup>395</sup>에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구류(九旒)<sup>396</sup>의 총명함을 막고 사방(四方)의 정지(情志)를 못 통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부복(府伏)하여 생각하니 못 신하들이 감히 경솔하게 모년(某年)에 간범(干犯)<sup>397</sup>한 지를 논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 선대왕께서 차마 듣지 못하고 신(臣)들도 감히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리만은 일성(日星)<sup>398</sup>에 밝게 걸리어 만목(萬目)<sup>399</sup>이 모두 우러러 봄으로 한 털끝도 숨겨지지 않고 나타난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에는 전하의 조정(朝廷)에 내려 있습니다. 참아 선대왕(先大王)에 듣지 못했다고 하여 전하에게 감히 말하지 못한다면 신(臣)이 나름대로 생각하건데 의리(義理)가 점점 사라지고 난적(亂賊)이 외탄(畏憚)<sup>400</sup>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종사(宗社)의 안위(安危)에 크게 관계되지 않겠습니까. 부복(俯伏)하여 원하건 데 전하께서는 오직 채제공의 죄를 물어서 마땅히 그 여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금조(禁條)를 가지고 교시(敎示)하지 말고 이에 징토(徵討)를 시행하여 간신의 무리를 물리쳐 내쫓으소서.

縱有一時之禁令 亦嘗 敎 曰 此非貽燕垂裕之大經 丕謨也 稍待治規成世道定 而將盡除此權宜之政 卿等勿慮也 玉音猶在耳 臣焉敢誣也 今當我殿下 一初繼述之辰 豈可以禁之一字 設於言路 自閉九旒之聰明 而莫通四方之情志哉 且伏念 群下之不敢輕論 某年干犯之罪者 盖爲我 先大王不忍聞 而臣等 不敢言也 然而義理 則昭揭於日星 萬目皆得以仰瞻 無一毫隱微 而不章也 況今降在 殿下之庭 而以不忍聞於 先大王者 不敢言於殿下 則臣竊恐義理 漸致湮晦 亂賊無所畏憚也 是豈不大關於 宗社之安危乎 伏願殿下 惟問蔡濟恭之罪 當論與否 勿復以禁條爲 敎 時懲討方行 群奸屏黜

390) 서로 번갈아 도는 것. 들어오고 나가며 순서대로 돌음.

391) 아버지가 자식이 훌륭하게 되도록 가르치는 교훈.

392) 수유후곤(垂裕後昆)의 준말로 훌륭한 도를 후손에게 물려줌을 뜻하는 말.

393) 한 때의 사정에 따라 성인(聖人)이나 임금의 의(義)를 밝혀 임시로 상황을 고려하여 맞게 조처하는 것.

394) 임금의 음성. 덕(德)이 높은 사람의 말.

395) 언관(言官). 임금에 간언하는 말의 통로(通路).

396) 구류관(九旒冠) 관 앞면에 아홉 줄의 주옥(珠玉)이 달린 면류관(冕旒官). 곧 임금을 일컬음.

397) 법칙을 위반하고 거역함.

398) 해와 별. 곧 높이 떠서 맑음을 뜻함.

499) 여러 사람이 보는 눈.

400) 두려워하고 꺼림.

라고 아뢰었다. 이와 같이 부군(府君)은 의연(毅然)하게 오로지 세도(世道)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기의 책임으로 삼았다. 항상 사마공<sup>401</sup>이 한 “하늘이 만약 송나라를 돕는다면 절대 그런일은 없을 것; 천약조송(天若祚宋), 필무시사(必無是事)”란 말을 외우면서 일을 만나기 직전에 마음이 흔들려 굴한 바가 없었다. 이 대각(臺閣)의 논의(論議)에 이르러서는 때 맞춰 격론(激論)하고 혹 넘치는 것이 있으면 일체 억눌러 펴지 못하게 하였다.

부군(府君)이 일찍이 연중(筵中)에서 아뢰기를,

대각(臺閣)의 계체(啓體)<sup>402</sup>는 본래가 근엄했던 것을 고례(古例)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모든 장계(狀啓) 중에 혹은 의률(擬律)<sup>403</sup>의 잘못이 있으니 마땅히 장계의 그릇됨을 전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성조(聖朝)가 나라를 정하여 물정(物情)을 공평하게 하는 본 뜻이 아닙니다.

대체로 한차례 사람이 조정의 권세를 농단하면 무릇 충당(忠讜)<sup>404</sup>의 말에 매이어 문득 징토(懲討)의 과(科)를 두어서 한 자기의 사사로움에 유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곤궤(袞闕)<sup>405</sup> 관궤(官箴)<sup>406</sup>에 있어서는 고요하게 들은 것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선왕(先王)께서는 완고하게 굳은 폐단을 매우 아프게 여기어 전회(鑄誨)<sup>407</sup>의 뜻을 명시(明示)하였습니다. 이에 정신(廷臣)들은 모두 쉬려(淬礪)<sup>408</sup>하여 스스로 새롭고자 하니 조정의 상황이 크게 변하고 세도(世道)가 바로 바로 잡혀 그나마 극치로 돌아가는 조화에 이르렀습니다.

府君 毅然以便章世道 爲己任  
常誦司馬公 天若祚宋 必無是  
事之語 遇事直前 無所撓屈  
至於臺閣之論 乘時沽激 或有  
所濫及 則輒一切裁抑 使不得  
售

嘗於 筵中 奏曰臺閣啓體 本  
自謹嚴 古例可按 而挽近諸啓  
之中 或有擬律之失 當或有傳  
啓之襲謬者 恐非 聖朝定國  
是平物情之本意也 大抵一番  
人之偷弄朝權也 凡係忠讜之  
言 便置懲討之科 以快一己之  
私 至於袞闕官箴 則寂然無聞  
矣 先王深痛膠固之弊 明示  
鑄誨之意 於是乎廷臣 皆欲淬  
礪自新 而朝象丕變 世道乃定  
庶致歸極之化矣

401) 《자치통감 資治通鑑》의 저자인 사마광(司馬光, 1019년~1086년)을 말함.

402) 장계(狀啓)의 그 자체.

403) 법률에 의거하여 죄의 경중(輕重)을 정함.

404) 충직하고 끝음.

405) 임금의 잘못이나 허물을 가리키는 말.

406) 관리가 지켜야 할 계율이나 그것을 적어 놓은 글.

407) 가슴에 새기는 듯 한 깊은 가르침.

408) 칼 같은 것을 숫돌에 같음. 전(轉)하여 스스로 나아가 수양에 힘씀.

그 뒤에 대신(臺臣)은 대유(大猷)<sup>409</sup>의 세대(世代)는 보지 못하고 한 쪽으로 치우친 논의는 관습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윽고 대론(臺論)이 격론하되 변함이 없고 올라가되 내려옴은 없었습니다. 전함(前啣)<sup>410</sup>의 소장(疏章)에 이르러서는 전착(顛錯)<sup>411</sup> 광양(劬勲)<sup>412</sup>의 부끄러움을 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관(臺官)에 있는 사람의 말이 혹도 어긋나게 외치고 혹도 참담하게 논하여 조저(朝著)<sup>413</sup>에 장차 평윤(平允)<sup>414</sup>의 논의가 없어질까 봐 신(臣)은 근심합니다.

이 때에 양학(洋學)이 더욱더 성(盛)하니 동조(東朝)<sup>415</sup>의 금부(義禁府)에 명하여 설국(設鞫)<sup>416</sup>형포(訶捕)<sup>417</sup>하게 하였다. 아마도 이것은 그들이 십수 년 전부터 오면서 원근(遠近)이 미연(靡然)<sup>418</sup>하게 전습(傳習)하고 이유목염(耳濡目染)<sup>419</sup>하여 치열함이 진신(搢紳)에 까지 번졌다. 이에 부군(府君)은 매우 걱정하여 그들을 물리치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삼았다.

선조(先朝)에 있어서도 일찍이 이러한 일을 만나면 엄격하게 내치는 정승들도 또한 연이어 진술하여 아뢰었다. 이에 명을 받고 옥사(獄事)를 상고(詳考)하니 그들의 괴수(魁首)를 주옥(誅戮)하고 그 무리를 서치(鋤治)<sup>420</sup>하여 소탕할 것을 기약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뉘우침이 있으면 모두 관대(寬貸)<sup>421</sup>하여 스스로 새롭게 하였다. 또한 모두 진육(盡戮)하지 못하여 뒷날에 재앙이 될까 봐 두려워하였다.

이에 부군(府君)이 연주(筵奏)에 말하기를,

사추(邪醜)의 씨앗이 있으면 그 풍속을 독려(毒癘)<sup>422</sup>가 서로 물들 듯 그릇되게 합니다.

伊來後進臺臣 未見大猷之世  
慣聞偏諛之論 遂以臺論 寧激  
無渝 寧升無降 以至前啣之疏  
或取顛錯劬勲之差 而居臺者  
或遣辭駮悖 或論人慘刻 朝著  
將無平允之論 臣竊憂之  
是時洋學益盛 東朝命義禁府  
設鞫訶捕蓋其漸始自十數年來  
遠近靡然傳習耳濡目染 熾及  
搢紳 府君深以爲憂 以闕廓爲  
己任 在先朝 亦嘗遇事嚴斥  
及爲相又縷縷陳白矣 及是承  
命按獄 誅戮其魁 鋤治其黨  
期于掃蕩 而其有以悔悟供者  
悉寬貸令自新 又恐殄戮未盡  
而爲後日禍 筵奏曰 邪醜之種  
所在 輒誤其俗 如毒癘之相染

409) 커다란 꾀. 대도(大道).  
410) 전직 관리. 이전의 직함이나 관직명.  
411) 앞뒤를 뒤집어서 어그려 뜨림.  
412) 급히 하는 모양.  
413) 조정(朝廷). 조정에 상정(常廷)된 열위(列位).  
414) 공평하고 진실하게 함.  
415) 대비가 거처하는 궁궐. 곧 대비를 일컬음.  
416) 죄인을 심문하기 위하여 국청(鞫廳)을 설치함.  
417) 남 모르게 가만히 잡아들임.  
418) 초목이 바람에 나부끼어 쓰러지듯 쓸리는 모양.  
419) 귀에 물들고 눈에 물들음. 곧 그쪽으로 점점 익혀감.  
420) 김을 내어 뽑아 버리듯 다스림.  
421) 형벌(刑罰)을 너그럽게 함.

이 또한 모두 일률적으로 처단하지 못하니 그 실정(實情)의 죄가 가벼운 사람은 청컨대 해도(海島)에 편배(編配)<sup>423</sup>하소서. 그리고 그 정강(井疆)<sup>424</sup>을 정하여 왕래를 금하여 그들로 하여금 죄를 누우치고 스스로 혁신케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월을 두고 섬 속에 마멸(磨滅)하여 전염(傳染)을 끊어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삼사(三司)가 다시 채제공을 사당(邪黨)의 괴수(魁首)라고 하니 작시(爵諡)<sup>425</sup>를 추탈(追奪)<sup>426</sup>할 것을 부군(府君)이 특별히 청하여 윤희(允許)하였다.

여름에 권유(權裕)가 헌장(憲長)<sup>427</sup>으로 상소하여 먼저 그 때에 징토(懲討)한 의(義)로써 말 하니 왕께서 비지(批旨)를 내려 지극히 권장하고 자랑하셨다. 이에 부군(府君)이 차대(次對)<sup>428</sup>에서 아뢰기를,

난적(亂賊)을 이미 토벌하여 의리가 크게 천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저(朝著)<sup>429</sup>에는 인협(寅協)<sup>430</sup>하는 형상이 있고 군려(群黎)<sup>431</sup>는 화평(和平)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교목세가(喬木世家)<sup>432</sup>에 충신(忠臣) 명보(名輔)<sup>433</sup>가 많거늘 의이(疑貳)<sup>434</sup>하고 불협(不叶)한 논의를 그 사이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일전에 권유(權裕)의 한 소장(疏章)은 아마도 노신(老臣)의 충곤(忠愍)이 나라를 위한 심원(深遠)한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덧붙여 올린 몇 줄의 구절에는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지적인 뜻이 많고 또한 서로가 믿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못 이것은 거실(巨室) 명문(名門)에 같은 사람의 의리가 어긋나는 것이 있으니 크게 실언(失言) 한 것입니다.

亦不可盡以一律處也 其情罪傳之輕典者 請編配海島 定其井疆 禁其往來 俾悔罪自革 如其不然 引以歲月 令磨滅島中 以絕傳染 三司 復以蔡濟恭 爲邪黨之魁 請追奪爵諡 府君特請 允許

夏 權裕以憲 長上疏而首而其時 懲討之義爲說 批旨 極其獎詡 府君於次對 奏曰亂賊既討 義理大闡 朝著厥有寅協之象 群黎將承和平之福 而凡我喬木世家 多是忠臣名輔之後 曷嘗有疑貳不叶之論於其間哉 日前權裕一疏 盖出於老臣忠悃 爲國深遠之慮 而附陳數行之句語 實多不審指意 亦欠相孚 殆若巨室名門之同人 有秉義參差者然 大是失言

422) 나쁜 병을 일으키는 기운.

423) 조선 시대에 도형(徒刑)이나 유형(流刑)에 처한 죄인의 이름을 도류안(徒流案)에 기록하여 넣는 것을 말함.

424) 마을 또는 마을의 경계. 425) 죽은 뒤에 그 사람의 생전 훈위(勳位)를 깎아 없앴.

426) 임금의 허락. 427) 조선 시대 사헌부(司憲府)의 장관인 대사헌(大司憲)을 이르는 말.

428) 조선 시대 정부당상(政府堂上)·대간(臺諫)·옥당(玉堂)들이 매월 여섯 차례 입시(入侍)하여 중요한 정부(政務)를 상주(上奏)하던 일.

429) 조정(朝廷). 조정에 상정(常定)된 열위(列位).

430) 서로 공경하고 협력함. 특히 신하들이 서로 조심하여 공사(公事)를 봉행하고 마음을 합쳐 공경을 다하는 것을 말함.

431) 많은 서민(庶民) 많은 백성.

432) 대대로 문벌이 높은 집안.

433) 군왕을 잘 보필(補弼)하는 이름 있는 신하.

434) 의심하고 배반할 마음을 먹음.

신(臣)은 나름대로 생각하니 바야흐로 지금 조정(朝廷)의 의론(議論)은 청화(淸和)하고 융철(融澈)합니다. 혹 추호라도 가슴에 원한이 맺힌 단서(端緒)가 있을까 봐 두려우니 청컨대 권유(權裕)를 추고(推考)<sup>435</sup>하고 자전(慈殿)의 민한(悶旱)<sup>436</sup>을 구언(求言)합니다.

이에 부군(府君)이 관료(官僚)들과 더불어 연차(聯筭)<sup>437</sup>진계(陳戒)<sup>438</sup>하기를

신(臣)들이 어제에 자성(慈聖)의 하교(下敎)를 부복(俯伏)하여 읽었습니다. 그 하교(下敎)에 민한(悶旱)을 구조하는 지성(至誠)과 고심(苦心)이 돈어(豚魚)<sup>439</sup>을 믿게 하고 목석(木石)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밤을 새워 장엄하게 읽었으나 마음에 어찌 할 바를 몰랐습니다 .

아~! 엄려(嚴廬)<sup>440</sup>에서 공묵(恭默)하는 임금의 공적은 샘물에 이르되 불이 타고 염유(簾帷)<sup>441</sup>에 고요한 자심(慈心)은 아침에 메마르고 저녁에 두려워합니다. 작년 6월 이후에 자성(慈聖)이 사교(辭敎)<sup>442</sup>에 펴고 주조(注措)<sup>443</sup>에 베푼 것은 선왕(先王)의 지사(志事)를 체득하여 선왕의 의리를 천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큰 조화로운 음공(陰功)이 하늘 즘음에 다 함이 없건만 시우(時雨) · 시양(時暘)의 응보(應報)가 어긋남이 없으려만 지금의 가뭄이 어찌하여 이렇게 심합니까. 자교(慈敎) 중 8조(條)가 정녕 거듭 반복하니 비록 현량방정(賢良方正)하고 직언극간(直言極諫)하는 선비로 하여금 용지(龍墀)<sup>444</sup>에 대책(對策)하고 곤궤(袞闕)<sup>445</sup>에 지진(指陳)하더라도 이에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臣竊惟方今朝論 淸和融澈之際 或恐有纖毫芥滯之端 請權裕推考 慈殿悶旱求言 府君與僚相聯筭陳戒 曰臣等 昨伏讀 慈聖下敎 悶旱求助之至誠 苦心 有可以孚豚魚感木石 達宵莊誦 不知所以爲心 嗚呼嚴廬恭默 聖工泉達而火燃 簾帷靜穆 慈心朝乾而夕惕 越自昨年六月以後 發諸辭敎 施諸注措者 無非體 先王之志事 闡 先王之義理 丕化陰功 際天無極 時雨時暘之若應 必無爽而今茲之旱 何爲而太甚耶 慈敎中八條 丁寧諄復 雖使賢良方正 直言極諫之士 對策龍墀 指陳袞闕 恐無以出此

435) 소장(訴狀)의 내용을 따지고 살핌.

436) 가뭄을 근심스러워 하고 답답해함.

437) 두 사람 이상이 서로의 이름을 서명하여 임금에게 시사(時事) 및 비밀스런 일 등에 대하여 올리는 차자(劄子).

438) 신하가 임금에게 이변(異變)에 대하여 경계하고 두려워하라는 뜻으로 상소(上疏)를 올리는 것.

439) 돼지와 물고기. 곧 미물을 뜻함.

440) 임금이 국상(國喪)을 당하였을 때 거처하는 여막(廬幕).

441) 발과 휘장. 여기에서는 자성(慈聖)이 있는 곳을 뜻함.

442) 말로써 내린 교시(敎示).

443) 관심을 기울리어 조처(措處)함.

444) 대궐의 섬돌.

445) 임금의 잘못이나 허물을 가리키는 말. 곧 곤궤(袞躬闕失)의 준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현사(賢士)가 나아가서 보익(輔翼)하지 않으므로 충벽(冲辟)<sup>446</sup>이 그 술(術)을 다 하지 못하였습니다. 곧 그 큰 강령(綱領), 큰 관려(關樞)<sup>447</sup>를 이에 다 할 수 있다면 공도(公道)가 날로 회명(晦冥)함을 근심하겠습니까. 또한 비근(卑近)한 관습이 점점 방자해짐을 근심하며 흉추(凶醜)가 오히려 불꽃처럼 성함을 염려 하겠습니까.

따라서 화열(禍孽)<sup>448</sup>의 조짐이 있는 사람은 가히 거슬러 꺾을 수 있고 공의(公議)에 억울한 사람은 스스로 시원하게 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민(生民)의 도현(倒懸)<sup>449</sup>은 스스로 풀 수 있고 관리(官吏)의 탐독(貪黷)도 스스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신(臣)들은 모두 선조(先朝)의 구물(舊物)에 반박(盤礴)<sup>450</sup>·전회(低回)<sup>451</sup>하면서 차마 선뜻 이별하지 못하고 탐연(貪戀)<sup>452</sup>하듯 하는 것은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진실로 원하건데 착한 사람을 인진(引進)하여 우리 군왕(君王)의 좌우에 두고 날마다 정논(正論)을 듣고 정사(正事)를 행하소서. 그리고 근본의 지반(地盤)을 숙청(肅淸)하고 간우(艱虞)<sup>453</sup>의 형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에兢兢(耿耿)<sup>454</sup>하는 일념으로 명촉(明燭)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감(知鑑)<sup>455</sup>이 변별(辨別)하지 못하거나 위망(威望)이 탄압하지 못하면 언제나 ‘궁중부중 구위일체(宮中府中 俱爲一體)-궁중(宮中)과 부중(府中)이 함께 일체가 되다’, ‘척벌장부 불의이동(陟罰臧否 不宜異同)-벌과 포상을 올리지 않으면, 이동(異同)이 마땅하지 않다.’란 말을 읽어서 괴한(愧汗)<sup>456</sup>에 옷을 적시지 마소서.

然 其中賢士 不進而輔翼 冲辟 有未盡其術 卽其大綱領 大關樞 此而能盡 何憂乎公道 日晦 何患乎近習漸恣 何慮乎凶醜猶熾 禍孽之兆眈者 自可以逆折 公議之抑鬱者 自可以快伸 生民之倒懸 自可以解矣 官吏之貪黷 自可以懲矣 臣等具以 先朝舊物盤礴 低回未忍 便訣 有苦貪戀者 豈有他哉 誠願引進善類 左右吾君 日聞正論 日行正事 肅淸根本之地 維持艱虞之勢 耿耿一念 明燭在前 而知鑑不足以辨別 威望不足以彈壓 每讀宮中府中 俱爲一體 陟罰臧否 不宜異同之語 未嘗不愧汗透衣

446) 나이가 어린 임금.

447) 문의 빗장.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부분을 말함.

448) 재앙이 일어나는 씨앗의 무리.

449) 손발을 묶어 몸을 거꾸로 매어 달음. 전(轉)하여 심한 고통.

450) 맴돌아 머뭇거리면서 기복(起伏)함.

451) 머리를 숙이고 왔다 갔다 함.

452) 사물에 마음이 매우 끌림.

453) 어렵고 걱정스러움.

454) 염려되는 일이 있어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모양. 또는 잠이 잘 들지 않는 모양.

455) 지인지감(知人之鑑)의 약어(略語). 곧 사람을 알아보는 식견(識見).

456) 부끄러워서 땀을 흘림. 또는 그 땀.

아~! 나라가 힘써야 하는 것은 용인(用人)보다 급한 것이 없고 대관(大官)의 책임은 진현(進賢)보다 우선함이 없습니다. 전하(殿下)께서 오늘에 강론(講論)하는 것은 중국 우·하·상·주(虞夏商周)나라의 글입니다. 성군(聖君)과 현보(賢輔)가 도유우불(都兪吁咈)<sup>457</sup>을 일념으로 부지런히 하는 것은 어찌 진현(進賢)·용현(用賢)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공자께서 구경(九經)을 강론할 적에 ‘수신(修身)’과 ‘존현(尊賢)’이 함께 그 바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명(賢明)한 사람을 높인 뒤에 자신(自身)을 닦을 수 있으니 어진 사람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닦는 사람은 없다. 성인(聖人)이 다시 살아나셔도 이 말을 바꾸지 않을 것이니 재앙이 굴러 상서로움이 되는 기약이 오로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연천(漣川) 유생(儒生)의 소장(疏章)에 우암(尤庵) 송시열 선생을 임장서원(臨漳書院)에 철향(膾享)<sup>458</sup>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부군(府君)이 왕에게 아뢰기를,

임장(臨漳)은 그 곳을 고장(古漳)이라고 일컬으니 맑게 흐르는 구곡(九曲)이 중국(中國) 무이(武夷)의 구곡(九曲)과 부합합니다. 숙종조에 창건하여 사액(賜額)<sup>459</sup>하고 또 선대왕(先大王)을 받들어 『양현전심록(兩賢傳心錄)』<sup>460</sup>을 손수 편찬하였습니다. 따라서 마땅히 운허(允許)하여 춘추(春秋)<sup>461</sup>를 높이고 의리(義理)를 밝히는 뜻을 덧붙이소서.

라고 아뢰었다.

嗚呼 有國之務 莫急於用人  
大官之責 莫先於進賢 殿下  
今日所講 卽虞夏商周之書也  
聖君賢輔之都兪吁咈 一念孜孜  
何莫非進賢用賢之事也 是故  
夫子論九經 修身尊賢 互爲其資  
尊賢而後 身可修 未有不尊賢  
而能修其身者也 聖人復起 不易  
此言 轉災爲祥之期 豈在乎斯矣  
漣川儒生疏請膾享尤庵宋先生于臨漳書院  
府君奏曰臨漳 地稱古漳 清流九曲  
與武夷相符 在肅廟朝 創建賜額  
又奉先大王 手編兩賢傳心錄 宜賜允  
從以寓尊春秋明義理之意焉

457) 서경(書經) 익직편(益稷篇)에서는 감탄사(感歎詞)로 사용하였으나 후세(後世)에는 군신(君臣)이 동심(同心) 합덕(合德)하여 서로 더불어 토론(討論)하는 말로 사용함.

458) 배향(配享)과 같은 뜻. 주신(主神)의 제사에 다른 신을 병행하여 제사함.

459) 임금이 절·사원(祠院)·누문(樓門) 등에 이름을 지어 편액(扁額)을 내림.

460) 정조의 명으로 주자(朱子)와 송시열(宋時烈)의 저작 속에서 심법(心法)에 관한 내용을 간추려 엮은 책. 1774년(영조 50) 정조가 동궁으로 있을 때 이시원(李始源) 등에게 명하여 1795년(정조 19)에 간행되었다. 1856년(철종 7)에는 중간본이 나왔다. 책머리에 정조의 어제서문과 이시원의 봉교서(奉敎書)가 있는데, 정조는 서문에서 양현(兩賢)의 심법이 거의 같다고 하고 송시열 심법의 소재를 밝혔으며, 정도(正道)를 지키고 사설(邪說)을 막는 데 이 책이 쓸모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권1~4는 주자의 저작에서, 권5~8은 송시열의 저작에서 각각 뽑아낸 것을 엮었다. 권1에 서간문 18편, 권2에 봉사(封事) 2편과 정조의 주(註), 권3에 봉사 1편과 주차(奏劄) 7편, 권4에 의장(議狀)·설·서(序)·부·시, 권5에 서(書) 5편, 권6에 봉사 2편, 권7에 소차(疏劄)와 유소(遺疏) 6편, 권8에 지문(誌文)·비·서·발·명·잔·부·시가 실려 있다. 8권 4책. 목판본.

461) 공자(孔子)가 지었다고 하는 중국 노(魯)나라 역사책. 은공(隱公)부터 애공(哀公)까지 열두 공(公)의 2백 42년간의 역사를 엮었음.

정일환(鄭日煥)이 특진관(特進官)으로 강연(講筵)에서 시정(時政)을 언급하였다. 이에 옥당(玉堂)<sup>462</sup>은 음관(蔭官)<sup>463</sup>의 자격으로서 정사(政事)을 의논할 수 없다고 하고 정일환의 죄를 왕에게 청하였다.

이에 부군(府君)이 아뢰기를,

정일환(鄭日煥)은 젊을 때부터 언론(言論)과 기절(氣節)이 사류(士流)의 추천하는 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리를 세우고 난적(亂賊)을 막아 눌러 세도(世道)에 공이 있습니다. 또한 선조(先朝)의 은혜를 입고 재상(宰相)의 대열에 발탁되어 강연(講筵)을 모셔온 지 이미 해가 지났습니다. 따라서 문의(文義)로 인하여 국가(國家) 형정(刑政)에 말이 미친 것은 품은 뜻이 있었으나 숨김이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죄를 청한 것은 진실로 아름다운 일이 아니므로 파직(罷職)의 전형(典刑)<sup>464</sup>을 거두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라고 청하였다.

10월에 부군(府君)이 우뢰로 인한 기상이변의 허물을 자신에게 돌리고 결퇴(乞退)<sup>465</sup>하니 왕께서 위유(慰諭)하고 허락하지 않았다.

처음에 정묘(正廟)가 지극한 아픔으로 마음에 즐거움이 없었다. 그래서 천승(千乘)<sup>466</sup>을 이미 옮기어 현릉원(顯隆園)<sup>467</sup>을 수원(水原)에 옮기고 성(城)을 유천(柳川)에 쌓았다. 그리고 행도(行都)<sup>468</sup>라고 명하고 행궁침전(行宮寢殿)에는 ‘미로한정(未老閒亭)’이라고 편액(扁額)을 걸었다. 그 미지(微旨)<sup>469</sup>의 소재(所在)는 대순(大舜)이 천하를 소유하는 것과 일치동부(一致同符)<sup>470</sup>하지 않는다.

鄭公日煥 以特進官 於講筵語及時政 玉堂 以蔭官不當論事 請鄭公罪 府君 奏曰鄭日煥自少言論氣節 爲士流所推 其所以扶樹義理 沮抑亂賊 有功於世道 且被 先朝恩 擢置宰列 陪侍講筵 既有年矣 因文義 而語及國家刑政 自是有懷無隱之義 以此請罪 誠非美事 請反施罷職之典 十月以雷異 引咎乞退 上慰諭不許 初 正廟 以至痛 存心無樂 千乘既移 奉 顯隆園于水原 築城柳川 命爲行都 扁行宮寢殿 曰 未老閒亭 其微旨所在 與大舜之有天下 不與一致同符

462) 조선 시대 홍문관(弘文館)을 달리 이르는 말.

463) 부조(父祖)의 음덕(蔭德)으로 얻은 벼슬. 또는 음직(蔭職)의 관원.

464) 예전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법전.

465) 결치사(乞致仕). 나이 많은 신하가 벼슬을 내놓고 그만두기를 임금에게 청원하는 것.

466) 천 필의 수레. 승(乘)은 수레를 세는 단위. 중국 주(周) 나라 때, 전시(戰時)에 천자(天子)는 만승(萬乘)을 제후(諸侯)는 천승(千乘)을 내도록 되어 있었음. 따라서 천승은 제후를 뜻하기도 함. 여기에서는 정조(正祖)를 뜻함.

467) 조선 제22대 임금인 정조(正祖)의 생부(生父) 사도세자(思悼世子:莊祖)와 그의 아내 경희왕후(敬懿王后) 혜경궁(惠慶宮) 홍씨(洪氏)의 묘(墓). 후에 융릉(隆陵)으로 추숭(追崇)되었다.

468) 수도(首都)의 밖에 별도로 하나의 도읍(都邑)을 세우고 완급(緩急)한 일을 대비 할 즈음에 정부(政府)가 잠시 이주(移駐)하는 것을 말함.

469) 깊고 미묘한 취지. 즉 임금의 뜻.

470) 일치되어 함께 부합(符合)함.



또 이르기를 행도(行都)<sup>471</sup>하는 특별한 날에 병위(兵衛)가 없을 수 없으니 황명(皇明)<sup>472</sup>이 친군(親軍)<sup>473</sup>하는 제도를 본받아서 일군(一軍)을 설치하고 내영(內營)<sup>474</sup>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부오(部伍)<sup>475</sup>가 단결하고 금곡(金穀)<sup>476</sup>을 비축하여 경영하고 적비(積費)<sup>477</sup>한 세월에 홍규(洪規)<sup>478</sup>와 세절(細節)<sup>479</sup>이 모두 성재(聖裁)<sup>480</sup>에서 나왔다.

이른 바 장용영(壯勇營)은 이미 경신년(庚申年) 산릉(山陵)을 조성한 뒤에 설치된 기구이다. 부군(府君)이 분개하여 말하기를,

내영(內營)을 설치 한 것은 선왕(先王)이 인륜(人倫)을 다하고 제도를 다 하는 지성(至誠)과 고심(苦心)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유유(悠悠)한 무리들이 미지(微旨)를 살피지 못하여 전세(前世)의 완병(玩兵)<sup>481</sup> · 요무(耀武)<sup>482</sup>를 혼간(混看)한다면 성인(聖人)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궁검(弓劍)으로 갑작스레 남긴 뜻을 펴지 못하거나 또한 고치지 않고 한갓 귀연(巋然)<sup>483</sup>하게 한 군대(軍隊)를 오영(五營) 경제(經制)<sup>484</sup>의 밖에 별도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그 충성의 바탕이 손익(損益)을 참작하여 뚜렷하게 모렬(謨烈)<sup>485</sup>을 이어받는 의(義)를 아마도 통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선조(先朝) 때에 부득이 마지못할 정의(精義)가 있으므로 이에 마지못해 설치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 의리(義理)는 때에 따라서 달라지고 제도(制度)는 통변(通變)하니 옛 선대왕(先大王)의 하교(下教)를 기억합니다.

又謂行都異日 不可無兵衛 倣  
皇明親軍之制 設置一軍 名曰  
內營 部伍團結 金穀委積 曲  
有經畫 積費歲月 洪規細節  
悉出 聖裁 所謂壯勇營 是已  
庚申 山陵之後 府君 慨然曰  
內營設置 乃 先王盡倫盡制之  
至誠苦心 悠悠之徒 不察微旨  
厥或混看於前世之玩兵耀武  
則非所以知 聖人也 今 弓劍  
遽遺志事莫伸 而若又仍而不  
改 徒使巋然一軍 別立於五營  
經制之外 則其在忠質損益 顯  
承謨烈之義 盖有所未達也  
先朝時 則有不得已之精義 故  
斯有不得已之制置 然到今義  
隨時異 制合通變 則記昔 先  
大王下教

471) 수도(首都)의 밖에 별도로 하나의 도읍(都邑)을 세우고 완급(緩急)한 일은 대비 할 즈음에 정부(政府) 또는 임금이 잠시 이주(移駐)하는 것을 말함.

472) 천자(天子)의 밝은 덕(德). 중국 명(明)나라 조정(朝廷).

473) 제왕(帝王)이 군사를 친애함.

474) 정조(正祖) 때 장용영(壯勇營)의 본영. 수원에 설치된 장용영의 군영은 상대적으로 외영(外營)이라고 하였다.

475) 군진(軍陣)의 대오(隊伍).

476) 돈과 곡식.

477) 힘과 정력을 많이 씀.

478) 큰 법규(法規).

479) 자질구레한 절목(節目).

480) 임금의 재가(裁可)를 높혀 부르는 말.

481) 용병(用兵)을 희롱삼아 가볍게 하는 일.

482) 무력(武力)을 드러내어 보임.

483) 독립(獨立) 자족(自足)하는 모양.

484) 나라를 경영하는 제도(制度).

485) 정책(政策)이 충직(忠直)함.

연신(筵臣)이 말하기를, 「한 때의 권의(權宜)<sup>486</sup>는 가히 법(法)이 되지 못하니 바로 금일(今日)에 마땅히 우러러 체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혹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삼년무개(三年無改)<sup>487</sup>의 의(義)로써 우선 내년을 기다려야 옳다.」고 하나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친다는 것은 변혁(變革)하고 경장(更張)<sup>488</sup>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온(精蘊)<sup>489</sup>을 발휘하고 이훈(彝訓)<sup>490</sup>을 대량(對揚)<sup>491</sup>하여 제작(制作)의 미지(微旨)로 하여금 수유(垂裕)의 성덕(盛德)을 아울러 일성(日星)에 건다면 이것은 선계(善繼)<sup>492</sup> 선술(善述)<sup>493</sup>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즉일(即日)에 그것을 시행하여도 옳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임술(壬戌, 1802)년 봄에 부군(府君)이 연백(筵白)<sup>494</sup>하여 장용영(壯勇營)을 파(罷)하였다.

용인유생(龍仁儒生)등이 도암(陶庵) 이재(李縉)<sup>495</sup>를 모시는 서원(書院) 건립을 위하여 사액(賜額)<sup>496</sup>을 청하니 품처(稟處)<sup>497</sup>의 명이 있었다. 복주(覆奏)하여 말하기를,

문정공(文政公) 이재(李縉)는 도학(道學) 명절(名節)<sup>498</sup>이 우뚝하여 일세(一世)에 존앙(尊仰)<sup>499</sup>하는 바가 됩니다. 청컨데 그를 제사(祭社)<sup>500</sup>하고 선언(宣額)<sup>501</sup>하여 사림(士林)들의 고산(高山) 경행(景行)<sup>502</sup>의 의(義)가 되도록 하소서.

라고 청하였다.

筵臣曰一時權宜 不可以爲法者 正今日之所當仰體 或曰以三年無改之義 姑待來年爲可此則不然也 改之云者 變革更張之謂也 若夫發揮精蘊 對揚彝訓 使制作之微旨 垂裕之盛德 并揭日星 是之謂善繼善述 雖即日行之可也 壬戌春 筵白罷之 龍仁儒生等 請爲陶庵李公 建院 賜額 有稟處之 命覆奏曰文正公李縉 道學名節蔚爲一世之所尊仰 因其祭社 請以宣額 可見士林高山景行之義

486) 한 때의 사정에 따라 성인(聖人)이나 임금의 의(義)를 밝혀 임시로 상황을 고려하여 맞게 조처하는 것. 487) 부모가 죽은 뒤에도 3년 동안 부모의 업(業)을 고치지 아니함. 488) 사회적 정치적으로 부패한 제도를 바르게 고침. 489) 정묘하고 온오(蘊奧)함. 490) 사람으로서 떳떳이 지켜야 할 교훈. 491) 임금의 명령에 답하여 그 뜻을 천하에 알림. 492) 부모의 뜻을 잘 이어받음. 493) 부모가 하던 일을 잘 마무리 함. 494) 연석(筵席)에서 강론할 때 이와 관련된 사회·정치적인 문제를 주청(奏請)하는 일. 495) 1680~1746(숙종 6~영조 22) 조선 후기 문신. 자는 희경(熙卿), 호는 도암(陶庵)·한천(寒泉). 본관은 우봉(牛峰). 김창협(金昌協)의 문인이다. 1702년(숙종 28) 알성문과에 급제, 예문관검열이 되어 《단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1707년 문과중시에 급제, 홍문관부교리·이조정랑 등을 거쳐 수원도호부사·병조참의·동부승지 등을 지냈다. 이어 부제학이 되었을 때 《가례원류(家禮源流)》의 편찬자를 둘러싼 시비가 일어나자 노론으로서 소론을 공박하였다. 1719년 경상도에 균전사(均田使)로 나가 시급한 토지정책을 진술하였다가 삭직되었으나 이듬해 다시 함경도관찰사에 기용되었다. 1722년(경종 2) 신임사화(辛壬士禍) 때 관직을 사퇴하고 인제(麟蹄)로 들어가 성리학연구에 몰두하였다. 1724년 영조의 즉위로 노론이 재집권하자 1725년(영조 1) 부제학에 복직, 이조참판 등을 지냈으며 1727년 정미환국(丁未換局)으로 다시 문외출송(門外黜送)된 뒤 후학양성에 힘썼다. 1741년 예문관제학, 1743년 우참찬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당시의 호락논쟁(湖洛論爭)에서는 이간(李柬)의 학설을 지지하여 한원진(韓元震) 등이 주장한 호론(湖論)을 논박한 낙론(洛論)의 대표적 학자이다. 용인(龍仁)의 한천서원(寒泉書院)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문정(文正). 496) 임금의 절·사원(祠院)·누문(樓門) 등에 이름을 지어 편액(扁額)을 내림. 497) 임금이나 윗사람에게 여쭙어서 처리함. 498) 명예(名譽)와 절조(節操). 499) 학덕이 있는 사람을 높혀 우러러 봄. 500) 천지신(天地神)에게 제사(祭祀)를 지냄. 501) 임금이 사우(祠宇)나 서원(書院) 등에 이름을 지어 편액(扁額)을 하사함. 502) 큰 길. 대도(大道). 훌륭한 행실.

사학유생(四學儒生)이 기천(沂川) 홍명하(洪命夏)<sup>503</sup>의 철향(膺享)을 청하였다. 이에 부군(府君)이 헌의(獻議)<sup>504</sup>하여 말하기를,

고(故) 상신(相臣) 문간공(文簡公) 홍명하(洪命夏)는 학식(學識)과 사공(事功)이 위연(偉然)<sup>505</sup>하신 성조(聖朝)의 명보(名輔)입니다. 이와 같이 남궁엄(南宮嚴)의 사기(辭氣)<sup>506</sup>가 저 표봉(鬯鋒)<sup>507</sup>의 늠름(凜凜)함에 꺾이어 오히려 그의 생기(生氣)가 천지간에 남아있습니다. 기상(沂上)에 두 세분 대유(大儒) 명신(名臣) 조두(俎豆)<sup>508</sup>의 원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숙망(宿望)<sup>509</sup> 위렬(偉烈)이 유독 철향(膺享)에 누락되어 진실로 흠전(欠典)<sup>510</sup>이 되므로 특별히 윤택(潤澤)하소서.

라고 청하니 왕께서 따랐다.

대사간(大司諫) 백사근(白師謹)이 상소(上疏)를 올려 경묘(景廟)<sup>511</sup> 임인(壬寅, 1722)년에 무옥(誣獄)으로 화(禍)를 입은 사인(士人) 김용택(金龍澤) 등 5인에게 관직의 포증(褒贈)을 청하였다. 이에 부군(府君)이 의논(議論)을 드려 고(故) 장령(掌令) 민익수(閔翼洙)의 말을 인용하여 특별히 윤택(潤澤)할 것을 청하니 왕께서 따랐다.

전(前) 장령(掌令) 김일주(金日柱)는 일찍이 경연(經筵)에서 ‘극기(克己)’ · ‘안민(安民)’이란 두 글자를 우러러 면려(勉勵)하게 하였다. 그리고 퇴귀소(退歸疏)<sup>512</sup>를 올려 절목(節目)을 진술하니 이에 다시 전설(前說)과 같이 신주(申奏)<sup>513</sup>하였다.

四學儒生 請沂川洪公膺享 府君獻議 曰故相臣文簡公洪命夏 學識事功 偉然爲 聖朝之名輔 至若南宮嚴 辭折彼之鬯鋒凜凜 猶有生氣於天地之間矣 沂上 有數三大儒名臣 俎豆之院 以若宿望偉烈 獨漏膺享 誠爲欠典 特 賜允從 大司諫白師謹疏 請褒贈 景廟壬寅 誣獄被禍 士人金龍澤等五人 職 府君獻議 引故掌令閔公翼洙之言 請特 賜允從 前掌令金日柱 嘗於 經筵 以克己安民二字 仰勉 及退歸疏 陳其節目 至是復申前說

503) 1608~1668(선조 41~현종 9) 조선 중기 문신. 자는 대이(大而), 호는 기천(沂川). 본관은 남양(南陽). 1646년 문과에 급제하여 규장각대교·정언(正言)·교리(校理)·부수찬(副修撰) 등을 지냈다. 1649년 이조좌랑(吏曹佐郎)으로 암행어사가 되어 이름을 떨쳤으며, 1652년(효종 3) 동부승지(同副承旨)·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을 거쳐 대사간으로 청나라에 사은부사(謝恩副使)를 다녀왔다. 3년(현종 4) 우의정, 1665년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다.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글씨에도 뛰어났다. 효종의 북벌계획을 적극 추진하였고 박세채(朴世采)·윤증(尹拯) 등 명신들을 조정에 천거하였다. 저서에 《기천집》이 있다. 여주(驪州) 기천서원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간(文簡).

504) 상부에 무슨 의견을 바칩.

505) 위대한 모양.

506) 말하는 기운.

507)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날.

508) 도마와 접시. 제기(祭器)의 이름.

509)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덕망. 노성(老成)하여 기대가 큰 사람. 510) 흠점이 있는 일. 불충분한 법규.

511) 조선 왕조의 20대 왕, 경종(景宗)을 지칭함. 512) 관직에서 물러나와 향리(鄉里)로 가게 해 달라는 상소.

513) 상신(上申)함 위에 주달(奏達)함.

또 한남당(韓南塘)에게 시호(諡號)를 하사할 것을 청하니 왕께서 가납(嘉納)<sup>514</sup>하여 의정부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부군(府君)이 회계(回啓)<sup>515</sup>하니 그를 요약하면,

상소 중에 논한 극기(克己)란 말은 지난번 장계(狀啓)에 대략 진술하였습니다. 공문(孔門)에서 전수하는 비결은 예(禮)가 아니거든 시청언동(視聽言動)<sup>516</sup>치 말라는 것에 지나지 않을 따름입니다. 지금에 유현(儒賢)이 진술한 6조(條)는 오히려 어려운 것입니다. 아마도 이에 조술(祖述)<sup>517</sup>하여 날로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말 했을 뿐입니다.

선유(先儒)의 말에 극기(克己)는 모름지기 성품이 치우쳐 이기지 못하는 곳을 따라서 이겨가라는 뜻입니다. 못 사람이 출생하여 생지(生知)<sup>518</sup> 안행(安行)<sup>519</sup>의 자질(資質)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는 소리, 눈은 빛, 입은 맛, 코는 냄새, 사체(四體)는 안일(安逸)에 있어서 능히 중정(中正)<sup>520</sup>함에 한결같이 하여 추호라도 편의(偏倚)<sup>521</sup>한 사사로움이 없지 않습니다.

만약에 공도(公道)<sup>522</sup> 라면 오직 집행함이 견고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더욱 더 확충하는 도(道)에 힘쓸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심(私心)<sup>523</sup>이라면 오직 제거하는 데에 힘쓰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몹시 알절(遏絕)의 방법을 더할 것입니다. 남이 한번하면 자기는 백번하여 힘써 스치지 않고 나로 하여금 방촌(方寸)<sup>524</sup>의 가운데에 인욕(人慾)이 깨끗하게 없어지고 동정운위(動靜云爲)<sup>525</sup>하게 합니다.

이것이 그 하나라도 천리(天理)의 바른 데에서 나오니 이른 바 복례(復禮)<sup>526</sup>란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二帝)<sup>527</sup>가 정일집중(精一執中)의 가르침을 서로가 전하니 또한 이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상(聖上)에 있어서는 먼저 위에서 일컫는 ‘일용이지처(日用易知處)’<sup>528</sup>를 따라서 맹렬하게 살피고 힘써 행해야 합니다.

又請 賜韓南塘諡 上嘉納 令廟堂稟處 府君回 啓 略曰疏中 所論克己之說 前啓已略陳之 而孔門傳授之訣 不過曰非禮勿視聽言動而已 今儒賢所陳六條覆難 盖亦祖述乎此 而就日用易知者而說耳 先儒之言 曰克己 須從性偏難克處克將去 凡人之生 自非生知安行之姿 耳之於聲 目之於色 口之於味 鼻之於臭 四體之於安逸 或不能一於中正 而無纖毫偏倚之私也

如其公也 惟恐執之不固 而益懋擴充之道 如其私也 惟恐去之不力 而痛加遏絕之方 人一己百 勉勉不已 使吾方寸之中 人慾淨盡 而動靜云爲 無一不出於天理之正 是所謂復禮 而二帝相傳精一執中之訓 亦不外是 在 聖上 先從上所稱日用易知處 猛省而力行之

514) 간(諫)하는 말을 옳게 여겨 받아들이거나 바친 물건을 기쁘게 받아 들임.

515) 임금의 물음에 대하여 심의하여 상주(上奏)함.

516)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임.

517) 스승이나 조상의 도(道)를 이어 받아서 서술(敍述)하여 밝힘.

518) 삼지(三知)의 하나. 날 때부터 알음. 배우지 않고서도 사물의 도리에 통함.

519) 안심하고 행함. 520) 치우치지 않고 바름.

521) 기울어져 있음. 522) 여러 사람의 길. 곧 바른 도리.

523) 제 욕심을 채우는 마음. 524) 마음.

525) 사람의 언동(言動)하는 것과 말.

526) 예의를 지킴. 예(禮)에 따라 행함.

527) 요(堯) 임금과 순(舜) 임금. 528) 날로 쓰고 쉽게 알 수 있는곳.

유독은미(幽獨隱微)<sup>529</sup>하여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 이르러서도 항상 공경하고 두려워함을 가지고 사이가 끊어짐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화(功化)<sup>530</sup>가 미치면 천하가 인(仁)으로 돌아가고 만물이 함육(咸育)함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절절연(切切然)하게 아침에 상소를 바치고 저녁에 장계(狀啓)를 다시 올리고 멈춘다면 한갓 지상(紙上)의 공문(空文)만 볼 뿐입니다. 따라서 돌아보건 데 성치(聖治)에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고(故) 유인(儒人) 한원진(韓元震)의 시호(諡號)를 제의(提議)하니, 「진실로 사림(士林)의 공의(公議)이니 마땅히 빨리 허락하여 시행해야한다.」고 윤희하셨다. 국상(國祥) 뒤에 동조(東朝)가 하교(下敎)하기를,

고(故) 봉조하(奉朝賀) 김중수(金鍾秀)가 하세(下世)한 뒤에 조정(朝廷)에 있는 사람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그 이외는 의리를 담당하여 짊어진 사람이 없었다. 유독 지금에 영상(領相) 한 사람이 전인(前人)을 이어서 죽음을 맹세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흘연(屹然)히 퇴파(頽波)<sup>531</sup>에 지주(砥柱)<sup>532</sup>가 되는 것이다.

대상(大喪)<sup>533</sup> 이후로부터 충벽(冲辟) 및 미망인(未亡人)을 보익(輔翼)하되 추악한 무리를 내치고 선류(善類)<sup>534</sup>를 등진(登進)할 것이다. 또한 선왕(先王)의 의리(義理)의 올바른 바를 천명하고 종사(宗社) 贅류(贅旒)<sup>535</sup>의 위태로움을 부축해 도우려는 것이다.

따라서 알알(戛戛)<sup>536</sup>한 미륵(彌綸)<sup>537</sup>이 금일(今日)에 편안한 자를 있게 하는 것은 그 공이 위대하다. 선왕(先王)의 칙철지명(則哲之明)<sup>538</sup>이 만년(晩年) 제우(際遇)<sup>539</sup>에 갈수록 더욱더 융중(隆重)하니 이에 대신(大臣)된 자들이 어찌 그런 바가 없겠는가.

至於幽獨隱微 人所不知之地  
常存敬畏 無所間斷 則功化所  
及 將見天下歸仁 萬物成育  
不然而切切然朝進一疏 暮覆  
一啓而止 則徒見其爲紙上之  
空文 顧何益於 聖治哉  
故儒人韓元震 議諡事 允爲士  
林公議 宜亟 許施行 國祥後  
東朝下敎 曰故奉朝賀金鍾秀  
下世之後 環顧在廷 更無擔荷  
義理之人 獨有今領相一人 追  
繼前人 誓死靡他 屹然爲頽波  
砥柱 自 大喪以後 輔翼 冲辟  
暨 未亡人 屏逐群醜 登進善  
類 闡 先王義理之正 扶 宗社  
贅旒之危 戛戛彌綸 俾有今日  
之安者 其功亦偉矣 以 先王  
則哲之明 晩年際遇 去益隆重  
於此大臣者 豈無所以而然哉

529) 한적하여 외롭고 희미함.

530) 공적(功績)의 조화.

531) 무너지는 파도. 곧 세력이나 기세(氣勢)가 쇠하여짐.

532) 난세(亂世)에 있으면서도 절조(節操)를 지키는 것을 비유함. 중국 황하(黃河) 가운데에 있는 산으로 격류(激流) 속에 있으면서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에서 온 비유.

533) 임금의 상사(喪事).

534) 착한 분류의 사람.

535) 그 자리에 있으면서 실권(實權)이 없음.

536) 물건이 서로 맞 닿는 소리.

537)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운음(鑰音).

538)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

539) 어떤 계기로 인하여 서로가 만남.

그 금일(今日)에 있어서는 오직 주상(主上)께서 미망인(未亡人)과 더불어 의비(倚毗)<sup>540</sup> 책성(責成)<sup>541</sup>하여 이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무릇 지금 조정에 있는 사람은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정(公正)하되 고계(告誡)의 법규(法規)를 다 하고 인협(寅協)<sup>542</sup>의 의리를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내가 생각건대 금일(今日)에 조정의 상황이 진실로 그러한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다. 이것은 오직 각자가 자신을 위하여 다른 생각을 하고 나라를 자기 집처럼 지성(至誠)·동인(同寅)<sup>543</sup>의 의리로 근심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찌 정신(廷臣)에게 바라겠는가. 종묘와 국가를 염려하는 걱정이 만단(萬端)하여 언제나 그 생각으로 새벽까지 잠 못 이룬다. 오직 내가 금일(今日)에 생각하는 일을 그래도 정신(廷臣)은 믿을 것이다.

10월에 우리의 이변(異變)으로 상차(上筮)<sup>544</sup>하여 곧 걸퇴(乞退)하여 말하기를,

대저 우리란 것은 분발(奮發)하는 형상이니 성인(聖人)이 그것을 법칙(法則)하여 천선개과(遷善改過)하니 소위 바람과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전하(殿下)께서는 마땅히 혁연(赫然)이 분발하고 여정도리(勵精圖理)<sup>545</sup>하여 소성(小成)에 편안하지 말고 세무(細務)에 급하게 여기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총찰(聰察)함을 우선으로 하지 마시고 너무 침묵(沈默)함을 위주로 하지 마셔야 합니다. 선연확확(蟪蛄蝻獲)<sup>546</sup>의 가운데 하전(厦氈)<sup>547</sup> 당황(堂皇)<sup>548</sup>의 위에서 정지(情志)가 통달(洞達)하고 기상(氣象)이 회확(恢廓)하여 팔방(八方)의 조서(兆庶)<sup>549</sup>로 하여금 중천(中天)에 일월(日月)을 우러러 보듯 해야 합니다.

其在今日 惟 主上 與 未亡人之倚毗責成 非但舍此人無他 凡今在廷 惟當一心公正 以盡告誡之規 以圖寅協之義 而以予度之 今日朝象 未知其果然 苟或不然 是惟各自爲身謀 殊非憂國 如家至誠同寅之義 豈予所望於廷臣者哉 言念 宗國憂虞萬端 每一興懷 明發不寐 惟予今日懷事 庶幾廷臣之見諒

十月 以雷異上筮陳戒 仍乞退 曰夫雷者 奮發之象 聖人則之 遷善改過 所謂風雷之交益也 惟我 殿下 政宜赫然奮發 勵精圖理 毋安於小成 毋急於細務 毋以聰察爲先 毋以淵默爲主 蟪蛄蝻獲之中 厦氈堂皇之上 情志洞達 氣象恢廓 使八方兆庶 仰之如日月中天

540) 의지하고 신뢰함.

541) 성공(成功)의 효과를 요구함. 성공하기를 서로가 독책(督責)함.

542) 서로 공경하고 화협함.

543) 신하된 신분으로 다같이 외경(畏敬)함.

544) 관료가 임금에게 차자(筮子)를 올리는 일. 차자는 소장(疏章)의 일종으로 일정한 격식을 갖추지 않고 간단한 사실만을 기록하여 올리며 상소보다는 형식은 간단하면서도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 표현하는 이점이 있음.

545) 정성을 다하여 정치에 힘씀.

546) 아로새긴 모양. 궁궐 깊숙한 모양.

547) 큰 집에 꾸며놓은 우아한 담요자리.

548) 임금이 기거(起居)하는 궁전(宮殿).

549) 조민(兆民). 많은 인민(人民). 억조창생(億兆蒼生).

단의(端辰)<sup>550</sup>에서 나와 다스린 지 3년이 되었건만 조상(朝象)에서는 인협(寅協)<sup>551</sup>을 알지 못하고 세도(世道)엔 그 변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의리는 조금 폼되건만 제방(隄防)엔 점점 무너지는 근심이 있고 사추(邪醜)는 겨우 쓸었건만 정학(正學)은 크게 천명(闡明)한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명의(名義)로써 힘쓰려고 하지만 풍속을 달아나서 날로 다 하고 돈박(敦樸)하게 지어가려고 하지만 허위(虛僞)가 풍속을 이뤘습니다.

연곡(年穀)<sup>552</sup>이 여러 차례 흉년이 들었건만 비예책(備豫策)을 강론하지 않고 민폐(民弊)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한번도 그 근원을 막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언로(言路)를 막는 것은 곧 호오(好惡)가 불명(不明)한데에 연유하고 사치하는 습관이 고질병이 됨은 다만 권징(勸懲)의 실의(失宜)를 좌시(坐視)한 것입니다.

기강(紀綱)이 서지 않은 것은 묘당(廟堂)이 중하게 여기지 않은 소치이며 염치(廉耻)가 펴지지 않은 것은 동술(董率)<sup>553</sup>이 엄하지 않은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대저 자기에게 없고 난 뒤에 남에게 탓할 수 있고 자기에게 있고 난 뒤에 남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에 신하(臣下)가 언제나 순성(循省)<sup>554</sup>하여 스스로 반성하고 처리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 정색(正色)<sup>555</sup>이 조정(朝廷)에 서서 돕고 도우면서 뜻을 기다리는 정치를 바라겠습니까.

또한 천인(天人)이 상응하는 것은 영향(影響)보다 빠르니 지금에 우리가 경동(警動)이 아님을 어찌 알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전하(殿下)께서 발강산의(發強刪毅)<sup>556</sup>의 성덕(聖德)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였다. 이에 왕께서는 우비(優批)를 내리어 윤택(允許)하지 않았다.

而 端辰出治三載 于茲 朝象  
未知其寅協 世道未見其於變  
義理粗伸 而隄防有漸壞之憂  
邪醜纔掃 而正學無丕闡之効  
非不欲名義以勵 而俗趨日畢  
非不欲敦樸做去 而虛僞成風  
年穀屢登 而莫講備豫之策 民  
弊多端 而無一塞源之圖 言路  
杜閉 則直由於好惡之不明 侈  
習沈痼 則只坐於勸懲之失宜  
紀綱之不立 豈非廟堂不重之  
致 廉耻之不張 豈非董率不嚴  
之故歟 大抵無諸已而後 可以  
非諸人 有諸已而後 可以求諸  
人 今臣每一循省 無非自反處  
則亦何望其正色立朝日 贊贊  
後志之治乎 天人相應 捷於影  
響 今者之雷 安知非警動 我  
殿下 以成就其發強刪毅之 聖  
德耶 上優批不許

550) 단아(端雅)하게 둘러친 궁중(宮中)의 병풍.

551) 서로 공경하고 협력함. 특히 신하들이 서로 조심하여 공사(公事)를 봉행하고 마음을 합쳐 공경을 다하는 것을 말함. 동인협공(同寅協恭)의 줄임말.

552) 그 해에 생산되는 곡물(穀物).

553) 감독하며 거느림.

554) 차례로 살핌.

555) 올바른 관리(官吏)를 뜻함.

556) 강력함은 발(發)하되 굳셈은 덜음. 곧 강약의 조화를 뜻함.

또 부군(府君)이 입시(入侍)할 때에 아뢰기를,

정언(正言)<sup>557</sup> 홍석주(洪奭周)<sup>558</sup>은 어릴 적부터 엄박(淹博)<sup>559</sup>하고 또 경술(經術)<sup>560</sup>과 언의(言議)가 계옥(啓沃)<sup>561</sup>의 대열에 합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만난 것은 횡역(橫逆)에 지나지 않으니 그 뒤 오랫동안 관직에 종사하면서 한결같이 인의(引義)<sup>562</sup>를 한 것은 지극히 부당합니다. 이 뒤에 별도로 엄칙(嚴飭)을 더하여 감히 전과 같이 준순(浚巡)<sup>563</sup>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아마도 홍공(洪公)은 김기은(金箕殷)을 의망(擬望)<sup>564</sup> 입당(入堂)<sup>565</sup>한 뒷일로 대론(臺論)을 입고 여러 차례 인피(引避)<sup>566</sup>한 까닭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사학유생(四學儒生)<sup>567</sup> 이도연(李度淵) 등이 상소하여 한남당(韓南塘)의 서사(書社)<sup>568</sup>에 사액(賜額)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부군(府君)이 헌의(獻議)하여 말하기를,

삼가 사시(賜諡)를 살펴보니 문순공(文純公) 한원진(韓元震)<sup>569</sup>은 학문이 덕(德)을 이루고 경제(經濟)에 재주가 있어서 많은 선비들이 종앙(宗仰)<sup>570</sup>하고 선조(先朝)가 광계(曠契)<sup>571</sup>하였습니다. 이에 선비들이 소장(疏章)으로 청한 것은 그 강도(講道)의 서사(書社)에 나아가서 계호(揭號)<sup>572</sup>의 전(典)를 펴는 그 말도 사치(奢侈)가 아닙니다.

入侍時奏 曰正言洪奭周 年少淹博 且其經術言議 合置啓沃之列 而向來所遭 不過是橫逆 伊後屢叨官職 一向引義 極爲不當 此後則別加嚴飭 無敢如前逡巡 盖洪公以金箕殷 擬入堂后事 被臺論而累爲引避故也 四學儒生李度淵等疏 請韓南塘書社 賜額 府君獻議 曰謹稽 賜諡 文純公韓元震 學問成德 經濟有才 多士之所宗仰 而先朝之所曠契也 今茲儒疏所請 就其講道之社 施以揭號之典 其言亦非忝矣

557) 조선 시대 사간원(司諫院)의 정6품 직.

558) 1774~1842(영조 50~헌종 8) 조선 후기 문신. 자는 성백(成伯), 호는 연천(淵泉). 본관은 풍산(豊山). 1795년(정조 19) 문과에 급제한 뒤 직장(直長)·주서(注書)·검열(檢閱) 등을 거쳐 1802년(순조 2) 정언(正言)이 되었다. 이듬해 응교(應教)가 되어 서장관(書狀官)으로 청(淸)나라에 다녀왔다. 1815년 충청도관찰사, 1834년 이조판서로 승진한 뒤, 이어 좌의정·세손부(世孫傅) 등을 지냈다. 지위가 정승에 올랐지만 항상 평민과 같이 검소하였으며, 학문이 높고 의리에도 정통하여 시서역예(詩書易藝)의 교훈과 성명(性命理氣)의 철학에 통달하였다. 시호는 문간(文簡).

559) 학식이 매우 심원(深遠)함. 560) 유교의 경의(經義)를 토대로 한 통치력. 561) 신하가 마음을 임금에게 아뢰어 도움이 되게 하는 것. 곧 임금에게 충성스런 말을 아뢰. 562) 자진하여 벼슬을 내어놓음. 563) 주저하고 머뭇거림.

564) 후보자를 천거함. 관원을 임명할 때 세 사람의 후보자를 추천하던 일. 임금은 추천자 명단을 참조하여 결정하였음.

565) 묘당(廟堂)에 들여보냄을 뜻함. 566) 직무상 거북한 처지에 있어 그 벼슬을 사양하여 물러나거나 또는 은퇴하여 후진에게 길을 열어줌. 567) 조선 시대 한성(漢城)의 중·동·남·서부에 두었던 중학(中學)·동학(東學)·남학(南學)·서학(西學)에서 공부하던 유생(儒生). 568) 독서(讀書)하기 위하여 마련한 집.

569) 1682(숙종 8)~1751(영조 27).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덕소(德昭), 호는 남당(南塘). 송시열(宋時烈)의 고제(高弟)인 권상하(權尙夏)의 제자들인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의 한 사람으로서 호락논쟁(湖洛論爭)에서 호론(湖論)인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을 주장한 대표적 인물이다. 그의 학문과 사상은 당시 성리학의 중심과제에 두루 미치고 있었으며, 17, 18세기 성리학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실학이 남인학자층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리학의 연구에 몰두하여 이이(李珣)·송시열·권상하로 이어지는 학통을 계승하여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심성론쟁(心性論論爭)에서 낙론(洛論)인 이간(李柬)을 중심으로 하는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의 주장에 반대하여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인물성이론의 주장을 대표하였다. 그의 많은 저술 가운데 1741년에 저술한 《주자언론동이고 朱子言論同異攷》는 송시열이 착수한 것을 그의 스승인 권상하를 거쳐 50년 만에 완성한 한국성리학사상의 거작이었다. 저서로는 《남당집》 38권이 있고,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문순(文純)이다.

570) 종주(宗主)로 여기어 우러러 받음. 571) 너그럽게 부합(符合)함. 572) 편액(扁額)의 이름을 짐.



하물며 성조(聖朝)에 있으면서 유도(儒道)를 숭상하고 세교(世敎)<sup>573</sup>를 바르게 하는 방법으로 마땅히 특이한 은혜를 내려야 합니다. 다만 부복(俯伏)하여 생각하니 원집을 세우고 편액(扁額)<sup>574</sup>을 청하는 것은 옛적에 금령(禁令)이여서 신(臣)이 감히 바로 청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이에 왕께서 윤희하니 공의(公議)가 스스로 막지 못하였다.

가례(嘉禮)<sup>575</sup>를 마친 뒤에 인년(引年)<sup>576</sup> 걸치사소(乞致仕疏)<sup>577</sup>를 이미 갖춰놓고 아직 올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풍위(風痿)<sup>578</sup>를 앓았다. 이에 왕께서 어의(御醫)를 보내어 병을 진찰하였으나 끝내 10월 18일에 정침(正寢)<sup>579</sup>에서 고종(考終)<sup>580</sup>하였다.

부음(訃音)<sup>581</sup>을 들은 왕께서 진도(震悼)<sup>582</sup>하여 교시(敎示)하시기를,

내가택홀(宅恤)<sup>583</sup>한 처음부터 몸소 안위(安危)의 큰 책임을 맡은 지금에 이르렀다. 그 동안 사보(師保)<sup>584</sup>의 중임(重任)을 겸하여 세도(世道)를 다스리고 군덕(君德)을 돕는 것으로써 자기의 책임을 진 사람은 곧 영상(領相)이다. 암랑(巖廊)<sup>585</sup>에 자리 잡고 적용(績庸)<sup>586</sup>이 훌륭하게 나타나니 나 소자(小子)는 의비(倚毗)<sup>587</sup>하고 양성(仰成)<sup>588</sup>할 뿐만 아니라 넷물을 건너는 노(楫)와 같이 여겼다. 그런데 문득 장서(長逝)<sup>589</sup>의 보고를 들으니 경도(驚悼)하고 창혁(愴畫)하여 무엇이라고 말 할 수 없다.

라고 애도하시었다. 또 하유(下諭)하시기를,

況在 聖朝 崇儒道正世敎之方宜 賜特異之恩 而第伏念建院請額 有昔年禁令 臣不敢直請允許而公議 則自有不可遏者矣 嘉禮後 將引年乞致仕疏 既具未上 猝患風痿 上遣御醫診病 竟以是月十八日 考終于正寢 訃聞 上震悼敎曰 自予宅恤之初式 至今身佩安危之大責 兼師保之重 以靖世道補君德 爲己任者 卽此領相也 坐鎮巖廊 績庸茂著 予小子方倚毗而仰成 不啻如濟川之楫 天不憖遺 奄聞長逝之報 驚悼愴畫 無以爲

573) 세상의 교훈. 사회의 풍교(風敎). 574) 현판(懸板).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새겨서 문 위나 벽 위에 다는 널 조각.  
 575) 길(吉)·흉(凶)·군(軍)·빈(賓)·가(嘉) 등 오례(五禮)의 하나로 경사스러운 의례(儀禮)라는 뜻. 임금의 성혼(成婚) 즉위나 왕세자·와예손의 성혼·책봉 같은 때의 예식.  
 576) 퇴직할 정도의 나이. 혹은 나이가 들어 퇴직함.  
 577) 나이 많은 신하가 벼슬을 내놓고 그만두기를 임금에게 청원하는 상소(上疏).  
 578) 중풍(中風)으로 수족(手足)이 저린 병. 579) 항상 거처하는 방.  
 580) 고종명(考終命). 하늘이 부여한 천명(天命)을 다 살고 죽음을 맞이함.  
 581) 사람이 죽은 것을 알리는 통지. 582) 임금이 신하의 죽음을 탄식함.  
 583) 임금이 부모의 상중에 있음을 이르는 말.  
 584) 임금이나 세자의 스승인 태사(太師)·태보(太輔)·소사(少師)·소보(少保)를 합하여 부르는 말.  
 585) 조선 시대 의정부(議政府)에 대한 별칭. 586) 공적이 뚜렷함.  
 587) 의지하고 신뢰함. 588) 우러러 보면서 성공하기를 기다림.  
 589) 영구(永久)히 가서 돌아오지 않음. 곧 죽음을 비유함.

동원부기(東園副器)<sup>590</sup>를 내려주고 3년을 한정하여 그의 아들에게 녹봉(祿俸)을 보내줄 것을 명한다. 또한 결복(闋服)<sup>591</sup>을 기다려 조용(調用)<sup>592</sup>하고 성복(成服)<sup>593</sup>하는 날에는 각신(閣臣)을 보내어 치제(致祭)토록 하라. 그리고 장계(狀啓)를 기다리지 않고 시호(諡號)를 의론할 것을 명한다. 또한 해당 조(曹)에서 예장(禮葬)토록 하라.

이와 같은 임금의 명을 부군(府君)의 유의(遺意)에 따라서 받지 않으니 왕께서 다시 명하여 전포(錢布)<sup>594</sup>를 넉넉하게 내려주었다. 자전(慈殿)이 또한 하교(下教)하기를,

김봉조하(金奉朝賀)가 하세(下世)함으로부터 선조(先朝)가 의비(倚毗)하였거늘 이 원보(元輔)<sup>595</sup> 말고 어찌 다른 사람이 있었겠는가. 종국(宗國)과 세도(世道)를 위하여 의리를 도와서 고심(苦心) 성덕(盛德)이 있었다.

이에 대상(大喪)<sup>596</sup>을 마친 뒤에 국세(國勢)가 어려워지니 어떻게 이 원보(元輔)에 의지함이 실지로 이와 같은가! 부군(府君)이 종국(宗國)에 한결같은 마음을 쓰고 충벽(冲辟)을 비보(裨補)하여 군사(群邪)를 내치고 선류(善類)를 등용하였다. 따라서 눈 아래 급한 위태로움을 겨우 면하니 그 정충(貞忠)과 위열(偉烈)이 옛 이름 높은 석학(碩學)에게 찾아도 실지로 드문 것을 징험할 수 있다.

선조(先朝)에 칙철(則哲)한 말씀으로도 방운(邦運)이 불행하여 이 현보(賢輔)를 잃은 것이다. 이에 외롭고 위태로운 형세가 어느 곳에 의박(依泊)할 것인가. 생각이 폐침(廢寢)<sup>597</sup>되어 명발(明發)<sup>598</sup>을 깨닫지 못하겠다.

라고 애도하시었다.

諭命賜東園副器 祿俸限三年  
輸送其子 待闋服調用 成服日  
遣閣臣致祭 命不待狀議諡  
又 命該曹禮葬 以府君遺意辭  
不受 上復命優賜錢布 慈殿  
又下教曰自金奉朝賀下世之後  
先朝之倚毗 此元輔豈有他哉  
爲 宗國爲世道 扶植義理之苦心  
盛德也

乃至 大喪之後 國勢之艱虞  
何如而實賴此元輔 一心 宗國  
裨輔 冲辟 斥群邪登善類 僅  
免目下汲汲之危 其貞忠偉烈  
雖求之古名碩 實所罕有 益可  
驗 先朝則哲之明 邦運不幸  
失此賢輔 孤危之勢 何所依泊  
思之廢寢 不覺明發

590) 조선 시대 왕실에서 쓰던 관곽(棺槨)인 동원비기(東園秘器) 만들고 남은 판재(板材).

591) 부모에 대한 삼년상(三年喪)을 마침.

592) 벼슬아치로 등용함.

593) 초상이 나서 4~5일 뒤에 처음으로 상복을 입는 일.

594) 전화(錢貨). 돈.

595) 조선 시대 의정부(議政府)의 영의정(領議政)을 달리 이르는 말.

596) 임금의 상사(喪事).

597) 잠자리에 들지 않음.

598) 새벽.

홍문관(弘文館)이 아뢴 시법(諡法)<sup>599</sup>에 부지런히 배우고 문기를 좋아하는 것을 문(文)이라 하고 임금을 섬겨 절의(節義)를 다하는 것을 충(忠)이라 하므로 ‘문충(文忠)’이란 시호(諡號)를 내렸다. 이에 시호를 영접(迎接)하고 이 해 12월 5일에 용인(龍仁) 열원(烈院) 간좌(良坐)<sup>600</sup>의 언덕에 장사(葬事)지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겨울에 정순대비(貞純大妃)는 비로소 수렴청정을 거두고 (순조(純祖)에게) 정권을 돌려주었다.

또 명년(明年) 여름에 권유(權裕)가 신유(辛酉, 1801)년에 상소(上疏)한 일로써 국폐(鞫弊)<sup>601</sup>하였다. 또 명년에 정순대비(貞純大妃)가 승하(昇遐)하였다. 또 명년 병인(丙寅 1806)년 정월(正月)에 우상(右相) 김달순(金達淳)<sup>602</sup>이 아뢰기를,

선조(先祖)를 추모하고 지금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선조(先朝)의 의리를 천명하는 데에 있습니다. 의리가 밝지 않으면 성무(聖誣)<sup>603</sup>를 변정(卞正)하지 못하고 성무를 변정하지 못하면 윤이(倫彝)<sup>604</sup>가 끊어집니다.

고 하면서 이우(李瑀)·박하원(朴夏源)을 귀양 보낼 것을 청하였다.

또 말하기를, 「지금에 세급(世級)<sup>605</sup>이 침강(寢降)하고 의리(義理)가 장차 회명(晦冥)하니 충사(忠邪)를 변별(卞別)하려면 창선(彰善)·단악(殫惡)하는 것을 우선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고(故) 지사(知事) 박치원(朴致遠) 고(故) 사간(司諫) 윤재겸(尹在謙)을 증직(贈職)할 것을 왕에게 청하였다.

弘文館奏諡法 勤學好問曰文  
事君盡節曰忠 贈諡文忠卽迎  
諡 是歲十二月五日 葬于龍仁  
烈院良坐之原 奧明年冬 貞  
純大妃 始撤簾還政  
又明年夏 權裕以辛酉上疏事  
鞫弊 又明年 貞純大妃昇遐  
又明年丙寅正月 右相金公達  
淳 奏言追先報今之道 惟在闡  
明 先朝之義理 義理不明 則  
聖誣未卞 聖誣未卞 則倫彝斃  
絕 請竄李瑀朴夏源 又言及今  
世級寢降 義理將晦 卞別忠邪  
莫先於彰善殫惡 請贈故知事  
朴致遠 故司諫尹在謙

599) 죽은 사람에게 시호(諡號)를 붙이는 법. 시호를 의정하던 규정.

600) 풍수지리(風水地理)에서 24방위중에 한방위. 곧 동북간방(東北間方)을 뜻함.

601) 국문(鞫問)을 받다가 죽음을 말함.

602) 1760~1806(영조 36~순조 6) 조선시대의 문신. 자는 도이(道而), 호는 일청(一靑). 본관은 안동(安東). 1789년(정조 13) 진사가 되었고, 1790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초계문신(抄啓文臣)이 되었다. 그 뒤 전라도관찰사·이조판서·병조판서·홍문관제학을 거쳐 호조판서 이서구(李書九)가 죄를 쓰고 물러나자 호조판서가 되었다. 우의정까지 올랐으며 후에 《정조실록》을 바치고 《선조보감(先祖寶鑑)》의 편찬을 청하였다. 벽파(僻派)로서 박치원(朴致遠) 등을 포상(褒賞)하라고 진주(陳奏)하였다가 조득영(趙得永) 등 시파(時派)로부터 정조의 유지에 위배된다는 공격을 받고 유배되었다가 강진(康津)에 이배되어 사사(賜死)되었다. 뒤에 신원(伸寃)되었다. 시호는 익헌(翼憲).

김달순은 한 차례 복직(復職)되어 진용(進用)<sup>606</sup>되었으나 낮 밤으로 모함을 일삼는 사류(士流)가 이윽고 「김공(金公)은 금령(禁令)을 감히 말하였다.」고 무고(誣告)하여 죽음에 이르렀다. 이어서 이의필(李義弼)·조진화(趙晉和)·박영재(朴英載)가 계속 투소(投疏)하여 말하기를 「부군(府君)이 신유(辛酉, 1801)년 주중(奏中)에 한 “강재전하지정(降在殿下之庭)”이란 말이 김공(金公)이 감히 금령(禁令)을 말한 전모(前茅)<sup>607</sup>가 되었다」고 하였다. 또 “노신충곤(老臣忠愍)”이란 한 구절을 말하여 권유(權裕)<sup>608</sup>를 포장(褒獎)한 것은 부군(府君)의 죄라고 하면서 관작의 추탈(追奪)을 청했으나 왕께서 애초에는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조정 대신(大臣)들과 삼사(三司)가 번갈아 가면서 부군(府君)의 관작(官爵) 추탈(追奪)을 청해온 지 수 개월이 지나서 왕께서 허락하였다. 그리고 한 해가 되기도 전에 또 몽오(夢梧) 김공(金公)의 작위(爵位)를 추탈(追奪)할 것을 청하였다. 아마도 선조(先朝)에 대한 의리는 사정(邪正)을 밝히고 습속(習俗)을 바로 잡는 데에 두어 두고 받들면서 죽을 때까지 감히 실추(失墜)하지 않으니 이것이 곧 부군(府君)의 단단(斷斷)한 충적(衷赤)<sup>609</sup>이다.

또한 발명(發明)<sup>610</sup>·천양(闡揚)하고 소용(消融)·보합(保合)하여 그 지극함을 다 하였다. 이에 부군(府君)이 털끝만큼의 사의(私意)를 용납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관계가 있었다면 지하에서 선왕(先王)을 볼 수 없을 것이다. 헌체(獻替)<sup>611</sup>·시조(施措)의 사이에 과감(果敢)할 곳에는 십분 과감하고 훈후(渾厚)할 곳에서 십분 훈후하여 명백(明白)하고 두루 통하니 의이(疑貳)<sup>612</sup>하는 바가 없었다.

爵時一番人 復進用 日夜求傾陷士流者 遂以此誣金公 以爲敢言禁令 抵之死 李義弼趙晉和朴英載等 相繼投疏言 府君辛酉奏中 降在 殿下之庭之語 爲金公敢言禁令之前茅 又言老臣忠愍一句 爲褒獎權裕 以爲府君罪 請追奪官爵 上始不從

大臣三司 迭請逾數月乃 計未一歲 又請追奪夢梧金公爵 蓋先朝義理 在於明邪正矯習俗 而力贊奉持死 不敢失墜 卽府君斷斷衷赤也 發明闡揚 消融保合 兩極其至 以爲於此容一毫私意 而有所偏係 則無以見 先王於地下也 獻替施措之間 果敢處 十分果敢 渾厚處 十分渾厚 明白周通 無所疑貳

603) 지혜로움과 속임수.

604) 사람으로서 몇몇이 지켜야 할 도리.

605) 순차로 전하여 가는 세대.

606) 인재(人才)를 추천하여 인용(引用)함.

607) 중국 춘추시대(春秋時代)에 초(楚)나라 전군(前軍)이 띠(茅)를 사용하여 정식(旌識)으로 하였음. 곧 앞잡이를 뜻함.

608) 1745~1804(영조 21~순조 4) 조선 정조 때의 문신. 자는 성수(聖垂), 호는 국포(菊圃). 본관은 안동(安東). 1769년(영조 45) 정시문과(庭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한 뒤, 1782년(정조 6) 정덕필(鄭德弼)의 죄를 탄핵하여 유배시켰다. 이어 1790년에는 남인 윤선도(尹善道)의 자손 윤지눌(尹持訥)이 알성문과(調聖文科)에 급제한 지 한달 만에 사관(史官)으로 뽑히자 이를 반대하다가 오히려 창원(昌原)에 유배되었으나, 후에 풀려나와 이조참판·공조판서·좌참판을 지냈다. 1800년(순조 즉위) 지실록청사(知實錄廳事) 1802년 제학(提學)에 올랐으나 효원전(孝元殿)의 공납(貢納)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희천(熙川)에 유배되었고, 1804년 의금부(義禁府)에서 문초 당하다가 혹심한 고문으로 죽었다. 저서로 《국포집(菊圃集)》이 있다.

609) 충심에서 우리나라는 뜨거운 정성.

610) 경사(經史)의 뜻을 깨달아서 밝힘.

611) 옳은 것은 드리고 옳지 않는 것은 버린다는 말.

612) 의심하고 배반할 마음을 먹음.

따라서 마음이 같은 사람은 믿고 두려운 바가 없었으며 취향이 다른 사람도 향방(向方)을 알아서 미혹하지 않았다. 불행하게 권유(權裕)란 사람이 나와서 흉소(凶疏)를 함부로 띄워서 동요(動撓)를 시험하는 계책으로 삼으니 인심(人心)이 의혹하여 다시는 환합(渙合) 화평(和平)의 형상이 없어졌다. 이에 사류(士流)는 일망타진되어 없어지고 조저(朝著)<sup>613</sup>는 한차례 변하여 국중(國中)에 사람들이 다시는 선왕(先王)의 병집(秉執)<sup>614</sup>한 바를 말 할 자가 없었다.

애초에 권유(權裕)가 소장(疏狀)을 낼 적에 사안의 기미를 예측하지 못하여 온 조정이 서로 돌아보면서 감히 말 할 사람이 없었다. 이에 부군(府君)이 단독으로 연주(筵奏)하여 그를 내치어 꺾었다. 그의 소수(疏首)에 징토(懲討)라고 말하고 비중(批中)에 ‘노신우국(老臣憂國)’이란 조목(條目)을 뒤섞어 논척(論斥)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따라서 ‘노신충곤(老臣忠愍)’이라고 말한 것은 비중(批中)의 말을 이어 쓴 것으로 이것을 결적(抉摘)<sup>615</sup>하여 죄로 삼는 것은 심한 것이며 또한 남의 흑백(黑白)을 변란(變亂)시켜 참조하는 것이 지나치다. 심지어는 ‘강재전하지정(降在殿下之政)’과 저 ‘삼년무개(三年無改)’의 말은 각각 지적한 바가 더욱 더 명백하여 의심할 것이 없다.

그러나 이것을 군척(摺撫)<sup>616</sup> · 나직(羅織)<sup>617</sup>하여 하늘을 속인다고 말하니 실지로 이것은 아이들이 모아도 저어(齟齬)<sup>618</sup>됨을 알 수 있으니 어떻게 말이 많은가. 오직 부군(府君)은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충성과 도(道)를 호위하고 사악함을 내친 공은神明(神明)에게 질정(質定)할 수 있다. 그러나 천대(泉臺)<sup>619</sup> 아래에서 캄캄하게 가려져 마음이 답답하니 천지(天地)의 화목함을 상하고 풍뢰(風雷)의 변화를 부를 만하다.

同心者 有所恃而無恐 異趣者 知所向而不迷 不幸權裕者 出肆發凶疏 以爲嘗試動撓之計 人心疑惑 無復有渙合和平之象 及是士流 網打且盡 朝著一變 而國中之人 無復言 先王所秉執者矣

始裕疏出 事機匪測 舉朝相顧 無敢言者 府君乃獨 筵斥以折之 其疏首言懲討 而批中以爲老臣憂國 此一欵 不當混被論斥 故其曰老臣忠愍 承用批中語也 而乃抉摘爲罪甚矣 讒人之變亂黑白也 至若降在殿下之庭 與夫三年無改之說 各有所指 尤明白無疑 而摺撫羅織 謂天可欺 此實兒童之見 而其計亦可謂齟齬矣 顧何足多卞 惟是府君 愛君憂國之忠 衛道斥邪之功 可質神明 而掩昧幽鬱於泉臺之下者 足以傷天地之和 而召風雷之變矣

613) 조정(朝廷). 조정에 상정(常定)된 열위(列位).

614) 정권을 잡고 집행함.

615) 숨겨진 것을 찾아냄. 정미(精微)한 뜻을 찾아냄.

616) 주워서 가짐.

617) 없는 죄를 무고(誣告)하여 죄를 엮음.

618) 아래 웃니가 서로 잘 맞지 않음. 사물(事物)이 서로 어긋남.

619) 구천(九泉). 저세상.

아~! 부군(府君)은 기우(器宇)<sup>620</sup>가 응원(凝遠)<sup>621</sup>하고 금운(襟韻)<sup>622</sup>이 소광(疏曠)<sup>623</sup>하였다. 또 충신(忠信)을 주장하고 절의(節義)를 숭상하여 의연(巍然)<sup>624</sup>하고 벽립천인(壁立千仞)<sup>625</sup>의 기상이 있었다. 또 말과 웃음이 적고 연락(然諾)<sup>626</sup>을 삼가지만 온연(溫然)히 낙이가친(樂易可親)<sup>627</sup>의 실상(實相)이 있었다.

그리고 사람을 접할 적에 어진 사람은 사랑하는 바를 알아서 관수(灌輸)<sup>628</sup>에 즐거워하고 불초(不肖)한 사람은 엄한 바가 있어도 감히 싫어하고 미워하지 않았다. 또한 흡족하게 남의 말을 받아들이되 일찍이 나이와 벼슬의 위치로써 스스로 높이지 않았다.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여러 사람에게 상고(相考)하되 비록 후배나 아랫사람이라도 자기를 굽혀 남을 따르기를 꺼려하지 않았다.

효우(孝友)의 성품이 천부적으로 의정공(議政公)을 섬길 적에 먼저 순적(順適)함에 뜻을 두어 복근(服勤)<sup>629</sup>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가세(家世)가 청빈(淸貧)하되 밝은 안색과 온화한 태도를 지녀 감지(甘旨)<sup>630</sup>가 부족함을 감추었다. 계유(癸酉, 1753)년에 의정공(議政公)의 병(病)이 심하니 손가락을 베어 피를 내어서 그 피를 마시게 하였다.

의정공이 죽을 무렵에 양근(楊根)<sup>631</sup>에 살았는데 관(棺)을 구했으나 좋은 것을 얻지 못하였다. 이에 부군(府君)이 경사(京師)<sup>632</sup>에서 구하려고 하였으니 어른들이 건기(愆期)<sup>633</sup>로 그를 만류하였다. 그러나 부군(府君)이 말하기를 「관(棺)은 한번 덮으면 다시 고칠 수 없거늘 마음을 다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였다.

嗚呼 府君器宇凝遠 襟韻疏曠  
主忠信尚節義 巍然有壁立千  
仞之象 寡言笑愼然諾 溫然有  
樂 易可親之實 其接人也 賢  
者知所愛 而樂於灌輸 不肖者  
有所嚴 而亦不敢厭惡 又喜翁  
受人言 未嘗以年位自尊 遇事  
必稽于象 雖後生末官 不憚屈  
己以從之 孝友之性 出於天賦  
事議政公 先意順適 服勤不忘  
家世淸貧 而愉色婉容 足以揜  
甘旨之未充 癸酉議政公疾革  
斫脂進血 議政公歿時 在楊根  
求柩不得美者 府君將求諸京  
師 長者以愆期止之 府君曰棺  
一蓋 不可復改 可不盡心乎

620) 덕량(德量). 인품(人品). 도량(度量).

621) 엄정(嚴正)하고 심원(深遠)함.

622) 마음씨와 인품.

623) 원대(遠大)하고 넓음.

624) 뛰어나게 높고 빼어나.

625) 절벽이 천길이나 높게 서있는 모양.

626) 칭하는 바를 들어줌. 쾌히 허락함.

627) 마음으로 편안하고 즐거워하면 친할 수 있음.

628) 주입(注入)되어 서로가 친함.

629) 매우 힘든 일에 종사함. 쫓아서 힘씀.

630) 맛 좋은 것. 맛있는 음식.

631) 군(郡) 이름. 지금의 경기도 양평군(楊平郡) 양평읍 양근리 지역에 있었다.

632) 서울의 고칭(古稱).

633) 기일(期日)을 어김. 여기에서는 병중(病中)에 있는 부모에게 종신(終身)의 기약을 어길 것을 뜻함.

жат 장사(藏事)<sup>634</sup>를 마치고 궤연(几筵)<sup>635</sup> 및 모부인(母夫人)을 받들어 모시고 경사(京師)에 들어갔다. 그리고 사람을 사귀는 일을 하지 않고 여차(廬次)<sup>636</sup>에 수제(守制)<sup>637</sup>하면서 경사(經史)를 주역(紬繹)<sup>638</sup>하여 3년을 하루 같이 하였다. 이에 토론(討論) 찬술(纂述)하는 공부와 입경(立經)<sup>639</sup> 진기(陳紀)<sup>640</sup>하는 학문을 거우(居憂)<sup>641</sup>에 있으면서 얻은 것이 많았다.

중세(中歲)에는 모부인(母夫人)을 모시고 서읍(西邑)<sup>642</sup>에 출재(出宰)<sup>643</sup>하면서 그 녹봉(祿俸)으로 봉양하였으나 의정공(議政公)에 미치지 못한 것을 지극히 아프게 여겼다. 모든 아우들에게 우애(友愛)하여 각각 제도(制度)하고 산출하여 처리하되 밀이(密邇)<sup>644</sup>하고 유액(諭掖)<sup>645</sup>하였다.

성취(成就)하였을 때 더욱더 봉선(奉先)<sup>646</sup>에 경근(敬謹)하여 세시(歲時) 향사(享祀)에 생조(牲俎)<sup>647</sup>를 견척(蠲滌)하였다. 그리고 친히 제사(祭祀)에 임하되 제사가 드는 저녁에는 정성스런 뜻을 간직하고 애연(優然)히 그 위패(位牌)를 바라보았다. 봉록(俸祿)의 수입(收入)은 알고 있는 궁핍한 사람에게 선뜻 모두 주고 더욱더 종족(宗族)을 수홀(收恤)하는 데에 권권(拳拳)<sup>648</sup>하였다.

평거(平居)에는 간담(簡淡) 자봉(自奉)하기를 한사(寒士)와 같이 하여 외물(外物)에 있어서는 즐겨하고 좋아하는 것이 없었다. 그리고 온 천하에 진기한 의복과 노리개를 흠이나 풀 같이 보니 모두 그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였다.

甫畢藏事 奉几筵及母夫人入京 不交人事 守制廬次 紬繹經史 三年如一日 討論纂述之工 立經陳紀之學 所得於居憂者爲多 中歲奉母夫人 出宰西邑 以祿養 不逮議政公爲至痛友愛諸弟 各爲制產而處之 密邇誘掖 成就尤敬謹於奉先 歲時享祀 蠲滌牲俎 必親蒞之 當祭之夕 誠意著存 優然如見其位 俸賜所入 輒皆施與於所識窮乏 而尤拳拳於收恤宗族 平居簡淡自奉 若寒士 於外物無所嗜好 舉天下珍服奇玩 視同土苴 皆不足以動其心

634) 장사(葬事). 시체를 묻거나 화장(火葬)하는 일.

635) 제사(祭祀)에 사용되는 제사 도구. 궤(几)는 제사 또는 연향(燕饗)에 사용하는 제사 도구로 죽은 사람의 혼백이 깃드는 영궤(靈几)를 의미함. 연(筵)은 그 밑에 까는 자리로 죽은 사람의 혼백이나 신주(神主)를 모셔 두는 곳을 의미함.

636) 상중(喪中)에 상주가 거처하기 위하여 초가집으로 만든 막차(幕次).

637) 부모상(父母喪)이나 혹은 조부모(祖父母) 상중(喪中)에 있는 사람이 문을 닫고 예서(禮書)를 읽으면서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 않고 관직(官職)에 있는 사람은 해직(解職)하여 27개월 동안 여차(廬次)에 머무는 것을 말함.

638) 실마리를 끌어내어 찾아냄.

639) 강령(綱領)을 세움.

640) 기강(紀綱)을 진술함.

641) 상중(喪中)에 있음.

642) 서쪽 고을. 호서(湖西) 지방을 일컬음.

643) 중앙의 관원이 지방의 수령으로 나아가는 것.

644) 서로 바짝 다붙음.

645) 인도(引導)하여 도와줌.

646) 선조의 덕업(德業)을 받들어 모심.

647) 제사 때 쓰는 희생과 도마.

648) 쥐고 안 놓음. 곧 받드는 모양. 정성스러운 모양.

만년에 삼청동(三清洞)에 거처를 마련하여 살되 옛 관습 그대로 화려한 치장을 더하지 않았다. 군현(郡縣)에 번곤(藩梱)<sup>649</sup>할 적에 세시(歲時)의 예향(例餉)<sup>650</sup>이 많았으나 받지 않았다. 항상 자제(子弟)들을 경계하기를,

청백함을 남긴 뒤에 비록 세렴(細廉)<sup>651</sup> 소결(小潔)도 그 공(功)은 얇고 누림은 두터워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따라서 너희들은 마땅히 나의 뜻을 체득하여 가범(家範)<sup>652</sup>을 삼가 지켜야 할 것이다. 오직 충효(忠孝)와 문학(文學)으로 서로 힘쓰고 그나마 욕됨이 생겨나지 않게 해야 한다.

고 하였다.

문형(文衡)의 권점(圈點)<sup>653</sup>을 당하여 몽오(夢梧) 김공(金公)이 실지로 그 천망(薦望)을 주관하였다. 정조(正祖)가 김공(金公)에게 이르기 「경(卿)이 추천한 심모(沈某)는 다만 의리만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김공(金公)이 대답하기를 「다만 의리만 있을 뿐만 아니라 젊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백수(白首)<sup>654</sup>로 문장(文章)에 힘쓰는 사람은 오직 이 사람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정조(正祖)가 빈천(賓天)<sup>655</sup>하니 부군(府君)이 애통하여 살고자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제(公除)<sup>656</sup>한 뒤에 비로소 집으로 돌아와서 가인(家人)과 더불어 서로 향하여 곡(哭)하였다. 그때에 흘러내리는 눈물이 물결처럼 얼굴에 덮으니 보는 사람이 감동하여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조석(朝夕)으로는 반드시 곡반(哭班)<sup>657</sup>에 참여하였다. 슬픔이 이르면 무시(無時)로 사실(私室)에서 곡읍(哭泣)하니 곁에 있는 사람들 지곡(止哭)하라고 권하지 못하였다.

晚歲 築居三清洞 仍舊貫不加  
華侈 藩梱郡縣 歲時例餉 亦  
多不受 常戒子弟 曰清白遺後  
雖若細廉小潔 而與其薄功 而  
厚享者 相去遠矣 汝曹當體吾  
意 謹守家範 惟以忠孝文學  
相勉勵 庶乎其毋忝所生矣 當  
文衡之圈也 夢梧金公 實主其  
薦 正廟謂金公 曰卿之薦沈  
某 特以義理耳 金公對曰臣  
非特以義理也 自少至老 白首  
用力於文章 惟此一人矣

正廟賓天 府君哀慟不欲生 公  
除後始歸家 與家人相向而哭  
涕泣汎瀾被面 見者莫不感泣  
朝夕必參哭班 哀至則無時哭  
泣於私室 傍人未能勸止也

649) 관찰사(觀察使)·병사(兵使)·수사(水使)를 통틀어 가리키는 말.

650) 의례적으로 바치는 선물.

651) 자잘구레한 작은 청렴.

652) 한 집안의 규범.

653) 조선 시대 관료 인사를 할 때나 혹은 어떤 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선택을 할 때 그 이름이나 사안 밑에 동그라미나 점을 찍는 것.

654) 센 머리. 노인의 머리.

655) 임금이 세상을 떠남.

656) 국상(國喪)을 당하여 조의(吊意)를 표하는 뜻으로 일정 기간 동안 공무(公務)를 보지 않고 기간이 지난 후에 제복(除服)하는 일. 제복은 상사(喪事)의 기일이 지나 상복을 벗는 일.

657) 국상(國喪) 때에 곡(哭)하는 벼슬아치의 반렬(班列)



또한 필력(筆力)이 방패(滂沛)하여 바람이 지나가듯 물이 흐르듯 하여 조금도 막힘이 없었다. 저작한 주의(奏議)는 모두 육선공(陸宣公)의 체재(體裁)를 그대로 얻었다. 그러나 수응(酬應)함이 없으면 한갓 무익한 말이 될 뿐이다. 그리고 시율(詩律)은 아건(雅健)<sup>658</sup> 소탕(疏宕)<sup>659</sup>하고 의미가 유원(幽遠)하여 왕왕 당인(唐人)의 성작(盛作)과 더불어 서로가 현지(軒輊)<sup>660</sup>하다고 하니 이것은 곳 집우(執友)<sup>661</sup>와 제공(諸公)들이 항상 논평한 것이다. 문집(文集) 6권과 주의(奏議) 2권은 집에 소장하고 있다.

배우자(配偶者)는 안동김씨(安東金氏) 부사(府使)를 역임한 이복(履福)의 딸이니 부군(府君)의 품계에 따라서 정경부인(貞敬夫人)<sup>662</sup>에 봉해졌다. 애초에 부군(府君)이 곤궁하여 집안이 매우 가난하였다. 식구 수십 명이 함께 밥을 지어 먹고 살았는데 부군(府君)은 생산(生産)의 유무(有無)를 묻지 않았다. 그러나 부인(夫人)은 경리(經理)의 방법이 있어서 시부모를 받들고 제사(娣姒)<sup>663</sup>들에게 그 정근(誠謹)을 다 하였다.

부군(府君)이 귀하게 되어서는 명사(名士)들을 많이 천발(薦拔)하게 되었으나 부인은 겸읍(謙揖)<sup>664</sup>함을 스스로 가지고, 한 마디의 말도 사사로운 친척일에 개의치 않았다. 내외(內外) 족인(族姻)이 부인에게 거화(擧火)<sup>665</sup>로 대한 것이 이루다 지적할 수 없거니와 부인은 그 완급(緩急)에 따라서 은의(恩意)를 굽어 다 하였다.

승접(承接)할 즈음에 그 수고로움을 견디지 못했거니와 싫어하거나 괴로운 빛이 없었다. 몽오(夢梧) 김공(金公)이 귀양 갈 적에 부군(府君)이 마침 내실(內室)에 있었는데 종질(從侄) 능헌(能憲)이 외간(外間)에 물의(物議)<sup>666</sup>를 아뢰니 부군(府君)이 눈을 지그시 감고 말하지 않았다.

筆力滂沛 如風行水流 少無礙滯 奏議諸作 深得陸宣公體裁 然非有酬應 則不徒爲無益之詞 詩律雅健疏宕 意味幽遠 往往與唐人盛作 相軒輊 此卽執友諸公 常論評也 有文集六卷奏議二卷 藏于家

配安東金氏 府使履福女 從封貞敬夫人 始府君之困也 家甚貧 同爨數十人 而府君不問生產有無 夫人經理有方 奉舅姑處娣姒 極其誠謹 比府君既貴 多薦拔知名士 夫人謙挹自持 未嘗一語及私親事 內外族姻待夫人舉火者 指不勝擣 而夫人視其緩急 曲有恩意 雖承接之際 有不堪其勞 未見有厭苦色也 當夢梧金公之謫也 府君適在內室 從侄能憲 告以外間物議 府君瞑目不答

658) 시문(詩文) 서화(書畫) 등의 힘찬 필세(筆勢)를 일컬음.

659) 마음이 호탕하여 조그마한 일에 구애하지 아니함.

660) 수레 앞이 높았다 낮았다 함. 전(轉)하여 우열(優劣) 경중(輕重)을 뜻함.

661) 벗. 뜻을 같이 하는 친구.

662) 조선 시대 정 1품과 종 1품의 문무관(文武官)의 처에게 내려졌던 봉작.

663) 아랫동서와 웃동서.

664)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낮춤.

665) 뜻밖의 재변. 따위를 빨리 알리기 위하여 밤에 산위로 올라가서 횃불을 올림. 여기에서는 급한 상황을 알림을 뜻함.

666) 세상 사람들이 나무라면서 의논함.

이에 부인이 곁에서 듣고 묻기를 「말 한 것은 무슨 일이냐?」라고 하였다. 종질(從侄)이 대답하기를, 「숙부(叔父)를 김공(金公)과 같이 논죄(論罪)하지 않았지만 숙부의 죄화(罪禍)가 더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김공(金公) 부인이 갑작스레 말하기를 「이 무슨 말인가 너의 숙부(叔父)와 김공(金公)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니 부군(府君)이 빙그레 웃으면서 일어났다. 사우(士友)가 이 일을 듣고 한마디 말을 전하니 참으로 부군(府君)이 유배(流配)되었다.

부인이 부군(府君)보다 한 해 먼저 죽었는데 부군과 같은 자리에 산소(山所)를 썼다. 아들은 없고 두 딸만 두었으므로 부군의 중제(仲弟)인 찬지(燦之)의 차자(次子) 능종(能種)을 양자로 들리어 대(代)를 이으니 그의 벼슬은 동몽교관(童蒙教官)이었다. 딸 둘 중에 한 딸은 전주(全州) 이의헌(李義憲)에게 시집가고 또 한 딸은 청풍(淸風) 김원선(金元善)에게 시집갔다.

그리고 능종(能種)은 교리(校理)를 역임한 이회상(李晦祥)의 딸에게 장가들어서 두 아들을 두었으니 의요(宜堯)·의순(宜舜)이다. 의요는 곧 불초(不肖)로서 한 아들을 두었으니 원택(瑗澤)이다. 의순(宜舜)은 숙제(叔弟)인 위지(煒之)의 후사(后嗣)로 출계(出系)하여 두 아들을 두었으니 성택(聖澤)·규택(珪澤)이다.

아~! 부군(府君)이 연세(捐世)한지 지금까지 수십 년이 되었건만 집에는 행장(行狀)<sup>667</sup>이 없고 산소에는 비석(碑石)이 없었던 것은 아마도 오늘을 기다린 것이다. 공의(公議)는 오래되었으나 아직 펼치지 못하고 사적(事蹟)은 날로 사라지게 되어 선군자(先君子)<sup>668</sup>가 이것을 두려워하였다.

夫人從傍聞之 問曰所言何事 對曰叔父不一論金公 不惟叔父得罪禍 且益 金公夫人 遽曰是何言也 爾叔父與金公何如也 府君莞爾而起 士友之聞其事者 傳以爲此一言 眞可爲府君配也

先府君一年歿 與府君同兆 無子有二女 以仲弟燦之次子 能種爲嗣 仕爲童蒙教官 女適全州李義憲 適淸風金元善 能種娶校理李晦祥女 有二子 宜堯 宜舜 卽不肖 有一子瑗澤 宜舜出系叔弟煒之后 有二子 聖澤 珪澤 嗚呼自府君捐世于今 屢十餘年 家無狀隧無碑 盖有所待也 公議久而未伸 事蹟日就湮遠 先君子爲是懼

667) 한문체(漢文體)의 하나. 사람이 죽은 뒤에 그 평생의 행적을 적은 글.

668) 망부(亡父)의 경칭(敬稱).

따라서 선군자가 말년에 부군이 남긴 글을 찾아서 그 주 의(奏議)가 세도(世道)에 관계되는 것을 가려서 하나의 책으로 기록하여 완성하였다. 그리고 후멸(朽滅)되지 않기를 도모하여 겨우 축고(屬藁)<sup>669</sup>하였건만 선군자가 갑자기 하세(下世)하므로 부군(府君)의 성덕(盛德)한 대업(大業)이 이와 같이 다시는 징빙(徵憑)하지 못할 듯 하였다.

불초(不肖)가 뒤늦게 출생하여 선군자(先君子)의 일을 돕지 못하고 어느 날 당시에 사셨던 모든 분들이 영락(零落)<sup>670</sup>하였다. 비록 상세하게 기록코자 하지만 여쭙어 볼 곳이 없었다. 따라서 이에 감히 선군자(先君子)가 기록한 바를 취하여 은괄(隤括)<sup>671</sup>을 약간 더 하였다. 이에 불초(不肖)가 일찍이 들은 몇 가지 일을 덧붙여 선군자(先君子)의 일을 마무리하니 어찌 감히 행장(行狀)이라고 말 할 수 있겠는가. 아 ! 부군(府君)의 말은 일국(一國)에 가득하고 행적은 사방에 나타나니 자손들의 무리를 기다리지 않고 자연히 사사롭게 찬양하리라. 세상의 대인(大人)과 군자(君子)는 그의 뜻을 슬퍼하고 그 말을 바칠 것이다.

불초손(不肖孫) 의요(宜堯)는 읍혈(泣血)하면서 삼가 씁니다.

末年乃克尋繹遺文 撮其奏議  
有關於世道者 錄成一通 以爲  
不朽圖 纔始屬藁 而先君子  
遽又下世 則府君之盛德大業  
若不可復徵矣

不肖生也晚 未得逮事 一日且  
當時諸公 零落幾盡 雖欲加詳  
無所取質 茲敢取先君子所錄  
畧加隤括 附以所嘗聞數事 以  
卒先君子之志 豈敢曰狀云乎  
哉 嗚呼 府君言滿一國 行著  
四方 有不待子孫輩 私自贊揚  
世之大人君子 庶幾哀其志 而  
賜其言也

不肖孫宜堯 泣血謹書

669) 문장을 기초(起稿)함. 초고(草稿)를 씀.

670) 풀과 나무가 말라 시들어 떨어짐. 곧 죽음을 뜻함.

671) 도지개. 은(隤)은 마루의 굽은 것을 바로 잡는 것. 괄(括)은 방형(方形)을 바르게 하는 것. 전(轉)하여 잘못을 바로잡음.

## 조비행록(祖妣行錄)

정경부인(貞敬夫人) 김씨(金氏) 행록(行錄)

부인(夫人) 김씨(金氏)는 안동(安東)의 대성(大姓)으로 선원선생(仙源先生)의 7세손이다. 증조(曾祖)의 휘(諱)는 시망(時望)이니 참봉(參奉)을 조(祖)의 휘는 신행(愼行)이니 군수(郡守)를 고(考)의 휘는 이복(履福)이니 부사(府使)를 지냈다.

비(妣)는 청송 심씨이니 음지사(蔭知事)를 지낸 정채(廷采)의 딸이다. 부인(夫人)이 영종(英宗) 경술(庚戌, 1730)년 8월 18일에 출생하여 나이 15세가 되던 해에 만포공(晩圃公)에게 출가(出嫁)하였다. 그 뒤에 공(公)이 정승(政丞)이 되니 부인도 정경(貞敬)이란 고명(誥命)<sup>1)</sup>을 받았다.

지금 순조(純祖) 신유(辛酉, 1801)년 12월 10일 삼청우사(三清寓舍)에서 일생을 마치니 향년 72세였다. 그 이듬해 2월 10일에 용인열원(龍仁烈院) 간좌(良坐)의 언덕에 장사(葬事)를 지냈다. 두 딸이 있으니 장녀(長女)는 이의헌(李義憲)에게 출가하니 우재상공(迂齋相公) 후원(厚源)의 후손이다. 그리고 차녀(次女)는 김원선(金元善)에게 출가하니 참의(參議) 상묵(尙默)의 손자이다.

중방(仲房)에 둘째 아들 능종(能種)으로 후사(後嗣)로 삼으니 동몽교관(童蒙敎官)을 지냈다. 능종(能種)이 교리(校理)를 역임한 이회상(李晦祥)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2남 2녀를 낳았다. 2남은 의요(宜堯)·의순(宜舜)이고, 의순은 셋째 집으로 출계(出系)하였으며 의요는 진사(進士)였다. 능경(能敬)의 딸들은 정해녕(鄭海寧)·이가영(李家英)·김원선(金元善)에게 출가(出嫁)하고 또 한 딸은 이경주(李庚周)에게 출가하였다.

## 祖妣行錄

貞敬夫人 金氏行錄

夫人金氏 安東大姓 仙源先生 七世孫 曾祖諱時望參奉 祖諱愼行郡守 考諱履福府使 妣青松沈氏 蔭知事廷采之女 英宗庚戌八月十八日生 季十五歸于晩圃公 及公拜相 夫人亦受貞敬誥 今 上辛酉十二月十日 終于三清寓舍 享年七十二 翌年二月十九日 葬于龍仁烈院良坐之原 有二女 長適李義憲 迂齋相公厚源之後 次適金元善 故參議尙默之孫 取仲房第二男能種 爲嗣 童蒙敎官 娶校理李晦祥女 生二男 二女 男宜堯宜舜 宜舜出後三房 男進士 能敬 女適鄭海寧 李家英 金元善 一女適李庚周

1) 당대(唐代) 이후 5품관 이상의 관리를 임명할 때에 주는 사령(辭令).

부인(夫人)은 어릴 적부터 효우(孝友)가 남보다 뛰어났다. 겨우 유포(乳抱)<sup>2)</sup>를 떠날 무렵에 부모가 조모(祖母)와 시침(侍寢)<sup>3)</sup>할 것을 명하니 잠간도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 비록 모든 제매(弟妹)들이 어머니가 있는 곳에서 유희(遊嬉)하면서 매우 기뻐하고 있어도 부인은 반드시 먼저 인사하고 조모(祖母)에게로 돌아갔다. 이에 조모(祖母)가 언제나 그를 칭찬하였다.

백형(伯兄)의 가운데에 정씨(鄭氏)가 부인(夫人)보다 1세가 더 많았다. 그래서 부인은 그를 매우 사랑하고 공경하여 섬기고 혹 조차(造次)<sup>4)</sup>에 난처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곡의(曲意)<sup>5)</sup>를 주선(周旋)하여 그 부족한 점을 도왔다. 정부인(鄭夫人)도 그 뜻을 느끼고 항상 말하기를 “형매(兄妹)의 이외에 반드시 깊은 계합(契合)<sup>6)</sup>이 있다.” 고 말하였다.

모부인(母夫人)<sup>7)</sup>이 시부모를 모시고 겸하여 가사를 주관(主幹)하여 겨를이 없었는데 그때에 부인은 오로지 바느질에 전념하여 그 수고로움을 나누었다. 동생들이 다섯이었는데 막내 동생이 어리고 매우 약하여 부모가 그를 근심하여 다른 자녀들 보다 더 보살피고 부인도 그 뜻을 체득하였다.

그 후 부인이 출가하여 폐백을 드리는데 그때에 나이가 겨우 15세였다. 그러나 황구(皇舅)<sup>8)</sup> 의정공(議政公)이 한번 보고 기이하게 여기어 말하기를 “우리 집을 일으킬 사람은 반드시 이 며느리다.”라고 하였다. 이에 의정공의 성품이 엄격하여 아들과 조카들에게는 조금도 너그럽게 대하지 않고 유독 부인에게 사랑하고 중하게 여겨 갈수록 더욱 더 돈독하였다.

夫人自在齟齬 孝友出人 纔離乳抱 父母命侍寢于祖母 須與不離側 雖諸弟妹遊嬉於母氏之所甚歡 而必先辭歸 祖母嘗稱之 伯兄之內 鄭氏長於夫人一歲 而夫人事之甚愛敬 或有造次難處之事 必曲意周旋 補其不逮 鄭夫人感其意 常曰兄妹之外 必有深契云

母夫人奉舅姑 兼幹家事 不遑暇隙 夫人專意裁縫 以分其勞 弟妹五人 季弟 幼甚羸弱 父母憂之 保養加於他子女 夫人亦能體其意 及執笄 纔十五 而皇舅議政公 一見奇之 曰興吾家者 必此婦也 議政公性嚴於子姪 未嘗少假顏色 獨於夫人愛重之 久而愈篤

2) 품에 안고 젖을 먹임. 곧 어린 아이를 일컬음.

3) 어른을 모시고 잠.

4) 아주 급한 때.

5) 정의를 다함.

6) 잘 어울림.

7) 대부인(大夫人). 남의 어머니의 높임말.

8) 돌아가신 시아버지.

황고(皇姑)<sup>9)</sup>가 가난에 처하여 항상 침선(針線)으로 자용(資用)하는데 부인이 그 수고로움을 대신하여 주야로 정성을 다 하였다. 이와 같이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내색을 남편에게 나타내지 않고 모든 아재비를 동기(同氣)와 같이 대하였다. 우귀(于歸)<sup>10)</sup>하던 날에 정의공(正誼公)은 출생한지가 겨우 20일이 지났는데 지성으로 공(公)을 보호하였다. 그 뒤 정의공이 늘 한집에 살았는데 그 자녀(子女)들도 자기의 자식과 같이 대하였다. 또한 비복(婢僕)에 있어서도 한결같이 보아 너·나의 사사로움이 없었다.

의정공(議政公)의 종가(宗家)에 만 종수(從嫂)<sup>11)</sup>가 과부로 살았다. 인하여 공(公)이 그 아이들의 학업(學業)을 걱정하여 그들을 데리고 와서 여러 해동안 한 집에 살았다. 그러나 부인은 그들에게 한결같이 관용(寬容)하여 온화(溫和)한 기색을 잃지 않았다. 임신년(壬申年)에 의정공(議政公)이 양랑(楊糧) 용진(龍津)에 살다가 그 이듬해에 의정공이 세상을 버리므로 또 다시 서울에 돌아와서 종가(宗家)에 기우(寄寓)<sup>12)</sup>하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고 종숙모(從叔母)가 돌아가시어 어려운 일이 많았다. 혹은 비리(非理)의 말을 가지고 부인에게 더해 와도 못 듣고 모르는 척 태연하였다. 이에 시어머니가 매우 한스럽게 여겼거니와 부인은 선뜻 온화한 말로써 푸니 시어머니도 웃으면서 이르기를 “너의 덕량(德量)이 이와 같으니 반드시 뒤늦게 복을 누리리라.”고 하였다.

대체로 중세(中歲)부터는 여러 지친(至親)들의 집에 자주 우접(寓接)<sup>13)</sup>하였다. 그때에 짜고 시고 등글고 못난 것이 교제(交濟)에 어려웠으나 한 집에 같이 살 때에는 혈똥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헤어진 뒤에는 모두가 경모(景慕)하니 부인의 지극한 성품과 아름다운 덕(德)이 아니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

皇姑處貧 常資於針線 夫人身代其勞 晝夜彈誠 備嘗艱苦 未嘗以幾微色 見於夫子 視諸叔無異同氣 于歸之日 正誼公生纔二旬 而至誠保護 及後正誼公 常同居一室 而視其子女 同於己出 於婢僕 亦一視之 無彼我之私

議政公之宗家 伯從嫂寡居 公憫其遺孤之失業 挈眷相就同室 累年而夫人一於寬容 不失和氣 壬申議政公 卜居于楊糧之龍津 翌年議政公捐世 又復還京 寄寓於宗家 未幾從叔母喪逝 而多有難安之事 或有非理之言 加於夫人 而若無聞知處之晏如 姑甚恨之 而夫人輒以溫言解之 姑亦笑而謂之 曰汝之德量如是 必享晚福矣 盖自中歲 寓接於諸至親家屢矣 鹹酸鑿柄 難於交濟 而同室之日 人無疵毀 離居之後 皆致景慕 非夫人之至性懿德 豈能與此

9) 죽은 시어머니.

10) 신부가 처음으로 시집에 들어 가는 일.

11) 자기 사촌 형제의 아내.

12) 기류(寄留). 한 때 타향(他鄉) 또는 남의 집에서 몸을 붙여 살음.

13) 우거(寓居). 남의 집에 임시로 살음.

신묘(辛卯,1771)년 봄에 만포공(晩圃公)이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여름에 갑산(甲山)으로 귀양갈 때에 척신(戚臣)들이 당로(當路)<sup>14</sup>하여 스스로 위복(威福)<sup>15</sup>을 지었다. 이와 같이 사세(事勢)를 헤아릴 수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馬)을 타고 포졸(捕卒)을 거느린 두어 사람이 외청(外廳)앞에 이르렀다.

그리고 여색(厲色)<sup>16</sup>을 짓고 말하기를, 「심정언(沈正言)의 자질(子姪) 형제(兄弟)중에서 나와 전교(傳敎)를 들어라」고 운운(云云)하기를 아주 엄하게 하였다. 이에 온 집안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그때에 숙제(叔弟)<sup>17</sup>가 내당(內堂)에 있었는데 나가서 그들을 보려고 하였으나 부인이 옷을 끌어당기면서 말하여, 「저들이 우리 집에 함부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으니 만약에 가볍게 먼저 나가서 본다면 어떤 모양의 재앙이 있을 지 알 수 없으니 신중히 나가지 말고 우선 동정(動靜)을 살피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그리고 여비(女婢)로 하여금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주인의 집에는 본래 아들이 없는 것은 상감(上監)<sup>18</sup>도 알고 있다. 가제(家弟)도 집에 없는데 이와 같이 상감이 명하였다면 반드시 지명(指名)하여 쓴 것이 있으면 내어 보여 달라。」고 하니 그들은 다시 말하지 않고 곧바로 돌아갔다.

이에 아재비는 크게 탄복하고 시어머니도 감탄하기를 「창졸간(倉卒間)에 응변(應變)은 남자(男子)도 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부인은 편고(偏姑)<sup>19</sup>를 효성으로 받들고 정성을 다하여 숨김이 없었다. 시어머니도 일찍이 이르기를 「부인(婦人)들은 며느리 보다 딸을 더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혹 나의 딸에게 말하지 않은 것도 며느리에게는 숨김이 없었다。」고 하였다.

辛卯春 晩圃公登第 夏謫甲山 時 戚臣當路 自作威福 事勢將不測 忽一日有騎馬者 率捕卒樣者數人 突至外廳前 厲聲曰沈正言 子姪兄弟中出來 聽傳敎云云 催促甚嚴 舉家皇皇 莫知所措 叔弟時適在內 欲出而見之 夫人牽衣力挽 曰彼之欲甘心於吾家者 無所不至 若輕先出見 將不知有何樣禍色 慎勿出往 姑觀動靜宜矣 乃使女婢 出語其人 曰主家之本無子男 上已俯燭 家弟亦不在家 然若是 上命 必有指名書來者 可出而示之 其人不復言 卽回去

叔大加歎服 姑亦歎曰倉卒應變 男子所不及 夫人孝奉偏姑 盡誠無隱 姑嘗曰婦人之愛女 加於子婦 而我則不然 雖或有不言于吾女者 無所隱於子婦也

14) 정권을 잡은 자리에 있는 일. 또는 그 사람.

15) 위력이 있고 부귀함.

16) 노기를 띠.

17) 세 번째 아우.

18) 임금의 존칭(尊稱).

19) 시아버지가 죽고 홀로 있는 시어머니.

임진(壬辰,1772)년에 만포공(晩圃公)이 은산현감(殷山縣監)으로 나가서 8개월이 지나서 체환(遞還)<sup>20</sup>하였다. 그 동안에 부인은 한가지의 일도 임의대로 하여 남편에게 누를 끼치지 않았다. 또한 범절을 맑게 하여 시어머니를 높이고 의복(衣服)은 세월의 제도에 맞춰 조금도 여감(餘憾)이 없었다.

갑오(甲午,1774)년에 상(喪)을 당하였다가 복(服)을 마치고 만포공(晩圃公)이 임피현(臨陂縣)에 현감(縣監)으로 나갔다. 이에 부인이 말하기를, 「왕년에 서읍(西邑)으로 나갈 적에는 판려(板輿)<sup>21</sup>를 받들고 나갔으나 지금은 그만인 것이다. 비록 태수(太守)가 된 것은 좋거니와 어찌 전일(前日)의 즐거움이 있겠는가!」 하고 아픈 느낌이 그치지 않았다.

무신(戊申,1788)년에 비로소 강사(江舍)를 마련하고 부인이 말하기를 「선고(先姑)가 계실 적에는 이 집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명색이 이 집은 우리 집으로써 선고를 받들어 모실 수 있었다면 이때에 유감(遺憾)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부인의 동지(動止)·언사(言辭)가 스스로 고훈(古訓)에 합당하였다. 규문(閨門)<sup>22</sup>은 매우 엄격하여 바깥 일은 듣고 알고자하지 않았으며 밖에서 온 손님도 한번도 규문을 훔쳐보지 못하였다. 자녀(子女)들에게 허물이 있으며 반드시 정색(正色)<sup>23</sup>하여 절실하게 꾸짖고 이어서 온화한 가르침으로 일깨웠다.

항상 말하기를, 「부녀(婦女)가 자녀(子女)에게 구유(啣嚙)<sup>24</sup>하게 무마(撫摩)<sup>25</sup>하지 않으면 반드시 추권(椎拳)<sup>26</sup>으로 아래를 어지럽게 하니 천(賤)한 사람의 일이다.」 라고 하였다. 일찍이 시어머니가 김씨(金氏) 부인(婦人)에게 이르기를,

壬辰晩圃公 出宰殷山 八閱月 而遞還 無一物自隨 以累夫子 清範而尊姑 衣看及歲月之制 少無餘憾 甲午丁憂服闋 晩圃公宰臨陂 夫人曰往年西邑 奉板輿而往 今焉已矣 雖作好太守 豈復有前日之樂乎 仍傷感不已 戊申始定江舍 夫人曰先姑在時 雖不及此舍 名以吾家而得以奉處焉 則此時當無遺憾矣

夫人動止言辭 自合古訓 閨門甚嚴 外事不欲聞知 外客來者 一未嘗竊視 子女有過 必正色切責 繼以溫諭曉解之 常曰婦女之於子女 不啣嚙撫摩 則必椎拳亂下 賤者事也 嘗謂金氏婦曰

20) 체임(遞任)되어 교대하고 돌아옴.

21) 나무로 제작하고 가죽으로 고름을 만든 편교(便輶).

22) 안방 입구의 문. 전(轉)하여 부인(婦人)을 일컬음.

23) 얼굴빛을 엄정하게 가짐.

24) 부드러운 듯한 안색을 나타냄.

25) 마음을 달래어 위로함.

26) 몽둥이와 주먹을 휘두름.



자녀(子女)들을 사랑하되 가르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만년에 비로소 너희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거니와 진실로 까닭 없이 가르침을 잃는다면 구가(舅家)<sup>27</sup>로 불만의 뜻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너와 더불어 부끄러운 마음을 당연히 어떻게 하겠는가. 이 때문에 소절(疏節) 세목(細目)이라도 방과(放過)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만포공(晩圃公)이 만년(晩年)에 자녀(子女)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와 같이 성립(成立)한 것은 모두 너희 모씨(母氏)가 지극한 정성으로 가르친 힘이다.」 고 하였다.

부인은 성품이 간엄(簡嚴)하여 일찍이 게으른 모습을 짓거나 희롱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또한 돈후(敦厚)하고 화락(和樂)하게 당내(堂內)<sup>28</sup>의 모든 부인(婦人)들을 맞이하여 상대(相待)하고 관휙(款洽)<sup>29</sup>하면서 매우 즐거워하였다. 이때에 말하기를,

우리들은 각각 다른 가문에서 성장하여 제사(娣姒)<sup>30</sup>·고매(姊妹)의 친분이 되었거니와 지금에는 모두 늙었다. 그 사이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남은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또한 혹도 먼저 돌아가고 이 모임에 온전하지 못하니 더욱더 마음이 아프다. 사고(事故)가 잊지 않으면 어찌 원원(源源)<sup>31</sup>히 서로가 모이지 않는가.」

라고 하였다. 이에 부인(婦人)들은 항상 일컫기를, 「연령이 이미 높고 지위가 높거니와 우리들에게 공경함이 지극하고 사랑이 두터우니 드문 일이라.」 고 하였다.

愛子女 而不教之 非愛也憎也  
吾於晩季 始有汝輩愛之之心  
固無其以而若失教 使舅家有  
不滿之意 則吾與汝 羞愧之心  
當如何也 以是雖疏節細目 一  
不放過 晩圃公 晩語子女 曰  
汝輩之如彼成立 皆汝母氏 至  
誠教訓之力也

夫人性簡嚴 未嘗有惰容戲言  
而亦敦厚和樂 每邀集堂內諸  
婦人 相待款洽 甚以爲樂 曰  
吾輩生長各家 爲娣姒姊妹之  
親 今皆老矣 間多零落 餘者  
無幾 又或有先歸 而此會不能  
全 則尤可傷心 非有事故 豈  
可不源源相會乎 諸婦人常稱  
道 曰季齡已高 地位已尊 於  
吾輩敬之至 而愛之厚 稀有之  
事也

27) 시집.

28) 팔촌 이내의 친척.

29) 말이 친절하고 정성스러움.

30) 아랫 동서와 웃동서.

31) 근원이 길어서 끊어지지 않는 모양.

기유(己酉,1789) · 갑인(甲寅,1794)년의 사이에 몽오(夢梧) 김공(金公)이 멀리 귀양을 가게 되었는데 그 사세(事勢)을 헤아릴 수 없었다. 이 때에 만포공(晩圃公)이 양사(兩司)에 수장(首長)으로 일이 난처하게 되었다. 부인이 말하기를, 「내가 비록 부녀(婦女)이지만 행동을 함부로 하거나 마음을 저버리는 일은 마음속에 싹들 수 없다.」고 하니 듣는 사람들이 경복(敬服)하였다.

만포공(晩圃公)이 여러 차례 양전(兩銓)<sup>32)</sup>을 맡고 모든 사(司)의 제거(提舉)<sup>33)</sup>를 겸대(兼帶)<sup>34)</sup>하였다. 이에 부인은 간촉(干囑)<sup>35)</sup>에 더욱 더 엄격하여 당장에 이익이 되는 일로써 넘어가지 않았다. 만포공(晩圃公)이 감탄하기를, 「부인이 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 많다.」고 하였다.

이것을 한 두 지구(知舊)<sup>36)</sup>에게 말 하였는데 세상에 말을 전하는 사람이 많았다. 인하여 정(情)이 두터운 방백(方伯)<sup>37)</sup> · 수재(守宰)<sup>38)</sup>가 예에 따라서 궤유(饋遺)<sup>39)</sup>하고 만포공(晩圃公)도 그것을 물리치지 않았다. 이에 부인은 그 많고 적음을 보아서 친속(親屬)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되 노인(老人)을 받드는 사람이 있으며 반드시 입에 맞는 음식을 자주 보내드렸다.

또한 족친(族親)들이 와서 요구하는 것이 매우 번거롭되 부인은 조금도 난색(難色)을 짓지 않았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들의 노인(老人)이 와서 보잘것없는 궤유(饋遺)의 물건을 응수하는 데에 괴롭게 여기어 갑자기 어렵다는 뜻을 가지면 저들이 와서 구하는 마음은 어떻겠는가.

라고 하였다.

己酉甲寅之間 夢梧金公 再被遠竄 事將不測 而晩圃公長於兩司 事有難處者 夫人曰余雖婦女 惻僕行負心之事 不敢萌于中 聞者莫不敬服 晩圃公累典兩銓 兼帶諸司提舉 夫人尤嚴於干囑 不敢以近膩之事售之 晩圃公 歡曰夫人之警余者多矣 言之於一二知舊 世多有誦傳者 方伯守宰之情厚者 循例饋遺 晩圃公亦不却之 夫人視其多寡 均派於親屬 而其有奉老者 必以適口之味 頻頻送饋 族親之來求者甚繁 而夫人少無難色 曰吾之老來 得如干饋遺之物 而若於酬應 遽有指難之意 則彼來求者之心 當如何哉

32) 이조(吏曹)와 병조(兵曹)를 아울러 이르는 말.

33) 특종 사무를 주관하는 벼슬.

34) 두 가지 이상의 직무를 겸함.

35) 무슨 일을 되게 하여 주기를 남에게 부탁함.

36) 오래 전부터 친한 친구.

37) 관찰사(觀察使).

38) 고을의 수령(守令). 군(郡). 현(縣)이 관장(官長). 군수(郡守) · 현령(縣令) · 현감(縣監)등 지방관의 통칭.

39) 물건을 보냄.

수응(酬應)하는 즘음에 다른 집 노복(奴僕)들이 혹 오래도록 서서 지루하게 기다리면 부인은 반드시 민망하게 여기어 마음에 편치 않았다. 이에 종당(宗黨)에서는 모두 강열(感悅)하였다. 또한 부인은 여홍(女紅)<sup>40</sup>에 부지런하여 비록 나이와 벼슬이 높을 때에도 만포공(晩圃公)이 입는 옷은 몸소 지어드리어 심히 절약하고 명주 비단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자녀들이 몸에 편하고 좋은 것을 청하면 부인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대인(大人)은 독로(篤老)<sup>41</sup>할 때에도 나라일로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숙야(夙夜)<sup>42</sup>를 꺼려하지 않고 하루라도 집에서 편안하게 자지 못하여 스스로 한사(寒士)<sup>43</sup>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런데 그 아내와 딸들이 따뜻한 집에 앉아서 기한(飢寒)을 모른다면 이것이 허물된 것이니 어찌 경난(輕煖)<sup>44</sup>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또 언제나 말하기를,

우리의 선고(先姑)와 선비(先妣)의 덕행(德行)으로 평생에 곤궁(困窮)함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나 나의 용렬한 품격이 외람되게 높은 질록(秩祿)<sup>45</sup>을 받고 늙마탕에 거처가 그래도 편안하다. 의약(醫藥)의 조절도 분수에 지나치니 옛일을 생각하여 마음이 스스로 편안치 않다.

라고 하였다.

고비(考妣)<sup>46</sup>와 조고비(祖考妣)의 사향(祀享)<sup>47</sup>에 막내 아우가 관직에 있으나 또한 반드시 힘에 따라서 제수(祭需)를 도왔다.

酬應之際 他家奴僕 或久立遲待 則夫人必憫然 不安于心 宗黨莫不感悅 夫人勤於女紅 雖於季高位尊之時 晚圃公所被服 必親自裁縫 自奉甚約 不近絢帛 子女請以便身之宜 則曰汝大人篤老之時 以國事多艱 不憚夙夜 不能一日安寢於家 而自奉無異寒士 婦女則安坐煖屋 不知飢寒 此已過矣 豈可更思輕煖乎 常曰以吾先姑先妣之德行 而平生不免困窮 如吾庸品 猥受崇秩 老來居處 粗得安便 醫藥之節 亦過分數 追念昔事 心不自安矣

考妣祖考妣祀享 雖季弟在官 而亦必隨力助需

40) 여자들이 하는 일. 여자의 길쌈질.

41) 몹시 나이가 많음.

42) 이른 아침부터 깊은 밤까지.

43) 가난한 선비. 가난하고 세도 없는 사람.

44) 옷이 가볍고 따뜻함.

45) 녹봉(綠俸).

이에 내외(內外) 족당(族黨)이 친척에게 소원(疎遠)함 없이 정성으로 대접하였다. 비록 항렬(行列)이 낮고 나이가 젊더라도 반드시 말을 삼가시고 법도(法度)가 있으면서 한결같이 해이(解弛)한 기색이 없었다. 김씨(金氏)에게 출가한 딸이 과부(寡婦)가 되었으나 아픔을 속에 숨기고 민측(憫惻)한 모습을 남에게 나타내지 않았다. 부인은 평생에 겸음(謙揖)<sup>48</sup>하고 신중하면서 내당(內堂)에서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숨은 덕(德)과 아름다운 행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많았다.

그러나 그 대체는 가릴 수 없는 것이 있었다. 이로써 종자(從子)<sup>49</sup> 능수(能秀)가 제사(祭祀)에 아뢰는 글에,

규곤(閨壺)<sup>50</sup>의 안에서 장엄(莊嚴)하고 정직하여 고가(故家)에 숙원(淑媛)이 거동 법칙이 있었다. 옛적에 슬한 어려움이 많았는데 여공(女工)을 멈추지 않고 귀하여도 오히려 검소하여 시광(奩筐)<sup>51</sup>의 길쌈을 몸소 하였다.

라고 적었다.

조카 김정근(金定根)의 글이 이르기를,

아름다운 행실과 지극한 덕(德)은 규문(閨門)의 모범이었다. 이와 같이 시부모님께 효도하고 남편에게 전념하였으며, 제사(祭祀)를 정성으로 받들고 비복(婢僕)을 사랑으로 다스렸다. 또한 나이가 50~60이 넘어도 이홀(弛忽)<sup>52</sup>하지 않고 가문(家門)이 융성하게 나타날 즈음에도 더욱더 검약(儉約)하였다. 따라서 옛 여사(女士)라도 부인을 능가(凌駕)하지 못한다.

고 하였다.

內外族黨 無戚疎待之甚款 而雖於行卑年少者 亦必謹言辭有法度 一無解弛之色 女金氏 婦寡 隱痛於中 而亦不以憫惻之容 見於人 夫人平生 謙挹慎重 內而不出 潛德懿行人所不知者多 而其大體 則自有不可掩者 是以從子能秀 祭告之文 曰閨壺之內 莊嚴正直 故家淑媛 有儀有則 昔值多艱 女工不息 及貴尙儉 奩筐親織 姪金定根之文 曰懿行至德 無非閨門之模範 而若其孝舅姑 惠君子 奉祭祀以誠 御婢僕以恩 年踰耆艾 而罔有弛忽 家際隆顯 而逾懋儉約 雖古之女士 莫或過之

46) 죽은 아버지와 어머니.

47) 제사의 존칭(尊稱).

48) 겸손한 태도로 사양함.

49) 조카.

50) 내실(內室). 전하여 부녀(婦女)를 일컬음.

51) 삼베와 모시 등을 길쌈함.

52) 풀리어 소홀함.

이것은 진실로 실제(實際)에 합당한 말이다. 김씨(金氏) 부인(婦人)이 살아있을 때에 언서(諺書)로써 행록(行錄)을 구출(搆出)하여 기술케 하였다. 그러나 오직 그 꺾략(闕略)<sup>53</sup>함을 돕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글을 엮을 즈음에 그 본 뜻을 잃은 것이 두렵다.

此誠簡當實際語也 金氏婦在  
時 以諺書搆出行錄 俾紀述之  
非惟不能補其闕略 亦於綴文  
之際 有失其本意者 是懼

庚寅 四月 十五日 孫 宜堯  
謹書

경인(庚寅,1830)년 4월 15일.  
손자(孫子) 의요(宜堯)는 삼가 씁니다.

---

53) 빠지어 생략됨.

## 치제문(致祭文)

## 致祭文

가경(嘉慶) 7년 임술(壬戌, 1802)년 11월 21일에 국왕이 가까이서 모시는 신하(臣下) 검교직각(檢校直閣) 이존수(李存秀)를 보내 돌아가신 영의정 심환지(沈煥之)의 신령(神靈)에게 유제(諭祭)합니다.

維嘉慶七年歲次壬戌十月二十一日  
國王

遣近侍臣檢校直閣李存秀  
諭祭于卒領議政沈煥之之靈  
天不佑邦 哲輔云亡 川失舟楫  
厦摧棟樑 予將疇倚 臨筵盡傷  
惟卿

하늘이 나라를 돕지 않아 철보(哲輔)<sup>1)</sup>가 죽었다고 합니다. 냇물에서 주楫(舟楫)을 잃고 큰 집의 동량(棟樑)이 꺾였습니다. 나는 장차 뉘에게 의지할지 자리에 임하여 상심(傷心)을 다 합니다. 오직 경(卿)께서는 석갈(釋褐)<sup>2)</sup>때부터 훌륭한 소문이 일찍이 드러났습니다. 입심(立心)이 오로지 확고한 병의(秉義)가 강방(剛方)하였습니다. 백천(百川)이 넘쳐흐르건만 지주(砥柱)가 우뚝하였습니다. 긴 밤 어두운 길에 한 별이 외롭게 매달려 있듯 말살되던 초년에는 자신을 굽혔건만 이름은 온전하였습니다. 금운(襟韻)<sup>3)</sup>은 소광(疏曠)하였건만 부끄러운 빛 공교로웠습니다.

輿自釋褐 令聞夙彰 立心專確  
秉義剛方 百川轟流 砥柱屹然  
長夜冥途 一星孤懸 抹撥初載  
身屈名全 襟韻疎曠 有覩巧諱  
先朝晚年 際遇益倦 擢以不次  
羽儀王廷 賁我龍圖 揭我麟經  
迭居兩銓 壁立亭亭 不詭不隨  
老成典刑 金相懸車 惟卿是聽  
乙卯以後 治象清明 爲領爲袖  
士類彙征 簡在上心 責鉅任宏

선조(先朝)의 만년에 만날 즈음에는 더욱 친절하여 순서를 밝지 않고 발탁하여 왕정(王廷)에 내세웠습니다. 나의 용도(龍圖)<sup>4)</sup>에 임하시고 나의 인경(麟經)<sup>5)</sup>에 실렸습니다. 번갈아 양전(兩銓)<sup>6)</sup>을 차지하여 우뚝 서서 정정(亭亭)하였습니다.

간사하지도 않고 그냥 따르지 않으면서 전형(典刑)하였습니다. 김상(金相)이 현거(懸車)<sup>7)</sup>했으나 오직 경(卿)이 들었습니다. 을묘(乙卯) 이후에 나라를 다스리는 상태가 청명(清明)하였습니다. 영(領)이 되고 수(袖)가 되어 사류(士類)를 모아 지휘하였습니다. 간택(簡擇)이 상감(上監)<sup>8)</sup>의 마음에 있으니 그 책임이 크디 크셨습니다.

1) 밝은 재상(宰相).  
2) 처음으로 관리가 됨을 이룸.  
3) 마음씨와 인품.  
4) 왕께서 살고 있는 곳을 뜻함. 또는 왕께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책.  
5) 춘추(春秋)의 다른 이름.  
6) 이조(吏曹)와 병조(兵曹)를 아울러 이르는 말.  
7) 관직(官職)을 그만 둠.

직·설(稷契)<sup>9)</sup>이 숭상된지라 부·범(富范)의 이름을 아올렸습니니다. 좌우에서 도우니 오직 간정(幹楨)<sup>10)</sup>이였습니다. 아~! 경신년(庚申年)에 하늘이 우리 동방(東邦)을 베었으니 경(卿)은 이 때에 노공(潞公)<sup>11)</sup>이며 온공(溫公)<sup>12)</sup> 이였습니다. 다스림을 돕고 어짐을 펴서 나의 우린 몸을 도우셨습니니다.

한 쪽 따듯한 가을별이 저 혼몽(昏蒙)함을 비취 주고, 철류(綴旒)<sup>13)</sup>가 반태(盤泰)<sup>14)</sup>하니 위대하구나! 그 공(功)이여. 백료(百僚)들의 공식(矜式)하니 암랑(巖廊)<sup>15)</sup>에 좌진(坐鎮)<sup>16)</sup>하였습니다. 막힘을 되돌려 태평하니 나라의 운명이 영장(靈長)<sup>17)</sup>하였고, 토죄(討罪)에 엄격하시어 거리낌 없이 기강(紀綱)을 세웠습니니다. 정사(政事)에는 혁신이 있고 다스림은 조절이 합당하여 요(堯)임금의 기용으로 순(舜)이 경장(更張)하였습니다. 장영(壯營)<sup>18)</sup>의 폐단을 고치니 그 비익(裨益)이 실지로 많았습니니다.

선왕(先王)의 정의(精義)는 일성(日星)처럼 나열되었으니 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하여 단연코 다름이 없었습니다. 뉘가 감히 나무랄 것인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니다. 크나 큰 절의는 더욱더 굳세고 황발(黃髮)은 과과(皤皤)하였습니다. 하모(遐耄)를 누리련만 영원히 평화로운 세상을 기렸습니다. 망념 없는 한 병(病)을 어찌 남긴 뜻을 따르지 않으리오. 나라에 그 사람이 없으니 뉘와 더불어 다스리겠습니까. 자산(子産)<sup>19)</sup>의 유애(遺愛)<sup>20)</sup>를 이부(尼父)<sup>21)</sup>는 슬퍼하였습니다. 위공(魏公)<sup>22)</sup>이 없으니 구료(具僚)<sup>23)</sup>는 스승을 잃었습니다.

이에 그 대강만을 논하고 나머지는 낱낱이 거론하기 어렵습니니다. 한 마디로 잘라 말하면 군자(君子) 일진저. 어찌 수보(酬報)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실마리를 포함니다. 근신(近臣)이 대신 제(祭)에 올리는 나의 술입니다.

稷契尙矣 富范并名 左右協贊  
 惟幹惟楨 嗚呼庚申 天割吾東  
 鄉於是時 潞公溫公 贊治宣仁  
 佑我寡躬 一部陽秋 牖彼昏蒙  
 綴旒盤泰 偉哉厥功 百僚矜式  
 坐鎮巖廊 回否爲泰 邦運靈長  
 嚴於討罪 廓乎扶綱 政有因革  
 治合商量 堯之所用 舜或更張  
 壯營釐弊 裨益實多  
 先王精義 日星森羅 一心爲國  
 斷兮無他 人孰敢非 不偏不頗  
 大節彌剛 黃髮皤皤 謂享遐耄  
 永贊明時 无妄一疾 胡不憇遺  
 國其無人 孰與爲治 子産遺愛  
 尼父斯悲 魏公不在 具僚失師  
 槩論其大 餘難枚舉 一言以蔽  
 君子人與 諡不待狀 贈出特助  
 曷云酬報 聊表心緒 近臣替祭  
 薄言我醕

8) 임금의 높임 말. 9) 직기(稷棄)와 설(契) 요·순(堯舜) 두 임금의 신하.  
 10) 담 쌓을 때 양쪽 모서리에 세우는 나무기둥. 곧, 사물의 근본을 비유함.  
 11) 중국 북송(北宋)때의 이름난 장상(將相). 문언박(文彦博). 12) 중국 송대(宋代)의 학자·정치가. 사마광(司馬光).  
 13) 깃에 달린 술을 말하는데 그 끊어질 듯 이어진 모양 때문에 전하여 나라의 위태로운 상태를 비유하는 말로 사용됨.  
 14) 반석처럼 평평하고 견고함. 15) 조선 시대 의정부(議政府)에 대한 별칭.  
 16) 그 자리에 앉아서 그들을 단속함. 17) 영묘(靈妙)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  
 18) 조선 정조(正祖)때 왕권의 강화와 궁성 호위의 목적으로 두었던 군영(軍營).  
 19) 춘추시대(春秋時代)의 정국(鄭國)의 어진 대부(大夫). 공손교(公孫僑)의 자(字)  
 20) 인애(仁愛)의 덕(德)이 후세에 남은 것.  
 21) 공자(孔子)의 존칭(尊稱). 22) 북송(北宋)의 현신(賢臣) 한기(韓琦).  
 23) 벼슬아치의 자리만은 채움. 벼슬아치가 무능하다는 뜻으로 자신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

## 치제문(致祭文)

## 致祭文

가경(嘉慶)<sup>1)</sup> 7년 임술(壬戌, 1802) 12월 11일에 국왕께서 가까이서 모시는 신하(臣下) 행좌승지(行左承旨) 오재소(吳載紹)를 보내어 영의정(領議政) 문충공(文忠公) 심환지(沈煥之)의 신령(神靈)에게 유제(諭祭)합니다.

경(卿)이 가신지가 달이 이미 다시 바뀌었습니다. 아름답고 아름다운 모습이여 아득한 둔석(窞窞)<sup>2)</sup>입니다. 일을 처리하는데 선량함을 생각하니 자충(慈衷)<sup>3)</sup>이 더욱 깊었습니다. 묘당(廟堂)<sup>4)</sup>에 쌓인 일을 누구에게 맡기고 조상(朝象)<sup>5)</sup>이 반환(泮渙)<sup>6)</sup>하거늘 누가 조제(調劑)하겠습니까. 세상의 도리와 백성의 근심을 가름하지 못하건만 가신 정승 계신 듯하니 내 어찌 근심하겠습니까.

아~! 가신 승상(丞相)은 옛 대신(大臣)의 흐름입니다. 자신은 주석(柱石)을 도맡고 땅은 산위에 북두성을 높이었습니다. 스스로 위포(韋布)에 있으면서 일을 집행함에 분수가 있었습니다. 평탄하고 험악하며 영화롭고 초취하여도 한결같은 절의가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선왕(先王) 만년(晩年)에 계의(契義)<sup>7)</sup>가 동덕(同德)<sup>8)</sup>에 밝아 그를 절차를 밟지 않고 발탁하여 구복(甌卜)<sup>9)</sup>에 이르렀습니다.

애통하여라! 경신년(庚申年)에 하늘이 나뉘어 다 했습니다. 나라가 지금이 있는 것은 경(卿)의 힘을 입은 것이 실지로 많았습니다. 동량(棟樑)의 큰 집이 지주(砥柱)가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어둡다가 천명(闡明)하여 해와 별이 빛났습니다. 펼치고 자 했으나 꺼지더니 도깨비가 둔장(遁藏)<sup>10)</sup>하였습니다. 경(卿)의 협찬(協贊)이 더욱더 나타났었습니다.

몸소 기무(機務)를 담당하여 작고 큰 것이 없었습니다. 나라의 걱정을 가정(家庭)처럼 여기어 그 칭송이 여대(輿儻)<sup>11)</sup>에 미쳤습니다. 이 금일(今日)에 어디에서 얻어왔던가 중조(中朝)<sup>12)</sup>의 감탄이 오랏수록 더욱더 절실합니다. 가까운 신하(臣下)가 치유(致侑)<sup>13)</sup>하여 애도를 표합니다.

維嘉慶七年歲次壬戌十二月  
十一日

國王

遣近侍臣行左承旨吳載紹

諭祭于領議政文忠公決煥之  
之靈

自卿云逝 月已再易 休休之容  
邈矣窞窞 撫事思良  
慈衷采深 廟務叢積 繫誰委任  
朝象泮渙 繫誰調劑 世道民憂  
茫不可際 故相若在 予豈是憂  
嗚呼故相 古大臣流 身任柱石  
地崇山斗 自在韋布 有執有守  
夷險榮悴 一節靡忒  
先王晩年 契昭同德 擢之不次  
至于甌卜 痛矣庚申 天割之鞠  
國之有今 賴卿實多 棟樑大廈  
砥柱頽波 幾晦而闡 日星炳煌  
欲肆而熄 魑魅遁藏 卿之協贊  
此其尤著 身擔機務 無細無鉅  
憂國如家 誦及輿儻 于此今日  
何處得來 中朝之歎 久而彌切  
近臣致侑 庸表悼悵

1) 서기 1796년~1820년 까지의 청(淸)나라 연호(年號)

2) 무덤 구멍. 3) 인자(仁慈)한 마음. 4) 의정부(議政府)의 별칭.

5) 조정이 처하여 있는 형편이나 모양. 6) 해산(解散)되어 분리(分離)됨.

7) 뜻이 맞는 벗 사이의 의리. 8) 서로가 같이하는 덕행(德行).

9) 재상(宰相)을 가려 뽑음. 10) 달아나서 자취를 감춤.

11) 하인(下人). 중. 12) 중앙 정부를 일컬음.

13) 죽은 신하에게 제수(祭需)를 보내어 유식(侑食)함.



## 제문(祭文)

## 祭文

갑자년(甲子年, 1804) 10월 병진(丙辰) 삭(朔) 2일 정사(丁巳)에 각료(閣僚) 검교제학(檢校提學) 김조순(金祖淳)·원임제학(原任提學) 이만수(李晩秀)·원임직각(原任直閣) 김면주(金勉柱)·검교직각(檢校直閣) 서영보(徐榮輔)·심상규(沈象奎)·박종경(朴宗慶)·김매순(金邁淳)·대교(待敎) 박종훈(朴宗薰)이 간략하게 시수(時羞)와 조문(操文) 갖추어 원임제학(原任提學) 의정부(議政府) 영의정(領議政) 문충공(文忠公) 만포심공(晩圃沈公)의 신령(神靈)에게 곡(哭)하면서 아뢰입니다.

나라에 큰 신하가 있으니 마치 기둥이 집에 있는 듯 하였습니다. 한 가운데에 우뚝 서 있으면 서까래가 사방에 펼쳐있습니다. 못 벼슬아치에 견줄 수 없이 오로지 한 일만이 애쓰고, 위대한 도량과 돈독한 바탕으로 높은 표본을 확고하게 세웠습니다.

4가지를 겸했나니 상기(相器)<sup>1)</sup>를 갖추었고, 저 두소(斗筲)<sup>2)</sup>를 지혜로써 헤아렸습니다. 바야흐로 시대가 태평하니 견가(牽架)<sup>3)</sup>의 지주(支柱)였습니다. 이것으로 위태로움 지키어 저온(底蘊)<sup>4)</sup>이 나타났습니다. 이주(伊周)<sup>5)</sup>를 숭상하니 위국(魏國) 온로(溫潞)<sup>6)</sup>입니다. 이것으로 선발되니 아마도 자주보지 않았습니다. 경신년의 끝소리가 솔토(率土)를 진경(震驚)하련만 엄(嚴)한 여사(廬舍)에서 공경하고 침묵하게 성왕(成王)이 무왕(武王)을 이은 듯 하였습니다.

만인(萬人)이 보는 곳에 공(公)께선 상부(相府)에 있었습니다. 염유(簾帷)에서 명령할 때 드디어 원보(元輔)에 오르셨습니다. 선왕(先王)은 현철(賢哲)하신데 그대는 오직 핑고(肱股)였습니다. 어찌 고달픔을 다하지 않았으련만 쫓아따로 만나서 공(公)은 머리를 조아리고 절하니 눈물이 비오듯 떨어졌습니다. 지금에 무엇으로 살펴보아 영고(寧考)<sup>7)</sup>가 믿지 않겠습니까.

維歲次甲子十月丙辰朔初二日  
丁巳 閣僚檢校提學 金祖秀  
原任提學 李晩秀 原任直閣  
金勉柱 檢校直閣 徐榮輔 沈  
象奎 朴宗慶 金邁淳 待敎朴  
宗薰 略具時羞操文 哭告于  
原任提學議政府領議政文忠公  
晩圃沈公之靈曰

國有大臣 如棟在宇 揭然中處  
榱桷四布 不比庶官 專攻一務  
偉量敦質 峻標確樹 四者兼矣  
相器乃具 彼哉斗筲 挾智用數  
方時泰寧 牽架支柱 用之持危  
底蘊立露 伊周尙矣 魏國溫潞  
由此其選 盖不數覩 庚申末音  
震驚率土 嚴廬恭默 若成紹武  
萬日攸屬 公在相府 簾帷發命  
遂陟元輔  
先王則哲 女惟肱股 曷不盡瘁  
用追殊遇 公拜稽首 涕零如兩  
今往何監 寧考非怙

1) 정승의 자질.

2) 두(斗)는 한 말. 소(筲)는 한 말 두되들이의 참대 그릇(竹器). 여기에서는 변변하지 못한 사람을 뜻함.

3) 옷의 뚫어진 구멍을 끌어 당겨서 깊고 비가 새는 지붕을 이리저리 엮어서 막는다는 뜻으로 임시 변통으로 이리저리 꾸며 맞추거나 또는 생활이 매우 구차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4) 깊숙한 곳. 속 깊이 간직한 것.

5) 은(殷)나라 양상(良相) 이윤(伊尹)과 주(周)나라 현상(賢相) 주공(周公)를 가리킴.

6) 중국 송(宋)나라 사마광(司馬光)과 문언박(文彦博)을 일컫음.

7) 세상을 편안하게 하고 돌아간 아버지란 뜻으로 임금이 자기의 선고(先考)를 높이어 이르는 말.

모훈(謀訓)<sup>8)</sup>은 단청(丹青)보다 빛이 나고 의리(義理)는 승구(繩矩)<sup>9)</sup>를 꺾었습니다. 그 대경(大徑)<sup>10)</sup>이 있었나니 패역(悖逆)하면 부월(斧鉞)<sup>11)</sup>을 더하였습니다. 시고 짜고 느슨하고 급하게 출입(出入)의 차등이 있었습니다. 감싸주고 융화롭게 마치 욱되게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하였습니다.

3년이나 일을 집행하여 완성하니 믿음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태산처럼 옮기지 않으니 그 이택(利澤)이 넓었습니다. 모든 생각과 기강의 공적을 못사람은 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와 같이 세운 것은 음습하지 않고 취하였습니다. 뿌리 깊은 고옥(膏沃)이 깊숙하게 포소(布素)<sup>12)</sup>에 있었습니다. 성스러운 정의(精義)가 있었기로 인경(麟經)<sup>13)</sup>의 1부(部)였습니다.

한 둘의 신하가 같이하여 선후(先後)가 그나마 부합하였습니다. 공(公)께선 그 종주(宗主)를 얻어서 가지런한 이름을 후세가 돌아볼 것입니다. 나를 탓하고 나를 알아주는 풍파(風波)의 운로(雲路)에서 저 신령한 빛이 홀로 노(魯)나라에 돌아왔습니다. 이 하늘이 끼친 바를 어찌 급하게 빼앗아갔습니까. 나룻배가 노를 잃고 대로(大輅)에 마부가 빠졌습니다. 진체(殄瘁)<sup>14)</sup>의 탄식이 아래로 동유(童孺)까지 미쳤습니다.

서청(西淸)<sup>15)</sup>이 익익(翼翼)<sup>16)</sup>하니 규벽(奎壁)<sup>17)</sup>이 모인 곳입니다. 치의(緇衣)<sup>18)</sup>·소타(素紕)<sup>19)</sup>로 일찍이 양후(陽煦)<sup>20)</sup>에 읊(揖)하셨습니다. 공담(公琰)<sup>21)</sup>의 거지(舉止)요, 곡강(曲江)<sup>22)</sup>의 풍도(風度)입니다. 어디에서 다시 얻을 것인가 천고에 어슴푸레 할 것입니다. 위에선 서러워하고 아래에선 울부짖으면서 이 맑은 술을 드리오니 드옵소서.

謨炳丹青 義截繩矩 厥有大經  
悖則鉞斧 酸醎緩急 出入差互  
以包以瀦 若瀆受注 三載秉成  
有情有懼 泰山不運 利澤斯普  
都料紀績 衆工莫妬 惟此建立  
非襲而取 根深膏沃 奧在布素  
聖有精義 麟經一部 一二臣同  
先後疏附 公得其宗 齊名後顧  
罪我知我 風波雲路 譬彼靈光  
獨歸于魯 寔天所遺 胡奪斯遽  
峩輿失楫 大輅闕御 殄瘁之歎  
下逮童孺 西淸翼翼 奎壁所聚  
緇衣素紕 夙挹陽煦 公琰舉止  
曲江風度 于何復得 宛其千古  
上慟下哭 陳此淸醕 尙饗

8) 국가(國家)의 대계(大計)가 되는 가르침.

9) 먹줄과 곡척(曲尺). 모범. 규범.

10) 사람이 지켜야 할 큰 도리.

11) 큰 도끼. 곧 무거운 형벌을 비유함.

12) 소박한 배옷. 전하여 그러한 옷을 입고 사는 순박한 사람.

13) 춘추(春秋)의 다른 이름. 역사를 뜻함.

14) 남김없이 없어짐. 병들어서 시들음.

15) 궁성(宮城) 가운데에 편안하고 한가한 곳.

16) 공손한 모양.

17) 규성(奎星)과 벽성(壁星) 곧 군왕께서 거처하는 곳을 뜻함.

18) 경사(卿士)들이 조회하는 정복(正服).

19) 흰실로 장식한 관복.

20) 태양처럼 따듯함. 임금의 은혜를 비유함.

21) 중국 촉(蜀)나라에 장완(藏琰)의 자(字).

22) 중국 당(唐)나라에 장구령(張九齡)의 호(號)

무오(戊午)년 12월 10일 밤에

戊午 十二月 初十夜

어제 돌아온 뒤에 이른 바 좌우가 칼을 차고 가운데에 나아가서 한고조(漢高祖)에 인유(引喻)<sup>1)</sup>하여 일광(一款)<sup>2)</sup> 정좌(政坐)<sup>3)</sup>하니 경(卿)은 학력(學力)이 미치지 못함이다. 대저 천하(天下)의 일에는 경(經)과 권(權)이 있으니 성인(聖人)이 이 두 글자에 침구(斟劑)<sup>4)</sup>하여 마치 베를 짜는 데에 경선(經線)을 기다리고, 저울질 하는 데에 추(錘)를 맞추는 것이다.

이것은 경법(經法)<sup>5)</sup>을 지키지 못하면 부득불 권도(權道)을 써야하는데 권도를 써서 적중하면 또한 경법인 것이다. 때문에 무왕(武王)의 권도는 문왕(文王)의 경법(經法)이니 권(權)과 경(經)의 나뉘는 시조(時措)<sup>6)</sup>의 마땅함에 있는 것이다. 마땅하면 비록 지나치더라도 지나친 것이 아니니周公(周公)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공자(孔子)는 남자(南子)를 만나 보았으며, 맹자(孟子)는 왕(王)이 사람을 시켜서 문병(問病)하였으나 보지 않았다. 또 공자(孔子)는 면관(冕冠)도 벗지 않고 노(魯)나라를 떠났으며 맹자(孟子)는 3일 밤을 자고 주(晝)나라 땅을 떠났다. 또 공자는 늙은 사람 원양(原壤)을 도왔으며 맹자(孟子)는 병(病)을 칭탁(稱託)하여 목자(墨者)인 이지(夷之)를 막았다.

만약에 소인(小人)의 짐작으로 헤아려 보건데 어찌하여 제자(弟子)의 의혹이 없겠는가마는 참작하기 전에는 형권(衡權)<sup>7)</sup>에 의하여 그 적중함을 얻는다. 이것은 오직 성인(聖人)이 그렇게 하니 그 헤아림은 동일하다. 요즈음 일을 가지고 돌아 보건데 내가 어찌 상고한 바가 없겠는가.

日昨來後 可謂左右佩劍而就中 引喻於漢高 一款政坐 卿學力未到處 大抵天下之事 有經有權 而聖人 斟劑於此二字 如織之待經 稱之須權 有不可以守經 則不得不用權 權而得中 是亦經也 故武王之權 爲文王之經 而爲權爲經之分 亦在於時措之宜 宜則雖過 不以爲過者 周公是耳 若孔子 則見南子 而孟子 則王使人問 猶不見焉 孔子 則不稅冕而去魯 而孟子 則三宿而出晝 孔子 則助老者原壤 而孟子 則托病而拒墨者夷之 若村以小人之腹顧 豈無弟子之惑 而參前倚衡權 得其中 惟聖爲然 其揆一也 顧此近日事 予豈無所稽哉

1) 다른 예를 끌어 비유함.

2) 한차례 두루 묻고 조사함.

3) 몸을 바르게 앉아서 궁장(矜莊)함을 보임.

4) 짐작하여 헤아림.

5) 대경대법(大經大法). 경서(經書)적 의리(義理). 공명정대한 원리와 법칙.

6) 때맞춰 조처함.

7) 권형(權衡). 물건을 다는 도구. 저울추와 저울대 전(轉)하여 사물의 평형(平衡) 또는 균형. 사물의 평정(評定).

그 외면에 대강의 자취는 경도(經道)에 다르지만 그 정의(精義)의 심오한 뜻을 궁구하면 권도(權道)로 하되 경법(經法)에 합당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문무(文武)<sup>8)</sup>·주공(周公)·공맹(孔孟)<sup>9)</sup>에게 질정(質定)하더라도 나는 부끄러운 빛이 없다.

대저 이른 바 백(伯)<sup>10)</sup>은 왕(王)에 반(反)하니 공자 같은 성인을 혹은 양호(陽虎)가 미복(微服)으로 송(宋)나라를 지나갔다고 내려보았다. 이것은 뇌락(磊落)<sup>11)</sup> 광명(光明)한 뜻에 흠이 되는 듯하니 성인(聖人)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갑자기 보고 들을 즈음에 이와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것은 경중(經中)의 권(權)으로 권(權)이 경(經)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후학(後學)이 여측(蠡測)<sup>12)</sup>하여 관규(管窺)<sup>13)</sup>할 바가 아닌 것이다. 진실로 경(卿)과 같이 말한다면 일찍이 하늘이 놓은 성인(聖人)으로도 뇌룡(牢籠)<sup>14)</sup> 엄조(罨罩)<sup>15)</sup>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

왕(王)과 백(伯)을 병용하여 왕도(王道)를 펴면 이것이 천덕(天德)이다. 그러나 재주가 얕으면서 한 변방(邊方)에 으뜸이 되면 곧 왕도(王道)가 아니니 이른 바 재능의 뜻은 있으나 자기의 사사로운 뜻이다. 왕·백(王·伯)<sup>16)</sup>와 경권(經權)<sup>17)</sup>은 그 말은 비슷하지만 그 자취는 판이하게 다르니 공문(孔門)의 학동(學童)들이 오백(五伯=五霸)를 부끄럽게 일컫는다.

성인(聖人)이 된 연후(然後)에 능히 달권(達權)<sup>18)</sup>할 수 있다. 달권은 곧 시중(時中)의 한 일이니 상도(常道)에는 다른 듯하지만 도리어 경도(經道)에 합한다.

言其外面粗迹 雖異於經道 究其精義奧旨 卽權而合經者 質之文武周公孔孟 吾無媿色 夫所謂伯者 王之反也 以孔子之聖焉 而或瞰陽虎之無或微服而過宋 似是欠於磊落光明之意 自非善觀聖人者 驟看霎聞之際 宜若是可議者 而此所以爲經中之權 而權以爲經 非後學 所可蠡測而管窺者也 誠如卿云云 則曾以天縱之將聖 亦不免牢籠罨罩

王伯并用之 歸布王道 是天德也 才淺伯一邊 便非王道 卽所謂才有意 便已私意也 王伯與經權 其說似同 其跡判異 孔門之童 羞稱五伯 聖人然後 能知達權 達權卽時中之一事 以其似異於常 還合於經也

8) 문왕(文王)과 무왕(武王).

9) 공자(孔子)와 맹자(孟子).

10) 제후(諸侯)적 맹주(盟主)를 칭하는 옛글자. 패(霸) 자와 상통한다.

11) 마음이 활달하여 조그마한 일에는 구애하지 않는 모양. 공명정대(公明正大)한 모양.

12) 표주박으로 바다의 물을 헤아림. 곧 조그마한 피로 큰 일을 헤아리려함을 뜻함.

13) 소견이 좁음. 곧 대통으로 하늘을 내다봄을 뜻함.

14) 한데 묶어 놓음.

15) 거물로 묶어 가두어 둠.

16) 왕패(王霸). 왕도(王道)와 패도(霸道). 인의(仁義)로써 천하를 다스리는 자(者)를 왕(王)이라 하고 권력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자를 백(伯) 또는 패(霸)라고 함.

17) 경도(經道)와 권도(權道).

18) 그때 그때의 일의 기틀에 따라 적당하게 썩 잘 처리함.

이 때문에 경권(經權)은 마땅히 왕·백(王·伯)에 합의(合宜)한다고 할 수 있거니와 어찌 병용(并用)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이제 ·삼왕(二帝·三王)은 스스로 이제 ·삼왕(二帝·三王)이요, 한고·당종(漢高·唐宗)은 스스로 한고·당종(漢高·唐宗)이라는 것이 이것을 이른다. 이 40년 독서(讀書)한 공부를 돌아보니……

故經權 當云合宜王伯 豈曰  
并用 二帝三王 自二帝三王  
漢高唐宗 自漢高唐宗云者  
此之謂也 顧此四十年 讀書  
之工 所以……

- 후부결락(後部缺落) -

남은 생각이 경경(耿耿)<sup>1)</sup>하여 좌방(左方)에 조록(條錄)<sup>2)</sup>하니 오로지 자상하게 보아야 한다. 사류(士類)가 스스로 사류라고 일컫고 세인(世人)이 그들을 보고 사류라고 한 것은 하지 않는바가 있고 보는 것이 속습(俗習)보다 높고 자하여 그런 것이다. 그 가운데에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외면(外面)과 언론(言論)이 또한 사람을 움직이는 곳이 있다. 이것이 성곽(城郭)에서 달리는 군사가 창의(唱義)하는 인물을 이기는 것이다.

그대가 점점 진구(塵臼)의 가운데에 오염되어 모릉(模稜)<sup>3)</sup>에 빠지고 인갑(鱗甲)<sup>4)</sup>이 없어졌다. 따라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였다. 혹은 징토(懲討)에 얽매이어 당폐(堂陛)<sup>5)</sup>를 분간하지 못하고 오직 엄격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니 이것이 사류(士類)의 풍속(風俗)이겠는가.

표신(標信)<sup>6)</sup>과 문적(文蹟)은 무엇이 가볍고 무엇이 중하겠는가. 발병(發兵)은 대사(大事)이니 비록 해조(該曹)의 계목(啓目)<sup>7)</sup>이 있고 계하(啓下)<sup>8)</sup>의 판부(判付)<sup>9)</sup>가 있더라도 반드시 표신을 기다려서 발병(發兵)한다면 표신(標信)이 중한가 아니면 문적(文蹟)이 중한가. 표신을 가지고 놓아보낸 사람을 문적을 보지 않았다고 해서 잡아가둔다면 어찌 말이 되겠는가.

비록 상관(上官)으로 하여금 이러한 일이 있더라도 그 하관(下官)이 된 사람은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왕명(王命)이라고 말하면서 이와 같이 어려움 없이 완롱(玩弄)하는 사람이 옛적에 또한 있었는가. 저를 놓아주라고 명하고 나는 가두어 두라고 명하니 모르긴 하지만 그 가운데에 두 성인(聖人) 높음이 있어서 그러한가.

餘意耿耿 條錄左方 惟在覽詳  
士類之自稱以士類 世人之目  
之以士類 卽有所不爲 而所見  
欲高於俗習 而然也 其中雖未  
必皆然 而外面言論 亦自有動  
人處 此所以郭走之勝於倡物  
也 鄉則漸漸染汚於塵臼中 沒  
模稜無鱗甲 既無見人所不見  
之見 又無言人所不言之言事  
或係於懲討 則不分堂陛 惟恐  
不嚴 是亦士類之風乎  
標信與文跡 孰輕孰重 發兵大  
事也 雖有該曹之啓目 啓下之  
判付 必待標信 而調發 則標  
信重乎 文跡重乎 以標信而放  
送者 謂以不見文跡 而捉囚  
是豈成說乎 雖使上官 有此舉  
爲其下官者 尙不敢乃爾 名曰  
王命 而若是豈成設乎 雖使上  
官 有此舉 爲其下官者 尙不  
敢乃爾 名曰王命 而若是無難  
玩弄者 古亦有之乎 彼則命放  
之我則命囚之 未知域中 有貳  
尊而然耶

1)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모양.

2) 조목 조목 기록함.

3) 결정을 짓지 못하여 가부(可否)가 없음.

4) 마음속에 뭉친 것이 있는 모양.

5) 임금과 신하. 원래의 뜻은 전당(殿堂)과 섬돌임. 곧 군주(君主)는 집에 신하는 섬돌에 비유하였음.

6) 급한 변을 전할 때나 또는 대궐에 출입할 때에 지니던 문패.

7) 임금에게 조목별로 자세히 보고하던 것.

8) 임금에게 올려진 계문(啓聞)에 대한 임금의 답이나 의견으로 내려진 것.

9) 상주한 안건을 임금이 허가하는 일.

혐의스러움을 분별하고 미묘함을 밝히는 것은 바로 이곳에 있는 것이다. 공자(孔子)는 노(魯)나라 사람으로서 노나라의 춘추(春秋)를 저술하고 노나라의 기년사(紀年史)를 지었다.

이에 높은 사람을 짓누를 혐의가 있을까 봐 두려워하여 책의 첫머리에 춘왕(春王)이라고 시작하였다. 이것은 곧 후세(後世)를 가르치는 미묘한 뜻이다.

이 때문에 인신(人臣)이 장수(將帥)를 잘 통어(統御)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 장수를 베라고 말한다. 이것을 율령(律令)의 이치에 견주어 간특(奸慝)하고 성립하지 못하는 안건이 있다면 오히려 인필(麟筆)<sup>10</sup>의 베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명령의 당부를 논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서 나와 사방(四方)에 행하니 이것이 천존지비(天尊地卑)의 나뉘는 법이다.

지금 만약에 경(卿)들의 말과 같이하면 팔도(八道)의 방백(方伯)으로 하여금 각자가 주장하여 조정(朝廷)을 받들지 않는다면 반드시 문정(問鼎)<sup>11</sup>의 경중(輕重)이 있을 것이다. 서리가 내릴 적에는 울열(栗烈)<sup>12</sup>하지는 않지만 먼저 견빙(堅氷)<sup>13</sup>이 이른다고 한 것은 점차적인 것이다. 점차적으로 자라나지 않는다고 할진 덴 경(卿)은 짐짓 또한 나의 말을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은 생각한 뒤에 연석(筵席)<sup>14</sup>에 올라가서 모름지기 힘써 주장할 것이다. 이 논리(論理)의 하나는 덕(德)을 높이는 근본이 되고, 또 하나는 기강(紀綱)을 붙잡는 자료가 되며, 마지막 하나는 세속을 경계하는 방법이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그대가 아니면 내가 더위를 마시고 허덕이면서, 이와 같이 입이 타고 말을 다하여 멈추지 않겠는가.

別嫌明微 政在此等處 孔子以魯人述魯之春秋 書魯之紀年 而恐有壓尊之嫌 首揚春王 卽其詔後之微旨也

姑曰人臣 無將將 則必誅將之爲言 比之獄理 有如奸未成之案 而尙不免麟筆之誅 無論命令之當否 出於一人 以行於四方 是天尊地卑之分 而今若如卿等之言 則將使八道方伯 各自主張 不奉朝廷 必有問鼎之輕重者矣 霜之降也 時不栗烈 而先言其堅氷至者 漸也 漸不可長也 卿試思之吾言 是乎非乎 念後登筵之時 必須力主 是論一以爲尊德之本 一以爲扶綱之資 一以爲驚俗之方 如何若非卿 則予何必餘暑喘喘 如是若口極言 而不知止耶

10) 사관(史官)의 붓.

11) 솥의 대소(大小). 경중(輕重)을 묻는다는 것으로 초자(楚子)가 주(周)나라 솥의 경중(輕重)을 묻고 주나라와 같이 천하(天下)를 얻고자 하였음.

12) 살을 에는 듯한 대단한 추위.

13) 단단하게 굳고 두터운 얼음.

14) 임금이 신하들과 더불어 자문주답(諮問奏答)하면서 경전(經典)을 강론하거나 시사(時事)를 의논하는 자리.

이른 바 서료(徐僚)는 일찍이 귀하게 되어서 글을 읽은 능력이 전혀 없다. 이로 인하여 식견이 노망(鹵莽)<sup>15)</sup>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많다. 금계(錦啓)<sup>16)</sup>의 인식이 당연하니 그 하나의 일은 나의 말이 경신년(庚申年) 강론(講論)에 다를 것이 없다. 마치 돌을 물에 던지면 점점 물결이 부딪치어 흐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령(藉令)<sup>17)</sup> 이번에 일은 패도(霸道)를 뒤섞여 왕도(王道)가 되지 않고 권도(權道)를 사용하여 경도(經道)에 어긋난 것이다.

이와 같이 저들은 마땅히 그 모든 의론이 그렇지 않은 것을 힘써 분별하고 상교(上教)의 당연함을 밝혀 말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에 일체가 상반(相反)하니 무슨 뜻인가. 경(卿)은 백수(白首) 잔년(殘年)에 그 구문(口吻)<sup>18)</sup>에 따르고 능히 자기의 소견을 주장하지 못하고 또 따라서 그들과 화응(和應)하였다.

이에 경(卿)이 이와 같이 자임(自任)함을 헤아리지 못하니 한심(寒心)하고 한심한 밖에 입으로 말 할 수 없다. 이 뒤에 서료(徐僚)를 대할 때에 사면(事面)을 상세하게 궁구하고 돈연(頓然)<sup>19)</sup>히 깨달은 뜻을 가지고 가르침의 책임을 분석하여 스스로 새롭고 남을 새롭게 하는 처지를 기약해야 할 것이다.

맹자(孟子)가 선뜻 ‘인정(仁政)’ 이란 두 글자를 가지고 제(齊)나라·양(梁)나라를 상대하고 진(秦)나라·초(楚)나라를 힐책(詰責)한 것은 무엇인가. 진실로 어진 명성이 미치고 어진 소문이 들어나면 진초(秦楚) 같이 강한 나라도 옷깃을 거두고 굴복할 것이다. 지금에 이른 바 ‘무(誣)’라는 것은 진초(秦楚)에 짝이 되지 않으니 어진 명성과 어진 소문이 멀리 전파되면 ‘무(誣)’는 저절로 깨어질 것이다 이것이 존덕(尊德)으로 변무(卞誣)<sup>20)</sup>의 선두에 있는 것이다.

所謂徐僚 以其早貴之致 全無讀書之力 因此識見 每多鹵莽蔑劣處 錦啓之認 以爲當然 卽其一事 吾言不翅千百 無異於庚申年講 而如石投水 漸漸相激 可謂無如之何 藉令今番事 雜霸而非王 用權而違經如渠者 固當力卞其諸議之不然 明言其上教之當然 而今乃一切相反 抑何意也 卿於白首殘年 隨其口吻 不能主自己所見 又從以和應之 不料卿之若是自任也 寒心寒心之外 用口無言 此後對徐僚之時 以細究事面 頓然覺悟之意 剖析誨責期於自新新人之地 爲可孟子 輒以仁政之二字 對齊梁撻秦楚之間者 何也 誠以仁聲及 而仁聞彰 則雖秦楚之強亦當斂衽而服也 今之所謂誣之者 非如秦楚之匹 則仁聲仁聞之遠播 誣當自破 此所以尊德 居卞誣之先者也

15) 경솔하고 주의가 부족함. 일이 거칠고 서투름.

16) 조선 시대 충청도 관찰사(觀察使)인 금백(錦伯)이 올린 장계(狀啓).

17) 어떤 사실의 원인을 설명하거나 어떤 이론 체계를 연역하기 위하여 가정적으로 설정함.

18) 입 버릇. 말 버릇.

19) 갑작스러운 모양.

20)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서 구분함.



비록 어장수(魚將帥) 이하가 들면 집에 있고 나가면 사람을 상대하여 이에 조조(槌槌)<sup>21)</sup>하고 이에 염념(念念)하니 어찌 기롱지거리를 하지 않은 이치가 있겠는가. 이것은 모두 경(卿)의 한 몸에 책임으로 충협(衝脅)<sup>22)</sup>하라는 임명이 있으면 금방 권장하고 그렇게 할지이다. 자못 분분(紛紛)하게 앞 다투는 듯하지만 그 지나간 뒤에는 문득 서로가 잊어버리는 처지가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금에 지금을 위하는 것은 수 삼년 전의 모양과 같을 것이니 이 어찌 경(卿)들이 반성하고 스스로 탓할 것이 아니겠는가.

어장군(魚將軍)을 불러들여서 상세하게 약속하는 것이 어땠겠는가. 듣건 데 기당(騎堂)<sup>23)</sup>이 금백(錦伯)<sup>24)</sup>의 소장(疏章)을 가지고 다른 소장과 다르다고 하면서 금법(禁法)을 무릅쓰고 봉입(捧入)<sup>25)</sup>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엄교(嚴敎)가 어떻게 지엄할 수 있겠는가. 기성(騎省)<sup>26)</sup>은 더욱 더 기율(紀律)에 관련되니 이른 바 금법(禁法)을 범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말인가.

아마도 금계(錦啓)<sup>27)</sup>는 금법(禁法)을 범하는 동인(東人)을 위하여 그러한 것인가. 한 두 가지의 일이 무궁한 폐단이 되니 진실로 어떻게 하겠는가. 다만 이 뜻을 가지고 서료(徐僚)에게 말해야 하는데 모르긴 하지만 서문(書問)<sup>28)</sup>한다.

雖如魚帥以下 入而居家 出而對人 槌槌於斯 念念於斯 豈有不可諧之理耶 此則都是卿一身之責 而有如衝脅之拜 方其勸令爲之也 殆若紛紛爭先者 然及其過去之後 便置相忘之域 故今之所以爲今 一如數三年前貌樣 此豈非卿等 反省自咎處耶

魚帥招致 詳詳約束 如何 卽聞騎堂 以錦伯疏 謂以異於他疏 將冒禁捧入云 嚴敎何等至嚴 騎省尤關紀律 則所謂冒禁云者 果何說也 此蓋錦啓爲冒禁之東人而然 一事二事 其爲無窮之弊 果何如 第以此意 言於徐僚 未知能書問也

21) 진실하게 서로가 응함.

22) 충돌하고 협박함.

23) 조선 시대 병조(兵曹)의 당상관(堂上官).

24)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를 달리 이르는 말.

25) 백성의 청원(請願) 서류로서 임금에게 올린 것을 승정원(承政院)에서 접수하거나 각조(各曹)·각사(各司)에서 수리하여 승정원에 회부(回付) 전달(進達)하여 올리는 것을 말함.

26) 병조(兵曹).

27) 조선 시대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인 금백(錦伯)이 올린 장계(狀啓).

28) 서신(書信)으로 물음.

이 의리(義理)에 효과를 얻는 사람은 스스로 값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성인(聖人)이 비록 경(卿)의 □□□□□□로써 말 하더라도 옛적 성주(成周)<sup>1)</sup>가 성(盛)할 때에는 정치가 이루어지고 제도를 정하였다. 이미 다스려지고 편안하여도(道)는 팔만(八蠻)<sup>2)</sup>에까지 통(通)하고 백성들은 구덕(九德)을 노래하였다.

이에 주소(周召)의 백성들이 말(言)의 말을 내니 그 하나도 선양(宣揚)하고 둘도 선양한 것은 시서(詩書)에서 모두 알 수 있다. 돌아보면 지금은 성주(成周)에 가기까지가 몇 천 백년이 되어도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은 물이 흐르듯 내려왔다. 오랜 습속(習俗)을 엿보아 그 혜택이 다하지 않으니 바로 이 충신(忠臣)·지사(志士)들은 밝은 눈으로 분발하여 볼 때이다.

그러나 세상에 소인(小人)들은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혹은 패도(霸道)를 잡용(雜用)하면 경(卿)들은 뛰어난 임금이라고 말한다. 또한 흑도 왕도(王道)와 패도(霸道)를 병용하면 경들은 경권(經權)<sup>3)</sup>의 적중함을 얻었다고 말한다. 이것을 인용하여 서로가 쫓아서 좋다고 하며 오늘은 이와 같고 내일은 이와 같이 하며, 소사(小事)도 이와 같고 대사(大事)도 이와 같은 것이다.

경(卿)들이 이른 바 의리를 천추(千秋)에 밝히고 성덕(聖德)을 삼고(三古)<sup>4)</sup>에 높이는 것은 방무(邦誣)<sup>5)</sup>를 구분하고 여송(輿誦)<sup>6)</sup>을 전파하면 그와 같이 되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나는 부덕(否德)으로 과정(過情)<sup>7)</sup>한 명예가 전하지만 경(卿)의 병집(秉執)은 실지로 선량(宣揚)의 아름다움이 된다.

收効於此箇義理者 自以爲可賈 聖人雖以卿所□手者 言之在昔成周盛時 治成制定 既又既安 道通八蠻 民歌九德 而周召輩 所以出言之言 一則宣揚 二則宣揚 詩書所載 皆可按也 顧今拒成周幾千百年 人心世道 如水益下 窺規成習 專澤未究 政是忠臣志士 明日奮瞻之秋 世之小人 不識我心 或謂以雜用伯道 則卿則曰絕王也 又或謂之并用王伯 則卿則曰經權 得中也 引而伸之 觸類而長之 今日如此 明日如此 小事如此 大事如此 則卿等 所謂明義理於千秋 尊聖德於三古 卞邦誣而播輿誦者 不期然而自然 以吾否德 雖傳過情之譽 在卿秉執 實爲宣揚之美

1) 주(周)나라의 수도가 낙읍(洛邑)에 있었을 때의 칭호. 곧 주나라의 국운이 융성하였던 시기를 말함.

2) 중국의 남쪽 지방에 있었던 종족의 여덟 오랑캐 나라. 곧 천축(天竺)·해수(咳首)·초요(僬僥)·과종(跋踵)·천흉(穿胸)·담이(僇耳)·구지(拘軹)·방척(旁脊).

3) 경도(經道)와 권도(權道).

4) 상고(上古)·중고(中古)·하고(下古)를 이룸. 복희(伏羲)가 상고(上古)·문왕(文王)이 중고(中古)·공자(孔子)가 하고(下古)가 됨.

5) 그릇되게 말을 전하여 무리를 의혹시킴. 6)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 내리는 말.

그러나 나는 경(卿)의 거조(舉措)를 알 수 없으니 진실로 생각이 이에 미쳤는가. 혹은 생각이 미칠 때에 힘을 내지 않고자 하여 그런 것인가. 아니면 애초에 생각이 미치지 않았는지 이 3가지에 반드시 그 하나가 있을 것이다.

만약에 생각이 미쳤다면 마음과 입이 한결같이 상반(相反)되는가. 만약에 힘을 내고자 하지 않았다면 경(卿)의 처지와 권우(眷遇)<sup>8)</sup>가 어찌 이와 같이 앞질러 나아가는가. 만약에 처음에 생각이 미치지 않았다면 경(卿)이 얼마 전에 시행한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낮이면 집을 쳐다보고 밤이면 탑(榻)을 맴돌면서 밀어도 떠나지 않고 말해도 깨닫지 못하니 다시 거듭하여 그 말을 듣기를 원한다.

吾未知卿之舉措 果念及於是耶 或有念及之時 而不欲出力 而然耶 抑初不念及耶 於此三者 必居其一 若云念及 則心與口 一何相反也 若云不欲出力 則以卿之地處與眷遇 何若是其征邁也 若云初不念及 則卿之所以嚮用 又何所據也 晝而仰屋 夜而繞榻 推不去說不得 更此申申 願聞其說

---

7) 실정(實情)에 지나침.

8) 특별히 은혜로써 후하게 대우함. 특히 임금의 신하를 총애하여 후대(厚待)하는 경우와 신하가 임금의 두터운 은혜를 받았음을 표현하는데 많이 쓰임.

## 송이제학유금강(送二提學遊金剛)

## 送二提學遊金剛

<이제학(二提學)이 금강산(金剛山)에 유람감을 송별함.>

忽憶雲安聽酒濤  
金剛八月佛塵袍  
煙光知是蓬萊近  
秋色爭如海嶽高  
旌節黃公臺上鶴  
經綸任子釣邊鰲  
卿能認我宵衣夢  
輸得民情入彩毫

홀연히 운산(雲山)을 생각하여 술(酒)의 물결 들었나니  
금강산(金剛山) 8월에 세속의 먼지 털겠구려.

연광(煙光)은 이와 같이 봉래산(蓬萊山)과 비슷한데,  
가을 빛 다투어 해악(海嶽)처럼 높으리라.

정절(旌節)<sup>1)</sup>의 황공(黃公)은 대(臺)위에 학(鶴)이 되고,  
경륜(徑輪)<sup>2)</sup>의 임자(荏子)는 낚시터에 큰 자라로세.

경(卿)은 능히도 나의 소의몽(宵衣夢)<sup>3)</sup>을 알건만  
백서의 정(情)을 수득(輸得)하여 채호(彩毫)를 들입니다.

---

1) 사자(使者)가 들고 가는 기(旗).

2) 천하를 다스림. 또는 그 방책(方策).

3) 날이 밝기 전에 옷을 입는다는 뜻으로, 정사(政事)에 부지런함을 뜻함.

## 칠언고시(七言古詩)

## 七言古詩

제수(齊修)<sup>1)</sup>의 공력(工力)으로 신가(身家)를 징험하고,  
심학(心學)<sup>2)</sup>은 의연하게 절차(切磋)<sup>3)</sup>에 이르렀네.  
허위(虛僞)를 용납하지 않는 언행(言行)의 즘음에  
중용(中庸)의 일부(一部)를 얻어옴이 많았다네.

齊修工力驗身家  
心學依然到切磋  
虛僞不容言行際  
中庸一部得來多

우리 조상(祖上) 교제를 논한 기미(氣味)는 동일한데,  
쇠(衰)한 끝 옛 가풍(家風)<sup>4)</sup>을 성대하게 얘기하네.  
촌심(寸心)으로 한 번 존망(存亡)의 즘음 보아하니,  
남은 일 시장(詩章)은 이사(里社)<sup>5)</sup>중에 있다네.

吾祖論交氣味同  
盛言衰季古家風  
寸心一視存亡際  
餘事詩章里社中

남아(男兒)의 견식은 선명(先明)함을 요하건만,  
이에 이르러 사람들은 문득 고맹(瞽盲)<sup>6)</sup>하네.  
공(公)이 홀로 초연하게 의회(疑晦)<sup>7)</sup>한 처지에서  
사공(事功)과 명의(名義)를 시종(始終) 이루었네.

男兒見識要先明  
到此人人便瞽盲  
公獨超然疑晦地  
事功名義始終成

왕양(汪洋)<sup>8)</sup>한 가슴 속 바다는 창명(滄溟)<sup>9)</sup>으로 들고,  
연적(涓滴)<sup>10)</sup>한 냇물은 백 갈레로 다투어 흐르네,  
지주(砥柱)<sup>11)</sup>는 우뚝 솟아 아예 움직이지 않는데  
저 풍랑(風浪)은 문정(門庭)에서 일어나네.

汪洋胸海納滄溟  
涓滴川流百道爭  
砥柱屹然元不動  
任他風浪起門庭

당도(當道)한 시랑(豺狼)<sup>12)</sup>이의 기세(氣勢)가 펼쳐지니,  
미연(靡然)<sup>13)</sup>한 온 세상이 창광(猖狂)을 겁내네.  
윤곤(輪困)<sup>14)</sup>의 담력(膽力)이 어찌 모름지기 두려워하랴.  
이미 인경(麟經)<sup>15)</sup>의 제1장을 강론(講論)하였네.

當道豺狼氣勢張  
靡然一世恟猖狂  
輪困膽力何須畏  
已講麟經第一章

1) 제가(齊家)와 수신(修身).

2) 마음을 수양하는 학문.

3) 절차탁마(切磋琢磨). 학문과 덕행의 닦음을 가리키는 말.

4) 한 집안의 기률(紀律).

5) 동네에서 지신(地神)을 제사(祭社)하는 사당(祠堂).

6) 장님. 봉사. 곧 어두움을 뜻함.

7) 의심스럽고 어두운 모양.

8) 바다가 넓고 넓은 모양.

9) 사방(四方)의 바다.

10) 물방울. 아주 작은 것을 가리키는 말.

11) 난세(亂世)에 있으면서 절조(節操)를 지키는 것. 황하(黃河) 가운데에 있는 산으로 격류(激流)속에 있으면서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에서 온 비유.

12) 승냥이와 이리. 탐욕(貪慾) 무자비(無慈悲)한 사람을 비유함.

13) 초목이 바람에 나부끼어 쓰러지듯 쓸리는 모양.

14) 높고 큰 모양.

15) 공자(孔子)가 지은 춘추(春秋)의 별명(別名).

기쁜 얼굴로 대부인(大夫人)을 공경히 받드니  
 숙수(菽水)<sup>16)</sup>의 가난한 김새는 보지 못했네.  
 풍선(風雪)이 몰아치는 악려(壘廬)<sup>17)</sup> 남쪽 고개밖에  
 흰 머리 애훼(哀毀)<sup>18)</sup>하여 향린(鄉鄰)을 감동시키네.

怡顏祇奉大夫人  
 不見幾微菽水貧  
 風雪壘廬南嶺外  
 白頭哀毀動鄉鄰

단륜(丹綸)<sup>19)</sup>이 멀리 오운(五雲)<sup>20)</sup> 사이로 내려오니,  
 하늘의 뜻 사람의 마음이 감응하여 돌아오네.  
 풍수(風樹)<sup>21)</sup>의 남은 사람 이악(異渥)<sup>22)</sup>이 외람되어,  
 창안(蒼顏) 백발(白髮)이 눈물이 잔완(潺湲)<sup>23)</sup>하네.

丹綸遙下五雲間  
 天意人心感應還  
 風樹餘生叨異渥  
 蒼顏白髮淚潺湲

예착(桒鑿)<sup>24)</sup>은 수우장(睢盱場)<sup>25)</sup>에 용납되기 어려워서,  
 한남(漢南)으로 돌아와서 수운향(水雲鄉)에 누웠네.  
 지란(芝蘭)<sup>26)</sup>이 즐겨 소애(蕭艾)<sup>27)</sup>가 되었건만  
 텅빈 골짜기 풍상(風霜)에 홀로 스스로 향기롭네.

桒鑿難客睢盱場  
 漢南歸臥水雲鄉  
 芝蘭肯化爲蕭艾  
 空谷風霜獨自香

배 부르면 드날리고 주리면 붙어서 저들에게 말기니,  
 창을 거꾸로 하고 찾으니 너에게 어찌하랴.  
 떠나가고 부합하며 은혜되고 원수됨은 잠깐의 태도건만,  
 백두(白頭)<sup>28)</sup>의 학사(學士)는 지내움이 많구나.

飽揚飢附任渠譁  
 到戟尋戈奈爾何  
 離合恩讐俄頃態  
 白頭學士閱來多

창오(蒼梧)<sup>29)</sup>의 옛 곡읍(哭泣) 경신(庚申, 1800)년 뒤에  
 5월 그믐 마지막 교서(敎書) 아마도 기록이 남았으리라.  
 지금에 대화(大化)<sup>30)</sup>하니 공(公)께선 무엇을 한하랴  
 선왕(先王)<sup>31)</sup>께 배알(拜謁)하고 길이 말하리라.

蒼梧舊哭庚申後  
 五晦末敎倘記存  
 如今大化公何憾  
 歸拜先王永有言

16) 콩과 물. 곧 변변하지 못한 음식의 일컬음.

17) 상제가 시묘(侍墓)하기 위하여 거처하는 여막.

18) 부모의 죽음을 심히 슬퍼하여 몸이 상함.

19) 임금의 교서(敎書). 고대에 조서(詔書)를 붉은 글씨로 썼기 때문에 이른다.

20) 오색의 구름.

21) 풍수지탄(風樹之嘆). 효양(孝養)을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는 이미 부모는 죽어 그 효도를 다하지 못하는 슬픔.

22) 은혜가 남다르게 두터움.

23) 눈물이 줄줄 흐르는 모양.

24) 네모난 족꽃이와 둥근 구멍.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것을 뜻함.

25) 소인(小人)들이 기뻐하면서 망녕 되고 아첨하는 모양.

26) 좋은 지초(芝草)와 향기로운 난초(蘭草). 곧 선인(善人)·군자(君子)를 비유함.

27) 쭉. 보잘것 없는 사람을 비유함.

28) 희게 센 머리. 곧 노인을 가리킴.

29) 중국 고대 순(舜)임금이 궁궐 밖 창오에서 죽었다고 하여 정조(正祖)의 죽음을 그에 비유함.

30) 사람이 출생하여 죽을 때까지의 변화.

31) 정조(正祖)를 일컬음.

## 배와시고(坯窩詩稿)1)

## 坯窩詩稿

□ 무제(無題)

흰 구름은 갔다가 되돌아오는데  
황진(黃塵)<sup>2)</sup>은 다가가도 들어가기 어렵네.  
다만 산골짜기 흐르는 물소리만이  
관문(關門)을 벗어나서 다시 급하게 흐르네.

白雲去復還 黃塵到難入  
只有澗水聲 出關流更急

- 
- 1) 김상숙(金相肅 : 1717~1792(숙종 43~정조 16))의 시고(詩稿). 조선 후기 문신·서예가. 자는 계윤(季潤), 호는 배와(坯窩)·초루(草樓). 본관은 광산(光山). 1744년(영조 20)에 진사(進士)가 되었고 명릉참봉·익위사사어(翊衛司司禦)를 거쳐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역임하였다. 벼슬과 명예보다 학문에 뜻을 두고 《논어(論語)》·《노자(老子)》 등을 연구하였으며 도연명(陶淵明)과 두보(杜甫)의 시를 애송하였다. 글씨에 뛰어났고 그의 서체를 직하체(稷下體)라 하였는데 단아하고 고담하였다. 작품으로는 과주(坡州)에 있는 《영상황보인표문(領相皇甫仁表文)》·《참판이희조표문(參判李喜朝表文)》과 홍천(洪川)에 있는 《수타사서곡당선사탑비문(壽陀寺瑞谷堂禪師塔碑文)》·《신흥사비문(神興寺碑文)》 등이 전한다.
- 2) 싫증이 나는 세상의 속된 일. 여기에서는 속세에 사는 사람을 뜻함.

□ 노봉(蘆峯)에서 노니는데 고개위에 흰 구름이 많으므로 분운(分韻)<sup>3)</sup>하여 백자(白字) 운통(韻統)<sup>4)</sup>을 얻어 짓다.

游蘆峯 以嶺上多白雲 分韻賦  
得白字

바위산에 올라 효진(囂塵)<sup>5)</sup>을 벗어나고,  
골짜기에 드니 천석(泉石)이 아름답네.  
유연(悠然)<sup>6)</sup>히 그윽한 향취가 상쾌하니,  
몇 조석(朝夕)이 지났는지 깨닫지 못하네.  
높이 올라 정상에서 권유(倦游)<sup>7)</sup>하니,  
옛 구경 오랜 자취 감탄스럽네.  
우러러 선인장(仙人杖)<sup>8)</sup>에 부끄럽고,  
구부러 사공극(謝公屐)<sup>9)</sup>에 부끄럽네.  
어제는 나의 아우 오더니,  
용감하게 가는 뜻 주저 없구나.  
오늘 새벽에 옥식(蓐食)<sup>10)</sup>으로 파하니,  
천인(千仞)이 한 지척(咫尺)이네.  
마음의 기약(期約)은 구경(究竟)<sup>11)</sup>하지 못했건만,  
눈에 보이는 세계는 벌써 활짝 열렸네.  
들녘에 뜬 못 산기슭 푸르고,  
그름에 어우러진 두 냇물이 희네.  
잠깐 만에 서로가 삼키고 토하더니,  
변화는 이미 금석(今昔)이 되었네.  
가슴이 확 뚫려 속세의 생각이 비워지니,  
슬프다! 사람 사는 곳이 좁구나.  
평생에 외로운 생각이 있어  
만리에 교혁(矯翮)<sup>12)</sup>을 생각하네.  
이에 느끼어 다시 근심하니,  
어찌하여 오히려 형역(形役)<sup>13)</sup>하는가.

登巖出囂塵 入谷媚泉石  
悠然愜幽趣 不覺幾朝夕  
高尋倦冢頂 舊賞歎陳迹  
仰慙仙人杖 俯愧謝公屐  
昨日吾弟來 勇往意無斁  
今晨蓐食罷 千仞一咫尺  
心期未究竟 眼界已開闢  
浮野衆麓青 縈雲兩川白  
須臾互吞吐 變化已今昔  
曠若塵慮空 悲哉人境窄  
平生有孤念 萬里思矯翮  
感此復忡然 胡爲尙形役

3) 운자(韻字)를 정하고 각 사람이 나누어 집어서 그 잡힌 운자로 한시(漢詩)를 지음.

4) 한자 운서(韻書)에 있는 운자의 계통. 동자(東字) 운통. 강자(江字) 운통 따위.

5) 변화한 시가(市街)의 시끄러운 모양. 속세(俗世).

6) 침착하여 서둘지 않는 모양.

7) 관리(官吏) 생활에 싫증이 남.

8) 구기자나무. 여기에서는 신선의 지팡이를 뜻함.

9) 사령운(謝靈運)의 나무신. 사령운은 산수(山水)를 좋아하고 풍월을 좋아하면서 세상일에 얽매지 않은 중국 송(宋)나라 인물. 곧 그가 신고 주유천하(周遊天下)한 신을 뜻함.

10) 아침 일찍이 이부자리를 치우지 않고 식사함. 곧 서둘러 식사함을 뜻함.

11) 구극(究極). 극도에 달함.

12) 굳세게 펼치는 날개.

13) 정신이 육체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 물질적인 만족 때문에 정신이 육체의 노예가 된다는 말.



□ 백장산(百丈山)에 노닐되 사의(徙倚)<sup>14</sup>하면서 운천(雲泉)을 희롱하므로 분운(分韻)하여 운자(雲字)의 운자(韻字)를 얻어 짓다.

游百丈山 以徙倚弄雲泉 分韻賦得雲字

더위 때문에 번거롭고 괴로워하는 흔적  
 애기를 끌어내어 밤새워 나누네.  
 냇물을 따라 새벽 달 밝고 고개를 넘어 아침 구름 헤이네.  
 백석(白石)의 사다리를 잡아 들고  
 푸른 이끼 문체를 떨쳐 문지르네.  
 뿔어오르는 물줄기를 놀라 쾌히 바라보고  
 옥돌이 부딪치며 울리는 소리는 기꺼이 먼저 듣네.  
 기이하구나! 이 정려(精廬)<sup>15</sup>여  
 묘연(眇然)<sup>16</sup>히 진분(塵氛)<sup>17</sup>과 간격(間隔)하네.  
 모든 분들이 즐겨 함께 오니  
 분명 속자(俗子)의 무리는 아니로세.  
 긴 날 청월(淸越)<sup>18</sup>에 앉아서,  
 짧은 문장(文章)으로 뛰어난 공이 영화롭네.  
 개연(慨然)히 주석(疇昔)<sup>19</sup>을 생각하니  
 옷깃을 연잇던 이미 황폐한 무덤이 되었네.  
 가던 길에 경절(磬折)<sup>20</sup>을 잊고  
 작은 마음은 부질없이 사분(絲棼)<sup>21</sup>하네.  
 오직 천석(泉石)과 응대하길 원하노니  
 삼생(三生)<sup>22</sup>에 여훈(餘薰)이 있으리라.  
 이에 노니다 얻을 것을 거듭 찾아서  
 십년에 마음이 인온(氤氳)<sup>23</sup>하네.  
 다른 해에 옛 자취 찾으려니  
 산령(山靈)은 이문(移文)<sup>24</sup>하지 말지어다.

執熱倦煩跼 駕言起宵分  
 隨川踏曉月 度嶺披朝雲  
 攀緣白石梯 拂拭蒼蘚紋  
 噴薄驚快覩 琮琤喜先聞  
 奇哉此精廬 眇然隔塵氛  
 諸公肯同來 定非俗子群  
 永日坐淸樾 短章榮奇勳  
 慨然念疇昔 聯裾已荒墳  
 中路忘磬折 寸心謾絲棼  
 惟應泉石願 三生有餘薰  
 茲游獲重尋 十載心氤氳  
 他年訪舊躅 山靈莫移文

14) 왔다 갔다 함. 규율이 없는 모양.

15) 정사(精舍). 학문을 가르치려고 베푼 집.

16) 고원(高遠)한 모양.

17) 세속의 분위기.

18) 맑고 시원한 두 나무 사이의 그늘.

19) 별로 오래지 않은 지난날.

20) 경(磬)쇠 모양과 같이 허리 굽혀 절을 함. 곧 세상살이에 있어서 남에게 아침함을 뜻함.

21) 실이 얽힌 것처럼 복잡함.

22) 전생·이승·저승, 과거·현재·미래.

23) 기운이 왕성한 모양. 향기가 좋음을 형용.

24) 동등한 아문(衙門)에 보내는 공문서. 여기에서는 산신령이 보내오는 소식을 뜻함.

□ 입춘(立春)에 큰 눈이 내리었는데 유규보(劉圭甫) 제형(諸兄)을 맞이하여 천호(天湖)에서 노닐다.

立春大雪 邀劉圭甫諸兄 遊天湖

구름 같이 사야(四野)<sup>25</sup>에 덮이니,  
찬 기운이 비량(悲涼)함이 슬프네.  
회 오리바람이 한쪽으로 불어 정하니,  
밀설(密雪)<sup>26</sup>은 바람에 나부끼며 내리네.  
때는 겨울 기운이 다하고,  
한 해를 시작한지 5일이 되었네.  
쑥대 골목은 더불어 끝이 없는데,  
이 경대(瓊臺)의 등성이에 올랐다.  
손님과 벗은 이미 뒤따르고,  
아이들도 지니고 하였네.  
반제(攀躋)<sup>27</sup>하여 맨 꼭대기에 다다르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방황을 즐긴다네.  
구부러 천리의 허공을 내려다보고,  
우러러 만마리 학(鶴)의 날름을 바라보네.  
멀리는 어지러운 봉우리 푸르름 미혹하고,  
가까이는 평평한 숲 푸르름 「 」하네.  
언박(偃薄)하니 신골(神骨)이 영철(瑩徹)하고,  
삼키니 간장(肝腸)이 서늘하네.  
소리 높여 초은(招隱)의 작품을 읊고,  
슬프게 황죽(黃竹)의 글을 읊조리네.  
옛 사람 가히 볼 수 없거늘.  
오는 사람 뉘 능히 헤아릴가,  
또 다시 이 날을 기억하노니.  
타년(他年)에 또한 잊기 우려우리라.

同雲被四野 寒氣慘悲涼  
回風一以定 密雪來飄揚  
時當冬候窮 開歲五日疆  
蓬巷無與邊 陟此瓊臺岡  
賓友既追隨 兒童亦携將  
攀躋得冢頂 徙倚聊彷徨  
俯視千里空 仰看萬鶴翔  
遠迷亂峯翠 近□平林蒼  
偃薄瑩神骨 咀嚙清肝腸  
朗詠招隱作 悲吟黃竹章  
古人不可見 來者誰能量  
且復記茲日 他年亦難忘

25) 사방의 들. 온 들.

26) 가늘고 자욱하게 내리는 눈.

27) 더위잡고 오름.

□ 규부(圭父)가 장군암(將軍巖)에 놀면서 지은 운자(韻字)에 따라 2수(二首)를 차작(次作)<sup>28)</sup>하다.

次圭父 游將軍巖韻二首

위태로운 산기슭 묘애(杳靄)<sup>29)</sup> 사이를 뚫어보니,  
뉘가 층동(層棟)<sup>30)</sup>을 가지고 찬완(巘峴)<sup>31)</sup>을 짓눌렀는가.  
양상한 지팡이로 오르고 오르나니  
멀다 사양 아니 하고,  
절경(絶境)<sup>32)</sup>을 가고 가면서 상세하게 본다 .  
원정(筥井)<sup>33)</sup>에는 오히려 멧풀이 자란 곳 남아있고,  
고반(考槃)<sup>34)</sup>에 다시금 석인(碩人)의 너그러움 없네.  
나른하게 와서 돌을 쓸고 주먹을 고아 졸면서,  
온 골짜기에 풍경(風景)을 읊어 한낮의 꿈이 다하네.

極目危岑杳靄間  
誰將層棟壓巘峴  
瘦筇上上莫辭遠  
絕境行行得細看  
筥井尙餘茅經處  
考槃無復碩人寬  
倦來拂石支拳睡  
萬壑吟風午夢闌

묵은 자취 참으로 부양(俯仰)하는 사이에 이루고,  
머리를 돌려 오히려 푸른 찬완(巘峴)을 인지(認知)하네.  
다시금 땅주인의 은근(慇懃)한 뜻이 번거롭고,  
시러곰<sup>35)</sup> 구름산 표리(表裏)의 관람을 다 하네.  
경치가 늦어지니 함께 돌아가는 먼 길을 수심하고  
나이가 늙어가니 홀로 술잔을 잡고 여유롭네.  
내일 아침에 글귀를 찾아내어 주옥(珠玉)을 수작(酬酌)<sup>36)</sup>  
하고자  
부풀어 시정(詩情)을 기뻐하건만 문득 다하지 못하네.

陳迹眞成俯仰間  
回頭猶認碧巘峴  
更煩地主殷勤意  
得盡雲山表裏觀  
景晏共愁歸路遠  
年侵獨負酒盃寬  
明朝覓句酬珠玉  
剩喜詩情却未闌

28) 먼저 지은 사람의 운자(韻字)에 따라서 시(詩)를 지음.

29) 자욱하게 낀 안개.

30) 우뚝 솟은 건축물(建築物).

31) 산이 연달아 높게 솟아 있는 모양.

32) 멀리 떨어져 있는 땅.

33) 물이 마른 우물.

34) 은거실(隱居室)을 지어 제 마음대로 즐기는 일. 또는 그 곳.

35) <옛말> 능히, '시러'의 강조형

36) 주객(主客)이 서로 술을 주고 받듯이. 시문(詩文)을 주고 받음.

□ 이도사(李道士)가 옥사(玉筍)로 돌아감을 송별(送別)하여 3수(三首)를 짓다.

우연히 구름을 따라 나서 구름을 짝하고 돌아가니,  
웃으며 청도(淸都)<sup>37</sup>는 취미(翠微)<sup>38</sup>에 있다고 가르치네.  
나를 위한 중간(中間)에 한 탑(榻)이 머무나니,  
타년(他年)에 다가가서 벽라의(薛蘿衣)<sup>39</sup>를 입으리라.  
옥사산(玉筍山)은 옥목대(郁木台)를 연이었나니.  
구름에 닿은 누전(樓殿)은 높은 산과 대치하였네.  
그대가 돌아간 뒤 밤엔 별다른 일없이.  
누워서 찬 샘물에 간수(澗水)<sup>40</sup> 떨어지는 소리 듣는다.  
떠나 갈 무렵에 술 한잔 아끼지 말라.  
그대가 말(馬)위에 오르는 고성(古城)  
모퉁이를 바라보습시다 .  
서로 바라보는 두 처지가 그리 멀지 않건만,  
자주 음서(音書)<sup>41</sup>를 붙이어 기러기와 함께 올지어다.

□ 합조산(閣阜山)에 올라서

침침한 산봉우리에 비궁(閼宮)<sup>42</sup>이 감춰 있는데,  
나는 특별한 곳에 와서 영종(靈蹤)<sup>43</sup>을 찾는다.  
갈선(葛仙)<sup>44</sup>이 떠나간 뒤에 단주(丹竈)<sup>45</sup>는 없건만  
제자(弟子)는 지금에 백발의 늙은이가 되었네.

한 물결 차디 찬 누대(樓臺) 아래에 물이요.  
반 공중에 막막하고  
고개 머리에 구름일세.  
조사(祖師)는 도(道)를 이루어 하늘을 부딪쳐 가고  
다만 무궁하게 예언서를 받는 사람만이 있을 뿐이네.

送李道士 歸玉筍 三首

偶隨雲出伴雲歸  
笑指淸都在翠微  
爲我中間留一榻  
他年去着薛蘿衣  
玉筍山連郁木台  
拂雲樓殿對崢嶸  
君歸後夜無餘事  
臥聽寒泉落澗聲  
莫惜臨行酒一盃  
看君上馬古城隈  
相望兩地無多遠  
頻寄音書與鴈來

登閣阜山

疊疊層巒鎖閼宮  
我來特地訪靈蹤  
葛仙去後無丹竈  
弟子今成白髮翁  
一派冷冷臺下水  
半空漠漠嶺頭雲  
祖師成道冲天去  
只有無窮受籙人

37) 천제(天帝)의 궁궐(宮闕).

38) 산중(山中)의 초록색 아지랑이.

39) 고대(古代)에 신선(神仙)이 입었던 옷을 뜻함.

40) 산골에 흐르는 물.

41) 소식. 편지.

42) 신(神)을 모시고 제사하는 깊은 궁(宮).

43) 신선의 발자취.

44) 갈현(葛玄). 중국 오(吳)나라 사람으로 장생불사(長生不死)의 도(道)를 연모하여 훗날에 신선이 되었다고 함.

45) 방술(方術)의 도사(道士)가 연단(煉丹)하는 곳.

□ 안은벽(安隱壁)에 쓰다.

題安隱壁

수레를 멈추고 잠깐 숲 사이 절에서 쉬면서,  
남쪽 가지에 꽃이 피었는가 아닌가를 시문(試問)하였네.  
해 저물고 날씨 차가운데 술 마실 수 없나니,  
모름지기 공연히 불러보아도 수심이 다가오네.

停車少憩林間寺  
試問南枝開未開  
日暮天寒無酒飲  
不須空喚莫愁來

□ 판원장(判院丈) 주한정(晝寒亭)의 운자(韻字)에 회포가  
있어서 차작(次作)하다. - 평부(平父)

次判院丈晝寒亭韻 有懷 平父

술잔을 잡고 회인(懷人)하는 곳에,  
그윽하게 찾아서 옛 때를 기억하네.  
새 정자(亭子)에 지고(指顧)<sup>46</sup>함이 수고롭고,  
거룩한 발자취 뒤 따르는 이 비었네.  
층란(層欄)<sup>47</sup>에 나오라고 아뢰어  
부주(浮柱)<sup>48</sup>에 기대어 근심 않네.  
오직 옛날에 나르는 눈(雪)과 상응코자.  
상상의 마음이 부합함을 알리라.

把酒懷人處 幽尋記往時  
新亭勞指顧 勝踐闕追隨  
爲報層欄出 莫憂浮柱欹  
惟應舊飛雪 想象合心知

□ 주한정(晝寒亭)의 운자(韻字)에 차작(次作)하다 .

次韻晝寒.

위등(危磴)<sup>49</sup>을 가며 뚫어 다하니,  
숲 끝자락에 외로운 정자(亭子)가 보이네.  
간수(澗水)는 천심(千尋)<sup>50</sup>이나 쏟아져 희고  
붕우리는 사면(四面)을 감돌아 푸르네.  
진금(塵襟)<sup>51</sup>은 본래가 낙락(落落)하고  
풍액(風腋)<sup>52</sup>은 스스로 냉랭(冷冷)하네.  
한차례 취한 지금에 홀로 깨려는 마음 없다네.

行穿危磴盡 林表見孤亭  
澗瀉千尋白 峯回四面青  
塵襟元落落 風腋自冷冷  
一醉今何許 無心賦獨醒

46) 손가락질 하며 돌아봄.

47) 겹겹이 된 난간. 곧 정자가에 뺨돌아 있는 빗마루를 뜻함.

48) 들보위의 기둥. 여기에서는 높게 솟은 기둥을 뜻함.

49) 위태로운 돌다리.

50) 매우 높거나 깊은 것. 천길.

51) 더러운 잡념(雜念). 저속(低俗)한 생각.

52) 거드랑이 속으로 스며들어온 바람.

□ 모든 벗이 입산(入山)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시(詩)로  
맞이하러 청하고 먼저 가서 폭포(瀑布)를 구경하였다.

聞諸友入山 以詩迎之仍請 先  
往觀瀑布

좋은 벗 남창(南窓)이 나지막한데,  
글을 보는 늙은이 화사(華奢)하네.  
차가운 폭포 소리를 따르지 않고,  
기꺼이 들중의 집에 이르렀네.  
고경(古徑)<sup>53</sup>은 열리어 능히 오래되었건만  
신정(新亭)에 가려는데 어찌 멀기만 하랴.  
제반(躋攀)<sup>54</sup>을 늦출 수 있겠는가.  
적막한 데에 웅과(雄誇)<sup>55</sup> 있으리라.

勝友南窓底 看書老歲華  
不因寒瀑響 肯到野僧家  
古徑開能久 新亭去豈賒  
躋攀那可緩 寂寞有雄誇

□ 계통(季通) 주한운(晝寒韻)에 화답(和答)하다 .

和季通晝寒韻

일만(一萬) 골자기 다투어 물 흐르는 곳에  
천년의 수석(樹石)이 그윽하네.  
위정(危亭)<sup>56</sup>은 나로 인하여 지어지고,  
술은 홍군(紅裙)<sup>57</sup>의 취함이 우습고,  
시(詩)는 잡패(雜珮)<sup>58</sup>의 수작이 부끄럽네.  
오히려 속 좁은 마음이 혐오스러워.  
다시 구해(九垓)<sup>59</sup>에 노닐자고 약속하네.

萬壑爭流處 千年樹石幽  
危亭因我作 勝日爲君留  
酒笑紅裙醉 詩慙雜珮酬  
尙嫌心境窄 更約九垓游

53) 옛 지름길.

54) 붙잡고 오름.

55) 위력이 크게 펼침.

56) 높은 정자.

57) 붉은 치마. 기생. 미인(美人).

58) 허리에 차는 여러 가지 주옥(珠玉). 여기에서는 시문(詩文)이 순수하지 못함을 비유함.

59) 구천(九天)의 밖. 나라의 끝.

□ 청단정(淸湍亭) 석상(石上)에서 마셨지만 취하지 않아서 다시 주한정(晝寒亭)에 오르다.

飲淸湍亭石上 不醉 再登晝寒

물 가 금일(今日)에 함께 술잔을 전하면서,  
은근히 두어 사람 온 것을 해 사례(謝禮)하네.  
삼복(三伏)에 찌는 더위는 어찌 이에 있겠는가.  
백년의 두려운 회포(懷抱)는 아주 능히 가시네.  
구름 산 모아 돌리어 도리어 안개를 낳고,  
백설(白雪)의 간수(澗水) 오르내리니 성내어 우뢰를 외치네.  
문득 창병(蒼屏)<sup>60</sup>이 먼 달 막음을 한탄했건만,  
바람을 타고 급하게 봉래(蓬萊)<sup>61</sup>에 과시하고자 하네.

水邊今日共傳盃  
多謝慙數子來  
三伏炎蒸那有此  
百年懼抱頓能開  
雲山會匪還生霧  
雪澗崩騰怒吼雷  
却恨蒼屏遮遠月  
凌風急欲誇蓬萊

□ 적성관(赤城觀)에 쓰다.

題赤城觀

지는 해 텅빈 산에 가을 기운 맑은데  
냉랭한 고목(古木)에는 어지러운 맴 우네.  
신선이 한번 떠나가니 학(鶴)은 돌아오지 않고,  
검객(劍客)<sup>62</sup>은 거듭 와서 단심(丹心)<sup>63</sup>을 벌써 이루었네.  
고요히 죽로(竹爐)의 연기 실마리 대(對)하고,  
달 속에 계수나무 꽃 피어남을 자세히 보네.  
이 몸은 옛날부터 봉영(蓬瀛)<sup>64</sup>에 약속 있어  
옥간(玉澗)<sup>65</sup>에 돌아와서 성명을 묻는다네.

落日空山秋氣淸  
冷冷古木亂蟬鳴  
仙人一去鶴不返  
劍客重來丹已成  
靜對竹爐烟縷急  
細看月窟桂華生  
此身舊有蓬瀛約  
玉澗歸來問姓名

60) 병풍과 같이 푸른 산.

61) 신선이 산다고 하는 상상의 섬으로 발해(渤海)에 있다함.

62) 검술(劍術)을 잘하는 사람.

63) 성심(誠心). 조금도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

64) 봉래(蓬萊)와 영주(瀛州). 신선(神仙)이 산다는 곳.

65) 깨끗하고 아름다운 간수(澗水).

□ 서암(西巖)에 노는 사람에게 화답(和答)합니다 .

和人遊西巖

평생에 웅장한 뜻 호탕하여 다함이 없었건만  
늙어선 한천(寒泉)과 난석(亂石) 가운데에 살리라.  
한가롭게 다가가서 옷깃 헤치어 청자(淸泚)<sup>66</sup>에 희롱하고  
고요히 와서 시선을 모으고 영롱한 소리 듣네  
간사(澗寺)<sup>67</sup>에는 개인 때에 비 내리는지 알지 못해  
어찌하여 시냇가 정자에는 나뭇잎 떨어지는 곳 바람이런가.  
그대의 시(詩)를 읊어 파(罷)하고 스스로 소쇄(瀟灑)<sup>68</sup>하니,  
이 마음은 끝에 동서(東西)에 국한치 않는다네.

平生壯志浩無窮  
老寄寒泉亂石中  
閒去披襟弄淸泚  
靜來會眼聽玲瓏  
不知澗寺晴時雨  
何似溪亭落處風  
吟罷君詩自瀟灑  
此心端不限西東

□ 지군수(知郡守) 어른이 산에 노니는 운자(韻字)에 차작(次作)하다.

次知郡守丈遊山之韻

앞 산 봉우리에 난학(鸞鶴)<sup>69</sup>이 떠나가고 자취 없나니,  
만나려고 멀리 찾아서 고궁(古宮)을 찾았네.  
다만 풍연(風烟)<sup>70</sup>은 뜻에 따라 좋음을 깨닫고  
문득 진토(塵土)<sup>71</sup>는 머리에 스치어 텅빔을 놀라네.  
술병을 끌어내어 명에를 명하니 그윽한 기약이 멀고,  
피리를 바꾸어 시(詩)를 읊조리니 묘한 곳 같구나.  
어찌 서산(西山)<sup>72</sup>에 한 알의 환약(丸藥)<sup>73</sup>을 얻어서,  
소고(簫鼓)를 치며 백운(白雲) 가운데를 따르리라.

前峯鸞鶴去無蹤  
邂逅荒尋得故宮  
但覺風烟隨意好  
便驚塵土轉頭空  
提壺命駕幽期遠  
換管哦詩妙處同  
安得西山一丸藥  
共隨簫鼓白雲中

66) 맑고 깨끗한 물.

67) 간수(澗水)가 흐르는 곳에 있는 절.

68) 산뜻하고 깨끗함. 또는 그러한 마음.

69) 난새와 학(鶴)이니 전하여 신선이 타고 다니는 새라고 함.

70) 멀리 보이는 공중에 서린 흐릿한 기운.

71) 티끌과 흙. 여기에서는 세속의 습성(習性)을 뜻함.

72) 서암산(西巖山). 복건성(福建省) 포성현(浦城縣)의 서쪽에 있음. 송대(宋代) 진덕수(眞德秀)가 서산정사(西山精舍)를 세우고 강학(講學)한 곳. 여기에서는 세속을 떠나서 숨어사는 곳을 뜻함.

73) 동글동글하게 만든 약. 여기에서는 신선이 먹는 약을 뜻함.



□ 무제(無題)

평평한 호수(湖水)는 아득한 공중이 넓고,  
쌓인 물은 저물어 찬 기운 생겨나네.  
다만 푸른 빛 일천(一千) 이랑을 볼 뿐.  
깊이는 몇 간짓대 인고 인간은 원래 박애(迫隘)<sup>74</sup>하건만,  
세상사는 길이 또한 어렵고 어렵구나.  
만약에 창주(滄洲)<sup>75</sup>의 취향을 마치려 할진데,  
애써 바로 보지 말지어다.

平湖渺空濶 積水暮生寒  
但見綠千頃 不知深幾竿  
人間元迫隘 世路亦艱難  
若了滄洲趣 無勞正眼看

□ 택지(擇之)가 심경(沈卿)이 오석(烏石)·남호(南湖)를  
창화(唱和)<sup>76</sup>한 좋은 글귀를 부쳐 보내므로 곧 원운(元  
韻)<sup>77</sup>에 2수(二首)를 차작(次作)하다.

擇之 寄示沈卿唱和烏石南湖  
佳句 輒次元韻 二首

남호(南湖)의 경치를 모르고  
멀리서 두 사람의 노닐을 기뻐하네.  
상감(賞鑑)하는 마음은 좋은 날과 아우르고  
기묘한 말씀은 맑은 가을에 통하네,  
이어 서권(書卷)을 가지고 서로가 낚싯배 사려하네.  
작은 소리로 읊으면서 늦게 돌아가니  
옹졸함이 물가에 가득한 듯 하네.

未識南湖景 遙欣二子遊  
賞心并勝日 妙語通清秋  
續欲携書券 相將買釣舟  
微吟歸去晚 拙若滿汀洲

□ 택지(擇之)가 오승(梧升)의 시운(詩韻)에 이수(二首)를  
차작(次作)하여 아울러 계통(季通)에서 드리다.

次擇之梧升二首 并呈季通

스스로 바람이 요노(嫋嫋)<sup>78</sup>함을 그리워하여  
나그네는 빗줄기 유류(劉劉)<sup>79</sup>함을 읊는다.  
작별(作別)하는 지금 천리에  
서로의 생각은 구추(九秋)에 다하네.  
다시금 동사(同社)의 벗을 생각하여  
이에 엄류(淹留)<sup>80</sup>를 그르치네.

自憐風嫋嫋 客賦雨劉劉  
作別今千里 相思欲九秋  
更憐同社友 復此誤淹留

74) 삶이 절박하고 팍 막힘.

75) 신선이 사는 곳. 신선을 그리는 마음.

76) 남의 시운(詩韻)에 맞추어 시를 지음.

77) 남이 지은 시의 원래의 운자.

78) 바람이 솔솔 부는 모양.

79) 그 분위기에 좋은 모양.

80) 오래 머무름.

□ 무제(無題)

당년(當年)에 유토(幽討)<sup>81</sup>를 일삼아,  
 벗을 명산(名山)에서 맺었다네.  
 일찍이 허부(許斧)<sup>82</sup>를 세워 무리를 지어  
 옥지(玉芝)<sup>83</sup>를 캐 가지고 돌아왔네.  
 돌아와서는 텅 빈방에 앉으니  
 정신은 맑지만 머리털 차갑네.  
 일어나서 진중(塵中)<sup>84</sup>의 사람을 보니,  
 한번 보아서 폐간(肺肝)<sup>85</sup>에 다하네.  
 주머니를 더듬어 규도(圭刀)<sup>86</sup>를 끄집어내니  
 생사(生死)는 호리(毫釐)<sup>87</sup>사이로다.  
 서로가 장해(瘴海)<sup>88</sup>에서 가을에 만나니  
 나에게 황금단(黃金丹)<sup>89</sup>을 주었다.  
 정당(亭堂)<sup>90</sup>에는 들리는 맑은 소리 얻고  
 알록진 옷에는 여유로운 기쁨이네.  
 알록진 옷에는 여유로운 기쁨이네.  
 스승에게 사례하고 더 말이 없는데 옛 우물에는 물결이  
 일어나네.

當年事幽討 結友客名山  
 曾建許斧列 去採玉芝還  
 歸來坐空房 神清首毛寒  
 起視塵中人 一見了肺肝  
 探囊出圭刀 生死毫釐間  
 相逢瘴海秋 遺我黃金丹  
 亭堂得聽瑩 斑衣有餘歡  
 謝師無言說 古井生波瀾

□ 진강사(陳講師)에게 부치다.

도(道)를 들은 산중(山中) 나그네.  
 새해가 오니 두발(頭髮)은 희고자하네.  
 고요하니 삼경(三逕)<sup>91</sup>의 길이 좁아도 편리하고,  
 가난하니 한 몸도 많은 것을 깨닫네.  
 다만 시문(詩文)에 흠 없음을 기뻐하건만,  
 줄음으로 하여금 마(魔)<sup>92</sup>를 짓네.  
 고인(古人)이 지금에 샘물을 마시니,  
 그래도 차타(蹉跎)<sup>93</sup>를 위로하네.

寄陳講師

聞道山中客 年來髮欲皤  
 靜便三逕小 貧覺一身多  
 且喜詩無病 從教睡作魔  
 古人今飲泉 猶足慰蹉跎

81) 그윽한 명승지(名勝地)를 찾아서 노닐.  
 82) 부월(斧鉞)의 형벌을 감수하고 허교(許交)함.  
 83) 아름답고 고운 영지(靈芝). 84) 속세(俗世)을 비유함.  
 85) 폐(肺)와 간(肝). 곧 속마음을 뜻함.  
 86) 의리를 지키기 위하여 쓰여지는 칼을 뜻함.  
 87) 아주 적은 분량. 혹은 간격. 88) 독기(毒氣)가 서린 바다.  
 89) 황금빛 단약(丹藥). 90) 정자(亭子).  
 91) 세갈래 좁은 길. 92) 마귀, 곧 하는 일에 장애가 됨을 뜻함.  
 93) 시기를 잃음. 기대가 어긋남. 불행하여서 뜻을 얻지 못함.

□ 진강사(陳講師)를 이별하면서

別陳講師

몇 년 동안 몸소 꿈속에 품고  
 금일(今日)에 등림(登臨)함을 위로하네.  
 하물며 지란(芝蘭)<sup>94</sup>의 방에 들어가서  
 또한 금옥(金玉)<sup>95</sup>의 소리를 듣는다.  
 그대와 밤새워 충분히 얘기하여  
 나 일생의 마음을 다 하였네.  
 이 다음엔 화발(華髮)<sup>96</sup>이 되어  
 거듭 찾을 수 없으리라.

幾年身夢抱 今日慰登臨  
 況入芝蘭室 又聞金玉音  
 足君連夜語 盡我一生心  
 此外成華髮 無因得重尋

□ 판원장(判院丈) 청단(淸湍)의 협운(協韻)<sup>97</sup>에 차작(次作)하다.

次判院丈淸湍之叶

명멸(明滅)<sup>98</sup>한 청라대(靑羅帶)<sup>99</sup>요.  
 두루 가려진 벽옥환(碧玉環)<sup>100</sup>일세.  
 외로운 정자에는 목은 자취 느끼고,  
 무성한 나무에는 거듭 반등(攀登)함을 돌아보네.  
 드리운 기운은 금준(金樽)밖에 서리고,  
 샘물 소리는 침점(枕簟)<sup>101</sup>사이에 들리네.  
 시(詩)를 지었으나 쓸 곳이 없는데,  
 절벽(絶壁)에는 이끼 흔적 알록지네.

明滅靑羅帶 周遮碧玉環  
 孤亭感陳迹 茂樹眷重攀  
 垂氣琴樽外 泉聲枕簟間  
 詩成無寫處 絶壁蘚痕斑

94) 향초(香草)를 심어놓은 방(房)으로 착한 사람을 비유함.

95) 황금(黃金)과 주옥(珠玉). 곧 귀중함을 비유함.

96) 늙은이. 백발(白髮).

97) 본래는 동일한 운(韻)에 속하지 않는 글자를 동일한 운으로 사용하는것.

98) 갑자기 밝아졌다가 어두워지는 모양.

99) 푸른 비단으로 만든 띠. 곧 물을 비유함.

100) 푸른 구슬로써 만든 고리. 곧 산을 비유함.

101) 베개와 대로 만든 자리. 곧 침실을 뜻함.

□ 광문(廣文)에게 올린다.

上廣文

광문(廣文)은 무슨 일로 누대(樓台)를 창건하였는가.  
가장(家蔣)<sup>102</sup>을 수습하여 좀벌레 다스렸네.  
오히려 책이 있어서 동우(棟宇)<sup>103</sup>를 채우고,  
빚겨 거마(車馬)를 진열하여 문려(門閭)<sup>104</sup>를 넓혔네.  
평상(平床)을 옮기어 손님이 가니 밝은 달맞이하고  
술을 보내어 사람이 오니 이서(異書)가 가득하네.  
비록 청빈하여 펼쳐놓은 물건은 없지만  
오히려 네 벽에는 상여(相如)<sup>105</sup>보다 나은 듯 하네.

廣文何事創樓台  
收拾家藏理蠹餘  
尙有簡編充棟宇  
擬陳車馬大門閭  
移床客去邀明月  
送酒人來遍異書  
縱使清貧無展物  
猶勝四壁似相如

---

102) 제 집에 보관하여 둠. 또는 그 물건.

103) 집의 마룻대와 추녀끝.

104) 마을의 입구에 있는 문과 집의 문.

105) 한(漢)나라 사마상여(司馬相如)가 가난하여 집안에 쌓아 둔 물건은 없고 사방벽(四方)만 있었다고 함.

…… 선대왕(先大王)의 성덕(盛德) · 지인(至仁)은 반드시 그들을 부지(扶持) · 보합(保合)하여 과연(戈鋌)<sup>1)</sup>의 가운데에 조제(調劑)하여 임석(衽席)<sup>2)</sup>의 위에 안정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김시찬(金時燾)<sup>3)</sup>의 처분은 대체로 지나친 것은 꺾고, 심한 것은 짓누르는 고심(苦心)에서 나온 것이다.

한때에 병집(秉執)<sup>4)</sup>한 선비가 김시찬(金時燾)과 같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처분이 엄격하지만 공의(公議)는 더욱더 누르지 못하였다. 이 무렵에 천지를 지탱하고 우주에 뻗는 의리(義理)는 이로 인하여 더욱더 견고하고, 평탕(平蕩)<sup>5)</sup> · 보합(保合)의 성덕(聖德)은 이로 인하여 더욱 빛이 났다. 경(卿)의 선경(先卿)이 김시찬(金時燾)과 더불어 옛부터 서로가 친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힘을 다하여 신구(伸救)<sup>6)</sup>한 것은 모두 당연한 도리이다.

지금의 세도(世道)는 옛날과 다르니 이른 바 청의(淸議)를 잡고 준론(峻論)을 가지는 옛 사람에게 전혀 미치지 못한다. 만약에 위로부터 천명(闡明)하지 않으면 일부(一部) 양추(陽秋)<sup>7)</sup>의 의리가 침침련(駸駸然)<sup>8)</sup> 밝은 날이 없을 것이다. 지금에 이 처분이 오로지 의리를 강명(講明)한다면 경(卿)이 그 일의 관건이다.

이에 경의 아우가 도리어 신구(伸救)를 위한 논리가 어찌 분개하지 않겠는가. 성인(聖人)이 이른 바 처지를 바꾸어 놓으면 모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인하여 처지가 다르면 대처하는 일이 그 처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다. 선경(先卿)이 김시찬(金時燾)을 구제한 것은 대체로 의리를 붙들어 세운 것이다.

先大王盛德至仁 必欲扶持之 保合之 調劑於戈鋌之中 而尊安於衽席之上 如金時燾處分 盖出於過者摧之 激者抑之之苦心 而一時秉執之士 無非如金時燾者故 處分雖嚴 而公議愈不可抑 如是之際 撐天地亘宇宙之義理 則由是而益固 平蕩保合之聖德 則由是而益光 卿之先卿 雖非與金時燾 自來相親之人 而極力伸救者 儘是當然底道理矣

今之世道 則與古有異 所謂執淸議持峻論者 萬萬不及於古之人 若非自上闡明 則一部陽秋之義 駸駸然將無可明之日 今茲處分 尊爲講明義理之地 則卿之以其事關 卿弟反爲伸救之論者 寧不慨然乎 聖人所謂易地皆然者 以其地之有異 而所處之事 隨而不同也 先卿之救金時燾 盖爲扶植義理

1) 창과 작은 창. 곧 다툼을 뜻함.

2) 잠자리 또는 이부자리.

3) (1700~1767)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 안동. 자 치명(禔明). 호 초천(苕川). 시호 충정(忠正). 홍주(洪州) 출생. 1721년(경종 1) 진사가 되고, 1735년(영조 11)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사관(史官)으로 등용되었다. 검열(檢閱)을 거쳐 대교(待敎)로 있을 때, 조태구(趙泰耆) · 유봉휘(柳鳳輝) · 이광좌(李光佐) 등 소론(少論) 일파의 처벌을 청했다가, 탕평책에 반대한다 하여 흑산도(黑山島)에 유배되었다. 이후에 복관되고, 1759년 부제학에 임명되었는데, 이를 사양하는 글속에 불경한 구절이 있다 하여 다시 유배되었다. 1764년에 풀려났으며, 1806년(순조 6) 이조판서에 추증(追贈)되었다. 문집에 《초천집》이 있다.

4) 당시의 정권을 잡음.

5) 공평하게 다스려서 맑게 함. 여기서는 영·정조대 실시된 탕평책을 말함.

6) 남의 죄가 없음을 사실대로 들어서 변명하여 구원함.

7) 《춘추(春秋)》의 별칭.

8) 점차로 진진하는 모양.

그러나 지금에 김이재(金履載)<sup>9)</sup>의 말이 우단(右袒)<sup>10)</sup>·속변(俗邊)<sup>11)</sup>에 돌아간다면 어찌 선경(先卿)의 일과 견주어 예(例)가 되겠는가. 만약에 외면(外面)으로 본다면 그 소장(疏章)이 한 사람의 이판(吏判)을 논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말이 경책(警責)에 지나지 않는다면 청하는 것은 다만 추고(推考)하여 박감(薄勘)<sup>12)</sup>할 뿐이다.

돌아보면 지금 암아(媵娥)<sup>13)</sup>한 때에 이판(吏判)이 진실로 논리가 없다. 혹 논리가 경(卿)에게 미치고 위로 곤궤(袞闕)<sup>14)</sup>에 미치더라도 또한 어찌 이것으로 죄를 더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처분이 이와 같으니 어찌 의리의 변두리에 관계가 있겠는가. 옛 대신(大臣)은 사건이 자신에게 관계되어 탄핵을 입는 자면 진실로 의리에 관계되더라도 작은 혐의를 피하지 못한다. 정신(挺身)<sup>15)</sup>하여 성토(聲討)하는 사람이 있으니 경(卿)의 이 말은 다만 경(卿)에게 바랄 바가 아니다.

이에 이시수(李時秀)<sup>16)</sup>가 말하기를, 「신(臣)이 원소(原疏)를 보지 못하고 경솔하게 왕에게 아뢰었으니 지금에 성교(聖敎)를 이어받으니 황송함을 이기지 못합니다.」고 하였다. 왕께서 말씀하기를,

而今此金履載之言 歸於右袒 俗邊 則卿之伸救 豈可以先卿之事 援而爲例乎 若從外面觀之 則其疏不過論一吏判 而其所爲說 亦不過曰警責 則所請者 只是推考薄勘而已

顧今媵娥之時 吏判固無論 雖或論及於卿 雖上而論及於袞闕 亦豈或以此加罪 而處分之如是 豈非以有關於義理邊乎 古之大臣 雖事關自己之被彈者 苟係義理 則不避小嫌 挺身請討者 亦或有之 卿之此言 殊非所望於卿矣 時秀曰臣未見原疏 率爾仰奏 而今承聖敎 不勝惶悚矣 上曰

9) 1767(영조 43)~1847(헌종 13).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공후(公厚), 호는 강우(江右). 할아버지는 대사간 시찬(時燾)이고, 아버지는 방행(方行)이며, 어머니는 심황(沈鏞)의 딸이다. 형이 우의정 이교(履喬)이다. 1789년(정조 13) 진사가 되고, 1790년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 초계문신(抄啓文臣)에 발탁되고, 검열(檢閱)·지평(持平)을 거쳤다. 1799년 수찬(修撰)으로 있을 때 시파(時派)로서 벽파(僻派) 죄인이던 정처(鄭妻)의 석방 명령을 거두어줄 것을 네 번이나 상계(上啓 : 왕에게 일정한 형식을 갖춘 글을 올림)하였다. 이듬 해 이조판서 이만수(李晩秀)의 사직 상소가 마땅치 않다는 소를 올려 언양현(彦陽縣)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고금도(古金島)에 안치되었다. 1805년에 풀려나 대사간·이조참의·경상도관찰사·대사성·이조참판을 역임하였다. 이어 행호군(行護軍)·대사헌·공조판서·형조판서·한성부판윤·좌참찬·예조판서·이조판서까지 이른 뒤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1839년(헌종 5)에 시파와 벽파간의 논쟁으로 경기도 변방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나와 다시 상호군·공조판서·이조판서를 지냈다. 그는 당시 시파로 역량 있는 중신이었으나, 시파와 벽파간의 싸움으로 벼슬길이 평탄하지 못했다. 판서로 있을 때 《경국대전》을 비롯한 법전에 실린 금고조(禁錮條)를 산개(刪改 : 쓸데없는 문장이나 글을 없애거나 고침), 개혁(釐革 : 바로잡아 새롭게 함)해 백성의 신원안(伸冤案)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편서로는 《중경지》가 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10) 한 쪽의 편을 들음.

11) 풍속의 한쪽.

12) 죄인을 가볍게 처벌함.

13) 어물거리려 결단성이 없음.

14) 임금이 실덕(失德)을 비유함.

15) 남들보다 앞서서 자진하여 나아감.

16) 1745~1821(영조 21~순조 21) 조선 후기 문신. 자는 치가(稚可), 호는 급건(及健). 본관은 연안(延安). 1771년(영조 47) 진사가 되고 1773년 증광문과에 급제하였다. 1780년(정조 4) 영남 암행어사가 되어 탐관오리를 적발했으며 교리(校理)·종부시정(宗簿寺正) 등을 지냈다. 1783년 춘천부사(春川府使)로 있으면서 영동지방 백성을 구휼하는 데 힘썼다. 그 뒤 이조참의·호조판서 등을 거쳐 1799년 우의정이 되었다가 이듬해 영의정에 올랐다. 성격이 치밀하고 민첩했으며, 1804년(순조 4) 정순왕후(貞純王后)가 체차수렴정정하려는 일에 반대하여 좌의정에서 파직 당했으나 이듬해 동지사(冬至使)로 청(淸)나라에 다녀온 뒤 다시 좌의정이 되었다. 1808년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에 이르렀고 사후 순조의 묘정(廟庭)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충정(忠正).

나는 진실로 부덕(否德)으로 어극(御極)<sup>17</sup>한 뒤 30년이 가까운 사이에 치법(治法)과 정모(政謨)가 볼 만한 것이 없다. 그러나 두어 가지 규모에 있어서는 옮겨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 대체로 을해(乙亥, 1755년 영조 31) 이후에는 다스리는 법이 이루어지고 제도가 정해졌으나 천도(天道)에 악한 일이 가득하고 손익(損益)이 서로 인(因)하였다. 이에 대소(大小) 신공(臣工)<sup>18</sup>으로 하여금 영성(盈成)의 경계를 잃지 않고 병집(秉執)<sup>19</sup>의 바탕을 항상 간직할 것을 잊지 않도록 하였다.

을해(乙亥) 이전에 그 마음이 의리를 굳게 지키는 사람으로 너의 할아버지와 너의 아버지가 선대 조정(朝廷)을 위하였다. 그 같은 충성을 본받는다면 모년(某年)의 의리를 간범(干犯)하는 일이 있겠는가.

돌아보면 연안집독(宴安酖毒)<sup>20</sup>에 점차로 서로가 빠져서 한 조각 정신으로 চে마(揣摩)<sup>21</sup>하여 경영(經營)하는 사람은 오로지 얻고 잃음을 근심하는 과구(科臼)<sup>22</sup>에 있을 뿐이다. 비록 체차(遞差)<sup>23</sup>등의 얇은 벌(罰)을 추고(推考)하는 것도 또한 관심이다. 의리에 있어서는 월시진척(越視秦瘡)<sup>24</sup>하여 그 배치(背馳)의 구덩이에 돌아감을 깨닫지 못함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이에 한번 굴러서 모년(某年)의 큰 의리에 관계되고 두 번 굴러서 을미년(乙未年, 1775)의 일에 관계되었다. 또 세 번 굴러서 병신년(丙申年, 1776)의 일에 네 번 굴러서 정유년(丁酉年)의 일에 관계되었다. 정유년 이후에는 참으로 이른 바 회(訕) 이후에 나무랄 것이 없으니 나 또한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

무릇 나의 신하된 자들은 누군들 선대왕(先大王)이 화육(化育)<sup>25</sup>한 인물이 아니며 또한 선대(先代) 조정(朝廷)에서 충성한 자손이 아니겠는가.

予固否德 御極以後 近三十載之間 治法政謨 雖無可觀 而至於一副 當規模自有移易不得者 蓋自乙亥以後 可謂治成制定 而天道惡盈 損益相因 苟能使大小臣工 無忘盈成之戒不失 秉執之素常存

乙亥以前之心 其所以固守義理者 如乃祖乃父之爲

先廟 願忠效誠 則豈至有干犯某年義理之事乎 顧其宴安鳩毒 駸駸胥溺 一片精神之所揣摩經營者 專在於患得患失之科臼 雖推考遞差等薄罰 亦皆關心 至於義理邊 則殆無異越視秦瘡 而自不覺其歸於背馳之科 於是乎一轉 而關係於某年大義理 再轉而爲乙未 三轉而爲丙申 四轉而爲丁酉 丁酉以後 則眞所謂訕以後無譏 而予亦有不欲言者矣

凡我臣子 孰非先大王 化育中物 又孰非爲先朝 願忠效議者之子若孫

予亦有不欲言者矣

凡我臣子 孰非

先大王 化育中物 又孰非爲先朝 願忠效議者之子若孫

17) 임금의 자리에 오름.

18) 여러 신하(臣下)와 백관(百官).

19) 뚝뚝한 도리를 가짐.

20) 일하지 않고 노는 것을 짐주(醢酒)의 독(毒)과 마찬가지로 자살행위라는 것.

21) 어떤 진상(真相)을 미루어 헤아려 보아 추측과 합치되기를 기대함.

22) 평범한 일.

23) 관원(官員)의 임기가 차거나 또는 부적당할 때 다른 사람으로 갈아서 임명함. 곧 관원의 경질을 말함.

24) 남의 환난을 돌아보지 아니함을 가리키는 말.

25) 천지 자연의 이치로 만물을 길러 자라게 함.

그러나 잘못 굴러서 이 권투(圈套)<sup>26</sup>에 서로가 끌고 들어가니 인인(仁人)·군자(君子)가 차마 좌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 세도(世道) 국가(國家)의 근심이 두렵고 한심하지 않는가. 오직 다행한 것은 일종의 청의(淸議)<sup>27</sup>가 민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두 척리(戚里)<sup>28</sup>의 다툼이 춘추(春秋)의 옳지 않은 싸움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모(某)와 모(某)가 의리(義理)를 부식(扶植)한 것은 이것이 어찌 척신(戚臣)과 더불어 서로가 친한 것이겠는가. 오직 나의 한 조각 고심(苦心)은 오로지 옛적에 물든 더러운 풍속이 모두 새롭게 되어 끝내는 용사(龍蛇)<sup>29</sup>로 하여금 모두 화하여 적자(赤子)<sup>30</sup>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임어(臨御)<sup>31</sup>하신 처음에 두어 가지의 규모를 명시하고 의리를 천명하여 함께 대도(大道)의 근본에 이르는 것이다.

이에 일부(一部)의 양추(陽秋)<sup>32</sup>가 일성(日星)에 밝게 들어 종종 음사(陰邪)한 논리는 그 사이에 용납되지 않았다. 비유컨대 우정(禹鼎)<sup>33</sup>이 상물(象物)<sup>34</sup>하니 신간(神奸)·귀비(鬼秘)가 그 형상을 도피하지 못하고 산림(山林)과 천택(川澤)으로 들어간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순조롭지 못하였다. 대개 규모(規模)가 크게 정해진 뒤에 이에 들어오는 사람은 국변(國邊)<sup>35</sup>으로 충성하는 군자(君子)가 되었다. 그리고 이에 벗어난 사람은 적변(賊邊)으로 불충(不忠)하는 소인(小人)이 되었다.

이 일이 의리(義理)에 관계되어 진실로 참정절철(斬釘截鐵)<sup>36</sup>하여 규모(規模)가 한번 세워지니 상위(象魏)<sup>37</sup>의 현법(懸法)보다 엄격하였다.

而轉輓註誤 相率入於此箇圈套 此非但仁人君子之所不忍坐視 其爲世道國家之憂 寧不懍然而寒心乎 惟幸一種淸議 尙有不泯者存 不知者或謂其兩戚里之爭 殆同春秋之無義戰 而某某人之扶植義理者 亦豈必是與戚臣相親者 惟予一片苦心 宜在於舊染汚俗 咸與維新 而畢竟使龍蛇 盡化爲赤子 故輿自臨御之初 明示一副當規模 以爲闡明義理 偕至大道之本

於是乎 一部陽秋 昭揭日星 而種種陰邪之論 莫敢容於其間 譬如禹鼎象物 神奸鬼秘 莫逃其狀 而入山林川澤者 不逢不若 盖規模大定之後 入於此者 國邊也忠也君子也 出於此者 賊邊也 不忠也小人也 事關義理 固當斬釘截鐵 而規模一立 嚴於象魏之懸法

26) 세력의 범위. 올가미를 씌우는 수단.

27) 조출하고 올바른 의논. 높고 깨끗한 언론.

28) 임금의 내척(內戚)과 외척(外戚).

29) 비범(非凡)한 사람을 일컬음.

30) 임금이 백성을 일컫던 말.

31) 왕위(王位)에 올라 나라를 다스림.

32) 춘추(春秋). 역사의 필법(筆法).

33) 하나라의 우(禹) 임금이 구주(九州)의 금(金)을 모아 주조한 솥. 하(夏)·은(殷)·주(周) 이래 왕위(王位) 전승(傳承)의 보기(寶器)임. 정(鼎)은 곧 왕위나 제업을 일컫는 말.

34) 천지(天地)의 물상(物象)을 취하여 법(法)을 만들.

35) 나라의 편. 적변(賊邊)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따라서 금일(今日)에 신하가 된 사람이 누군들 이 규모(規模)를 이역(移易)<sup>38</sup>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겠는가.

왕께서 또 교서(敎書)를 내리기를,  
내가 두어 가지 규모를 이미 말 했거니와 모르는 사람은 내가 용사(用舍)<sup>39</sup>하는 즈음에 그 선후(先後)와 피차(彼此)의 차이가 있는 것을 의심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으니 병신년(丙申年, 1776) 이후에 향용(嚮用)<sup>40</sup>한 것을 보면 나의 본 뜻이 있는 곳을 알 것이다.

기해(己亥, 1779) · 경자(庚子, 1780)년의 사이에 바야흐로 휘정(彙征)<sup>41</sup>의 때를 당하여 불행하게 홍국영의 사건이 나오게 되었다. 따라서 그 때의 사세(事勢)가 부득불 있는 인재(人材)를 쉬게 하고 다른 인재를 쓰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일진일퇴의 부동(不同)을 면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한 때의 진퇴(進退)가 어찌 의리(義理)의 경중(輕重)에 연 관되었겠는가.

기해년(己亥年) 이후 8년 만에 비로소 다시 점차로 옛 상황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옛 정승(政丞) 채판부(蔡判府)가 김봉조하(金奉朝賀)들과 기홀(畸齷)<sup>42</sup>하면서 같은 시대에 있었다. 때문에 신축년(1781년)으로부터 무신년(1788년)에 이르기까지 8년 만에 다시 다른 인재를 탁용(擢用)하였다.

그 때에는 조저(朝著)<sup>43</sup>의 사이에 쓸 만한 인재가 많았기 때문에 윤우상(尹右相)을 사건의 단서로 인하여 쉬게 하였다. 또 무신년(1788년)으로부터 을묘년(1795년)에 이르기까지 8년 만에 다시 다른 인재를 탁용(擢用)하였다. 이와 같이 그 진퇴(進退)의 사이가 모두 8년으로 한정되니 또한 적비(積費)<sup>44</sup>이 조화가 남아있는 것이다. 이에 쉬게 하고 다른 사람을 쓰고자 하는 것은 시의(時宜)의 우연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양망(養望)<sup>45</sup>의 도(道)를 위한 것이다.

爲今日臣子者 孰不知此箇規模之移易不得乎 上又敎曰予之一副 當規模才已言之 而不知者 或以予用舍之際 疑其有先後彼此之殊 而此則有不然者 觀於丙申以後 所嚮用者 可知予本意之所在矣 己亥庚子之間 方當彙征之時 而不幸有國榮事出焉 則其時事勢 不得不姑且休息 而用之 故果未免有一進一退之不同 一時之進退 顧何關於義理之輕重乎 自己亥以後八年 始復稍稍反舊 而如故相蔡判府 與金奉朝賀諸人 其被崎屹 適在於同時 故自辛丑至于戊申 八年之間 而又爲擢用 其時朝著之間 適多可用之人故 如尹右相者 亦因事端 使之休息 自戊申 至于乙卯 又八年 而復加擢用 蓋其進退之際 皆以八年爲限 亦自有積費造化者存 所以必欲休息 而用之者 非但時宜之適然 亦所以爲其人養望之道

36) 일의 결단을 비유함.

37) 궁문(宮門)밖에 법령(法令)을 달아놓은 곳.

38) 옮겨 바꿈.

39) 용사(用捨) 취하여 쓰는 일과 내어 버리는 일.

40) 임의대로 취하여 씀.

41) 유(類)별로 서로가 따르고 진함.

42) 서로 시새워서 미워함. 43) 조정(朝廷). 44) 힘과 정력을 많이 씀. 45) 저망(貯望). 명망의 근본을 기름.

내가 그들로 하여금 쉬게 하고 또한 일찍이 한 말이 자가(自家)<sup>46</sup>에 미치어 자가가 잘 쉬는 것도 또한 어려운 것이 아니겠는가. 8년 간격으로 인재를 바꿔 채용하니 다만 적연(適然)<sup>47</sup>한 천거(薦舉)였다. 그래서 세 사람의 정승을 8년을 전후하여 그 사이에 임용한 사람이 또한 많았다. 이것은 모두 마음과 행적을 병집(秉執)에 의거한 뒤에 그들을 쓴 것이다.

지금에 이 교서(敎書)도 치우친 말과 단순한 거행(舉行)이 아니라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옛적 선대(先代) 조정(朝廷)에 있어서 탕평(蕩平)의 고심(苦心)으로 용사(用捨)의 혼일(混一)이 있는 것이다. 내가 이와 같이 용사하면 아마도 당시의 의리가 큰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오직 그 진퇴의 시기는 다르지만 의리가 지엄한 것은 자연(自如)<sup>48</sup>한 것이다. 비유하건데 마시고 먹을 즈음에 여러 가지 반찬이 시고 짜고 달고 쓴 맛이 한결같지 않다. 그러나 죽은 밥과 콩과 조의 본 맛은 그대로 있는 것이다. 돌아보면 지금에 한 두 신린(臣隣)<sup>49</sup>이 의리(義理)를 자가 얼마 남아있지 않은 것이 탄식스럽다. 따라서 높고 낮고 크고 작은 것을 논하지 않고 진실로 착함을 사모하고 향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우리들의 선비이다. 오직 내가 용사(用捨)하는 권도(權度)<sup>50</sup>가 어찌 이 규모(規模)에 벗어날 수 있겠는가.

라고 왕께서 말씀하셨다.

이에 시수(時秀)가 말하기를, 「성교(聖敎)가 순순(諄諄)<sup>51</sup>·부석(剖析)<sup>52</sup>하여 남김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일(今日)에 등연(登筵)한 신하가 뉘인들 성의(聖意)가 있는 바를 인지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予之使之休息 亦嘗言及於自家 而自家之善爲休息者 亦豈非難及處乎 間八年用之 特適然之舉 而三相八年 前後其間拜相而委任者 亦多其人 而皆必心與跡之有依據於秉執然後用之 今茲之敎 亦未必偏言而單舉 自有深意存焉 昔在先朝 則以蕩平苦心 或有用舍之混一 而予之如是用舍 則蓋亦所謂時之義大矣者也 惟其進退之有時或異 而義理之至嚴者有如 則譬如飲食之際 庶羞之酸醎甘苦 不一其品 而粥飯菽粟之本味 則未嘗不自在也 顧今一二臣隣之主張義理者 亦有存者無幾之歎 而無論尊卑大小 苟有慕善向善之心者 便是吾黨之士也 惟予用舍之權度 亦豈有外於此箇規模乎 時秀曰 聖敎諄諄剖析無餘 今日登筵之臣 孰不仰認聖意之所在乎

46) 자기(自己).

47) 마침 우연히.

48) 아무렇지도 않음. 돌변한 일을 당하여도 놀라지 않고 평상시와 같이 침착하고 태연함.

49) 임금 측근에서 보필의 일을 맡아 보는 것.

50) 규칙. 균형.

51) 거듭 일러 친절히 가르치는 모양.

52) 나누어 쪼갬. 해결함.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두어 가지의 규모(規模)로 세상을 다스리는 대권(大權)<sup>53</sup>을 삼았다. 그리고 또한 ‘솔교(率教)’란 두 글자를 가지고 모든 신하(臣下)들에게 상세하게 말하고자 한다. 『중용(中庸)』에 이르지 않았던가 하늘이 명(命)한 것을 성(性)이라고 하고 성(性)을 다스리는 것을 도(道)라고 하였다. 사람이 병이(秉彝)<sup>54</sup>를 간직하고 천성(天性)에 뿌리내려 이것을 따라 어김이 없으면 이른 바 도(道)란 것이다. 군사(君師)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려야 하니 이에 예악형정(禮樂刑政)의 가르침이 있었으니 이것을 도(道)를 닦는 가르침이라고 하였다. 오직 그 말을 내가 어기지 못하니 진실로 성인(聖人)이 깊게 경계한 것이다. 이것이 천칙(天則)에 합(合)하고 천리(天理)에 마땅하니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어찌 감히 승순(承順)하지 않겠는가. 대학(大學)에 이르기를 「요순(堯舜)이 인(仁)으로써 천하(天下)를 다스리니 백성이 그를 따랐다.」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명령(命令)하는 바가 그 좋아하는 바에 반(反)하면 백성이 따르지 않았다.」고 하였다. 소호(所好)의 호(好)자를 비록 위(上)가 좋아하는 호(好)자로서 말 하지만 이 의덕(懿德)<sup>55</sup>을 좋아하는 호(好)자가 단장취의(斷章取義)<sup>56</sup>할 수 있다. 진실로 영(令)하는 바가 좋아하는 바에 반(反)하면 누가 감히 모두…… 지금의 세상에……

금일(今日)에 신자(臣子)가 된 사람은 비록 우부(愚夫)나 우부(愚婦)라도 누가 이에 이르러 화해(化偕)<sup>57</sup>하여 대동(大同)의 지역에 닿지 않겠는가. 대저 의리(義理)란 것은 별다른 것이 아니니 모든 일의 지당한 곳이 곧 의리이다. 옛 의리와 지금의 의리를 논할 것 없이 그 지당한 것은 매한가지이다. 오직 지당(至當)하므로 옛 선류(善類)<sup>58</sup>를 지금의 고일(高一)<sup>59</sup>한 무리에 견주면 또한 협극(協極)<sup>60</sup> 솔교(率教)한 지역에 함께 돌아간다.

上曰予既以一副規模 爲馭世之大權 而又當以率教二字 爲諸臣詳言之矣 中庸不云乎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人有秉彝 本乎天性 循是而無違 則所謂道也 居君師之位者 代天理物 而於是乎 有禮樂刑政之教焉 此所謂修道之教也 惟其言而莫予違 固聖人之深戒 而合於天則 當於天理 處在下者 豈敢不承順乎 太學有云 堯舜師天下以仁 而民從之 又云所令 反其所好 而民不從 所好之好字 雖以上之所好言 而好是懿德之好字 亦可以斷章取義 苟非所令之反其所好則 孰敢不咸有於牖□□□□□字 居今之世

爲今日臣子者 雖愚夫愚婦 孰不迄之化偕 底於大同之域乎 夫義理者 非別件物也 凡事之至當處 卽是義理 無論古義理 今義理 其爲至當 則一也 惟其至當也 故前輩善類之比 今人高一等 亦莫不同歸於協極 率教之域

53) 임금의 권력. 54) 타고난 천성(天性)을 지킴.

55) 아름답고 뛰어난 덕(德).

56) 시(詩)나 문장의 일부분을 따서 자기 본위로 해석하여 씀.

57) 화합하여 함께함. 58) 착하고 훌륭한 사람들.

59) 고상하고 유일함. 60) 지극히 화합함.

일종의 외치(外馳)<sup>61</sup>의 무리가 도리어 엿보아 영합(迎合)하는 눈을 가지고 장차 따르는 사람에게 가해(加害)하니 세도(世道)의 깊은 근심이 아니겠는가. 의리가 있는 곳은 지극히 정(精)하고 지극히 엄(嚴)하니 반드시 정(精)하게 살핀 뒤에 한결같이 지킬 수 있다. 따라서 나의 평생에 학력(學力)이 이러한 곳에 보아 얻은 것이 어긋나지 않았다고 이를 수 있다. 어극(御極)<sup>62</sup>한 처음에 한 두 신하(臣下)와 더불어 3대(代)을 일을 가지고 서로가 기약한 말이 있는데 지금에 생각하니 진실로 우습다. 따라서 내가 집행하는 바를 또한 알 것이다.

을묘년(乙卯年, 1795) 이후에 내가 세도(世道)를 위하여 깊게 생각하는 뜻으로 교속(矯俗)<sup>63</sup>이란 두 글자를 끄집어냈다. 대체로 훈후(渾厚)함을 힘써 따르고 말을 다하지 않고자 하므로 다만 하나의 속(俗字)만 가지고 말한다. 그 사실은 모년(某年)의 의리(義理)에 간범(干犯)한 것은 곧 하나의 속(俗)자가 을미(乙未)·병정(丙丁)년에 관계된 것이다.

또한 이 하나의 속(俗)자는 지금의 세상에 신하가 된 자는 우부우부(愚夫愚婦)라도 교속(矯俗)이란 두 글자가 부월(鈇鉞)<sup>64</sup>보다 엄한 것을 모르겠는가. 이 때문에 이래(邇來)<sup>65</sup>·사륜(絲綸)<sup>66</sup>의 사이에 만약 하나의 속자(俗字)로 써 말하면 비록 철한(鐵限)<sup>67</sup>의 정세(情勢)가 있더라도 감히 전도(顛倒)하고 추응(趨膺)<sup>68</sup>하지 않을 수 없다. 오직 이 뒤에 속(俗)이란 한 글자를 가지고 지극히 엄하게 여기지 않을까 봐 두렵다.

비록 이번에 이판(吏判)의 일로써 말하지만 사소(辭疏)의 비답(批答)과 면출(勉出)의 교서(敎書)에 그 하나도 교속(矯俗), 그 둘도 교속(矯俗)이라고 말한 나의 뜻이 우연이겠는가.

而一種外馳之徒 乃反以窺覘迎合等目 加之於將順之人者 豈非世道之深憂乎 義理所在 至精至嚴 必須精而察之然後 乃可一以守之 予之平生學力 自謂於此等處 看得不差 御極之初 與一二臣 有以三代事相期之語 到今思之 固爲可笑 予之所執 則亦可知矣

乙卯以後 予以爲世道 深長慮之意 拈出矯俗二字 而蓋以務從渾厚 不欲索言之 故只以一俗字言之 而其實 則干犯於某年義理者 卽此一俗字 關係於乙未丙丁者 亦卽此一俗字 居今之世 爲今日臣者 雖愚夫愚婦 孰不知矯俗二字之嚴於鈇鉞乎 以是之故 邇來絲綸之間 若以一俗字爲辭 則雖有鐵限之情勢 不敢不顛倒趨膺 惟恐或後 豈非以俗之一字 所關至嚴乎

雖以今番吏判事 言之 辭疏之批 勉出之敎 一則曰矯俗 二則曰矯俗者 予意豈偶然哉

61) 다른 곳으로 치달음.

62) 임금의 자리에 오름.

63) 나쁜 풍속을 바로잡음.

64) 임금의 권위를 상징하는 작은 도끼와 큰 도끼를 아울러 이르는 말.

65) 가까운 요마적.

66) 임금의 말씀.

67) 확고하게 정한 한계.

68) 쫓아서 응함.

대개 지난해의 한 종류의 풍속이 이록(利祿)과 과구(窠臼)<sup>69)</sup>에 도도(滔滔)하였다. 진실로 호관(好官)<sup>70)</sup>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구휼(救恤)하지 않고 미친 듯 자신의 이익에 급급(汲汲)하였다.

그 흐름이 심하여 장차 무부(無父)·무군(無君)의 지경에 이르려고 한다. 이미 관록(官祿)을 얻고 난 뒤에는 또한 염피(厭避)<sup>71)</sup>의 계책을 내어 법전에 없을 것을 따지지 않고 분의(分義)의 지엄함을 알지 못했다. 동성(同姓) 소족(疎族)<sup>72)</sup>이 사이에도 그 구애(拘碍)되는 것은 대전(大典)의 대문(大文) 상피(相避)<sup>73)</sup>에 다름이 없다. 이른 바 근밀(近密)<sup>74)</sup>의 신하가 애초에 한번도 관직에서 공평함을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소원했던 사람까지 모두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 다투어 사모하고 본받았으니 그 세도(世道)의 폐단이 적지 않다. 어제 교서(敎書) 가운데에 영화롭고 아름다운 데에 처하여 청요(淸要)함을 취하는 사람은 겨우 그 함자(啣字)를 빌리어 그 직분(職分)을 피한다고 한다. 나 또한 심분해야려 이와 같이 쓸 뿐이다.

나는 이 한 가지 일을 바로잡는다고 해서 세속의 폐단을 모두 구제할 수 있다고 이르지 않는다. 정자(程子)의 말에 효제(孝悌)는 인(仁) 중의 한가지 일 이라고 하였다. 나 또한 이것은 교속(矯俗) 가운데에 한가지 일 이라고 이른다. 따라서 하나의 일을 바로잡으면 하나의 일이 효과가 있고 두 가지 일을 바로잡으면 두 가지 일이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하여 멈추지 않으면 그나마 큰 변화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실지로 내가 고심(苦心)하는 것이다.

盖自往年以前 一種風俗 滔滔於利錄窠臼 苟其好官之可做 則他不暇恤 汲汲如狂 其流之甚 殆將至於無父無君之境 及其既得之後 又生厭避之計 不顧法典之所無 不知分義之至嚴 同姓疎族之間 其所拘碍 無異於大典之大文相避 所謂近密之臣 初不肯一番行公於官職 而以至疎遜之蹤 亦皆看作美事 競相慕效 其爲世道之弊 亦非細故 昨敎中 處華廳而攬淸要者 才借其啣 便避其職云者 予亦十分商量 而只如是書之矣

予非謂只矯此一事 足以盡救俗弊也 程子有言孝悌 爲仁中之一事 予亦謂此爲矯俗中一事 矯得一事 有一事之效 矯得二事 有二事之效 似此不已 庶幾有丕變之效 此實予苦心所在

69) 학자가 득의(得意)하여 마음의 안착을 얻는 것을 비유함.

70) 저명한 관직. 요직을 뜻함.

71) 마음에 꺼려서 피함.

72) 원족(遠族).

73) 친족 또는 기타의 관계로 같은 곳에 벼슬하는 일이나·청중(聽衆)·시관(試官) 따위를 피함.

74) 근밀지신(近密之臣). 근신(近臣)을 말하는데 특히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승정원(承政院)의 관리를 가리킴.

그렇지 않으면 중비(中批)<sup>75</sup>의 천거(薦舉)는 어렵고 삼가는 것이거늘 내가 어찌 시임(時任) 우상(右相)의 아우를 전례에 벗어나서 특별히 제수(除授)할 수 있겠는가? 규지(揆地)<sup>76</sup> 전석(銓席)<sup>77</sup>에 형제가 번갈아가면서 차지하는 것을 전례라고 하지만 이것은 100년 전 일에 관계되는 것이다.

하물며 지금에 사람이 옛 사람보다 못하다면 내가 이 격외(格外)<sup>78</sup>의 천거를 하였겠는가. 그리고 이판(吏判)이 한 차례 면출(勉出)<sup>79</sup>의 교서(敎書)를 받고 곧바로 쫓리어 명을 받은 것이다. 또한 이것은 나의 교속(矯俗)의 본 뜻을 몰랐겠는가.

이판(吏判)의 사소(辭疎)를 애초에는 자상하게 보지 않았는데 김이재(金履載)의 소장(疏章)이 들어온 뒤에 비로소 다시 보았다. 그 내용은 먼저 왕술(王述)의 말을 쓰고 다음에는 이귀(李貴)의 일을 인용하였거니와 우활(迂闊)<sup>80</sup>하고 긴요하지 않다고 이른다. 나 또한 그 내용의 말(語)에 모순이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번의 일이 풍속을 바로잡는 데에 관계가 되었다면 설령 이에 큰 망발이 있었다더라도 어찌 풍속과 더불어 상반(相反)하겠는가. 또한 풍속과 더불어 상반하는 사람을 곧 군자(君子)편에 사람이라고 하겠는가.

하물며 분발하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대양(對揚)<sup>81</sup>으로 일을 삼되 내치는 바의 말을 받아 들였다. 따라서 이판(吏判)이 기기(忌器)<sup>82</sup>의 혐의를 돌아보지 않았겠는가. 설령 그것을 논하자면 반드시 교속(矯俗)의 본 뜻에 따라서 먼저 천명한 뒤에 그 구절의 말을 가지고 간간히 그릇됨을 바로잡아서 곧바로 말하는 것이 옳다.

不然則中批之舉 固所難慎 而予何必以時任右相之弟 拔例特除乎 揆地銓席 兄弟之迭居 雖曰已例 而係是百年前事 且況今人 不如古人 則予所以必爲此格外之舉 而吏判之一承 勉出之敎 便即猖獗膺命者 亦豈非深知予矯俗之本意者乎 吏判辭疏 初不詳見 及至金履載疏入之後 始復取看 則先用王述之語 次引李貴之事 可謂迂闊不緊 予亦以爲不無語病矣 然而本事 既關於矯俗 則設有加於此之大妄發 豈可歸於與俗相反 與俗相反者 卽是君子邊人 且況奮不顧身 以對揚爲事 而受其所斥之言 則於吏判 豈不顧忌器之嫌 設欲論之 必從矯俗之本意 先加闡明 然後 以其句語 間矯枉過 直爲語猶或可也

75) 조선 시대 이조(吏曹)나 병조(兵曹)의 전형을 거치지 않고 임금의 특지로 관리를 임명하는 일.

76) 재상의 자리.

77) 인재를 가려 뽑는 자리라는 뜻으로 이조(吏曹)의 판서(判書)를 이르는 말.

78) 격식의 밖.

79) 마지 못하여 냐.

80) 실제 사정과는 관계가 멀음.

81) 임금의 명령에 답하여 그 뜻을 천하에 알림.

82) 임금 결의 간신(奸臣)을 제거하려 하여도 임금에게 누(累)가 미칠까 두려워한다는 뜻으로 사용됨.

지금에 이 김이재(金履載)의 소장(疏章)에 그 명분은 한 사람의 이판(吏判)을 논하였다. 그러나 그 실상(實狀)은 중이에 뻑뻑하게 늘어놓은 달콤한 말이 근일(近日) 사륜(絲綸)가운데에 교속(矯俗)이란 두 글자에 배치된다. 내가 그들이 결적(挾摘)<sup>83)</sup>한 구어(句語)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는 그들의 소장(疏章)가운데 구어를 지적하여 그 뜻을 따지고 싶지 않다. 이것은 이판(吏判)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오로지 교속(矯俗)이란 두 글자인 나의 본 뜻을 파탈(擺脫)<sup>84)</sup> 하는 데에 있다.

만약에 그들이 시속(時俗)의 물정(物情)에 요연(瞭然)<sup>85)</sup>하여 세상에서 공교롭게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이라면 이 이치를 알듯하다. 알고도 이것을 한다면 그 죄가 합치되니 의리(義理)가 있는바에 한 털끝만큼도 어긋남은 용납되지 않음을 피하겠는가. 의리에 반대되는 것은 곧 속습(俗習)인 것이다. 이 일을 속습을 바로잡는 데에 관계되니 정성으로 따르고 삼가 지켜야 할 것이다.

다만 속언(俗諺)에 말한 것과 같이 나막신을 신고 압록강(鴨綠江)을 건너는 것이다. 그래도 감히 이 상반(相反)되는 일을 하는 자가 오직 무슨 뜻으로 그 소장(疏章)에 교속(矯俗)이란 두 글자에 배치(背馳)하는 생각을 하는가.

이것으로써 이판(吏判)을 침척(侵斥)<sup>86)</sup>의 자부(資斧)<sup>87)</sup>로 삼는다면 이판의 일은 풍속과 더불어 상반(相反)한다. 풍속과 더불어 상반하는 사람은 곧 이것이 군자(君子)편이다. 또한 하물며 분발하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대량(對揚)으로 일을 삼았다. 그리고 그 내치는 바의 말을 받아들였다면 이판(吏判)에게 어찌 영화롭지 않겠는가. 또한 그들은 신진소년(新進少年)에 불과하니 너무 꾸짖지 못하고 도리어 그 소장(疏章)을 돌려보내니 아무런 일이 없다고 말한다.

今此金履載之疏 其名則論一吏判 而其實則滿紙張皇 專欲甘心 背馳於近日絲綸中矯俗二字 予方以渠之挾摘句語爲非 故不欲更就渠疏中句語 指的爲言 而究厥旨意 不在於吏判 而專在於擺脫矯俗二字 予之本意 如渠之自以爲瞭然於時俗物情 而工於行世保者 似無不知之理 則知而爲此者 其罪合置 何辟義理所在 不容一毫之有差 而義理反對 卽俗習也 事關俗習之矯正 其所恪遵 謹守 只當如俗諺 所謂着木屐渡鴨江者 而乃敢爲此相反之舉者 獨何意思其疏 既背馳矯俗二字

而以此爲侵斥吏判之資斧 則吏判之事 自歸於與俗相反 與俗相反者 卽是君子邊人 且況奮不顧身 以對揚爲事 而受其所斥之言 則於吏判 豈不有榮乎 渠不過新進少年 本不足深責 還給其疏 可謂都無事

83) 숨겨진 것을 찾아냄. 정미(精微)한 뜻을 찾아냄.

84) 털어서 없애 버림. 예절이나 구속에서 벗어남.

85) 명백한 모양. 분명한 모양.

86) 침해하고 배척함.

87) 예리한 도끼란 뜻으로 자료의 거리.

그리고 그 직책을 살펴보니 옥서(玉署)<sup>88</sup>의 유신(儒臣)이요. 그 사람을 살펴보니 잠영(簪纓)<sup>89</sup>의 성벌(盛閥)이다. 그러나 그 소장을 살펴보니 언사(言事)로써 명분을 삼았거니와 가히 꾸짖지 않고 그냥 둘 수가 없었다. 일찍이 김이재를 강제(講製)<sup>90</sup>의 자리에서 보았다. 오래도록 모든 사람들을 알아보았거니와 혼미한 듯 판별하지 못하고 영리한 듯 판별하지 못한다.

또한 비록 강(剛)하고 낭탐(狼貪)<sup>91</sup>하더라도 진실로 삼두육비(三頭六臂)<sup>92</sup>가 아니면 감히 이것을 처리하지 못한다. 또한 하물며 근래 조정(朝廷)에 권간(權奸)으로 지목되는 사람이 없다. 또한 그 이지(頤指)<sup>93</sup>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곧 외면(外面)을 갑작스럽게 보게 된다. 비록 그를 일컬어 궁구해도 알지 못하고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 어쩔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이것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가운데에 음종(陰腫)<sup>94</sup>이 곧바로 외면(外面)에 나타나지 않고 유음(幽陰)한 곳에 숨겨져 있는 것과 같은 것인가.

모든 일은 마땅히 면전(面前)에 나타난 것으로 논할 뿐이니 어찌 다른 것을 끌어 붙이겠는가. 그래서 다른 것을 빙자하면 왕자(王者)의 어진 정치가 아니다. 이것은 좋고 나쁜 것을 대략 보이어 경(卿)들에 한결같이 논하는 것이다. 작일(昨日)에 전교(傳敎)하여 투비(投畀)<sup>95</sup>로써 말한 것은 시경(詩經)에 이른 바 투비유북(投畀有北)을 취한 것이니 곧 참녕(讒佞)함을 물리치는 뜻이다.

공자(孔子)가 4대의 예악(禮樂)으로 안연(顏淵)에 아뢰니 그 귀결(歸結)의 말은 정성(鄭聲)<sup>96</sup>을 내치고 영인(佞人)을 멀리하는 데에 지나지 않았다.

而顧其職 則玉署之儒臣也 顧其人則 簪纓之盛閥也 而顧其疏 則又以言事爲名 不可以其不足責而置之 嘗見履載於講製之列 稔知其人人也 似昏不可辦 似慧不能辦矣

且或雖剛而狼貪 苟非三頭六臂 必不敢辦此 且況近來朝廷 無權奸之指目者 又不可以受其頤指言 則外面驟看 雖謂之究不解而說不去 亦可無乃 復有不知不解之中 如陰腫之未卽形現於外 而汨於幽陰而然乎 凡事只當爲面前彰著者 論之 何必拖及其他乎 然而任他有非王者之仁政 此所以畧示好惡 而一論於卿等者也 昨日傳敎之 以投卑爲言者 蓋取詩經所謂投卑有北 卽亦退讒佞之意也

孔子之以四代禮樂 告顏淵也 其歸結之語 不過曰放鄭聲遠佞人

88) 홍문관(弘文館)의 다른 이름.

89) 벼슬아치를 이르는 말.

90) 조선 시대의 과거 시험 방법. 즉 경전(經典)을 강(講)하는 강경(講經)과 부(賦)·고시(古詩)·명(銘)·잠(箴)등을 짓는 제술(製述)을 합한 말.

91) 이리와 같이 배부른 것도 돌보지 않고 자꾸 욕심을 냄.

92)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을 가리키는 말.

93) 턱으로 가리킴. 사람을 자유로이 부림.

94) 여자의 외음부(外陰部)가 헐어서 붓고 아픈 병.

95) 왕명(王命)으로 죄인을 정배(定配)함.



그리고 우순(虞舜)이 용(龍)에게 명하여 간악함을 미워하는 데에 권권(眷眷)<sup>97</sup>한 것은 아마도 참설(讒說)에 쉽게 의혹되어 판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소장(疏章)을 갑자기 보면 또한 말이 되는듯하다.

그러나 나는 말 하노니 그 은밀한 근심이 천진(天津)<sup>98</sup>의 두견새 소리와 같을 뿐이겠는가. 천진의 두견새는 군자(君子)·소인(小人)이 사라지고 자라나는 조짐에 지나지 않거니와 이 소장(疏章)의 소관(所關)은 진실로 어떠한가.

을묘년 이후에 그나마 식목(拭目)<sup>99</sup>의 희망은 있었거니와 1~2년에 막연하게 한점의 새로운 효과가 없었다. 비록 병집(秉執)한 의리로써 말하건 데 을·병(乙丙)의 사이에 신임(辛壬)의 살벌(殺伐)함이 없었다. 때문에 정신(挺身)<sup>100</sup>으로 담당하는 사람은 옛 사람이 공분(公憤)<sup>101</sup>으로 사수(私讐)<sup>102</sup>를 겸하는 데에 미치지 않았다.

대저 오늘에 세도(世道)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 어찌 자모(自侮)<sup>103</sup>인모(人侮)의 탄식이 없겠는가. 다만 교제하는 것이 협심(協心)하여 같이 돌아가지 못할 따름이다. 스스로 업신여기는 것이 아울러 의리와 관계되건만 그것을 훼손하고자 하는가. 내가 비록 노쇠하였지만 이 무리들을 처치함에 있어서 회회(恢恢)<sup>104</sup>하게 여유롭지 않겠는가.

그러나 짐짓 병신년(丙申年, 1776) 이후의 처분으로 보건데 내가 건강(乾剛)함이 또한 스스로 만족하다고 이른다. 혹시도 후유(煦濡)<sup>105</sup>함에 애썼건만 근년에 와서는 실지로 조저(朝著)에 사람이 없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일제히 휴양(休養)으로 힘써 대소사(大小事)를 가리지 않고 한결같이 참으면서 심상(心上)에 허다한 생각을 허비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정신과 근력이 날로 쇠비(衰憊)<sup>106</sup>하니 또한 이것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而虞舜所以眷眷於命龍壑讒者 盖亦以讒說之易惑 而難辨也 似此等疏驟看 則亦似成說 而予則曰其爲隱憂 不啻如天津之杜鵑聲 天津杜鵑 不過爲君子小人消長之機 而此疏所關果何如也 乙卯以後 庶幾有拭目之望 而一年二年 漠然無一新之效 雖以其秉執義理言之 乙丙之間 既無辛壬之殺伐 故其所以挺身擔當者 不及於古人之以公憤兼私讐矣 大抵任今日世道之責者 亦豈能無自侮人侮之歎 而但當交修 不逮協心同歸而已 豈可以其自侮之 故并與義理所關 而必欲毀之乎 予雖衰矣 於處置此輩 豈不恢恢有餘 而試以丙申後處分觀之 予於乾剛邊 亦自謂不爲不足 豈或專事煦濡 而近年以來 實有朝著無人之歎 且欲一切以休養爲務 無論大事小事 一味含忍 徒費心上之許多思量 精神筋力之日漸衰憊 亦未必非此之由

96) 음탕한 음물.

97) 마음이 항상 쏠림.

98) 은하(銀河)의 가운데 별.

99) 눈을 깨끗이 씻고 자세히 봄.

100) 무슨 일에 앞장 서 나아감.

101) 공중(公衆)의 분노. 공공을 위한 분개.

102) 개인적인 원수.

103) 스스로 업신여김.

104) 넓고 넉넉한 모양. 여유가 있는 모양.

105) 따뜻하게 감싸주어 은택을 내림.

106) 기운이 쇠약하고 피곤함.

하물며 금년은 다른 해와 다르니 금오(金吾)<sup>107)</sup> 작소(鵲巢)<sup>108)</sup>의 뜻은 도화(導和)에 있다. 때문에 이들은 큰 성색(聲色)<sup>109)</sup>을 내지 않고 조용하게 그냥 지내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번에 하교(下敎)도 참고 또 참으면 평안하고 기뻐하면 또 평안하고 기쁘다고 하였다. 사륜(絲綸)의 사이에 종당(從當) 한차례 퍼 보이니 먼저 이 뜻을 가지고 경(卿)들은 꺼려하지 말고 계속할지어다.

지금으로부터 등연(登筵)하는 모든 신하(臣下)들은 나가면 서로가 아뢰어 점차로 깨우치면 명학(鳴鶴)이 그늘에 있으니 그 새끼가 화답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이치를 서로가 느끼는 묘리(妙理)는 속일 수 없는 것이다. 오늘에 가르치는 것은 반드시 강개(慷慨)하여 격양(激昂)함이 있으리라. 천명(闡明)하는 도(道)를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척연(惕然)하여 송구한 마음이 있을 것이다. 또 자명(自明)한 방법을 생각하는 사람은 모르는 가운데에 허물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지 않겠는가. 따라서 위엄을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 하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이후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가르치고 형은 그 아우에게 힘쓸지어다. 그래도 속투(俗套)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진실로 옛 습관을 버리고 도(道)에 닿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간혹 스스로 다가와서 속습(俗習)의 고루한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마땅히 온고지신(溫故知新)으로 더욱더 힘써서 내가 하고자하는 다스림을 이룰지어다. 내가 기망(期望)<sup>110)</sup>하는 것을 이와 같이 밝게 유시(諭示)한 뒤에는 다시는 더 고유(誥諭)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양(對揚)<sup>111)</sup>의 책임은 오로지 경(卿)들에게 있으니 모름지기 경들이 하는 사소한 곡혐(曲嫌)을 제거하여 각각 교구(矯救)의 술(術)을 담당하여야 한다.

라고 국왕께서 말씀하셨다.

且況今年 異於他年 金吾鵲巢 意在導和 故此等處 皆欲不大 聲色 從容說去 今茲下敎 亦可謂忍之又忍平 說之又平說 矣 絲綸之間 從當一番敷示 而先以此意 爲卿等不憚縷縷 自今日登筵諸臣 若能出而相 告 漸次曉諭 則鳴鶴在陰 其 子和之 一理相感之妙 有不可 誣聞 今日之敎者 必有慷慨激 昂 思所以闡明之道者 亦必有 惕然悚懼 思所以自明之方者 而不知之中 亦豈無革面革心 圖所以畏威遠罪者乎

從今以往 父詔其子 兄勗其弟 其未脫俗套者 固當不去舊習 以爲跋及之道 而間或有自來 不溺於俗習之陋者 又當溫故 知新 益復加勉 以成我從欲之 治 卽予之所期望 而如是明諭 之後 予亦不復多誥 對揚之責 專在卿等 須自卿等以下 除却 些少曲嫌 各圖所以擔當矯救 之術也

107) 의금부(義禁府)의 별칭.

108) 제후(諸侯) 부인의 덕을 노래한 것으로 부부가 화락하게 지내는 것을 말함. 여기에서는 왕비를 뜻함.

109) 말소리와 얼굴 빛.

110) 기대하여 바람.

111) 임금의 명령에 답하여 그 뜻을 천하에 알림.

이에 이만수(李晩秀)가 대답하기를, 「성교(聖敎)의 아래에 뒤가 영회(領會)<sup>112)</sup>하지 않겠습니까. 신(臣)들로부터 나가서 두루 아뢰고 한 세대의 사람으로 하여금 효연(曉然)히 성의(聖意)가 있는 곳을 알게끔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알고도 고의로 범하는 이치가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천명(闡明)과 자명(自明)을 논하지 않고 다만 자신의 한 몸에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한 뒤에 만약 또 효험이 없으면 나도 다시 어떻게 하겠는가. 대저 김이재(金履載)의 소장(疏章)은 그 말이 가소로우니 그 사람을 어떻게 꾸짖겠는가. 그 일은 지극히 미미하되 법을 뛰어넘고 가르침을 등지며 몸은 함부로 하고 손으로는 범(犯)한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마음대로 하니 결코 요행이 없음을 알 것이다.

그러면서 감히 선발(先發)하여 조금 이른 계책을 세우는 사람이다. 병신년(丙申年, 1776) 이후 25년 사이에 처음 보는 사람이니 어찌 그 사람을 꾸짖을 수 있겠는가. 또한 그 말을 함부로 보며 그 일을 건성으로 보겠는가.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고 풍속을 제도하는 데에 두어 조항의 규모(規模)를 버리면 어떻게 하겠는가.

나는 어릴 때부터 대도(大道)를 성경(聖經)<sup>113)</sup>에서 대략 듣고 알았지만 아직도 이행하지 못했다. 지금에 그것을 이행한 뒤에 규모(規模)를 세우고 몸소 솔선하고 나서 남에게 미치도록 추진하겠다. 조치하지 못한 것이 있을 진대 지역(地域)으로 연유코자 한다. 이에 어찌 김이재 등의 무리들이 금일(今日)의 조정(朝廷)에 체동(蟬螻)<sup>114)</sup>하고자 할 수 있겠는가.

晩秀 曰 聖敎之下 孰不領會 而自臣等出而遍告 俾一世之人 無不曉然知 聲意之所在 則亦豈有知 而故犯之理乎 上曰無論闡明與自明 只在自家一身矣 如是之後 若又無效 則予亦復奈何 大抵金履載之疏 其言可笑 其人何責 其事至微 而越規背敎 身冒乎犯 俯首甘心 決知其無幸 而乃敢爲先發 而少嘗之計者 卽丙申以後 二十五年間 初見者 豈可以其人之何足責 泛視其言 歇看其事乎 馭世制俗 捨一副規模 何爲 予則自少 略聞大道於聖經知之 未嘗不行之 行之之後 建立規模 身自先之 推以及之於人 有不措措之 必欲使域中率由 於是何物 履載輩欲爲蟬螻於今日朝廷乎

112) 깨달음.

113) 종교의 최고법전(最高法典)이 되는 책. 여기에서는 유교의 사서오경(四書五經).

114) 무지개 처럼, 색깔을 나타냄을 뜻함.

진실로 또한 그들을 아주 긍민(矜悶)<sup>115</sup>하게 여기고 저들도 말을 못하니 유독 세가(世家)가 아닌가. 다만 한 사람을 귀양 보내고 일만 사람을 구하는 계책을 생각하여 처분하니 경(卿)들은 마땅히 본 뜻을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이시수가 말하기를, 「그 소장(疏章)을 반포(頒布)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臣)은 아지 보지 못했습니다.」고 하였다. 왕께서 물으시기를, 「어찌하여 반포하지 않았는가?」하였다. 태혁(台赫)이 대답하기를, 「원소(原疏)는 아직 비지(批旨)<sup>116</sup>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의례히 반포하지 못했습니다.」고 하였다.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금일(今日) 연교(筵敎)에 먼저 고금(古今)의 시조(時措)를 말하고 다음에는 규모(規模)를 말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용사(用捨)를 말하고 또 그 다음에는 부교(敷敎)<sup>117</sup>·솔교(率敎)<sup>118</sup>의 방법을 말하였다. 여러 차례 치의(致意)<sup>119</sup> 갱단(更端)<sup>120</sup>하여 말 한마디마다 세교(世敎)를 돕고 단락(段落)마다 고심(苦心)을 보였다. 모름지기 사관(史官)으로 하여금 한통의 연화(筵話)<sup>121</sup>를 녹출(錄出)하여 한 차례 묘당(廟堂)에 보이도록 하라.

그리고 사공(四公)의 사례(事例)에 의하여 돌려볼지어다. 또 한 차례 언책(言責)<sup>122</sup>·논사(論思)<sup>123</sup>의 관리(官吏)에게 보이고 장고(掌故)<sup>124</sup>에 상세하게 기록하여 그 원본을 사관(史官)에게 주어서 사고(史庫)에 소장해두어라.

라고 말씀하셨다.

誠亦矜悶之甚 彼固不足言 獨非世家乎 特念竄一拯萬之策 乃有處分 卿等當知此本意矣 時秀 曰其疏不爲頒布 故臣未得見矣

上曰何以不爲頒布也 台赫 曰原疏未蒙 批旨 故例不得頒布矣 上曰今日筵敎 先言古今之時措 次言規模 次言用捨 次言敷敎率敎之方 屢致意而屢更端 言言扶世敎 段段示苦心 須令史官 錄出一通筵話 一示之廟堂 依四公之事例 輪示 一示之言責論思之官 詳載於掌攷 以其原本 付之史官 藏在史庫

115) 가엾게 여겨 근심함.

116) 신하가 올린 상소(上訴)에 대하여 임금의 내리는 비답(批答)의 말씀.

117) 임금의 교지를 널리 펴.

118) 예교(禮敎)를 따라서 이행함.

119) 자기가 가진 뜻을 남에게 알림.

120) 단서를 고침.

121) 연석에서 논한 말.

122) 신하가 임금에게 진언하는 책임. 또는 그 책임을 맡은 사람.

123) 학문·사물에 대한 견해나 사상 등에 관하여 논변함. 또는 그 일을 맡은 관원.

124) 국가의 전고(典故)·고사(古事)·관례(慣例) 또는 전장(典章)·제도(制度)를 관장하는 관직 이름. 또는 그 일을 기록한 책.

## 소초(疏抄)

## 疏抄

옛 정부자(程夫子)는 숭정전(崇政殿) 설서(設書)로써 좌강(坐講)을 시행하는 법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부자(朱夫子)는 장경부(張敬夫)에게 야대(夜對)<sup>1)</sup>의 법을 청하였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 상하가 서로 더불어 할 즈음에 그 의절(儀節)을 분별하고 정지(情志)가 유통하여 용연(灑然)히 가인(家人) 부자(父子)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곧 천지가 교태(交泰)하고 사방이 혼합(訥合)하여 그렇게 되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법강(法講)을 오래도록 비웠으나 우리 성상(聖上)의 미의(微意)·오지(奧旨)를 군하(群下)들은 우리러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조고사(國朝故事)를 살펴보니 지금 우리 성상(聖上)의 보령(寶齡)<sup>2)</sup>이 경연(經筵)에 드물게 납실 나입니다.

그러나 소대(召對)·야대(夜對)에 경적(經籍)을 토론하고 득실(得失)을 순자(詢諮)<sup>3)</sup>한 것은 또한 소대(昭代)의 의범(懿範)이요, 영주(令主)의 성절(盛節)입니다.

성상(聖上)께서 만약 범례(凡例)에 어려움이 있으면 때때로 옥당(玉堂)<sup>4)</sup>을 불러서 접하게 됩니다. 이에 언사(言使)가 경서(經書)를 가지고 등연(登筵)하여 읽고 아뢰지만 선조(先朝)의 전례(前例)에 의거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한 바라건 데 어정(御定)<sup>5)</sup>한 여러 가지 책 가운데에 주자서(朱子書)는 우리 성상(聖上)께서 춘궁(春宮)<sup>6)</sup>에서 빛을 감추고 있을 때부터 구오(九五)의 높은 자리에 오를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외우고 익혀서 이미 열매가 넉넉히 열렸습니다.

昔程夫子 以崇政殿說書 請行坐講之規 朱夫子 勸張敬夫 請以夜對之法 蓋其上下相予之際 簡其儀節 情志流通 灑然有家人父子之美 則天地交泰 四方訥合 不期然而然矣 法講之久曠 不但我 聖上之微意奧旨 群下莫不仰認 謹稽 國朝故事 如今我 聖上 寶齡罕御經筵 而如召對夜對之討論經籍 詢諮得失 卽亦昭代之懿範 令主之盛節 聖上 如又以如例爲難 則以時召接玉堂 言使之橫經登筵讀奏 而難依 先朝已例 豈不茲乎 且伏企 御定諸書 若朱子書 則我 聖上 自潛光春宮 暨登九五之尊 昕夕誦習 既實且洽

1) 임금이 밤에 신하를 불러 강서(講書)하던 일.

2) 임금의 나이(높임말).

3) 옷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물어서 의론함.

4) 조선 시대 홍문관(弘文館)을 달리 이르는 말. 또는 홍문관의 부제학(副提學) 이하 교리(校理)·부교리(副校理)·수찬(修撰)·부수찬(副修撰) 등 실무를 담당하는 관월을 총칭하여 부르는 말.

5) 임금이 산정(刪定)함.

6) 세자궁(世子宮)·태자궁(太子宮)의 판 이름.

그리고 성상께서는 우제(虞帝)<sup>7)</sup>의 정일(精一)한 통치를 이어받고 노성(魯聖)<sup>8)</sup>의 산술(刪述)<sup>9)</sup>한 초안(抄案)을 잡았습니다. 이에 강요(綱要)한 혈구(絜矩)<sup>10)</sup>는 『자양자회영(紫陽子會英)』<sup>11)</sup>의 서체(書體)이며 부문(部門)의 회집(彙集)은 『자양선통(紫陽選統)』의 편성(編成)입니다. 또한 묻고 답한 서소(書疏)를 선집(選集)하니 『주자서백선(朱子書百選)』이요. 대전어류(大全語類)을 간략 정리하니 『주자서절약(朱子書節約)』입니다.

『성학집약(聖學輯略)』은 또한 성상(聖上)의 공정(工程)이 간편(簡編)<sup>12)</sup>에 나타난 것을 모은 책입니다. 이상의 모든 책이 내각(內閣)에 보관되어 있으니 신(臣)은 청하건 데 만기(萬機)<sup>13)</sup>의 여가(餘暇)에 유신(儒臣)들에게 명하여 와내(臥內)에 끌어들이옵소서. 그리고 이 편찬한 책들을 가지고 돌아가며 읽고 아뢰도록 하고 글의 의미를 익혀 아뢰도록 하면 장차 성상(聖上)의 공정(工程)에 더욱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원자(元子)의 교적(教迪)<sup>14)</sup>을 돕는 하나의 길이 될 것이다. 신(臣)은 권권(惓惓)<sup>15)</sup> 현애(懸愛)함을 이기지 못하여 이에 감히 우러러 글을 올립니다. 태학(太學)에서 매월 세 차례 강(講)하는 제도는 매우 좋은 것이니 칙령(飭令)하여 이와 같이 시행하소서. 그리고 매월 3강(講)하는 책 가운데에 그 하나의 책은 『고경중마방(古鏡重磨方)』<sup>16)</sup>입니다.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sup>17)</sup>에 성상(聖上)께서 지은 서문(序文)이 있으니 지금에 성상께서 지은 주자서(朱子書) 가운데에 일부를 명하여 매월 세 번 강의하게 하소서.

承虞帝精一之統 秉魯聖刪述之抄 綱要之絜 而紫陽會英之書體 部門之彙 而紫陽選統之編成 選問答書疏 則曰朱子書百選 節大全語類 則曰朱子書節約也 聖學輯略 又是 聖工之著於簡編者 以上諸書 藏在內閣 臣請萬機之暇 命儒臣引入臥內 將此篇帙 輪回讀秦 演陳文義 固將有裨於聖 而益聖之工 實亦爲助於教迪元子之一道 臣不勝惓惓懸愛 茲敢仰達 而太學月三講 制度甚美 飭令如例 設行 月三講中一書 卽古鏡重磨方也 夙興夜寐箴 有 御製序 而今此御定朱子書中 亦望命以一部 爲月三講

7) 순(舜)임금을 일컬음.

8) 노(魯)나라 성인(聖人)이라는 뜻으로 공자(孔子)를 이르는 말.

9) 쓸데없는 자구(字句)나 문장을 삭제하고 정리하여 일정하게 고침.

10) 올바른 법칙.

11) 『주자서』를 각 서체별로 편집한 책. 자양(紫陽)은 주자(朱子)의 별칭.

12) 편지를 모아서 엮은 책. 13) 여러 가지 정사(政事). 14) 가르쳐서 인도함. 15) 일에 힘쓰는 모양.

16) 1607년(선조 40)에 이황(李滉)이 옛 잠(箴)·명(銘) 중에서 수양이 될 만한 것을 뽑아 엮은 책. 이황의 문인(門人) 정구(鄭逵)가 1744년(영조 20)에 간행하였다. 책머리에는 김재로(金在魯)가 쓴 어제 고경중마방 편제(御製古鏡重磨方扁題)가 있고, 영조의 어제 시가 있다. 본문에는 고대의 성왕인 은탕(殷湯)의 반명(盤銘)과 주무왕(周武王)의 석사단명(席四端銘), 당송(唐宋)의 명현(韓愈)의 오잠(五箴), 정자(程子)의 사물잠(四勿箴) 등 23명의 잠·명 76편을 수록하였다. 이 책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서 간행하여 세자시강원의 교재로 쓰였다. 그 후 여러 차례 중간(重刊)되었다.

17) 중국 송(宋)나라 진백(陳柏)의 저서.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은 주자(朱子)의 《경재잠언(敬齋箴言)》과 서로 표리(表裏)를 이루는 것이다. 조선 명종 때 노수신(盧守愼:1515~1590)이 문장과 뜻이 간단하고 요령이 있는 진백의 《숙흥야매잠》을 후학(後學)들에게 참고가 되도록 상세하게 주석을 달아 해설한 《숙흥야매잠주해(夙興夜寐箴註解)》를 지었다. 그 후 장복추가 또다시 이 책을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분장(分章)에 의거하고, 주(註)는 노수신의 설(說)과 한강(寒岡) 정구(鄭逵)의 심경발휘척주(心經發揮摭註) 및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의 주설(註說)을 간략하게 뽑아서 차례대로 모아 《숙흥야매잠집》을 만들었다.

날짜에 따라서 나누어 강할 때에 응당 이 세 가지 책을 강하여 모든 유생(儒生)으로 하여금 성상의 뜻이 주자(朱子)를 높이고 정학(正學)를 돕게 하소서. 실지로 이것이 아름다운 은혜가 지어지는 길이니 예조(禮曹) 및 성균관(成均館)에 분부하여 이에 따라 법을 정하고 모든 조항을 내도록 지위(知委)<sup>18)</sup>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及日項講時 應講三書 俾諸生  
知聖意之在於尊朱子 而扶正  
學 實爲嘉惠作成之道 分付禮  
曹 及成均館 依此定式事出舉  
條 知委何如

---

18) 통지나 고시 따위의 형식으로 명령을 내려 알려줌.

## 시권(試券)

## 試券

진사시(進士試) 3등(等) 제 57인(人)

進士試三等 第五十七人

관저(關雎)<sup>1)</sup>·인지(麟趾)<sup>2)</sup>의 뜻이 있고 난 뒤에 주관(周官)의 법도(法度)를 행할 수 있습니다.

有關助麟趾之意然後 可行周官法度

시(詩).

詩

도산(塗山)<sup>3)</sup>에게 장가들어 어진 계(啓)<sup>4)</sup>를 낳으니,  
 하후(夏后)<sup>5)</sup>씨의 관화(關和)<sup>6)</sup>로 육부(六府)가 닦이었는데.  
 건곤(乾坤)의 덕(德)이 합하니 만화(萬化)의 근원이고,  
 손익(損益)의 예절이 유래하니 백세(百世)에 연유하네.  
 집이 가지런한 뒤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나니,  
 법(法)을 취한 창희(蒼姬)<sup>7)</sup>는 아름답지 않았네.  
 관저(關雎)·인지(麟趾)는 성인(聖人)이 감화하여,  
 법도 있는 당시(當時)에는 주(周)나라가 행하였네.  
 다스림은 백성을 감화시키는 데에 이룩하니 후왕(後王)이  
 따르고,  
 도(道)는 집안을 화합함에 근본하니 군자의 좋은 짝이로세.  
 빈빈(彬彬)한 전장(典章)은 자연히 있었나니,  
 800년의 큰 터전에는 어진 혜택이 흐르네.  
 오룡(汚隆)<sup>8)</sup>하는 세운(世運)은 후대(後代)가 징험하니,  
 선명하구나! 선왕(先王)이 남긴 법에 찾으리라.  
 문모(文謨)<sup>9)</sup>와 무렬(武烈)<sup>10)</sup>은 그 도(道)가 차츰 멀어지고,  
 한패(漢霸)<sup>11)</sup>와 당이(唐夷)<sup>12)</sup>는 그 말이 부끄럽네.

娶于塗山生啓賢  
 夏氏關和六府修  
 乾坤德合萬化原  
 損益禮因百世由  
 家齊而后國可治  
 取法蒼姬於不休  
 關雎麟趾聖人化  
 法度當時行有周  
 治成化民後王遵  
 道本宜家君子述  
 彬彬典章厥有自  
 八百丕基仁澤流  
 汚隆世運驗後伐  
 鮮矣先王遺法求  
 文謨武烈道浸遠  
 漢霸唐夷言足羞

- 1) 시경(詩經) 국풍(國風) 6편중의 한 곡(曲). 내용은 문왕(文王)과 후비(后妃)의 덕을 말한 것으로 숙녀(淑女)를 얻어 군자의 도움이 될 것을 생각하는 것임.
- 2) 기린의 발이란 뜻으로 시경(詩經) 주남(周南)의 한 편명 주나라 문왕께서 후비(后妃)의 덕으로 자손이 많고 현명했다는 것으로 인후한 후비를 살아있는 풀은 절대로 밟지 않는다는 인수(仁獸) 기린에 비유한 것.
- 3) 중국 상고 시대 하(夏)나라 우왕(禹王)의 아내인 도산씨(塗山氏)를 이르는 말.
- 4) 우왕(禹王)의 아들.
- 5) 우왕의 국호.
- 6) 관석화균(關石和鈞)의 준말. 석(石)은 120근(斤), 균(鈞)은 30근으로 무게의 단위이고, 관(關)은 유통시킨다는 뜻이며 화(和)는 고르게 한다는 뜻임. 석(石)을 유통시키고 균(鈞)을 고르게 한다는 것은 백성이 사용하는 저울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니 곧 법도(法度)를 잘 지키도록 한다는 것임.
- 7) 중국 주(周) 나라의 별칭. 주나라가 푸른색을 숭상하고 희씨(姬氏)의 성이었기 때문에 생긴 별칭임.
- 8) 쇠(衰)하는 것과 성(盛)하는 것.
- 9) 중국 고대 문왕(文王)의 정책.
- 10) 중국 고대 무왕(武王)의 위업.
- 11) 중국 한(漢)나라의 문제(文帝).
- 12) 당나라와 오랑캐란 뜻으로 중국과 그 이웃나라를 두루 이르는 말.



신한(申韓)<sup>13</sup>과 관상(管商)<sup>14</sup>이 뒤섞여 그 사이에 나와서,  
 공이(功利)의 형명(刑名)이 균형을 잃었네.  
 하남(河南)<sup>15</sup>이 도리를 논하여 추성(鄒聖)<sup>16</sup>을 계승하고,  
 아름다운 법(法) 주가(周家)를 더불어 짝할 것을 생각하네.  
 하늘과 사람이 더불어 당겨 되돌릴 수 있나니,  
 제왕(帝王)은 도리를 같이하는 그 모유(謀猷)로세.  
 주관(周官)의 제도(制度)를 아마도 행하고자 하니,  
 두 편의 시(詩)는 저린(睢麟)의 풍화(風化)가 유구하네.  
 청조(淸朝)에 수두룩한 길사(吉事)는 오봉(梧鳳)<sup>17</sup>이 모  
 이고,  
 정국(正國)의 거동은 상구(桑鳩)<sup>18</sup>에 있으리라.  
 연어(鳶魚)<sup>19</sup>가 화육(化育)하여 단아한 처지를 짓나니,  
 성인(聖人)은 내가 이 아니 따르겠는가 말하네.  
 삼왕(三王)이 실마리를 이으니 도리를 벗어나지 않고,  
 만세에 남긴 피가 성인(聖人)은 근심이 없다네.  
 양양(洋洋)한 지화(至化)는 사해(四海)에 펼치어,  
 궁유(宮帷)에서 시작하는 즐거움이 유유(油油)하다네.  
 가유(嘉猷)와 비열(丕烈)이 한 시대를 제정하니,  
 두터운 혜택과 깊은 은혜는 천세에 머무네.  
 금릉(金陵)의 집요(執拗)<sup>20</sup>가 경장(更張)을 그르쳤건만,  
 말(語)로 다스리는 이천(伊川)이 천하가 넉넉하였도다.

申韓管商襍出間  
 功利刑名其失侔  
 河南論道繼鄒聖  
 美法周家思與儔  
 天人與參可挽回  
 帝王同道其謀猶  
 周官制度倘欲行  
 二詩睢麟風化悠  
 淸朝藹吉集梧鳳  
 正國其儀在桑鳩  
 鳶魚化育造端地  
 聖云吾從非此不  
 三王承緒道不外  
 萬世貽謨聖無憂  
 洋洋至化薄四海  
 始自宮帷樂油油  
 嘉猷丕烈一代制  
 厚澤深恩千歲留  
 金陵執拗誤更張  
 語治伊川天下優

13) 중국 전국시대에 신불해(申不害)와 한비(韓非).

14) 관중(管仲)과 상양(商鞅).

15) 송(宋)나라의 윤수(尹洙).

16) 맹자(孟子)를 말함. 맹자가 추(鄒)나라에서 태어났으므로 추성이라고 함.

17) 뜰 앞 오동나무에 봉황새가 날아오면 경사스러운 일이 생긴다고 함.

18) 시경(詩經) 맹장(氓章)에 미색(美色)에 빠져서 정사(政事)를 그르침을 경계함.

19) 연어지화(鳶魚之化). 곧 소리개는 하늘에서 날고 고기가 연못에서 뛰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천지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더불어 인간 세상에도 덕화(德化)내지 교화(教化)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비유함.

20) 어디까지나 자기 고집을 관철하려고 끈질김.

## 소지(所志)

서울에 거주하는 심정승택(沈政丞宅) 노(奴) 삼손(三孫)

위는 삼가 소지(所志)<sup>1)</sup>를 진술합니다. 상전택(上典宅)의 산소(山所)가 용인현(龍仁縣) 치하(治下) 서쪽 원곡(院谷)에 있습니다. 대신(大臣)의 산소 사체(事體)가 자별(自別)하고 내룡(來龍)의 전후 및 안산(案山)의 경계를 정하여 산지기 4명을 차정(差定)하여 금양(禁養)<sup>2)</sup> 수호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인년 이후로부터 저의 집이 침체한 가운데에 산지기 4명을 군안(軍案)에 몰입(沒入)하여 금양(禁養)의 모든 절차의 모양을 이루지 못하니 저의 집 정황이 어떻겠습니까. 지금에 저의 집이 다시 천일(天日)<sup>3)</sup>을 보게 되니 대신(大臣) 산소(山所)의 일을 마땅히 과거의 금양(禁養)에 의거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전일(前日)의 완문(完文) 한 장의 첩(帖)으로 연이어 호소합니다. 따라서 참상(參商)하신 뒤에 특별히 전례(前例)에 의하여 산지기 4명을 군안(軍案)에서 탈하(頤下)<sup>4)</sup>하여 과거의 금양(禁養)과 같이 하계끔 천만번 바라는 일이옵니다.

용인(龍仁) 관사주(官司主) 처분(處分)

갑자년(甲子年, 1864) 7월 일.

## 所志

京居沈政丞宅 奴三孫

右謹陳所志矣段 上典宅山所在於治下西邊院谷 而大臣山所 事體自別 來龍前後 及案山定境界 而山直四名差定 禁養守護 是白加尼 自丙寅以後 矣宅沈滯之中 山直四名 沒入軍案 禁養諸節 萬不成樣 矣宅情地 富如何哉 今則矣宅 復見天日 則大臣山所事 當依前禁養 故茲以前日完文一張帖 連仰訴爲去乎 參商教是後 特依前例 山直四名 頤下軍案 俾爲如前禁養之地 千萬望良 爲白只爲 行下 向教是事

龍仁 官司主 處分

甲子七月 日

1) 청원이 있을 때에 관아에 내는 소장(訴狀)  
2) 나무나 풀 등을 베지 못하도록 금하여 가꿈.  
3) 하늘과 해 또는 하늘에 떠 있는 해로 전(轉)하여 임금을 지칭함.  
4) 특별한 사정이나 탈로 인하여 대상에서 빼어냄.

후(後)

산소 내룡(來龍) 좌우 뒤쪽으로부터 응봉(鷹峰)에 이르기  
까지와 응봉 후룡(後龍)으로부터 사봉(沙峰)에 이르기까지  
이다. 주산(主山) 전후 안산(案山)은 응봉(鷹峰) 제2서록  
(西麓)으로부터 구향교(舊鄉校) 고개와 구빙고(舊氷庫) 고  
개와 가재동(佳材洞)과 대소동막동(大小東幕洞)과 원곡남북  
(院谷南北) 등의 곳이다.

산지기 등의 성명(姓名)

최원준(崔元俊) [군안 악이(軍案 岳伊)]

박부길(朴富吉) [군안 귀길(軍案 貴吉)]

박영길(朴永吉)

박용금(朴龍金)

용인(龍仁) 현감(縣監) 수결(手決)

대신(大臣) 산소(山所)의 소중함은 자별(自別)하다. 따라  
서 수호군(守護軍)은 특별히 탈급(頃給)하거니와 그 대신할  
사람은 동중(洞中)에서 신속하게 정 할 일이다.

29일 동장중 유사(洞長中 有司)

後

自山所來龍左右後 至鷹峰 自  
鷹峰後龍 至沙峰 主山前後案  
山 則自鷹峰第二西麓 舊鄉校  
峴 舊氷庫峴 佳材洞 大小東  
幕洞 院谷南北等處印  
山直等姓名

崔元俊 (軍案岳伊)

朴富吉 (軍案貴吉)

朴永吉 朴龍金

龍仁 (手決)

大臣山所 所重自別 守護軍  
特爲頃給是遣 其代自洞中 斯  
速疾定向事

廿九日 洞長中有司

## 소지(所志)

## 所志

노호(鰲湖) 심정승택(沈政丞宅) 노(奴) 삼손(三孫)

鰲湖沈政丞宅 奴三孫 (手決)

위는 사정을 아뢰어 보내는 일입니다. 저의 집 산소(山所)가 용인(龍仁) 서변면(西邊面) 행원(行院)에 있습니다. 그 처음 이곳을 차지할 무렵 용미(龍尾) 아주 가까운 곳에 화전(火田) 2~3경(頃)이 있으니 대신(大臣) 산소(山所)의 사체(事體)가 자별(自別)합니다.

右謹陳議送事段 矣宅山所 在於龍仁西邊面行院 而當初新占時 龍尾至近處 有火田數三頃 大臣山所 事體自別 故不得已入於陳處者 爲十八負 盖十負 則屬之墓陳 八負 則屬之田陳者也 完文立旨 前後文案 昭然俱在 今皆可按 而知是白加乎 忽於月前 該面書員稱以墓陳 而添附虛結 星火督納 墓陳查起 既有朝令 則文案中所載 十八負 固當應納 而第其餘外虛結 何可冤徵乎 矣宅以此意呈訴 本官詳細查實後 幸蒙頒給之題 該色 又以更勿橫侵之意 納俵音 則此可爲後日憑考是乎矣 有巡營立旨然後 尤無後慮 而永杜奸弊 故茲敢以本官題音 該吏俵音 帖聯仰訴爲白去乎

이 때문에 부득이 진처(陣處)<sup>1)</sup>에 들어간 것이 18부(負)인데 그 10부(負)는 묘진(墓陳)<sup>2)</sup>에 나머지 머지 8부(負)는 전진(田陳)<sup>3)</sup>에 속한 것입니다. 이에 완문(完文) 입지(立旨)<sup>4)</sup> 전후 문안(文案)에 뚜렷하게 갖추어 있으니 지금에 모두 상고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전(月前)에 갑자기 해면(該面)에 서원(書員)이 묘진(墓陳)이라고 일컬으면서 허결(虛結)<sup>5)</sup>에 첨부하여 성화(星火)같이 독납(督納)하였습니다. 묘진(墓陳)에 사기(查起)<sup>6)</sup>는 이미 조령(朝令)이 있었다면 문안(文案) 가운데에 기록된 18부(負)에 관한 조세 마땅히 납부할 것이지만 그 나머지 허결(虛結)을 어찌 징수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집에서는 이 뜻으로 정소(呈訴)합니다. 본관(本官)이 상세하게 사실을 조사한 뒤에 탈급(頒給)<sup>7)</sup>의 제음(題音)<sup>8)</sup>을 받았 습니다.

따라서 해색(該色)이 또한 횡침(橫侵)하지 않는다는 다짐을 받으면 후일의 증빙이 됩니다. 순영(巡營)이 입지(立旨)가 있으면 뒤에 더욱더 후일의 염려가 없고 영원토록 간폐(奸弊)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에 감히 본관(本官)의 제음(題音)과 해리(該吏)의 고음(俵音)<sup>9)</sup>의 첩(帖)으로 우러러 호소합니다.

1) 논밭 등이 묶은 곳.

2) 묘지(墓地)의 구역 안에 들게 되어 경작(耕作)되지 않고 묵혀 두게 된 토지.

3) 밭이 묶음.

4) 신청서 끝에 신청한 사실을 입증하는 뜻을 부기(附記)하는 관부(官府)의 증명.

5) 조선 후기 전결(田結)에 관한 토지대장과 과세·징수 등의 제반 서류를 작성·정리하는 사무를 담당하던 지방의 서리나 아전배들이 근거가 없는 전결에 결부(結負)를 허위 문서로 작성하여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세하여 횡령·착복하던 폐단을 말함.

6) 과세의 대상을 조사하여 대장에 올림.

7) 탈면(頒免)을 허락하여 줌.

8) 관아에서 공문서나 백성의 소장(訴狀)·청원서(請願書)같은 데에 기록하는 지령(指令).

9) 다짐 관아에서 백성에게 확실한 대답을 받는 일.

복걸(伏乞)하건데 굽어 살피신 뒤에 특별히 논리가 엄명하게 제하(題下)<sup>10</sup>하시어 다시 싸우는 폐단이 천만번 바랍니다. 행하(行下) 하실 일이니 순사도주(巡使道主) 처분을 바랍니다.

신미년(辛未年,1871) 3월 일  
의송(議送)

비록 조명(朝命)을 거행하거니와 대신(大臣)의 산소(山所)가 사체(事體)가 자별(自別)하다. 18부(負)의 진처(陣處)에 징세(徵稅)가 오히려 미안하거늘 하물며 허세(虛稅)를 더하겠는가. 관아(官衙)가 이미 변제(卞題)<sup>11</sup>하고 아전(衙前)도 납고(納俵)<sup>12</sup>하였으니 이것을 증빙하여 영영 금단(禁斷)할 일이다.

4월 6일 용인관(龍仁官)

伏乞  
俯燭教是後 特爲論理嚴明題  
下 俾無更鬧之弊 千萬望良爲  
白只爲  
行下向教是事  
巡使道主 處分

辛未三月 日 議送

雖是舉行朝命 大臣山所 事體  
自別 拾捌負陳處之徵稅 猶屬  
未安 況可以添於虛稅乎 官既  
卞題 吏亦納俵 憑此永永禁斷  
事

四月初六日 龍仁官

10) 관아에서 공문서나 백성의 소장(訴狀)·청원서(請願書) 등에 제사(題辭)를 적어서 내려 보냄.  
11) 어떤 사실이나 대목의 옳고 그름을 따져서 내리는 제사(題辭).  
12) 관가에 다짐을 뒀.

## 소지(所志)

## 所志

노호(鰲湖) 심정승택(沈政丞宅) 노(奴) 삼손(三孫) 발괄(白活)<sup>1)</sup>

鰲湖沈政丞宅 奴三孫 白活

위는 삼가 아뢰는 소지(所志)입니다. 저의 집 산소(山所)가 용인치하(龍仁治下) 서변면(西邊面) 행원(行院)에 있습니다. 월전(月前)에 묘진사(墓陳事)로 우러러 하소연하였으며 그 제음(題音)에 상세하게 조사하여 바로잡았습니다.

右謹陳所志矣段 矣宅山所 在於治下西邊面行院 而月前以墓陳事 仰訴矣 題音內 詳查歸正教是是乎所矣 上典 親往山下 招致該色 使之查櫛詳察局內是乎則 山所逼近處原陳不過十負是白遭 位土則仍陳八負 衿記自在矣 該色亦無他陳處之可言 是白乎跡 山所新占時 墓陳永刊 完文姑置 其後己丑年間 以虛負事呈 官查正更出立旨 是白乎尼 所謂該色 衿記之添錄 未知委折 大抵結負 有形地有來歷然後 出秩徵納 自是法例是白去乙 今此添錄 眞的是無形地無來歷者也

우리 상전(上典)이 친히 산(山) 아래에 가서 해색(該色)을 호치(招致)하여 그들로 하여금 조사하여 국내(局內)를 살피게 하였습니다.

산소에서 아주 가까운 언덕 목힌 곳이 10부(負)에 지나지 않고 위토(位土)는 그대로 목힌 8부(負)의 금기(衿記)<sup>2)</sup>가 스스로 있습니다.

이에 해색(該色)<sup>3)</sup>도 달리 목힌 곳이 없다고 말 하였습니다. 산소(山所)를 처음 잡을 때에 묘진(墓陳)은 영간(永刊)<sup>4)</sup>하고 완문(完文)은 우선 두었습니다.

그 뒤 기축년(己丑年)에 허부(虛負)<sup>5)</sup>의 일을 관아(官衙)에 아뢰고 관아에서는 조사하고 바로잡아서 입지(立旨)를 내었습니다.

이른 바 해색(該色) 금기(衿記)의 첨록(添錄)은 그 위절(委折)<sup>6)</sup>를 모르겠거니와 대체로 결부(結負)는 형지(形地)와 내력(來歷)이 있어야만 등급을 매기어 징납(徵納)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이 첨록은 진정 형지(形地)와 내력(來歷)이 없는 것입니다.

1)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사서민(士庶民)들이 관청에 올리는 일종의 소장(訴狀)·청원서·진정서. 소지(所志)·민장(民狀)·송첩(訟牒)이라고도 한다. 발괄이란 귀신이나 사람 혹은 관청에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구원을 청하는 일을 뜻하는데, 보통 민원관계 문서를 가리킨다. 내용은 주로 소송·진정·청원 등으로 모두 관청의 판결이나 처분을 요하는 사항이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것으로 무수한 내용이 있었는데, 묘자리와 관련된 산송(山訟)이 가장 많았다. 또한 재산분쟁, 조세감면, 상해, 손해배상, 원한호소, 전답문권 재발급 신청 등에 관한 것이 많았다.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문서였으므로 보통 이두문으로 작성되었고,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된 것인 만큼 비교적 잘 보관되어 현재 남아 있는 고문서 가운데 토지문서 다음으로 많다. 문서형식은 고려의 것이 조선시대에 이어져 주로 신청자의 주소·성명·본문내용·수신처·연월일 순으로 작성되었다. 그런데 연도 표기에 있어서 고려와 조선 초기에는 대부분 연호가 씌어 있어 그 연대가 분명한 데 비해, 조선 후기에는 간지(干支)만이 씌어져 연대추정에 곤란이 있었다.

2) 지주의 성명과 조세의 액을 쓴 장부.

3) 해당하는 직무를 맡은 그 부서나 사람.

4) 영삭(永削). 명부에서 이름을 영구히 지워 없앴.

5) 허결(虛結). 논밭이 없는 사람에게 대하여 논밭을 가진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물리는 결세.

6) 까닭이 많음.

단 해색(該色)이 금기(衿記)를 등전(騰傳)<sup>7)</sup>한 잘못으로 이 침책(侵責)<sup>8)</sup>이 있으니 원억(冤抑)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에 지난번 입지(立旨) 첩(帖)으로 우리러 하소연 합니다. 복걸(伏乞)하건데 참상(參商)하신 뒤에 묘진(墓陳) 10부(負)와 전진(田陳) 8부(負) 이외에 첨록(添錄)한 43부(負) 5속(束)을 특별히 탈하(頤下)하여 횡침(橫侵)의 폐단을 면하도록 천만번 바랍니다. 행하(行下) 하실 일로 용인관사주(龍仁官司主)의 처분을 복걸합니다.

신미년(辛未年,1871) 3월 일

소지(所志)

이른 바 해색(該色)의 첨록(添錄)은 이 무슨 위절(委折)인가. 입지(立旨)가 확연하거늘 첨록의 횡침(橫侵)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탈급(頤給)할 일이다.

2일

해색(該色)

但以該色 衿記騰傳之襲謬 有此侵責 豈不冤抑之甚乎 茲以前立旨帖 連仰訴爲去乎 伏乞參商教是後 墓陳十負 田陳八負外 添錄四十三負五束 特爲頤下 俾免橫侵之弊 千萬望良爲白只爲

行下 向教是事

龍仁官司主 處分

辛未三月 日

所志

所謂該色之添錄 是何委折是喻 立旨昭然 添錄橫侵者 詳查頤給向事

初二日

該色

7) 베껴서 전함.

8) 침해하고 책임을 지움. 또는 강제로 책납(責納)하도록 함.

## 소지(所志)

경중(京中) 심정승택(沈政丞宅) 노(奴) 운재(雲才) 수결(手決)

위는 삼가 소지(所志)를 아뢰입니다. 저의 상전택(上典宅)이 지금에 이미 용인치하(龍仁治下) 서변면(西邊面) 원곡(院谷)에 장사(葬事)지내어 대신택(大臣宅) 산소(山所)의 사체(事體)가 자별(自別)합니다. 그런데 내룡(來龍)의 전후 및 안산(案山)의 남북이 초동(樵童)과 목수(牧豎)<sup>1)</sup>가 침범하여 모두 벗겨져서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계를 정하여 금양(禁養)하되 만약에 산지기가 없으면 금하기가 어려우므로 이에 산지기의 성명 및 금양(禁養)할 곳을 후록(後錄)하여 하소연 합니다. 참상(參商)하신 뒤에 특별히 입안(立案) 성급(成給)하여 일후(日後)에 징빙하도록 행하(行下)하시어 용인관주(龍仁官主)의 처분을 바랍니다.

임술년(壬戌年, 1802) 3월 일.

후(後)

산소(山所) 내룡(來龍)의 좌우후(左右後)에서 응봉(鷹峰)까지 와 응봉(鷹峰) 후룡(後龍)에서 사봉(沙峰) 까지이다.

주산(主山) 전후 안산(案山)은 곧 응봉(鷹峰) 제2서록(西麓)에서 구향교현(舊鄉校峴), 구빙고현(舊氷庫峴), 가재동(佳材洞), 대소동막동(大小東墓洞), 원곡남북(院谷南北) 등의 곳이다.

## 所志

京中沈政丞宅 奴雲才 手決

右謹陳所志矣段 矣身上典宅  
今已過葬於治下西邊面院谷  
而大臣宅山所 事體自別 是在  
如中 來龍前後 及案山南北  
爲樵童牧豎之所侵 舉皆被脫  
萬不成說 勢將定境界禁養是  
乎矣 若無山直 則難以禁養乙  
仍于 山直姓名 及禁養等處  
後錄仰訴爲去乎 參商教是後  
特爲立案成給 以爲日後憑考  
之地 爲只爲  
行下向教是事  
龍仁官主 處分

壬戌三月 日

後

自山所來龍左右後 至鷹峰  
自鷹峰後龍 至沙峰 主山前後  
案山 則自鷹峰第二西麓 舊鄉  
校峴 舊氷庫峴 佳材洞 大小  
東幕洞 院谷南北等處 印

1) 목동(牧童). 마소를 치는 아이.



산직(山直)<sup>2)</sup> 등의 성명(姓名)

최경대(崔慶大), 이이대(李二大), 양시봉(梁時奉), 김자근(金者斤) 등.

山直等 姓名

崔慶大 李二大 梁時奉 金者斤 等

대신택(大臣宅) 산소의 수호(守護) 체면(體面)이 자별(自別)하다. 특별히 하소연 하는바에 의하여 완문(完文)을 성급(成給)한다. 금양(禁養)을 거행하는 절차에 1분(一分)이라도 소우(疎虞)<sup>3)</sup>하면 먼저 산지기를 위시하여 관아에 관리(官吏)로 나타나는 대로 중감(重勘)할 일이다.

大臣宅山所 守護體面自別 特依所訴 完文成給爲乎矣 禁養居行之節 若或一分疎虞 則先從山直爲始 衙官隨現重勘向事

5일.

용인(龍仁) 수결(手決)

初五日

龍仁 (手決)

2) 산지기. 산이나 뉘를 지키는 사람.  
3) 조심성이 부족하여 그릇함.

## 소지(所志)

## 所志

서변면(西邊面) 행원리(行院里) 심교관택(沈教官宅) 묘노(墓奴) 작은돌이(者斤丕伊) 발괄(白活).

西邊面行院里 沈教官宅 墓奴者斤 丕伊 白活

위 소지(所志)는 저희 집 전답(田畓)에 관한 일을 우러러 하소연 합니다. 제음(題音)에 척량(尺量)할 때가 아니니 다시 풍임(風任)에게 영(令)을 전하여 사실에 따라 사정(查正)한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상전(上典)이 풍임(風任)을 초치(招致)하여 그로 하여금 사즐(查櫛)하게 하니 묘진(墓陳)은 10부(負)이고 허복(虛卜)<sup>1)</sup>의 횡침(橫侵)을 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의 집 위토(位土)<sup>2)</sup> 가운데에도 그대로 묵힌 곳이 있습니다.

右所志矣段 矣宅以田畓事 仰訴矣 題音內 尺量非其時也 更爲傳令於風任 從實查正教是乎所 矣上典 招致風任 使之查櫛 則墓陳 則十負是白遺 虛卜無數橫侵 岔除良 矣宅位土中 亦有仍陳是乎 故風任更爲衿記 以納是乎 故矣宅田廳卜數後錄 仰訴是乎 旆 風任衿記 亦爲帖連仰訴爲白去乎 參商教是後 特爲踏印成給 俾爲日後憑考之地 望良爲白只爲 行下向教是事 官司主 處分

이 때문에 풍임(風任)이 다시 금기(衿記)<sup>3)</sup>를 작성하여 들인 까닭으로 저희 집에 받이 있는 곳의 복수(卜數)<sup>4)</sup>를 후록(後錄)하여 하소연 합니다. 그리고 풍임(風任)의 금기(衿記)도 첩(帖)으로 연이어 우러러 하소연 합니다. 참상(參商)하신 뒤에 특별히 답인(踏印) 성급(成給)하시어 일후(日後)에 빙고(憑考)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하(行下)하실 일로 관사주(官司主)의 처분을 바랍니다.

기축(己丑, 1829) 3월 일 소지(所旨)

己丑三月 所志

풍임(風任)이 들인 금기(衿記) 입지(立旨)에 의하여 성급(成給)할 일이다.

依風任所納 衿記立旨 成給向事

초 4일(初四日)

初四日

1) 허결(虛結). 논밭이 없는 사람에게 대하여 논밭을 가진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물리는 결세.

2) 위전(位田)과 위답(位畓).

3) 지주의 성명과 조세의 액을 쓴 장부.

4) 결복(結卜)의 수량.

금기(衿記)

심교관택(沈敎官宅) 묘위전(墓位田) 금기(衿記)

서변면(西邊面) 행원리(行院里) 원동(院洞)에 복재(伏在)<sup>5)</sup>한 “민자(民字)” 147전(田) 4부(負) 6속(束). 144전 10부 9속내에 10부 묘진(墓陳)에 9속이 있음. 149전 3부 1속, 146전 4부, 136전 9속, 140전 1부 6속, 147전 1부. “벌자(伐字)” 1전 14부 3속내에 전진(田陳) 8부에 그대로 6부 3속이 있음. 81전 4부, 79전 4부 7속, 82전 7속, 71전 5속, 66전 2부 4속, 78전 4부 1속, 33전 1부 4속임.

서변면(西邊面) 행원리(行院里) 앞 들에 복재(伏在)한 당자(唐字) 59전 21부 1속내에 이모작(二毛作)이 11부 2속. “죄자(罪字)” 79전 3부 5속임. 이상 모두의 결복(結卜)<sup>6)</sup>이 54부 9속임.

용인관(龍仁官) 수결(手決)

衿記

沈敎官宅 墓位田衿記

西邊面行院里院洞伏在 民字百肆拾柒田 肆負陸束 百肆拾肆田 拾負玖束內 拾負墓陳在 玖束 百四十玖田 參負壹束 百肆拾陸田 肆負 百參拾陸田 玖束 百肆拾田 壹負陸束 百肆拾柒田 壹負 伐字壹田 拾肆負參束內 田陳捌負仍在 陸負參束 捌拾壹田 四負 柒拾玖田 肆負七束 捌拾貳田 柒束 柒拾壹田 伍束 陸拾陸田 貳負肆束 柒拾捌田 肆負壹束 參拾參田 壹負肆束 西邊面行院里前坪伏在 唐字伍拾玖田 貳拾壹負壹束內 貳作拾壹負 貳束 罪字柒拾玖田 參負伍束

都已上結卜 伍拾肆負玖束

己丑三月 日

1) 붙박이로 있다는 뜻으로 전답(田畓)이나 주택(住宅) 따위의 소재를 표시할 때 쓰는 말.  
2) 전지(田地)의 면적을 재는 단위.

## 등장(等狀)

## 等狀

화민(化民)<sup>1)</sup> 심능종(沈能種) 등(等)

化民 沈能種等

우리들이 아뢰는 통박(痛迫)<sup>2)</sup>한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들의 친산(親山)<sup>3)</sup>이 성주(城主)께서 다스리는 관할인 서변면(西邊面) 행원리(行院里)에 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지금에 조국인(趙國仁) 도사(都事)가 그의 아내를 우리들의 친산(親山) 단백호(單白虎)<sup>4)</sup> 5~60보(步)의 안쪽에 장사(葬事)지내고자 합니다.

右謹陳痛迫情由段 民之親山在於 治下西邊面行院里矣 不意今者 趙都事國仁 將欲過其妻葬於單白虎不滿五六十步之內 蓋趙家先山 在於民山越二岡之地 而民家入葬後 以白虎一脊 定爲界限 各自守護是乎乃 於此一麓無論 此疆爾界相距既如是碍逼 則揆諸道理參以法意 兩家俱非可擬於犯葬與否 是白去乙 彼家之忽此圖占者 雖緣民家之窮蟄 無所容 而爲親之心 秉彝同得 自顧痛迫 不得不泣血來 籲於公正之卞 爲白去乎 伏乞參商教是後 親審摘奸 痛加禁斷 俾保先壠 千萬望良爲只爲行下向教是事

저 조씨(趙氏) 가문(家門)의 선산(先山)은 저희들의 선산 두 산등성이를 넘어선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안에서 입장(入葬)한 뒤에 백호(白虎)의 한 등바루로써 지경의 한계를 정하여 각자기 수호(守護)하였습니다. 이에 저들이 한 산기슭은 말하지 않으니 이 지경과 저 경계의 거리가 이와 같이 좁고 가까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리(道理)에 헤아려보고 법률에 참고하면 두 가문이 모두 범장(犯葬) 여부(與否)에 빗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 가문이 갑자기 이곳을 점령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저의 가문이 비록 궁핍(窮蟄)하지만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버이를 위하는 마음의 땃땃함은 같거니와 스스로 돌아보면 통박(痛迫)한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판별을 하소연합니다. 바라건 데 참상(參商)<sup>5)</sup>한 뒤에 몸소 살피어 적간(摘奸)하고 더욱더 엄단하시어 저희들로 하여금 선릉(先壠)을 보존키로 천만번 바라나니 분부를 내리실 일입니다.

1) 자기 고장의 원에 대하여 자기를 가리켜 이르는 말.

2) 원통하고 절박함.

3) 부모의 산소.

4) 풍수지리설에서 주산(主山)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뻗어나간 여러 갈래의 산줄기에서 맨 안쪽에 있는 줄기.

5) 참작하여 헤아림.

성주처분(城主處分)

城主處分

계유(癸酉,1813)년 4월 일.

癸酉四月 日 化民 沈能種

화민(化民)	심능종(沈能種)	沈能性
	심능성(沈能性)	沈能恕
	심능서(沈能恕)	沈能學
	심능학(沈能學)	沈能奎
	심능규(沈能奎)	沈宜度
	심의도(沈宜度)	沈宜鵬
	심의봉(沈宜鵬)	沈宜膺
	심의응(沈宜膺)	沈宜堯
	심의요(沈宜堯)	沈宜舜
	심의순(沈宜舜)	沈宜禹
	심의우(沈宜禹)	

官 手決 彼隻率來事 十四日

관(官) 수결(手決) : 저 피고(被告)를 데리고 올 일이다.  
14일.

## 명문(明文)

강희(康熙) 32년 계유(癸酉, 1693) 12월 20일 최기현(崔起賢) 전(前) 명문(明文).

위 명문(明文)의 중요한 소치(所致)는 매득(買得)<sup>1)</sup>하여 갈아 먹기로 한 용인면(龍仁面) 갓면 원동(院洞)에 있는 “벌(伐)”자 전(田) 8부(卜) 하루에 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전(錢) 8냥을 봉상(捧上)하여 보내고 영영 방매(放賣)한다. 본(本) 문기(文記)는 다른 전답(田畓)을 아울러 주거나 허급(許給)하지 못한다. 뒷날에 동생(同生) 자손(子孫)들의 족류(族類)등이 행어나 잡담(雜談)을 하거든 이 글을 가지고 관청에 아뢰어 변정(卞正)<sup>2)</sup>할 일이다.

전주(田主) 이씨룡(李龜龍) 수결(手決)  
정인(訂人) 홍호인(洪好仁) 수결(手決)

## 明文

康熙三十二年癸酉 十二月二十日 崔起賢前 明文

右明文爲臥乎事叱段 要用所致 以買得耕食爲如乎 龍仁面邊面院洞 伏伐字田八卜 一日耕 庫乙錢捌兩 捧上爲遣 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 他田沓并付乙仍于 不得許給爲去乎 後次同生子孫族類等 幸有雜談爲去乙等 以文告官卞正事

田主 李龜龍 (手決)  
訂人 洪好仁 (手決)

1) 사들임.

2) 어떠한 사실이나 대목의 옳고 그름을 따져서 바로잡음.

## 명문(明文)

## 明文

옹정(雍正) 6년 무신(戊申,1728) 11월 1일 심두강(沈斗强) 앞 명문(明文).

雍正六年戊申 十一月初一日  
沈斗强 前 明文

위 명문(明文)에 관한 요지는 조상(祖上)이 전해 온 용인(龍仁) 서변면(西邊面) 평원복(平員伏)에 당자(唐字) 59의 답(畝) 21부(卜) 1속(束)과 죄(罪字) 70의 답(畝) 3부(卜) 5속(束)고 아울러 3일 경작하는 곳을 위 사람에게 가절전(價折錢) 70냥을 바꾸어 바치고 상전(上典)의 패자(牌子)<sup>1)</sup>에 따라 영영 방매(放賣)한다. 본기(本記)는 다른 전답(田畝)을 아울러 주는 탓으로 허급(許給)하지 못한다. 일후(日後)에 같은 자손 가운데에 행어나 잡담이 있으면 이 문기(文記)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변정(卞正)<sup>2)</sup> 할 일이다.

右明文事段 要用所致 以祖上  
傳來 龍仁西邊面坪員伏 唐字  
五十畝 二十一卜一束內 二作  
田十一卜二束 及罪字七十畝  
三卜五束 并三日耕庫乙 右人  
前價折錢七十兩 交易捧上爲  
遣 上典主牌子導良 永永放賣  
爲乎矣 本記段 他田畝并付乙  
仍于 許給不得爲去乎 日後同  
生子孫中 幸有雜談是去等 持  
此文記 告官卞正事

전주노(田主奴)	천명(千命)	수결(手決)
증인(證人)	김무진(金戊辰)	수결(手決)
	이순점(李順占)	수결(手決)
필집(筆執)	이석견(李石堅)	수결(手決)

田主奴	千命	(手決)
證人	金戊辰	(手決)
	李順占	(手決)
筆執	李石堅	(手決)

1)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공적으로 보내는 편지.  
2) 변명하여 바르게 잡음.

## 명문(明文)

## 明文

건륭(乾隆) 11년 병인(丙寅, 1746) 2월 1일 이서방(李書房) 닥 노복(奴僕) 필흥(必興) 앞 명문(明文)

乾隆十一年丙寅 二月一日 李書房宅奴 必興 前 明文

위 명문(明文)의 일에 관한 요지는 선조(先祖)가 전해오면서 경작해 먹었던 용인(龍仁) 서변면(西邊面) 주막(酒幕) 앞 평원(坪員)에 있는 “당자(唐字)” 59전(田) 21부(負) 1속(束)내에 2모작(二毛作) 전(田) 11부(負) 2속(束)과 “죄자(罪者)” 79전(田) 3부(負) 5속(束) 아울러 3일 경작할 수 있는 곳을 위 사람에게 가절전(價折錢)<sup>1)</sup> 80냥을 숫자에 따라서 받고 본 문기(文記) 1장과 패자(牌子) 1장(張)으로 영영 판 것이다. 뒷날 자손(子孫) 동족(同族) 가운데에 만약 잡담이 있으면 이 문기(文記)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변정(卞正)할 일이다.

右明文爲卧乎事段 要用所致 祖先傳來耕食 爲在龍仁西邊 面酒幕前坪員伏在 唐字伍拾 玖田 貳拾壹負壹束內 二作田 拾壹負貳束 及罪字柒拾玖田 參負伍束 并三日耕庫乙 右人 前價折錢文 捌拾兩 依數交易 捧上爲遣 本文記壹張 牌子壹 張 并以永永放賣爲去乎 日後 良中 子孫同生族類中 如有雜 談是去等 持此文記 告官卞正 事

전주(田主) 심대현(沈大賢)	수결(手決)
증인(證人) 박연세(朴連世)	수결(手決)
고석강(高碩江)	수결(手決)
필집(筆執) 안필문(安必文)	수결(手決)

田主	沈大賢	(手決)
證人	朴連世	(手決)
	高碩江	(手決)
筆執	安必文	(手決)

1) 값으로 작정한 돈머리.



## 명문(明文)

## 明文

가경(嘉慶) 7년 임술(壬戌,1802) 1월 13일 상인(喪人)<sup>1)</sup>  
심능종(沈能種) 앞 명문(明文)

嘉慶七年壬戌正月十三日 沈  
老人能種前 明文

위 명문(明文)의 일은 위 사람의 친산(親山)을 새로이 용  
인(龍仁) 서변면(西邊面) 원곡(院谷)에 차지한 일이다. 그  
러나 이곳은 집 뒤에 있는 애뽕(碍逼)<sup>2)</sup>한 땅으로 부득이  
옮기는 무렵에 가사(家舍)와 텃밭과 원림(園林)을 아울러  
방매(放賣)한다. 가사(家舍)는 사방에 집 25칸과 노복(奴  
僕)의 초가(草家) 9호(戶)이다. 텃밭은 합하여 7일에 경작  
할 수 있는 곳이다. 원림(園林)은 새로이 차지한 곳 좌우  
의 용호(龍虎)<sup>3)</sup> 및 안산(案山)<sup>4)</sup> 금양처(禁養處)<sup>5)</sup>이다. 아  
울러 700냥으로 절가(折價)<sup>6)</sup>한다.

右明文事段 右人親山 新占於  
龍仁西邊面院谷 而果是家後  
碍逼之地 故不得已移買次 家  
舍垡田園林 并以放賣爲去乎  
家舍段 四方家貳拾伍間 奴屬  
草家玖戶 垡田段 合爲柒日耕  
園林段新占處 左右龍虎 及案  
山禁養處 并折價柒百兩 而數  
多家率 猝難搬移 毋論某處  
可以客接之家垡 亦自右人買  
取 伐給之意 如是成文是遣  
田麁本文記 張照數許給後 氷  
氷放賣爲去乎 日後子孫族屬  
中 如有雜談是去等 以此卞正  
事

그리고 수많은 가솔(家率)과 옮기기 어려운 어느 곳 할 것  
없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가대(家垡)도 위 사람이 매취(買取)  
하여 대급(代給)<sup>7)</sup>하는 뜻이다. 이와 같이 성문(成文)하고 발  
이 있는 곳의 문기(文記)를 숫자에 비추어 허급(許給)한 뒤  
에 영영 방매(放賣)한다. 이 뒤 자손 족속(族屬)가운데에 잡  
담(雜談)이 있으면 이것으로 변정(卞正)할 일이다.

재주(財主) 이진사(李進士) 한성(漢晟)	수결(手決)
증인(證人) 배생원(裴生員) 광덕(光德)	수결(手決)
김학관(金學官) 형원(亨遠)	수결(手決)
필집(筆執) 사과(司果) 김상태(金尙兌)	수결(手決)

財主 李進士漢晟	(手決)
證人 裴生員光德	(手決)
金學官亨遠	(手決)
筆執 司果金尙兌	(手決)

1) 상제(喪制). 부모나 이미 아버지가 세상을 뜬 뒤에 조부모의 상중에 있는 사람.

2) 막히고 궁핍함.

3) 풍수설에서 집터나 밭자리의 왼쪽과 오른쪽이 지형을 이르는 말.

4) 집터나 밭자리의 맞은편에 있는 산.

5) 특정 지역의 산림에서 수목(樹木)의 벌채, 분묘(墳墓)의 설치, 농지의 개간 토석(土石)의 채취 등을 금지하고, 특히 소나무의 재식(栽植)과 육성(育成)에 힘쓰는 것을 말함.

6) 물건 값을 작정함.

7) 대금으로 지급함.

## 명문(明文)

## 明文

가경(嘉慶) 7년 임술(壬戌, 1802) 4월 일 심정승택(沈政承宅) 노(奴) 운재(雲才) 앞 명문(明文)

嘉慶七年壬戌 四月 日 沈政承宅 好雲才 前 明文

위 명문(明文)<sup>1)</sup>에 관할 일의 요지(要旨)는 용인(龍仁) 서변면(西邊面) 앞 들에 있는 “당자(唐字)” 59전(田) 21부(負) 1속(束) 내에 2모작(二毛作) 11부(負) 2속(束)이 있는 곳과 죄(罪字) 79전(田) 3부(負) 5속(束)을 합하여 3일에 경작할 수 있는 반답(反畓) 21두락지(斗落只) 및 전(田) 반일(半日)만에 경작할 수 있는 곳을 가절전문(價折錢文) 330냥(兩)을 숫자에 의하여 받았다.

右明文事 要用所致 龍仁西邊面前坪 伏在唐字 伍拾玖田 貳拾壹負壹束內 貳作拾壹負 貳束庫果 罪字柒拾玖田 參負伍束 合三日畓內反畓 貳拾壹斗落只 及田半日畓庫乙 價折錢文 參陌參拾兩 依數捧上爲遣 本文記伍張 牌子參張 并以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 告官卞正者

그리고 본(本) 문기(文記) 5장과 패자(牌子) 3장으로 영영 방매(放賣)한다. 이날 이후에 만약 잡담(雜談)이 있으면 이 문기(文記)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변정(卞正)할 것이다.

재주(財主)	초관(哨官)	김일대(金一大)	수결(手決)
증인(證人)	초관(哨官)	김상태(金尙泰)	수결(手決)
필집(筆執)	한량(閑良)	이장춘(李長春)	수결(手決)

財主哨官	金一大	(手決)
證人哨官	金尙泰	(手決)
筆執閑良	李長春	(手決)

1)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 명문(明文)

가경(嘉慶) 7년 임술(壬戌, 1802) 4월 일.  
심정승택(沈政承宅) 노(奴) 운재(雲才) 앞 명문(明文)

위 명문(明文)에 관한 일은 절실히 긴요한 곳이다. 용인(龍仁) 서변면(西邊面) 원동(院洞)에 있는 벌자(伐字) 가대(家垔)<sup>1)</sup> 제 81전(田) 4부(卜), 79전(田) 4부(卜) 7속(束), 82전(田) 7속(束), 71전(田) 5속(束), 66전(田) 2부(卜) 4속(束), 78전(田) 4부(卜) 1속(束), 33전(田) 1부(卜) 4속(束) 합하여 3일에 경작할 수 있는 곳과 “민자(民字)” 147전(田) 4부(卜) 6속(束), 144전(田) 10부(卜) 9속(束) 내에 10부(卜) 묵힌 149전(田) 3부(卜) 1속(束), 142전(田) 4(卜), 136전(田) 9속(束), 140전(田) 1부(卜) 6속(束), 147전(田) 1부(卜)과 “벌자(伐字)” 1전(田) 14부(卜) 3속(束) 내에 8부(卜) 그대로 묵힌 것을 합하여 4일에 경작할 수 있는 곳을 위 사람의 집에 가 절전문(價折錢文)<sup>2)</sup> 300냥(兩)을 숫자에 따라서 바꾸어 받았다.

그리고 상전주(上典主) 패자(牌子)로 드디어 성문(成文)<sup>3)</sup> 하여 주었다. 이에 구문기(舊文記) 12장으로 영영 방매(放賣)한다. 이 뒤에 상전택(上典宅) 자손가운데에 잡담(雜談)이 있으면 이 문기(文記)를 가지고 관창에 고하여 변정(卞正) 할 것이다.

전주(田主)	이진사(李進士)	택 노(奴)	복성(福成)	수결(手決)
증인(證人)		노(私奴)	이시(二市)	수결(手決)
필집(筆執)		최대렬(崔大列)		수결(手決)

## 明文

嘉慶七年壬戌 四月 日 沈政承宅 奴雲才 前 明文

右明文事段 切有堅用處 龍仁西邊面院洞 伏在 伐字家垔 第八十一田 四卜 七十畝四卜七束 八十二田七束 七十一田五束 六十六田二卜四束 七十八田 四卜一束 三十三田 一卜四束 合三日耕麩果 民字百四十七田 四卜六束 百四十四田 十卜九束內 十卜 陣百四十畝三卜一束 百四十二田四卜 百三十六田九束 百四十田 一卜六束 百四十七田一卜 伐字一田 十四卜三束內 八卜仍陳合四日耕麩乙 右人宅價折錢文 參百兩 依數交易捧上是遣上典主牌子 導良成文 以給爲旆 舊文記十二張 并以永永放賣爲去乎 日後矣 上典宅子孫族類中 如有雜談是去等 持此文記 告官卞正者

田主	李進士	宅奴	福成	(手決)
證人		私奴	二市	(手決)
筆執		崔大列		(手決)

1) 집의 터전.  
2) 값으로 작성한 돈머리.  
3) 문장이나 문서를 작성함.

금기(衿記).

벌자(伐字) 81전(田) 4부(卜)  
벌자(伐字) 79전(田) 4부(卜) 7속(束)  
벌자(伐字) 82전(田) 7속(束)  
벌자(伐字) 71전(田) 5속(束)  
벌자(伐字) 66전(田) 2부(卜) 4속(束)  
벌자(伐字) 78전(田) 4부(卜) 1속(束)  
벌자(伐字) 33전(田) 1부(卜) 4속(束)  
벌자(伐字) 1전(田) 14부(卜) 3속(束)  
내에 8부(卜) 불박이.  
민자(民字) 147전(田) 4부(卜) 6속(束)  
민자(民字) 144전(田) 10부(卜) 9속(束)  
내에 10부(卜) 불박이.  
민자(民字) 149전(田) 3부(卜) 1속(束)  
민자(民字) 146전(田) 4부(卜)  
민자(民字) 136전(田) 9속(束)  
민자(民字) 140전(田) 1부(卜)  
민자(民字) 147전(田) 1부(卜)  
합 57복(卜) 9속(束) 내에 18부(卜)  
불박이로 있는 39부 9속(束).

衿記

伐八十一田 四卜  
伐七十九田四卜七束  
伐八十二田七束  
伐七十一田五束  
伐六十六田二卜四束  
伐七十八田四卜一束  
伐三十三田一卜四束  
伐一田十四卜三內八卜伏  
民百四十七田四卜六束  
民百四十四田十卜九內十卜伏  
民百四十九田三卜一束  
民百四十六田四卜  
民百三十六田九束  
民百四十田一卜六束  
民百四十七田一卜  
合 五十七卜九束內十八卜  
伏在三十九卜九束

## 명문(明文)

가경(嘉慶) 7년 임술(壬戌, 1802) 13일  
상인(喪人) 심능종(沈能種) 앞 명문(明文)

위 명문(明文)에 관한 일은 이매(移買)<sup>1)</sup>함으로 인하여 가사(家舍) 17간(間)과 집 뒤 원림(園林)에 잡목(雜木)을 아울러 가절전문(價折錢文) 80냥으로 숫자에 따라서 받고 영영 방매(放賣)한다. 뒷날에 만약 잡담(雜談)이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변정(卞正)할 일이다.

재주(財主) 유학(幼學) 박성화(朴聖和) 수결(手決)  
증인(證人) 유학(幼學) 배광덕(裴光德) 수결(手決)  
필집(筆執) 사과(司果) 김상태(金尙兌) 수결(手決)

## 明文

嘉慶七年壬戌 正月十三日 喪人 沈能種 前 明文

右明文事段 以移買次 家舍拾柒間 家後園林雜木 并以價折錢文捌拾兩 依數捧上 永永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是去等 特此卞正事

財主幼學 朴聖和 (手決)  
證人幼學 裴光德 (手決)  
筆執司果 金尙兌 (手決)

---

1) 자기의 집이나 논밭을 팔아서 다른 집이나 논밭을 사는 일.

## 명문(明文)

## 明文

가경(嘉慶) 7년 임술(壬戌, 1802) 4월 일 상인(喪人) 심능종(沈能種) 앞 명문(明文)

嘉慶七年壬戌 四月日 喪人沈能種前 明文

위 명문(明文)에 관한 일은 위 사람의 친산(親山)이 새로이 열원(烈院)에 점령하였다. 그리고 우리 집 선산(先山)의 안산(案山)<sup>1)</sup> 여록(餘麓)이 위 사람의 친산(親山) 안산(案山)과 서로 연이은 까닭으로 서로가 좋아하는 정의로 부득이 절가(折價) 50냥으로 영영 방매(放賣)하였다. 제한(界限)은 길가 우물 위 조씨(趙氏) 밭 사이 초로(草路)로부터 가자(訶子)<sup>2)</sup>를 직통(直通)한다.

右明文事段 右人親山 親占於烈院 而鄙家先山案山餘麓 相聯於右人親山案山 故以相好之誼 不得已折價五十兩 永永放賣爲去乎 界限則自路邊井上 趙氏田間草路 直通訶子筵而草路左邊 則爲沈氏次知 草路右邊則爲趙氏次知 決定爲去乎 日後彼此子孫中 如有起鬧之弊 是去等 持此文記 憑考事

그래서 초로(草路) 왼쪽은 심씨(沈氏)가 차지하고 초로 오른쪽은 조씨(趙氏) 차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뒤에 피차(彼此) 자손(子孫) 가운데에 요란스러운 폐단이 생기면 이 문기(文記)를 가지고 증빙할 일이다.

재주(財主)	도사(都事)	조국인(趙國仁)	수결(手決)
증인(證人)	사과(司果)	김상윤(金尙允)	수결(手決)
필집(筆執)	유학(幼學)	배광덕(裴光德)	수결(手決)

財主	都事	趙國仁	(手決)
證人	司果	金尙允	(手決)
筆執	幼學	裴光德	(手決)

---

1) 집터나 밭자리의 맞은편에 있는 산.  
2) 사군자(使君子) 과(科)에 속하는 교목(喬木).

## 패자(牌子)

## 牌子

노(奴) 일복(一福)에게,

奴一福處

다름이 아니라, 요용(要用)의 소치(所致)는 용인(龍仁) 서  
변면(西邊面) 행원리(行院里)에 불박이로 있는 “벌(伐)” 자  
(字) 9두락(斗落)의 논 결부(結卜)<sup>1)</sup> 14부(卜)의 곳을 위  
사람에게 받은 값으로 영영 방매(放賣)한 일이다.

無他 以要用所致 龍仁西邊面  
行院里 伏在伐字 九斗落畓  
結卜拾肆卜廳 右人前捧準價  
永永放賣事

상전(上典) 심(沈) 수결(手決)  
기묘년(己卯年) 11월.

上典 沈 (手決)  
己卯十一月

---

1) 토지에 매기는 목(結)·짐(負·卜)·뒸(東)을 통틀어 이르는 말.

## 패자(牌子)

노(奴) 무원(武元) 에게,

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 용인(龍仁) 읍내면(邑內面) 마아동(麻牙洞)에 불박이로 있는 “지자(地字)” 제 41전(田) 2부(卜) 1속(束), 42전(田) 2부(卜)과 43전(田) 6부(卜) 8속(束)과 44전(田) 2부(卜) 4속(束)과 45전(田) 6속(束)을 합하여 5곳 3일간 경작할 수 있는 곳을 사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값을 받고 영영 방매(放賣)한다.

이에 본 문기(文記)는 다른 전답(田畓)과 아울러 허급(許給)하지 못하는 일이다.

병술년(丙戌年) 9월 일.

상전(上典) 심(沈) 원주택(原州宅) 수결(手決)

이것은 읍내 교리공(校理公) 산소(山所)에 위전(位田)으로 병술년에 자손 중에 읍내에 사는 윤진사에게 팔아 썼던 것이다. 그런데 무술년에 도로 물리어 위전(位田)<sup>1)</sup>으로 만들어 묘직(墓直)<sup>2)</sup>에게 맡긴 것이다.

## 牌子

奴武元處

無他 奄有緊用處 龍仁邑內面  
麻牙洞 伏在地字 第四十一田  
二卜一束 四十二田 二卜果  
四十三田 六卜八束果 四十四  
田 二卜四束果 四十五田 六  
卜 合五作三日耕麤 願買人處  
捧準價納宅 永永放賣 而本文  
記段 他田畓并付 不得許給事

丙戌九月 日

上典 沈 原州宅 (手決)

此是邑內校理公 山所位田 而  
歲在丙戌 子孫中 有賣用邑居  
尹進士者矣 戊戌還退 以爲位  
田 而任之墓直耳

1) 수확물(收穫物)을 향사(享祀)등의 일정한 목적에 쓰기 위하여 마련한 밭

2) 남의 묘를 지켜 보살피는 사람.



## 단자(單子)

## 單子

유학(幼學) 심의요(沈宜堯)는 나이 65세 계해생(癸亥生)이고 본관(本貫)은 청송(靑松)이다. 부(父)는 장사랑(將仕郎)이니 행직(行職)<sup>1)</sup>은 동몽교관(童蒙教官)이고 이름은 능종(能種)이다. 조(祖)는 대광보국(大匡輔國) 승록대부(崇祿大夫) 의정부(議政府) 영의정(領議政) 겸(兼) 영경연(領經筵) 홍문관(弘文館) 춘추관(春秋館) 관상감사(觀象監事) 세자사(世子師) 원임규장각제학(原任奎章閣提學)이니 증시(贈諡)는 문충공(文忠公)이고 이름은 환지(煥之)이다.

증조(曾祖)는 증직(贈職)<sup>2)</sup>으로 대광보국(大匡輔國) 승록대부(崇祿大夫) 의정부(議政府) 영의정(領議政) 겸(兼) 영경연(領經筵) 홍문관(弘文館) 예문관(藝文館) 춘추관(春秋館) 관상감사(觀象監事)이고 이름은 진(鎭)이다.

외조(外祖)는 통훈대부(通訓大夫)이니 행직(行職)은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 지제교(知製敎)겸(兼) 경연시독관(經筵侍讀官) 춘추관(春秋館) 기주관문신(記注官文臣) 겸(兼) 선전관(宣傳官)으로 이름은 이회상(李晦祥)이고 본관은 완산(完山)이다.

처(妻)는 이씨(李氏)이니 나이는 61세이고 정묘생(丁卯生)으로 호적은 완산(完山)이다. 부(父)는 학생(學生) 두형(斗亨)이다. 조(祖)는 학생(學生) 광훈(匡勳)이다. 증조(曾祖)는 학생(學生) 진서(眞瑞)이다. 외조(外祖)는 조봉대부(朝奉大夫) 행(行)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서윤검(徐潤儉)으로 본관(本貫)은 연산(連山)이다.

솔자(率子) 원택(瑗澤)은 나이 35세로 계사생(癸巳生)이다. 며느리는 이씨(李氏)는 나이 36세로 임진생(壬辰生)이고 호적은 완산(完山)이다. 남노(男奴) 삼손(三孫)은 나이가 18세로 기유생(己酉生)이고, 여비(女婢) 거복(巨福)은 나이가 35세로 임진생(壬辰生)이다. 그리고 여비(女婢) 천섬(天蟾)은 나이가 25세로 임인생(壬寅生)이고, 여비(女婢) 경임(庚任)은 나이가 18세로 기유생(己酉生)이다.

幼學 沈宜堯 年六十五 癸亥生 本靑松

父 將仕郎 行童蒙教官 能種 祖 大匡補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 兼領經筵弘文館春秋館觀象監事 世子師 原任奎章閣提學 贈諡文忠公 煥之

曾祖 贈大匡補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 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鎭

外祖 通訓大夫 行弘文館校理知製敎 兼經筵侍讀官 春秋館記注官文臣 兼宣傳官 李晦祥 本完山

妻 李氏 齡六十一丁卯生 籍完山

父 學生 斗亨

祖 學生 匡勳

曾祖 學生 眞瑞

外祖 朝奉大夫 行司憲府監察徐潤儉 本連山

率子瑗澤 年三十五 癸巳生

婦 李氏 齡三十六壬辰生 籍完山

奴三孫 年十八己酉 婢巨福 年三十五壬辰 婢天蟾 年二十五壬寅 婢庚任 年十八己酉

1) 품계는 높으나 임직(任職)은 낮은 경우의 그 관직을 뜻함.

2) 종이품 이상의 관원의 직계 존속이나 또는 충신·효자 혹은 학행이 높은 사람에 대하여 죽은 뒤에 관직 품계 등을 추증하던 일.

## 이씨부인묘갈명(李氏夫人墓碣銘)

## 李氏夫人墓碣銘.

심의요(沈宜堯)의 아내를 왕고(王考) 만포공(晚圃公)의 산소 아래 왼쪽 산등성이 수백무(武)<sup>1)</sup> 축좌(丑坐)의 언덕에 안장(安葬)하였다. 곧 이곳은 용인(龍仁) 서쪽 행원리(行院里)로 그 무덤에 기록한다. 부인(夫人)은 완산인(完山人) 덕양군(德陽君) 휘(諱) 모(某)의 후손(後孫)이다.

덕양군(德陽君)의 후손 가운데에 저명한 사람이 많으니 한림(翰林)에 설서(說書)를 겸하였다. 휘(諱) 경무(敬整)는 판서(判書)를 역임하니 시호(諡號)는 문간(文簡)이요 휘 기익(箕翊)은 문장(文章)으로 이름이 있으니 모두 덕양군(德陽君)의 6세 이하 조상(祖上)이다. 조(祖) 휘(諱) 인겸(仁謙)도 문장으로 사우(士友)들에게 중후한 대접을 받았다. 부(父) 휘(諱) 용관(用寬)은 경전(經傳)을 넓게 섭렵하여 강마(講磨)<sup>2)</sup> 자수(自修)하였다. 용관(用寬)의 부인 권씨(權氏)는 현감(縣監)을 지낸 모(某)의 딸로써 강도(江都)에서 절사(節死)<sup>3)</sup>한 순창(順昌)의 손녀이다.

군(君)이 정종(正宗) 경신(庚申, 1800) 7월 6일에 출생하여 어릴 때부터 부모를 잘 섬기어 승순(承順)하였다. 또한 여공(女工)에 있어서는 종일토록 그 날의 일과를 다 마치고 말았다. 이에 부모는 그를 기특하게 여기고 사랑하더니 자라서 의요(宜堯)에 시집왔다. 그리고 얼마 지내지 않고 괴질에 걸리어 10년이 넘도록 고치지 못하고 당저(當寧)<sup>4)</sup> 정해(丁亥, 1827) 10월 14일에 죽으니 나이가 28세였다.

사람됨이 공신(恭愼) 단량(端諒)하여 여사(女士)의 행실이 있었기 때문에 제매(姊妹) 축리(妯娌)<sup>5)</sup>의 사이에 자못 간언(間言)<sup>6)</sup>이 없었다. 저 공덕(恭德)의 기본(基本)과 신덕(愼德)의 문호(門戶)와 단덕(端德)의 표상(表象)과 양덕(諒德)의 충심(衷心)이 4가지를 갖추어 군자(君子)가 본받았다. 군(君)이 나에게 현명한 도움이 된 것은 이미 그렇거니와 그 평생에 병(病)과 함께 신음한 날이 열에 아홉이었다.

沈宜堯妻 葬于王考晚圃公 墻下左崗數百武丑坐之原 卽龍仁西邊行院里 誌于墓曰君 完山人德陽君諱某之後 子孫多顯著者 翰林兼說書 諱敬整 判書諡文簡 諱箕翊 有文章名 皆君之六世以下祖也 祖諱仁謙 亦以文章 見重士友 父諱用寬 博涉經傳 講磨自修 夫人權氏 縣監某之女 江都節死 順昌孫也

君以 正宗庚申 七月初六日生 自幼事父母 巧於承順 執女工 每窮日滿課乃止 父母奇愛之 及長歸于宜堯 未幾患奇疾 積十年不能醫 卒於當寧丁亥十月十四日 得年二十八 爲人恭愼端諒 有女士行 故姊妹妯娌之間 殆無間言 夫恭德之基也 愼德之門也 端德之表也 諒德之衷也 四者 備而君子則焉 君之於余 能爲賢助者 其道是已然 其平生與病 俱老呻吟之日 居十之九焉

1) 거리에 있어서 3척(尺)의 단위.  
2) 학문이나 기술을 닦음.  
3) 절개를 지켜서 죽음.  
4) 그때의 임금.  
5) 형제의 아내가 서로 부르는 말.  
6) 이간(離間)하는 말.

때문에 그 어진 말과 밝은 식견(識見)이 일에 나타나지 못하니 애석하다. 이미 병(病)이 깊어서 집을 다스리지 못하니 집안이 더욱더 청한(淸寒)<sup>7)</sup>하였다. 그러나 남은 것이 있으면 선뜻 남에게 주므로 내가 나무라면 궁색한 사람을 보고 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였다. 심지어는 닭과 개에 있어서도 반드시 들어서 먹였다. 내가 그것을 제지하면 금수(禽獸)는 기다려 먹으니 참아 먹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이에 나는 그의 성품이 하늘에 근본한 것이요. 애써하지 않음을 알았다. 이 때문에 다시는 그 일을 말하지 않았다. 일찍이 부당(夫黨)<sup>8)</sup>이 신부(新婦)를 맞이하여 집안이 가난하여 신부가 누추(陋醜)하다고 하면서 몰래 비웃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군(君)이 묵연(默然)하므로 모부인(母夫人)이 짐짓 군(君)에게 물으니 군이 천천히 대답하기를 「가난한 것이 민망한데 어떻게 웃겠습니까.」 라고 말하였다. 이에 모부인이 그 말을 거론하면서 나에게 말하기를, 「이로부터 너의 아내가 어진 것을 알았다.」 고 하였다.

내가 우연히 군(君)과 남의 잘 잘못을 따지는데 군(君)이 얼마간 듣고 있다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으니 모(某)는 이와 같고 모(某)는 저와 같다.」 고 하였다. 나는 처음에 믿지 않았으나 이윽고 그것을 살펴보니 모두 군(君)의 말과 같았다. 아마도 그 마음에 욕심이 없고 맑은 까닭으로 명예(明譽)가 이와 같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악옹(岳翁)<sup>9)</sup>은 명문(名門)의 덕성(德性)으로 군(君)이 이 못난 사람의 아내가 되어서 항상 곤궁하여 굶주리고 추웠으나 편안하고 소박(素朴)하였다. 그리고 한 가지 일도 친정아버지에게 누가 되지 않았다. 악옹(岳翁)은 일찍이 나에게 이르기를, 「내가 병든 딸을 자네에게 보냈으니 나는 죽어서도 눈을 감기 어렵다.」 고 하셨다.

故其仁言喆識 不能具著於事  
惜哉既病甚 不克家 家益淸寒  
然有所餘 輒以與人 余戒焉  
則曰見窮者 不能不與也 至於  
鷄犬 必損其食以飼 余止之  
則曰禽獸 待人而食者 不忍不  
飼也 余知其性之本於天 而非  
強爲也 故亦不復言也 嘗觀於  
夫黨之迎婦 家窶而婦陋 人多  
竊笑 君獨默然 母夫人故問君  
君徐對曰貧其愍矣 何笑爲也  
母夫人舉其語 語余曰自是 知  
汝妻之仁也 余偶與君藏否人  
君聽之良久 乃曰不然 某如此  
某如彼 余始不信 已而察之  
皆如君言 蓋其心無欲而淸故  
能明睿如此也 以苦岳翁 名門  
德性 而君爲蟄人妻 常困飢寒  
而安之若素 不以一事 累於翁  
翁嘗謂余 曰吾以病女屬君 吾  
死難瞑矣

7) 청빈하고 한산(寒酸)함.

8) 남편 쪽의 본종(本宗).

9) 장인(丈人).

그러나 그 사람은 여중(女中)에 안자(顔子)이다. 신실하다, 이 말이여! 나도 그가 도(道)를 즐기고 가난을 편안하고 여길 것을 바랐으나 하늘이 돕지 않고 명도(命道)<sup>10</sup>가 어긋났도다. 슬프고 아프도다! 살았으나 오래 살지 못하였고, 죽었으되 후사(後嗣)가 없으니, 그 슬픔이 어느 때에 그치며 어느 날에 다 할 것인가. 이에 명(銘)합니다.

아~! 부인(夫人)이여 성품이 근본이 어질도다.  
빙옥(氷玉)<sup>11</sup>같은 그 바탕이요. 덕성(德性)이 순박하다.  
공손히 모훈(姆訓)을 이어받아서 길쌈을 잘 하였도다.  
가난하여도 도(道)를 즐겨하니 여중(女中)에 안연(顔淵)이  
로다.  
부자(夫子)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즐건(櫛巾)<sup>12</sup>을 받들었네.  
아침이나 저녁이나 편안하게 아버이를 봉양하였네.  
천호(泉戶)<sup>13</sup>가 한번 닫히니 신(神)을 믿기 어렵네.  
글로써 새기노니 그 자취는 없어지지 않으리라.

然其人 女中顔子也 信哉是言  
余亦冀其樂道而安貧 天不保  
佑 命道多舛 悲夫痛戾 生而  
無年 歿而無嗣 其爲哀者 何  
時而止 其爲悲者 何日而竭  
銘曰

嗟乎夫人 性本仁兮  
氷玉其質 德則淳兮  
恭承姆訓 善組紉兮  
貧而樂道 女中淵兮  
無違夫子 奉櫛巾兮  
朝而夕而 安養親兮  
泉戶一閉 難謹神兮  
文以銘之 跡不淪兮

10) 운명과 재수.

11) 맑고 깨끗하여 아무 티가 없음.

12) 빗과 수건. 곧 세수(洗手) 도구를 일컬음.

13) 황천으로 가는 물.

## 장택기(葬擇記)

## 葬擇記

오른쪽으로 돌아온 경태룡(庚兌龍)으로 건방향(乾方向)으로 회전하여 임방향(壬方向)으로 입수(入首)<sup>1)</sup>하였다. 해좌(亥坐) 사향(巳向)의 좌향으로 갑·묘방(甲卯方)에 득수(得水)<sup>2)</sup>하고 오방(午方)에 파(破)<sup>3)</sup>가 되었다. 건선명(乾仙命)은 정묘화(丁卯火)로써 수(水)를 꺼리고 정오행(正五行)에 병진토(丙辰土) 홍범오행(洪範五行)에 계축목(癸丑木)의 운(運)이 좋다. 참·파토(斬破土)는 일시(日時)에 따라서 한다.

그리고 개금정(開金井)<sup>4)</sup>할 때에는 임신생(壬申生)을 기(忌)한다. 혈심(穴深)은 3척(尺) 5촌(寸)의 깊이로 판다. 과명(課命)은 계미(癸未)·임술(壬戌)·무자(戊子)·정사(丁巳)이다. 정구(停柩)<sup>5)</sup>와 설악(設幄)은 곤방(坤方)을 꺼린다. 안장(安葬)은 9월 11일이고 하관(下棺)은 사시(巳時)이다. 호충(呼冲)<sup>6)</sup>은 기묘(己卯)·정유(丁酉)·무오(戊午)·정해생(丁亥生)등이니 하관(下棺)할 때에 조금 피한다. 일을 주관하는 형(兄)은 계해생(癸亥生)이다.

右旋庚兌龍 乾轉身壬入首  
亥坐巳向 甲卯得午破  
乾僊命丁卯火 忌水 正 丙辰土  
洪 癸丑木 運  
斬破土 隨日時 癸未  
開金井忌壬申 課命 壬戌  
穴深三尺五寸 戊子  
丁巳

停柩  
忌坤方  
設幄  
安葬 九月十一日  
下棺 巳時  
呼冲 己卯丁酉戊午丁亥生等  
少避  
主事兄 癸亥生

1) 풍수지리에서 산소(山所) 바로 뒤쪽에서 산소 가장자로 꺾어들어오는 지점.  
2) 산소에서 바라보아 물이 처음 들어오는 지점의 물.  
3) 산소에서 바라보아 물이 마지막으로 빠져나가는 지점의 물. 또는 그 지점.  
4) 산릉(山陵)이나 묘소(墓所)등을 조성할 때 관(棺)이 들어갈 구덩이를 파는 일.  
5) 행상(行喪) 때 상여를 길에 머물러 쉼.  
6) 풍수지리에서 장사(葬事) 지내는 년도 혹은 일자가 사람의 생년과 충(冲)함을 일컬음.

